

6 · 25전쟁사 3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③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서 문



전쟁은 인류가 이룬 번영과 행복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며 고귀한 인간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6·25전쟁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과 인류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2003년부터 6·25전쟁의 실상과 교훈을 담은 『6·25전쟁사』 편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10년간 총 18권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6·25전쟁사』 제3권에는 한국정부와 국군의 재편성, 미군의 참전 결정과정 및 참전, 축선별 지연작전, 북한군의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 소상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세계냉전이 종식된 이후 관련 당사국들이 새롭게 공개한 비밀문서들에 수록된 풍부한 사료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 및 학계와 연구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국민과 장병들에게 국가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쟁 중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 산화하신 전몰장병과 무명용사들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 계속해서 6·25전쟁의 실상과 교훈을 더욱 정확하게 기록하여 군사편찬연구소가 명실상부한 국방사와 전쟁사의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각고 끝에 출간되는 본서가 6·25전쟁에 대한 연구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켰다고 확신하며, 책이 나오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군사편찬연구소장과 집필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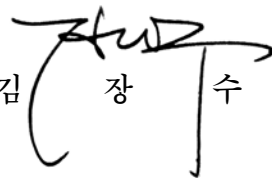
2006년 11월 30일

국방부장관

김

장

수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김장수' (Kim Jang-su), written in a cursive style. The signature is positioned to the right of the printed name '김 장 수'.

발 간 사



당 군사편찬연구소는 지난 2003년부터 6·25 전쟁사의 완결판을 편찬한다는 목표로 10년에 걸친 장기 사업으로 『6·25전쟁사』(총 18권) 재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쟁사는 당 연구소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가 1967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모두 11권의 전집으로 발간한 것입지만, 발간 시기가 너무 오래되어 일찍이 군과 학계에서 증보 편찬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당 연구소는 그 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특히 최근에 전쟁당사국들이 공개한 사료와 참전자의 증언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쟁사를 재발간하기로 결정하고, 작년 말까지 『6·25전쟁사』 제1·제2권을 발간한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결과물을 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6·25전쟁사』 제3권은 수도서울이 함락된 이후 1950년 6월 29일 한강방어선에서부터 7월 13일 금강-소백산맥선 방어선으로 물러서는 지연전 상황을 기술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유엔의 결의 상황과 미군 참전, 한국 정부와 국군의 재편성 내용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전쟁사를 새롭게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공개된 구 소련문서 및 북한 노획문서 등 공산군측 1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적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적의 기도와 부대운동, 축선별 기동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축선별 현지의 전적지를 답사하여 문서자료와 증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거나 논란이 되어 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 정찰과 추가적인 증언 청취를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군사전문가들과의 토의와 워크숍을 통

해 객관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측면에서 토의를 통해 자료의 타당성 여부와 내용을 분석하였고, 또 군 원로와 학계전문가를 포함하여 군 내 전쟁사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각 군 군사연구실, 각 군 대학 및 사관학교 교수 등 많은 분이 참여하여 토의하였습니다.

특히 『6·25전쟁사』 제3권은 내용 구성상 기존 전쟁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술방식 면에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본말체 방식을 채택하여 기술하였고, 또 전투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상황도를 당시 군사지도를 활용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축선별 전투를 전장 기능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당시 작전상황을 입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번 전쟁사는 국방을 담당한 장병들에게 군사 전문성과 함께 야전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측면에 주로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으며, 우리 국민들의 자유수호의지와 정부의 전쟁지도, 유엔군의 역할, 그리고 국군의 용전분투상 등 전쟁의 실상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분석과 집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집필자인 양영조·남정옥·손규석·박동찬 연구원과 육·해·공군 전사관인 임성채·서규화 중령·이준혁 사무관, 그리고 전문토의에 도움을 준 김주흠·김양구·이석희·김창규 중령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원고를 보완하기 위해 애써 주신 연구소 자문위원님(백선엽 위원장, 김동호·정용근 위원)을 비롯하여 군 원로와 관련학자 등 많은 분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투 분석에 도움을 준 육·해·공군 교육기관 전문가들과 전쟁 당시의 군사지도를 제공해 준 육군 지형정보단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선학제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2006년 11월

안 병 한

군사편찬연구소장 안 병 한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1, 2, 3, ……
목: 1), 2), 3)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 안에 넣었다.
3. 한자 및 외국어로 표기하는 인명·지명·직위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하였다.
(1) 각 절에 처음 나올 경우에 () 안에 원어로 표기하였다.
(2) 지명의 경우, 저명한 지명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만을 ()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3) 외국 인명·지명은 이를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 안에 원어를 넣었다.
4. 주기(註記)는 인용된 원문의 전거(典據)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 각 장 말미에 실었으며,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붙였다.
5.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평이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6. 연대는 모두 서기(西紀)로 표기하였다.
7.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완결된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린 표시
 - 『 』: 저술이나 서명을 표시
8. 이 책의 부록으로 연표·관계 자료 목록을 책 끝에 실었다.
9. 이 책에서 상황도는 1950년대 1:5만 군사지도를 사용하였으며, 독도법과 군대부호 등은 종전의 방식을 따라 작성하였다.
10. 북한군과 관련한 용어는 군의 '정신교육지침'과 국방부의 대외 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공산군, 인민군 등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목 차

- 장관 서문
- 발간사
- 일러두기

제 1 장 정부의 전시 조치 / 1

1	3
2	5
3	15
4	21
5	34
6	가	44

제 2 장 유엔의 결의와 미국의 참전 / 53

1	55
2	60
3	93
4	102
5	가	112

제 3 장 한강선 방어작전 / 123

1	125
2	131
3	-	144
4	163
5	211
6	가	226

제 4 장 국군의 재편성과 유엔군의 창설 / 243

1	245
2	248
3	266
4	280
5	285
6	가	297

제 5 장 서부 지역 지연작전 / 307

1	309
2	316
3	342
4	358
5	-	368
6	-	392
7	가	410

제 6 장 중서부지역 지연작전 / 425

1	427
2	429
3	443
4	450
5	474
6	가	504

제 7 장 중동부지역 지연작전 / 517

1	519
2	521
3	532
4	557
5	가	597

제 8 장 동해안지역 자연작전 / 611

1	613
2	616
3	626
4	644
5	가	655

제 9 장 해군작전 / 667

1	669
2	672
3	703
4	가	726

제10장 공군작전 / 735

1	737
2	740
3	744
4	758
5	가	798

제11장 총 평 / 815

1	817
2	820
3	822

부 록 / 825

.....	826
-------	-----

■ 참고문헌 / 830

■ 찾아보기 / 837

〈표 목 차〉

<표 1-1>	전쟁발발 당시 전국 형무소 현황 및 위치	25
<표 1-2>	정부의 피난민 분산계획 하달	31
<표 1-3>	북한 게릴라 활동 내용	39
<표 2-1>	1949년 한국을 승인한 국가	63
<표 2-2>	미국 국가안보기관의 6·25전쟁 인지시간(미국시각)	81
<표 3-1>	한강선상의 전투부대 편성 비교	141
<표 3-2>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주요 지휘관 편성	142
<표 3-3>	북한군 주요 지휘관	165
<표 4-1>	계엄사령부 편성표(1950. 8. 10)	251
<표 4-2>	제1군단 지휘관 및 참모현황(1950. 7. 5)	256
<표 4-3>	육군 재편성 후 부대 편성(1950. 7. 5)	257
<표 4-4>	제1군단의 예하 사단 병력 현황	261
<표 4-5>	전남북 편성관구사령부 현황	262
<표 4-6>	6·25전쟁 당시 전국 경찰서 현황	289
<표 5-1>	북한군 부대 운용	322
<표 5-2>	북한군 부대 운용	324
<표 5-3>	미 제24사단 예하 부대 한반도 전개 현황	330
<표 5-4>	미 제24사단 지휘관 현황	336
<표 5-5>	국군 제1군단 예하 사단 병력 현황	341
<표 5-6>	스미스부대 출동 병력 및 장비 현황	344
<표 5-7>	제52포병대대(-) 출동병력 및 장비 현황	345
<표 5-8>	제17연대 출동 병력 및 장비	362
<표 5-9>	제17연대 지휘관 현황	362
<표 6-1>	중서부지역 북한군 지원화력	430
<표 6-2>	국군 제1군단의 재편성간 병력증가 실적	438
<표 7-1>	중동부지역 북한군 지원화력	522
<표 7-2>	중동부지역 국군 병력현황(1950. 6. 29~7. 7)	531
<표 8-1>	제766부대 편성	616
<표 8-2>	동해안지역 북한군의 전투편성	617
<표 8-3>	동해안지역 북한군 포병화력	617
<표 8-4>	동해안지역 북한군 주요 지휘관 현황	617

<표 8-5>	국군 제3사단 지휘관 및 참모 편성	624
<표 9-1>	미 극동해군의 기동편성	706
<표 10-1>	공군 부대편성 현황(1950. 7. 8)	748
<표 10-2>	미 극동공군의 전술부대 편성 현황(1950. 6. 25)	760
<표 10-3>	미 극동군사령부 편성 현황(1949. 10. 15)	762
<표 10-4>	미 극동공군의 전과	804

〈상황도 목차〉

<상황도 3-1>	한강선 방어작전	129
<상황도 3-2>	김포-오류동 상황도	145
<상황도 3-3>	김포비행장 역습	150
<상황도 3-4>	원미산 공방전	156
<상황도 3-5>	영등포 부근 상황(29일)	179
<상황도 3-6>	노량진 부근 상황(29일)	181
<상황도 3-7>	신사리-말죽거리 상황(29일)	185
<상황도 3-8>	노량진 부근 전투(7월 3일 상황)	206
<상황도 3-9>	영등포 부근 상황(7월 3일)	208
<상황도 3-10>	금곡리-풍덕천 부근 상황	216
<상황도 3-11>	영등포-수원 부근 상황	217
<상황도 3-12>	시흥-안양 전투	222
<상황도 5-1>	서부 지역 지연작전	313
<상황도 5-2>	죽미령 전투	352
<상황도 5-3>	갈곶리 전투	360
<상황도 5-4>	평택-천안 전투	370
<상황도 5-5>	평택 전투	378
<상황도 5-6>	천안 전투	387
<상황도 5-7>	전의-조치원 전투	394
<상황도 5-8>	전의 전투	401
<상황도 6-1>	중서부지역 지연작전-1	439
<상황도 6-2>	중서부지역 지연작전-2	441
<상황도 6-3>	이천-곤지암 지연작전	446

<상황도 6-4>	진천 전투	452
<상황도 6-5>	미호천 방어작전	470
<상황도 6-6>	음성지구 전투	476
<상황도 6-7>	음성-괴산 철수작전	497
<상황도 7-1>	중동부지역 지연작전	523
<상황도 7-2>	충주-수안보 전투	534
<상황도 7-3>	이화령-조령 진지점령	552
<상황도 7-4>	국군 제10연대의 신림전투	561
<상황도 7-5>	1950년 7월 6~8일 피·아 남한강 배치	566
<상황도 7-6>	국군 제10연대 제1대대의 매포리 기습전	569
<상황도 7-7>	7월 8~9일 북한군의 남한강 도하 공격 상황	575
<상황도 7-8>	7월 9~10일 단양 외곽지역 전투상황	584
<상황도 7-9>	7월 11~12일 북상리-마조리 전투상황	593
<상황도 8-1>	동해안지역 지연작전	621
<상황도 8-2>	7월 1일 국군 제23연대의 울진탈환전 상황	636
<상황도 8-3>	국군 제23연대의 울진 철수	642
<상황도 9-1>	각 정대별 해상 경비 구역	676
<상황도 9-2>	구암산지구 전투 요도	685
<상황도 9-3>	서해안 봉쇄작전 요도	693
<상황도 9-4>	미 해군의 함포사격·항공강습작전 요도	722
<상황도 10-1>	미 극동공군의 작전 책임구역(1950. 6. 25)	759
<상황도 10-2>	미 극동공군의 전술부대 재배치 현황	768
<상황도 10-3>	공지합동작전(근접항공지원작전) 절차 요도	786



제 1 장 정부의 전시 조치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국내 및 국제 정세
제 3 절	정부와 국회의 대내외 조치
제 4 절	치안 유지 및 피난민 조치
제 5 절	사법 및 사회·경제 조치
제 6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개 요

북한군의 남침 후 초기 전투에서 고군분투한 국군은 한강 남안으로 철수하여 계속 적을 방어하였고, 이후 미 지원군과 더불어 새로운 작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국군은 시종 일방적으로 적에게 밀리고 있었으나, '미군이 지원할 때까지 최대한 적을 방어한다', 그리고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번다'는 작전방침에 따라 사력을 다하여 적을 지연하였다. 본 내용에서는 한강 남안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한 6월 28일부터 금강으로 물러나 방어선을 편성하는 시기인 7월 13일까지 상황을 망라하였다.

정부는 북한군의 기습남침을 받았을 당시,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국방부, 내무부, 법무부), 국회, 사법부 등은 각 부서별로 당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시 비상계획을 준비하지 못한 신생 정부로서는 극심한 혼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인적구성과 경험, 법령 및 제도 등 국가역량 면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각 부처 간의 관계와 역할 분담, 군의 행정기관(검찰, 경찰)에 대한 통제 등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정부의 전시 전환조치는 최초 국방부가 전국에 비상을 발령하고, 내무부가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하달하는 등 행정부의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외교 조치를 전개하였고,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들은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당하자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서울시민들은 정부 요인들이 상당수 피난을 떠났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서울이북에서 온 피난민과 부상병이 계속 시내로 밀려 내려오는 것

을 보고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다. 많은 시민들이 가용한 모든 수송수단을 동원하여 소지품을 꾸러 피난길에 나섬으로써 장사진을 이루었다.

한편 북한군이 서울 심장부에 진입한 것은 1950년 6월 28일 11시 30분이었다. 당시 북한군과 그 동조자 및 좌익분자들은 서울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김천, 군산, 원주 등지가 이미 '해방'되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는가 하면 마포와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하여 각 경찰서 구치소를 열어 범죄자들을 모두 석방시켰다. 그러므로 수감자 탈옥으로 인한 파괴, 보복 등 사회 혼란상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남침과 함께 게릴라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아군작전에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었다. 김일성은 서울을 점령한 날 평양방송을 통해 "인민은 빨치산활동을 전개하여 후방을 교란시키고 도처에서 인민폭동을 일으켜 군수품 수송을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유엔에 지원을 호소하였고, 정부의 요청을 받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6월 28일 북한의 무력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필요한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제2차 결의안을 제의함으로써 자유진영의 행동통일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침략자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38 선으로 철퇴를 실현토록 권유하라"는 통첩을 소련 외무성에 전달하였다.

아울러 6월 29일 맥아더 원수는 한국전선을 시찰하여 상황을 파악하였고, 도교의 극동군사령부로 복귀하여 지상군의 투입과 38 선 이북지역에 대한 해·공군의 작전단행만이 북한의 침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 승인을 긴급히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30일 미군 지원에 관한 성명을 유엔과 전 세계에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극동 해·공군은 38 선 이북지역의 북한 군사시설을 강타하는 한편, 지상군은 처음 1개 전투단에서 다시 2개 사단의 출동이 승인되어 본격적인 지원준비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이제 전쟁은 또 다른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제 2 절 국내 및 국제 정세

1. 국내 정세

정부 각 부처는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이동한 다음 충청도청에 자리 잡고, 국방본부를 중심으로 전쟁물자의 긴급수송에 협조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7월 1일 목포를 경유하여 대구로 옮기게 되었고, 정부요인들도 한때 전주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대전으로 되돌아오는 혼란을 겪었다.¹⁾ 이때 때마침 유엔의 한국지원 결의와 미 지상군의 지원소식이 전해져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2일에는 미군 선견부대가 북상 배치되고 이어서 미 제24사단의 주력이 부산에 상륙 중이므로 관계 각료들은 이곳에서 군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준비하고, 대구에 있는 대통령은 7월 4일에 “난국에 처한 국민의 분기”를 촉구하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결의를 다졌다.²⁾

이에 호응하여 국회에서는 신익희 의장을 비롯하여 7명으로 비상위원을 선정하여 외교, 군사, 정보, 식량, 정치공작 등 각 분야에 걸쳐 긴급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유엔군과 국군장병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채택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국회는 그동안 행정부에 대하여 수도 서울의 실험책임을 추궁하면서 전시내각의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1일에 총참모장의 교체만을 단행하였을 뿐 변동이 없었으므로 다시 이를 거론코자 하였으나, 이때 대통령과 일부 각료만이 대구에 체재하고 그 대부분이 대전에서 사태를 수습 중에 있었으므로 국회의 요구를 관철할 수가 없었다.³⁾

대전시 공관에서는 6월 30일 한경직, 강신명 목사 등이 주축이 되어 종교 및 사회단체 지도층 인사들을 규합하여 국군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유동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인 원호활동을 전개하다가 대구에 이르러, 68명으로 구성된 '전시선전대책위원회'로 확대하여 시도별 쫓기대회를 위시한 후방의 치안유지와 오염 적발, 그리고 군·경 원호활동 등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한편, 조국의 방위를 위하여 분기한 청년학도들은 각처에서 군에 자진 입대하는 한편 별도의 학도의용군으로서 수도 및 제3사단에 편입하여 안강-기계-포항-진천-청주-마산 등지에서 젊은 생명을 아낌없이 불살랐다.

이 편성과 활동은 개전전의 학도호국단이 근간이었다. 이들은 6월 29일에 수원에서 국방부 정훈국 후원으로 최초의 비상학도대를 편성하여 7월 1일에는 대전에서 대한의용학도대로, 그리고 동월 19일에는 대구와 부산에서 각각 학도의용대로 개편하여 모병과 편성을 추진하였고 이 무명의 학도들은 이후 격전지로 출전하였다.⁴⁾

1950년 7월 5일 의무병제의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대상이 된 장정(1950년 만 20세)들이 소집되었고 7월 초순부터 많은 장정을 강제 모병하거나 또는 학생이 지원함으로써 교육을 받고 전투부대에 배치되었다.⁵⁾ 또한 100명의 학도들이 미군의 지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훈련을 받았고, 900명의 재일교포학도들이 혈서를 뿌리며 고국으로 달려 나와 공산군을 물리치는데 일조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의 호응으로 전시총력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국군은 7월 8일에 총참모장 포고 제1호로서 전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 이때 북한은 차령산맥을 연하는 선을 넘어 금강을 향해 남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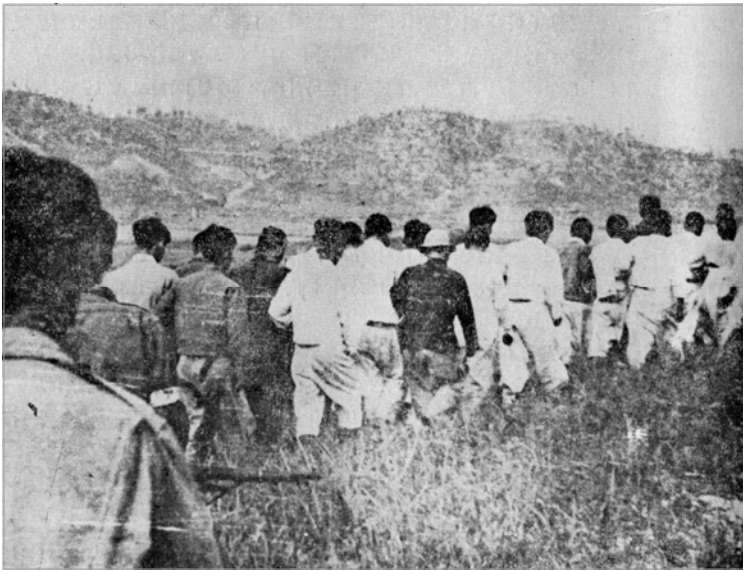


학도병

이 무렵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따른 국민의 협조를 요망하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날로 백성욱 내무의 후임으로 조병옥을 임명하였으나 입법부의 요구사항인 거국개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 마찰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전 남한을 석권한다는 것을 전제로 7월 1일에 이른바 전시동원령을 선포하여 18~36세까지의 전체 주민을 강제 동원하였다. 이는 부족되는 병력을 강제로 충당키 위한 것이었으며 그 수법이 무자비하여 25,000명에 이르는 치안대 병력을 급편하였다. 이들은 그들로 하여금 선전선동을 꾀하다가 그 성과가 부진하자, 6일에는 새로운 당 결정을 내세워 본격적인 강제 색출 동원에 의한 납치수법으로 전환하였다.⁶⁾

이로 말미암아 강제로 피랍된 남한의 청년인원수가 20만으로 추산되었는데, 당원과 용공분자들을 중심으로 안동, 대전, 광주여단 등을 편성하여 그 일부는 전선에 몰아넣고, 나머지는 이북으로 강제로 납북하였다. 그들은 동월 14일에 이른바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른 정령이라 하여 '남반부 해방지구의 군·면·리·동의 인민위원회 선거시행에 관하여'라는 것을 발표하여 인민위원회 조직을 준비하였다.⁷⁾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그들은 소련의 유엔 주재대표 말리크(Jacob A. Malik)가 안보리의 의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7월부터 이른바 조국통일전선 중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보내는 성명서의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동 성명서에는 미국의 무력간섭을 중지하고 소위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서명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외부적으로 침략자의 죄상을 은폐하려고 백방으로 수단을 다하는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잔인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무고한 양민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거나 학살하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형태는 단계별로 먼저, 전투부대와 함께 침입한 치안대로 하여금 점거지역을 재빨리 행정 조직화하여 주민을 결박하였고, 둘째, 현지 당원 및 적색분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위원회조직과 그 활동사업을 협조 선동토록 하였으며, 셋째, 각 지역과 직장의 하부단위까지 세포망을 확대하여 그들의 요구를 강제로 관철토록 하는 방식이었다.

그리하여 만약, 이른바 반동분자나 비협조자가 색출되면 인민재판이라는 울가미를 씌워 가차 없이 투옥하거나 처형하였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재고물자를

먼저 약탈하고 쓸만한 건물과 주택을 몰수하여 당 간부용으로 배당하는가 하면, 식량과 가구, 그리고 의류 등의 생필품까지도 약탈하는 잔학상을 보였다.

2. 국제 정세

북한의 침략행위를 즉각 정지하도록 명령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1차 결의는 미·소 양진영의 항배를 가늠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이 결의과정을 통하여 11개 안보리이사국의 한국지지 성향과 추이를 내다볼 수 있었다. 이 중에 유엔주재 소련대표 말리크(Jacob A. Malik)는 중국 대표권 문제로 계속 불참 중이었고, 그 대신 주미 한국대사 장면이 비회원국으로서 유일하게 이사회에 참석케 됨으로써 이때부터 정세가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⁸⁾

이와 같이 유엔이 본 결의를 무시하고 계속 남침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공동으로 응징키 위하여 제2차 결의 때에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⁹⁾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공의 본토적화에 뒤이어 대만의 침공설이 대두되고, 필리핀과 인도차이나에서는 이른바 해방투쟁이라는 명목의 게릴라활동이 날로 격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말리크가 자리를 비우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 당시의 스탈린의 의도인즉, 이 전쟁에 대하여 방관적인 침묵을 보이면서 중공이 본토를 무력으로 석권한 방식으로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초의 미 국무장관 애치슨(Acheson)의 발언대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침략을 사주한 것인데, 세계 각국은 이때까지 미국의 태도가 소극적인 만큼 각자의 태도도 또한 분명치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6월 28일의 미국의 태도는 강경하였다. 이날 대통령 트루먼(Truman)은 유엔주재 미국대사 오스틴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에서 그는 "이

전쟁은 공산주의 침략이며 그 수법이 국내교란에서 무력침공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과 필리핀, 그리고 인도차이나를 원조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¹⁰⁾

동시에 미국은 양면외교를 통하여, 같은 날 소련 주재 미국대사를 통하여 "침략자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38 천으로 철퇴를 실현토록 권유하라"라는 통첩을 소련 외무성에 전달하는 한편, 북한의 무력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필요한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제2차 결의안을 제의하여 이를 채택함으로써 자유진영의 행동통일을 촉구하였다.¹¹⁾

그러나 같은 날 소련은 모스크바방송을 통하여 제1차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인즉, 자신과 중공의 대표 등 2개의 상임위원국이 결석하였으므로 동 결의는 무효라는 억지였다. 또한 제2차 결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써 유효로 볼 수 없다고 통보하고, 미국이 보낸 제의에 대해서는 성명서 형식의 회신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즉 "첫째, 침략은 한국이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한국과 그 배후 조종국에 있으며, 둘째, 한국사태는 내란에 불과하므로 외국의 원조는 내정간섭이 된다. 셋째, 자신이 유엔 안보리에 불참한 것은 북경정권의 대표가입을 미국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대표가 없는 안보리는 불법이다"라고 하여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였다. 이 양면외교의 논쟁을 정점으로 하여 공산국들은 침략을 조종한 소련에 가세하고, 자유진영은 점차 미국을 중심으로 결속과 궤기단계에 접어들었다.

한편, 6월 29일에 전선시찰을 마치고 도쿄의 극동군사령부에 돌아간 맥아더 원수는 지상군의 투입과 38 천 이북지역에 대한 해·공군의 작전단행만이 북한의 침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 승인을 긴급히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¹²⁾

그러나 이 당시, 미국의 정책배경은 지상군의 투입을 허용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의회의 의결에 따라 국방예산과 병력이 계속 삭감되어 개전직전에는 육군병력 59만 1천명에 10개 사

단과 9개의 전투단만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해 초두부터 1개 사단을 더 감축키로 하고, 이를 극동군내에서 자체 규제키로 하였다.

또한 이때, 미 합동참모본부(JCS)가 결정한 주요 해외통합군의 현황을 보면, 극동군을 위시하여 알래스카군과 카리브군, 그리고 유럽군과 태평양군 등 5개의 통합군으로 편성하고, 극동군에 4개 사단과 유럽군에 1개 사단, 그리고 나머지 5개 사단은 본국에 전략예비로 확보하였으며, 전투단은 하와이(Hawaii)와 오키나와(Okinawa), 그리고 알래스카(Alaska) 지역 등에 각각 분산배치하고 있었다.¹³⁾

따라서 이중에서 전선에 즉각 투입이 가능한 전투사단은 미 극동군의 주일 4개 사단 및 1개 전투단이며 그 병력은 각종 지원부대를 포함하여 10만 8천명이었다. 그러나 전기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각 사단은 전시편성에 비하여 65% 수준의 감소편성을 유지하고, 이에 더하여 실제병력의 보직율은 항상 미달상태에 있었다.

이로 인하여 각 사단은 연대마다 2개 대대로 개편하고, 포병대대는 2개 포대로, 그리고 사단의 공병대대는 각 중대 모두 2개 소대로 하여 전체적으로 3분의 1을 감편하고, 또한 편제상의 연대 전차중대는 사단의 전차대대에 통합하여 M-24 경전차로 장비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매년 각 부대마다 43%의 병력을 교체하고 있었으며, 또한 훈련수준도 기초훈련을 반복하는 정도에 그쳐 대대급 이하에 머물고 있었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합참과 국가안보회의(NSC)는 극동군사령관의 건의를 접수하자 정세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즉 첫째, 현시점에서 소련이 미국과 일전을 할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다만 미국의 결정을 시험해 보기 위한 행동으로 나올 것이다. 셋째, 북한은 유엔의 결의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트루먼은 이와 같은 두 자문기관이 내린 결론을 받아들여 6월 30일에 이를 승인하고 즉시 성명을 통하여 유엔과 전 세계에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극동 해·공군은 38 천 이북지역 북한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한편, 지상군은 처음 1개 전투단에서 다시 2개 사단의 출동이 승인되어 본격적인 지원준비에

들어갔다.¹⁵⁾

이 결정과정에서 미국이 가장 우려한 것은 소련의 직접적인 무력개입이었다. 그 한 예로서 미 육군부 지시 제3호(6. 30일)의 말미에 주기하기를 “본 지시를 실행할 경우 소련이 개입할지도 모르며, 그 위험성은 크다. 따라서 본 지시가 그들과의 전쟁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상황에 부딪칠 경우에는 새로운 훈령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여 맥아더 원수의 권한을 미리 규제하기도 하였다.¹⁶⁾

또한 이 결정에 대하여 당시의 세론은 외교문서의 내용이나 기타 동향으로 보아 미국은 소련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이 조치를 취하였거나, 아니면 그 개입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단행한 조치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음날인 7월 1일의 안보리는 제2차 결의에 따라 각국이 신청한 대한원조 내용을 검토하였다.¹⁷⁾

이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은 첫째, 영국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3국이 각기 일본주변에 있는 보유 해군력을 미 해군의 지휘 하에 두도록 위임함으로써 통합군 편성을 용이하게 하고, 둘째는 에콰도르 대표가 범미이사회의 결의로써 유엔 결의를 절대 준수할 것을 언명하여 그 권위와 권능을 단결된 힘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그리고 셋째로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날 현재로 59개 유엔회원국 중 32개국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공산진영의 고립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더불어 자유진영은 유엔의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 남침하는 북한과 그 종주국의 음흉함에 격분, 쫓기하기에 이르고, 이어서 앞을 다투어 한국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유엔안보리가 한국을 지원하기로 결의한 직후에 국제무대에서는 두 갈래의 평화조정노력이 진행되었다. 첫째는 안보리의 비상임국인 이집트와 인도, 그리고 유고슬로비아 등이 주축이 되어 미·소를 설득함으로써 전쟁을 중지하기 위하여 비공식회의를 갖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엔주재 외교관을 통해 평화해결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전자의 경우 영국대사가 소련 외무차관 그로미코(Gromyko)의 초청과 임의방문 형식으로 7월 6일 및 11일의 두 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는데, 회담 내용에 관하여 영국측은 “중공의 유엔 가입문제와 한국사태를 동시에 취급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정전과 북한의 38 천 이북으로의 철퇴를 선행한 연후에 이 문제를 유엔기구 내에서 해결하자”라고 주장하였음을 밝혔다.¹⁸⁾

이에 대하여 소련측은 “중공정권의 대표가 참석한 안보리에서 모든 토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고집하면서 일보도 양보하지 않으려 했다. 후자의 경우는 인도수상 네루(Nehru)가 7월 11일에 소련 수상 스탈린(Josep V. Stalin)과 미 국무장관 애치슨(Acheson)에게 각각 친서를 보내어 상호 절충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스탈린은 15일에 각서 형식으로 네루에게 회답을 보냈다.¹⁹⁾

양측의 공한내용은 인도측이 “중공의 유엔가입을 조건으로 한국전쟁을 안보리 또는 그 밖에서 해결할 것”을 제의한데 반하여 소련측은 “즉시 중공대표를 포함한 5대 상임국 참석하의 안보리에서 문제가 토의되는 것을 찬성한다”라고 전제하고 이른바 “조선인민의 대표로부터 사태를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뒤에도 절충이 미진하게 계속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이 평화교섭의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다. 다만 이를 통하여 공산군의 전쟁도발 배후에는 중공의 유엔가입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이 밝혀지게 되었다. 소련의 의도가 이러하였으니 만큼 트루먼은 한국지원의 결의를 더욱 굳히고, 침략자들을 단호히 분쇄할 것을 다짐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트루먼은 성명을 통하여 개전전후의 일반정세와 유엔안보리의 결의 및 절대다수국의 지지상황 등을 지적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자유제국의 공동방위를 위하여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였다.²⁰⁾

즉 첫째, 한국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병력과 장비보급품을 가급적 빨리 맥아더 원수의 휘하부대에 보낸다. 둘째, 세계정세는 한국에서 필요한 군사력 이상으로 우리 군대의 규모 및 물자보급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셋

제, 공동방위를 위하여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자유제국을 원조하여야 하며, 그들의 군사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무장관 애치슨과 국방장관 존슨(Louis A. Johnson)은 즉각적으로 병력의 증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육·해·공군 및 주 방위군의 동원을 위하여 소집령을 하달한다. 둘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19~25세까지의 총 975만 명을 등록케 한다. 셋째, 4개의 주 방위사단을 7월 31일까지 현역에 편입한다. 넷째, 사태악화 시에 250만 명의 예비역을 동원한다. 다섯째, 군사비의 증액을 의회에 요청하고 산업동원계획을 부분적으로 단행한다”라는 것이 요지였다.²¹⁾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에 따라 합참과 관계기관은 이를 순차적으로 집행하였는데, 기간 중에 취한 군사조치를 예시하면, 먼저 전 현역 병력에 동원명령을 내리고, 태평양지구의 해군으로 하여금 별도의 기동부대를 편성하여 하와이 근해로 출동케 함과 동시에 태평양군 전역에 경계태세를 명령하였다. 또한, 미 본토에 있는 서부 육군사령부 휘하의 3만 병력에 대하여서도 방공 경계태세를 명령하고, 공군에서는 연안에 대한 정찰활동의 강화와 전투기의 증가 배치태세를 취하게 하였다.

제 3 절 정부와 국회의 대내외 조치

1. 정부의 이동과 조치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초기 주한 미 대사 무초의 방문을 받고 탄약지원을 요청하였고, 장면 주미대사에게는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훈령을 내리고 미국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면서 유엔한국위원단과도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는 유엔 창설이후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한 최초의 집단안전보장 조치였다. 이를 근거로 한국 전선에 투입된 미군과 유엔군의 해군과 공군, 그리고 지상군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정부의 전시 전환조치는 최초 국방부가 전국에 비상을 발령하고, 내무부가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하달하는 등 행정부의 각 부서별로 이루어졌다. 당시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국방부, 내무부, 법무부), 국회, 사법부 등 기관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즉 전쟁이 발발하자 대통령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여 헌법 제57조에 의거 대통령령 긴급명령 제1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공포하고 유엔과 미국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외교적인 조치를 전개하였다. 그러한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들은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당하자 수원,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다.²²⁾

그렇지만 사전에 준비를 갖추지 못한 신생 한국으로서는 전쟁초기 극심한 혼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인적구성과 경험, 법령 및 제도 등 국가역량 면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구호대책이나 철수계획 등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가 각 기관이 대전으로 이동한 후에야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부는 각 도지사에게 협조하여 군경 위문품을 마련하여 충청도, 경기도 복지부를 통해 전달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어느 정도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하였다.²³⁾ 정부는 7월 8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어서 특별담화문을 통해 “정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외국 구호물자가 곧 도착하므로 국민들은 안심하라”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전쟁초기 정부의 위기조치 내용들을 보면 국가안보 및 유사시 전쟁지도 능력이 부족하고,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조직이 부재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선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국방부와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방부의 발표, 치안국의 경찰정보와 국무회의에서의 전선 상황보고가 각각 달라 혼선을 가져왔다.

또한 비상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수원이동이 결정되었지만, 이는 장관 및 차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형태 유지에만 주안을 두었고 행정기능의 이동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 정부차원에서 민간인 철수계획이나 국가 동원계획 등 비상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초기 혼란은 극에 달하였다.²⁴⁾ 이로 인해 정부의 각 부처는 우왕좌왕 하였으며 전선의 위급한 상황에 따라 조치해야 될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대책회의만을 거듭하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대책을 결정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가 지도부가 국가의 행정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행정조직이 미흡한 데에 기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생국가인 한국은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준비되지 않은 단점을 극복하고 먼저 군사적인 조치보다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결국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이끌어 냈고, 조기에 미 지상군을 투입시킴으로써 지연전을 통해 적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전에 일단 머물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9일에 무초 대사가 운전하는 차로 수원에 올라와 맥아더 원수를 만나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 다음날에는

미국에서 돌아온 정일권 준장을 소장으로 진급시킴과 동시에 육군총참모장 겸 육·해·공군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²⁵⁾ 그런데 대통령은 7월 1일 03:00에 또 다시 대전을 떠나 이리-목포를 거쳐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황규면 비서관은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²⁶⁾

즉 "6월 30일 자정 무렵에 시카고 데일리뉴스의 시몬스 기자가 '북한군이 한강을 넘어서 수원을 거쳐 대대적으로 남하하고 있다'고 급히 전해 왔다. 나는 노블 일등서기관에게 확인하였더니 처음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가 얼마 뒤에 '적의 탱크가 넘어왔다. 대통령께서 곧 피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무렵 대구에는 적색분자가 많아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았기 때문에 목포쪽으로 가기로 하고 7월 1일 03:00에 서둘러서 대전을 출발하였다.

이때에 나는 대통령 내외분을 모시고 세단차로 갔고 이철원 공보처장과 김장홍 총경 등은 쪼차로 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흙탕길을 겨우 달려 이른 아침에 이리역에 도착하였다. 길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차량으로 갈 수가 없어 열차로 갈아타기 위하여 대통령 내외분을 역장실에 모셔놓고 이철원 공보처장이 대전에 있는 김석관 교통부장관에게 연락하여 특별열차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정오에 이리역을 출발하여 14:00에 목포에 도착하였으나 대통령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지방관서장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고 해군 목포경비부사령관 정공모 대령에게만 연락하여 부산까지 갈 수 있는 함정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대통령 일행을 모시고 300t급인 제309함(김남식 소령)의 호위아래 16:00에 목포항을 출항하였다. 결국 19시간에 걸친 항해 끝에 7월 2일 11:00에 부산 부두에 도착하여 경남지사 양성봉의 영접을 받고 지사관사로 직행하였다. 그러나 7월 9일에는 대구로 올라가서 경북지사 관사에 체류하면서 대전에 계속 머물고 있는 각료들을 전화를 통하여 지휘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정부는 대통령이 대전으로 옮겼기 때문에 각료들도 충남도청에 임시청사를 두기에 이르렀다. 이 요인들의 긴급이동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바도 없이 6월 30일 자정이후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하여 대한정의단장으로서

성남장에 머물렀던 최성장의 증언에 의하면, “B-29가 평양을 대거 폭격하고 미 지상군의 참전이 결정되었으니 소련이 참전할 지도 모르며 북한은 보복으로 임시수도인 대전을 집중 폭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에 이러한 추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다.²⁷⁾

이에 대해 이철원 공보처장은 “수원농업시험소에 위치한 미 극동군 전방지휘 및 연락단이 수원상공의 미군기로부터 ‘적의 대부대가 수원쪽으로 공격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순식간에 혼란 속에 빠져 지휘소의 통신병들이 장비를 파괴하고 소각하다가 본부건물을 태웠으며 수원비행장의 대공포대 마저 부라부라 철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군의 공황이 번져서 일어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²⁸⁾

정부 대변인인 이철원 공보처장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에 미 전방지휘소나 미 대사관으로부터의 그릇된 정보에 의하여 혼란이 일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이 당시 김홍일 소장이 지휘하는 국군의 주력이 한강선에서 방어중에 있었으나 6월 30일 밤에 북한 제3사단의 일부 병력이 한남동-신사리로 한강을 도하하여 말죽거리 쪽의 국군 제2사단의 진지일부를 돌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돌파한 적 병력은 주력이 아니라 선견부대였으므로 육군사관학교 생도 대대에 의하여 격퇴되었고 뒤이어 수원에 집결한 국군 제1사단이 풍덕천으로 진출하여 방어선을 형성함으로써 사태는 수습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과장된 오보가 눈덩이처럼 커져 일국의 정부를 건잡지 못할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주까지 내려갔던 요인들은 오보임을 확인하고 다시 대전으로 복귀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⁹⁾

그런데 7월 1일 03:00에 총무처장 전규홍은 충청남도 내무국장실에 대기 중인 최성악, 김덕보 두 비서관을 불러 장·차관을 비롯한 삼부의 요인과 주요 인사들에게 즉각 연락하여 대전역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두 비서관은 성남장을 비롯한 각 여관에 유숙중인 요인들에게 긴급히 연락하는 한편 전화가 없는 요인들에게는 직접 찾아가 전신하여 집결케 하였다.

이 무렵 대통령은 이미 이철원 공보처장과 황규면 비서 그리고 경무대경찰서장 김장홍 총경을 비롯한 소수의 경호 경찰관만을 대동하고 목포 쪽으로 남행하

고 있었다. 대전 역에 대기 중인 특별열차에 승차한 요인들은 “이대로 철수하여야 옳은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결국 내려가되 대구 쪽에는 폭동의 우려가 있다는 유언비어가 떠돌던 때이므로 우선 호남지방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하고 대전역을 출발한 것이었다.³⁰⁾

2. 국회의 조치

국회는 6월 27일 폐회한 이후 전세의 추이에 따라 대전, 대구, 부산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전시입법 활동을 하였다. 국회가 전쟁 이후 조치한 사항은 '비상시 국에 관한 긴급결의안'과 '서울사수 결의안'이었다. 그렇지만 국회는 계엄법을 제정했으면서도 전쟁초기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전쟁개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자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국회의원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수원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국회의 수도사수 결의도 행정부의 공백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의 국회의원 김용우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³¹⁾ 즉 “수원에 와서 보니 농대에는 아무도 없었고 수원역에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김봉재 의원만이 있었다. 19:00 임시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동래에서 6월 30일 아침 대한청년단의 가두방송을 통하여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서울을 탈환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았다’고 방송하였다. 그래서 부산역으로 나가 서울행 차표를 사려고 하였더니, 갈 수 없다고 하여 우선 대구를 거쳐 대전까지 왔다. 이때 대전지법에 임시국회 사무소를 설치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라고 회고하였다.³²⁾

이처럼 분산하여 남하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대전 체류를 계기로 대전 지방법원에 입법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피난의원들 상호간의 연락을 유지하였으나 과반수의 성원을 이루지 못하여 국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로 간담회를 열어 전국의 수습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³³⁾ 그러나 전세의 악화로 말미암아 7월 14

일에 행정부와 더불어 또다시 대구로 이동한 입법부는 이달 21일부터 제8회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부의 기능을 되찾기에 이르렀다.

국회기록에 의하면, 당시 대통령이 대전에 체류하고 있어서 대전지방법원에 입법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연락체제를 유지하다가 7월 4일 대전으로 이동하여 임시비상회의를 소집하였으나,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해서 개최하지 못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바꾸어서 사태수습을 위한 의견만을 교환하였을 뿐이었다.³⁴⁾ 이 간담회에서 국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부 및 각국 사절단 등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국회 소기구'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전세가 악화되자 7월 14일 행정부와 더불어 대구로 이동하여 동월 21일부터 제8회 임시국회를 개최하였다.³⁵⁾

제2대 국회는 의정사상 최초로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지만, 국회 개원 6일 만에 전쟁을 맞이하여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국회는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전쟁을 지도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전시에 국회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초기 행정부가 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했어야 했지만 국회 역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제 4 절 치안 유지 및 피난민 조치

1. 치안 유지 조치

전쟁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후방치안의 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전 수사력을 여기에 집중하여 반민족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단속에 나서 거족적인 입전태세의 확립에 앞장섰다.

정부는 남침 당일 살인, 방화, 군사시설 파괴훼손뿐만 아니라 절도, 타인의 건조물 훼손까지도 중형에 처한다고 포고하였다. 또한 '관헌참칭, 이적을 목적으로 체포, 상해한 행위', '관권을 도용하거나 적에게 정보제공, 안내한 행위',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기타의 물품을 제공하여 적을 자진 방조한 행위', '정보 제공, 안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앞의 범행에 가담한자' 등을 모두 사형이 가능한 처벌대상으로 하여, 앞서 국가보안법, 계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선포하였다. 단심으로 지방법원과 지원의 단독판사가 증거설명을 생략하고 '교수 또는 총살'의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급변하고, 위급한 전쟁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다.³⁶⁾

정부는 국가기구 작동의 효율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긴급한 금융관련조치를 한 후에는, 비상시 향토방위령을 통하여 14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병력의 의무를 부과하고, 각 지역 내에 존재하던 대한청년단이나 청년방위단 등으로 자위대를 조직했다. 피난민수용 임시조치, 징발보상, 피징용자 보수규정을 통해 최소한의 주민보호 보상을 시도하면서 폭넓게 병력을 충원했다.

전국이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정부는 대전으로 옮겨졌는데 이때까지도 비상헌법상의 조치가 발동된 것이 없었다. 7월 8일에 가서야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³⁷⁾



정부의 조치문을 보고 있는 주민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경인지구의 형무소에 수감 중인 국가보안사범과 기타죄인들에 대한 조치가 전혀 강구되지 못한 사실이다. 그 결과는 6월 30일에 인천형무소에서 경비의 미흡을 틈타서 탈옥사건이 일어나 폭동의 효시가 되고 뒤이어 다음날에는 대전형무소에서 탈옥 일보 직전에 진압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제 몇몇 형무소에서 죄수들이 탈옥하여 조직을 편성하는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자 이를 체포하도록 지시하는 조치가 강조되기도 하였다.³⁸⁾

다른 곳은 차치하고라도 여순10·19사건의 주동자들을 비롯한 2,000명의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던 대전형무소에서 탈옥하여 폭동을 일으켰더라면 사태는 심상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공주, 청주형무소를 비롯한 각 지구의 형무소에서는 중범자에 대한 소개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백성욱 내무부장은 “나는 끝까지 수도서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27일 야반까지 남아 있다가 육군본부가 철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서둘러 한강까지 나왔으나 이미 한강교가 폭파된 후여서 서빙고쪽으로 가서 나룻배를 타고 28일 07:00 도강한 다음 수원 쪽으로 향하였다고”고 술회하였다.³⁹⁾

전쟁초기 후퇴하던 경찰은 치안국 산하 비상경비사령부에 의해 재편되어 일부는 군의 지연작전에 참가하였으나, 대부분은 후방지역 안정을 위한 활동에 투입되었다. 경찰의 기본임무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나, 각종 폭력사태로 무장봉기가 일어나거나 국가 위기사태가 발생되면, 전선 후방지역에서 치안이나 질서유지활동을 하거나 필요시는 전투 활동을 하게 된다.

치안국은 주로 전선의 후방지역에서 군경합동으로 피난민의 철수 통제 및 구호조치, 병참선과 주요시설 경계, 북한군과 좌익요원의 교란행위 차단, 후방공비 토벌작전 등에 참가하였다.⁴⁰⁾ 즉 후방지역작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난민 통제와 주요도로 및 교량 경계, 적 침투요원 색출 등 민간인과 관련된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치안국은 경찰병력이 개전 당시 25,000명이었으나 7월 중순시점 13,000명으로 감소되자, 전투에 투입되는 경찰병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찰전문학교를 전시교육대로 편성하여 전투교육과 전술훈련을 시켰으며 때로는 군에 요청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기도 하였다. 경찰전문학교는 당시의 전황에 따라 대구, 서울, 부산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간부후보생 양성에 주력하였고 통신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신 요원을 선발하여 교육하기도 하였다.⁴¹⁾

내무부 및 치안국의 지휘통제를 받았던 경찰은 다른 조직에 비하여 비교적 잘 조직되어 있는 편이었고, 이로 인하여 전쟁 중 후방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쟁초기 일부 경찰은 전선에서 군을 지원하여 방어하면서 치안을 유지하였고, 후방에서도 안정적인 치안유지와 피난민 철수 통제 임무 등을 수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군을 지원하여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무부 역시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통제 및 운영계획이나 주민통제계획 등 전시전환을 위한 준비가 없었고, 당시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육군본부)와 긴밀한 협조 없이 대부분 단독으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다. 예컨대 7월 8일 계엄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국에서는 7월 11일 '불

순분자 검거의 건'을 전국 경찰에 하달했다는 것은 국방부와 협조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한편 전쟁초기 검찰청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방치안의 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 수사력을 치안확보에 집중하여 반민족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단속에 나서서 거족적인 임전태세 확립에 앞장섰다. 검찰청에서는 각 지점에 긴급지시하여 국민보도연맹의 조직점검과 아울러 반공계몽의 선봉에 서게 하여 이탈을 예방하거나 재전향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특히 보도연맹 의무실에 비상구호반을 편성하여 청량리역전에 있던 서울대학교 예과의 교실과 교정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피난민들을 진료하였다.⁴²⁾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경인지구의 형무소에 수감 중인 국가보안사범과 기타 죄인에 대한 조치가 전혀 강구되지 못함에 따라, 6월 30일 인천형무소에서 경비소홀을 틈탄 탈옥사건이 일어나 폭동의 효시가 되었고, 뒤이어 다음날 대전형무소에서는 탈옥일보직전에 진압되었다. 당시 검찰조직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시 전환조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경찰을 지휘통제하지 못하였다.

북한의 남침 당시 모두 22개 교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형무소에는 약 22,000여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이러한 22개 형무소 중에는 대구, 부산, 마산형무소와 소록도 지소를 제외하고는 전국 형무소가 대부분이 전쟁 중에 파괴 또는 소실되었다.⁴³⁾

개성소년형무소는 형무소 가운데 최전방에 위치하여 개성 송악산 맞은편이며 38선에서 직선거리로 1km에 불과한 곳에 위치하였다. 당시 개성소년형무소에는 190명의 직원과 소년수형자 1,500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남침당일 새벽 요란한 총성에 잠을 깬 우학중 소장은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였으나 이미 형무소가 적에게 포위되고 직원 80명만이 무장하고 있었다.

당시 개성이 이미 적에게 함락되었으나 정보가 없어 국군이 다시 진입해 올 것만을 믿은 소장은 수차례 적의 공격에 죽음을 각오하고 방어하였다. 그러나 무기의 절대적 열세와 인원의 부족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고, 형무소가

<표 1-1> 전쟁발발 당시 전국 형무소 현황 및 위치

형 무 소	위 치	형 무 소	위 치
서울형무소	서대문구 금계동	인천소년형무소	학의동
대구형무소	삼익동	마포형무소	마포구 공덕동
공주형무소	교동	춘천형무소	약사동
광주형무소	동명륜	청주형무소	탑동
부산형무소	종대신봉	군산형무소	금광동
대전형무소	중구 중촌동	안동형무소	신세동
목포형무소	산정동	진주형무소	상봉서동
전주형무소	진배동	마산형무소	오동동
개성소년형무소	선죽동	부천형무소	영등포구 양평동
김천형무소	평화동	영등포형무서	영등포구 양평동
소록도지소	고흥 굴산면	청도보호교도소	청주

고립무원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자, 우 소장은 유언을 남기고 소총으로 자결하였다.⁴⁴⁾

남침 당시 서대문형무소(서울형무소)에는 670명의 직원과 다수의 좌익사범을 포함한 7,000여 명의 재소자가 있었다. 1950년 6월 28일 오전 8시경 북한군의 전차부대가 광화문과 서울역에 진입하자, 서대문형무소에서는 김수복 부소장의 후퇴명령으로 재소자 일부를 석방하고 직원들이 철수하였는데, 감시대 직원들과 강정구 간수장이 마지막으로 철수했을 때 북한군은 서대문로타리에 도착하였다.

즉 서대문형무소에서 폭동은 없었으며 직원들이 철수한 수분 뒤에 재소자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나왔는데 이때는 이미 북한군이 형무소 근처에 와 있었다. 그러나 출소한 재소자들이 다수의 우익인사들이나 퇴로가 막혀 서울에서 숨어 지내고 있던 형무소 직원들을 적발하여 밀고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군에 의해 처형되게 했다.

전옥보, 정상근은 평소 좌익세포조직 적발에 많은 공이 있었는데, 이때 숨어 다니다가 마침내 고양군 일산의 산중에서 자살하게 되었고, 간수부장 김좌화는 노상에서 만난 출소자의 밀고로 북한군에게 구타당한 후 살해되었다. 이때 김홍태 간

수장보와 권중환, 호기주, 김순철, 호기용, 김일남 등의 간수부장들이 북한군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실종되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형무소 직원들이 실종되었는데, 모두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었거나 납북된 것이었다.⁴⁵⁾

마포형무소에는 약 200명과 재소자 3,500명(대부분 장기수)이 있었다.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수천 명의 재소자와 장비를 신고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직원들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공산군의 탱크가 형무소에 진입했을 때 마지막 직원 일행이 철수할 정도로 속수무책이었다. 그 결과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숨어 지내던 마포형무소 직원들이 북한군에 체포되어 살해되는 비운을 맞게 되었는데 170~180명이 전쟁초기에 실종되었다.⁴⁶⁾

인천소년형무소에는 6·25전쟁 발발 당시 126명의 직원과 1,300여명의 소년수형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 200여명은 여순10·19사건 관련 수형자들이었다. 상부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자 정부가 이동해 있던 수원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떠나간 6월 30일에 수형자들이 집단 탈주를 하였다. 그 시점에 한강선 방어작전을 준비하고 있던 국군지휘부는 형무소 직원들의 직장복귀를 지시하며 탈주재소자들을 형무소 직원들과 함께 체포하여 수백 명이 재수감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인천소년형무소가 7월 3일에 북한군의 점령 하에 들어가자 이 형무소의 직원들도 서대문형무소나 마포형무소의 직원들과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소년수형자들은 북한군에 의해 석방된 뒤에 공산의용군에 편입되어 왜관부근의 전투에 투입되었다고 한다.⁴⁷⁾

38선과 불과 13km 거리에 있던 춘천형무소에는 6·25전쟁 발발 당시 직원 130명과 1,250명의 재소자(과반수가 좌익사범)가 있었는데 26일 철수를 결정하여 수형자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중범 수형자들이 간수들의 총기를 탈취하여 교전을 하는 과정에서 7명이 죽거나 다친 일이 있었다. 간수 전태병, 박민호, 조내연은 중범자들을 수원까지 호송하고, 용인장터에서 공산군에 잡혀 살해당했으며, 간수 이순구는 수원에서 숨어 지내다 내무서원에게 잡혀 행방불명되었고, 간수 성기상, 박상희, 정종복, 김운향, 장석홍은 본대에 합류하기 위해 남하하던 중 공산군에 잡혀 살해되었다.⁴⁸⁾

그런데 이와 같은 경험들 외에 대전형무소에서의 소요위기 또한 좌익사범들에 대한 처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6·25전쟁 당시 대전형무소에는 240명의 직원과 약 4,00명의 재소자가 있었다. 6월 28일에 서울이 함락되면서 대전 이북지역의 많은 형무소의 재소자들이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었다. 그런데 7월 1일 이른 새벽에 군 당국으로부터 대전의 국가기관들은 긴급히 소개하라는 통보를 받고 형무소장 김택일은 특경대원 22명과 소수의 경비직원들만 남기고 나머지 직원들에게 소개령을 내렸다(7. 1. 03:00~08:00). 많은 직원들이 대피를 서두르자 재소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소요위기는 고조되어 갔다. 잠시 후 군 당국의 개입으로 그날의 소요위기는 극복될 수 있었다.⁴⁹⁾

이와 같이 한국정부는 경인지구에서 반국가사범을 포함한 모든 재소자들을 방치함으로써 이들이 출소한 후에 북한군 치하에서 우익인사들을 색출하여 보복살해하는데 앞장서도록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인천소년형무소의 탈주사건과 여순10·19사건 주동자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좌익사범들이 수용된 대전형무소에서 재소자 탈주위기를 겪고 7월 1일 이후에 한국정부는 형무시설에 대한 국가안보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⁵⁰⁾

법무부는 전쟁초기 검찰, 교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직편성이 미비했고, 전시형무소를 후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이나 재소자 처리지침, 검찰에서 지도 및 관리하던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처리지침 등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검찰청에서는 각 지점에 긴급지시하여 보도연맹의 조직을 점검하고 반공계몽의 선봉에 세워서 이탈을 예방하거나 재전향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2. 피난민 통제 조치

서울시민들은 정부 요인들이 상당수 피난을 떠났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서울이북에서 온 피난민과 부상병이 계속 시내로 밀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점차 두려움이 커졌으며 6월 27일 저녁부터는 공황 상황에 접어들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 김일성은 소위 “인민군대와 서울시민에 보내는 축하연설”에서 “전체 조선인민은 전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승리로 종결시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는 인민군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때부터 서울에 잔류한 시민들은 9·28 수복 때까지 온갖 학정을 감내해야만 하였다.⁵¹⁾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90일간의 공산치하에서 입은 손실은 사상자가 22,000명이나 발생하였으며,⁵²⁾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군의 전쟁 동원체제에 편입되어 소위 ‘의용군’으로 노무자로 강제되는 고초를 겪었다. 전쟁초기 북한군 포로 신문조서에 의하면, “점령지에서 체포된 민간인들은 북한군에 입대할 것을 강요받았고 이들은 점령지 경계병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고 하였으며,⁵³⁾ 또한 “서울시민들은 북한군 입대를 강요받았다”⁵⁴⁾고 하여 서울에 잔류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북한군에 동원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서울에 잔류했던 김성칠 교수는 한강교의 폭파로 인해 피난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시민들에 대해 “6월 28일 피난 갔던 마을 사람들도 한창 돌아오는 중이었다. 모두들 서로 죽었다가 새로이 살아난 사람들처럼 무척 반가워하였으나 시국이라든가 정치에 대해선 입을 봉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⁵⁵⁾



피난민의 모습

한편, 당시 부역자 혐의로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서울에 잔류한 소위 보도연맹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전쟁초기 오히려 마지막까지 서울에 남아 정부를 지원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강북에 갇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심사실장 정희택 검사에 의하면, “6·25가 터지자 나는 서울 보련 1만 6천 8백 명을 각 구별로 집합시켜 그들의 동태를 장악했어요. 이들을 시켜 서울로 쏟아져 들어오는 피난민 안내, 구호사업, 포스터 작업 등의 일을 했어요. 일부 시민들이 피난을 떠났고 행정이 마비되었지만 1만 6천 8백 명의 보련은 일사불란하게 상부명령에 따라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강다리가 끊긴 것입니다”⁵⁶⁾라고 하였고, 당시 합동수사본부 오제도 검사도 “다행이었던 것은 보도연맹이나 서대문형무소에 있던 대부분의 죄익범들 중에 부역자들이 적었어요. (1950년) 6월 5일 창설 한 돌 식에서는 그들 중 사상이 확실한 자 7천명을 골라 요시찰인 명부에서 삭제하는 탈명식을 하였어요”⁵⁷⁾라고 하여 그들의 서울 잔류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컸음을 증언하였다.

따라서 전쟁초기 정부는 사전에 피난민철수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고 군경 지휘부에서도 작전 측면에서 피난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큰 혼란을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수많은 청장년을 효과적으로 소개하지 못한 것은 적의 전력을 증강시켜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군이 보충한 병력의 대부분은 남한 장정들이었다. 북한군은 남한에서 병력을 보충하여 ‘의용군’이란 이름하에 전선에 투입시켰고 또 노무자로 군부대에 배치하여 아군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예비전력원인 장정을 소개 및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병력면에서도 이중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

정부는 서울 실패 이후에도 체계적인 피난민 철수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에 전력하고 있었다. 한강 이남에서 오산-평택-천안-대전으로 이어지는 피난민들은 각종 이동수단 및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전선으로부터 후방으로 무작정 안전지대를 찾아 이동하려 함으로써 작전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정부는 먼저 7월 8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7월 9일 군사작

전에 수반되는 대민 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민사부를 설치하였다.⁵⁸⁾

육본 민사부는 계엄사령부를 통해 군사작전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민군간의 긴밀한 협조와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난민 관련 임무는 전투지역 민간인의 철수 또는 복귀와 피난민 및 이재민 구호를 담당하였으며, 육군의 각 사단과 해군의 통제부사령부에 민사과를 두어 위와 같은 민사업무를 수행하였다.⁵⁹⁾

그러나 민사부의 구성이 시기적으로 위급하였던 까닭에 업무가 체계화되지 못했고, 전장의 이동속도가 급변하여 효과적으로 피난민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들의 사기진작과 적의 사상 침투방지에 주력한 것은 주로 정훈 관련 부서들이었다.⁶⁰⁾

전시 피난민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피난민들이 전투지역으로 몰려 군사작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었고, 특히 적 오염의 침투와 피난민 선동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7월 10일 사회·농림·국방·내무·교통·보건부 장관의 명의로 충청남북도·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 지사 앞으로 <피난민 분산에 관한 통첩>을 하달하였다.⁶¹⁾

이 통첩의 내용은 대전을 중심으로 밀집되고 있는 피난민들을 분산 수용하는 것이었으며, 그밖에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 피난민 증명서를 소지한 피난민을 인솔해 가서 안전하게 수용하고 수용된 피난민에게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사상이 불온한 자가 피난민 대열에 섞여 피난민들을 선동하지 못하도록 피난민의 사상과 태도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급박한 전황 속에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서 담당자를 대전에 파견하여 피난민들을 해당 지역으로 수송하여 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이 무렵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죄수마저도 교도관의 이탈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난민 통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조치와 도청을 비롯한 행정관서, 군경의 검문과 안내에도 불구하고 피난민들이 작전도로를 메우고 있어 부대기동에 제한을 받았으며, 또 적의 오염이 피난민을 가장하여 후방으로 침투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표 1-2> 정부의 피난민 분산계획 하달

부 서	주요 내용
사회부	1. 철도변이나 필요지역에 할당된 피난민을 위한 수용소를 설치할 것 2. 사상 건전한 자에 한하여 피난민 증명서를 교부할 것 3. 피난민을 대전으로부터 인수해 갈 것 4. 증명서 소지자만을 수용하고 사상온건여부를 항상 심사 5. 1인 1일 2흡의 급식제공, 최대한 절약하여 수용소 운용
농림부	1. 각도 사회과 요구에 따라 피난민을 위한 양곡을 즉시 공급하고, 대금지불은 최대한 유예할 수 있다
국방부 내무부	1. 피난민 신분조사와 증명서 교부에 최대한 협력할 것 2. 피난민 이동시 질서유지 위해 목적지까지 인솔할 것 3. 질서유지와 사상불온자의 개입을 막기 위해 수용소 경비
교통부	1. 피난민 증명서 소지자에 한하여 무임 승차시킬 것
보건부	1. 환자는 의료기관을 동원하여 무료로 치료시킬 것

정부는 내무부와 협의하여 각 시도에 긴급히 임시조치 법안을 시달하여 피난민의 수용대책을 마련케 하는 한편 일정지역으로의 집중 이동을 조정하고 각 지방으로 분산 남하를 지도하였다. 이에 긴급조치로 충북 37개소·충남 55·전북 43·전남 162·경북 66·경남 117·제주 24 등 도합 504개의 수용소가 긴급히 마련되었고 전국에 200개의 치료·방역반이 가동되었으며, 국방부에서는 남하하는 군인가족 원호에도 노력하여 열차의 알선, 구호 및 수용을 지원하였다.⁶²⁾

이같이 정부는 한강 이남-수원-오산-평택-천안-대전에 이르기까지 피난민 대책을 강구하느라 부산하였다. 그러나 전장이 너무나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군이 한강남쪽에서부터 지연전을 하던 시기부터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를 얻어 피난민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소로와 논길을 따라 엄청난 군중이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유진오 박사는 이때 상황에 대해 “어느 사이 피난민 행

렬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하나는 큰길을 따라가는 행렬이고 하나는 기차 길을 따라가는 행렬이다”⁶³⁾라고 하여 도로와 철길이 피난민들로 가득하였음을 회고하였다.

수원-대전간 주민들은 임시 수도 대전에서 전쟁을 지도하고 있던 대통령 일행이 7월 1일 새벽 3시 이리-목포를 거쳐 부산을 향해 피난을 떠났고, 밤새 정부요인들이 피난 갔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다.⁶⁴⁾ 수원이 전장이 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였기 때문에 이들 시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오산·평택·조치원·천안·대전 등의 주민들도 북한군 주력이 제1번 국도를 따라 남진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피난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과 그 부근에서 남하한 피난민들은 작전지역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었고, 일차 목적지를 수원-대전으로 하여 무작정 남하하고 있었다. CIA보고에 의하면 7월 4일 이미 남하하는 피난민들이 작전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한국군 낙오자들이 피난민 대열에 섞여있다고 하였다.⁶⁵⁾ 피난민 대열이 계속 남쪽으로 밀리게 되자 정부는 급히 수많은 피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한국 군경은 한국전쟁 초기 피난민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수원이남 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헌병의 지원을 받아 공산주의 동조자나 첩자를 가려내기 위한 검문소 설치 등 대전으로 이어지는 보급로 상의 피난민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⁶⁶⁾

7월 6일 신성모 국방장관이 김태선 시경국장과 함께 천안경찰서에 들러 ‘주민들과 피난민들에게 전세가 호전되어 국군이 영등포를 탈환했으니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내용의 문안을 작성케 하여 방송시킴으로써 일단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난민속에는 위장한 북한군 정찰병들이 암암리에 농촌부락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차량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마을을 순회하는 경우도 있었다.⁶⁷⁾ 경찰은 각 교도소 및 경찰서에서 복역, 구속 조사중이던 보도연맹원과 각종 범죄자들이 탈출하여 피난민 틈에 끼어 내려오고 있다는 정보와 오열의 침투정보를 듣고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교도소로 후송시켰다.⁶⁸⁾

대부분의 피난민 이동경로는 민간인 소유 차량들이 군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산악 지대를 피하여 국도 변과 철로를 따라 대전까지 왔다가 도보나 철도편을 이용하여 4번 국도를 따라 부산과 대구로 그리고 1번 국도를 따라 광주나 목포 등을 목적지로 하여 이동하였다. 당시 수원 인구 50만 명중 상당수가 남하하였고, 조치원, 평택, 천안 등의 주민들도 노약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피난길에 올랐다. 따라서 7월 초, 대전과 그 인근 지역인 부산과 대구, 그리고 보다 안전한 남쪽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약 200~300만 명이 피난을 하고 있었다.⁶⁹⁾ 정부는 부대이동을 방해하는 피난민들을 광주 서남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려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한국군의 철수방향이 대전-대구-부산 쪽임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이동하였다.⁷⁰⁾

제 5 절 사법 및 사회·경제 조치

1. 사법 조치

사법부의 대법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라디오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서 북한의 남침사실을 알았다. 당시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법부는 행정부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전황과 행정부의 동향을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했다. 27일 아침 행정부의 수원 이동이 통보되자, 먼저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 전원은 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이동하였다.⁷¹⁾

사법부는 수원으로의 이동이 요원들만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잠정적인 것으로 알고,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 대하여 조직적인 철수지시는 물론 주요문서(재판기록, 호적원본, 부동산등기부 등)에 대한 긴급조치도 강구하지 못한 채 일부 법관과 사무직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수원지청에 도착한 대법원일행은 대통령이 있는 대전으로 다시 철수하였다. 대전에 도착한 사법부는 28일부터 대전지법에 사법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요인들은 지방법원장 관사에 여장을 풀었는데 이때에 개별 행동으로 남하하여 합세한 직원들이 13명으로서 그야말로 명목상의 이전일 뿐으로 하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7월 1일 미명에 총무처장 전규홍으로부터 사법부의 요원들은 즉각 대전역으로 집합하라는 연락을 받자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대법관과 행정처장을 포함한 사무직원이 대전역으로 나갔을 때에 요인들을 위한 특별열차가 플랫폼으 속한 곳에 대기하고 있으므로 승차할 수가 있었다.

이때에 열차에는 각료와 국회의원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들이 이미 타고 있었는데 이대로 또다시 철수하여야 할 것인가, 국민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할 것인가

가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를 마땅치 않게 여긴 대법원장은 사법부 요원들만은 대전에 좀더 남아서 사태를 관망하기로 하고 하차토록 지시하였다.⁷²⁾

이리하여 사법부 요원들은 지방법원장 관사로 되돌아와서 사태를 확인하여 행정부의 각료를 비롯한 요인들은 계획대로 호남지방으로 내려갔으며 시내가 술렁이면서 사태가 심각한 듯하여 일단 대전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자동차편으로 내려가서 대전지법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전원이 합숙하였다. 그러다가 7월 4일에 경찰을 통하여 사법부는 대전으로 즉각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대전으로 되돌아오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전지법에 연락사무소를 다시 개설하고 개별적으로 남하한 법관과 사무직원의 등록을 접수하는 동시에 생계대책을 마련하면서 상징적이거나 사법부의 조직을 복원하였다. 그러다가 동월 13일에 시달된 비전투 부처의 남하방침에 따라서 사법부도 대전을 떠났다.

이때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일행은 열차 편으로 부산으로 직행하고 사무직원들은 노용호 행정처장의 인솔 하에 전주-순천-진주를 거쳐 부산으로 내려갔으나 임시수도가 대구에 머물게 됨으로써 다시 대구로 복상하여 행정부가 위치한 경북도청의 강당 한쪽에 사법부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⁷³⁾

국가의 핵심부서인 사법부가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대한 사실을 행정계통으로 연락받지 못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 행정조직이 미비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와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전쟁이 발발하면 전시체제로 전환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초기에는 조직적으로 조치하지 못하였다.

한편 7월 1일부 총장에 임명된 정일권 소장은 군사작전에 수반되는 대민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7월 9일 육군본부에 계엄사령부를 편성(장교 14명, 사병 20명)하고, 그 예하부서로 민사부를 설치하였다. 계엄업무는 새로 창설된 민사부에서 수행하되 헌병과 방첩대, 범죄수사대를 계엄사에 배속시켰으며, 당시 초대 민사부장에는 7월 10일 이지형 대령(법무감)이 보직되었고, 육군의 각 사단과 해군의 진해통제부 사령부에 민사과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였다.⁷⁴⁾

전쟁초기 헌병은 먼저 전선에서 무질서하게 후퇴하는 낙오병을 수습하여 전투에 참여시키는 한편, 주보급로에 대한 경계 및 교통을 정리하면서 피난민을 통제하였다. 계엄령 선포당시 피난민들이 대전으로 집중되자 정부에서는 6개 부처에서 수립한 분산계획과 수용경비 및 분산요령 등을 통합하여 7월 10일 경상도, 전라도 도지사들에게 하달하였다.⁷⁵⁾

아울러 정부의 피난민 통제지침에 따라 국방부 요원들은 피난민 신분조사와 증명서 교부, 그리고 피난민 인솔, 수용소 경비 등의 임무를 맡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육본 민사부는 시기적으로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가 체계화되지는 못하였으나, 점차 조직을 강화하여 군 작전에 소요되는 각종 차량과 선박을 동원하였고 병력의 수용과 지원을 위한 건물, 생산시설 등도 징발의 형태를 통해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개전초기 정부는 조직편성의 미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으나, 점차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조직력을 회복하였으며 후방안정과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2. 북한 게릴라에 대한 조치

전쟁초기 북한 게릴라는 부대성격, 훈련, 조직, 임무, 소속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침 직후 북한의 게릴라는 주로 독립 제766부대, 정규사단 내에 편성된 비정규전 부대, 그리고 지구당 게릴라 등 차이가 있었다.

북한군은 남침 초기 후방병참선 차단, 철수부대 기습,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제4·제5·제6사단 내에 게릴라 부대를 편성하고 있었다. 특히 제5사단 내 게릴라부대는 최초 2개 대대 6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전쟁이전에 입북한 남로당출신으로 구성되었고, 투입되기 이전 약 5개월간 게릴라 교육을 받았다.⁷⁶⁾ 정규 사단 내에 편성된 이들 게릴라 부대의 임무는 주보급로·교량·

도로·발전소·포병진지·탄약고 등을 파괴하고 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전쟁초기 이들은 각 사단을 직접 지원하고 있었으나 훈련의 미숙으로 잘못 운용된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최초의 기도와는 달리 주로 정찰 중대처럼 운용된 경우가 많았고, 사단과 원거리로 떨어져 작전을 지원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보다는 정규전과 같은 교전을 수행한 경우가 많았다. 상기 두 가지의 북한 게릴라 형태와 운용은 전사상 대단히 특이한 것이었다. 통상 게릴라부대는 '공자'가 아니라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방자'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전력이 우세한 공자의 입장에서 유격부대를 운영하였던 것이다.

다음 형태가 남한내 지구당 게릴라이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었으나, 대체로 조직체계가 약하고 무장력도 약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들은 각 지역의 남로당계 조직 구성원을 기반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전쟁 이전 남로당조직은 거의 와해된 상황이었고, 또 정치·경제적인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침 직후 지구당 빨치산들의 움직임은 극히 미약하였다. 그들은 남로당계에서 기대하였던 소위 '20만 인민봉기'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으며 기껏해야 은밀히 인민위원회 조직을 복구하거나 북한군 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것, 그리고 북한군에 협조하여 국군 낙오병이나 우익인사들을 검거하는 것 등이 고작이었다.⁷⁷⁾

서울을 점령한 날 최고사령부의 명령으로 남로당계 윤상철과 허성택 등은 형무소에서 풀려난 남로당원들을 중심으로 게릴라 부대를 구성, 전선을 넘어 호남 지역에 침투하여 제2전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부대는 정규군의 뒤만 쫓아갔을 뿐 별 성과가 없었고 그 후 전주에서 의용군총사령부(사령관 이기석, 부사령관 허성택)로 개편되었다.⁷⁸⁾

한편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게릴라에 대한 입장과 평가를 분석해보면, 남침직후 정규작전에 배합하여 활동하도록 촉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김일성은 남침 다음날 방송연설에서 남한 게릴라들에게 '후방을 타격하며, 인민위원회를 복

구하며, 인민군대의 작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고,⁷⁹⁾ 같은 날 노동당 정치위원회는 서울을 점령한 이후 게릴라를 조직하여 정규군에 앞서 전진 배치하도록 결정하였다.

김일성은 서울을 점령한 날 평양방송을 통해 "미해방지구 인민은 빨치산활동을 전개하여 후방을 교란시키고 도처에서 인민폭동을 일으켜 군수물자수송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⁸⁰⁾ 동년 7월 8일자 방송에서는 '유격대들에게 도로와 철교 교량 통신망들을 파괴하여 병력이동과 무기 군수물자의 수송을 파탄시킬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남반부 인민들과 빨치산들은 도처에서 자기들의 군대이며 해방자인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경북 경남 전남에서 활동영역을 확대 강화하라'고 독려했다.⁸¹⁾

이러한 김일성의 입장은 소위 초기작전의 전과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남로당이나 지구당 빨치산의 봉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작전초기 정규전에 호응하여 가능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었고, 이때까지는 작전계획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전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구당 게릴라의 활동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로당계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하는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선제타격작전계획'과는 달리 결국 미군이 조기에 참전하였고 전쟁은 장기화되었다. 이는 후에 박헌영 등 남로당계의 주장이 김일성의 남침의지를 부추긴 변수로 해석되어 숙청당하는 중요한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⁸²⁾

북한정권은 "개전 당시 적의 후방에 약 3,000명의 공작원이 침투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봉기 및 폭동을 야기 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인민군 후방에서 폭동이 야기되었으니 이것이 정치적 실패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⁸³⁾

미 제8군의 정보보고에 의하면, 군사고문단은 전쟁발발 이후 7월 중순까지 적 게릴라의 전·부상자 규모를 6,000명에 이른다고 집계하였다.⁸⁴⁾ 이미 이 시기 게릴라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예고하였다. 주목한 소련대사 스티코프도 스

탈린에게 “성공적인 인민군의 공격은 빨치산 게릴라 활동을 더욱 고무하였으며 최근에는 남한군 후방에서의 빨치산 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⁸⁵⁾고 하여 게릴라 활동이 점차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 미군 선전부대인 미 제24사단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7월 4일 죽미령에 배치될 때 민간인들로 인해 다소간의 차질을 빚었으며, 그 후 미군은 피난민속에 가장한 적 오열들로 작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7월 7일 제24사단 주력이 천안지역에 방어선을 편성하고 처음으로 대전차지뢰를 정정동 열차 건널목과 진천-온양 도로에 매설하고 도로를 통제하였으나, 대전차지뢰는 북한군이 침투시킨 민간인과 국군복장으로 위장한 게릴라들이 제거하였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⁸⁶⁾ 미군은 오산·평택·천안·대전전투 이후 남파 게릴라와 지구당 게릴라, 사단소속 게릴라의 활동으로 후방지역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⁸⁷⁾

<표 1-3> 북한 게릴라 활동 내용⁸⁸⁾

날 짜	내 용
6. 30	인천에서 게릴라 300여명 폭동
7. 7	영산에서 소제 소총과 탄약 178발로 무장한 1명의 게릴라 체포
”	목포에서 게릴라 파출소 기습
7. 8	부산에서 일단의 게릴라 병력이 고지대에서 활동을 개시함
”	서남부지역 전남에서 게릴라 활동 가열화
”	경남에서 30명의 무장 게릴라가 작은 부락을 약탈함
”	함양에서 30명의 게릴라가 마을을 공격, 경찰에 의해 격퇴됨
7. 9	고창에서 경찰이 마을에 침입한 게릴라 30명과 교전
”	함안에서 게릴라가 마을에 침입하여 약탈, 방화, 납치
”	산청에서 게릴라 활동이 보고됨
”	밀양에서 게릴라 1명이 마을을 공격하고 3만원을 약탈
”	하동에서 일제소총으로 무장한 8명의 게릴라가 의복을 약탈
”	창녕에서 일단의 게릴라가 시내를 공격
7. 11	대전에서 17명이 게릴라 혐의로 체포됨
7. 13	영천에서 1천여명의 게릴라가 시내 남동 5마일에 위치
7월중순	동해에서 소규모 게릴라가 여러 지역에 출현, 경찰병력과 교전
”	부산지역에서 게릴라 조직이 편성되고 선전이 강화됨
”	지리산에서 일단의 게릴라가 조직 훈련중임

미군은 통상의 야전조건하에서 강력한 화력과 높은 기동성이라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북한 게릴라의 비정규전에 의해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미 극동군에서 파악한 1950년 7월 중순까지 적 게릴라 활동 상황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은 1950년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일부 산악지대에 잔존하고 있던 빨치산들이 북한군의 작전에 호응하여 활동한 사례를 집계한 것이다. 표에 의하면, 적 게릴라들이 7월 중순경까지는 주로 지리산, 경북 등 산악을 근거로 활동하였으며, 일부가 인천, 부산 등 도시에서 파출소를 기습한다든지 선전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금융 및 통신 조치

전쟁이 나자 정부에서는 일단 비상사태 하에서의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 등의 지불을 제한할 목적으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제2호로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공포하였다.

이 긴급명령은 금융기관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만약 금융기관이 예금채권자에게 규제조치 이상의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의 효력을 취소하고, 지급된 자금을 부당이득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사법적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긴급조치는 소극적 요구에 응하게 하는 반면, 일면으로는 전쟁에 필요한 군사비의 조달을 용이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피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예금대불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전쟁직후의 정책적 진공상태를 신속한 행정적 수단으로 방지함과 동시에 능히 이러한 사태에서 야기될 염려가 있는 금융경색 내지는 경화를 방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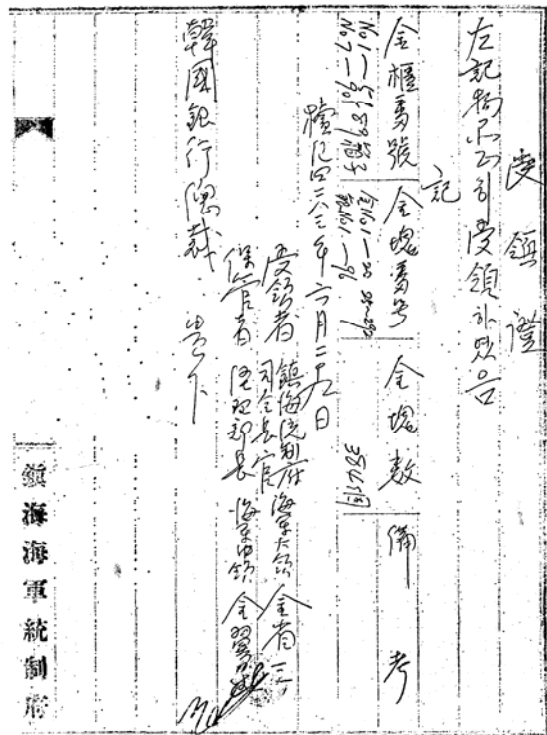
이것을 유통경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발생에 따르는 유통질서의 혼란을 최

소환으로 하기 위하여 소비자금의 방출로 인한 구매력 부여에 그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 구매력의 부여란 피난민에 대한 생활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무제한 방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한국은행 구용서 총재는 국방예산을 조기 인출케 하여 각 군에 영달케 함으로써 전쟁수행에 이바지하고,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한은보유의 금과 은을 27일 14:00에 긴급 반출하였다. 그러나 군에서 제공된 트럭으로 89상자로 포장된 금 1,070kg와 은 2,513kg만을 반출하고 나머지 금 223kg과 은 15,788kg은 미발행 한국은행권의 일부와 같이 지하금고에 잔치하여야만 하였다. 이 금은과 미발행권은 적의 서울 침습과 더불어 약탈되었는데 북한은 이 미발행권을 대한민국의 경제교란을 목적으로 남발함으로써 정부는 9월에 통화의 교환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⁸⁹⁾

한편 반출된 금은은 헌병 20명과 한은직원 2명의 호송하에 29일 진해해군통제부로 이송하여 보관하였다가 동년 8월 1일에 부산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기탁하였는데 뒷날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가입할 때에 금지분출자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서울 각 세무서에 보관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측량원도 등은 조직적인 철수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방화, 방습장치가 되어 있는 각 세무서의 지적창고에 보관하



수령증

고 셔터를 내린 다음 자물쇠로 잠근 채 그대로 철수하여야만 하였는데 수복 후에 확인한 결과 종로세무서에서 남산의 임야도 1매만이 없어졌을 뿐으로 전량이 그대로 있었다.⁹⁰⁾

참고로 이 무렵의 예금현황과 화폐가치를 오늘날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15해방 이후 경제적인 악순환이 거듭되어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도 혼란을 면치 못하였는데 1949년 말에는 「재정안정 15개 원칙」을 확정 발표하여 인플레이션 억제와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어 1950년 1월부터 전쟁발발 시까지 처음으로 안정기조가 마련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예금고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1949년 말 655억원이던 것이 1950년 5월 말에는 67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화폐가치가 안정된 증거로써 1950년 초부터는 월부제도가 생기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달러 환율 1,800:1이고 백미 소두 1말에 2,300원일 때 중견봉급자의 월급이 12,000원이었으니 생활급에는 아직도 소원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이 원화는 1953년 2월 15일에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UN군 대여금의 누증과 재정적자 및 은행신용의 증대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통화가치의 안정과 주요 산업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100:1의 비율로 절상하여 호칭단위를 환(圓)으로 개칭하는 금융조치를 단행함으로써 100원이 1환이 되었다.

또 1962년 6월 10일에는 부동산자금을 산업자금화하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개발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동시에 통화증발에 따른 잠정적인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을 다시 10:1로 절상하고 호칭단위를 「원」으로 함으로써 이 당시의 원(圓)은 오늘의 1/1,000, 즉 1,000원이 1원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때에는 조폐공사(1951년 10월 1일 창설)가 미처 설립되지 않아서 화폐는 서대문구 만리동 소재의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되고 있었다. 이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는 교과서인쇄를 목적으로 1920년 설립된 회사인데 일제가 비상화폐의 보유를 위하여 1940년부터 조폐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미군정이

승계하여 화폐를 인쇄하였던 것이다.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그대로 활용하였는데 서울 철수시에 조폐원판을 반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확실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의 이동에 따라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이동한 체신부는 대전체신청에 임시본부를 두고 남하한 몇몇 간부를 중심으로 잠정적으로 기구를 재편하여 전신전화시설을 보수 유지하면서 군통신망으로서의 활용에 주력하였다.

이 무렵 서울을 강점한 북한은 통신전화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인지 끝까지 직장을 고수하다가 미처 피난하지 못한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는 한편 북한의 통신부상을 두목으로 한 무리가 서울체신청에 본부를 두고 군사통신과 평양까지의 통신유지에 광분하고 있었다.

이로써 체신부산하의 인적손실은 사망 67명에 납치 63명 그리고 행방불명 76명과 부상 28명으로서 합계 234명에 이르렀으며 체신부 본관을 비롯한 25동의 건물이 전파 또는 반파되었다. 한편 자동차 전화교환기 77대를 비롯하여 4,771점의 기재손실과 47,000km의 전선 그리고 82,000본의 전신전주가 절단·파괴 또는 소실되었다.⁹¹⁾

제 6 절 분석 및 평가

1. 전시조치의 성격

한국정부는 정부수립 2년차의 신생독립국가로서 행정조직이나 각종 법률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여 국가 위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조직이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쟁지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유사시 국가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정부 등 모든 기관에게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들이 전쟁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군사력 열세를 내부의 결속과 더불어 미군과 유엔 등 외부의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리하여 한국정부는 지연작전 초기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 부처별로 조직력을 회복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정부는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입법, 사법부 등은 각 부서별로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각 부처 간의 관계와 역할 분담, 군의 행정기관(검찰, 경찰)에 대한 통제 등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정부의 전시 전환조치는 최초 국방부가 전국에 비상을 발령하고, 내무부가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하달하는 등 행정부의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외교적인 조치를 전개하였고,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들은 수원,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대전으로 이동한 후 충남도청에 자리 잡고, 국방본부를

중심으로 전쟁물자의 긴급수송에 협조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사회부도 각 도지사에게 협조하여 군경 위문품을 마련하여 충청도, 경기도 복지부를 통해 전달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어느 정도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국회에서는 비상위원을 선정하여 외교, 군사, 정보, 식량, 정치 공작 등 각 분야에 걸쳐 긴급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장병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채택하였으며, 사회 및 종교단체 지도층 인사들도 대전시 공관에서 국군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궤기대회를 위시한 후방의 치안 유지와 오염 적발, 그리고 군·경 원호 등의 지원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사전에 전시에 대비한 비상계획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신생 한국정부로서는 전쟁초기 극심한 혼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인적구성과 경험, 법령 및 제도 등 국가역량 면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상계엄령 선포 문제이다. 정부는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인 헌법 제64조에 명시된 계엄령을 즉시 선포하지 못하고 7월 8일 비교적 늦은 시기에 조치를 취하였다. 계엄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한 사변이 발생하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이를 선포하지 않았다.

또 국회는 전쟁 상황하에서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전쟁을 지도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전시에 국회가 조치해야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초기 행정부가 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했어야 했지만 국회 역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행정조직 복원문제이다. 정부 각 부처의 이동시 장관 및 차관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형태의 유지에만 주안을 두었고 실질적인 행정기능의 이동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컸다고 평가된다. 정부의 각 부처는 지연작

전 초기 체계적인 전시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선의 위급한 상황에 따라 조치해야 될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대책을 결정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가 지도부가 국가의 행정조직을 복원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생국가인 한국은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준비되지 않은 단점을 극복하고 먼저 군사적인 조치보다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결국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이끌어냈고, 조기에 미 지상군을 투입시킴으로써 지연전을 통해 적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관별 전시조치 분석 및 평가

이승만 대통령은 외무부와 대미특사를 통해 미국과 유엔에 지원을 호소하였고, 정부의 요청을 받은 미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필요한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여 자유진영의 행동통일을 촉구하였으며, 맥아더 원수의 한국전선 시찰 이후에는 미군 지원에 관한 성명을 유엔과 전 세계에 공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정부를 지원하게 되었다.

정부는 비상계엄령 선포 다음날 군사작전에 수반되는 대민 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가 육군본부에 민사부를 설치하였다. 육본 민사부는 계엄사령부를 통해 군사작전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민군간의 긴밀한 협조와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난민 관련 임무는 전투지역 민간인의 철수 또는 복귀와 피난민 및 이재민 구호를 담당하였다.

또한 정부는 효율적인 작전을 지원하고 피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회부·농림부·국방부·내무부·교통부·보건부 등 각 장관의 명의로 각 도지사 앞으로

피난민 분산에 관한 통첩을 하달하였다. 이어 각 시도에 긴급히 임시조치 법안을 시달하여 피난민의 수용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일정지역으로의 집중이동을 견제하고 각 지방으로 분산을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각도 사회과의 요구에 따라 양곡을 즉시 공급하고 대금지불은 최대한 유예하였고, 국방 및 내무부는 신분조사와 증명서 교부에 협력하고 승차 및 이동시 질서유지를 위해 목적지까지 인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수용소의 질서유지와 사상불온자의 개입을 막기 위해 경비를 담당하였다. 교통부는 증명서 소지자에 한하여 무임승차를 허용하여 지원하였고, 보건부는 환자들을 각 의료기관을 동원하여 무료로 치료하는 등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전시 후방치안을 위해 내무부, 검찰 및 경찰이 전시기구로 전환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내무부는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통제 및 운영계획이나 주민통제계획 등 구체적인 전시전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당시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육군본부)와 긴밀한 협조 없이 대부분 단독으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검찰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방치안의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 수사력을 치안확보에 집중하여 반민족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 단속에 나서서 거족적인 임전태세 확립에 앞장섰다. 검찰청에서는 각 지점에 긴급지시하여 국민보도연맹의 조직점검과 아울러 반공계몽의 선봉에 서게 하여 이탈을 예방하거나 재전향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수형자에 대한 철수계획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수도 하지 못한 채 적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많은 교도관들이 좌익의 고발로 희생되었고, 이러한 사태의 전개로 인해 후방에서는 4·3사건 및 여순10·19사건 관련 좌익 사상범들에 대한 처형을 결정하는 사태로 비화된 경우도 발생하였다. 당시 검찰조직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시 전환조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경찰을 지휘통제하지 못하였다.

경찰은 내무부 및 치안국의 지휘통제 하에서 후방지역의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찰은 일부가 전선에서 군을 지원하여

방어하면서 치안을 유지하였고, 후방에서도 안정적인 치안유지와 피난민 철수통제 임무 등을 수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군을 지원하여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재무부는 예금 지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전쟁에 필요한 군사비의 조달을 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 피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예금대불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전쟁직후의 정책적 진공상태를 신속한 행정적 수단으로 방지함과 동시에 능히 이러한 사태에서 야기될 염려가 있는 금융경색 내지는 경화를 방지하였다.

체신부는 대전체신청에 임시본부를 두고 남하한 몇몇 간부를 중심으로 잠정적으로 기구를 재편하여 전신전화시설을 보수 유지하면서 군 통신망으로서의 활용에 주력하였다.

이렇듯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기습남침을 받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지연작전 초기에 들어와 점차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정부 각 부처의 조직을 복원하려 노력하였으며 후방안정과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고 평가된다.

주 (註)

- 1) 1950년 6월 30일 오후 수원 상공을 선회하던 미군 정찰기가 한국군 병력을 적으로 오인하여 미 전방지휘소(ADCOM)에 “적의 행군중대가 수원 동쪽에서 서진하여 현재 수원으로 접근중이다”라는 오보를 제공함으로써 통신요원들이 수류탄으로 통신장비 등을 파괴하고 철수하였으며, 수원에 있던 전방지휘소, 군사고문단, 대사관 등도 어쩔 수 없이 대전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79, p. 744.
- 2)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1979, p. 28.
- 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20.
- 4) 위의 책, p. 634.
- 5) 류형석 편저, 『6·25참전소년병 참전수기』, 6·25참전소년병전우회, 2005, p. 46.
- 6)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41. 이들은 소위 의용군을 대대적으로 모집하였으며 교량복구 등에도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였다. 『시흥군내 각 면당부 정치정세 보고철』, 군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제16권, 1989, pp. 162-166.
- 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51-653.
- 8) 한표옥, 『한미외교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p. 81.
- 9) 한표옥, 위의 책, pp. 89-90;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합동참모본부사』(상), 1990, p. 78
- 1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 174.
- 11) 위의 책.
- 12) 맥아더 원수는 1950년 6월 29일 오전 합참으로부터 승인받기 약 24시간 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Test of War: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USGPO: 1988), p. 31.
- 13)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상), p. 101.
- 14) Roy K. Flint, *T. F. Smith and 24th Division*, (Ed.)Charles E. Heller and William A. Stoff, *America's First Battle(1776-1965)*(Univ. Press of Kansas: 1988), p. 274.
- 15)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상), p. 101.
- 16) 위의 책, p. 96.
- 17)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USGPO, pp. 100-101.
- 18) 1950년 7월 6일 영국 애틀리 수상은 한국사태로 인해 서구가 좀더 가까운 지역에서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향후 사태의 진전과 관련하여 공동정책수립을 위해 미국과 폭넓은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했다. 원태재, 『6·25전쟁과 영국의 역할』,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제50호, 2006. 6, pp. 278-279.
- 19)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103.
- 20)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상), p. 111. 7월 7일 유엔안보리에서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트루먼은 합동참모본부를 그 자신의 대행기구로 지정하였고, 차후 합동참모본부가 유엔을 대신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핵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 21)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상), pp. 109-111.
- 22) 정부와 국회는 6월 27일 수원, 29일 대전으로 이동하였고, 7월 8일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일년지』, 1951, p. A74.
- 23) 「사회복지부장이 각 도지사에게」(1950. 6. 29. 18:00), Murzin 보고서(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p. 33. 물진은 소련군 중위로 아군 통신을 감청하는 부대를 지휘하였고, 이 보고서는 전쟁당시 아군 통신을 감청한 결과 보고서이며, 전쟁당시 미군이 노획하여 영역하였다.
 - 24) 8086th AU(FEC), Military History Detachment,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1956 (Unpublished),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No.914, pp. 4-5.
 - 25) 정일권, 『전쟁과 휴전』, p. 38.
 - 26) 대통령비서관 황규면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 27) 대한정의단 단장 최성장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 28) 공보처장 이철원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 2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744-755.
 - 30) 위의 책, pp. 616-617.
 - 31) 김용우 의원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 32) 위의 자료.
 - 3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20.
 - 34) 대한민국 국회, 『국회50년사』, pp. 146-147.
 - 35) 위의 책, p. 147. 제8회 입시회는 전쟁으로 인해 재적의원 210명 가운데 8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남북 또는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재적의원 175명으로 진행되었다.
 - 36)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 pp. 81-85 참조.
 - 3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일년지』, p. A74. 이는 계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단기 4283년 7월 12일 계엄사령관 명에 의하여 헌병사령관 육군대령 송요찬이 포고하였다.
 - 38) 「00이 9900에게」(1950. 6. 29. 18:40), Murzin 보고서, p. 33.
 - 39) 내무부장관 백성욱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 40) 경찰청, 『한국경찰사』 제2권, p. 272.
 - 41) 위의 책, pp. 217-218.
 - 42)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1권, p. 55.
 - 43) 임재표, 『6·25전쟁과 교정행정』, 교정 6월호, 1999, p. 28.
 - 44)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현 서울구치소 청사 옆에 고 우학중 소장의 흉상을 건립하여 추모하고 있다.
 - 45) 법무부, 『한국교정사』, 1987, pp. 496-497.
 - 46) 위의 책, pp. 499-500.
 - 47) 위의 책, pp. 503-505.
 - 48) 위의 책, pp. 506-509.
 - 49) 위의 책, pp. 515-517.
 - 50) 위의 책, p. 484.
 - 51) 부산일보사, 『입시수도 천일』(하), p. 637; 7월 중순이후 서울은 이미 인플레이와 쌀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피난민들에 의하면 북한군이 점령 3일차에 가가호호 수색하여 쌀을 수집해 갔다고 하였다.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0. 7. 25일자),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16집, 1997.
 - 52)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32.
 - 53) 「북한군 제6사단 독립대대 운영성 중위 포로심문조서」(1950. 8. 12일자),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이하 같음). 이에 의하면, 점령지에서 체포된 민간인들은 북한군에 입대할 것을 강요받았고 이들

- 은 점령지 경계병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 54) 『북한군 제13사단 23연대 황성일 상등병 포로신문조서』(1950. 8. 17일자).
 - 55) 김성철, 『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사, 1993, p. 69.
 - 56)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3권, p. 41.
 - 57) 위의 책, p. 11.
 - 58)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40호; 부산시, 『부산시사』 제1권, p. 1066.
 - 59)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2권, pp. 111-115.
 - 60) 육군본부, 『6·25후방전사』(인사편), p. 309.
 - 61) 국방부, 『한국전란1년지』, pp. C49-50; 『관보 제384호』(1950. 7. 20일자).
 - 62) 육군본부, 『육군인사역사』 제1집, p. 604; 국방부, 『한국전란1년지』, p. C56.
 - 63) 유진오, 『서울탈출기』, p. 36.
 - 64)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1권, p. 315.
 - 65)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0. 7. 4일자),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16집.
 - 66)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pp. 3-4.
 - 67) 전병규, 『6·25와 천안』, p. 68, p. 72, p. 93.
 - 68) 위의 책, p. 68.
 - 6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p. 536.
 - 70) 정일형, 『하우스만 회고』, p. 112.
 - 71)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p. 84 참조.
 - 72)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21-622 참조.
 - 73) 사법부 요원들은 7월 13일 하달된 비 전투부처의 남하방침에 따라 대구로 이동하였지만 세부 조치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 74)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권, p. 115.
 - 75)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pp. 294-295.
 - 76) FEC ATIS Research Supplement Interrogation Reports, North Korean Forces Issue No.3, *North Korean Guerrilla Operation to 30 September 1950*(1950. 11. 15), SN.1582.
 - 77) 『정기정보보고』 제54(1951. 2. 23)~58호(1951. 2. 27), 육군본부, 『정기정보보고』 제1권, 1985.
 - 78) 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1-52년편, 1953, pp. 27-28.
 - 7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83.
 - 80)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개, 1984, p. 446.
 - 8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6권, p. 188.
 - 82)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 바람과 물결, 1990, pp. 80-84.
 - 83) 중앙정보부, 『6·25이전 대남공작 실패요인』, p. 355.
 - 84) U.S. 8th Army, G-2 PIR No.6(1950. 7. 18).
 - 85) 『슈티코프가 펜시동지에게』(1950. 7. 1), 외무부, 앞의 자료 제3권.
 - 86) 전병규, 『6·25와 천안』, 인문당, 1988, p. 58.
 - 87)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99-252.
 - 88) FEC, G-2 IR No.25(1950. 7. 210400-220400).
 - 8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24.
 - 9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24.
 - 91) 위의 책, p. 630.



제 2 장 유엔의 결의와 미국의 참전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미국의 조치
제 3 절	미국 해·공군의 활동
제 4 절	미국의 지상군 참전 결정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개 요

이 장에서는 6·25전쟁 발발 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전쟁지도부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조치를 총체적으로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엔과 미국이 전쟁 초동단계에서 실시했던 주한외국인 철수를 비롯하여 미 극동군의 한국군에 대한 탄약지원과 해·공군의 지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 결의, 미국의 한국에 지상군을 파견하기까지의 결정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시각으로 6월 25일과 27일에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게 전쟁이전상태로의 회복, 즉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국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장면(1950. 6. 27)

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결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도 주한외국인 철수를 위한 미 해·공군의 철수엄호 지원으로부터 북한지역에 대한 군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작전범위를 확대하면서 6월 30일에는 급기야 한국 전선에 지상군의 파견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는 이를 통해 유엔이 북한의 남침에 대한 조치와 역할,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을 맞이하여 수행하게 되는 외교 및 군사적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 발발 후 북한의 남침소식이 최초 워싱턴에 전해지자 이 사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고 긴급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유엔안보리는 워싱턴시간 6월 25일 14:00(한국시간 26일 04:00)에 개최되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그들 군대를 38도선 북쪽으로 철퇴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가 있는 지 얼마 뒤에 미국은 북한의 침략이 소련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판정하고, 즉시 소련으로 하여금 북한에 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소련의 거부로 미국의 전쟁 중지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유엔은 국제평화기구로서 평화의 파괴와 침략행위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로 칭함)에서 이를 다루고 있었다. 북한이 불법 남침공격을 했을 때 미국은 전쟁이전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이 1950년 1월 12일 전국기자클럽(National Press Club) 연설에서 밝혔듯이 향후 한국에서의 전쟁 사태에 대해서는 유엔이 해결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지상군이 출동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한 제재 및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결의하여 미국 등 자유 우방국들이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¹⁾

그렇지만 6·25전쟁 발발 당시 미국은 한국에서와 같은 국지전 형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6월 25일(미국시각)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던 존슨(Louis A. Johnson) 국방장관이 “국방부는 한국중심의 전쟁계획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적도 없다”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확인되었다.²⁾ 이에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

던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A. MacArthur) 원수도 주한미대사관 및 군사고문단에 대한 군수지원과 유사시 비전투원인 주한미국인 철수계획 시행 이외에 한반도에 대한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목하면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전선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자 미국은 우선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위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맥아더의 건의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전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미국의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조치는 어쩌면 미국의 잠재수단을 계속 악화시키는 것인데도 그런 식의 해결방식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Blair House)³⁾에서 안보관계관 회의가 6월 26일 09:00(미국시각 6월 25일 20:00)에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중 맥아더가 알아야 될 사항은 “한국에 조사반(survey team)을 파견하고, 주한외국인 철수·탄약 및 장비 수송과 호송에 필요한 미 해·공군의 조치, 그리고 미 제7함대를 극동군사령관 통제하에 둔다”는 것이었다.⁴⁾ 맥아더는 6월 26일 01:00부터 철수하기 시작한 주한외국인 호송 임무를 극동 해·공군이 실시하도록 지시했다.⁵⁾ 또한 맥아더는 사태를 파악하고 지휘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6월 27일 처치(John H. Church)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구성했고,⁶⁾ 이날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부여받자 이를 극동군사령부의 「전방지휘소 겸 주한연락단(ADCOM)」으로 명명하고 주한미고문단의 지휘와 한국군에 대한 지원임무를 실시하도록 추가로 지시한 후 수원으로 파견했다.⁷⁾



처치(John H. Church) 장군과 맥아더 원수

두 번째 안보회의인 블레어하우스회의가 6월 27일 08:00(미국시각 6월 26일 19:00) 블레어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후 페이스 육군장관은 회의 결과 내용 중 맥아더가 조치해야 될 사항, 즉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미 극동 해·공군으로 하여금 38선 이남으로 침입한 북한군을 공격해도 좋다”⁸⁾는 내용을 전문으로 보냈다.

한편 맥아더 장군은 6월 29일 한강변의 전투상황을 직접보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현 전선을 유지하고 실지를 회복하는 길은 미 지상군을 투입하는 일이다. 허락만 해준다면 이 지역에 1개 연대전투단을 지원군으로 보내고, 이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 2개 사단을 증강시켜 반격작전에 투입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메모하여 국방부에 보고했다.⁹⁾

세 번째 안보 회의가 맥아더 전문이 도착하기 이전인 6월 30일 06:00(미국시각 6월 29일 17:00)에 백악관에서 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회의결과 내용을 맥아더에게 전문으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귀관은 남한 군대가 남한 전역으로부터 북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극동군사령관 휘하의 공군과 해군 병력으로 북한의 군사목표를 공격하여 한국군을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다. 육군병력의 투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대규모에 국한 한다 ... 의 공군기지, 병기창, 전차, 군대 그리고 순수한 군사목표를 공격하는 군사 활동을 북한 지역까지 확대할 권한을 부여한다”¹⁰⁾는 것이었다.

한국 전선을 시찰하고 난 후 작성된 맥아더의 전문보고서가 6월 30일 16:00(미국시각 30일 03:00)경에 미 국방부에 도착하자, 콜린스 장군은 이를 페이스 육군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이를 17:57분(미국시각 04:57)에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대통령은 1개 연대전투단 투입을 승인하면서 2개 사단 증강문제는 참모들과 협의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¹¹⁾

6월 30일 22:30(미국시각 30일 09:30)에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국무장관·국방장관·국방차관·합참의장 등과의 회합을 갖고 맥아더 장군이 요구한 2개 사단 파견안에 대해 토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개 사단만 증파해 주면 전투는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¹²⁾ 대통령은 맥아더 원수에게 그의

휘하에 있는 병력을 사용할 전권(full authority)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¹³⁾

이에 따라 브래들리 합참의장이 동경의 극동군사령부에 “1950년 6월 30일자로 6월 29일에 취해졌던 육군 병력의 투입 제한조치를 해제한다”¹⁴⁾라는 지시전문을 발송했다. 맥아더 장군은 이에 따라 주일미군을 한국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받음으로써 한반도에 미군을 전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장의 마지막 ‘분석 및 평가’에서는 유엔의 역할과 참전에 대한 의의, 그리고 미국의 참전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요소와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6·25전쟁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미국도 이러한 유엔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참전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 2 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미국의 조치

1.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

1) 한국정부 수립과 유엔

태평양 전쟁(1941-1945)이 끝난 후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를 점령한 미국과 소련은 분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가 주변국의 세력쟁탈 대상이 되어온 점과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독립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한국민의 처지를 고려하여 4대국(미국·영국·중국·소련)에 의한 상당기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서 소련은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국과 중국까지를 포함한 네 나라 중의 하나가 되기보다는 미국과 직접 1:1로 상대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 하에 우선 미·소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설치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정책구상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외무장관 회의에서 구체화되어 발표되었다.¹⁵⁾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과 1947년 초까지 한반도의 장래를 결정할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미·소간에는 한국 임시정부 구성을 위해서 한국인들 가운데서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근원적인 의견 차이가 있었다. 소련은 과거 모스크바 결정에 반대한 적이 있는 개개의 한국인이나 조직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고, 미국은 “표현의 자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의 자격 요건을 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논란 뒤에는 신탁통치안을 포함한 모스크바 선언에 대해서 공산당만 찬성하고 나머지 단체와 개인이 반대하자 이들

을 제외시킴으로써 새로 구성된 한국 임시정부 내각의 구성원을 공산당원 일색으로 하겠다는 속셈에 대해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상호간에는 전혀 타협될 수 없는 대립이 있었다.¹⁶⁾

38도선 이북과 이남을 점령한 소련과 미국의 대표로 구성된 미·소공동위원회에서의 교착상태가 계속되자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미국과 소련 군정당국은 각 점령지역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보통·비밀·평등·직접 투표를 통해 각각 대표를 뽑아 서울에서 임시국회를 구성하여 이 기구와 미국, 소련, 영국, 중국 등 4개국 한국의 장래문제, 원조, 자원문제를 논의한 다음 통일한국정부가 수립이 되면 양국 점령군을 철수시키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대답은 미국의 의도와는 달랐다.¹⁷⁾ 아직 논의의 여지가 많은데 구태여 4개국 등을 거론하는 것은 모스크바 결정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¹⁸⁾

두 차례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가 소련측의 완강한 주장 때문에 결렬되자 미국 정부는 1947년 9월 17일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에 관한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되었다. 미국의 제안을 받은 유엔은 9월 23일 한국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소련은 양국 주둔군을 철수시키자는 제안을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한 이상 양국군 철수문제도 유엔에서 해결할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하였다.¹⁹⁾ 이로써 한국문제는 미·소간의 문제에서 유엔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유엔에서도 미·소의 입장 차이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의 것만큼이나 떨어져 있었다. 소련은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 자체가 모스크바 협정의 위반이며 따라서 한반도에서 양국 점령군이 먼저 철수한 후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 한국문제 해결의 순서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유엔 감시하에서 남·북한에서 1948년 3월 31일까지 선거를 실시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대표를 선출하여 한국정부를 구성하고 한국정부의 주도하에 “국가안보군(a national security force)”를 창설하여 이 정부와 양국 점령국간에 점령군 철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후 양군이 철수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KO: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을 구성할 것을 제의

했다.²⁰⁾ 그러나 소련은 미국의 입김이 강한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유엔 총회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1947년 11월 14일부터 1948년 3월 31일 까지 남·북한 지역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에 의해서 통일한국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단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화민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공화국의 대표로 구성하도록 하였다.²¹⁾

이 결의안에 의해서 구성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1월 8일 남한에 도착하여 12일에 첫모임을 가졌다. 우크라이나공화국은 대표를 보내지 않은 채 위원단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북한지역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소련 당국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유엔총회임시위원회(The Interim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에 다음 행동을 문의할 수밖에 없었다.

1948년 2월 26일 유엔총회임시위원회는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2월 29일 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공포하게 되었다.²²⁾ 이로써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 한국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찬성 41표, 반대 6표, 기권 1표)하기에 이르렀다.²³⁾ 이 때 유엔총회에서는 한국정부 승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의견청취가 가능했으며 또한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효과적인 통치권을 보유하는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 감시하 한국의 해당지역 선거민의 자유의사의 유효한 표현에 근거를 두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이다.²⁴⁾



유엔기



대한민국 국기

유엔의 승인에 이어 1949년 1월 1일 미국이 한국을 승인하였고, 이어서 중화민국, 영국, 볼리비아, 쿠바 등 27개국이 잇달아 한국을 승인하게 되었다.²⁵⁾ 미국은 한국을 승인한 후 1948년 8월 12일부터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로 활동하고 있던 무초(John J. Muccio)를 1949년 3월 21일에 초대 주한미국대사에 정식으로 임명하였다.²⁶⁾ 이에 한국정부도 1949년 1월 장면(張勉)을 주미한국대사에 임명하였고, 장면 대사는 1949년 5월 25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대사로서 활동을 실시하였다.²⁷⁾ 다음은 1949년도에 한국을 승인한 국가를 <표 2-1>에 정리한 것이다.

<표 2-1> 1949년 한국을 승인한 국가

월	일	국 가	월	일	국 가
1월	1일	미 국	8월	12일	코스타리카
	3일	중화민국		13일	터키/하이티
	18일	영 국		15일	호주/벨기에
2월	6일	프 랑 스		20일	니카라과
3월	3일	필 리 핀	9월	4일	엘살바도르
4월	13일	로마교황청		24일	이 란
5월	27일	칠 레	10월	5일	에쿠아도르
7월	14일	볼리비아/쿠바		21일	태 국
	15일	도미니카		12월	8일
	16일	브 라 질	17일		페 루
	19일	캐 나 다			
	25일	네덜란드			

한편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임무를 계승할 유엔한국위원단(UNCOK: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의 설치에 대해 결의하였다. 유엔한국위원단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유엔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여 38도선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 상황을 유엔에 보고했고, 이는 6·25전쟁에 대한 유엔의 태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엔한국위원단은 6·25전쟁 발발 이후에 열린 제5차 유엔총회(1950년 10월)에서 한국의 구호, 재건, 복구 및 평화회복을 위해 설치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로 교체되었다.²⁸⁾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사무총장은 이를 유엔현장의 위반이라고 규정했고, 이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미 국무부도 북한의 공격을 유엔 헌장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평화의 침해(breach of peace)' 및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로 규정하고 국제평화 유지와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²⁹⁾ 이에 따라 유엔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결의함으로써 유엔회원국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³⁰⁾

이와 같이 북한의 남침 공격에 대한 조치는 국제평화기구인 유엔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6·25전쟁 당시 한국 사태와 관련이 있는 유엔의 주요 기관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엔은 총회, 3개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총장(사무국), 국제사법재판소의 6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³¹⁾ 여기서는 국제평화의 유지와 안전과 관련이 있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사무총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은 창설된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다. 유엔은 1945년 10월 24일 유엔헌장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유엔의 목적은 평화의 유지와 인권의 보장에 있었다. 전쟁 발발 당시 유엔회원국은 51개국이었다.³²⁾ 한국과 북한은 1949년에 각각 유엔회원 가입신청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

지 않았기 때문에 비회원국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

6·25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엔기관으로는 총회(General Assembly),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그리고 사무국(Secretariat)의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이 있었다.³³⁾

유엔총회는 모든 회원국에 의해 구성되고 회기는 매년 9월 세 번째 화요일에 소집되었다. 의사일정이 12월 제3주까지 끝나지 않으면 회기는 다음해에 재개하여 처리했다. 총회의 본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기타 절차적 처리, 전체토의,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실질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³⁴⁾ 표결은 단순 표결로 처리되나 본회의의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처리하였다.³⁵⁾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로 지칭)는 미국·영국·소련·중국·프랑스의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서 지리적 배분에 따라 선거된 6개 비상임이사국(임기 2년)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대부분의 실질적인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갖는다. 안보리는 신속하게 열릴 수 있다. 헌장은 안보리가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의 절차 규칙에는 2주 1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엔헌장 상 전원일치 내지 거부권이 정해진 유일한 유엔 기관이었다. 안보리의 결정은 7개국의 찬성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규정하였다. 안보리는 11개 이사국의 대표가 매월 윤번제로 돌아가며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소련은 1950년 1월 13일 중공의 유엔 가입이 좌절되자 이에 반발하여 안보리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7월 말 종전의 태도를 바꿔 유엔사무총장에게 8월부터 안보리에 복귀하여 예정대로 8월의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³⁶⁾ 이로부터 소련은 안보리에서 미국측의 제안에 제동을 걸게 되었고, 이에 미국은 한국문제를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총회에서 다루게 되었다.

유엔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³⁷⁾ 이 규정은 역대 사무총장들에게 정책결정기관에 의해 위탁된 범위를 넘어 폭넓은 외교적·실무적 활동을

위한 유엔 헌장상의 기초를 제공했다. 유엔 창설 이래 사무총장과 사무국에 중요한 책임을 맡기는 경향이 증대하였다.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국제정치 체계상 비교적 중립적인 약소국가의 국민 중에서 선출하였다. 초대 총장(1946-1952)인 트리그브 리(Trygve Lie)는 노르웨이 출신이었고, 제2대 총장(1953-1961)은 스웨덴의 다그 하마술드(Dag Hammarskjöld)였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헌장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고, 초대 총장의 5년 재임을 관례로 하여 이후부터 계속 5년씩 중임하여 왔다.³⁸⁾

(1) 1 (6. 25, 14:00)

6·25전쟁 이전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1949년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조병옥(趙炳玉) 박사와의 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남한이 침공 당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유엔총회나 안보리에 도움을 호소해야 될 것”이라고 미국의 정책적 입장을 밝혔다.³⁹⁾ 미국의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트루먼 대통령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병력증강과 군사원조를 간청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 서한에 대해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군사력의 유지는 한국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켜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영역을 더 넓혀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부적인 경제개혁과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⁴⁰⁾

특히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국무장관은 전국기자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극동방위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과 대만을 이 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이 연설에서 “태평양에 위치한 다른 지역의 군사적 안보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한 군사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최초에는 이에 맞서 싸우는 당사국민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는 유엔 헌장에 따라 전 문명세계의 개입으로 사태를 안정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⁴¹⁾

미국의 정책결정자들 중 아무도 이러한 정책표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도 한국에 미군 병력과 기지를 유지해야 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지 않고 있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에서 미국의 단독행동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군을 중무장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에서의 군정과 한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던 맥아더 장군도 “미국의 방위선이 필리핀에서 류큐 열도를 지나 일본, 알래스카에 이른다”라고 밝히면서 여기에서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⁴²⁾

이와 같이 미국은 한국문제는 미국 단독의 문제가 아닌 유엔의 문제로 이관시켜 놓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침공격을 했을 때 미국과 유엔은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6·25전쟁 소식을 듣고 유엔사무총장 리가 “그것은 유엔헌장의 위반이야!(That's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라고 소리쳤던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⁴³⁾

북한의 전면남침 공격이 확인되자 미국은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의 통과를 제안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복귀하고 있을 때인 6월 25일 14:00(한국시각 26일 04:00)에 미국이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회의에는 소련을 제외한 10개국이 참석했다. 개회 선언 후 리 사무총장은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와 다른 정보를 근거로 “북한이 유엔헌정을 위반했다”고 말하고,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재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임무”라고 말했다.⁴⁴⁾ 유엔 안보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서 가운데 결론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본 위원단은 전면적 전쟁의 성격을 들어내고 있으며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는 제반 사태를 사무총장이 예의 주시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사무총장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위원단은 추후 더욱 충분히 숙고한 후 권고안을 보낼 생각이다.⁴⁵⁾

이어서 미국의 유엔주재대표 그로스 대리대사가 연설했다. 그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격사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된 유엔의 지난 발자취를 회고했다. 그리고서 결의안 초안을 낭독했다.

… 대한민국 정부는 … 한국 영토에서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이며 … 유일한 정부이다 … 북한의 군대가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한 사실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평화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단정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정권에게 (a) 즉각적으로 전투행위를 중지할 것, (b)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38도선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대해서는 (a) 북한군의 38도선까지의 철수를 감시할 것, (b) 그리고 이 결의안의 집행에 관해서 안전보장이사회에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전 회원국은 이 결의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유엔에 모든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 정권에 원조하는 것을 삼가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⁴⁶⁾

그로스 대리대사의 연설이나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공격은 소련이 책임져야 한다고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그로스 대사에 이어 주미한국대사이자 유엔주재한국 옵서버인 장면(張勉)이 그로스 대사의



유엔안보리 1차 회의에 앞서 장면 주미대사를 위로하고 있는 트리그브리 유엔사무총장(오른쪽)

도움으로 연결하게 되었다. 그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을 일소하는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과 침략한 자들에게 정전을 명령하고 우리 국가의 영역에서 철수하도록 해 줄 것”을 호소했다.⁴⁷⁾ 그러나 그는 군사원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결의안에 대해 “무력침략(armed invasion of)을 무력공격(armed attack upon)”으로 수정한 후 이에 대해 17:45분에 찬성 9표, 기권 1표(유고슬로비아)로 가결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북한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처럼 유엔안보리가 한국에서의 전쟁상황에 대해서 채택한 최초의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경고와 회원국에 대한 권고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침공을 받은 한국은 남한 내에서 유엔 감시하에 한국민의 자유스러운 의사가 반영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합법적인 정부를 가진 국가임을 상기시킨 ‘6·25결의안’은 북한의 공격행위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단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북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적대행위의 중지와 그의 전 병력을 38도선 이북으로 철수시킬 것. 둘째, 유엔한국위원단(UNCOK)에게는 상황 진전에 따른 즉각적인 정책건의와 38도선으로의 북한군의 철수감시, 그리고 이 결의안 시행에 대해서 안보리로 보고할 것. 셋째, 유엔 회원국은 이 결의안 집행을 위한 유엔의 지원 및 북한에 대한 지원을 삼가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경고와 권고를 동시에 담은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⁸⁾

공산침략행위 정지요청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안전보장이사회는 ... 이러한 행동이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며

1.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북한당국이 그들의 군대를 즉각 38도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고
2. 유엔한국위원단이
 - (a) 충분히 검토된 사태에 대한 보고를 가능한 한 지체 없이 보낼 것과
 - (b) 북한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를 감시할 것과

- (c)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이 결의안의 집행에 대하여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3. 모든 회원국들은 유엔이 이 결의안을 집행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며 북한 당국을 지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촉구한다.

The Request of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Korea. June 25, 1950

The Security Council ... Determines that this action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1. Call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calls upon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with their armed forces to the thirty-eighth parallel;
2. Request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 (a) To Communicate its fully considered recommendations on the situation with the least possible delay;
 - (b) To observe the withdrawal of the North Korea forces to the thirty eight parallel; and
 - (c) To keep the Security Council informed on the execution of this resolution;
3. Calls upon all Members to render every assistance to the United Nations in the execution of this resolution and to refrain from giving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이 결의는 한국전쟁에 있어 유엔이 집단안전보장 조치로 침략을 제재하고 평화의 회복을 달성하려는 첫 번째 유엔 결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결의의 핵심은 북한으로 하여금 침략을 중지하고 38도선 이북으로 군대를 철수시키는데 있었다.⁴⁹⁾ 미국은 이 결의에 따라 주소 미국대사를 통하여 소련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도록 요청하는 각서를 전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⁵⁰⁾

이로써 유엔은 한국을 탄생시킨 산실로서 신생국을 보호한다는 책임과 한반도 지역과 세계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 그리고 국제평화기구의 권위를 가지고 한국전에 직접 참전하게 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독일, 이탈리아의 국가사회주의자의 침략적 행위와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주의적 방자함을 막지 못한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기구 자체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6·25 전쟁은 유엔의 권위에 최초의 시련을 가져다 준 국제적 사건이었다.

(2) 2 (6. 27, 14:00)

북한이나 이를 지원하고 있던 소련은 유엔 안보리의 경고성 결의안에 전쟁을 중지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한국에서의 전선 상황은 한국군에게 불리한 채로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는 유엔안보리가 6월 25일 결의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정부는 6월 27일(미국시각 6월 26일) 블레어하우스에서 해·공군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비록 이 조치가 '6·25 유엔결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에 관한 국제적 인정을 얻음과 동시에 한국이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다른 회원국에게도 권고하는 결의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⁵¹⁾

이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7일 15:00시(한국시각 28일 04:00)에 열렸다. 소련 대표 말리크(Yakov A. Malik)는 여전히 불참했다. 미국 대표 오스틴(Warren R. Austin)이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유엔은 오늘날 유엔의 창설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도자들이 6월 25일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틀림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사태의 진전으로 보아 그들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 밖에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⁵²⁾



유엔 안보리에서 오스틴 유엔 미국대사의 연설 장면

유엔한국위원단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결정적인 전투는 며칠 안으로 끝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서 제시된 정전과 북한군의 철수문제는 탁상공론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보고했다.⁵³⁾ 오스틴 대사는 계속해서 “국제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준엄한 제재를 발동시킨다는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명확한 의무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서 이러한 사태에 대처할 새로운 결의안 원문을 낭독했다.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화의 침해가 된다는 것을 결의한 바 있고, 적대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북한 당국에게 38도선까지 그들의 군대를 당장 철수시키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또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이 적대행위를 중지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38도선까지 군대를 철수시키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 보고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군사적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또한 평화와 안전을 얻기 위해 유엔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호소를 받아들여, 유엔회원국에게 무장 공격을 격퇴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하게 될 원조를 대한민국에게 제공해 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⁵⁴⁾

오스틴 대사는 “이러한 새로운 결의안은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인 것이다. 이 결의안의 내용은 이전의 결의안에 대한 위반, 공격행위의 계속, 그리고 긴급히 필요한 군사적 조치 등에 바탕을 두고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런 후 그는 백악관에서 정오에 공포한 대통령의 성명서를 읽은 다음 결론적으로 “이 결의안의 요지와 본인의 진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취한 행동의 주요한 성격은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이며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스틴의 연설이 끝난 후 주미한국대사 장면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의 국가를 구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⁵⁵⁾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투표는 23:45분경에 찬성 7, 반대 1(유고슬라비아), 기권 2(인도·이집트)로 가결되었다. 이 때 한국에서의 전선 상황은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고 있었다. 북한의 무력 공격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



유엔 안보리의 2차 결의안 채택 장면(1950. 6. 27)

하고 유엔회원국들에게 한국에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문이 다음과 가결되었다.

한국군사원조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문

유엔 안보리사회는 북한군대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북한당국에게 전투를 즉각 중지하고 그들의 군대를 즉시 38도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였으며,

유엔한국위원단으로부터 북한당국이 전투를 중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군사적 조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대한민국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효과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여 줄 것을 유엔에 호소하였음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이 무력침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유엔회원국에게 권고하는 바이다.⁵⁶⁾

The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June 27, 1950

“The Security Council,

Having determined that the arm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Having called upon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 with their armed forces to the 38th parallel, and

Having noted from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Korea tha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have neither ceased hostilities nor withdrawn their armed forces to the thirty-eighth parallel and that urgent military measures are require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fo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이와 같이 '6·27 결의'의 핵심은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군사원조를 대한민국에 지원하도록 요청한 데 있었다. 또 미국은 주소미국 대사를 통해 소련정부에 각서를 전달하고 소련이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남한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였지만 예상했던 대로 거부되었다.

이에 유엔사무총장은 유엔회원국에게 6·27 결의의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각국 정부에 보내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이를 접수한 각국 정부에서는 유엔사무총장 또는 유엔안보리의장에게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답신을 보내 화답하였다. 이들 유엔회원국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버마(미얀마), 캐나다, 칠레, 중화민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덴마크, 쿠바, 도미니카,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이디오피아, 그리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아이슬랜드, 인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레바논,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47개국으로써 공산권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유엔의 결의에 찬성했다.⁵⁷⁾

이렇듯 '6·27 결의'는 '6·25 결의'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후 유엔이 창설된 다음 국제평화 파괴행위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가하여 평화를 회복하려는 최초의 집단안전보장조치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군이 유엔군과 함께 공산침략에 대응하게 됨에 따라 전쟁이 북한군(공산군)대 국군과 유엔군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유엔결의에 따라 미국은 6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미 해·공군의 작전지역을 북한지역으로까지 넓힘으로써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그 후 미국은 한국에 지상군을 파견함으로써 육·해·공군이 모두 참전하게 되었으며, 미국에 이어 유엔 회원국도 이에 근거하여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다.

3) 소련과 중공 등 공산권의 반응

유엔안보리가 두 차례나 소집되어 두 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소련은 북한의 남침에 대하여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더욱이 소련은 전쟁 발발 이후부터 남한이 38도선 이북에 대해 먼저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허구적 사실을 주장하며, 이 전쟁은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어야 하는 내전이라고 주장하였다. 소련의 신문과 라디오도 미국을 "월 스트리트 야수들" 또는 거만한 미 도당들'이라고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 저지른 침략에 대해 맹공격을 퍼부었다. 중국 공산당 선전물들은 미국을 "중이호랑이"라고 칭하고 중국의 수백만 인민은 "인민해방군이 중국의 모든 영토를 해방시킬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만 해협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초점을 맞추었다.⁵⁸⁾

유엔안보리의 제2차 결의가 있는 지 이틀 후인 6월 29일 소련 부외상인 그로미코(Andrei Gromyko)는 유엔사무총장과 미 국무장관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다. 그는 항의 서한에서 "소련 정부는 유엔안보리결의안이 유엔안보리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7개국의 찬성표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헌장에 위반하였다"고 말하였다. 또 그는 이번

결의안은 6개국의 투표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7번째의 투표는 중국을 대표하는 법적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국민당 대표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앞의 결의안은 안보리의 2개 상임국인 소련과 중공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한 것으로, “안보리 결정이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공)의 찬성투표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헌장을 위반하였다”라고 말했다.⁵⁹⁾ 즉 소련은 이상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공도 7월 6일 주은래(周恩來) 외교부장을 통해 소련 그로미코 부외상이 주장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항의 전문을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보냈다. 주은래는 이 전문에서 “6월 27일 유엔 결의는 미국의 무장침략과 조선 내정을 간섭하고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결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 두 상임이사국이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 것으로 분명하게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⁶⁰⁾

이처럼 소련과 중공은 한국에 관한 안보리의 조치가 상임이사국 전원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련은 북한당국에 대하여 전투를 중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6월 27일 유엔사무총장의 서한에 대한 6월 29일 소련 부외상의 답신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항의 서한에서 “소련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및 중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하는 7개국 찬표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는 유엔 헌장에 반한 것으로 이번 결의안은 6개국 투표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7번째 투표는 중국을 대표할 법적 권리가 없는 국민당 대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¹⁾ 유엔 안보리의 표결 관계조항인 유엔헌장 제27조는 주요 문제의 표결은 상임이사국의 찬성투표를 포함한 7개 이사국의 찬표로 결정하고 있다.⁶²⁾

그러나 소련의 안보리 불참으로 인한 기권은 거부권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는 1946년부터 6·25전쟁 이전까지의 안보리에서 행해졌던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소련이 주장하고 있는 소련을 포함한 모든 가맹국

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찬성투표를 통하여 나타난 전원 일치에 결정을 합리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 그 동안의 사례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소련은 1948년 4월 16일 팔레스타인(Palestine)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하였고, 그 해 5월 22일 휴전 결의안에도 기권하였다. 그 해 7월 15일에는 팔레스타인에 휴전을 명령하고, 이 지역의 중재자에게 훈령하는 결의안에도 기권하였다. 1948년 10월 14일에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관계국에게 점령지역로부터의 철수를 촉구한 결의안에 대해서도 기권하였다. 또한 소련은 1948년 1월 17일 캐시미르 사태를 악화시킬 행동을 중지하도록 당사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하였고, 그 해 1월 20일에는 광범한 위임사항을 부여하는 유엔의 인도·파키스탄 위원회의 설립 결의안에도 기권하였다. 소련은 1948년 4월 21일 유엔 인도·파키스탄 위원회의 위임확대, 휴전 성립, 그리고 국민투표 실시 조건을 설정하는 결의안에도 기권하였다. 1948년 6월 3일에는 유엔위원회를 분쟁지역에 파견하도록 명령하는 결의안에도 소련은 기권하였다. 이외에도 소련은 1948년 12월 24일 인도네시아 당사자에게 전투행위의 중지를 촉구하고 인도네시아 관리들의 석방을 명령하는 결의안에 프랑스와 함께 기권하였다. 그리고 1949년 1월 28일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는 유엔 인도네시아 위원회의 설립 결의안에 소련은 기권하였다. 이와 같이 소련은 안보리에서 기권을 행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 합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⁶³⁾

또한 소련은 그들이 표결에 참여하고 다른 상임이사국이 기권한 결의안에 대해서도 그 합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즉 1948년 12월 28일에 가결된 네덜란드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치범 석방 촉구 결의안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기권하였다. 또 이스라엘의 유엔가입을 권고한 1949년 3월 4일의 안보리 결의안 표결에 영국은 기권하였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하여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의 협의를 권고한 1948년 3월 5일의 안보리 결의 표결에서도 영국은 기권하였다. 이처럼 안보리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이 스스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소련이 6·25 전쟁 때 안보리에 불참하여 기권으로 처리된 전례와 같이 이는 명확히 기권에 해당하는 것이었다.⁶⁴⁾

특히 유엔헌장 제28조는 안보리는 계속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⁵⁾ 이 규정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의 불참이 모든 중요활동을 중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될 때에는 무효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50년 6월 25일과 27일의 회의에 참석한 안보리 10개 이사국 중에서 안보리 조치의 합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 더욱이 6월 27일의 표결에 반대를 표명한 나라까지도 이의 합법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없었다.⁶⁶⁾ 따라서 소련의 북한 제재에 대한 안보리의 결의 무효 주장은 법적 효력이나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

또한 중공 대표가 안보리의 중국 대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소련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이미 국민당정부 대표의 신임장을 승인하였고, 그 뒤 이 승인을 번복하고자 했던 소련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6월 25일과 27일 유엔안보리에서 행한 중화민국의 투표는 중국의 공식적인 투표에 해당하는 정당한 것이다. 이 밖의 공산권 국가는 소련이나 중공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공산권 국가이면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었던 유고슬로비아의 입장은 달랐다. 6월 25일과 27일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기권 및 반대표를 던졌던 유고슬로비아 정부는 유엔헌장에 따라 취해진 안보리의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유고슬로비아 대사인 알렌(George V. Allen)이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에서 "유고슬로비아 정부는 유엔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며 [북한의] 침략행위를 비난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며, 유엔 헌장에 따라 이루어진 유엔안보리의 모든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⁶⁷⁾

이와 같이 유엔 안보리가 한국 사태에 대해 취한 두 차례에 거쳐 이루어졌던 결의에 대한 정당성은 명백히 입증되었다. 북한은 유엔헌장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의 파괴(breach of peace) 또는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를 관장하는 유엔 안보리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무력행사에 필요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2. 미국의 한국 사태 논의와 조치

1) 미국의 한국전 상황접수 및 초기 대응

미국 워싱턴의 고위관리들이 6·25전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북한의 전면공격을 알리는 주한미국대사 무초(John J. Muccio)가 보낸 전문이 국무부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무초대사는 북한의 남침 공격에 대해 “지금까지 그들이 취했던 공격의 성격과 수법으로 보아 그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적 공격행위(all-out offensive)’임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⁶⁸⁾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지 7시간 26분이 지난 뒤에야 전쟁 상황을 공식으로 접수하였다. 이 때부터 미 국무부는 비상연락체통을 이용하여 러스크 국무차관보를 비롯한 국무부의 주요 관계관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국방부는 주한대사관 무관을 통해 육군부에 보고 된 내용을 기초로 국방부의 주요 관계관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미국의 한국전 상황에 대한 전파는 긴급히 이루어졌다.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시간이 워싱턴에는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의 7시간이 지나서야 소식을 접했던 것이다. 또한 전쟁 상황 전파는 국무부와 국방부가 각각 소속 비상연락체통을 통해 연락을 취해 나갔다. 국무부는 러스크(Dean Rusk) 극동담당차관보를 통해 전파되었고, 국방부는 페이스(Frank Pace Jr.) 육군장관을 통해 전파되었다.

미국 고위 관리 가운데 한국전쟁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1945년 38도선 획정에 참여했던 러스크 국무차관보였다. 그는 콜럼비아지구 조지타운(Georgetown)에 살고 있던 유명한 언론인 알소프(Joseph Alsop)의 만찬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 국무부 극동과의 공보관인 커너스(W. Bradley Connors)로부터 전쟁 소식을 들었다. 커너스는 무초 대사의 전문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동통신(UP)의 서울주재특파원 제임스(Jack James) 기자로부터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을 보고를 받은 워싱턴 본사의 곤잘레스(Donald Gonzales)가 전쟁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러스크 차관보에게 전화로

알렸다.⁶⁹⁾ 러스크 차관보는 보고를 받는 즉시 무초 대사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는 국무부로 직행했다. 국무부에서는 22:15분경 무초 대사의 암호 전문을 해독하여 육군부에 중계하고 23:00경에 백악관에 전송했다.⁷⁰⁾

미 국방부도 국무부와는 별도로 한국전 상황에 대한 연락 및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에서 최초로 한국전 상황을 들은 사람은 페이스 육군장관이였다. 그는 러스크 국무차관보와 함께 알소프의 만찬에 초대받아 있다가 러스크 차관보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곧장 국방부 사무실로 직행했다. 국방부에 도착한 페이스 육군장관은 존슨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존슨 장관은 한국 사태에 입수되는 모든 정보는 페이스 장관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국방장관의 권한을 잠정적으로 그에게 위임한다고 말했다.⁷¹⁾ 존슨 장관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과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 원수가 육군부 소속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국방부내 육군부에 주한미국대사관 무관의 전문이 도착한 것은 22:45분경이었다. 육군부의 당직 장교는 이 사실을 작전참모부장 볼테(Charles L. Bolte) 소장과 작전참모부차장 팀버만(Thomas S. Timberman) 준장에게 보고했다. 합참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 대장도 23:30분이 지난 후에야 합동참모본부 당직 장교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⁷²⁾

그날 밤 한국전쟁 소식을 접한 미국의 고위관료는 러스크 극동담당국무차관보와 페이스 육군 장관이였다. 이 두 사람은 6월 24일 22:30(한국시각 25일 12:30)에 국무부에서 회동했다. 이 때 러스크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가까운 메릴랜드의 샌디스프링(Sandy Spring) 농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이 지금까지 취한 공격의 성격과 수법으로 볼 때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행위”임을 밝히는 무초 대사의 전문을 읽어주었다.⁷³⁾ 애치슨과 러스크는 북한군의 공격이 만만치 않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22:45분경 국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유엔담당국무차관보 히커슨(John D. Hickerson)이 국무부에 도착하여 무초 대사의 전문을 읽고 난 다음 러스크 및 페이스와 간단하게 토의한 후 국무장관에게 전화했다. 그는 국무장관에게 미국의 기조정책(general policy)은 유엔을 통해 공격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표 2-2> 미국 국가안보기관의 6·25전쟁 인지시간 (미국시각)

구 분	도착 시간	보고자	접수자	주요 내용	비 고
국무부	6. 24 21:26	주한미대사 무초	극동담당 차관보 러스크	북한 기습남침(04:00) 38도선 월경(06:00)	육군장관/ 국방장관 보고
육군부	22:45	주한미대사관 무관	작전참모부 당직장교	북한 기습남침(04:00) 38도선 월경(06:00)	
	23:30	주한미대사관 무관	작전참모부 당직장교	북한 전쟁 선포 내용 피난민 도로 혼잡	작전참모부장/ 작전참모차장 보고
	6. 25 00:35	주한미대사관 무관	작전참모부 당직장교	서울상공 야크기 2대 출현	
	05:02	극동군사령관	작전참모부 당직장교	남한 최서북단 상실 임진강-강릉선 방어	주한무관/군사고문단 보고서 종합
	06:10	주한미대사관 무관	작전참모부 당직장교	북한전투기 3대 김포 공항 기총소사	
합 참	23:30	신문 특과원 문의로 사실 내용 확인	합참 당직장교 (클리프톤 육군중령)	북한 기습남침 내용	합동참모본부 국장/ 합참의장 보고
극 동 사령부	20:25	주한미대사관 무관/연락장교단	극동사령부 당직장교	북한 기습남침 내용	

러스크 차관보도 이에 동의했음을 알렸다. 히커슨과 러스크 차관보는 애치슨 장관에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상정할 것과 주말이므로 유엔사무국을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유엔사무총장에게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점을 알릴 것을 건의했다. 히커슨 유엔담당차관보는 러스크 차관보 및 국무부의 다른 관리들과 함께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군사고문단, 국방부, 그리고 신문사로부터 정보 수집을 위해 철야근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유엔사무국에 통보를 해주고 북한군 공격과 그 의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국방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⁷⁴⁾

에치슨 국무장관은 히커슨 차관보와 전화통화를 하고 난 23:20분 경 미주리 주 인디펜덴스(Independence)의 별장 서재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을 전화로 보고했다. 그는 “대통령 각하 중대한 뉴스입니다.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⁷⁵⁾ 그는 사태의 진상과 함께 유엔안전보장이사회회의 긴급소집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에 침략행위를 제소하자는 국무장관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는 존슨 국방장관이 극동지역을 시찰 중이라 워싱턴에 부재중일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사태의 처리에 국무부가 책임을 맡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동의했다. 대통령과 통화가 끝난 후 에치슨 국무장관은 국무부에 있는 히커슨 차관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공식으로 제출하기까지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알려주었다.⁷⁶⁾

히커슨 차관보는 23:00경 한국에서의 전쟁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미국대표단의 대리대사인 그로스(Ernest A. Gross)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외출 중이라 통화를 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유엔사무총장 리(Trygve Lie)에게 전화를 했다. 히커슨의 전화를 받은 리 사무총장은 “그건 유엔현장의 위반”이라고 소리쳤다. 사무총장은 한국에서의 전투에 관한 정보는 “국경충돌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단언했다.⁷⁷⁾ 히커슨은 리 사무총장에게 미국이 그로스 대사를 통해 몇 시간 내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과 긴급회의를 개최할 유일한 권한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인 인도의 라우(Sir Benegal N. Rau)경에게 보낼 미국의 요청을 설명했다. 리 사무총장과 통화를 끝낸 후 히커슨은 그로스 대사와 전화가 연결되자 집으로 돌아가 다음 지시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로스 대사는 집으로 돌아오자 유엔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했다.⁷⁸⁾

국무부 관리들은 한국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지금이야 말로 지체 없이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무부에는 현 위기를 처리하거나 정책 결정에 기초가 될 ‘정책방침(position paper)’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커슨 국무차관보를 비롯한 관리들은 국무장관 및 대통령과

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국 사태를 유엔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국무부에 모였던 관리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하는 서류와 그로스 대리대사가 제출할 결의문, 그리고 유엔에서 행할 연설문 초안 작성을 위해 무더운 토요일 밤을 지새웠다.

국무부가 마련한 유엔 결의문 초안 내용에는 북한의 공격을 '평화의 침해(breach of peace)와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로 규정했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6월 25일 일요일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 유엔에서 취할 행동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계획대로 실행할 것을 승인했다. 애치슨은 히커슨 차관보에게 계획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지시하고 자신도 오전 늦게 워싱턴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히커슨 차관보는 02:30분경에 그로스 대사를 전화로 불러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할 공식각서의 본문을 받아쓰도록 했다. 그로스 대사는 03:00경 리 사무총장에게 전화로 그가 받아 쓴 미국정부의 공문을 읽어주었다.

대한민국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군이 6월 25일(한국시간) 새벽에 여러 지점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했다고 미 국무부에 보고를 해왔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정권의 평양 방송은 미국 동부 여름 시간으로 6월 24일 오후 9시에 대한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declaration of war)를 방송하였다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북한 정권의 군대의 공격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평화에 대한 침해와 침략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시급한 요청에 따라 본인은 귀하에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⁷⁹⁾

이 날 아침에 리(Lie) 사무총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그로스 대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의 대사들에게 미국의 요청 사실을 알렸고, 유엔총회 의장인 로물로(Carlos P. Romulo)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미국의 유엔대표단은 이 날 14:00에 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위해 분주했다. 그로스 대사는 소련의 거부권 행사에 대처하는 문제는 국무부의 유엔담당국에서 말도록 했다. 또한 그로스 대사는 아침 늦게 도착한 유엔한국위원단의 전문 보고서를 원문 그

대로 첨부하여 미국 결의안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했다. 유엔한국위원단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위원단은 전면전 성격을 들어내고 있으며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를 심각한 사태를 사무총장이 주시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보고를 했다.⁸⁰⁾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서는 북한의 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 왔다. 국무부에서 마련한 결의안 초안과 결의안을 제출할 때 할 연설문의 요지가 08:30분경 국무부 관리를 통해 유엔주재대표단에 보내졌다. 따라서 이 때까지 워싱턴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부재한 가운데 한국 사태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다.

일요일 오전까지 대통령은 여전히 미주리주 개인 저택에 머물고 있었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버지니아주 노포크(Norfolk)에서 있을 예정인 민간인을 위한 국방부 행사에 참석 중에 있었다. 일요일 아침 늦게 국무부에는 핀레터(Thomas K. Finletter) 공군장관, 벤데첸(Karl Bendetsen) 육군차관, 육군부 작전차장 팀버만 장군이 군사적 상황의 진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로써 국무부와 육군부와의 합동회의가 11:30분에 시작되었다. 국무부에서는 웹(James E. Webb) 국무차관, 러스크 차관보, 히커슨 차관보, 제섭 무임소대사가 참석했다. 콜린스(J. Lawton Collins) 육군참모총장과 애치슨 국무장관은 12시 조금 넘어서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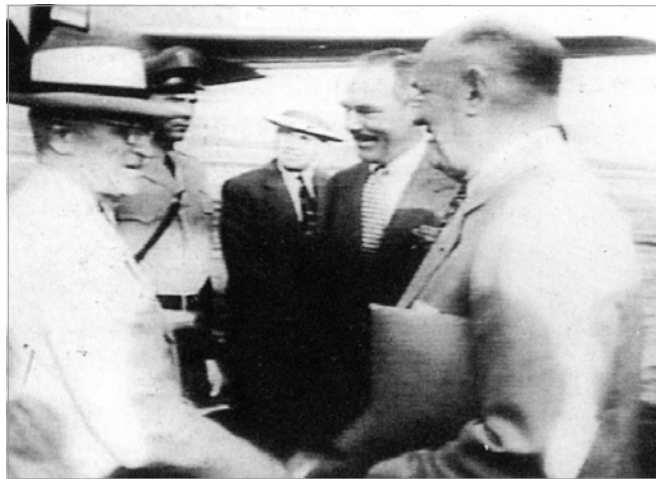
애치슨이 국무부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사태 파악에 주력했다. 그는 한국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무초 대사가 보낸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10일분 탄약지원 요청을 처리했다.⁸¹⁾ 이후 애치슨 장관은 25일 12:26분경 육군부와의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얼마 안 있어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서울에서 수원으로 옮길 것을 결정했다는 무초 대사의 보고를 접수했다. 이로써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한국의 상황이 북한에 의한 전면적인 침략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한국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14:00에 다시 대통령에

게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전화로 보고한 후 국무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려고 준비한 결의문 초안을 읽어주었다. 애치슨과 대통령은 결의문 초안 내용 중 “정전(cease fire)과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과거 북한과 소련 등 공산국가들이 유엔의 조치를 계속 무시한 데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트루먼은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해 줄 수 있는 원조와 격려의 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⁸²⁾ 트루먼은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워싱턴에 돌아간 후 자신이 참고할 내용에 대해 각 군 장관 및 합동참모의장과 상의하여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2) 제1차 블레어하우스 회의⁸³⁾

한국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블레어하우스 회의는 트루먼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의 전용기가 미주리주의 인디펜덴스를 떠난 지 약 3시간만인 25일 19:20분경 워싱턴 국립공항(National Airport)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애치슨 국무장관, 존슨 국방장관, 그리고 웹 국무차관이



미주리 별장에서 돌아온 트루먼 대통령(왼쪽), 애치슨 국무장관(가운데), 존슨 국방장관(오른쪽)

나와 대통령을 영접했다. 대통령은 19:40분에 백악관의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Blair House)에 도착해서 회의와 식사를 겸해 그곳에 미리 모여 있던 13명의 외교·국방수뇌부와 거실에서 회동했다. 국무부에서는 애치슨 국무장관과 웹 차관을 비롯하여 히커슨과 러스크 차관보, 그리고 제섭 무임소대사가 참석했다. 국방부에서는 존슨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페이스 육군장관, 매튜스(Francis P. Matthews) 해군장관, 핀레터 공군장관 등 3군 장관, 브래들리 합동참모의장, 콜린스 육군참모총장, 셔먼(Forrest P. Sherman) 해군참모총장,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했다.⁸⁴⁾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고, 회의 내용은 국무부의 제섭 무임소대사가 기록했다.⁸⁵⁾

블레어하우스 회의의 목적은 북한군의 남침에 대한 사태의 해결방안과 소련의 의도 및 개입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식사 전에 애치슨 국무장관이 2시간 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한 행동에 관해 보고하자, 대통령은 “우리는 유엔의 위신을 떨어뜨릴 수 없어”라고 말했다.⁸⁶⁾ 회의는 식사를 끝내고 나서 애치슨 국무장관이 그 동안의 사태 경과와 회의를 위해 준비한 제안사항을 발표한 후 이를 중심으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회의 자료는 전쟁 발발 당시 주말 휴가차 워싱턴에 부재중이던 대통령을 위해 국무부가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했다.

국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남한에 필수적인 장비 제공과 주한미군고문단의 한국군 잔류 등과 같은 제한적 조치사항들을 담고 있었다. 미국은 필요할 경우, 주한미국인이 철수할 서울과 인천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해·공군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한국군이 심각한 사태에 빠질 경우 전투상황을 안정시키고 38도선을 회복하기 위해 미 지상군의 투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브래들리 합참의장과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이 지지한 반면, 셔먼 제독과 반덴버그 장군은 미 공군력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또 일본의 안보에 위해(危害)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군사원조를 결심하기 위한 극동군사령부의 조사단 파견을 건의했다.⁸⁷⁾

회의 참석자들은 주로 소련 및 중공의 의도 및 극동지역에서의 군사력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극동지역에서의 공군력에 대해서 질문했다. 반덴버그 공군 참모총장은 중국 상해에 상당한 수의 소련제 제트비행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극동지역 소련 기지들을 제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반덴버그 장군은 이는 시기문제라고 말하면서, 미국은 원자폭탄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⁸⁸⁾ 이처럼 대화의 핵심은 한국에서 소련이 노리고 있는 범세계적 도전의 성격이 무엇이고 극동지역에서 그들의 군사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화제였다. 많은 참석자들은 소련과 중공이 개입하면 전쟁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브래들리 장군은 “소련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침략을 하나의 제한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⁸⁹⁾ 제섭 무임소대사는 “소련의 의도는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은 소련 블록 주변의 여러 위험 지역의 동요나 극동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팽창을 수반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⁹⁰⁾

에치슨 국무장관은 국무부의 건의사항들을 요약했고, 또 트루먼 대통령에게 중국본토 및 대만에 대한 침공을 방지하기 위해 미 제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에치슨의 제안사항들에 대한 지원내용들을 기록했다. 그들은 한국에 지상군 파견은 반대하면서 대신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해·공군의 지원을 건의했다. 국무부의 건의사항을 승인한 후 트루먼 대통령은 핀레터 공군장관에게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소련 공군기지를 중립화시키기에 필요한 대책평가서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⁹¹⁾

회의에서 트루먼은 국무장관이 건의한 5개 사항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①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하도록 할 것, ②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이 제안한 군수물자를 보내도록 할 것, ③ 이미 지시된 제7함대를 일본으로 파견할 것, ④ 미 공군은 극동지역에 있는 소련 공군기지를 제거할 계획을 수립할 것, ⑤ 소련의 다음 행동 지역이 어느 곳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하되, 이는 국무부와 국방부가 철저히 조사하여 판단 할 것 등이었다.⁹²⁾ 국무부와 국방부는 차기 소련 침공 가능지역에 대한 긴급계획(contingency plan)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미국은 유엔의 권위 아래 행동할 것을 지시했다.⁹³⁾ 그는 대한민국에 줄 미국 원조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유엔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유엔이 요청한 도발중지와 38선으로의 철수를 거부할 경우, 보다 과격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합동참모의장에게 유엔의 요청만 있다면 미국 군대를 언제라도 출동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을 것을 명령했다.⁹⁴⁾ 회의는 23:00 경에 끝났다. 그러나 그날 밤 토의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대통령 공보비서관 아이레스(Eben Ayres)는 월요일 다시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극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그날 저녁 곧바로 지시되었다. 블레어하우스 회의의 결정 내용을 맥아더 장군에게 알리기 위해 3군 장관들과 군부 수뇌들은 국방부로 직행했다. 맥아더 장군에 대한 지시 업무는 콜린스 장군이 맡았다. 콜린스 장군이 메모하여 맥아더에게 보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극동군사령관은 주한미국인 철수를 위해 해·공군으로 인천-김포-서울 지구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둘째, 한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 파견을 허가한다. 셋째, 서울-김포-인천지구의 상실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탄약과 장비를 보낼 권한을 부여한다. 넷째, 제7함대에게 사세보로 즉시 출동하여 극동해군사령관의 지시를 받도록 지시했다. 다섯째, 추가적인 결정은 군사적 정치적 진전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⁹⁵⁾

3) 제2차 블레어하우스 회의⁹⁶⁾

6월 26일 월요일 저녁이 되면서 한국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한국의 전선 상황은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와 문산(汶山)이 함락되고 북한군은 서울 점령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공세를 펴붓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 날 "미국의 군사원조가 너무나 약소하고 너무나 늦었다"고 비통해 했다.⁹⁷⁾ 이 무렵 유엔한국위원단도 "북한은 6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미국 국가안보(NSC) 회의 모습

아니라 유혈 사태를 중지하려는 위원단의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곧 비실질적인 것임이 증명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다.⁹⁸⁾

에치슨 국무장관은 한국 사태가 악화되어 가자 26일 19:29분에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군사 및 외교 고문과의 전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대통령은 국무장관에게 21:00에 블레어하우스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2차 블레어하우스 회의 참석자들은 전날 밤에 모였던 같은 사람들이었다. 국무부에서는 에치슨 장관, 리스크 및 히커스 차관보, 제섭 대사가 참석했다.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 웹 차관을 대신해서 매튜스(H Freeman Matthews) 부차관이 들어왔다. 국방부에서는 존슨 국방장관, 페이스 및 핀레터 장관, 브래들리 합참의장, 콜린스 및 반덴버그 장군, 그리고 셔먼 제독이었다. 매튜스 해군장관은 회의가 끝난 조금 후에 도착했다. 이 때도 회의 내용은 국무부의 제섭 무임소 대사가 기록했다.⁹⁹⁾

회의 목적은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6·25결의안에 나타난 "적대행위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 권고"를 무시하고 군사행동을 계속하자,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에 앞서 대통령은 군사사태에 대한 최근의 평가를 듣고자 했다. 브래들리 장군은 전투 상황에 대한 맥아더 장군이 보내 온 가장 최근의 평가를 보고했다.

한국의 제3사단 및 제5사단이 서울 부근에 축차적으로 투입되었으나 지난 이틀 동안 적의 끈덕진 침투공세를 막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전차가 서울 근교로 들어오고 있고 정부는 남으로 이동했다 ... 한국군은 북한의 공세를 막을 능력이 없다. 적이 전차 및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크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투양상을 보여주는 지수로서의 한국군의 사상자수를 검토해 보면 그들이 저항능력이나 싸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며 우리의 평가는 완전한 붕괴가 임박했다는 것이다.¹⁰⁰⁾

제2차 회의에서도 제1차 회의에서처럼 애치슨 국무장관이 먼저 건의사항을 보고하였다. 국무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해·공군 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할 것을 건의하였다. 대통령은 이 건의를 수락하면서, 단 미국의 작전지역은 38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애치슨 장관은 전날 밤 논의되었던 의제들 중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파견을 상기시켰다. 트루먼은 대만의 중립화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유엔의 정책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애치슨은 6·27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될 내용을 다음날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루먼은 미국의 계획에 대한 국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⁰¹⁾

그리고서 한국전쟁 상황으로 화제가 바뀌었다.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은 한국은 지금 붕괴직전에 놓여 있다고 보고하였다. 애치슨은 한국이 방어에 실패한다면, 미국은 보다 직접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슨 국방장관은 이미 미국은 충분한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국무장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애치슨의 말에 동조하면서, “미국은 한국 상황이나 유엔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참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와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장군은 대통령이 지상군 파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보고, 대통령에게 그러한 결정은 동원의 필요성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¹⁰²⁾ 이에 트루먼과 애치슨은 미국은 이러한 급격한 조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6월 27일 정오에 트루먼은 그의 조치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였다.¹⁰³⁾

특히 트루먼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해왔다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루먼은 브래들리 장군에게 주방위군(National Guard)의 한국에서 전쟁 발발 이후 동원에 대해 생각해왔다면서 지금 그것이 필요한 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상황과 유엔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브래들리 장군은 주방위군의 동원문제는 시간을 두고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¹⁰⁴⁾

제2차 블레어하우스 회의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내용은 소련이 유엔안보리에 반드시 참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럴 경우 미국은 유엔의 이름으로 행동을 취한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또 악화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위해서 미국은 주방위군 동원을 포함하여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한국전에 지상군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방위군이나 예비군의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4) 트루먼 대통령의 한국전에 대한 성명

트루먼 대통령은 6월 26일 11:45분에 애치슨 국무장관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다음 한국 위기에 관한 그의 첫 번째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하라는 '6·25 결의안'을 무시하자, 이에 대한 성명서를 6월 26일(한국시각 27일) 발표하게 되었다.¹⁰⁵⁾

그는 성명서에서 국경수비와 국내치안을 목적으로 무장된 한국군이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유엔안보리는 침략군에게 전쟁을 중지하고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 침략군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회원국들에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든 종류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런 상황 하에

서 대통령 본인도 미 공군과 해군에게 한국군을 지원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말했다.¹⁰⁶⁾

그는 “북한의 한국 공격은 공산주의가 독립 국가를 지배하기 위하여 단순한 체제 전복의 단계를 넘어 무력 침공을 시도한 것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노력을 무시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점으로 보아 “만약 공산군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태평양 지역의 안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기능 수행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¹⁰⁷⁾

그는 이를 위해 미 제7함대로 하여금 대만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사수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대만 정부의 중국 본토에 대한 모든 공군과 해군 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는 미 제7함대에게 이러한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 가를 감시하도록 하였다. 그는 장차 대만이 차지할 국가적 지위는 태평양에서의 안전 회복, 대일 강화의 해결, 또는 유엔에서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¹⁰⁸⁾

또한 그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한국 침략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 사실인가를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며, 국제문제에서 합법적인 군사력의 호소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 대표인 오스틴에게 이러한 현실을 의제로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말했다.¹⁰⁹⁾

이처럼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과 관련한 성명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독립 국가를 정복하기 위해 무력 침공을 단행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한국사태가 대만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 제7함대를 파견하여 이를 통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과 관계없이 공산계 킬라와 싸우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공산계 킬라와 싸우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군사원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 3 절 미국 해 · 공군의 활동

1. 미국의 제한된 지원

1) 주한외국인 철수 지원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전쟁 당일인 6월 25일 주일미대사관 숙소에서 사령부 당직 장교로부터 북한의 침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맥아더 장군이 받았던 보고의 요지는 “금일 04:00에 38도선 지역에서 북한의 대부대가 경계선을 넘어 한국군의 방어진지를 제압하고 남진을 계속 하고 있으며 그 속도와 세력은 모든 저항을 분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¹¹⁰⁾ 또한 그는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으로부터 북한의 침략에 대한 즉각 조치를 촉구 받았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대전이 발발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1949년 6월에 작성된 주한미국인의 철수계획(Chow Chow)¹¹¹⁾의 실행뿐이었다. 그는 북한의 남침 전모가 밝혀지자 즉시로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적 의도 하에 증강된 세력으로 나타난 적의 남침은 유엔을 무시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전 전선에서 적은 3개 사단만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¹¹²⁾

맥아더는 6월 25일 23:00에 무초 대사로부터 비전투 미국인을 한국에서 빨리 철수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받자 이에 따른 긴급조치를 극동군 해군 및 공군사령관에게 명령하였다. 맥아더 원수의 신속한 조치로 미군 수송기들은 일본에 있는 활주로를 출발하였고, 해상에 있는 미국 선박들은 전속력으로 한국의 항구로 향진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인의 철수책임과 권한은 무초 대사에게 있었으므로 그는 북한의 계속 남침으로 서울이 위협받자 극동군사령부에 통보한 시간에 영어방송(WVTP)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서울철수를 위해 인천에 집합할 것을 명령하였고, 26일 00:30 (미국 시간 25일 12:30)에는 이 사실을 국무부에 보고하였다.

이 무렵 인천에 정박하고 있던 가용 선박은 노르웨이 선적의 라인홀트(Reinhold)호와 파나마 선적의 노지(Norge)호 2척 뿐이었다.¹¹³⁾ 그나마 노지 호는 노후화된 배였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26일 01:00에 서울을 철수하기 시작한 미국인 부녀자와 비전투 요원들은 단지 12명의 인원을 수용할 능력 밖에 없는 라인홀트 호에 700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 일본 큐슈의 후쿠오카(福岡)로 향하였다.

이후 주한외국인 철수는 미 공군기의 엄호하에 극동공군에서 급파한 수송기에 의하여 김포와 수원비행장에서 이루어졌고, 이외에 나머지 인원은 육로로 부산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파이오니아 데일(Pioneer-Dale)호에 승선하여 일본으로 떠났다. 이를 위해 27대의 미군 전투기가 일본에서 출격하였다.¹¹⁴⁾ 6월 26부터 29일 사이에 완료한 주한외국인은 1,527명의 미국인을 포함 총 2,001명을 한국에서 피난시켰다. 이들 가운데 해상수송이 1,078명이었고, 항공기에 의한 공수가 923명이었다.¹¹⁵⁾

한편 전쟁 당시 한국에는 미국 대사관을 포함하여 중화민국 대사관, 영국공사관, 프랑스 공사관이 상주하고 있었다. 미국의 주한외국인 철수 계획에는 이들 대사관 및 공사관직원 및 가족들도 포함되었다.¹¹⁶⁾ 전쟁 당시 주한영국공사는 비비안 홀트(Vyvyan Holt)였고, 프랑스 대리공사는 뻬르쉬(Georges Perche)였고, 그리고 중화민국 대사는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와 인연이 많았던 소육린(邵毓麟)이었다.¹¹⁷⁾ 전쟁이 일어나자 중국대사를 제외하고 영국공사와 프랑스 공사는 서울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¹¹⁸⁾ 그러나 상황이 불리해지자 중국 대사인 소육린은 6월 27일 중국대사관 무관과 3등 서기관을 부산으로 먼저 내려 보낸 뒤 자신은 몇몇 직원들을 데리고 김포로 가서 비행기로 피난길에 올랐다. 당시 서울과 인천지역에는 1만 5천명의 화교(華僑)들이 거주하고 있었다.¹¹⁹⁾

그러나 영국공사 홀트는 “북한공산군이 자신을 결코 겁 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영국시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서울에 잔류



일본공항에 도착한 주한 미 외교관 및 가족들

하였다. 프랑스 대리공사 빠르쉬도 그의 가족들을 미국인이 철수할 때 함께 철수시켰으나 자신은 철수를 하지 않은 채 프랑스 선교사와 함께 있을 서울에 잔류하였다. 이들 영국 공사와 프랑스 대리공사는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할 때 체포되었다가 휴전협정 후 판문점에서 포로로 교환되는 수난을 겪었다.¹²⁰⁾

2) 한국군에 대한 탄약 지원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탄약지원 문제는 무초(John J. Muccio)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이 남침을 시작한 당일인 6월 25일 11:35 경무대를 방문한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긴급히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대사에게 “10일 이내에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탄약이 모두 소모될 것이다 ... 본인은 우리 국민들이 일단 유사시에 남녀노소 모두 일어나 몽둥이와 돌맹이라도 싸울 것을 촉구하여 왔다. 다만 충분한 탄약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입으로 전해져 국민들의 사기를 올려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¹²¹⁾

무초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지휘하에 있던 군사고문단 그린우드(Walter Greenwood, Jr.) 대령에게 미 극동군사령부에 한국군이 방어 작전에 필요한 105밀리 곡사포 90문, 60밀리 박격포 700문, 그리고 카빈소총 40,000정에 필요한 포탄 및 소총탄을 즉각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다.¹²²⁾

전쟁 첫날 이승만 대통령, 무초 미국대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은 신속히

한국군에 군사보급 지원을 요청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요청을 받은 맥아더 장군은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에게 105밀리 포탄 105,000발과 81밀리 박격포탄 265,000발, 60밀리 박격포탄 89,000발, 그리고 소총탄 2,480,000발을 부산으로 긴급 수송하라고 지시하였다.¹²³⁾

이에 따라 미 수송선 서전트 키스레이(Sergeant Keathley)호가 요코하마(橫濱)에서 1,635톤의 탄약과 12문의 곡사포를 적재하고 6월 27일 부산으로 떠났다.¹²⁴⁾ 6월 28일 새벽에는 두 번째 수송선인 카디널 오코넬(Cardinal O'Connell)호가 이케고 탄약창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떠났다. 또한 도쿄 근교 다찌가와 공군기지에서 105밀리 포탄을 싣고 6월 28일 06:00에 수원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날 15:17까지 총 119톤의 탄약이 수송기로 일본에서 한국에 도착하였다.¹²⁵⁾

맥아더 장군은 탄약을 한국으로 수송할 것을 지시하면서 7월 1일 이전에 탄약 수송선이 부산에 입항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¹²⁶⁾ 또한 미 극동공군과 해군에게는 탄약 수송선이 부산으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조치는 6월 26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 극동군사령부의 전방지휘소 설치와 주한미군사고문단 동향

맥아더 장군은 비전투원 철수작전 시행과 더불어 해·공군의 지원 하에 탄약 지원도 서둘렀으며, 사태를 파악하고 지휘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6월 27일에는 처치(John H. Church)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구성했다.¹²⁷⁾ 조사반은 극동군사령부 군수참모차장 처치 장군을 비롯하여 극동군사령부 소속 장교 13명과 사병 2명이었다. 이날 주한미군에 관한 작전통제권을 부여받음을 계기로 이를 「전방지휘소 및 주한연락단(ADCOM: 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 in Korea)」으로 명명하고 주한미군사고문단(KMAG)¹²⁸⁾의 지휘와 한국군에 대한 지원임무를 추가로 부여받고 수원에 파견되었다.¹²⁹⁾

전방지휘소 겸 연락단 요원은 6월 27일 04:00에 하네다 공항을 출발하여 동일 06:00에 이타츠키에 도착했고, 수원에는 이날 밤 도착했다. 도착후 수원 농업시험장에 지휘소를 개소한 전방사령부는 6월 28일 채병덕(蔡秉德) 총참모장을 만나 작전을 조언하는 등 국군이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시작했다.

또한 처치 준장은 채병덕 총참모장에게 미 해·공군이 한국군을 지원하게 된 사실과 자신의 임무를 알림과 동시에 동해안 및 중부전선의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미 지상군 투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맥아더 사령부에 보고했다. 주한 미군사고문단도 6월 27일부터 맥아더 장군의 작전지휘하에 들어감으로써 6월 28일 수원에 설치된 극동군 전방지휘소에 그간의 상황을 보고한 후 국군작전의 지원을 계속했다. 6월 28일 04:00경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하스레스 대령 등이 ADCOM에 출두하여 한강교 폭파경위, 북한군 서울 시내진입 상황, 한국군이 지리멸렬하여 한강 도하 상황,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주력이 서울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사실 등을 보고했다.

전쟁 당시 한국에는 총 472명의 주한미군사고문단 요원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26일 무초 대사는 이날 04:00에 도쿄(東京)로부터 급보에 접하고 급거 귀임한 군사고문단장 대리인 라이트(William H. S. Wright) 대령과 상의하여 33명의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원들은 모두 한국에서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은 다음날인 27일 수원비행장에서 한국을 떠났으며, 영남지방에서 근무하던 50명의 요원들은 동월 29일에 제3사단 수석고문 에머리치(Rollins S. Emmerich) 중령의 지휘를 받아 수송선으로 철수하기 위하여 부산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무초 대사 역시 26일에 미 국무부로부터 서울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다음날 27일 수원에 철수하였을 무렵 라이트 대령은 시흥에서 맥아더 원수로부터 서울에 남아 계속 지휘소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¹³⁰⁾ 그러므로 이들 요원은 이날 다시 시흥에서 서울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28일 02:30에 한강인도교의 폭파로 말미암아 철수로가 차단된 채 부득이 서울에 잔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서울의 위기가 급박하게 되어 이들을 당황케 만들었으나 결국 서빙고에서 한국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도강에 성공하여 이날 08:00 한강 남안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어서 15:00에는 안양에 철수하여 수원으로 남하하였다. 이렇게 하여 서울에 남아 있던 미 군사고문단 요원들은 맥아더 원수가 파견한 ADCOM에 흡수되었으며, 한편 공로(空路)를 통해 27일에 일본으로 철수하였던 미 군사고문단들도 그 후 미 지상군의 출동과 함께 7월 2일 군수송선 키쓰레이(Keathly)호로 다시 임지로 복귀하였다.

3. 미국 해·공군의 지원과 활동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난 후 미군은 워싱턴의 지침에 따라 해·공군 및 지상군 순으로 한국을 지원했다. 미 지상군 참전이 결정되기 이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우선 조치로 맥아더 원수 휘하의 해·공군을 한국 전선에 투입하여 제한된 작전을 하도록 결정했으나, 점차 한반도에서 해·공군의 무제한 작전을 승인하는 조치를 취해 나갔다.

첫 번째, 미 해·공군에 대한 워싱턴의 조치는 6월 26일 09:00(미국시각 6월 25일 20:00) 블레어하우스회의에서 결정되어 맥아더에게 “서울-김포-인천지역의 상실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탄약과 장비를 안전하게 도착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해·공군의 엄호 하에 한국으로 수송하고, 미국인 가족과 주한미대사관이 결정하는 다른 미국 비전투원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서울-김포-인천지역이 유린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해·공군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¹³¹⁾

두 번째, 미 해·공군에 대한 조치는 6월 27일 08:00(미국시각 6월 26일 19:00) 블레어하우스에서 결정된 것으로 38도선 이남에서의 미 해·공군의 작전 허가였다. 육군장관 페이스는 맥아더에게 “남한으로부터 북한의 군사력을 일소하기

위해 38도선 이남의 모든 군사목표물을 공군이 공격해도 좋다. 마찬가지로 해군에게도 38선 이남에 있어서 남한에 대한 침략군을 막기 위해 연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해도 좋다”¹³²⁾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국동 해공군부대에 가해진 모든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그들은 한국군에게 재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을 제공한다. 상기조치의 목적은 6월 25일에 승인된 유엔의 결의안에 따라 한국군부대를 지원하는 데 있다. 그밖에 제7함대는 타이완에 대한 중공의 침입을 예방하고, 또 대만(Formosa)이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기지로써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정박한다.

해·공군에 언급한 세부훈련은 다음과 같다. 한국 영토의 방위를 지원하고 돕는 데 있어 극동 공군의 완전한 운용을 막아온 종전까지의 모든 제한사항을 38도선 남쪽 작전에 대하여 제거한다.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모든 북한의 전차, 대포, 부대 및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군의 공격이 허용된다. 그 목적은 남한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제거하는데 있다. 이와 똑같이 해군은 38도선 이남의 연안이나 해상에서 한국에 대한 공격에 참여한 부대에 대하여 제한 없이 운용한다.¹³³⁾

세 번째, 미 해·공군에 대한 조치는 맥아더 스스로 결정한 후 나중에 워싱턴의 승인을 받았다. 맥아더는 6월 29일 08:00경 한국전선 시찰을 위한 비행 도중 전용기 바탄(Bataan)호 내에서 “제5공군사령관으로 하여금 북한 기지를 폭격할 것”을 극동공군사령관에게 명령했다.¹³⁴⁾ 이는 6월 30일 백악관 안보관계관 회의에서 나중에 승인을 받았다. 맥아더에게 전달한 회의내용은 “남한 군대가 남한 전역으로부터 북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극동군사령관 휘하의 공군과 해군 병력으로 북한의 군사목표를 공격하여 한국군을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극동해군은 워싱턴의 지침에 따라 6월 26일부터 작전 활동을 시작했다. 6월 26일 극동해군 구축함 2척이 공군기의 엄호하에 인천으로부터 미국 민간인 철수를 지원했고, 극동공군은 6월 26일 정오 무렵 공수작전을 수행 중 5대의 야크

전투기를 김포지역 상공에서 2대를 격추했다.¹³⁵⁾ 6월 27일에는 순양함 쥬노(Juneau)호와 구축함 드 헤이븐(De Haven)호가 한국해역을 초계하고 적 함선을 격파하며 적의 상륙부대를 분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6월 28일 쥬노호는 거제도 를 비롯하여 울산, 삼척, 강릉 해안까지 초계 활동을 실시했고, 6월 29일에는 묵호부근 해안에 집결한 적에 대해 최초의 5인치 함포 400여발을 사격했다. 7월 3일과 4일에는 항공모함으로부터 발진한 함재기들이 평양 일대를 강습하여 적 야크(YAK-9)기 2대를 격추하고 지상에 있던 8대를 격파했다.¹³⁶⁾

극동공군은 워싱턴의 지침에 따라 최초 미국 민간인의 철수와 한국군을 위한 탄약 공수에 주력한 다음 38도선 이남의 목표물에 대해 공격했다. 6월 26일 북한 야크기가 민간인 철수에 분주한 미군 수송기를 공격하자 공중 초계 중이던 F-82기가 공중전을 전개하여 3대를 격추했다. 6월 29일에는 B-26기 22대, B-29기 12대, F-80기 70대 및 F-82기 15대를 출격했다.¹³⁷⁾

북한은 미국의 해·공군 작전 활동에 대해 “미국 비행기들이 29일에 폭격기 27대로 평양을 폭격했으며, 극동해군도 28일부터 전투에 참가하여 29일 강릉-삼척계선에서 함포사격을 감행했다”¹³⁸⁾고 비난함으로써 미국의 참전 사실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1950년 7월 8일 지상군 참전이 사실로 판명된 7월 8일 김일성은 북한 주민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라는 방송연설을 통해 미국의 한국전 개입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대미(對美) 항전의식을 고취한데서 알 수 있다.¹³⁹⁾

지상군 참전이 결정되고 미군이 한국 전선에 투입되면서부터 미국의 해·공군은 극동군을 핵심으로 하여 한국 전선에서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는 가운데 지상 작전 지원을 비롯하여 독자적인 해·공군 작전을 수행했다. 해공군은 공중 및 해상 우세권을 바탕으로 개전 초기 지상군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근접항공작전을 통해 북한 지상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그들의 주간작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특히 제5공군은 7월 12일 한국에서의 전술항공작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후 7월 15일부터 포항과 대구기지로 이동하여 작전활동을 시작했다.¹⁴⁰⁾ 미 해군

은 작전구역을 37도선을 기준으로 37도선 이남의 동해안 및 서해안은 한국 해군이, 37도선 이북의 동해안은 미 해군이, 그리고 37도선 이북의 서해안은 영연방 해군이 담당하여 작전임무를 수행했다.¹⁴¹⁾

이후 미 해공군은 근접항공작전을 비롯하여 적 후방으로부터 전선으로의 병력 증원 및 보급물자 수송거부를 위한 후방차단작전, 평양·원산 등 주요 도시에 대한 전략폭격, 수력발전소 및 저수지, 압록강 철교 등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전략 폭격 등의 작전을 전개하여 유엔군의 작전에 크게 기여했다.

제 4 절 미국의 지상군 참전 결정

1. 맥아더 장군의 전선 시찰

6월 28일 전방지휘소 소장 처치(Church) 준장은 국군이 한강방어선 편성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을 무렵 채병덕(蔡秉德) 육군총참모장을 만나 한강방어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작전에 관한 조언을 하는 한편, 전반적인 전황을 주시한 결과 미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는 침략자를 38도선 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맥아더 장군에게 보고하였다.¹⁴²⁾

맥아더 장군은 한국에서의 전황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기상조건의 악화와 적으로부터의 공격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선을 시찰하기 위하여 한국전선 시찰을 결심하였다. 6월 29일 06:10분 맥아더 장군은 전용기 바탄호에 몸을 실고 동경 근교에 있는 하네다(羽田) 공항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다. 전선을 시찰하기 위해서였다. 맥아더 장군의 한국전선 시찰에는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저(George E. Stratemeyer) 공군 중장, 참모장 알먼드(Edward M. Almond) 육군 소장, 작전참모 라이트 육군 소장, 정보참모 윌로비(Charles A. Willoughby) 육군 소장, 주일연합군사령부의 민정국장 휘트니(Courtney Whitney) 육군 준장, 그리고 AP(Associated Press)·UP(United Press)·INS(International News Service)·AAP(Australian Associated Press)·로이터 통신사(Reuters)의 동경특파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⁴³⁾

맥아더를 태운 바탄(Bataan)기는 4대의 무스탕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한국으로 이동 중 1대의 북한군 야크(Yak) 전투기의 추격을 당했으나 10:39분에 수원비행장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수원 비행장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무초 대사가 정찰기편으로 대전에서 이곳 수원에 도착하여 맥아더 장군을 맞이하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그리고 무초 대사는 비행장에서 처치 장군의 전방지

취소와 대한민국 육군본부가 있는 인근 학교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처치 장군과 그의 참모들이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그리고 공군 순으로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맥아더 장군은 채병덕 총참모장에게 이 사태에 대하여 무슨 제안할 사항이 없느냐고 물었고, 채병덕 장군은 “2백만 남한 장정을 징집하여 침략을 격퇴하겠다”고 말했다.¹⁴⁴⁾

브리핑이 끝난 후 맥아더 장군은 낡은 구형 포드 승용차에, 그리고 수행원들은 지프차를 타고 영등포의 한강변으로 달려갔다. 맥아더 장군이 탄 승용차에는 작전참모 라이트 장군, 알몬드 참모장, 시흥지구사령부 참모장 김종갑(金鍾甲) 대령이 탔고, 경호는 헌병사령관 송요찬(宋堯讚) 대령과 공군헌병대장 김득룡 중령이 맡았다. 지프차에는 맥아더의 참모들과 기자들이 타고 뒤따랐다.

맥아더 장군은 수도사단사령부 제8연대 진지인 동양맥주 공장¹⁴⁵⁾의 언덕위에 올라 북한군 포병부대가 대포와 박격포를 한강 남안의 국군 방어진지에 맹렬히 퍼붓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20여분 가량 그는 생각에 잠기면서 적의 수중에 들어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서울 시가지, 시뻘건 한강, 그리고 한강 남안의



맥아더 장군의 한국전선 시찰(1950. 6. 29)

밋밋한 대지를 눈여겨보았다. 그가 서있는 언덕 바로 밑에는 지친 다리를 끌면서 국군이 후방으로 줄지어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때 그는 그곳에서 미국 지상군 전투부대가 투입되어야만 대한민국을 침략군으로부터 구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¹⁴⁶⁾

한강방어선을 시찰하고 난 후 맥아더 장군의 전용기는 18:15분에 수원비행장을 이륙하여 일본으로 향하였다. 비행기 안에서 맥아더 장군은 수첩을 꺼내 워싱턴에 보낼 정세보고와 건의 사항을 메모했다. 그는 한국 군대는 혼란에 빠져서 별로 진지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명령이 서있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적의 진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현 전선을 유지하고 실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선에 지상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사황이 걸린 이 지역에 1개 연대전투단을 먼저 보내고 이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개 사단을 증강시켜 반격작전에 투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의 히긴스(Marguerite Higgins)양에게 “나에게 미군



한국전선에서 맥아더 장군과 히긴스 기자와의 대화 장면(1950. 6. 29)

2개 사단만 준다면 나는 한국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경에 도착하는 즉시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에 사단 규모의 미군 병력을 즉각적으로 보낼 줄 것을 요청하겠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이 내 요청을 들어줄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¹⁴⁷⁾ 맥아더의 전용기는 22:15분에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¹⁴⁸⁾

2. 한국 상황 악화에 따른 미국의 추가 조치

한국의 전선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악화되어 갔다. 6월 29일 미 국방부는 맥아더사령부로부터 한국군이 중대한 시련에 부딪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날 07:00에 접수된 보고서에서는 한국군의 사상자가 15%로 추산되며, 그들은 한강방어선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러한 보고에 접한 존슨 국방장관은 11:55분경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현 사태가 매우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안보회의의 소집을 건의했다.¹⁴⁹⁾ 트루먼 대통령은 17:00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국가안보회의에 앞서 트루먼 대통령은 16:00에 기자회견을 했다. 한 기자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유엔의 경찰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는 "한국에서 미국의 행동은 악당들의 기습(bunch of bandits)을 유엔이 격퇴시키는 것을 도우려고 취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 개입의 성격과 정도, 한국 사태가 대일평화조약의 조기 타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그리고 미 정부가 한국에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했다. 대통령은 원자폭탄 사용과 지상군 투입문제는 전략문제로 군사적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¹⁵⁰⁾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29일 17:00시로 예정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다. 국방부에서는 존슨 국방장관, 페이스 육군장관, 매튜스 해군장관, 핀데터 공군장관, 브래들리 합참의장, 콜린스·반덴버그·셔먼 제독 등 각 군 참모총장이 참석했다. 국무부에서는 애치슨 장관, 러스크 차관보, 해리만 대사, 딜레스 대사가 참석했다. 또 사이밍턴(W. Stuart Symington) 국가안보지원위원장과 레이(James S. Lay)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장(Executive Secretary)도 참석했다. 이 회의는 일요일 저녁 이후 대통령과 그의 각료 및 보좌관들이 가진 네 번째 모임이었다. 존슨 국방장관은 한국에서 군사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주요 난점을 열거하면서 이의 극복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존슨 국방장관은 현재 미군의 한국에서 군사적 제한 사항으로 해군과 공군활동의 남한지역으로의 국한, 전투기들이 거리가 먼 일본 기지로부터의 출격으로 인한 전투지역 상공에서 임무 수행시간 제약, 국군과 미 육군 및 공군간의 연락체계 미흡, 그리고 미 군수물자를 전선으로 운반할 한국군의 수송시설 빈약 등을 들었다.

존슨 국방장관은 이전의 지시를 강화하고 북한지역까지 해군과 공군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맥아더 장군에게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대통령은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밀어내는데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고 싶으나 다른 사태가 일어날 때 속수무책이 될 정도로 한국전에 깊이 말려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¹⁵¹⁾ 페이스 육군장군도 미국은 공군과 해군의 대북한 작전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공격목표를 주로 군사요새에만 국한시켜야 하며 북한의 도시를 마구 폭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¹⁵²⁾ 대통령은 이 말에 동의하면서 “38도선 이북에서의 군사적 활동은 적의 군사 물자를 파괴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에서 우리의 활동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경계선을 다시 복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¹⁵³⁾ 존슨 국방장관은 “공군에게 소련이나 중공과 인접한 한반도의 국경지대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하면서, 만일 소련이 전투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맥아더 장군에게 “그럴 경우 맥아더 장군은 그의 위치와 미군 병력을 고수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

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¹⁵⁴⁾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문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후방지역에서만 임무를 국한하려는 합참의장의 지상군 파견안에 대해서는 군사력에 의존해서 침략자를 격퇴시키기로 결정한 월요일 밤의 결정을 실행하려면 당연히 취해져야 할 필요한 다음 단계의 조치라는 뜻에서 이 건의는 아무 의의 없이 받아들여졌다. 회의가 끝나기 직전 애치슨 국무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가 유엔에게 공군과 해군지원을 제공하였음을 통보해 왔다고 보고했다. 회의는 17:40분에 끝났다. 이 회의에서 작성되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내질 워싱턴의 지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6월 25일과 27일자 유엔결의안을 지지하는 의도에서 ... 귀관은 남한 군대가 남한전역으로부터 북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극동군사령관 휘하의 해군과 공군력으로 북한의 군사목표를 공격하여 한국군을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다. 육군병력의 투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대규모에 국한한다. 그러나 부산-진해 지역 내에 있는 항구와 공군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해군과 공군 활동으로 귀관은 대만을 침략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

귀관에게 적의 공군기지, 병기창, 전차, 농장, 군대, 그리고 기타 순수한 군사목표를 공격하는 군사 활동을 북한지역까지 확대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앞에서 지시한 귀관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다거나 아군의 불필요한 사상을 방지하는데 데에만 그 목적이 두어져야 한다. 북한에서의 군사 활동에 있어서는 소만 국경에 접근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군을 엄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해군과 공군 및 제한된 육군 병력을 투입한다는 결정은 만일 소련군이 한국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 소련과 전쟁을 한다는 결정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관한 결정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서 취해진 것이다. 만일 한국에서 소련이 능동적으로 미군 활동에 대항해 온다면 미극동군은 자체방위에만 힘쓰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

떠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귀관은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워싱턴에 보고해야 한다.¹⁵⁵⁾

국가안보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그들이 방금 취한 결정이 지금까지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한국 사태에 대처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트루먼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은 극동군사령관의 차후 보고와 후속 건의를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

3. 미국의 지상군 파병 결정

맥아더 장군이 보낸 한강선 시찰 결과 전문이 30일 새벽 03:00에 국방부에 도착했다. 맥아더는 “자신이 한국전선을 시찰 한 결과 한국군은 붕괴되었으며, 한강방어선을 고수하고 실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방부 당직 장교들은 맥아더 장군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콜린스 장군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와서 육군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맥아더의 건의사항을 보고한 후 텔레타이프로 맥아더 장군과 대화했다. 이 때 국무부의 러스크 차관보와 다른 관리들도 국방부로 들어왔다.

맥아더 장군은 콜린스 장군에게 현지의 군사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전방의 전투지역에 연대 단위의 미군 전투부대를 즉시 투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맥아더 장군은 선봉부대의 증강을 위해 2개 사단 정도의 증강이 필요하다고 했다. 콜린스 장군은 12시간 전에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주저한 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는 대통령과 각료들이 다시 모여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맥아더 장군에게 말했다. 그리고서 콜린스 장군은 맥아더 장군이 원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육군장관을 통해 조치할 테니까 30분정도 기다리라고 말했다. 콜린스 장군은 곧 이어 브래들리 장군과 상의한 후 페이

스 육군장관에게 맥아더의 입장을 설명했다. 페이스 장군은 블레어하우스에 있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때가 새벽 04:57분이었다. 대통령은 전화를 받고 페이스 육군장관에게 맥아더 장군으로 하여금 1개 연대전투단을 투입해도 좋다고 알려 줄 것을 지시했다.¹⁵⁶⁾

그러나 2개 사단의 증강 제안에 대해서는 각료들과 다시 협의한 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스 장관은 콜린스 장군에게 대통령의 결정 내용을 알렸다. 불과 몇 분 만에 이 내용은 맥아더 장군에게 전달되었다. 콜린스 장군은 05:30분 경 해군참모총장 셔먼 제독과 공군참모총장 반덴버그 장군에게도 맥아더의 건의 내용과 대통령의 결정사항을 알려주었다. 대통령도 07:00경 국방부의 아할트(Henry Ahalt) 대령으로부터 맥아더 장군과 교환했던 내용을 상세히 보고 받고 나서 맥아더 장군이 제안한 지상군 증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장관·국방장관·육군장관을 전화로 불러내어 09:30분에 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 국무회의실에서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하여 애치슨 국무장관, 존슨 국방장관, 브래들리 합참의장, 얼리 국방차관, 그리고 해리먼 무임소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 회의가 미국 군대가 한국에서 지상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고 말했다.¹⁵⁷⁾ 회의가 시작되자 대통령은 자기가 맥아더 장군에게 이미 전투에 1개 연대를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하면서 맥아더 장군의 나머지 건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 때 트루먼 대통령은 29일 대만(Formosa)이 제의했던 국부군(國府軍) 2개 사단의 지원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은 대만의 지상군 파견제의를 받아들이는데 반대했다. 애치슨은 한국에 장개석 군대를 투입하면 중공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합참의장은 국부군을 투입하기 전에 이들을 재무장해야 된다는 문제와 이들 수송에 상당한 규모의 해군과 공군이 동원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대통령은 한국에 투입될 수 있는 미지상군의 병력이 소수라는 점이 다소 우려됐지만 각료들의 의견에 따라 이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지상군 파병 문제에 관해서는 회의 참석자들이 맥아더 장군이 요청한 2개 사단만 증파해 주면 북한의 침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한국에서의 지상군 파병제안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그의 휘하에 있는 병력을 사용할 전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합참의장이 극동군사령부에 보낸 전문은 "1950년 6월 30일 자로 1950년 6월 29일에 취해졌던 육군병력의 투입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으로 미 지상군 파병 결정 사항을 하달했다. 맥아더 장군에게 주어진 전권(全權)이란 예하부대 병력을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¹⁵⁸⁾

트루먼 대통령은 지상군 파병결정에 대한 사후조치를 했다. 그는 먼저 30일 11:00분에 백악관 회의실에서 의회지도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했다. 행정부에서는 바클리 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장관, 국방장관, 3군 장관, 합참의장 등 30명의 고급관리가 참석했고, 의회에서는 15명의 상·하원의원이 참석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지난 1주일 동안 결정한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나서 미 지상군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한국을 방위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코넬리 상원의원은 육군 파병이 일방적으로 취해졌는지 아니면 유엔 결의안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취해졌는지에 대해 물었다. 대통령은 코넬리 의원에게 미국의 행동은 전적으로 유엔기구 안에서 취해진 것이며 더구나 맥아더 장군은 극동군사령관인 동시에 유엔군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 사이에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백악관의 참모들은 가장 최근의 결정을 알리는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있는 의회지도자와의 회동에서 국무·국방·합참의장을 대동한 대통령은 최근 한국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다. 의회지도자들은 날로 격심해지는 군사정황에 대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를 들었다. 북한 침략자를 격퇴시키고 한국의 평화를 회복하는데 대한민국을 지지해 달라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요청에 응하여 트루먼 대통령은 미 공군에게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면 북한의

어떤 군사 목표에 대해서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한반도의 전 연안의 해상봉쇄를 명령했다고 성명했다. 맥아더 장군에게는 확실한 지상부대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이 날 오후 오스틴 미국대사는 뉴욕에서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근 미국이 결정한 것을 보고했다. 유엔의 59개 회원국 가운데 33개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유엔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6개 국가가 지지의 표시로 군대 파견을 약속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 결정을 내리고 난 후 그동안 보낸 7일은 지금까지 재직해 오면서 경험한 가장 힘들었던 일주일이었다라고 말했다.¹⁵⁹⁾ 그는 적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던 것이다.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유엔의 역할과 참전 의의

유엔안보리가 신속한 결의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도 중요하였지만 한국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던 유엔한국위원단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엔한국위원단은 적시 적절한 보고를 통해 한국 상황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알림으로써 유엔안보리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유엔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 유엔의 공식기구인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에 따라 결의를 함으로써 안보리 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한국위원단의 한국전선에 대한 정세 및 상황 보고, 그리고 건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이들 신속한 보고로 인해 유엔안보리는 전쟁 초기 쉽게 놓칠 수 있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6·25전쟁에서 유엔의 역할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은 1950년 1월 12일 애치슨의 연설에서 공언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을 통해 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전쟁 초기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로부터 대통령에게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진 결과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전 초기 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원에 힘입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루었다.

둘째, 국제평화 유지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모든 유엔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고, 이 과정에서 유엔사무총장인 리

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리는 북한의 불법 남침을 유엔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였다. 특히 소련이 안보리 의장국으로 8월부터 안보리에 참석하자 사무총장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한국문제를 총회로 이관하여 이후부터 소련의 거부권 행사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사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한국에 대한 안보리의 결의는 유엔 최초의 집단안전보장으로써 유엔은 이에 따라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북한의 무력행위에 대해서 유엔회원국 공동의 무력행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은 유엔회원국 군대를 지휘할 유엔군사령부를 최초로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넷째, 유엔한국위원단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역할이 매우 컸다. 유엔한국위원단은 개전 초기 적시 적절한 보고를 통해 유엔안보리가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하였다. 만일 전쟁 당시 한국에 유엔한국위원단이 없었더라면 조사단 편성에서부터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전쟁 초기 긴박한 상황에서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그 시기를 놓쳤을 것이 분명하다.

이로써 6·25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에 국제평화기구인 유엔이 집단안전보장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침략군 북한 공산군에 맞서 국제십자군으로 파견된 유엔과의 전쟁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유엔에 의해 탄생된 신생 대한민국은 유엔의 신속한 조치에 힘입어 유엔 참전국들의 군사적 지원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게 되었다.

2. 미국의 참전 결정과 의의

미군의 한국전 참전결정은 개전 6일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미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우선적으로 주일미군을 전개시킨 다음 7월 말부터는 미 해외 및 본토로부터 증원 병력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미군은 한국에서 지

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미 극동군예하의 주일미군을 선두로 미 본토 및 해외기지의 육해공군을 공수 및 해상을 통해 한국을 지원하거나 전개했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초 설정한 '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이라는 전쟁 목표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전쟁계획이 부재하였고, 세계전략을 수행할 수 없는 국방력의 삭감, 통합전투력 발휘할 수 없는 감편된 부대 구조 등 문제점을 노정시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신속한 참전은 국제평화의 유지와 안전이라는 유엔 목적과 목표에 기여하였고,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부응하는 조치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참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남침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유엔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전쟁 이전부터 유사시 한국에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유엔을 통한 해결방식을 추구하였고, 실제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헌장에 규정된 집단안전보장에 의한 무력행사를 통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미국 국가안보회의 논의과정에서 공산세력의 전쟁 도발에 대한 응징이 중요하면서도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데서 알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사전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했음에도 신속하게 대처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단 1주일의 예고기간도 없이 별안간 전쟁에 휩쓸렸던 미국은 전쟁지도부의 신속한 참전결정과 이에 따른 대규모 병력파견으로 개전 초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한국을 구출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하게 했던 데에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로서 깊은 역사적 안목을 지녔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 트루먼 대통령과 그의 현명한 보좌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셋째, 6·25전쟁시 미군의 참전결정과정과 참전 결정 이후 한국에 전개될 미군 규모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 과정에서 병력 운용에 이르기까지 가장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맥아더는 전쟁 초기 미국의 전쟁지도부가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시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고,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단행한 한강방어선 시찰을 통해 장차 전개될 미군을 위한 전략적 구상을 했다.

넷째, 미군이 신속한 전개는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승리에 도취해 있던 북한군 수뇌부에 충격을 가하고 향후의 응전태세를 나타낸 확실한 군사행동이었다. 이는 북한·소련·중공과의 사전 전쟁모의과정에서 스탈린이 미군의 개입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자 김일성이, “미군의 개입은 없을 것이며 있더라도 전쟁을 조기에 끝냄으로써 미군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겠다”고 호언했던 것을 무색케 하는 대응 조치였다. 또한 그는 “미국은 극동에서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미국은 싸움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물러났고 한반도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부언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신속하였다.¹⁶⁰⁾ 결국 개전 5일 만에 미 공군이 평양에 대규모 공습이 단행되고, 6일 만에 미 지상군의 참전이 결정되고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됨으로써 전쟁은 북한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아갔다.¹⁶¹⁾

다섯째, 6·25전쟁시 미국의 해·공군이 수행한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한국전선에서 미국의 지상군 비율은 전체 유엔군의 50.3%를 차지한데 비해, 해군은 85.9%, 공군은 93.4%라는 절대적 군사 지원 속에 전쟁이 치러졌다.¹⁶²⁾ 미 지상군이 공군과 해군의 지원 없이 작전할 수밖에 없었다면 북한군은 개전 이후 60~90일 사이에 미군을 대한해협으로 몰아냈으리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로써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1·2차 결의에 근거하여 유엔이 지향하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국에 미 해·공군을 파견한데 이어 지상군을 파견함으로써 6·25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미국의 참전에 이어 자유 우방국가인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이 군대를 파견하여 한국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듯 6·25전쟁은 유엔의 신속한 조치와 미군의 신속한 정책결정,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신속한 개입과 지상군 파견에 힘입어 개전 초기 어려운 전쟁 상황에서 북한군의 진격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 미국의 지상군 파견은 한국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지연작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였고, 최초 맥아

더 원수가 구상했던 상륙작전의 기반을 이루게 하였다. 특히 유엔 안보리 조치에 의거 유엔군의 창설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6·25전쟁은 북한 공산군의 불법 침략에 대한 유엔군의 집단안전보장에 의한 평화수호 전쟁으로 변했다. 이처럼 6·25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에 국제평화기구인 유엔이 집단안전보장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침략군 북한 공산군에 맞서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파견된 유엔과의 전쟁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주 (註)

- 1) 6·25전쟁의 책임을 미국이나 이승만의 한국정부에 두고 있는 좌파 수정주의자들은 미군의 참전을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는 것이라 하여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좌파 수정주의자들은 애치슨의 극동방위선 연설을 대표적인 것으로 꼽고 있다. 애치슨의 극동방위선 연설은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배제하여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소련과 북한은 이미 전쟁 모의를 통해 전쟁준비를 진행하고 있었고, 오히려 미국은 국방비 삭감 및 군비 감축으로 해외의 미군을 대폭 축소하여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 편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서실무근임이 이미 밝혀졌다. 애치슨의 연설은 극동맥아더 사령부의 건의와 합동참모의장의 보고 및 국가안보회의(NSC)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미국의 결정된 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것.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전쟁의 배경과 원인』(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서울: 박영사, 1992); 안천, 『남침유도설 해부』(서울: 교육과학사, 1993); Kathryn Weathersby,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New Documentary Evidenc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2, No.4 (Spring 1995), pp. 425-458.
- 2)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 128.
- 3) 블레어하우스는 미국 제7대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언론인이었던 프랜시스 블레어(Francis P. Blair)가 1837년 백악관 맞은편의 주택을 구입하여 사교장으로 이용했던 집이었다. 그런데 1942년 미 정부가 이 집을 구입하여 외국 정상이 국빈 방문 때 묵는 영빈관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블레어하우스로 불리게 되었다. 6·25전쟁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 개·보수로 인해 이곳에 거주하면서 한국전 참전을 결정하였다.
- 4)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51-1953*, vol.III, Part 1 (Washington D. C.: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 35.
- 5) Staff Section Report. G-1, GHQ, FEC, 1 January-31 October 1950, p. 61;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71.
- 6) *FRUS*, 1950, vol.VII, Korea, p. 210.
- 7)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 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p. 43.
- 8) *MacArthur Hearings*, Part V, p. 2581;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181.
- 9)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 236-237.
- 10)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 250-251.
- 11) *Ibid.*, pp. 238-239.
- 12) *Ibid.*, p. 260.
- 13) Harry S. Truman, *Memoirs: Years of Trial and Hope*, vol.2 (Garden City, N. Y.: Doubleday & Co., 1956), p. 343.
- 14) *MacArthur Hearings*, Appendix K, Part V, p. 3192.
- 15) "The Moscow Agreement of December 1945," U.S. House,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Background Information on Korea*(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0), p. 4.
- 16) "Renewal of the Impasse: The Issues of the Joint Commission," *Ibid.*, pp. 6-8.

- 17) "Letter of Acting Secretary State Lovett of August 26," 1947, Ibid., p. 8.
- 18) "Reply of Foreign Minister Molotov of September 4," 1947, Ibid., pp. 8-9.
- 19) "Letter of Minister Molotov of October 9," 1947; Replay Acting Secretary of State Lovett of October 18, 1947, Ibid., p. 9.
- 20) "The United States Proposal and the Soviet Position," Ibid., p. 10.
- 21) UN Resolution of November 14, 1947, Ibid., pp. 10-11.
- 22) "South Korean Elections," Ibid., pp. 11-12.
- 23) 한표육, 『韓美外交 요람기』(서울: 중앙신서, 1984), p. 47;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1948. 8-1961. 5』 II (서울: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3), p. 64.
- 24)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1948. 8-1961. 5』, p. 65.
- 25)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1948. 8-1961. 5』, p. 65. 또한 북한의 소련 군정당국도 그들이 상정한 절차에 따라 '조선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수립하였다. 소련, 몽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유고슬로비아,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고 알바니아 등 여러 공산권 국가들이 이를 승인하였다.
- 26) George M. McCune, *Korea Toda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 23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
- 27) 한표육, 『韓美外交 요람기』, pp. 47, 49.
- 28) 이 위원회는 1973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결의로 해체되었다.
- 29) 유엔 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Action with respect to Threats to the Peace, Breaches of the Peace, and Acts of Aggression)"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 39조에서 유엔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유엔헌장 제7장 제39조).
- 30)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는 무력 사용을 제외한 안보리의 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안보리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유엔헌장 제7장 제41조). 이에 비해 제42조는 안보리의 무력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안보리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유엔회원국의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유엔헌장 제7장 제42조).
- 31) 유엔헌장 제3장(기관) 제7조.
- 32) 유엔 51개 회원국 중 소련은 3개의 의석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소련이 미국에 강력히 주장하여 소련연방을 비롯하여 백러시아공화국과 우크라이나공화국을 포함시킴으로써 3개의 국가로 등록하여 행사하였다(박홍규, 『UN』, 형성사, 1979, p. 76).
- 33) 유엔헌장 제4장(총회), 제5장(안전보장이사회), 제15장(사무국).
- 34) 유엔헌장 제4조(총회), 제9조, 제10조, 제11조.
- 35) 유엔헌장 제4장(총회) 제18조.
- 36)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 59.
- 37) 「유엔헌장 제15장 제99조」, 1945. 6. 26.

-
- 38) 박홍규, 『UN』(서울: 형성사, 1991), pp. 97-98.
- 39)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December 14, 1949, *FRUS*, vol.VII, p. 1059.
- 40) President Truman to President Rhee, September 26, 1949, *FRUS*, vol.VII, pp. 1084-1085.
- 41) Speech, Dean Acheson to the National Press Club, January 12, 1950, in *MacArthur Hearings*, pp. 1812-1813;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pp. 357-358.
- 42) *The New York Times*, March 2, 1949.
- 43) Harry S. Truman, *Years of the Trial and Hope*, vol.2 (New York: Doubleday & Co., 1956), pp. 331-332; Editorial Note, *FRUS*, 1950, vol.VII, pp. 126-127;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 88-96.
- 44) U.N. Security Council, Fifth Year, *Official Records*, No.15, 473rd Meeting, June 25, 1950, p. 3;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116에서 재인용.
- 45) United Nations Document S/1946, June 25, 1950.
- 46)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Korean Crisis*, p. 15.
- 47)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118.
- 48) Security Council res. 82(S/1501), 25 June 1950.; The Firs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June 25, 1950, *Us Policy in the Korean Crisis*, pp. 44-45; Resolution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June 25, 1950, *FRUS*, 1950, vol.VII, pp. 155-156.
- 49) Security Council res. 82(S/1501), 25 June 1950.
- 50)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 50.
- 5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The Korean War*, vol. III, Part One (Washington, D. C.: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 39.
- 52) U. N. Security Council Fifth Year, *Official Records*, No.16. 47th Meeting, June 27, 1950.
- 53) United Nations Document S/1503, June 26, 1950.
- 54) United Nations Document S/1508, Rev. 1, June 27, 1950.
- 55) Paige, *The Korean Decision*, p. 205.
- 56) Security Council res. 83(1508/Rev. 1, S/1511), 27 June 1950.
- 57) 韓國弘報協會, 『韓國動亂』(서울: 한국홍보협회, 1973), pp. 381-421.
- 58)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 50.
- 59) United Nations Document S/1517, June 29, 1950.
- 60)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7일 조선에 대한 무장간섭에 대한 결의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저우언라 이 외교부장이 국제연합사무총장 라에게 보낸 전문(周恩來外長爲, 安理會6月27日通過于武裝干涉朝鮮的決議致聯合國秘書長賴伊電, 1950年7月6日)」,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한국전쟁과 중국』 I (대전: 행정자치부정부기록보존소, 2002), pp. 12-13.
- 61) 「소련 부외상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 United Nations Document S/1517, June 29, 1950.
- 62) 유엔헌장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사항에 관한 안보리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7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 63)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안보리의 조처가 불법이라는 소련의 주장에 대한 미국무부의 성명 (1950.6.30)」, 『韓國動亂』(서울: 한국홍보협회, 1973), pp. 422-425.
- 64)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안보리의 조처가 불법이라는 소련의 주장에 대한 미국무부의 성명 (1950.6.30)」, 『韓國動亂』, pp. 424-425.
- 65) 유엔헌장 제5장(안전보장이사회) 제28조 제1항.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안보리의 각 이사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 66)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안보리의 조처가 불법이라는 소련의 주장에 대한 미국정부의 성명(1950.6.30)』, 『韓國動亂』, p. 425.
- 67) The Ambassador in Yugoslavia(Allen)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8), *FRUS, 1950*, vol.VII, pp. 215-216.
- 68)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Korean Crisis*, p. 1.
- 69)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 88-90.
- 70)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90.
- 71)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90.
- 7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III, Part 1-The Korean War (Washington: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p. 26-27.
- 73)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Korean Crisis*, Far Eastern Series, No.34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0), p. 1.
- 74)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 92-93.
- 75)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p. 332.
- 76)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 93-94.
- 77) Trygve Lie, *In the Cause of Peace*(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4), p. 327.
- 78) Lie, *In the Cause of Peace*, p. 328.
- 79)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Korean Crisis*, p. 11.
- 80) United Nations Document S/1946, June 25, 1950.
- 81) 한국군에 대한 탄약지원은 1950년 1월 26일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른 것이었다.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은 1949년 6월 말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함에 따라 한미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주로 한국군에 대한 경제 및 군수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6·25전쟁 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大韓民國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條約集』 제1집(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 64-69.
- 82)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p. 332.
- 83) Department of State,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 (Jessup), June 25, 1950," *Foreign Relations the United States, 1950*, vol.VII, Korea, 1976, pp. 157-161.
- 84)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p. 333;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the United States, 1950*, vol. VII, Korea, 1976, p. 157.
- 85) Department of State,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 (Jessup), June 25, 1950," *Foreign Relations the United States, 1950*, vol.VII, Korea, 1976, pp. 157-161.
- 86)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125.
- 87) *FRUS, 1950*, vol.VII, Korea, pp. 157-158.
- 88) *FRUS, 1950*, vol.VII, Korea, p. 159.
- 89) Testimony of General Omar N. Bradley, *MacArthur Hearings*, Part II, pp. 942, 1070.
- 90) Paige, *The Korean Decision*, p. 133.
- 91) *FRUS, 1950*, vol.VII, Korea, p. 160.
- 92) *FRUS, 1950*, vol.VII, Korea, p. 160.
- 93) *FRUS, 1950*, vol.VII, Korea, p. 160.
- 94)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p. 335.
- 95) Walter Kraig, Malcom W. Cagle, and Frank A. Man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New York: Rinehart, 1952), p. 31ff.

-
- 96) Department of State,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 (Jessup), June 26, 1950," *Foreign Relations the United States, 1950*, vol.VII, Korea, 1976, pp. 178-183.
- 97) *New York Times*, June 27, 1950, p. 4.
- 98) United Nations Document S/1503, June 26, 1950.
- 99) Department of State,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 (Jessup), June 26, 1950," *Foreign Relations the United States, 1950*, vol.VII, Korea, 1976, pp. 178-183.
- 100)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p. 337.
- 101) *FRUS, 1950*, vol.VII, Korea, p. 179.
- 102) *FRUS, 1950*, vol.VII, Korea, p. 183.
- 103) *FRUS, 1950*, vol.VII, Korea, p. 180.
- 104) *FRUS, 1950*, vol.VII, Korea, p. 183.
- 105) Department of State, "Statement Issued by the President, June 26, 1950," *Foreign Relations the United States, 1950*, vol.VII, Korea, 1976, p. 171.
- 106)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Korean Crisis*, p. 16.
- 107)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Korean Crisis*, p. 16.
- 108)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Korean Crisis*, p. 16.
- 109)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Korean Crisis*, p. 16.
- 110)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 65.
- 111) UNC/FEC, INTELLIGENCE DIGEST & COMMAND REPORT, SN. 1-3, pp. 14-15.
- 112)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 65.
- 113)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6.06:00), *FRUS, 1950*, vol.VII, p. 154.
- 114)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39.
- 115) Staff Sec Rpt. G-1, GHQ, FEC, 1 Jan-31 Oct 50, p. 61;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71;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39.
- 116)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戰火속의 大使館』(서울: 한섬사, 1981), p. 31.
- 117) 초대 주한중국대사 소육린이 1949년 7월 28일 신임장을 봉정했다(이호재, 『한국의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법문사, 1988, p. 308).
- 118) 박실 역, 『戰火속의 大使館』, p. 42.
- 119) *Ibid.*, p. 49.
- 120) *Ibid.*, pp. 50-51.
- 121)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1950.6.25. 14:00), *FRUS, 1950*, vol.VII, pp. 129-131.
- 122)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1950.6.25. 15:00), *FRUS, 1950*, vol.VII, p. 129;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Washington, D. 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2), p. 120.
- 123)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 66.
- 124)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p. 55-56.
- 125)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56.
- 126)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 66.
- 127) *FRUS, 1950*, vol.VII, Korea, p. 210;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131.
- 128)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June-November, 1950*, p. 43.

- 129)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June-November, 1950*, p. 43.
- 130)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40.
- 131) Schnabel and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vol.III, Part 1, p. 35.
- 132) *MacArthur Hearings*, Part V, p. 2581.
- 133) Schnabel and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vol.III, Part 1, p. 39.
- 134)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44.
- 135) 空軍本部, 『UN空軍史』(서울: 공군교재창, 1975), p. 30.
- 136)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681.
- 137) 空軍本部, 『UN空軍史』, p. 32.
- 138) 허중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사』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163.
- 139)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 『김일성저작선집』 1권(평양: 력사연구소, 1967), pp. 170-175.
- 140) William T. Y'blood,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9), pp. 61-64.
- 141) 해군본부,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진해: 통제부인쇄소, 1985), p. 76.
- 142) Schnabel and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p. 42.
- 143) Paige, *The Korean Decision*, pp. 229-230.
- 144) Testimony of Major General Almond in U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Part XXV, 2060; Paige, *The Korean Decision*, p. 232.
- 145) 현재는 도시화로 동양맥주공장이 있었던 터는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 146) Paige, *The Korean Decision*, p. 236.
- 147) Marguerite Higgins, *War in Korea*(Garden City, N. Y.: Doubleday & Co, 1951), pp. 33-34.
- 148) 정일권, 『전쟁과 휴전』(서울: 동아일보사, 1985), pp. 33-34. 맥아더 원수의 전선시찰시 수원비행장을 경비하기 위해 미 제507 고사포대대 X분견대(병력 33명, M-55 고사포 4문)가 배치되었다.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46; Dorris M. Condit,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Test of War, 1950-1953*, vol. II(Washington, D. C.: Historical Offic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1988), p. 53.
- 149) Beverly Smith, "The White House Story: Why We went to War in Korea," *Saturday Evening Post*, November 10, 1951, p. 86
- 150) Paige, *The Korean Decision*, p. 243.
- 151)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p. 341.
- 152) Testimony of General J. Lawton Collins, *MacArthur Hearings*, Part II, p. 1363.
- 153)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p. 341.
- 154)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p. 341.
- 155)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251.
- 156) *FRUS, 1950*, vol.VII, Korea, pp. 250-252, 255, 257-258.
- 157)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p. 344.
- 158) *MacArthur Hearings*, Part I, p. 231.
- 159) *New York Times*, July 1, 1950, p. 6.
- 160) 허남성 · 이종관, 『韓國戰爭의 眞實』(서울: 國防大學院, 2002), pp. 96, 100.
- 161)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제25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62.
- 162)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 pp. 507-508.



제 3 장 한강선 방어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군사 정세와 전선 상황
제 3 절	김포-오류동 전투
제 4 절	한강방어선 전투
제 5 절	수원 북방 전투
제 6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1. 개 요

한강선 방어작전은 전쟁 초 서울이 실패된 이후 국군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3개 혼성사단(수도·제2·7사단)이 한강 남안에 방어선을 형성하여 북한군 제1군단 예하 보병 3개 사단(제3·4·6사단) 및 전차 1개 여단의 공격을 6일간이나 방어한 작전이다.

이 작전은 동해안의 국군 제8사단과 중부전선의 국군 제6사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대가 사활을 걸고 방어에 임하였던 기간 중의 최대의 작전이었으며 또한 승부의 향배를 결정짓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군은 1차적으로 북한 제1군단(중장 김웅)의 제1, 3, 4의 3개 보병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이 서울을 공략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제6사단으로 하여금 김포-영등포를 점령케 함으로써 당초 그들이 노린 기습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 전선의 아군 후방을 차단키로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북한군은 제1군단 주력으로써 한강도하를 서두르는 한편, 미군의 지원을 의식하고 북한군 제6사단으로써 경인가도를 차단, 영등포에서 한강방어선을 펴고 있는 아군의 좌측면을 위협하면서 인천항을 확보함으로써 미군의 지원을 봉쇄하려 하였다.

반면 국군은 한강 남안에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하고 혼성제7사단을 노량진 방면에 배치하고 수도사단을 여의도 비행장을 포함한 영등포 지역에 배치하는 한편, 혼성제2사단을 비롯한 혼성제3, 제5사단의 일부 혼성병력을 전방부대에 보강하여 한강남안을 연하는 선에 배치하고 적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아군의 작전개념은 한강선에서 공세로 이전하여 실지를 회복한다는 것이 아니

라, 미 지상군이 지원할 때까지 현 전선을 최대한 지연한다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이 때 국군 공군이 한강선을 정찰하여 지상작전을 지원하였으며, 29일부터 미 극동공군기들이 한강변의 적에 대해 대대적으로 폭격을 개시함으로써 적의 도하를 저지하였다. 한강방어작전 시기 극동공군은 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B-26, B-29 폭격기와 F-80, F-82 전투기 등을 출격시켰다.

한강선을 과상적으로 도하 공격하던 북한군은 7월 3일 새벽 제4사단이 완파되지 않은 한강철교를 보수하여 전차를 도하시킨 후 영등포 지역으로 공격하였으며, 제3사단이 신사리-말죽거리-판교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제6사단이 김포비행장을 경유하여 영등포로 진출하고 일부부대가 인천으로 진입하였다.

한강선을 돌파 당하게 되자 국군은 수원, 평택으로 물러나면서 계속 지연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중부전선에서는 원주가, 동부전선에서는 삼척이 각각 실패하였으나, 적의 남진을 계속 저지하였다.

국군은 한강선 방어와 아울러 중동부 및 동부전선에서는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이 원주, 제천으로 철수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으며, 6월 27일부터 참전한 미 해·공군이 38선 이남의 북한군을 공격하기 시작한데 이어 6월 30일에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어 국군을 지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장의 한강선 방어작전은 안양천 서쪽지역의 전황을 망라한 김포-오류동 전투와 한강선 전투, 그리고 수원 북방 전투로써 구성되었는데, 7월 3일에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그 이튿날인 4일에 아군이 수원까지 내어놓게 되므로 수원 북방 전투까지 함께 다루었다.

2. 작전 지역의 특징

작전지역을 동서로 흐르는 한강은 태백산맥의 금강산(1,638m)과 대덕산(1,307m)에서 각각 발원된 북한강과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합류된 강이며, 임진강과 함께

황해로 유입되는 전장 514km의 남한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강선이라 함은 대개 아군 주력이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영등포·노량진·신사리·천호리 등 일대를 지칭하는 방어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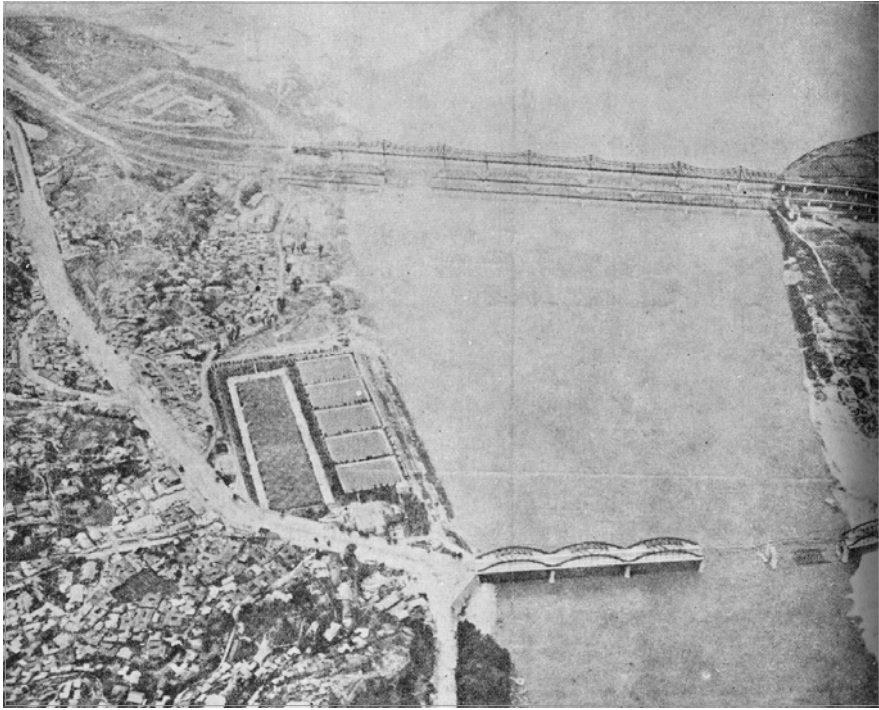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이 지역 전반에 걸친 현황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양화교에서 광진교에 이르는 24km구역의 한강 남안지역 모두를 포괄하였다. 대체로 이 지역의 한강은 하상의 폭이 1~1.5km이며 강수 폭은 300~500m, 그리고 수심은 평균 3.5m로서 어느 곳에서든 도섭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당시 광진교 및 한강교의 2개 인도교와 경인간(하행 및 상행)의 철교 그리고 경부간의 복선철교 등 5개의 교량이 있었고, 또 천호리의 광진나루(광나루)와 압구정동의 독도나루 그리고 한남동-신사리의 한남나루와 서빙고-잠실리의 서빙고나루 및 마포-여의도와 서강-을도(여의도)의 하중리나루 등 6개소의 나루터가 있어 강을 건너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였다.¹⁾

그런데 이 한강상의 교량들은 28일 새벽에 아군의 공병에 의하여 광진교와 한강대교 및 경인간의 하행선철교는 사용불능의 상태가 되었으나, 경인상행선과 경부선(복선)의 두 철교는 남쪽에서 세 번째 경간의 침목과 철로 일부만 손상을 입었을 뿐 골재가 견재하여, 동일 아침 아군 일부가 차량과 함께 그 교량을 이용하여 철수할 정도여서, 이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리고 나루터는 모두 몇 척의 선박뿐이어서 많은 병력의 동시 도하는 어려웠지만 한남나루만은 차량도하가 가능한 비교적 큰 규모의 도선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반드시 강을 건너 공격하여야 할 적의 입장에서 본다면, 강 남쪽의 전 지역을 감제할 수 있는 남산(350고지)이 우뚝 서서, 응봉(175고지)과 함께 한남동의 도선장을 한 눈에 굽어보고 있으며, 또한 노고산(104고지)과 와우산(105고지)이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를 감제하는 형세이므로 이들 두 곳을 주 도하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컸다.

노량진정면에서는 모래 충적지가 강의 북쪽에 형성되었고, 남쪽에 수도고지(105고지:수원지 배수장) 등 일련의 능선이 강변에 연하여 있으므로 여기만은 아군이 감제이점을 갖게 되어, 적의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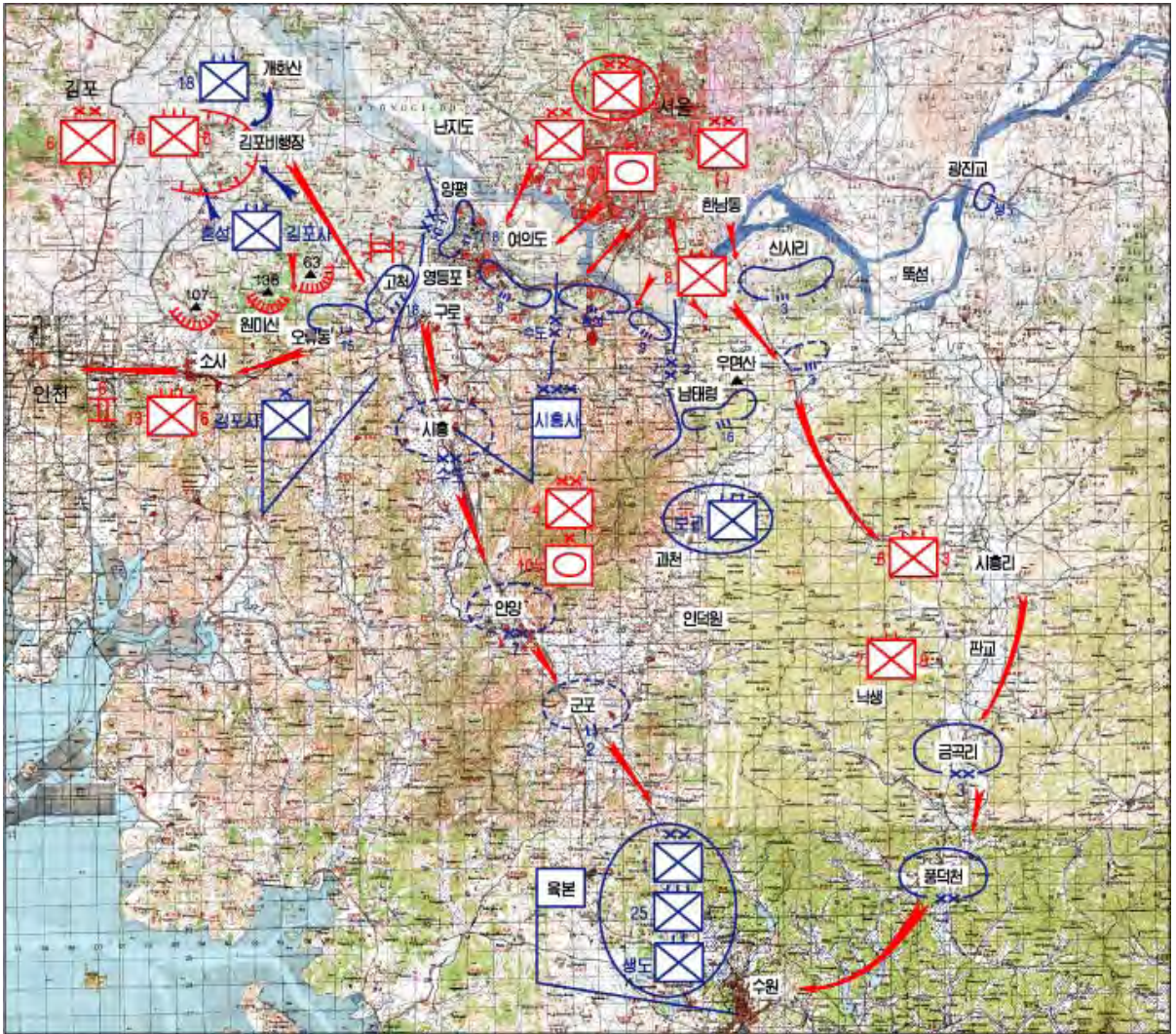


경인 상·하행선 및 경부선 철교와 한강인도교



광진교, 백사장으로 소풍 나온 구천보통학교(현 상일초등학교) 학생들

<상황도 3-1> 한강선 방어작전



제 2 절 군사 정세와 전선 상황

1. 군사 정세

북한군이 서울의 중심부에 돌입한 것은 1950년 6월 28일 11:30경이었다.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3, 4사단, 105전차여단 등이 각각 서울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한밤중이 되어서야 서울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²⁾

이 무렵 문산으로 공격을 해온 북한군 제1사단은 봉일천선에서 서울을 압박하고 있었으나 국군 제1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였으며, 김포반도로 남하한 북한군 제6사단은 김포비행장 부근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한편, 조공인 북한군 제2군단은 제2, 12사단이 국군 제6사단의 선방으로 춘천점령이 늦어지고 홍천 북방에서 저지되어 작전계획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서울 함락 시 대체적인 전선은 김포-봉일천-한강 남안-홍천-대관령-강릉선에 형성되어 있었다.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으나 당초의 목표였던 국군 포위에 실패하였고, 또 그들이 예상하였던 '인민봉기'가 일어나기는커녕 국군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의 제재가 가해지는 등 그들의 남침계획은 초기단계부터 차질을 빚어 전략의 대수정이 뒤따르게 되었다.³⁾

서울은 적색의 공산주의 세계로 일변하였고 거리에는 적 전차가 그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서울을 장악한 적은 곧 마포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를 비롯하여 각 경찰서에 들어가 정치범은 물론 죄수들을 모조리 석방시켰다. 이들은 죄수들을 인민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북한군을 환영하는 선봉에 내세웠고 소위 반민족주의자들의 색출에 앞장세웠다. 이들은 "인민군이 이미 대전, 김천, 군산, 원주 등을 점령하고 계속 남진중이다"라는 유언비어를 살포함으로써 많은 피난민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⁴⁾

적이 서울을 점령하자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중 적기를 들고 북한군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이전부터 공산주의를 지지 또는 동경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적이 점령한 이상 자포자기하여 적에 동조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국회의원과 정부고위층에 종사하던 정치인들까지도 적지 않게 끼여 있었다.

어떤 시민들은 집안에 숨어있거나 산중으로 대피하였다가 위협을 고려하여 마지못해 적을 환영하는 양 가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미처 철수하지 못한 국군의 낙오병이나 경찰관들은 줄곧 숨어서 은신하였는데 적의 점령초기에는 이들에 대항하여 싸우기도 하였다. 청년방위대 고문이었던 안병범 대령의 경우는 군인으로서 시민을 방치한 채 철수할 수 없다고 분개하여 29일 세검정부근 인왕산에서 할복자결하기도 하였다.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한 당일부터 사전에 계획된 점령정책을 내놓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28일 서울점령의 축하연설을 방송하고 서울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위원장에 사법상 이승엽을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조선노동당 서울지도부를 부활시켰다. 서울지도부는 앞으로 남한점령지역에 당세포를 확대해 나갈 첫 이정표이자 수도적화의 일보였다.⁵⁾

이어서 적은 중앙청, 서울시청, 유엔 한국부흥단(UNKRA), 주한 각국 대사관, 각 신문사, 방송국, 운수 및 통신기관 등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국유재산과 정부요인, 재벌들의 사유재산을 모두 몰수하였다. 북한의 군사위원회는 점령지역에서 군수물자를 구입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북한의 중앙은행권과 남한의 한국은행권을 병용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환율은 북한권 1원에 남한권 8원으로 결정하고, 남북 물품교역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6월 27일 이전에 예금된 금액은 지불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은 그 후 남한권을 무제한으로 남발함으로써 화폐가치가 급락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물가가 폭등함으로써 시민생활에 위협과 타격을 초래하였다. 적은 시민들의 생계에 절실한 식량을 일반시민들에게 모두 배급한다고 발표하여 대상자

를 등록시켰으나 각 기관원이나 소위 북한 의용군 유가족을 제외하고는 배급을 주지 않았다.⁶⁾

이들은 서울 시내에서 발간중인 각 신문을 모조리 폐간하는 대신 소위 해방일보, 조선인민보 등 공산계 신문을 등장시켜 사회여론을 움직이도록 조장하였으며, 관영 언론기관을 동원하여 기만 선전을 되풀이하였다.⁷⁾ 그러나 시민들은 오히려 날로 늘어나는 약탈행위와 기만술책에 증오심과 적개심이 깊어질 뿐이었다.

적은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한 각계 인사들을 이른바 반동분자로 몰아 학정을 자행하였으며 또 이를 색출하기 위해 자수한 일부의 인사들을 앞세워 방송과 연설에 나서게 하였다. 서울의 실함은 6·25전쟁상 최대의 비극이었으며 정치군사사회 등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⁸⁾

이 무렵 미 해공군의 참전에 뒤이어 지상군이 국군을 도와 참전하기 시작함으로써 한국 정부와 국군 수뇌부도 새로운 전쟁지도지침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북한의 인민재판 광경

국군은 개전초의 혼란으로 병적관계 서류와 많은 양의 보급품을 유실하였기 때문에 후방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인사 및 군수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국방부는 병력동원을 위해 임시로 병역법 제58조를 적용한 제2국민병 소집으로서 가두소집이나 각종 단체의 집단소집으로써 병력을 보충하였다. 그 후 병력보충은 급속히 강행되어 소집행정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병사기구도 점차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육군본부는 병참지원체제의 정비를 위해 7월 5일 서울지구보급창을 김천에 설치하여 대전지구창과 더불어 보급의 원활을 기하였으며, 동시에 각 사단의 병참부도 개편하여 보급부대와외의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하게 되었다. 7월중 미군의 군수지원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군의 보급창에도 많은 양의 미군 보급품이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통신기재장비가 점차 보급되었고, 공병 역시 지금까지 입하된 대전차지뢰, 폭약 등의 범위에서 확대되어 다양한 공병기재가 지원되었다. 의무지원도 미군약품이 다량으로 입하됨으로써 최전선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⁹⁾

그러나 군량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을 면치 못하였다. 국방부가 확보하고 있던 경인 이외지역의 보관분(민수용 포함)과 정부미가 절대 부족하였고, 주식과 부식(1인 1일 20환)마저 제때에 일선에 도달하기 어려웠다.¹⁰⁾ 군수지원 면에서 미군에 의한 지원체제가 점차 정립되어 갔다. 7월 1일부터 미 제8군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유엔군 및 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수행하였다. 제8군은 주로 재일 재고품으로써 각종 지원을 시작하였고, 부족한 것은 미 본토와 일본에서 생산하여 지원하기도 하였다.¹¹⁾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산항이 미군의 병참기지인 일본과 가까운 전선남단에 있어 군수지원 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부산의 항구시설은 내항에 24척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고, 14척의 LST가 동시에 하역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일일 부두능력은 45,000 t이었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뻗어 있는 철도와 도로는 각 전선에 보급을 지원하기에 유용한 병참선이었다.¹²⁾

2. 북한군 상황

1950년 6월 28일 새벽, 수도방위를 위한 아군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한 미아리 저지선이 무너지자, 북한 제1군단은 제105전차여단과 함께 그날 한강 북쪽의 도하지점을 점령하는 한편, 시내의 주요기관을 장악하여 적화체제를 굳히게 되었다. 북한군은 그들의 목표인 서울점령을 자축하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그날 낮은 보내고, 이어 밤부터 한강도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적의 부대전개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즉 제4사단은 신촌 일대에 자리잡아 한강대교(인도교)에서 마포-서강에 이르는 여의도의 대안을 점령하여 장차 영등포로 도하하려 했으며, 제3사단은 용산 일대에서 이촌동-한남동의 강변에 병력을 배치하여 장차 신사동, 말죽거리로 지향하려 하였다.

한편, 문산쪽으로 합류한 제6사단은 수색부근에 집결하여, 그날 현재로 김포비행장까지 진출한 동사단의 제13연대의 전황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었고,¹³⁾ 또 제1사단은 서대문 쪽으로 입성하여 제3, 제4 양 사단을 후속할 예비로 전환되었다. 제105전차여단은 시가지 경계를 하면서 일부부대로써 이촌동-마포사이의 강변에 배치하여 제4사단의 한강도하를 지원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또 한번 한강선 돌파에 선두가 된 제3, 제4 양 사단은 각각 관측소를 와우산 및 노고산과 남산 일대에 두고, 포병연대로 하여금 신촌과 남산에 방열케 하여 화력지원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적은 한강도하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야포와 박격포 등 총 365문으로 편성된 포병부대들을 투입하였다.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도하지역에 76mm 및 122mm 야포 104문, 45mm 포 52문, 76mm 자주포 14문, 전차 7대, 120mm 박격포 18문 등 각종포 195문이 집결하였고, 제3사단 도하지역에는 45mm, 76mm, 122mm 야포, 76mm 자주포 등 각종포 92문과 전차 8대, 박격포 60문이 집결하였다.¹⁴⁾

북한군 제1군단은 서울점령이 계획대로 진행되자 곧 다음 단계의 작전에 들어

갔는데, 뒷날 북한 스스로가 밝힌 다음 단계의 작전방침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작전목표는 “미군의 증원이 있기 전에 한강을 도하하여 평택-안성-충주-제천-영월을 연하는 선을 점령한다”는 것이었고, 작전방침은 “영등포-수원-평택의 경부국도방향을 중점적으로 돌파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공간사에 의하면, 북한군은 “제1군단과 제2군단이 협력하여 수원이북에서 한국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데에 당면한 전술목표를 두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실제 북한군은 제1군단의 의정부-서울 공격에 조용하여 춘천을 돌파, 수원으로 우회함으로써 아군의 퇴로를 차단키로 한 제2군단이 공격 초기에 춘천에서 의외로 국군 제6사단의 선방에 부딪혀 그 기도가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기의 작전차질로 말미암아 이제 이 양 군단이 수원에서 협격하려 한 당초의 계획에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작전 경과를 살펴보면, 북한군 제1군단은 한강을 돌파하여 수원-평택선으로 공격하되, 각 사단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부여받았다.

- ① 제4사단은 우익으로서 영등포-안양-수원의 축선으로 공격한다.
- ② 제3사단은 좌익으로서 말죽거리-판교-풍덕리-수원의 축선으로 남진한다.
- ③ 제6사단은 경인가도를 차단하여 오류동-인천을 점령한 다음, 별명에 따라 예비로 전환한다.
- ④ 제1사단은 수원을 점령할 때까지 예비로서 현 위치에 대기하다가 후속 또는 초월 공격한다.
- ⑤ 제105전차여단은 계속 경부국도로 지향하여 제4사단을 지원한다.
- ⑥ 군단 공병은 서울철도국의 선로반원을 동원하여 철교를 보수함으로써 전차의 통로를 확보한다.
- ⑦ 각 사단별로 공병대대의 도하중대로써 도하 수단을 강구한다.

이는 한마디로 전차의 돌파력을 발휘하여 전격적으로 경수(京水)가도를 돌파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군의 전 병력이 1번 국도상인 안양-시흥의 북쪽에 편중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획된 것이었다.

북한군은 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기동방책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

석된다. 그들은 '미군의 증원이 있기 전에 한강을 도하하며 수원 이북에서 한국군을 포위섬멸'하기 위하여 제4사단으로서 아군의 주력을 노량진-영등포선에서 견제하고, 제3사단을 우회케 하여 수원선에서 아군의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한강선의 아군에 대한 철퇴를 강요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북한군은 제3사단이 6월 30일에, 그리고 제4사단이 7월 1일에 각각 본격적인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¹⁶⁾ 제 105전차여단은 최초 7월 1일까지 수원을 점령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서울을 점령한 후 3일 동안 국군을 추격하기 위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¹⁷⁾

3. 국군 상황

국군은 사전에 서울 철수의 필요성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철수계획도 수립하지 못하여 시민과 국군의 서울 철수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서울은 적의 압력이 가해지자 공포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서울 이북지역으로부터 내려온 피난민들에 의해 시내는 더욱 혼잡하였다.

국군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6월 28일 아침부터 한강을 건너 철수하였다. 이때 철수병력들이 교량을 이용할 수 없어 야포·차량·박격포 등 중장비를 이동시키지 못하였으며, 겨우 소총만을 휴대한 채 뗏목이나 나룻배를 타고 소부대 단위 또는 개인별로 도하하였다.¹⁸⁾

대체로 미아리 정면에서 적을 저지하던 혼성병력은 마포·하중리(서강)·서빙고·한남동·뚝섬·광나루의 각 도선장과 나루터에서 철수하였고, 문산 정면에 투입된 병력은 행주와 이산포 나루터에서 도하하였다. 이중 광나루를 거친 병력은 곧장 수원으로 집결하고 서빙고와 한남동 그리고 뚝섬을 경유한 일부는 시흥과 수원으로, 행주와 하중리 및 마포로 건너 병력은 대부분 시흥으로 집결하였다.¹⁹⁾ 그리하여 철수병력의 집결이 대강 끝난 것은 28일 밤과 29일 아침 사이였다.

병사들은 거듭된 전투와 철수로 말미암아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고 수습된 인원도 1개 연대의 실 병력이 대대 규모로 줄어들었다. 군수 면에서 국군이 직면

하였던 실정은 더욱 어려운 상태였다. 한강교 폭파로 사단에 지급될 보급품을 실은 1,318대의 차량들이 전부 한강북쪽에 갇혀 적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한강 남안에서는 적절한 교통통제소의 부재로 인하여 후방지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통신망의 두절로 인접부대와의 연락마저 곤란하여 지휘계통 및 협조체제가 원활치 못하였다.²⁰⁾

당시 국군으로서는 방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정황이 없었고, 다만 적의 주공이 노량진 정면을 돌파하여 시흥-안양-수원의 경부국도로 지향되리라는 판단 아래 병력이 수습되는 대로 그곳으로 투입하는 고식책만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강선은 국군이 적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국가 존망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생명선으로 부각되었다.

서울이 실패되기 직전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한강을 연한 방어선에서 인민군을 저지하기로 결심, 육본을 수원농업시험장으로 이동 개설한 후 육군참모학교 교장 김홍일 소장을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한강선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때 전 참모학교 고문관인 헤즈렛(Robert T. Hazlett)이 “미 지상군의 참전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지원군이 이 땅에 상륙하여 전투전개를 갖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원 의사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최소 필요한 시일은 향후 3일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일 동안은 이 한강선을 고수하여 적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하였다.²¹⁾ 또 당시 그곳에 개소한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ADCOM, GHQ FEC)²²⁾의 처치(John H. Church) 준장도 총참모장에게 한강선을 방어하도록 조언하였다.

사령관에 임명된 김홍일 소장은 일찍이 1918년 상해로 망명 중국 강무학교를 졸업한 뒤 독립군으로 활약하다가 한국의용군 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1925년 국부군에 가담하여 사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광복군 참모장으로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는 당시 국군 간부 중에 사단급 이상 대부대의 지휘 경험이 있는 유일한 인물로서 서울이 함락된 날부터 다시 방어사령관이란 막중한 임무를 받고 한강선 방어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²³⁾



시흥 보병학교(현 도하대대)

김 소장은 즉각 시흥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참모부를 구성하는 한편,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을 혼성제7사단장, 수도사단장 이종찬 대령을 혼성수도사단장, 제2사단장 임선하 대령을 혼성제2사단장에 임명하고 안양천에서 광진교에 이르는 한강 남안 24km 정면의 방어편성에 들어갔다. 이때 방어개념은 한강선을 고수한다는 것이었으며, 시흥사는 미 지상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들이 가능한 북쪽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고수한다는 작전개념으로 한강선 방어를 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김홍일 사령관은 “앞으로 3일 동안 한강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가름 된다”는 점을 각급 지휘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당면한 전선방어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²⁴⁾

- ① 전투사령부는 한강선을 지구견수하려 한다.
- ② 혼성제2사단은 신사리-이수교(동작동) 정면을 고수하라.
- ③ 혼성제7사단은 동작동-대방동 정면을 고수하라.
- ④ 혼성수도사단은 신길동-양화교 정면을 고수하라.
- ⑤ 김포전투사령부는 현 위치에서 적을 저지하라. 특히 경인가도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
- ⑥ 각 사단은 적의 도하수단을 적극 분쇄하라.
- ⑦ 각 사단은 피난민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여 적색분자의 침투를 저지하라.
- ⑧ 지휘소는 시흥(보병학교)에 위치한다.



영등포 부근 국군의 모습

시흥사는 워낙 다급한 상황이었으므로 방어명령을 하달한 즉시 시흥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그 병력이 500명 선으로 채워지면 곧바로 혼성제○대대로 명명하여 한강선으로 투입하는 한편, 새로이 한강 방어편성지역을 분담한 각 혼성사단으로 하여금 지역 내에서 도하한 병력을 수습하여 강안에 재배치토록 진지편성을 독려하였다.

6월 29일 오후 혼성제7사단은 혼성 7개 대대 병력으로서 노량진-영등포간 강변지역과 동작동-노량진간 고지대의 확보에 주력하였고, 혼성수도사단도 3개 대대 병력, 1개 장갑대대, 57mm 대전차포 2개 소대로써 양화교 일대와 영등포 방면에 각각 배치하여 적의 도하에 대비하였다.²⁵⁾

이날 혼성제2사단은 신사리-말죽거리 일대의 방어준비에 주력하였고, 김포방면에는 혼성병력 총 2천여 명으로 구성된 김포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혼성제3, 제5사단은 수원에서 낙오병을 수습하였으며,²⁶⁾ 이산포와 행주나루에서 도하 철수한 제1사단은 시흥에 집결하여 시흥사의 예비대가 되었다.

그 밖의 중부전선의 제6사단은 춘천-홍천에서 효과적인 방어작전을 수행하여 북한군 제2, 제12사단에 큰 타격을 주면서 충주로 철수하고 있었으며, 동부전선의 제8사단은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대관령에서 제천방향으로 철수 중에 있었다. 동해안축선은 사실상 개방되어 거의 방어 공백상태가 되었다.

시흥사는 29일까지 예하 혼성사단으로 진지 배치를 일단 완료하였으나, 혼성사단이 이름만 사단이지 병력은 1개 연대 규모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공용화기란 연대 당 고작 박격포 2~3문, 기관총 5~6정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소총부대에 지나지 않았다.²⁷⁾ 시흥사가 방어진지 편성을 완료한 29일 현재 쌍방의 전투부대를 비교하면 <표 3-1>과 같다.

사령부 예하 각 지휘관들은 이와 같이 지휘체제의 미비와 견제와 병과가 무시된 혼성병력으로는 역습이나 기습에 의한 조직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만 강에 연하여 병력을 배치하여 정면에서 도하 접근하는 적을 결사적으로 격퇴시키기로 하였다.²⁸⁾

<표 3-1> 한강선상의 전투부대 편성 비교

국군 시흥지구전투사령부(김홍일 소장)	
혼성수도사단(이종찬 대령)	제8연대(-1), 제18연대(-2), 기갑연대 제1장갑대대
혼성제7사단(유재홍 준장)	제1연대(-1), 제9연대(-1), 제15연대(-1), 제20연대(-2), 제25연대(-2)
혼성제2사단(임선하 대령)	제3연대(-1), 제5연대(-1), 제16연대(-1), 보병학교혼성연대,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
혼성제3사단(이준식 준장)	제22연대, 제25연대(-1), 육사 생도대대
제1사단(백선엽 대령)	제11연대, 제12연대, 제13연대
김포지구전투사령부(임충식 중령)	제18연대(-1) 및 제8연대, 기갑연대, 제12연대, 제22연대의 각 일부 병력
북한군 제1군단(김웅 중장)	
제3사단(이영호 소장)	제7연대, 제8연대, 제9연대, 포병연대
제4사단(이권무 소장)	제5연대, 제16연대, 제18연대, 포병연대
제1사단(최광 소장)	제14연대, 제2연대, 제3연대, 포병연대
제6사단(방호산 소장)	제1연대, 제13연대, 제15연대, 포병연대
제105전차여단(유경수 소장)	제107, 제109, 제203전차연대

<표 3-2>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주요 지휘관 편성²⁹⁾

직 책		계급	성 명	
시흥지구전투사령관		소장	김홍일	
혼성수도사단	사단장	대령	이종찬	
	연대장	중령	서종철	
	제8연대	제1대대장	소령	이철원
		제2대대장	소령	고백규
		제3대대장	소령	박태운
	제18연대 제1대대장	소령	박철용	
기갑연대 제1장갑대대장	소령	박무열		
혼성제7사단	사단장	준장	유재홍	
	제1연대	연대장	중령	이희권
		혼성대대장	대위	강완채
	제9연대	연대장	중령	윤춘근
		혼성대대장	소령	유항박
	제20연대	연대장	대령	박기병
		혼성대대장	소령	김한주
	제25연대 혼성제대장	소령	배운용	
	제15연대	제1대대장	소령	이존일
		제3대대장	소령	최병순
혼성제2사단	사단장	대령	임병하	
		대령	이한림(7월 1일부)	
	제3연대	연대장	중령	최수창(7월 4일 전사)
		제1대대장	소령	임백진
		제3대대장	소령	김봉우
	제5연대	연대장	중령	최창언(7월 2일 부상)
			중령	박기성(7월 3일부)
		제1대대장	소령	이경도
	제16연대	제2대대장	소령	차갑준
		연대장	대령	문용채
		제1대대장	중령	유의준
	보병학교	제3대대장	소령	윤태호
		혼성연대장	중령	유해준
	혼성대대장	중령	하갑청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장	소령	장철부		

직 책		계급	성 명
혼성제3사단	사단장		준장 이준식
	제22연대	연대장	중령 강태민
		제1대대장	소령 황 명
		제2대대장	소령 김재규
		제3대대장	소령 손영을
	제25연대	연대장	중령 김병휘
		제2대대장	대위 나희필
		제3대대장	소령 고동서
	사관학교 생도대장		소령 손관도
	제1사단	제11연대장	대령 최영희
제12연대장		중령 김점곤	
제13연대장 대리		소령 이진위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사령관	중령 우병옥(6월 28일부)	
		중령 임충식(6월 29일부)	
		대령 최영희(6월 30일부)	

제 3 절 김포-오류동 전투

1. 전투 개요

김포-오류동 전투는 김포읍과 김포비행장이 실함된 이후 국군 김포지구전투사령부 예하 부대들이 김포비행장을 역습한 것을 비롯하여 오류동 일대에 방어선을 형성하여 북한군 제6사단의 공격을 7월 3일까지 방어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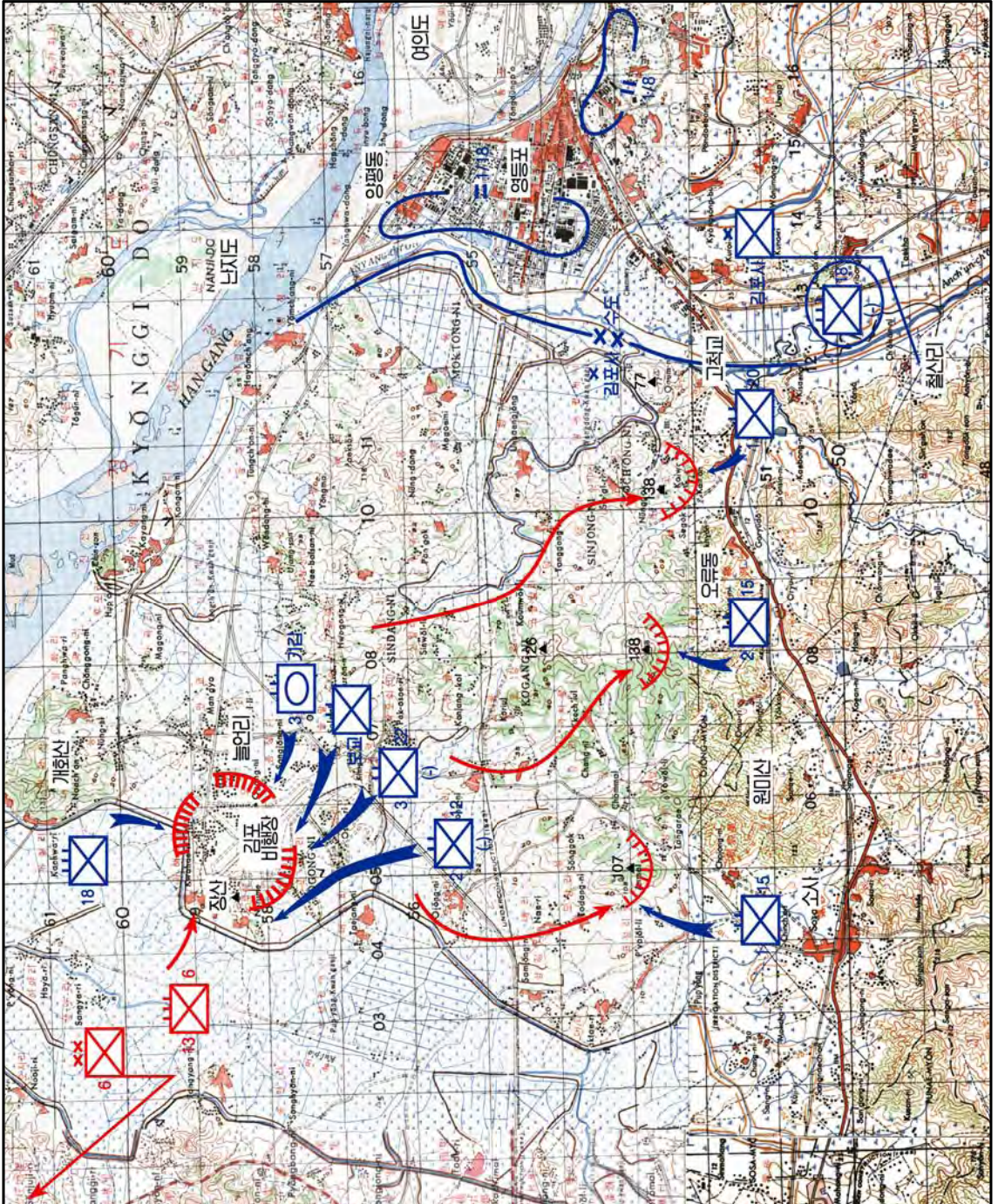
국군 주력이 한강 남안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을 때 김포지구사 병력이 김포비행장 남쪽 원미산 일대, 오류동선으로 물러나면서 적을 계속 방어하였다. 김포사는 6월 29일 열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김포비행장을 탈환하기 위한 역습을 전개하였고, 또 원미산 북쪽 고지일대에 방어선을 편성하여 적 제6사단의 서울 접근을 저지하였다.

김포읍을 석권한 북한군 제6사단은 1개 연대규모의 병력과 견마로 추진한 야포 등으로써 전열을 전면 재정비하는 듯하였다. 돌이켜 보면 이들 적이 김포반도 북단에 상륙을 시작한 지 30시간 내에 김포반도의 중심인 김포읍까지 진출하였던 것이며, 여기에서도 38도선에서의 초기 공격과 같은 기세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사령관인 계인주 대령이 행방불명되어 참모장 최복수 중령이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³⁰⁾ 김포사는 당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지 않고 있던 보병학교 참모장 김용주 중령과 제3사단 참모장 우병욱 중령 등 고급장교들을 김포지구에 투입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병력의 증강이나 전황의 호전을 기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못하였다.

한강선 방어선에 전력하고 있던 육군본부는 노량진-영등포에 방어의 중점을 둔 나머지 김포방면에 대하여서는 손 쓸 여력이 없는 실정이었다. 김포사 예하

<상황도 3-2> 김포-오류동 상황도



에는 독립기갑연대(-), 제8연대 3대대, 제12연대 2대대, 제22연대 3대대, 보국대대 등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건제가 무시된 부대였으므로 전투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전투 경과

1) 전열 재편과 김포비행장 탈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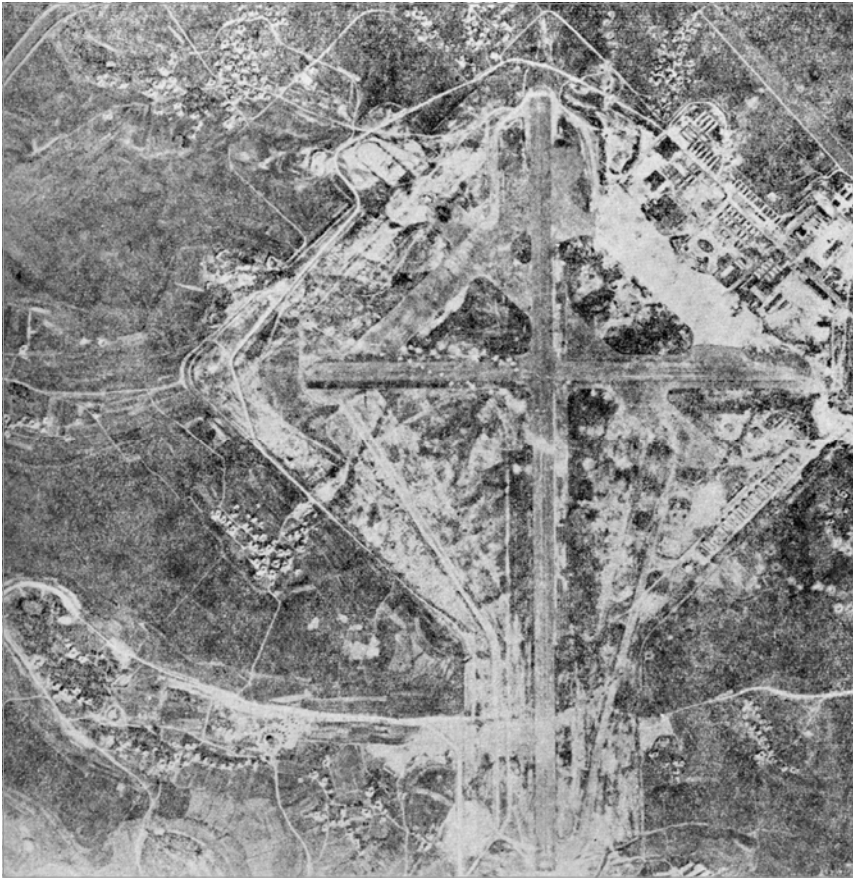
6월 28일 북한군 제6사단은 김포읍의 장악에 이어, 주력은 그곳에서 지원부대의 후속을 기다리면서 정찰대를 비행장과 계양산쪽으로 내보내어 아군의 동정을 탐색하려하였다. 그들은 계양산에는 국군 저지선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비행장은 비어 있음을 알고 밤새 대대규모 병력으로써 이 비행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적은 또한 인천항과 부평의 보급기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의 장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부평으로는 국군의 방어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방향을 바꾸어 비행장으로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군은 소사로 직행하여 경인가도상의 핵심지역을 위협하여 부평의 기지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영등포로부터 한강선의 배후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국군주력의 철수를 강요하려 하였다. 다만 행주대안 한강변에서 국군의 도하철수를 방해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김포의 적은 1개 연대병력으로써 사령부와 연락이 원활치 않아 독자적인 상황판단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야간까지도 그들은 제1사단의 도하철수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³¹⁾

이날 날이 저물 무렵 북한군 제6사단 선견대가 다시 김포가도를 따라 동남향으로 비행장을 목표로 들이닥쳤다.³²⁾ 이에 사령관 대리 최복수 중령은, 비행장에 수용한 혼성병력은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으므로 조직적인 저항을 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시 지휘부와 집결병력 등을 김포비행장으로부터 경인가도의 소사로 이동시켰다.

그리하여 김포시는 이날 저력 무렵 소사 읍사무소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주민의 협력을 얻어 수용병력에 대한 급식을 서두르는 한편, 각 대별로 밤을 새워 대오를 수습하였다.

후보생대대와 기갑연대 도보대대 및 부평경찰대(김억순 경감)로써 계양산 동쪽 능선에 배치하여 김포-부평도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제22연대와 제12연대 병력으로써 비행장 남쪽 구릉지대의 107고지에 배치하여 소사로의 적의 남진에 췌기를 막도록 응급조치하였는데, 이때 제8연대의 제3대대가 비행장에서 영등포로 전진함으로써 새로운 방어임무를 부여받았다.³³⁾



당시 김포비행장 전경(1950.7.26 항공 촬영)

한편, 이날(28일) 야간 김포사 부대들이 사령관이 실종되는 가운데 소사로 집결하자, 시흥사는 현지의 제3사단 참모장인 우병옥 중령을 새로이 사령관으로 임명한 다음 “신속히 병력을 수습하여 김포비행장을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³⁴⁾ 이와 같은 시흥사의 비행장 탈환명령은 적 주력이 반드시 거쳐야 할 요지라는 점도 있지만 행주에서 도하철수중인 제1사단의 철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따라서 신임 사령관 우병옥 중령은 03:00에 모든 병력을 소사에 집결시켜 계양산 일대는 경찰대에 일임하고 전열을 점검하였다. 그러나 제22연대 제3대대와 기갑연대의 도보대대만이 비교적 견재할 뿐, 보병학교 후보생대대는 1개 중대 규모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12연대 제2, 제3 양 대대도 150명을 넘지 않았다. 그리고 기갑연대 장갑중대는 일부가 영등포쪽으로 전환되어 2개 소대도 채 되지 않았으며 기병중대는 기마의 급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안양의 본대로 복귀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은 이들 가용병력으로써 다음날 미명 비행장을 탈환하기 위한 역습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때의 공격계획은 다음의 요지와 같았다.³⁵⁾

<김포사의 공격계획>

- ① 당 전투사령부는 명일 29일 06:00를 기하여 김포비행장을 탈환하려 한다.
- ② 기갑연대 도보대대는 우일선으로써 비행장의 동남쪽을 공격하라.
- ③ 제22연대 제3대대는 중앙일선으로써 비행장의 남쪽을 공격하라.
- ④ 제12연대 제2대대는 좌일선으로써 비행장의 서북쪽을 공격하라.
- ⑤ 남산학교와 보병학교는 예비로써 우일선을 후속하라.
- ⑥ 기갑연대의 장갑중대는 최초 공격부대로 화력 지원한 다음, 비행장을 점령하면 영등포-김포가도로 전진하여 제1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라.
- ⑦ 공격개시선은 신월리(비행장 동남쪽 2km)-107고지(신월리 서남쪽 4.5km)간의 구릉선이다.
- ⑧ 공격간, 제 병력은 참모장이 현지통합 지휘하라.
- ⑨ 지휘소는 소사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참모장 최복수 중령이 역습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는 통신수단의 미비로 지휘소의 사령관이 상황에 즉응하는 지휘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최중령이 공격부대의 지휘를 자원하였기 때문이었다.³⁶⁾ 그는 비행장 부근의 남산학교를 수복하려는 일념과 전 사령관인 계인주 대령의 실종에 따른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고 자원하였던 것이다.

2) 김포비행장 역습

(1)

1950년 6월 29일 김포사(우병욱 중령)는 예정대로 반격의 깃발을 올렸다. 06:00 최복수 중령은 각개 장병의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 다음, 진두지휘하여 소사-김포가도를 따라 북진하였다. 얼마 후 09:00, 사전에 협조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 공군 B-29중폭격기 편대가 김포비행장 일대의 적에 대해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하였다.³⁷⁾

그런데 역습부대가 공격개시선에 부대를 전개할 무렵 뜻하지 않은 이변이 발생하였다. 즉 각 대대가 공격대기 지점에서 지원화기의 제원을 점검하는 등 마지막 전열을 가다듬는 동안, 비행장 북쪽에서 갑자기 총성이 안개를 헤치고 울려왔던 것이다.

이 총성은 전날 밤 해주나루터로 도하한 제18연대(-1)가 철수도중 김포비행장 북쪽에서 적과 조우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³⁸⁾ 결과적으로 비행장의 적에 대해 북쪽에서는 제18연대가, 남쪽에서는 김포사가 각각 적을 공격하게 되었다.

김포사는 비행장 동북쪽에서 제18연대의 혈전이 벌어지고 있을 무렵, 격렬한 총성을 들으며 B-29의 폭격으로 화염에 휘감긴 모습만을 보았을 뿐,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김포사는 제18연대가 놀언리 근처에서 마지막 돌파구를 뚫을 때인 10:30 전후 비행장의 서남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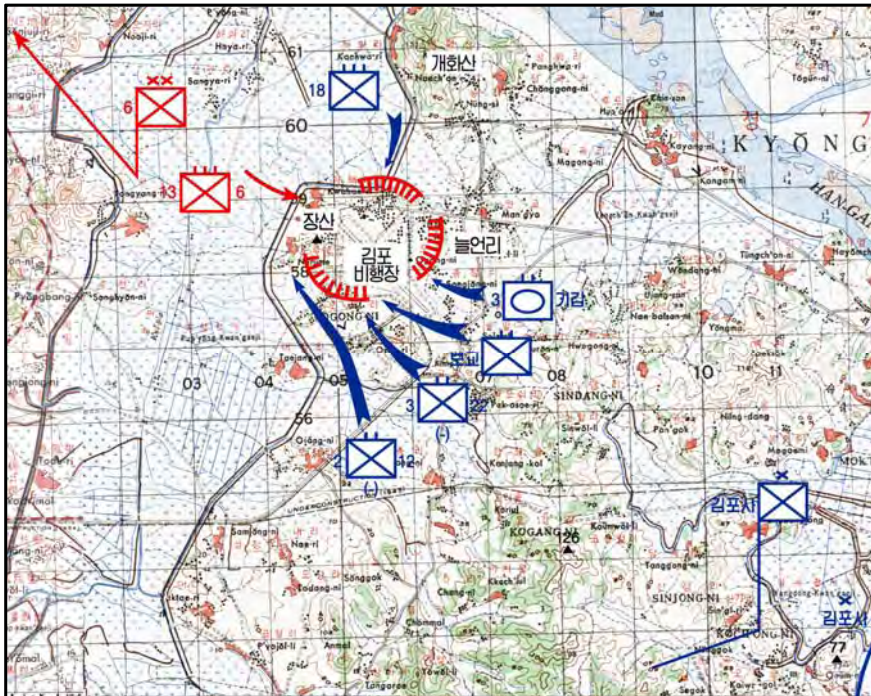
최중령은 공격에 앞서 미 공군의 공습이 있었으므로 비행장의 적정을 확인하고자 정찰대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찰도중 비행장 남쪽 1km 안오쇠에

서 적의 복병을 만나 안영작 대위가 저격을 받아 전사하고 말았다.³⁹⁾

그리하여 미 공군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적이 계속 비행장을 확보중인 것을 확인한 김포사는 기갑연대의 도보대대로 하여금 장갑차의 엄호 하에 활주로의 동남단으로 돌입토록 하고, 제22연대 제3대대로써 안오쇠 부근의 적을 격퇴한 다음 비행장 남쪽으로 진출하고, 제12연대 제2대대로써 비행장의 서북쪽으로 우회케 하여 장산을 점령케 함으로써 적의 퇴로를 막도록 하였다. 공격대장인 최복수 중령이 직접 쫓차를 타고, 안오쇠 부근까지 진출하여 부대의 전진을 독려하였다.

이리하여 기갑연대의 제3도보 수색대대가 장갑 제2중대의 엄호아래 대대장 강문헌 대위를 선두로 목표인 활주로의 입구를 향하여 나아가던 중, 안오쇠 동북쪽으로 도로의 배수리에 잠복 중이던 일단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게 되었다.

<상황도 3-3> 김포비행장 역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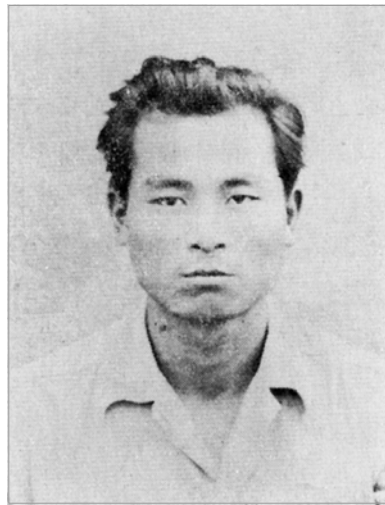
이에 대대장 강대위는 대대원들과 함께 적에 응전하였으나, 끝내 대대장과 정보장교가 적탄에 쓰러지게 되었다. 이때 이들을 구출코자 달려간 장갑중대 제2소대장 김정운 소위의 장갑차도 적의 대전차포에 피격되어 동 소대장이 장갑차와 더불어 산화하고 말았다. 대대는 이와 같이 공격 초기에 대대장을 잃게 됨으로써 선임중대장 김일록 중위가 대대장을 대리하는 가운데 공격을 재개하였다.⁴⁰⁾

그리하여 제8, 제9중대가 활주로까지 돌입하게 되었으나, 그곳에서부터는 활주로의 건너편 건물 속에 엄호된 적과 마주보면서 서로 화력을 교환하게 되었으나 노출된 상태인 대대의 손실만이 가중될 뿐이었다. 대대원들은 임기응변으로 활주로 주위에 있는 빈 드럼통을 차폐물로 삼아 앞에서 굴리며 활주로의 돌파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와 같이 혈전의 보람도 없이 사상자만이 누증되는 가운데 비행장 탈취 기도가 무위로 돌아가게 되자, 이를 진두지휘하던 참모장 최복수 중령은 끊어오르는 격분을 참지 못하여 돌연 기관총을 장치한 짚차를 몰아 활주로로 돌진하였다. 그는 좌충우돌로 기관총을 난사하다가 적의 집중 화력을 받고 차량과 함께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다. 그는 스스로 옥쇄의 길을 택하였던 것이다.⁴¹⁾

최복수 중령은 일찍이 구일본군의 육군사관학교(58기)를 나와 33부대(中野학교)를 거친 경험이 있어, 신생 정보학교인 남산학교의 발전과 정보장교의 육성에 남다른 집념과 열의를 보였으며, 이제 적의 공격 앞에 죽음으로써 적을 막고자하였던 것이다. 앞의 김일록 중위는 함북 회령출신으로 당년에 스물아홉 살이었으며, 최수복 중령은 전북 김제출신으로 그때 나이 스물여덟이었다.

결국 이날의 비행장 공격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장갑차는 곧 김포-영등포가도로 빠져 행주쪽으로 도하한 제1사단 병력의 철수를



고 최복수 중령

엄호하게 되었고, 공격부대는 16:00에 다시 소사로 집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설상가상으로 비보가 겹쳤는데, 이날 17:00에 김포사령관 우병옥 중령이 원미산을 올라가 최복수 중령의 뒤를 따라 자신의 권총으로써 자결하고 만 것이었다. 이로써 역습에서 큰 손실을 입은 김포사는 설상가상으로 사령관마저 잃게 되어 와해직전에 처하였다.

한편, 김포사 역습부대가 준비하고 있는 동안 비행장 북쪽에서는 제18연대(-)가 먼저 적과 조우하여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즉 전날(27일) 오후에 행주나루터에 집결한 제18연대의 제2, 제3대대와 제22연대의 제1, 제2대대 및 제13연대의 제1, 제2대대 등이 수집한 나룻배를 이용하여 밤새도록 한강을 도하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도 제18연대는 비교적 대오가 건전한 채로 30여 척의 소형선박으로써 행주도선장에서 전호로 건넜는데, 부연대장인 한신 중령이 1개 중대를 지휘하여 먼저 전호의 무명고지를 교두보로 확보하는 가운데 제2, 제3대대의 건제순으로 도강하였다.⁴²⁾

제18연대(-)는 굴포천의 수로가 끝닿는 부평을 목표로, 제2대대를 선두에 내세워 진로를 개척케 하면서 김포-영등포 가도 쪽으로 나섰는데, 이때 서북쪽의 옥녀봉(79고지)에서 갑자기 적의 박격포사격을 받았다.

이에 대대는 지체 없이 적진을 돌파하기로 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이때 마침 09:00에 B-29편대가 구름 속에서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나타나 비행장에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순식간에 그 일대를 폭염으로 휘감아 놓았다.⁴³⁾

이 무렵인 10:20에 비행장에 돌입한 제5중대가, 마침 출격한 B-29의 폭격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그곳에 포로로 억류 중이던 아군 병사들을 구출하여 본대와 합세하였다. 대대장 장춘권 소령은 다시 대오를 가다듬어 진두에 서서 기관총 2정을 지휘하여 놀언리 정면을 돌파하였고 이어 전력을 집중함으로써 진로를 타개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선도부대인 제2대대의 용전분투 결과 11:00 전후하여 연대는 큰 손실 없이 비행장부근의 적진을 돌파하였고, 포로가 된 병사들을 구출하는 등 의외의 공을 세우면서 14:00에 소사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2)

6월 28일~29일 이들 만에 계인주 대령, 우병옥 중령 등 두 사람의 지휘관이 바뀌게 된 김포사는 그 근간이 와해됨으로써 사실상 사령부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시흥사 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소사지역에 집결중인 제18연대장 임충식 중령으로 하여금 그 지역부대를 통합 지휘토록 조치하였다.⁴⁴⁾

이리하여, 불과 몇 시간 전에 한강을 건너 위기의 순간을 넘어 당도한 임충식 중령으로서서는 눈앞에서 사관학교 1기 동기생인 우병옥 중령의 자결이라는 크나 큰 충격과 함께 뜻밖의 임무를 떠맡게 된 셈인데, 그때까지 그는 그 휘하장병에 대한 끼니마저 주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는 곧 심기일전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수행에 들어갔다.⁴⁵⁾

이날 저녁, 임 중령은 비행장일대에는 이미 적이 방어배치를 굳혔을 것으로 판단함과 아울러 머지않아 소사로 공격의 예봉을 향하여 경인가도의 분단을 기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지휘소를 소래로 옮기는 가운데 우선 장악중인 연대의 제2, 제3 양 대대로써 비행장-소사도로를 동남쪽으로 감제하는 원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고지군을 확보하여 적의 남진을 막게 하였다. 그는 아울러 기존부대를 정비토록 하였으나 와해직전의 상태였다.⁴⁶⁾

이들은 이날(29일) 저녁 무렵까지 정비를 대강 끝내고, 보병학교, 기갑연대, 제12연대순으로 비행장-소사도로 서북쪽의 107고지에 배치되어, 도로 동남쪽의 제18연대 주력과 연계를 지어 적의 침공을 막게 되었다. 제22연대 제2대대는 소사에서 경인가도의 확보와 후방경계에 임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새벽 제18연대와 함께 한강을 건너 제22연대 제2대대는 개화산-비행장으로 향하다가, 개화산을 점령하여 있던 일단의 적과 교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대장 신면호 소령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적은 규모가 크지 않아 쉽게 격퇴되었는데, 이때 전호에서 비행장쪽을 향하던 제18연대의 전진로를 타개한 셈이 되었다. 대대는 제13연대와 함께 김포가도를 따라, 오후에 영등포-시흥으로 집결하였다.

3) 원미산 일대 공방전

(1)

김포지구의 전선은 이제 비행장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남하하여, 아군의 소사 북쪽의 고지군에서 경인가도의 확보에 전력하게 되었다. 경인가도는 인천항의 생명선이기도 하지만 영등포쪽에서 한강방어선을 펴고 있는 시흥사 주전부대의 측방 엄호를 위하여서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지역이었으며, 또 이의 확보여부는 소사 동북쪽의 138고지-원미산 공방전의 승패 여하에 달려 있기도 한 것이었다.⁴⁷⁾

전날(29일) 야간 북한군 제6사단은 정찰대로써 아군의 진지편성 상황을 탐지하더니, 30일 날이 밝자 비행장-소사도로를 따라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을 재개하였다. 적은 일부로써 후보생대대와 도보대대 진지를 공격하면서 일부로써 동남쪽으로 미끄러져 내려 오류동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한편, 사령관 임충식 중령은 전날 자정이 지나면서 적이 수색에서 난지도를 거쳐 증산(55고지)쪽으로 한강을 도하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임중령은 그들이 안양천의 서안을 따라 오류동으로 직행하여 시흥을 노린 것으로 판단하고, 밤새 제18연대 제3대대를 뽑아 오류동쪽으로 돌렸다.

그는 제3대대를 경인가도 북쪽 안양천 서안의 77고지에 배치하여 영등포로 통하는 길목인 고척교를 통제하여 적의 공격로를 방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18연대 제2대대는 오류동역 북쪽 고지대로 진지를 변환하게 하였으며 소사의 제22연대 제3대대 일부를 원미산 북쪽의 제18연대 제2대대 진지에 투입하였다.⁴⁸⁾

따라서 이날 30일 아침 방어진지는 제18연대 제3대대가 오류동 동북쪽에, 제2대대가 오류동 서북쪽에, 그리고 제22연대 제3대대를 비롯한 혼성병력이 원미산 북쪽에 전개하여 북한군 제6사단과 대결하게 되었다.

적은 이른 아침, 비행장-소사도로를 따라 지향되는 전차 2대와 자주포의 엄호아래 107고지부근의 후보생대대와 도보대대의 진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상기 2개 대대는 2.36 "로켓포를 집중하여 저지사격을 가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적 전차는 완강한 저항을 보이는 투지 앞에, 그들 전차의 수

효가 적었음인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쨌든 적은 전차의 위세를 빌어, 이날 오전 138고지-여명리 일대의 진지일각을 수중에 넣게 되고, 따라서 소사 북쪽 2km까지 진출하게 되어, 이제 경인가도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사령관 임충식 중령은 6. 30. 09:00에 중앙일선의 제18연대 제2대대로 하여금 138고지를 탈환하도록 하고, 좌일선 부대들로서 원미산 일대의 적을 견제토록 하였다. 이는 오류동 정면에서의 최고봉인 138고지가 적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강제 이점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제18연대의 제2대대는 오류동 서쪽 궁동에서 그 북쪽 능선을 따라 제7중대로써 138고지의 남쪽 정면을 공격케 하고, 제6중대로써 그 동쪽 계곡으로 우회 협격하게 하였다.⁴⁹⁾

그러나 그 공격은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공격선두에서 분투하던 제7중대장 이규대 중위가 복부에 적탄을 맞아 산화하는 가운데 뒤따르던 소대장 3명이 모두 부상을 입는 등 적지 않는 손실만 본 끝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는 지원화력의 열세가 가져다 준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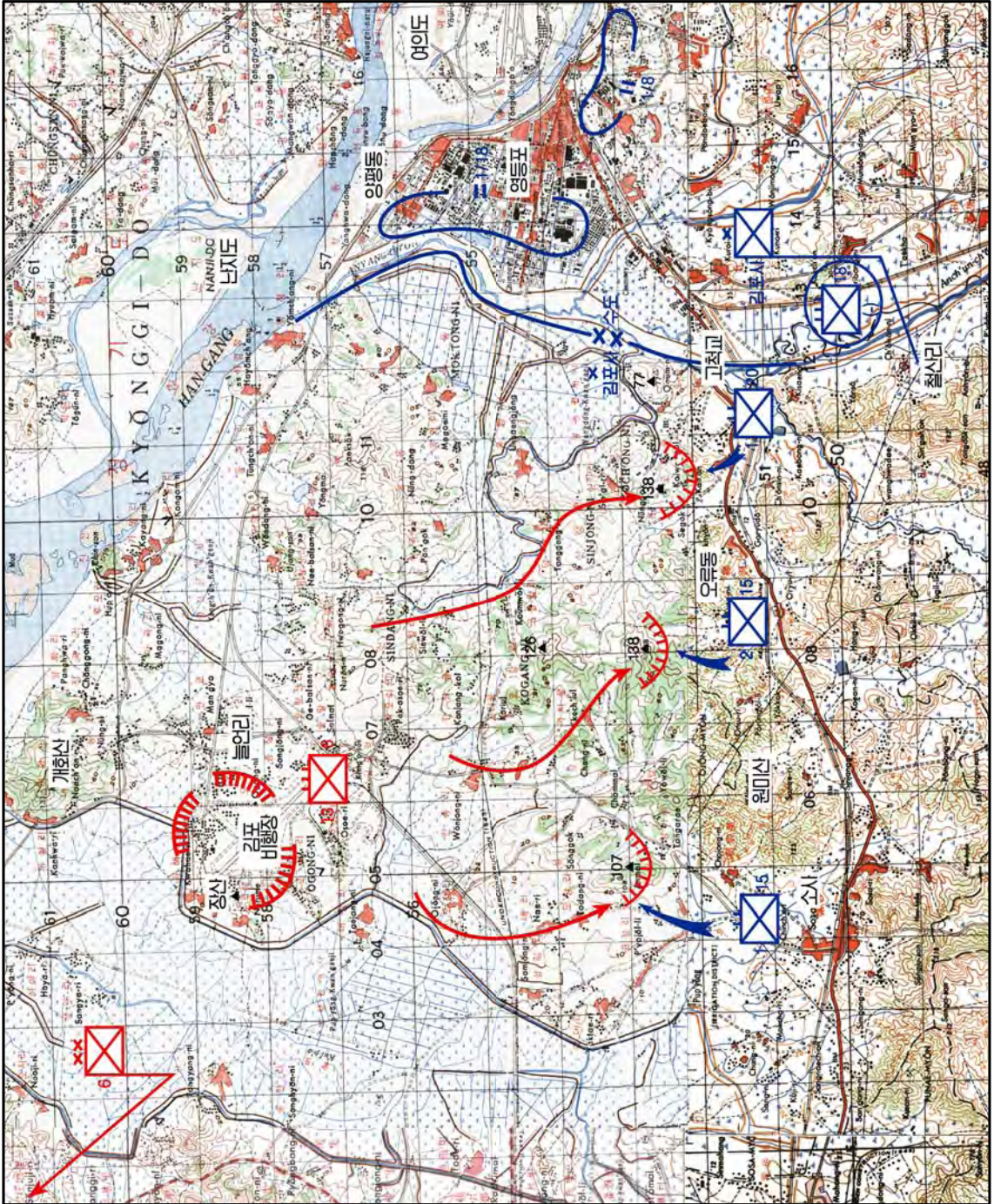
한편, 원미산 진지에서는 그곳의 재확보 임무를 받은 후보생대대 등이 부평경찰대로부터 전투경찰 1개 소대를 지원받아 역습에 나서, 종일토록 혈전을 벌인 결과 17:00에 목표를 다시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30일) 오류동-소사지구에서의 위협을 느끼게 된 시흥사 김홍일 소장은 "현지의 김포사 혼성병력은 이제 결전능력이 그 한계에 다다랐다. 당면한 적세와 견주어 볼 때 제18연대 만으로서는 더 이상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이에 대한 병력증강으로써 전력 강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김홍일 소장은 제5사단 제15연대장 최영희 대령을 새로이 김포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한편, 그에게 "시급히 제5사단 병력을 수습하고 이를 통합 지휘하여 당면의 오류동-소사의 경인가도를 고수하라. 방어선이 확고히 된 연후에는 나아가 김포비행장을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⁵⁰⁾

신임사령관 최영희 대령은 즉시 부대를 파악하였다. 제15연대 제1대대는 혼성 제7사단에 배속되어 한강인도교 부근에 배치되어 있었고, 제2대대는 한강을 건너

<상황도 3-4> 원미산 공방전



안양에 집결중이고, 제3대대는 역시 제7사단에 배속되어 한강철교부근의 사육신 묘지 남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최영희 대령이 장악하게 된 병력은 제15연대의 제1, 제2대대 및 제20연대의 제1대대 그리고 사단 공병대대 등 4개 대대와 제18연대의 제2, 제3 양개 대대 등 6개 대대에 달하게 되었다. 51)오후에 이들 대대와 함께 오류동에 도착하여 새로이 김포전투사의 사령관으로 부임한 그는 당초의 사령부 기존병력은 각기 원대로 복귀토록 조치하고 그 대신 기갑연대의 장갑차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일사불란한 지휘조치로써 시행된 것이 아니어서, 후보생대대나 제12연대 병력 가운데에서는 소대 또는 분대 단위로 적을 계속 저지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제18연대 제2대대의 138고지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령관은 제15연대 제2대대를 오류동 북쪽 무명고지(90m)로 추진하여 제18연대 제2대대와 함께 역습에 나서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날 낮 138고지에서 역습을 받은 적은 아군이 138고지에서 사생결단 하려는 의지를 간파한 듯 이날 밤은 동고지에서 수세로 전환함으로써, 양측은 가벼운 화력전으로 6월의 마지막 밤을 지새웠다.

(2) 107 - 138 - 63

최영희 대령은 이미 미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이상 지금 적이 김포비행장을 기지로 활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심리적인 면을 배제한다면 한낱 평지일 뿐 전술적인 측면에서 확보의 가치가 적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는 증원부대를 오류동-소사간의 도로 남쪽에 전개시킨 후 7월 1일 06:00에 명령을 하달하였다.⁵²⁾

최 사령관은 먼저 공격을 위한 발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행장 남쪽의 138고지-107고지의 요충지역을 확보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이에 공격부대의 유일한 중포화였던 81mm 박격포는 138고지를, 장갑차의 37mm 포와 자동화력은 107고지를 각각 지원토록 화력을 안배하고,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에 이르기까지 부평의 제1병기대대에서 보유중인 재고 포탄을 오류동일대의

경인가도 노상에 집적케 하는 등 각대의 소요탄약을 확보함으로써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 13: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⁵³⁾

이때 사령관은 오류동으로 그 동남쪽으로 한 걸음 물러난 철산리의 무명고지에서 지휘소를 개설하고 좌우의 전 전선을 살피면서 공격의 진전을 독려하게 되었다.⁵⁴⁾ 그러나 공격개시의 신호탄이 오른 뒤로는 각 공격대대에 대한 적절한 지휘기능과 통제수단을 가지지 못하여 유선은 고사하고 무선 통신기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까닭으로 멀어지는 총성으로써 적정을 파악할 뿐이었다.

장갑차의 엄호를 받아 나아간 좌일선의 제1대대가, 17:00에 공병대대의 협력으로 107고지를 점령한 것을 선두로,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일몰 전까지 각기의 목표를 모두 수중에 넣게 되었다. 적은 공격이 시작되자 충천하는 성세에 눌린 듯 완강한 저항을 보이지 않고 동북으로 연한 능선을 따라 126고지로 분산도주하고 말았다.⁵⁵⁾

따라서 우일선인 제20연대 제1대대의 혼성 중대장 김주명 중위가 67고지를 향하여 진출하다가 머리에 다발총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없지 않았으나 그리 큰 손실을 보지 않고 목표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날 77고지-138고지-107고지선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경인가도의 위협을 제거하는 전황의 호전을 보이게 되었다.⁵⁶⁾

7월 2일도 오류동선에서의 혈전은 계속되었다. 최영희 대령은 전날 확보한 138고지-107고지선에서 여세를 몰아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을 138고지 북쪽의 126고지 너머로 몰아냄으로써 적의 침로에 쐐기를 박아놓기로 결심하고, 날이 밝자 제15연대의 제2대대로 하여금 126고지를 공격케 하였다.

공격은 큰 진전 없이 간간히 지나는 비속에서 유착되었다. 그러나 오후부터 적이 난지도쪽으로 본격적인 도하를 실시한 다른 일단의 적과 그 정면에 합류함으로써 오히려 공수의 방향이 역전되고 말았다. 오히려 김포사 병력이 수세로 물리게 되었다.

이에 제18연대의 제2, 제3 양 대대도 모두 전선에 투입되기에 이르렀다. 연대는 오류동 북쪽 76고지와 63고지를 점령하였으나, 126고지 쪽에서 내민 적의 발

길에 구름이 하나씩 잠식되어 138고지로 다시 물러섰다. 연대의 정찰과 항공정찰 결과에 의하면, 정면의 적은 보병 2개 대대가 전차 1대와 함께 북쪽에 공격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⁵⁷⁾

그러나 대체로 이 일대의 전선은 진폭 없는 공방전속에서 날이 저물게 되니, 7월 2일 저녁 전선은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⁵⁸⁾ 그런데, 전날부터 한강방어선 여의도-영등포 일대에 대한 적의 본격적인 도하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이날 2일 오류동선에도 격전이 예고되었다.

김포사가 기갑연대의 장갑차를 모두 소사에 집결시켜 급유와 포탄의 재장비 등을 실시하고 있을 때 우군기로부터 오인 공습을 받아 장갑차 3대를 잃게 되었다.⁵⁹⁾

(3)

7월 3일, 적의 전차부대가 한강을 건너게 됨으로써 한강선의 와해와 더불어 오류동전선도 통한의 날을 맞게 되고 말았다. 전날 밤과 이날 새벽에 걸쳐 난지도에서 한강을 도하한 연대 규모의 적이 오류동 정면으로 가세함으로써 격전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적은 이 날의 공격에 앞서 비행장쪽으로 보병을 지원하던 전차 2대를 야음을 타서 126고지 남쪽으로 추진한 다음, 그로 하여금 고척동 서쪽 계곡을 따라 돌파하여 경인가도로 나서게 하였다. 그들은 오류동-소사 일대를 교란하기로 한 듯, 3일 새벽 안개 속에서 태극기를 게양한 전차가 경인가도상의 덕현에 모습을 나타내었다.⁶⁰⁾

3일 새벽 이와 같이 갑작스런 전차출현에 따라, 고척교 서북쪽인 77고지-63고지 일대에 진지를 점령 중이던 제18연대의 제3대대와 제20연대 제1대대는 전차에 사격을 집중하여 저지하려 하였지만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적 전차는 오류동과 교량 사이 노상에 있던 아군 후방보급소를 모두 유린하고 계속 영등포 방향으로 전진하였다. 일부 국군 병사들은 적 전차를 인천쪽에서 지원되는 미군 전차라고 잘못 알고 그들을 반기다가 기관총 사격을 받아 사상되기도 하였다. 이에 2.36 "로켓포조가 적 전차를 뒤쫓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고척교 일대의 전경

그런데 이들 전차의 경인가도 돌파 자체가 김포사의 방어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 충격과는 대단히 컸다. 즉 영등포지구의 방어를 맡고 있던 혼성수도사단 예하병력들이 해가 뜨기 전에 들이닥친 적 전차로 말미암아 배후를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⁶¹⁾

3일 아침부터 공격을 시작한 적은 한강 북쪽의 신촌에 자리 잡은 그들 중포로써 고척교와 오류동일대의 경인가도에 위협사격을 가하는 가운데 비행장 부근으로 추진된 박격포 등으로써 138고지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제18연대 제3대대장 안민일 소령과 작전관인 김재후 중위가 적의 포화에 파편상을 입고, 제11중대장 원치남 중위 등이 전사하여, 안양천의 서안고지일대에서는 적의 중포화 위력에 전열이 분열되었다.

그러나 제20연대 제1대대와 함께 사력을 다하여 적을 저지함으로써 오전을 넘기게 되었는데, 138고지쪽의 전황도 이와 같아 적의 압력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인 3일 10:00 시흥사에서 이날 새벽에 적의 전차가 한강철교를 건너게 됨으로써 혼성제7사단의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어 사령부의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강쪽의 이와 같은 전황을 알 길이 없었던 김포사는 그때까지도 당면한 적과 혈전을 계속 중이어서, 시흥사의 통신망으로서는 마지막 철수상황조차 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김홍일 소장은 “한강선이 적의 전차에 의하여 무너진 지금, 경인가도의 확보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따라서 이대로 시간만 끈다면 영등포-시흥도로에 적이 먼저 들어서게 되어, 오류동쪽 김포사의 퇴로조차 잃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전 제5사단 참모장인 박병권 대령을 오류동으로 급파하여 철수명령을 전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박병권 대령이 단신 짚차로 시흥에서 안양시의 서안으로 돌아 철산리의 지휘소에 도착하여 최영희 대령에게 한강선의 전황과 함께 시흥사의 철수명령을 전하게 되었다. 즉, 그 요지는 “이미 영등포-시흥도로를 적이 장악중일 것이니 가능한 방책을 강구하여 수원으로 집결하라”는 것이었다.⁶²⁾

이에 최영희 대령은 영등포-시흥의 국도쪽으로 정찰병을 보낸 결과 이미 적의 일부 중대가 시흥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로소 촌각의 여유가 없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일선대대에 “각 대대는 현전선에서 적과 이탈하여 안양으로 집결하라”는 철수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날 낮 대대별로 당면의 적과 접촉을 끊고 다시 철수 길에 오르게 됨으로써 김포반도에 적이 상륙한 뒤로 1주일에 걸쳐 전개되었던 지연전도 오류동에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결 과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서울 남서측의 예기치 못한 위협을 맞이하여 열세한 장비와 병력으로 북한군 정규사단인 제6사단의 공격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이나 막아내었다. 김포사의 장병들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여 몸으로 적을 막아내었다. 여기서 적을 방어하지 못하였다면 영등포-노량진 방어선도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7월 3일 아침 김포사 병력들은 북한군 제6사단이 전차와 함께 오류동에서 진출하여 영등포-노량진 일대에서 한강을 도하한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 부대들과 합류하여 영등포 지역을 석권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안양천을 따라 남쪽으로 분산 철수하였다. 이날 밤 적 제6사단 1개 연대가 6대의 전차를 선두로 경인가도를 따라 인천을 점령하게 됨으로써 경인가도의 이북지역은 이제 모두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

북한군은 이날 중으로 선부부대를 시흥으로 진출시켜 국군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력을 영등포와 오류동 부근으로 집결시켜 전열을 다시금 가다듬는 듯하였다. 이들은 다음 공격을 재개하기에 앞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부대를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오류동선에서 분산 철수한 김포사의 병력은, 일부는 소사에서 소래를 거쳐 서해안을 따라 곧장 수원으로 빠지기도 하고, 일부는 오류동에서 양지산 기슭을 타고 안양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김포사의 철수명령은 일선 참호속의 각개 병사에게까지 모두 전달되지 못하였다. 어떤 병사는 아직 진지일각을 지키고 있었고, 또 어떤 병사는 명령을 듣고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하여 호 속에 남아 있기도 하였다.

이날 저녁 북한군 전차가 경인가도를 따라 진출하게 되자, 그들은 그때서야 적 전차의 틈 사이를 뚫고 철수하였으며, 혹은 인천으로 가서 마지막 철도편을 이용하여 수원으로 가기도 하였다. 제12연대 제2대대장인 한순화 소령 일행은 경인도로를 따라 철수하다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무작정 남하하다가 보름동안이나 서해안을 표류한 끝에 군산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3일 저녁 김포사의 주력이 안양부근에 집결되면서 사령부는 해편 되고, 제15, 제18연대가 연대별로 시흥지구전투사령관 김홍일 소장의 장악 하에 들어갔다. 양 연대는 시흥사의 통제 하에 덕안리부근 안양저지선의 서쪽 일부를 담당하였고 적이 정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제 4 절 한강방어선 전투

1. 전투 개요

1) 개 요

한강방어선 전투는 전쟁 초 서울이 실함된 이후 국군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3개 혼성사단(수도·제2·7사단)이 한강 남안에 방어선을 형성하여 북한군 제1군단 예하 보병 3개 사단(제3·제4·제6사단) 및 전차 1개 여단의 공격을 6일간이나 방어한 전투이다.

이 전투는 동해안의 국군 제8사단과 중부전선의 국군 제6사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대가 사활을 걸고 방어에 임하였던 기간 중의 최대의 작전이었으며 또한 승부의 향배를 결정짓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군은 1차적으로 북한 제1군단의 제1, 제3, 제4의 3개 보병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이 서울을 공략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제6사단으로 하여금 김포-영등포를 점령케 함으로써 당초 그들이 노린 기습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 전선의 아군 후방을 차단키로 기도하였다.

반면 국군은 한강 남안에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하고 혼성제7사단을 노량진 방면에 배치하고 수도사단을 여의도 비행장을 포함한 영등포 지역에 배치하는 한편, 혼성제2사단을 비롯한 혼성제3, 제5사단의 일부 혼성병력을 전방부대에 보강하여 한강 남안을 연하는 선에 배치하고 적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한강선을 파상적으로 도하 공격하던 북한군은 7월 3일 새벽 제4사단이 완파되지 않은 한강철교를 보수하여 전차를 도하시킨 후 영등포 지역으로 공격하였으며, 제3사단이 신사리-말죽거리-판교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한강선을 돌파 당하게 되자 국군은 수원, 평택으로 물러나면서 계속 지연작전

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중부전선에서는 원주가, 동부전선에서는 삼척이 각각 실패하였으나, 적의 남진을 계속 저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시흥사 예하의 국군 방어부대들은 열세한 장비와 병력을 가지고도 한강선에서 적을 6일간이나 막아내었다. 국군은 그 시간을 이용하여 부대를 수습하고 재편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 지상군이 지원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었다.

2) 적 상황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서울점령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 등 정부가 대전으로 이동하여 국군의 항전이 여전히 계속되고⁶³⁾ 또 유엔 해·공군의 개입이라는 예상 밖의 상황에 접하자 유엔지상군의 참전을 의식하여 그 전에 남한을 석권하려는 기도 하에 황급히 미리 계획된 남진명령을 하달하였다.

따라서 북한군은 “미 육군이 증원되기 전에 한강을 강습 도하하여 국방군의 주력을 격멸, 소탕한 후 평택-충주-울진선의 지역을 점령하며, 이를 위하여 주공을 영등포-수원-평택 방면으로 지향하는 동시에 다른 몇 개의 방향에 대해 조공을 둔다”는 작전방침을 결정하였다.⁶⁴⁾



북한군의 서울 점령 모습

북한군 제1군단은 군단 주공인 제4사단을 신촌 일대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조공인 제3사단을 용산-한남동 일대에서 말죽거리로 지향하여 도하 준비를 서둘렀다. 한편, 제6사단은 김포비행장 부근까지 진출한 제13연대의 전황을 지켜보면서 지원태세를 갖추었고, 또 제1사단 주력은 서대문 쪽으로 들어와 제3·제4사단을 후속할 예비대가 되었으며, 제105전차여단은 시가지 경계와 보병부대의 도하를 지원하면서 도하기회를 엿보고 있었다.⁶⁵⁾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그들 공군이 제공권을 거의 상실하게 되고 미 지상군의 참전도 점차 우려되어 도하를 한층 서두르게 되었고, 한강선 돌파에 선두부대가 된 제3, 제4사단이 포병연대를 남산 기슭과 신촌 일대에 배치하여 화력 지원태세를 갖추었다. 적은 도하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야포와 박격포 등 총 365문으로 편성된 포병부대들을 투입하였다.⁶⁶⁾

<표 3-3> 북한군 주요 지휘관

구 분		계급	이 름	비 고
제1군단	군 단 장	중장	김 응	조선의용군 출신
	부군단장	소장	김재욱	
	참 모 장	소장	유 신	
제3사단	사 단 장	소장	이영호	88여단 출신
	제7연대장	대좌	김창봉	
	제8연대장	중좌	김병중	
	제9연대장	대좌	김만익	
	포병연대장	대좌	안백성	
제4사단	사 단 장	소장	이권무	
	제5연대장	대좌	최인덕	
	제16연대장	대좌	박승희	
	제18연대장	대좌	장교덕	
	포병연대장	?	?	
제105전차여단	여 단 장	소장	유경수	88여단 출신
	제107연대장	대좌	최우식	소련거주 한인 2세이며, 전차병으로 독소전에 참전
	제109연대장	대좌	김태련	
	제203연대장	대좌	최율석	

한편, 중동부전선의 북한군 제2군단 지역에서는 제2사단이 가평을 거쳐 용인 방면으로, 제12사단이 홍천을 장악한 후 서부전선과 보조를 맞추어 중앙축선을 따라 남진하고 그 뒤를 후속하는 군단예비인 제15사단은 장차 여주, 장호원 방면으로 진출을 기도하고 있었다. 동해안 방면에서는 적 제5사단이 국군 제8사단의 철수로 인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삼척을 점령한 다음 동해가도를 따라 남진하고, 제766부대와 제945부대는 정동진, 임원진에 상륙하여 강릉-삼척간 도로를 차단할 것을 기도하고 특히 제766부대는 중부전선에서 남하하는 제2군단을 지원하고 내륙으로의 침투를 기도하였다.⁶⁷⁾

3) 아군 상황

서울이 적에게 점령된 이후 국군은 분산하여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각각 철수하였다. 이들 철수병력의 집결이 대강 끝난 것은 28일 밤과 29일 아침 사이였는데, 28일 낮에 수원농업시험장에 새로운 지휘소를 개설한 육군본부는 시흥에 김홍일 소장이 지휘하는 시흥사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병력이 수습되는 대로 부대의 견제와 병과의 여하를 따지지 않고 혼성부대를 편성하여 우선 노량진부근에 투입함으로써 방어선을 급편하였다.⁶⁸⁾

그리하여 혼성수도사단, 혼성제7사단, 혼성제2사단이 각각 연대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력으로써 양화교, 영등포, 노량진, 신사리에 이르는 한강 남쪽 강변을 나누어 맡아 임기응변으로 적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병사들은 거듭된 전투와 철수로 말미암아 수면과 식사가 부족하고 누적된 전장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거기에는 모두가 견제가 무시되어 혼성 편성된 부대인지라 지휘관이 그 부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부하들이 그 지휘관을 따르려 하지 않거나 본대를 찾아가기가 일쑤였다.⁶⁹⁾

당시 국군의 지휘부는 적의 작전구상을 간파하여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정황이 되지 못하였다. 지휘부에서는 적의 주력이 노량진 정면을 돌파하여 시흥-안양-수원의 경부국도로 지향되리라는 판단아래, 우선 병력이 수습되는 대로 노량진 정면에 투입하는 고식책만으로 시종일관하였다.

당초 한강선의 방어계획은 남침 이전 참모학교 강의안에서 적의 전면 침공 시 천연의 장애물인 한강이 지연진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필요성만이 제기되는 정도였으며 그 계획을 검토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한강의 남안에서는 사전에 아무런 병력배치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파급될 효과에 대하여서는 예측할 겨를도 없이 졸지에 한강 대교가 폭파되고, 강북의 서울시가지가 적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한강선이 국운을 좌우하는 생명선으로 부각되고 방어대책이 검토되었던 것이다. 실로 늦은 감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28일 오전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수원농업시험장에 육군본부를 개설하고, 전날 19:00에 역시 그곳에 미 극동사령부의 전방지휘소를 설치한 바 있는 동 지휘소장 처치 준장과 회동하여 서울 상실에 따른 대응방책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그 자리에서 미군의 참전가능성에 대한 시사와 더불어 우선 시흥-수원선에서 낙오자를 수습하여 시급히 한강선에 투입함으로써 한강선을 방어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⁷⁰⁾

이에 총참모장은 12:00에 김홍일 소장으로 하여금 시흥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철수병력으로써 혼성부대를 편성하여 한강선을 방어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에게는 수원지역방어사령관에 임명하여 낙오병을 수습하여 지역방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총참모장의 조치에 따라, 김홍일 소장은 14:00에 시흥의 보병학교로 달려갔다. 이때 시흥 서북쪽의 김포지구에서는 김포사가 적 제6사단 1개 연대와 지연전을 벌이면서 김포비행장부근으로 물러나면서 적을 지연하는 중이어서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이었다.⁷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본의 참모진과 지휘관들은 각기 방어책임에 대한 부서도 정하지 못하고 병력수습에만 주력하였다.

이에 그는 제7사단장인 유재홍 준장을 새로이 혼성제7사단장에, 수도경비사령관인 이종찬 대령을 혼성수도사단장에, 그리고 보병학교 부교장인 임선하 대령을 혼성제2사단장에 임명하고 수습된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혼성병력으로써 한강의 남안을 연한 방어선 편성에 착수하였다.

이때 전 참모학교 고문관인 헤즐렛(Robert T. Hazlett) 중령이 전선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언하기를 “미 지상군의 참전이 기대이상으로 확실시된다. 그러나 미 지원군이 이 땅에 상륙하여 전투전개를 갖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지원기도가 무위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의 필요한 시일은 향후 3일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일 동안은 이 한강선을 방어하여 적을 억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김홍일 사령관은 “앞으로 3일 동안 한강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가름 된다”는 점을 각급 지휘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당면한 전선방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⁷²⁾

2. 전투 경과

1) 시흥전투사령부의 방어 편성

(1)

김홍일 소장은 6월 28일 14:00. 시흥 보병학교에 전투사령부의 지휘소를 설치하고, 제7사단 참모장인 김종갑 대령을 참모장으로 하는 사령부의 참모진을 구성하여 한강 방어임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이때 보병학교에서는 이날 새벽에 강을 건너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과 전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 등이 그 곳에 낙오자 수용소를 설치하여 노량진과 영등포쪽으로 강을 건너 경수가도를 따라 남향하던 병력을 수습 중에 있었다.

이에 김 소장은 이들 참모들을 수원에 있는 육군본부의 총참모장을 보좌하는 본연의 직책으로 복귀토록 하고, 사령부 요원으로써 새로이 전열을 재편하였다. 민간인을 동원하여 안양과 시흥의 두 곳에 취사장을 설치하고, 집결되는 병력에 대한 급식과 재편을 병행하는 가운데 유재홍 준장과 이종찬, 임선하 대령을 지

명하여 한강선의 방어책임을 분담토록 한 다음, 대대규모로 혼성 편성된 병력을 한강선으로 추진하였다.⁷³⁾

15:00를 전후하여 혼성제7사단에는 혼성 2개 대대를, 혼성수도사단에는 장갑 대대와 제8연대의 1개 대대로써 사단의 기간을 삼도록 하고, 혼성제2사단은 신사리 부근에 급편진지를 마련한 기병대대의 수용 하에 말죽거리 일대에서 전열을 수습토록 하였다.

(2) :

이날(28일) 새벽 서빙고에서 나룻배를 얻어 강을 건넌 수도경비사령관 이종찬 대령은 도강 즉시 시흥으로 향하여 역시 그곳에서 자대병력을 수습코자 하였으나 당초 그의 지휘 하에 있던 제3연대와 제18연대는 의정부정면에 증원된 뒤로 흩어져서 그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제8연대의 제1대대의 일부만이 동 연대장과 함께 그의 통제 하에 들게 되었다. 이때 이 영등포에는 문래동의 영등포학원의 본부요원 170여 명이 경인가도의 확보에 주안을 두고, 공장지대에 대한 적색분자의 소요방지에 힘쓰고 있을 뿐이었다. 이 무렵 제18연대 제1대대 제3중대가 마포로 도하하여 양화나루의 돌출고지(현 인공폭포) 일대에서 독자적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⁷⁴⁾

이러한 상태에서 이종찬 대령은 15:00에 혼성수도사단장으로서의 임명과 동시에 영등포 정면에 대한 방어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우선 사단 지휘소를 1번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한 우신초등학교에 개설하였다. 이 무렵 제8연대 제3대대가 시흥에 집결하였는데 그 편성이 비교적 온전하였으므로 사단의 기간으로 삼았다.⁷⁵⁾

이 대대는 전날(6월 27일)에 김포사에 배속되어 김포지구로 출동하여 적과 일전을 벌인 뒤 김포읍을 거쳐 김포비행장으로 철수하였다가 이날 새벽에 비행장에서 다시 영등포로 전진하여 한강교의 폭파를 확인하자 곧 시흥에 집결케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단은 동 제8연대로 하여금 제1, 제3 양 대대로써 신길동-안양천

에 이르는 여의도 맞은편 강변에 진지를 급편케 하고 기갑연대의 장갑차로써 이들을 지원토록 하는 가운데 전열정비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제8연대장 서종철 중령은 연대의 지휘소를 사단본부인 우신초등학교의 북쪽 300m 지점에, 관측소를 영등포구청 부근에 각각 개설하고, 제1대대를 우일선으로, 제3대대를 좌일선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⁷⁶⁾ 연대는 김포가도에 연한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장차 여의도쪽에서 지향될 것으로 판단되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는데, 연대장이 직접 제1선의 호 속에서 연대원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연대를 지휘하였다.

또한, 전날 밤 우신초등학교에 본부를 설치한 기갑연대는 노적중인 양곡과 함께 시흥으로 옮기게 되었다. 제1장갑대대는 대대본부를 계속 서울공업중학교 부근에 두고, 전날 강남쪽으로 철수한 장갑차 6대로써 동으로는 한강 인도교와 철교부근에, 서로는 양화교 부근에 배치하여 각각 교량 확보에 주안을 두고, 일부로서 영등포-노량진간을 왕래하면서 혼성수도사단과 제7사단을 화력 지원하였다.



우신초등학교

(3) 7 :

한강대교가 폭파된 후 이날 아침의 노량진일대는, 피난민과 철수병력이 몰려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대안의 이촌동 부근과는 달리, 강을 건너 사람들은 남향 길을 재촉하여 이미 시흥부근에 이르고 있었다.

제7사단장인 유재홍 준장은 해가 뜰 무렵에 경수간의 하행선 철교(세 개의 철교 가운데 중간단선)의 침목을 밟고 건너, 07:00를 전후하여 노량진역에 도착하였다. 그는 곧 역사에 임시지휘소를 개설하여 병력수습에 나섰다.

한편, 전날(27일) 오전에 논의되었던 시흥으로의 육군본부 철수계획에 따라 강남으로 철수키로 한 독립 기갑연대는 각 일선부대에 파견된 병력을 한남동의 연대본부로 복귀토록 한 다음, 의정부정면에 지원된 제1장갑대대 제3중대와 퇴계원으로 출동한 제2기병대대의 주력으로 먼저 강을 건너 대방동에 집결토록 조치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28일 아침에 연대장 유흥수 대령이 시흥의 보병학교로 가서, 마침 병력수습 중이던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에게 연대의 집결사항을 보고하였다. 이에 참모부장이 동연대장에게 명령하기를 "장갑차를 노량진의 인도교입구에 출동시켜 대안을 향하여 화력시위를 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장갑차 37mm포의 위력을 빌어, 한강 남쪽에 아군 방어진지가 구축되어 있음을 적에게 과시하기 위한 입기옹변의 방편이었다.7)

이에 따라 유흥수 대령은 직접 M-8장갑차 1대를 지휘하여 연대 본부중대의 화기소대(81mm 박격포 3문과 2.36"로켓포 2문 및 Cal 50 중기관총 수정)와 함께 노량진으로 급히 도착하였다. 16:00에 노량진 상수도사무소 부근에서 장갑차의 37mm포를 자신이 직접 조준하여 대안에 설치된 적의 기관총 진지에 사격을 가하였는데, 이로써 일단 한강선에 대한 고수의 결의를 적에게 보인 셈이었다.

이러는 동안 유재홍 준장이 새로이 혼성제7사단장으로서 노량진부근에 대한 방어책임을 맡게 되자, 15:00에 사단장은 사단지휘소를 대방동의 수도육군병원(구 공군본부)에, 그리고 사단수용소를 인접한 성남중학교에 개설하고, 전열을 재편하였다. 이때 전날 한강의 교량폭파 임무를 수행한 바 있는 공병(제1공병단 및



출동중인 장갑차

공병학교 병력)을 주축으로 하는 혼성 1개 대대가 시흥에서 편성되어, 제7사단 정보참모인 이세호 소령의 지휘아래 노량진에 투입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을 사육신 묘소가 있는 39고지와 월파정⁷⁸⁾을 포함하여 한강인도교에서 대방동 삼거리에 이르는 강변에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 제1공병단의 엄재완 소령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⁷⁹⁾ 즉 “28일 동이 틀 무렵 용산에서 노량진쪽으로 열차가 철교를 건너가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경부복선 철교위로 건너 08:00에 노량진에 도착하였다. 내 뒤를 따라 3/4톤 및 1/2톤 등의 차량 몇 대도 건넜다. 철교를 지나면서 보니 도폭선 등이 그대로 늘어뜨려져 있어서 폭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필은 소령과 내가 곧 철교폭파 임무를 맡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이 혼성대대로써 방어체제를 갖추어가는 이날 저녁, 제15연대 제1대대가 급히 증원되었으므로 사단이 이를 수용하여 우선 흑석동고개 부근 수도고지에 배치하였다.

한편, 사단장 유재홍 준장은 아침에 자신이 건넌 철교가 반파상태에서 병력과 일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고 적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혼성대대의 공병으로 하여금 이를 완전 절단토록 명령하였다.



공병대대 지휘소였던 월파정의 과거와 현재 전경

이에 허필은, 엄재완 소령 등이 공병을 지휘하여 폭약을 확보하고, 이를 절단코자 시도하였으나 복선의 남단에 있는 교대와의 연결부분이 약간 이탈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그 뒤로는 이들은 몇 차례 철교를 폭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대안의 적으로부터 방해사격을 받아 용이하지 않았다.⁸⁰⁾ 이들은 결국 폭약 등 폭파수단을 확보할 수 없었으므로 교량폭파에 실패하였다. 결국 경인간의 상행철교와 경부선 철교는 그대로 개방된 채 불씨가 되어 남게 되었다.

(4) 2 :

시흥지구전투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신사리-말죽거리-금곡리 일대의 방어를 위해 6월 28일 오후 보병학교 부교장 임선하 대령을 혼성제2사단장에 임명하였다. 임 대령은 즉시 사단지휘소를 과천에 개설하고, 담당정면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사단의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이 무렵 신사리 일대에서는 독립 기갑연대 기병대대가 아군 철수병력을 수습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⁸¹⁾

제2기병수색대대는 28일 오후 김홍일 사령관으로부터 “말죽거리부근에 수용진지를 점령하여 철수병력을 수습하라”는 명령을 받아, 시흥-안양-과천을 거쳐 말죽거리 부근으로 전진하여 한남나루터를 마주보는 신사리 일대에 진지를 급편하여 병력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김홍일 소장이 기병대대를 이곳으로



한남동-신사동 일대

뽑아 들린 것은 동 대대가 과천-말죽거리 일대에 승마훈련장을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어느 부대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지형에 익숙할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었다.

혼성제2사단장 임선하 대령은 오후에 담당정면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사단의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당초 사단의 견제부대인 제5, 제16, 제25(-)의 3개 연대 중에서 제5연대는 오후에 광나루에서 강을 건넜다.

제16연대는 새벽 한강대교가 폭파되기 직전에 교량을 지났으며, 또 25연대는 이날 현재로 연대장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병력이 분산되어 강을 건넜는데, 이들은 모두 수원으로 집결 중에 있었다. 따라서 사단은 우선 강안에서 수습된 혼성병력으로써 이 전선의 미봉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때, 한강대교가 폭파되기 전인 새벽에 교량을 건넌 제3연대장 이상근 중령이 연대 병사가 서빙고에 있었으므로 철수장병들이 필시 그곳의 도하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과천에서 연대를 수습하였다. 예상대로 연대의 일부가 부연대장 최수창 중령과 제3대대장 김봉상 소령 등과 함께 서빙고에서 강을 건너 집결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또 수원으로 집결 중이었다.



국군 기병대의 모습

이에 사단장은 제3연대가 수도경비사령부의 소속이긴 하지만 이를 사단의 기간으로 삼기로 하고, 제3연대로 하여금 과천 북쪽의 우면산-관악산 사이의 요충지인 남태령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3연대 이상근 중령은 그 곳에 집결된 일부로써 남태령 일대에 배치하여 동작동-과천간 도로를 방어하는 한편, 저녁에 수원에 집결한 제1대대를 과천으로 불러 올렸다. 그리하여 제3연대는 과천부근에서 1개 대대규모가 수습되어 기병대대가 제1선의 신사리에서 매곡리에 이르는 강 남안에서 적의 도하를 막는 동안 남태령 일대에서 밤을 새워 총검을 새로이 갈았다.⁸²⁾

2) 맥아더 원수의 전선시찰

1950년 6월 29일 동경의 미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MacArthur) 원수가 15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한강방어선을 방문하였다. 맥아더 장군 일행은 전용기편으로 하네다 항공을 떠나 10:00에 수원비행장에 도착하였다. 그는 곧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에서 처치 준장으로부터 전황보고를 받은 다음, 전선을 살펴보기 위하여 1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여 시흥사(시흥 보병학교, 현재 공병대대가 위치)를 방문하였다.

헌병사령관 송요찬 대령과 공군헌병대장 김득용 중령이 경호를 맡았으며 시흥사 참모장 김종갑 대령이 통역을 담당하였다. 맥아더 원수를 맞은 김홍일 사령관은 간략한 전황 보고를 하는 중에 현재의 국군은 국내 치안을 유지할 목적으로 창설된 경비대이므로 목적을 넘어선 오늘의 전면전을 감당하기에는 첫째 전투에 필요한 장비와 탄약의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임을 강조하고 그를 영등포의 수도사단 방어진지로 안내했다.

그때 한강에서는 미 전방지휘소의 요청으로 오키나와의 미공군기지에서 출격 한 B-26 폭격기가 한강철교를 폭격하기 시작했다. 한강 남한에서 개인호를 파놓고 그 속에서 움츠리고 있던 국군 장병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다. 그러나 약 30분에 걸친 맹폭격에도 불구하고 철교는 여전히 건재했다.

그동안 적의 포탄을 무릅쓰고 김홍일 사령관에게 안내되어 수도사단 제8연대 제3대대가 개인호를 파고 방어진을 구축한 동양맥주공장(현재 영등포 공원, 두산아파트 일대) 옆의 자그만 언덕에 도착한 맥아더는 두 손에 쌍안경을 들고 멀리 한강전선을 관찰하였다.⁸³⁾ 당시에 통역을 맡았던 김종갑 대령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의 면모는 이러하였다고 한다.⁸⁴⁾

그때 내가 원수와 한 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미 극동군참모장 알몬드 소장, 그리고 내가 자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시흥에서 영등포로 북향하여 우신초등학교의 수도사단본부에 들렀다가 사단장과 함께 고개를 넘어 동양맥주공장부근에 이르니, 적의 120밀리 박격포탄이 난무하기 시작하였다. 길옆에 서 있는 버스 1대가 포탄에 맞아 박살이 나기도 하였다. 이에 라이트 대령이 ‘위험하니, 돌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원수에게 권유하였으나, 원수는 단호히 ‘아니, 나는 한강을 보아야겠다고 한강행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포탄의 집중으로 부득이 차에서 내려 옆의 맥주공장으로 잠시 대피케 되었다. 적의 박격포탄 사격이 뜸하여 진 틈을 타서, 제8연대의 일부가 진지를 점령중인 공장 옆의 언덕위에 올라가, 쌍안경으로 한강을 관찰하였다. 이때 원수는 그곳의 개인호 속에서 진지를 지키고 있던, 일등중사의 계급장을 단, 어느 병사를 보자 가까이 다가가서 ‘자네는 언제까지 그 호 속에 있을 셈인가?’ 하고 물었다. 이에 그 중사가 대답하기를 ‘각하께서도

군인이시고 저 또한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모름지기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상사로부터 철수명령이 내려지든가, 아니면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대답을 나의 통역으로 전해들은 원수는 그 기가에 크게 감동한 듯, 병사의 어깨를 두들기며 위무하고 나에게 다시 '그에게 말해다오. 내가 곧 동경으로 돌아가서 지원 병력을 보내줄 터이니, 안심하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한국군 일개 병사가 역전의 노장인 그를 감격케 한, 이 극적인 장면은 당시 국군이 비록 열세에 몰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나 그 적개심과 투지만은 왕성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듯하다. 물론 맥아더 장군은 전선을 시찰하기 전에 이미 미 지상군을 투입하여 한국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결심을 갖고 있었지만, 국군 장병들의 방어의지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했다.

한강선 시찰을 마치고 수원 전방지휘소로 돌아온 맥아더는 동행했던 김홍일에게 "김장군은 지금 한강선을 언제까지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김장군은 "그것은 적의 탱크가 도하해 오는 것을 어떻게 저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미 공군이 한강 철교들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면, 현재 한강 방어의 아군 가용병력이 2만 5천인데 비해서 적이 한강 도하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병력을 보병 4개 사단에 기갑부대와 전차대를 합쳐서 약 5만으로 추정하고 공격과 방어의 배수 원칙을 감안할 때 앞으로 열흘 정도는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 "현재 한강선 도처에서 한국군은 적의 보병이 도하해 오는 것을 단호하게 격퇴시키고 있습니다. 보병끼리의 전투에서는 한국군이 적에 비해서 단연 우세합니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맥아더 원수는 김홍일 장군의 정연한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하였다.⁸⁵⁾

따라서 이로 미루어 보면, 원수의 한강시찰은 그 자신에게는 국군의 재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리고 국군장병에게는 미군 지원이 확약됨으로써 사기고양 의 더 없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3) 한강선방어전투 1일차 : 적의 도하 탐색전 개시

(1) :

영등포 일대의 방어를 맡은 제8연대는 29일 정오 무렵에 맥아더 원수일행이 수원으로 돌아간 다음, 심기일전하여 방어태세를 한층 가다듬었는데 이때 연대에 제18연대 제1대대와 57mm 대전차포 1개 소대가 증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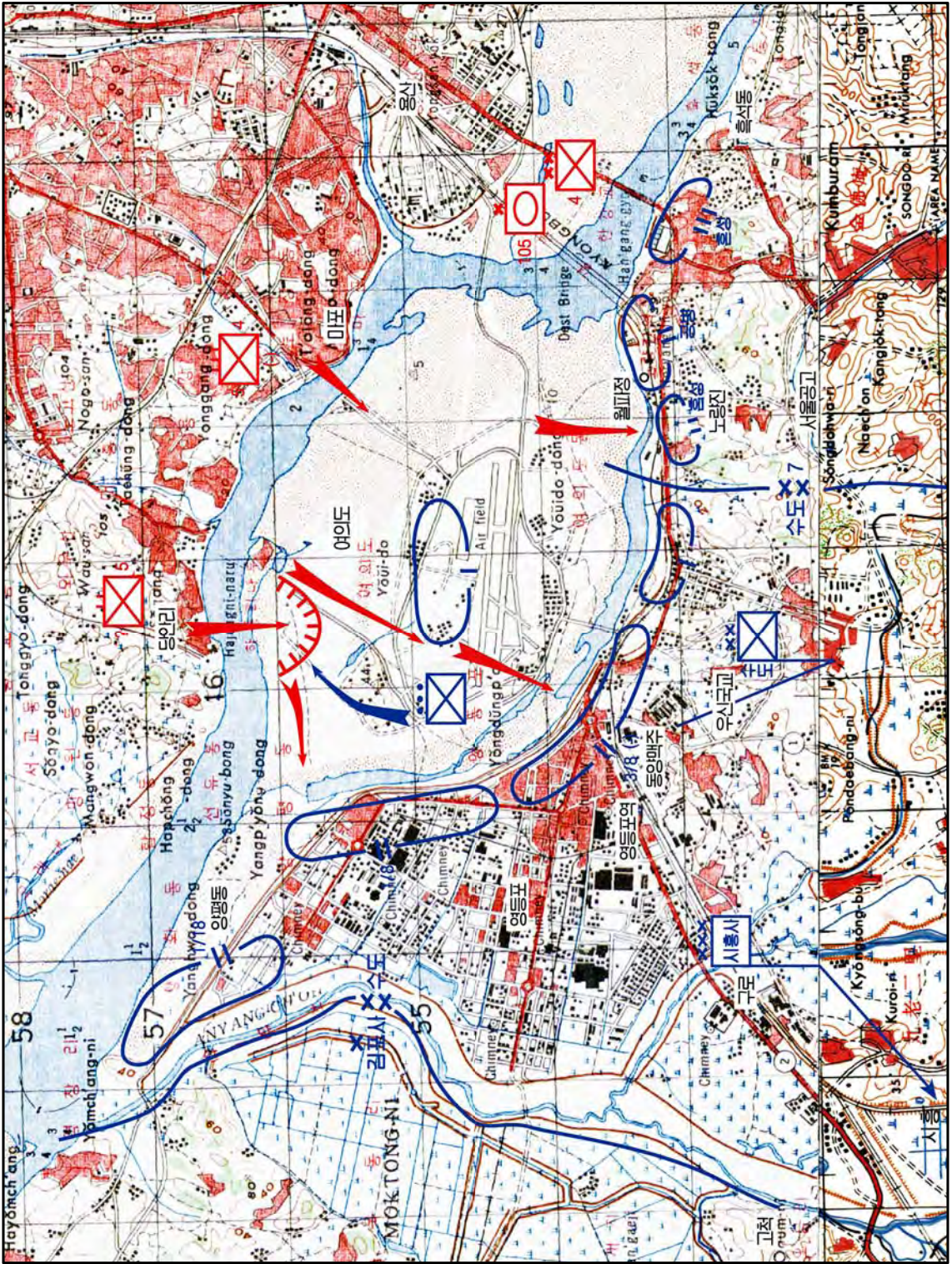
그런데 대전차포소대에 대한 소속과 증원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제18연대 제1대대는 당초 연대주력과 함께 출전치 못하고 삼각지의 연대본부에 있다가 전날 새벽 강을 건너 시흥에 집결하였던 것이다.⁸⁶⁾

따라서 제18연대 역시 수도경비사령부의 건제부대였으므로 제8연대를 증원케 된 것인데 이에 연대장 서종철 중령은 동 대대를 안양천 동안에 배치함으로써 새로이 연대의 좌일선으로 삼아 이로 하여금 김포쪽으로 적 공격에 대비토록 하고, 연대의 제1, 제3 양 대대로써 여의도정면 방어에 주력케 하였다. 그리고 대전차포 소대는 제3대대의 화기중대장이 이를 지휘하여, 동양맥주공장 남쪽의 고개에 포좌를 설치하였다.⁸⁷⁾ 이와 같이 하여, 혼성수도사단의 영등포정면에도 전력의 보강을 보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1개 연대의 전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29일 정오를 넘어서자 적 제4사단 일부가 뗏목을 타고 하중리나루에서 여의도 북단인 울도(밤섬)로 산발적인 도하를 시작하였다. 이때 대안의 당인리에 방열된 적의 포화가 그들의 도하를 지원하였는데, 연대는 이 적화를 제압코자 하였지만 연대의 중화기인 81mm 박격포로서는 사정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연대는 낮 동안 여의도비행장으로서 적의 접근을 방어한 다음, 해가 진 뒤에 그들의 포 진지를 격멸키로 하였다. 즉 제3대대의 화기중대장인 김인식 중위가 대전차포소대를 여의도로 추진하여 화력으로 급습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장병들의 환호성 속에서 연달아 10여 발을 사격하였을 무렵, 미처 그 성과도 헤아릴 겨를 없이 적의 포화가 대전차포소대 진지에 집중됨으로써 2시간여 동안 여의도의 서북단 일대는 불바다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소대는 결국 전원이 옥쇄하고 말았다.⁸⁸⁾

<상황도 3-5> 영등포 부근 상황(29일)





국군의 57mm 대전차포의 사격 모습

이 동안에 밤섬에 도하거점을 확보한 북한군 제4사단 정찰대가 그들의 포화에 힘입은 듯이 김포가도 쪽으로 공격함으로써 치열한 공방전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이에 김포가도의 제방에 연하여 1m 간격으로 참호를 구축하여 진지를 점령한 장병들은 각자 허리띠를 풀어서 옆 사람과 연결하여 서로 독려하면서 그 적을 저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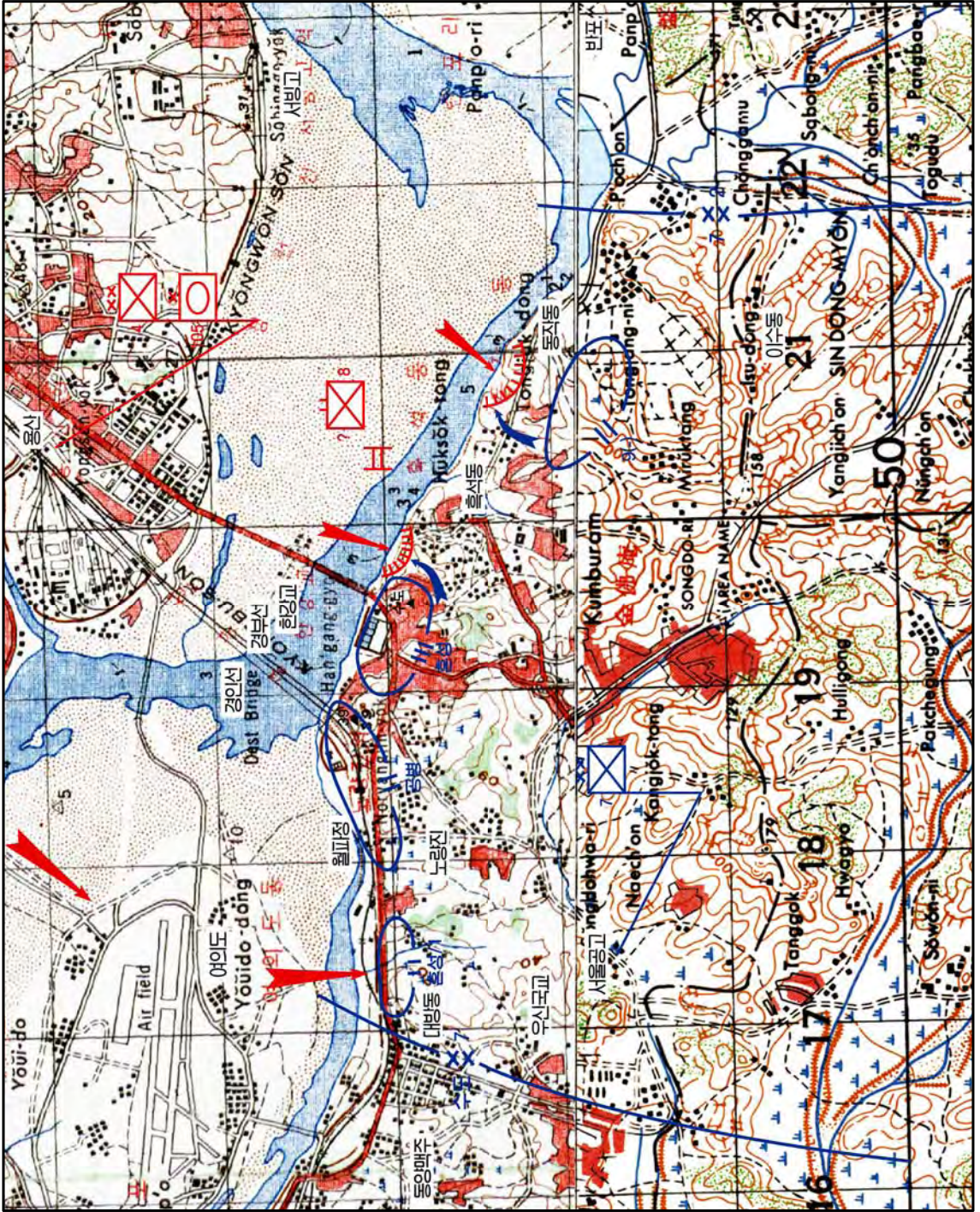
(2)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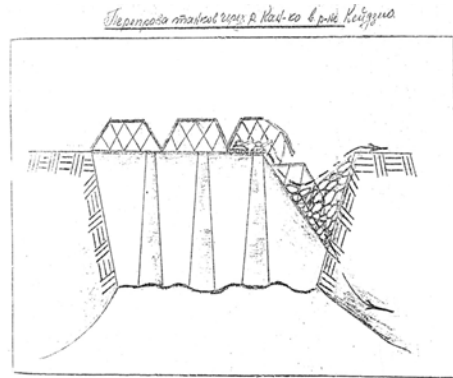
공병은 29일에도 철교폭파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장인 처치 준장이 특별히 미 공군에 폭격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이날 13:00, 일본 카데나 기지에서 출격한 미 제5공군의 B-26 경폭격기가 철교를 폭격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⁸⁹⁾

이날 미 극동공군은 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B-26 22대, B-29 12대, F-80전투기 70대, F-82전투기 15대를 출격시켰다. 특히 제68전천후전투대대 F-82전투기는 처음으로 북한군 진지에 화염폭탄 대용으로 연료탱크를 떨어트려 네이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절단되지 않은 철교에 피아의 관심도가 증대되어 가는 가운데 아군의 복장으로 가장한 적의 편의대가 산발적으로 도하를 기도하였다. 적은 낮에

<상황도 3-6> 노량진 부근 상황(29일)





현재의 노량진 교량과 당시의 소련 군사고문단의 철교 스케치 모습

한강의 북쪽 인도교입구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늘어선 전차의 화력엄호아래 작은 목선을 이용하여 분대규모씩으로써 도하를 기도하였다.

그들은 아군이 수도고지와 39고지일대에 방어의 중점을 두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인지 흑석동과 본동사이의 강변능선(도당재, 현 10용사기념탑지)과 동작동-흑석동 지경의 능선쪽으로 사각을 찾아 도하하였다. 이는 그들 주력의 도하에 앞서 엄호거점을 마련하면서 아군 방어선에 대한 병력배치 상태를 탐지코자 하는 정찰로 보였다.

이에 사단은 오후에 시흥사로부터 급히 증원된 제1연대와 제9연대의 혼성 각 1개 대대 및 제20연대와 제25연대의 혼성 각 1개 대대, 그리고 제15연대의 제3대대로써 담당지역의 방어력을 보강하였다.⁹⁰⁾

유재홍 사단장은 노량진-영등포도로의 북쪽 강변지역에는 제1연대를 증원하여 그 정면의 혼성 공병대대와 방어를 나누어 맡도록 하는 한편, 동작동-노량진도로 남쪽에 연하는 고지대를 확보키로 하고 병력을 배치하였다. 즉 제9연대 혼성대대가 동작동-흑석동 사이의 능선, 제10연대 혼성대대가 흑석동-본동 사이의 능선, 제15연대 제1대대가 수도고지 북쪽(수원지 남쪽), 제25연대 제2대대가 수도고지 서북쪽(사육신묘 남쪽), 제15연대 제3대대가 수도고지 서쪽 당산(76고지) 등에 각각 배치되었다.

이리하여 제9연대는 제1대대장 유환박 소령이 통합 지휘하는 증강된 1개 대대

로써 대방동의 사단수용소로부터 상도동으로 진출하여 무명고지(현 국립현충원 뒷산)에 올라 적정을 살폈다. 그 때 일부의 적이 흑석동-동작동 능선이 끝닿는 강변 무명고지를 소대규모가 점령하고 진지를 급편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⁹¹⁾

이에 대대는 즉시 역습을 개시하여 능선을 휩쓸어 나아가 단숨에 그들 적을 제압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강북으로부터 적의 포화가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대대는 그 곳에서 한 걸음 물러나 무명고지의 정상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날 야간 일부의 적이 다시 도하하여 강변 무명고지를 수중에 넣었다.⁹²⁾

이에 제20연대 제1대대(-1)가 수도고지 부근으로 증원되었다. 이 대대는 먼저 수도고지 정상으로 진출하여 강변을 정찰하여 흑석동-본동고개 너머의 도당재 일대에 증강된 소대규모가 도하거점을 마련코자 호를 파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대장 김한주 소령은 즉시 공격을 개시하여 적을 모조리 물속으로 밀어 넣는데 성공하였다.⁹³⁾

대대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소련제 맥심(Maxim) 기관총과 체코(Czecho)식 기관총 등 총기 수정을 노획하기도 하였으나 뒤이어 강 건너의 마주 보이는 대안에서 겨누어진 적의 전차포와 야포의 집중적인 사격을 받았다. 대대는 탄약보급 등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데다 대대의 유일한 무전기마저 파괴됨으로써 전사면에서 더 지탱치 못하고 고지 정상으로 철수하였다가 이어 사단 수용소로 집결하였다. 이 동안 수도고지의 북쪽에서는 별다른 접적상황이 없었다.

제15연대 제1대대는 전날의 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제25연대 혼성제2대대는 그 서쪽 능선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 제15연대 제3대대는 10:00에 명령에 의하여 사단수용소에 집결한 다음 400여 명의 병력으로써 화기중대가 없는 3개 중대로 재편성하여 제25연대 제2대대의 서쪽 당산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노량진-영등포 도로의 북쪽 강변지역을 맡았던 혼성 공병대대는 제1연대 혼성대대의 증원에 따라 대방동파출소의 본부를 월과정(장택상 별장, 현 노량진 수산시장 내)으로 옮겨, 한강대교입구-노량진역의 우반부를 담당케 되었으며, 제1연대의 혼성대대는 당초 제3대대가 2개 중대로 재편하여 노량진역의 서쪽에서 대방동 삼거리에 이르는 그 좌측을 맡게 되었다.

(3) 2 : -

제2사단장 임선하 대령은 전날 밤 동안 별다른 적의 징후가 없는 가운데 29일 아침 날이 밝자, 곧 적의 도하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병력증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14:00에 시흥사에서 급편한 보병학교 연대의 증원을 받게 되었다.

이 무렵, 전날 수원에 집결한 제16연대는 유의준 중령과 윤태호 소령을 대대장으로 하는 2개 대대로 재편하였는데, 이날 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육군본부는 이 연대를 사단의 지휘 하에 들도록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동 연대는 수원의 집결지에서 과천으로 달리게 되어, 이 역시 14:00 전후에 사단지휘소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단의 골격이 대강 갖추어지자, 사단장은 전반적인 진지재편을 단행하여 남태령 부근의 제3연대를 말죽거리, 제16연대를 우면산-남태령에, 보교연대를 과천에 예비로 각각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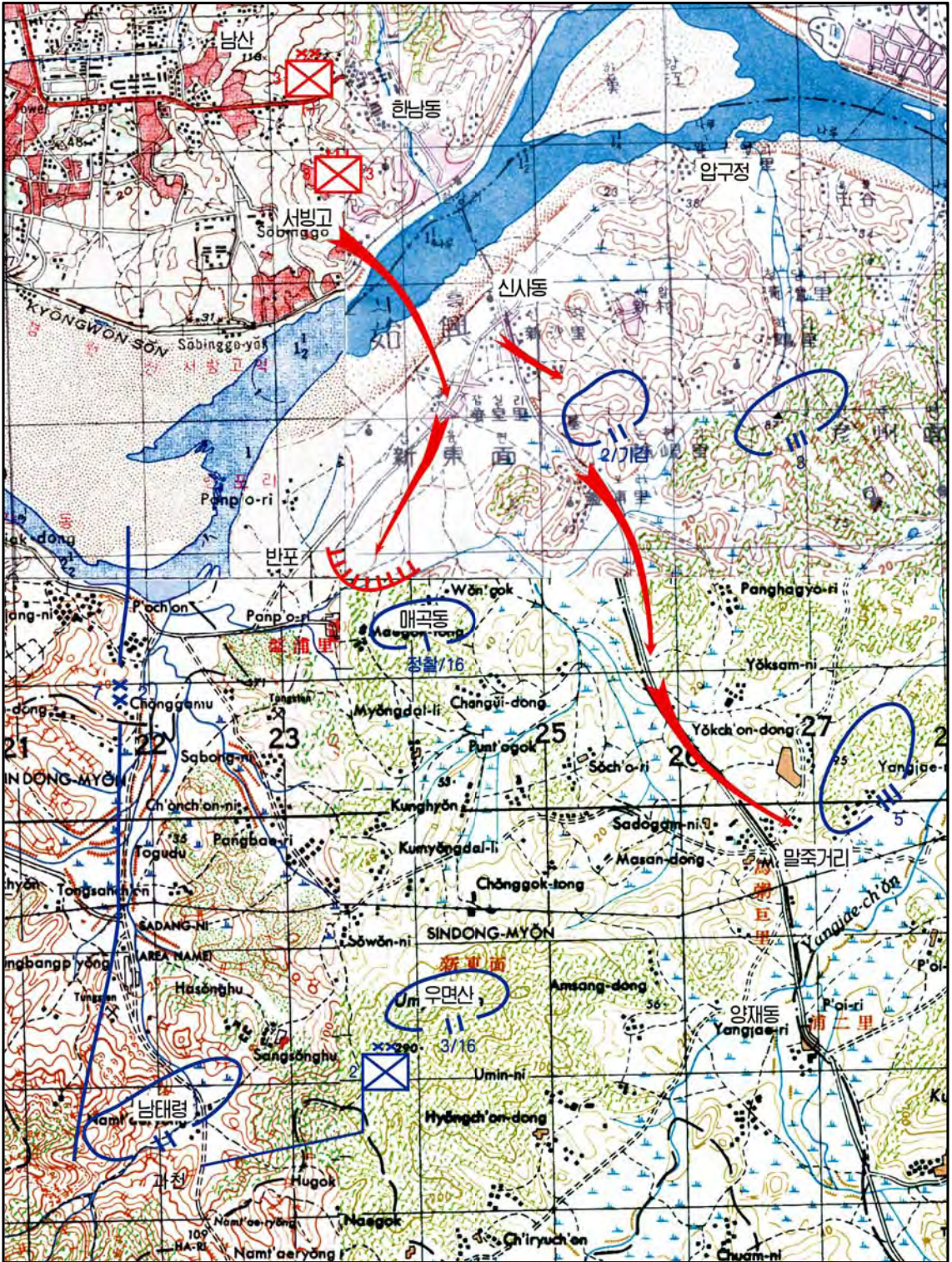
그리하여 제3연대는 부연대장 최수창 중령이 연대를 지휘하는 가운데(이상근 중령 와병) 말죽거리 정면으로 이동하여 역삼리 부근의 87고지일대의 고지대에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그 북쪽의 신사리부근에 위치한 기병대대와 함께 한남 나루터로부터 말죽거리-판교-오산 도로를 방어하게 되었다.⁹⁴⁾

그리고 제16연대는 우면산-남태령에 주진지를 펴고, 그 북쪽 매곡리의 86고지-101고지일대에 경계진지를 마련하여 동작동에서 과천을 거쳐 군포에서 경부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를 방어하게 되었다.

이렇듯 사단이 방어진용을 새로이 가다듬는 동안, 신사리 부근에 수색거점을 두고 있던 기병대대는 종일토록 강안을 무단히 기마로 적정을 수집하였는데 해가 질 무렵에 제3중대의 제3소대가 청담리부근에서, 압구정의 독도(麤島)쪽으로부터 거룻배로 도하한 1개 소대 규모를 포착하였다. 이에 그들이 접안하여 하선하는 틈을 노려 조순철 소위를 선두로 기마돌격을 감행함으로써 모조리 강물 속에 쓸어 넣기도 하였다.⁹⁵⁾

이와 같이 한강 남안에 대한 적의 도하기도가 점차 노골화되는 가운데, 강 건너의 한남동에 있는 기병대대 막사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 그들의 도하기지로 이용

<상황도 3-7> 신사리-말죽거리 상황(29일)



되고 있었다.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대대 장병들은 야음을 타서 60mm 박격포 6문을 사정이 미칠 수 있는 강변사장으로 추진하여 22:00에 적이 점거한 대대본부 진지를 목표로 포탄 60여 발을 집중하였다.

한편, 광나루 부분에서는 강을 건넌 병력들이 모두 수원으로 철수 집결하였으므로 이 정면에서는 방어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로 개방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육군본부는 광나루에서 판교-오산으로 통하는 도로가 적의 공격로로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날이 밝자 동 나루터를 건넌 바 있는 사관학교장 이준식 준장에게 그 도선장을 폐쇄하여 남쪽으로 연하는 동 도로를 차단토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이 교장은 수원에 집결중인 사관생도 제1기와 제2기생 도합 300여 명으로써, 이승우, 조덕수, 송인진, 박정서 대위 등을 중대장으로, 손관도 소령을 대대장으로 하는 혼성생도 대대를 편성하고, 생도대장 장두권 대령의 지휘하에 광나루 대안의 천호리 일대에서 적의 도하를 막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생도대대는 차량으로 다시 수원의 동북쪽으로 북상하여 풍덕천-판교를 거쳐 29일 오후 늦게 천호리 정면의 강안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때에 동 나루터에는 폭파된 광진교의 교각잔해가 참담한 전장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 이 정면에서는 별다른 적의 움직임은 볼 수 없었다.

4) 한강선방어전투 2일차 : 신사리 방면에서의 적의 본격도하

(1) :

여의도를 사이에 두고 피아가 공방의 혈전을 치르는 동안, 6월 30일 날이 밝았다. 북한군 제4사단은 정면의 국군 제8연대의 진지를 돌파하지 못한 채 일부로써 여의도의 비행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제8연대장 서종철 중령은 여의도에 적 진지가 굳혀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3대대에 "1개 중대를 여의도에 투입하여 적을 격멸하고, 비행장을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⁹⁾ 제3대대장 박태운 소령은 곧 제11중대를 비행장에 투입하였고, 중대

는 격전 끝에 마침내 적을 구축하고 비행장을 점령한 다음, 그 주변에 호를 파서 경계진지를 급편하였다.

그러나 강 건너의 마포와 신촌 일대에 방열된 적포가 이 중대의 행동을 주시한 듯 열화를 토하기 시작하였다. 적의 포화가 여의도에 수없이 집중되었는데, 이때에 동시 발휘된 포병 위력은 연대장 서종철 중령 자신이 “전쟁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북한군으로부터 받은 가장 치열한 포격 중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치열한 것이다.⁹⁷⁾

그리하여 대대가 제11중대를 철수시켜 본진으로 수용키로 하였으나, 그 포화에 움직일 수가 없었던 탓으로 제방의 진지로 철수치 못하고 비행장내의 격납고 속으로 대피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적의 포격으로 말미암아 이윽고 격납고가 화염에 휩싸이게 됨으로써 중대장 김광해 대위가 산화하는 등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고 말았다.

(2) 7 :

6월 30일 날이 밝자, 일부의 적이 전날 밤에 확보한 강변 고지를 발판으로 포병의 지원 아래 다시 도하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강변 고지에 병력을



당시 여의도비행장 전경(1950.7.16 항공촬영)

증강하여 거점을 강화하는 가운데 능선까지 장악함으로써 동작동-흑석동의 강변로를 분단하는 한편, 점차 고지정상으로 지향하며 접근하였다.

이에 고지 정상의 제9연대가 선제로 진전 출격하여 능선을 따라 오르는 적과 일진일퇴를 벌임으로써 그 적의 공격을 막았다. 오전 중으로 미 공군의 제19폭격전대 B-29 15대가 강 북안의 제방을 따라 집결병력과 도하주정을 중점적으로 공격하였으므로 연대는 이에 힘입어 그들 적을 고지부근으로 몰았다.⁹⁸⁾

한편, 수도고지 정면에서는 전날 저녁 제20연대 제1대대의 철수로 말미암은 간격을 노려 이날(30일) 새벽에 적이 다시 강을 건너 도당재에 접근함으로써 도하거점의 확보를 집요하게 시도하였다. 그 병력은 모두 1개 대대규모였다.

이에 사단은 제15연대 제3대대를 선두로, 전날의 제20연대 제1대대와 같이, 수도고지-도당재 능선을 따라 공격한 결과 10:00를 전후하여 또 한번 그들을 강물 속에 쓸어 넣었다. 적 1개 대대 규모가 09:00부터 도하를 시도하였으며, 이때 아군 항공기의 폭격으로 대부분 수장되었으며 나머지는 제15연대 3대대에 의해 저지되었다. 적 1개 소대규모가 12:00경 흑석동 고지 일대로 침투하였으나 제20연대 1대대가 포위 공격하여 격퇴하였다.⁹⁹⁾

이날(30일) 이른 아침에 미 제5공군의 제3폭격비행단의 B-26폭격기 18대가 서울 근교의 교통망을 차단 폭격하던 중 북한군 병력과 보급품을 기총, 로켓 및 폭탄으로 공격하였다. 한강철교를 정찰하던 미 정찰기가 경부선철교위에 교판을 깔면서 건너는 전차와 트럭 중대를 포착하였고 B-26폭격기들이 이를 폭격하여 적 전차의 도하 기도를 무력화시켰다.¹⁰⁰⁾ 이로 미루어보면 적이 이날 새벽 수도고지부근에 도하한 것은 전차의 통행을 위한 교판작업을 엄호코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낮 동안 수도고지부근에서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었으나, 제9연대의 강변 무명고지 정면에서는 이날 중으로 강 남안에 올라붙은 적이 1개 대대규모로 판단됨으로써 동 연대로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¹⁰¹⁾

저녁에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사단장 유재홍 준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적진이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제9연대로 하여금 이를 격퇴토록 명령하

였다. 아울러 종래 수도고지일대에 방어의 중점을 두었던 방침을 바꾸어 그 곳의 제25연대 제2대대를 강변 무명고지-수도고지 사이의 능선으로 뽑아 돌려, 제9연대를 지원하면서 진지를 확보토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이날부터 시흥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오류동 전선에 대한 방어책임을 맡게 된 제15연대 최영희 대령의 요청에 따라, 동 연대 제1대대를 오류동으로 진출시키고 제20연대 제1대대를 다시 수도고지 부근으로 추진하였다.

(3) 2 : -

6월 30일 여의도, 마포 일대에서의 적이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도하 공격을 계속 시도하는 가운데, 한남동일대의 북한군 제3사단이 신사리방면으로 본격적인 도하공격을 개시하였으며 미 공군은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적 제3사단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이날 새벽 한남동-이촌동부근의 적 제3사단장은 예하의 제8연대를 내세워 도하공격을 시작하였다.¹⁰²⁾ 적 제8연대는 일부로써 동작동-흑석동의 능선으로 도하하여 그 정면의 국군 제9연대의 주의력을 견제하게 하는 한편, 다른 일부로써 서빙고에서 그 대안으로 건너 매곡리 부근의 제16연대 경계진지에 압력을 가하고 주력으로써 한남동에서 신사리로 진출한 다음 말죽거리 도로의 돌파를 시도하려 하였다.¹⁰³⁾

북한군 제3사단은 남산기슭에 방열된 포병으로써 신사리부근의 기병대대의 진지를 강타하여 화력집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국군 방어선을 압박하는 가운데 20~30명 단위로 분승한 거룻배로써 도하한 다음 공격의 예봉을 방어진지 정면으로 지향하였다.

이때에 그들은 주력 도하에 앞서, 이날 이른 새벽에 이미 선견부대로써 강을 미리 건너게 한 듯, 반포리 부근의 야산에 엄호거점을 확보한 그들 일부가 이 공격에 호응하여 기병대대 진지 서측을 위협하였다.

이러한 상황보고를 접한 총참모장은 유재홍 사단장에게 서빙고방면으로 적의 일부가 도하 중이므로 즉시 혼성제7사단의 장갑 2대와 포를 혼성제2사단에 배속

시켜 주도록 지시하였고 제2사단으로 하여금 적의 도하를 적극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¹⁰⁴⁾

이 일대의 제1선에서 기병대대가 적과 먼저 격돌하게 되었으나 절대적으로 열세한 화력으로 인하여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홍일 소장이 채병덕 총참모장에게 서빙고일대의 대안에 포격요청을 하는 등 대책강구에 급급하였다.¹⁰⁵⁾

이렇게 하여 혈전 끝에 기마대대가 적의 공격에 밀려나게 되었는데, 이 일전에서 기병대대는 마필의 손실이 적지 않았으므로 정오에 군포로 집결하여 인마를 재수습하게 되었다. 이때의 상황은, 적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군 제8연대가 한강을 도하한 다음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13:00 무렵 신사리 남쪽과 동남쪽에 중심 4km까지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며, 서빙고 지역에서 도하한 제7연대가 아침 무렵 2km까지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고 하였다.¹⁰⁶⁾

한편, 역삼리부근의 제3연대는 이렇듯 기마대대의 진지가 유린되자 적의 공격이 개시되기 전에 먼저 역습을 감행하여 이를 격퇴하였다.¹⁰⁷⁾ 연대는 제1대대를 선두로 진지에서 신사리로 진출한 결과, 그 곳에 먼저 닿아 본대의 뒤를 후속하던 1개 중대 규모의 적 선전대를 단숨에 격멸하였다. 아울러 뒤따르던 그들 병력 일부를 강변의 사장으로 구축하는 한편, 부선으로 강을 건너 추진 중이던 76mm포 5문과 장갑차 등 지원부대의 장비들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도 화력의 열세를 만회하지 못하여 역전분투의 보람도 없이 적의 화력에 다시 밀리게 되었다.¹⁰⁸⁾

이에 사단장 임선하 대령은 16:00에 수원으로부터 증원된 제5연대로 하여금 말죽거리 동쪽의 95고지부근에, 그 서쪽의 우면산 진지와 연하는 새로운 진지를 급편하게 하는 가운데 제3연대를 과천으로 뽑아 돌렸다. 그런데 이 제5연대는 28일 낮에 광나루에서 강을 건너, 종일토록 천호리부근에서 후속하는 철수병력을 수용하다가 전날 29일 수원에 집결한 부대로서 육분의 조치에 따라 영등포에 증원될 예정이었으나 수원에서 대기상태로 밤을 지냈다.¹⁰⁹⁾

이리하여 사단은 이제 제5, 제16 양 연대로써 95고지-우면산-남태령선에서

진용을 다시 가다듬게 되었는데, 이 무렵 매곡리 부근의 제16연대 경계 병력도 한걸음 물러나 우면산의 본진에 수용하게 되었다.

한편, 전날(29일) 오후에 광나루 대안에 투입된 바 있는 사관 생도대는 이날 종일 천호리 정면에서 적의 도하시기를 노려 기다렸으나, 다만 피난민들만이 잔뜩 짐 보따리를 지고 종종걸음으로 줄을 이어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생도대장 장두권 대령은 피난민 대열 가운데에 적의 오열 3명을 검거하게 되었다. 그는 그들을 신문하여 적이 장차 한남동-서빙고쪽으로 도하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러므로 여기의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오후 부대를 판교로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생도대의 상황을 보고받은 교장 이준식 준장과 부교장 이한림 대령은, 재편성중이던 교도대의 일부를 이끌고 판교로 급진하였다.

판교에서 남하중인 생도대를 맞이한 교장은 이를 직접 지휘하여 17:00에 판교 남쪽 1km의 구릉지대에 재배치하고 지휘소를 금곡리에 두었다. 이러한 조치는 말죽거리정면의 적정을 종합 분석하여 장차 적이 말죽거리쪽을 돌파하려 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결과였다.

이 정면에서는 적이 어느 쪽으로부터 공격하든지, 광나루에서 남향하는 도로와 말죽거리에서 동남향하는 도로가 서로 합치는 시흥리 삼거리를 거쳐야 판교에 이를 것이므로 바로 그 남쪽의 길목을 차단하자는 것이며, 아울러 과천-지경골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도로도 함께 방어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육군본부와 시흥사는 이날 말죽거리정면의 전황이 급변함에 따라 판교-풍덕천-수원에 이르는 수원 동북쪽 접근로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수원 동북쪽의 방어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준식 준장을 혼성제3사단장에 임명하는 한편, 수원지구사령부(이응준 소장)를 해편하여 그 병력의 일부를 제3사단에 배속 조치하였다. 그리고 수원에 집결한 제1사단은 육군본부의 예비가 되었다.¹¹⁰⁾

이리하여 육사생도대가 금곡리 북쪽에 진지를 점령함과 때를 같이하여 수원의 제25연대가 그곳에 증파되어 생도대와 함께 방어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이때

제2대대의 일부는 대대장 배운용 소령의 지휘아래 노량진 전선에서 전투 중이었다.

따라서 연대는 2개 대대로 재편하여 혼성제3사단에 배속되었는데 이때 병력은 불과 80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육사 생도대는 판교 동남쪽의 무명고지에, 제25연대는 그 서남쪽의 고지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여 적의 접근에 대비하였다.

(4)

육군본부와 함께 수원외 농업시험장(서호 서안)에 임시지휘소를 두고 있던 미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 처치 준장은 군사고문단 소속의 장교들을 한강선에 파견하여 전황을 파악하게 하면서 현지 국군의 작전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그는 동경의 미극동사령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데 전념하였다.

그런데 이날 한강선에 시찰중인 고문관이 처치 준장에게 “한강방어선이 결국 무너지기 시작하였다”라는 전혀 사실과 다른 엉뚱한 보고를 하였다. 이는 일부의 적이 말죽거리로 도하한 사실과 또 동작동 부근의 강변고지에 도하거점을 확보한 사실을 두고, 진상을 확인하지 않고 확대하여 보고한 것이었다.

처치 준장은 16:00 전반적인 전세를 동경에 보고한 다음, 극동군참모장인 알몬드(Almond) 소장과 직접 통화하기 위하여 오산에 있는 통신중계소로 떠나게 되었다. 19:00에 동 중계소에서 통화를 가진 결과 알몬드 소장으로부터 “명일, 즉 7월 1일까지 수원비행장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합참이 승인한 2개 대대의 지상군을 그곳에 공수할 것임”이라는 낭보를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명일 오전까지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수원비행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결의를 굳히며 수원의 전방지휘소로 향하였다.

그런데 그가 오산에서 이와 같은 낭보에 접하고 있는 시각에 전방지휘소에서는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즉 그때 수원상공을 순회하던 미군 정찰기가 적정을 잘못 판단하여 전달함으로써 상황이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수원농업시험장

이날 미군 정찰기는 정찰중 일단의 병력을 관측하고 즉각 지휘소에 "적의 행군 종대가 수원 동쪽에서 서진하여 현재 수원으로 접근중이다"라고 통보하였다. 이 정보는 앞서 처치 준장에게 보고 된 바 있는 한강선 돌과 오보와 함께, 어둠에 쌓여가는 전방지휘소의 미군들에게 더욱 음영을 짙게 던져 주었다.

거의 같은 시각 지휘소 동쪽 500m의 철로 상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이는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단순한 철도신포였지만, 이 불꽃을 본 미군들은 '적이 이미 수원을 포위하였다'라고 속단하게 된 나머지 견잡을 수 없는 불안과 당혹의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휘소장인 처치장군이 부재중인 것과 때를 같이 하여 공교롭게도 고문단장인 라이트(Wright) 대령마저 헤즈렛(Hazlett) 중령과 함께 한강선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요된 장병들을 지휘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지휘소의 미군 장병들 저마다 '한시도 지체 말고 수원을 빠져 나가자'는 일념만으로 철수를 서두른 끝에 통신요원이 소이수류탄으로 통신장비를 파괴하는 결과를 빚게 되어, 마침내 그 불길이 지휘소로 사용 중인 건물까지 태우게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자중지란에 더욱 놀라게 된 그들은 차량에 일부 장비를 싣고 수원비행장으로 집결하게 되어 일시 사주 방어진지를 펴게 되었다. 심지어 동 비행장의 경비임무를 맡은 대공포대원마저 그들에게 가세토록 하게 됨으로써 비행장마저 혼란의 도가니로 변하고 말았다. 전장공포증에 빠지게 되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잠시 뒤에는 그들은 수원비행장마저 지탱할 자신을 잃고 그곳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2:00에 수원에 있던 전방지휘소와 군사고문단 및 미 대사관 그리고 대공포대 등 각 소속의 차량들이, 경부국도를 따라 대전을 목표로, 행여 남보다 뒤질세라 앞을 다투어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이 무렵 오산의 통신중계소에서 알몬드 소장과의 통화를 끝낸 처치 준장이 전황을 호전시킬 실마리를 얻어, 가벼운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하여 수원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이들 차량중대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노상에서 그간의 경위를 보고 받고 '당장 수원으로 돌아가라!'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하여 그는 급히 중대의 행수를 돌려 수원으로 돌아갔으나, 이미 지휘소는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통신장비는 모두 파괴되었으며, 더욱이 비행장 경계를 위한 대공포마저 쓸모없는 고철 신세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탄식만 연발할 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비행장의 확보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수원에 남아 있을 수조차 없게 된,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오산의 동 중계소로 가서 알몬드 소장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보고한 다음 전방지휘소의 철수를 논의하여 승인 받아, 이날 밤중으로 우중을 무릅쓰고 대전으로 옮기고 말았다.

그리하여 '다음 날 정오까지 수원비행장을 확보하여 지상군의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고, 다음 날 수원에 도착하기로 되었던 스미스특수임무부대(T. F. Smith)의 착륙지를 부득이 부산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스미스부대가 7월 1일 부산에 도착하여 4일야 오산 북쪽에 진지를 점령하게 되어 3일간의 시간을 부산-오산 도로상에서 허비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5) 한강선 방어전투 3일차 : 영등포방면의 적의 본격 도하작전

(1) :

1950년 7월 1일 육군본부에서는 그간 군을 지휘하는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이 그 직에서 물러나고, 도미 중에 귀국하여 전날 수원에 도착한 전 참모부장 정일권 소장이 새로이 총참모장이 취임하였다. 정 총장은 임명 즉시 한강선 방어작전을 지도하였으나 이날부터 영등포방면에서 적이 본격적인 도하작전을 개시하고 신사리 방면에서는 전날에 이어 적 주력이 도하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적 제4사단은 04:00부터 여의도-영등포 방면으로 본격적인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전날 제3사단이 신사리방면으로 본격 도하 공격한데 이어, 마포와 하중리 나루터에서 대규모 도하공격을 시작하였다.

적은 서울점령의 선봉부대였던 제16연대가 동두천에서 국군 제1연대와 제5포병대대로부터 입은 타격이 적지 않았던지, 동 연대를 예비로 돌리고, 이번에는 그간 그들 사단의 예비로써 후속한 제5연대를 새로이 선두에 내세웠다. 적은 뗏목과 거룻배에 병력과 장비를 분승시켜 여의도로 도하하였는데, 이 섬의 일각인 밤섬에 전진거점을 강화한 다음 제8연대 정면인 김포가도의 제방으로 육박하였다.

이리하여 제방의 전사면에 호를 파고 있던 제8연대 장병들이 그들의 접근을 저지하면서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국군 장병들은 호 속에 얽매되어 적보다 유리한 형세였으므로 지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수적인 우세만을 믿고 개활지로 밀어닥치는 적에 집중적인 조준사격을 가해 마침내 공격 제1과를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¹¹¹⁾

(2)

7월 1일 혼성제7사단의 방어정면인 노량진-흑석동 지역의 강안에 올라붙은 북한군을 완전하게 격퇴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적에게 큰 출혈을 주면서 대체로

현 전선을 고수하였다.

혼성제7사단 예하 제9연대는 전날 밤의 사단의 명령에 따라 밝은 다음인 10:00에 목표 고지를 지향하여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대안에서 노려보는 적의 포화에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어, 오히려 병력 손실만을 보게 된 나머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강변고지의 본진으로 반전하고 말았다.¹¹²⁾

그리고 역시 전날 밤에 사단장으로부터 “강변고지-수도고지의 능선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25연대 제2대대는 대대장의 진두지휘 하에 2개 중대로써 수도고지부근에서 목표능선으로 나아가다가, 밤사이에 동 능선에 숨어든 적 1개 분대 규모와 격돌케 되었으나 이를 단숨에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대대가 그 능선위에 올라서는 순간에 강 건너로부터 박격포탄이 쏟아져서 대대장 배운용 소령이 전사하는 등 적지 않은 병력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선임자인 제8중대장 김백영 대위가 지휘하여, 좌측으로 제9연대 제1대대와 우측으로 제15연대 제3대대와 나란히 고수태세로써 날을 보내었다.

이날(1일)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강안에 배치된 공병대대의 지휘소인 월과정에 아군복장을 한 적 편의대 1개 분대규모가 침투하였다. 기습적인 침투공격을 받은 대대지휘소는 순식간에 와해되고 말았다.¹¹³⁾ 사격전을 전개하던 중 대대장 엄재완 소령이 흉부에 관통상을 입게 되자 대대는 안양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제20연대 제1대대가 사육신묘를 중심으로, 적이 철교쪽으로 도강하는 것을 막게 되었는데 연대 지휘소까지 적의 포탄이 집중되었다.

또한 강완채 대위가 지휘하는 제1연대 혼성대대는 중대장 유상재 중위가 전사하는 혈전을 벌인 끝에 여의도 비행장에서 공격하는 적을 방어하였다.¹¹⁴⁾ 대대는 야간에 복선철교위에 기관총으로 무장된 적 기관차가 나타나 교판 부설작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60mm 박격포 2문으로써 그들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적이 이렇듯 철교의 입구쪽으로 공격력을 증강하여 철교를 강제하는 월과정과 사육신묘를 확보코자 하는 것은 복선철교의 첩관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¹¹⁵⁾

뒷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적은 전날(30일) 아침에 철교의 중간단선으로 전차

를 도하시키려다가 미 공군의 항공폭격으로 좌절되자, 이날부터 서울 시민과 철도노선반원을 강제로 동원하여, 공병이 그 남쪽 교대 연결부분을 파괴한 경부복선철교에 새로운 교판부설작업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날도 미 제19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12대가 철교와 부근을 대대적으로 폭격하여 적의 도하저지를 지원하였다. 이 폭격으로 북한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¹¹⁶⁾

(3) -

혼성제2사단 예하 제3연대는 전날(30일) 온종일 혈전을 전개한 후 제5연대와 교대하여 과천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제16연대 역시 우면산을 중심으로 새로이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이날도 미 제5공군 공군기들이 출격하여 한강부근의 북한군에 대해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이날(1일) 새벽에 제16연대 수색중대 75명이 말죽거리로 추진되어 제5, 제16연대의 제한점인 말죽거리 도로를 경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색중대가 이날 미명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적의 차량 5대가 말죽거리-시흥리 도로를 따라 이동 중인 것을 포착하였다. 이 차량들은 전날 남쪽으로 진출한 그들 보병부대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남하 중이었다. 수색중대는 즉시 적 차량을 공격하여 보급품을 노획하고 군관 4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얻었다.¹¹⁷⁾

이 차량은 한남동에서 나룻배로 건넌 것으로서, 아군이 서울 철수시에 강의 북쪽에 유기한 것이었으며, 거기에 실려 있는 것도 아군의 건빵 등 비상식량이었다. 이들 차량은, 이미 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그들 선전대의 보급추진을 위하여 뒤따르던 중이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전날 야간 적의 일부가 이미 제5연대의 방어배치의 틈으로 잠입하여 말죽거리를 지나 판교로 빠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일부가 방어선을 뚫고 후방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강안 진지를 계속 지키게 된 제2사단으로서는 후방 위협의 염려가 없지도 않았으나, 적 주력의 도하를 막기 위하여 낮 동안은 95고지-우면산 진지를 계속 지탱하였다. 적 제3사단은 7월 1일 아침 사단병력의 50%를 강남으로 도하시켰다.¹¹⁸⁾

한편, 이날(1일) 새로이 군의 지휘를 맡아 당면한 한강선 방어에 대한 방안을 짜게 된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수원 동북쪽 접근로에의 적의 공격상황을 예의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위협의 제거는 말죽거리 정면의 적의 도하를 어떻게 저지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사관학교 부교장인 이한림 대령을 제2사단장으로 기용하는 한편, 임선하 대령은 미 지상군의 지원에 따른 한미 양군 사이의 유기적인 연락도모를 위하여 한미 연락장교단장에 전보 조치하였다.¹¹⁹⁾

이에 이한림 대령은 오후에 부관인 전승철 소위만을 대동하고 짚차로 금곡리에서 과천으로 떠났는데, 도중에 미 공군기의 기총사격을 받아 부관이 전사하는 역경을 겪기도 하였다. 그는 18:00에 사단지휘소로 도착하여, 임선하 대령으로부터 지휘권을 인수하는 즉시, 적이 야간도하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일선진지를 순회하면서 전선고수를 독려하였다. 이날 미 제19폭격전대 B-29, B-26 폭격기와 F-80, F-82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한남동-관교일대의 적에 대해 폭격과 기총소사를 가함으로써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다.¹²⁰⁾

한편, 전날(30일) 오후에 관교 남쪽에 진지를 점령한 육사 생도대와 제25연대는 야간에 각기 호를 파고, 박격포의 사격제원을 확보하여, 결전태세를 가다듬었다.¹²¹⁾ 이날(1일) 새벽, 관교 북쪽으로 내보낸 생도대의 박영휘 중위가 이끄는 일단의 수색대가 일단의 적이 시흥리에서 남하하고 있는 것을 관측하고 즉시 본대에 알렸다. 04:00 1개 대대규모로 추산되는 적의 선견대가 모습을 드러내어 관교마을 서쪽의 낙생초등학교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전날 밤에 한남동에서 말죽거리 정면을 돌파한 적의 일부 병력이었다. 이들은 시흥리-관교간의 도로에 들어선 뒤로 공군기의 폭격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경계를 하지 않은 채 학교 교정에서 그들 후속부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전에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던 생도대는 즉시 절호의 기회라고 간파하고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먼저 박정서 대위가 지휘하는 60mm 박격포 2문으로써 선제로 급습을 가하였다.

적은 처음 박격포사격을 받고 적지 않은 손실을 입고 당황하다가 시간이 경과



판교 낙생초등학교 부근의 전경

하면서 화력의 우세를 이용하여 오히려 역습을 전개하였다. 적은 생도대가 보유한 포탄 250발이 모두 소진되자 집중적인 사격을 가해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동천에 해가 솟아오르면서부터, 생도대는 오히려 물리게 되어 급기야 진전으로 물려든 적을 상대로 근접전까지 수행해야 했다.¹²²⁾

적은 120mm 중박격포로써 생도대 진지 후방을 화력으로써 차단하면서 중기관총의 엄호아래 일보일보 육박하여 진지까지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생도들은 진내로 접근한 적을 맞이하여 육박전을 전개하는 혈전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혈우가 뿌려지는 상태로 피아가 한데 뒤엉키기를 세 시간, 생도대는 혼신의 힘으로 적의 광포를 몇 차례나 물리쳤으나, 08:00가 지나면서부터 중대장 조덕수 대위가 부상을 입는 등 손실이 늘어나고, 탄약이 고갈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생도대는 진지에서 불가불 철수하게 되었다.

이 같이 하여 육사 생도대가 철수하게 되자, 그 좌측의 제25연대는 생도대의 진지가 적에게 유린되는 즉시 역습에 나섰다. 먼저 고지에 오른 적 일부를 격퇴하고 적의 주력이 미처 증원되기 전에 앞질러 다시 차지하게 되었다.¹²³⁾

이리하여 7월의 태양 아래 폭풍과 같이 몰아치는 싸움이 다시 계속 되었다. 연대의 기세가 자못 드높아 보였던지, 적은 5문의 직사포를 바로 동 진지아래까지 추진하여 집중적인 화력시위를 하였다.

연대장 김병휘 중령은 적의 포화가 진지를 뒤덮게 되어, 사상자가 속출케 되었으므로 화력의 열세를 절감하였다. 연대장은 적화의 제압수단을 모색한 끝에, 자신이 직접 제2, 제3대대장과 함께 역습부대를 편성한 다음 적진으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적으로부터 집중적인 포격과 사격을 받아 큰 손실을 입고 다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제3대대장 고동서 소령이 전사하고 연대장과 제2대대장 나희필 대위는 각기 부상을 입게 되는 손실을 입었다. 이리하여 동 연대의 방어선도 맥없이 무너지게 되어 앞서 간 생도대를 뒤따라 금곡리 부근으로 철수하게 되었다.¹²⁴⁾

한편, 이때에 금곡리 부근에서는 제22연대가, 혼성제3사단의 전력보강 일환으로 취하여진 육분의 조치에 따라, 이날(1일) 08:30에 수원을 떠나 금곡리에 증파되었다. 이들은 114고지에 있다가 생도대와 제25연대 철수병력을 수용하여, 그곳에 새로운 저지진지를 급편하게 되었다.

제22연대는 수원에 집결된 제3대대 등의 잔여병력을 수습하여 증강된 대대규모로 재편된 부대였다. 연대는 제25연대가 판교부근의 110고지에서 적과 싸우고 있을 무렵 114고지로 진출한 것이었다.¹²⁵⁾

이와 같은 제22연대의 금곡리 출동과 때를 같이 하여, 이날 제1사단은 제13연대가 아군의 오인 폭격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사단은 전날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전 병력을 수원에 집결하여 예비로 전환되어 각 연대별로 부대를 정비하면서 전황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제13연대는 1일 아침 민간버스로서 창용문 아래에 이동 지휘소를 정하고, 그 부근에서 대오를 정리 중이었다.

그런데 이날 08:00를 전후하여, 느닷없이 나타난 호주공군 F-51전투기 5대가 이 이동지휘차를 적으로 오인하고 공습을 가하게 되어, 그 기총소사로 말미암아 동 차량의 연료 탱크가 폭발함으로써 졸지에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말았다. 이 항공기는 북한군 수송대열이 남진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국군을 북한

군으로 오인한 것이었다.¹²⁶⁾

그리하여, 차내에 동승하여 부대정비 현황을 검토 중이던 연대장 김익렬 대령을 포함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차량이 소실되면서 최대명 소령만이 요행으로 무사하였을 뿐 연대장과 부연대장 김진권 중령은 중화상을 입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부연대장 김진권 중령은 후송 중에 정훈장교 홍승범 중위와 함께 끝내 운명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6) 한강방어선 전투 4일차 : 영등포진지의 고수와 공방전 지속

(1) 7 : -

7월 2일 동양맥주공장의 수도사단 지휘소가 시흥의 보병학교로 이동하는 가운데 여의도에서의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전날 밤에 적 1개 대대 규모가 다시 비행장을 점거함으로써 제8연대의 진지정면에 다가서서 집요하게 전선돌파를 시도하였다.

연대장은 제1대대로 하여금 이 적을 격퇴시키도록 하였다. 동 대대는 제1중대를 뽑아 비행장으로 출격하였다. 그리하여 이 중대는 진지를 박차고 탄우 속을 헤치면서 비행장으로 역습을 전개하였다. 중대는 적의 집중적인 사격을 받고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적을 밤섬으로 격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대장 이철원 소령이 전사하였으며 중대를 진두지휘하던 중대장 김인걸 대위와 또한 이 중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격포사격을 지휘하던 제10중대장 나병서 대위가 산화하고 말았다.¹²⁷⁾

한편, 제8연대의 좌일선인 제18연대 제1대대 역시 종일토록 난지도쪽에서 양화진쪽으로 도하하려는 적과 화력을 교환하게 되었다. 대대는 안양천의 동쪽 대대 진지에는 적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부의 적이 그 서안을 따라 적이 오류동쪽으로 남하하는 것을 관측하고 제3중대를 제방을 따라 측방으로 배치하였다.

적은 이날 항공기를 투입하여 8~9회 정찰을 실시함과 아울러 아군진지에 기

총사격과 폭격을 감행하였다. 적의 집중적인 폭격으로 사단은 방어선을 지탱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빠졌다. 사단은 즉시 여의도와 난지도 일대의 적에 대해 항공폭격을 긴급히 요청하였다.¹²⁸⁾ 이날 21:00 적은 약 2개 대대가 여의도로 도하하였으며 1개 연대가 상륙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¹²⁹⁾

한편, 7월 2일 노량진역 일대의 강변진지는 제20연대와 제1연대의 각 혼성대대가 방어함으로써 적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가운데 강변고지 부근에서는 전날의 공방전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사단은 대체로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사단 우측 반포-과천 일대에 침투한 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다.¹³⁰⁾

적은 도하병력이 한정되었음인지 과감한 공격을 시도하지 않고 몇 차례 항공폭격 지원하에 그 곳의 제9, 제25 양연대의 대대들과 일진일퇴만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¹³¹⁾ 대체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 양 대대는 강변 고지에서 수도고지에 연하는 능선의 진지를 그대로 확보하고 있었다.

(2) 2 :

신임 제2사단장 이한림이 예측한 바와 같이 전날(1일) 밤부터 야음을 틈탄 적의 일부가 다시 신사리 부근에서 도하하여 2일 새벽부터 말죽거리 부근의 제5연대진지를 돌파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95고지를 중심으로 진지를 마련한 동 연대가 이들 적과 격돌하게 되었다. 적은 공격력이 자못 거세어 연대진지를 포위하면서 공격을 시도하였다. 연대장 최창언 중령 이하 제2대대장 차갑준 소령 등은 수류탄의 폭염으로 밤을 밝히면서 적을 방어하였으며 마침내 근접전투까지 벌이게 되었다.¹³²⁾

그러나 이날 새벽에 들어서자 연대는 적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연대장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지게 됨으로써, 끝내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여 급기야 그곳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연대는 과천으로 한걸음 물러서서 병력을 수습하게 되었으며 연대장은 수원-대전으로 후송되었다. 그리하여 말죽거리-시흥리간의 도로는 적에게 완전히 개방되고 말았다.¹³³⁾

적 문서에 의하면, 북한군 제3사단은 사단 제2제대인 제9보병대가 사단 특과

부대들과 함께 7월 2일 아침까지 강남으로 도하를 완료하였으며, 그리하여 이날 북한군 제3사단이 모두 도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³⁴⁾ 사단은 한강을 도하한 후 죽전리 방면에서 후퇴하는 국군을 계속 추격하고 동북방으로부터 수원을 공격하여 점령하라는 지시를 하달 받았다. 적 제9연대는 2일 아침 공격으로 전환하였으나 국군부대들의 역습을 받았다.

한편, 이한림 사단장은 전날 밤부터 말죽거리 정면에서 제5연대가 적의 공격을 받게 되자, 그간 과천에 예비로 배치중인 보교연대를 말죽거리 부근으로 진출시켜 적의 접근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보교연대는 말죽거리 남쪽 5km 옥너봉 북쪽의 193고지로 추진하여 적의 공격로로 예상되는 말죽거리-시흥리 도로를 방어하고자 하였다.

보교연대는 말죽거리 상공에 치솟는 교전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과천-말죽거리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달려가 이날(2일) 새벽에 목표인 193고지의 동쪽에 이르렀다. 이때 연대는 때마침 시흥리 쪽으로 동남향중인 일단의 차량중대를 포착하고 즉시 이들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적의 차량중대는 앞뒤로 장갑차의 엄호를 받는 트럭 30여대로 편성된 보급품 수송대였다. 연대장은 이로 보아 전날 밤 제5연대의 진지를 돌파한 적 보병의 일부가 시흥리쪽으로 남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연대장의 공격개시 명령과 함께 먼저 60mm 박격포로써 선두와 후미의 장갑차를 겨냥하여 단발에 격파함으로써 중대의 전후를 화력 차단하였다. 그 후 일제 공격을 개시하여 적의 차량에 접근하였다. 그러자 적은 차량을 버린 채 모 두 길 건너 평촌 마을로 도주해 들어갔다. 이에 연대는 수색대를 편성하여 마을을 포위하고 수색한 결과 20여명을 사살함으로써 적의 보급대를 일망타진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¹³⁵⁾

보교연대는 다시 말죽거리 남쪽 193고지로 반전하여 진지를 급편하였다. 이날 낮 동안은 피아를 분간하지 못하는 미 공군기의 공습 위협을 받아, 그 곳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종일 적을 기다리기만 하였으나 더 이상 적의 움직임을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적의 일부가 금곡리로 증원되었음이 분명해지자, 이한립 사단장은 적 병력이 후속할 것으로 보고 보교연대로 하여금 193고지 부근에서 시흥리로 향하는 도로의 길목을 계속 방어하도록 지시하였다. 제16연대로써 우면산 진지를 고수하도록 하여 우선 과천 정면으로의 적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였고, 말죽거리에서 철수한 제3연대를 과천 동남 348고지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말죽거리-금곡리 축선상을 진출하는 적에 대하여서는 국군 제3사단장 이준식 준장에 일임하기로 협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2사단은 과천-군포장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한강선에서 분전중인 시흥사령부의 주력에 대한 측방엄호에 전력하기로 하였다. 사단은 오후에 과천의 지휘소를 군포장으로 옮기고, 그 곳에서 제5연대의 부대수습에 임하였다.

한편, 금곡리 부근에서는 전날(1일) 그 곳에 진지를 마련한 제22연대가 제25연대 및 육사 생도대와 함께 진지를 강화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 제3사단은 선두부대가 전날 판교 삼거리 부근으로 진출한 뒤부터는 더 이상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생도대와의 일전에서 입은 손실이 적지 않았고, 또 뒤따라야 할 보급중대가 제16연대 수색대에 의하여 길이 막힌 까닭에 그들만의 단독행동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이날 새벽, 그들 병력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증원을 보았으나, 이번에도 그 보급대가 보교연대의 역습을 받아 중도에서 괴멸되어 보급지원에 큰 차질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미 공군기의 부단한 공중위협으로 말미암아 전의가 위축된 나머지 이날 계속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는 듯 하였다.

7) 한강선 방어전투 5일차 : 적 전차의 한강도하와 방어선 돌파

(1) 7 :

북한군은 7월 3일 04:00, 경부선철교의 남쪽 교대 연결부위가 손상을 입은 공간에 대한 보수를 끝낸 듯, 4대의 전차가 종대를 이루어 교각을 흔드는 그 특유의 소음을 앞세우고 철교위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를 본 아군 병사들이 화력

을 집중하여 이들 전차가 노량진땅에 올라서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마침내 적 전차는 그 탄우를 헤치고 노량진-영등포 도로에 들어선 다음, 동 도로를 따라 돌파하여 전차포를 휘두르면서 영등포로 돌입하였다.¹³⁶⁾

이렇듯 전차가 불시에 노량진에 들어섬으로써 이때까지 진지를 결사 고수코자 하였던 장병들의 의지가 순식간에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 전차에 대응할 방책을 강구하지 못한 까닭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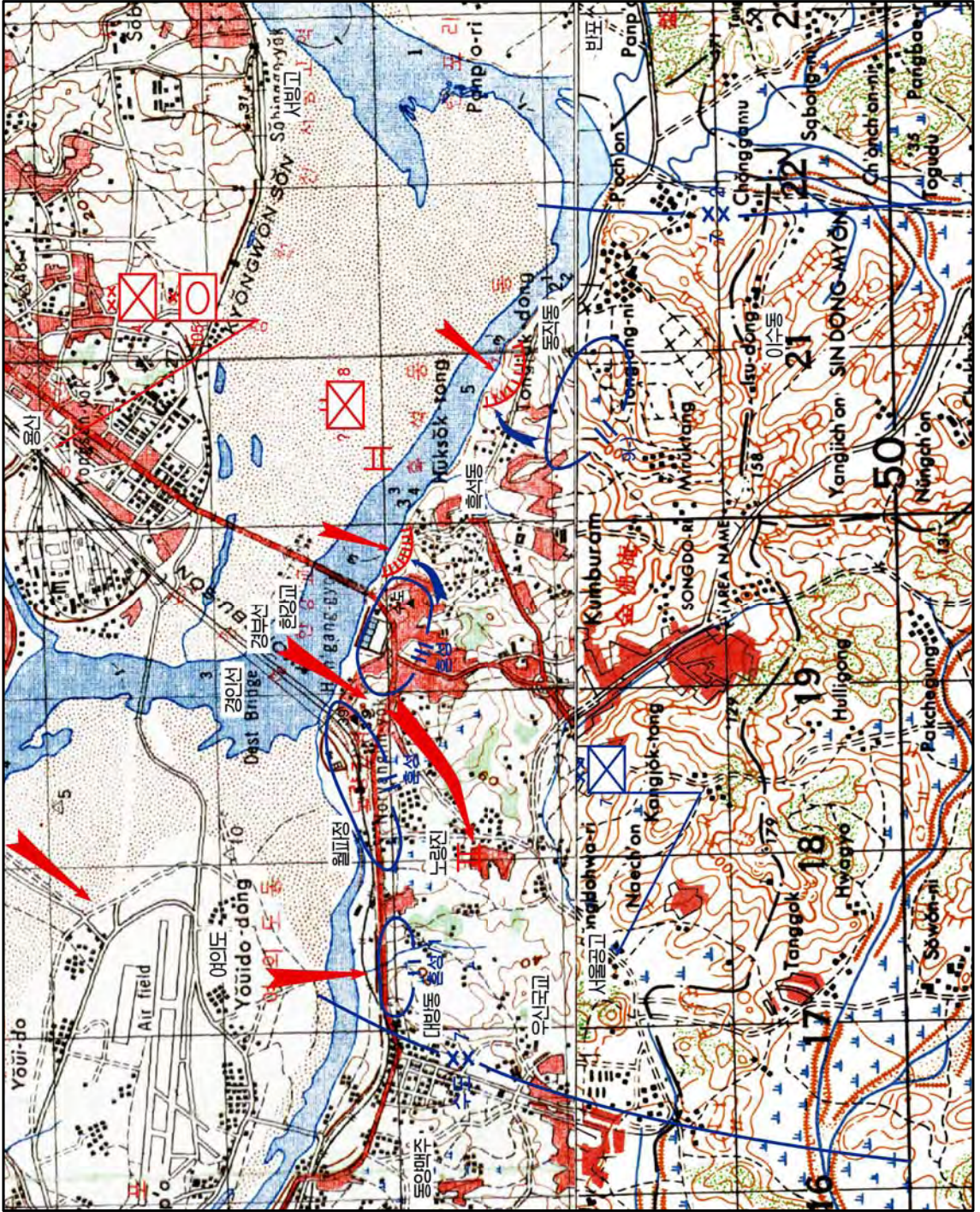
그리하여 수도고지-사육신묘 부근에서 적 전차를 먼저 확인한 일부 병력이 진지를 이탈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즉시 제7사단을 거쳐 시흥사에 보고되었다. 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더 이상 이 전선을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제7, 수도의 양 사단에 안양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¹³⁷⁾

그러나 이 철수명령은 통신망의 미비로 말미암아 각급부대에 일사불란하게 하달되지 못하였으므로 철수명령을 수령치 못한 일부는 그대로 진지로 남아 있기도 하였다. 제1연대 혼성대대의 경우 대방동 정면에서 여의도쪽으로만 주의력을 집중하고 있던 차에 적의 전차가 도하한 것을 미처 알지 못하여, 도로변에서 지나



북한군 전차의 한강도하 모습

<상항도 3-8> 노량진 부근 전투(7월 3일 상황)



가는 전차를 아군으로 여기고 반기다가 기관총사격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대대는 사격을 받고서야 비로소 적이 강의 남안에 진출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전선에서의 철수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나, 사단으로부터 그에 따른 별다른 행동지침을 받지 못한 까닭으로 진지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강완채 대위 이하 대대원은 진지고수의 결의를 버리지 않았다.¹³⁸⁾

이렇듯 노량진, 흑석동 정면의 방어병력은 대체로 이런 정황 속에서 철수명령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부대별로 분산되어 이날 낮 중으로 일부는 시흥-안양으로, 또 일부는 과천-군포장으로 각각 집결하게 되었다.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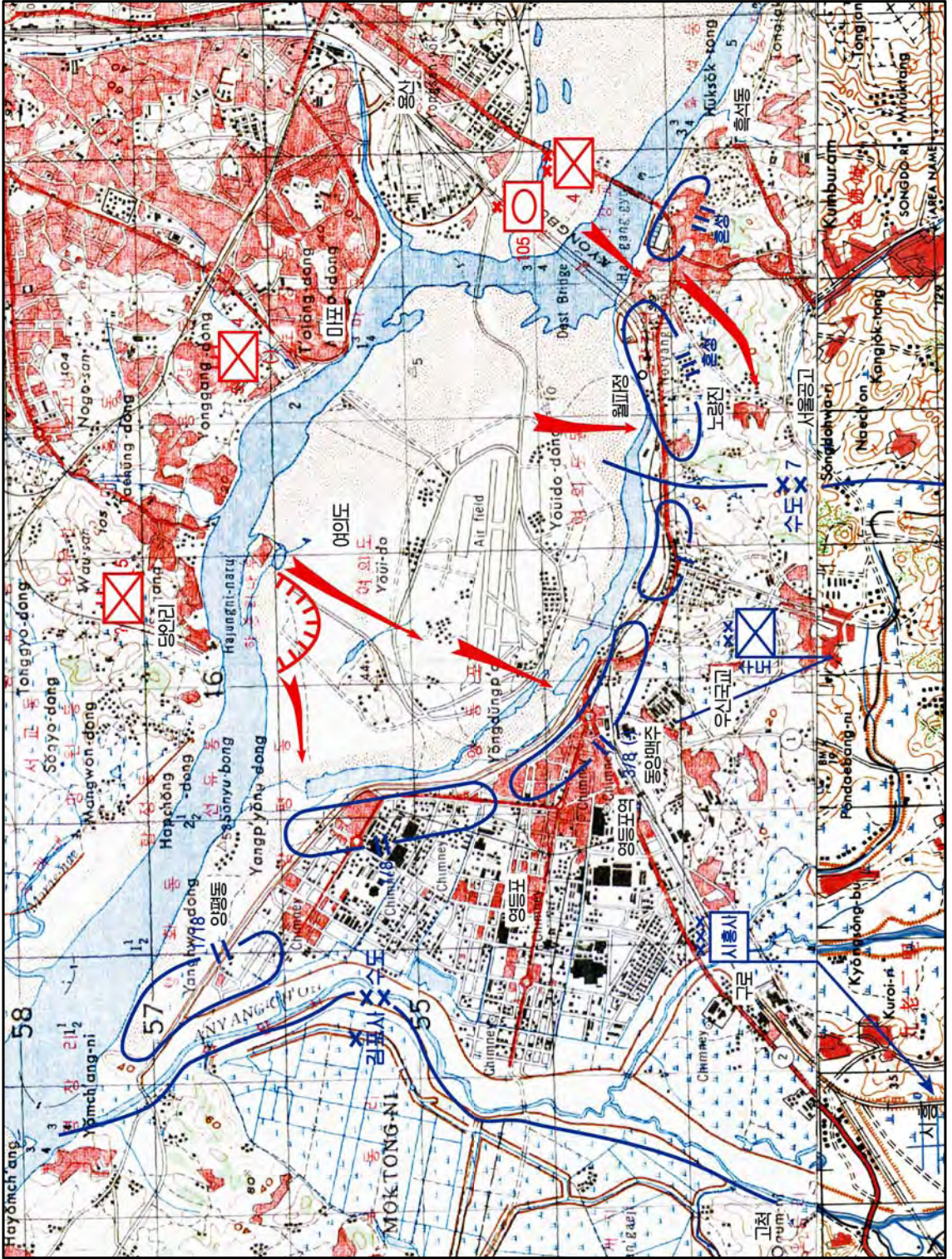
영등포 정면의 제8연대 역시 한강철교도 적의 전차가 건너게 되고, 또 오류동 쪽으로 경인가도를 따라 들이닥친 적이 영등포 시내에서 연대의 배후를 교란하게 함으로써 이 전선은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¹³⁹⁾

이른 새벽부터 영등포 일대에 적의 포격이 시작되었다. 이에, 영등포구청 부근 연대 전방지휘소에서 철야한 연대장 서종철 중령은, 적의 포탄이 동 지휘소 주위에 작렬하자, 그들의 도하공격이 재개되었다고 판단하고, 즉시 쫓차를 급히 몰아 제1선인 김포가도 제방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가 미처 제방에 다다르기 전에 적의 포탄이 강타하게 되어 차량이 대파되면서 그 자신은 다리에 파편상을 입게 되었다.

이때에 마침 이와 같은 심상치 않은 포성을 듣고, 후방지휘소에서 달려간 부연대장 이현진 중령이 도중에서 연대장을 구하여 시흥으로 후송케 되었다. 이 무렵 그 일원으로서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가운데서 전선의 상황은 미처 확인되지 않았으나, 삼삼오오로 발길을 남쪽으로 돌리는 장병들이 보이기 시작하여 이미 전황이 결정적으로 기울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리하여 연대장을 대리하여 연대의 지휘를 맡게 된 부연대장이 다시 구청부근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그 곳의 연대본부 요원 수명이 쓰러져 있어, 벌써 적이

<상황도 3-9> 영등포 부근 상황(7월 3일)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역력하였다. 적 전차 6대가 이미 07:00 이전에 영등포로 진입하였으며, 제8연대 일부병력은 적 전차를 저지하면서 시흥일대인 2선에 지뢰를 매설하면서 철수하였다.¹⁴⁰⁾ 이에 동 전선이 돌파되었음을 확인한 그는 안양천의 지류인 마장천의 교량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아침이 되면서 연대 방어병력이 노량진에서 도하한 적에 의해 뒤에서 공격을 받고 방어선이 무너짐과 때를 같이하여, 방어선 정면의 적이 여의도로 도하함으로써 마침내 영등포 일원을 석권하게 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날 영등포 정면에서는 적이 여의도쪽으로 공격치 않고, 전차로써 아군의 철수를 강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적의 주력은 3일 야간부터 도하하기 시작하여 4일 도하를 완료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 군사고문단은 “서울을 점령한 후 사단 예하부대들을 계속 진격시켰다면 6월 29일에 최소한의 손실로 수행할 수 있었던 전차여단의 도하는 결국 7월 4일에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비판하였다.¹⁴¹⁾

어쨌든, 적의 전차에 의하여 연대지휘부가 먼저 피습됨으로써, 옛새 동안이나 단 한 명의 적병도 우리 방어진지인 제방을 밟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이 전선이 일시에 무너지게 되고 만 것이다. 이리하여 한강의 북쪽을 휩쓸었던 요원의 불길이 이제 강의 남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3. 결 과

한강선 방어전투는 서울북방에서 와해된 부대를 수습하여 혼성병력으로 부대를 급조 편성, 한강을 이용하여 적의 진출을 저지했던 전투이다. 한강선에서의 일주일이야말로 기사회생의 계기를 잡게 한 실마리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작전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강이라는 천연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방어, 미 공군의 지원, 김홍일 장군의 탁월한 전쟁지휘 능력

등 아군의 성공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적의 서울점령 이후 3일간 지체, 도하능력 부족, 지휘관의 자질부족 등 적의 전투력 발휘를 제한한 요인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국군은 한강방어선 전투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성공적인 지연작전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미 지상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게 되었다. 아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투는 적보다도 차라리 시간과 싸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당시 군이 적을 격멸하고 실지를 회복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다만 지원군의 도착을 기다리는 시간을 얻기 위하여 싸웠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군은 한강방어선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수원 이북에서 국군 주력을 섬멸하려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적으로서는 이 한강선의 돌파에 의외의 시일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당초 그들이 기도한 '수원 북방에서 아군 병력을 타격'하고자 한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또 그렇다고 '미군이 참전하기 전에 방어선을 조기돌파'한다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서울 점령에 수훈을 세운 이들 제3, 제4사단 및 제105 전차여단에 각각 '서울 사단'이란 명예호칭을 부여하여, 이로써 사기를 북돋아 진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하는 독전의 방편으로 삼았다.¹⁴²⁾

국군은 한강방어선이 붕괴되자 전 전선에서 전면 철수하게 됨으로써 전국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때 미군 제24사단의 특수임무부대인 스미스부대가 평택-안성선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차후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육군본부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수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한국전선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있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전개할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시흥사로 하여금 축차진지에 의한 지연작전을 전개하도록 명령하는 한편,¹⁴³⁾ 군 예비인 제1사단을 풍덕천에 투입 육본통제 하에 금곡리 일대에 전개한 북한군 제3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게 되었다.

제 5 절 수원 북방 전투

1. 전투 개요

수원 북방 전투는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한강방어선에서 철수하여 7월 4일 하루 동안 혼성수도사단, 제7, 제2사단이 시흥-안양-군포-수원 일대에서 적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공격을, 그리고 혼성제3사단과 제1사단이 판교-금곡리-풍덕천-수원에서 적 제3사단의 공격을 맞이하여 방어한 전투이다.

7월 3일 노량진 부근의 한강방어선이 무너짐으로써 이제 전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날 새벽 북한군이 경부선 철교를 통해 전차를 도하시켜 결국 노량진-영등포 방어선이 와해되었다고 육군본부에 비보되자, 전황은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수원마저 포기해야하는 결정적인 사태로 굳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이미, 7월 1일에 부산에 도착한 바 있는, 미 지상군의 선견대인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대전을 지나 전선배치를 위해 이동 중에 있었으므로,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미군이 전투참가 준비를 갖추 수 있는 시간을 얻는 것이 마지막 방책이라고 판단하고, 현 전선에서 최대한 지연하기로 결심하였다.

영등포를 점령한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은 그동안의 전투에서 입은 손실로 인하여 일단 공격을 멈추고 부대정비에 임하고 있었다. 이 기회에 시흥사 예하 각 부대는 낙오병을 수습하면서 방어진지를 보강할 수 있었다.

국군은 수원 북방에서 1번 국도 축선상에는 시흥-안양-군포축선 상에 3중의 저지선을 구축한 반면, 수원에서 북동쪽으로 불과 6km밖에 안되는 풍덕천 지구에는 중심이 거의 없는 단 하나의 저지선만 편성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시흥사의 수원북방 지연작전 성패여부는 제1사단이 얼마나 오랫동안 풍덕천 진지를 지

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수도로를 따라 전차를 선두로 한 적의 위협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날(2일) 새벽 원주에서 이천지구로 전진한 제19연대로부터 “가평-양수리로 남향한 듯한 북한군 제2사단의 일부가 김양장 부근으로 지향중임”이라 보고되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다.¹⁴⁴⁾

한편, 말죽거리-판교 일대를 방어하던 국군 제2사단은 판교-금곡리 방면의 방어를 국군 제3사단에 인계하고 군포 일대로 철수하여 시흥사의 수도사단과 제7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예비 방어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사단은 지휘소를 군포 남쪽 2km로 옮기고 먼저 제5연대를 안양 남쪽의 426고지를 중심으로 진지를 점령하게 하여 동 국도를 방어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3연대의 엄호 아래 우면산의 제16연대와 193고지의 보교연대를 군포장으로 투입하였다.

이리하여 수도, 제7, 제2의 3개 사단이 시흥, 안양, 군포의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3중의 저지선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미 전날(2일) 시흥일대에서는 국군 1개 연대가 육본 조치에 의하여 방어편성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흥사거리 부근에 대공포가 설치되었으며, 수원 북서 4km 일대에도 병력이 배치되었다.¹⁴⁵⁾

북한군 제4사단은 이날(3일) 낮 동안에 정찰대의 일부로써 시흥의 일각을 점거하여 정찰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 주력은 영등포 일대에서 다음 공격을 위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오류동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진출한 북한군 제6사단은 이날 제13연대를 전차와 함께 경인가도를 따라 인천을 먼저 점령케 하였고 주력은 역시 부대 정비에 임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3사단은 일부부대를 판교, 금곡리 일대까지 진출시켜 시흥사 주력부대의 퇴로 차단을 기도하였으나, 국군 제3사단 및 제1사단의 선전으로 진출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특히 미 공군기의 집중적인 폭격을 받아 많은 손실을 입고 있었다. 이 부대 역시 다음 공격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한 듯 더 이상 진출하지 않은 채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2. 전투 경과

1) 육군본부의 조치와 방어편성

한강방어선이 돌파되자 이제 수원은 동쪽과 동북쪽 그리고 서북쪽의 세 방향으로 집중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정일권 총참모장은 7월 3일 08:00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 제18호를 하달하였다.¹⁴⁶⁾

- ① 적이 급일 미명에 한강을 도하하였다.
- ② 군은 지원군의 전투참가를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하여, 현 전선에서 지연전을 실시한다.
- ③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최대한 적을 저지하면서 경부국도를 따라 축차 철수하여, 오산으로 집결한다.
- ④ 제1사단은 풍덕천 일대에 저지선을 확보하여, 시흥사가 수원을 철수할 때까지 현 전선을 가능한 오래 방어한 다음, 신갈-오산도로를 따라 오산으로 집결하라.
- ⑤ 공병감은 별명에 따라 수원-오산간의 도로파괴 작업을 실시하라.
- ⑥ 통신감은 수원-오산간의 통신망을 확보하라.
- ⑦ 육군본부는 수원-철수 이후, 오산읍사무소에 위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육본의 명령을 받은 시흥지구전투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이날 아침 노량진의 제7사단과 영등포의 수도사단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긴급명령을 하달하였다.¹⁴⁷⁾ 즉 "수도사단은 시흥에서 시급히 철수병력을 수습하여, 시흥 남쪽 2 km 국도 동서 고지대에 진지를 점령하고, 국도로 지향되는 적의 침공을 견제하라. 제7사단은 안양으로 집결하라"고 하달하였다.

그리하여 김포가도의 진지에서 철수한 수도사단은 제8연대 부연대장 이현진 중령 지휘 아래 병력을 수습하면서 시흥으로 철수하여, 대강 전역을 가다듬은 다음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찾아 남쪽으로 한걸음 물러서게 되었다.

수도사단장 이종찬 대령은 기갑연대 장갑대대의 M-8 장갑차를 국도 상에 전개하여 화력엄호를 맡게 하는 가운데 제8연대를 도로 동쪽의 284고지의 서쪽과 도로 서쪽의 덕안리 무명고지에 배치하여 좌우에서 동 도로를 방어토록 하였다.

그런데 동연대가 시흥 남쪽에 새로운 저지진지를 점령하던 14:00를 전후하여 마침 상공을 비행 중이던 미 공군기가 연대를 적의 병력전개로 오인하고 기총사격을 가하였다.

이 공습으로 말미암아 도로상에 있던 장갑대대의 제1중대장인 박길용 대위가 기총을 맞아 전사하는 등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다. 미처 은폐물을 찾지 못한 장갑차들은 차위에 기름 묻은 수입포를 불태워 검은 연기를 내뿜게 함으로써 피격된 것으로 가장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였다.

수도사단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15:00무렵 시흥 남쪽에 제1저지선을 확보하였다. 이때 제7사단은 그 일부가 시흥으로 철수하지 못하고 관악산-과천으로 철수하여 곧장 수원으로 집결하는 가운데 안양과 군포장에서 수습된 일부로써 수도사단이 시흥부근에서 진지를 마련하는 동안 안양천 남쪽 고지대에 제2선진지를 급편하게 되었다.

아울러 김홍일 소장은 영등포-시흥도로가 적에 개방될 것을 고려하고, 오류동의 김포사에도 당면한 적으로부터 이탈하여 안양으로 철수하도록 조치한 다음, 11:00 사령부를 철수시켜 14:00에 안양으로 이전하였다.

그리하여 김포사는 오류동 전선을 지탱하는 중에 시흥사의 철수명령에 따라 안양 서북쪽으로 철수하게 되고 제8연대가 시흥 남쪽 진지를 점령하였을 무렵 덕안리 부근에 집결케 되었다. 이에 시흥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김포사가 이미 철수 중에 각 대대별로 병력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해편을 명령하여, 제18연대로써 시흥전선의 제8연대를 증원토록 하고, 제15연대로써 진지 서쪽에 전개토록 함으로써 오류동쪽에서 접근중인 적을 막아 수도사단의 좌측을 엄호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제18연대는 182고지(덕안리 동남쪽 1.2km)-충훈부 부근의 무명고지(130m) 사이의 제8연대 진지의 일부를 맡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8연대는 284고지 서쪽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그 방어력을 증강하게 되었다.¹⁴⁸⁾ 제15연대는 제18연대와 연계하여 142고지-179고지에 진지를 점령하여, 오류동에서 남쪽으로 뻗은 도로를 굽어보면서 그 쪽으로 뒤쫓을 적을 막기로 하였다.

2) 금곡리-풍덕천 부근 상황

신사리에서 도하하여 판교 일대에까지 진출한 적 제3사단은 적 제4사단과 제 105전차여단의 안양-군포-수원 공격에 발맞추어 금곡리-풍덕천 일대로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군 제1사단은 정일권 총참모장의 명령에 따라 시흥사의 철수로를 엄호하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3일 오후에 수원에서 육사 생도대를 배속 받아 풍덕천으로 진출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풍덕천 서남 188고지-237고지 사이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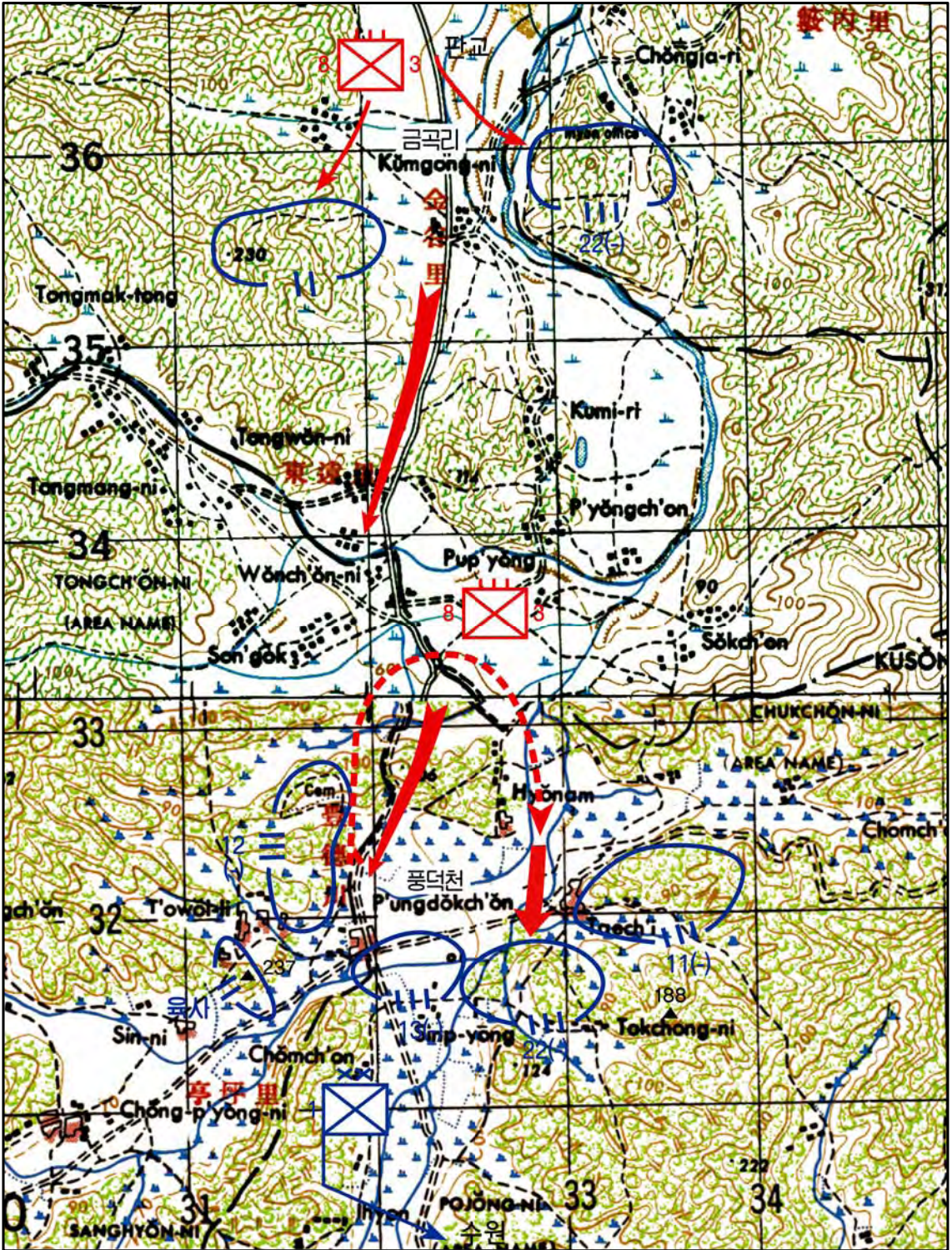
이 지역은 수원에서 5km 남짓한 거리였으니, 수원에서 18km가 넘는 시흥-안양사이에서 촌각을 다투는 지연전을 벌일 시흥사의 주력에 대한 철수로의 확보가 이제 사단의 양 어깨에 매달리게 된 것이었다.

북한군 제3사단 예하 1개 연대가 금곡리 부근의 제3사단 진지에까지 육박하였으나 미 공군기의 엄호를 받은 동 사단의 제22, 제25 양연대의 혼성병력의 분전으로 금곡리에서 저지되고 있었다. 이 동안에 풍덕천에 진지를 급편한 제1사단이 저녁 무렵에 제22연대를 수용하여 이를 통합 지휘하게 되었다.¹⁴⁹⁾



풍덕천 부근(1사단 방어진지)

<상황도 3-10> 금곡리-풍덕천 부근 상황



<상황도 3-11> 영등포-수원 부근 상황



제1사단은 제11, 제22, 제13, 제12연대의 순으로 188고지-237고지에 배치하여 풍덕천-수원도로의 방어에 전력하게 되었는데, 우일선인 제11연대로써 신갈 도로를, 중앙 우일선인 제22연대로써 188고지 북쪽 능선(삼거리 남쪽)을, 중앙 좌일선인 제13연대로써 풍덕천-수원의 남쪽을, 그리고 제12연대로써 동 도로의 북쪽에 진지를 점령하게 하였다. 특히 제13연대와 제12연대로서는 본도의 남북에서 V자형 진지를 편성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육사 생도대를 237고지에 예비로 확보하는 가운데, 실병력 1개 연대 규모로써 일전의 각오를 다졌다. 백선엽 사단장은 적이 필시 이날 밤에 야음을 타고 사단 방어진지를 기습적으로 돌파하여 수원으로 곧장 진출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하여 Cal 50 4정 등으로 보강한 자동 화력으로써 십자화망을 구성하여, 적을 진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다음에 좌우에서 협격하기로 하였으나, 별다른 적의 움직임이 잡지 못한 채로 밤이 깊어만 갔다.

한편, 이 무렵 그 우인점에서는 김양장 일대를 장악한 적 제2사단이 아군의 퇴로를 위협하고 있었다. 최초 춘천을 점령했던 이들은 가평을 거쳐 6월 30일 덕소-양수리 일대에서 한강을 도하하여 남하하고 있었다.

육본은 즉시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에게 그들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제19연대는 즉시 곤지암 일대로 진출하여 역습부대를 편성하여 적의 진출을 지연시키고자 하였다. 이 상황에 대해, 적의 보고서는 "적은 사단 예하부대들의 진격을 저지시키고자 역습으로 전환하였다. 제17연대는 짧은 시간 동안에 다섯 차례의 역습을 받고 이를 모두 저지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¹⁵⁰⁾ 당시 국군 제19연대가 적 제2사단의 남진을 지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습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적 제2사단은 2일 덕소 남쪽 경안리 일대에 까지 진출하여 제4, 제17연대를 김양장 부근으로, 제6연대를 곤지암 부근으로 진출시키고 있었다.¹⁵¹⁾ 그러나 적은 도하장비의 부재로 인하여 미처 122mm 포와 자주포 등 중장비를 도하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화력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련 군사고문단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군은 도하장비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포병

의 도하가 이틀간 지연되었고, 이는 보병이 도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한 교두보에서 보병이 성공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¹⁵²⁾

적의 남진을 보고받은 육군본부는 수원으로부터 제8연대 제2대대와 1개 105mm 포대를 추진시켜 제19연대를 지원하는 한편, 미군의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이날 하루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적 집결지를 강타하여 적을 지연시켰다. 제8연대 제2대대는 수원에 집결하고 있었으나, 영등포전선에 있는 동 연대 주력과는 합세하지 못하고 수원의 서울대 농과대학의 교정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다. 이때 김양장으로 적이 남침중이라는 급보에 따라 긴급 투입되었다.

대대는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김양장으로 차량으로 기동하고, 전방 2km에서 병력을 공격대형으로 전개하여 마을로 진입하였다. 그 곳에는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마을을 점거하여 휴식 중에 있었다. 이에 대대의 60mm 박격포 6문으로서 집중사격을 가하면서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경안천을 따라 북쪽으로 적을 격퇴하고 낮 중으로 234고지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그곳에서 76mm 포 2문과 수냉식 중기관총 4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대대는 적의 역습을 받아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탄약보급이 뒤따르지 못한 탓으로 234고지를 더 지탱하지 못하고 철수하고 말았다. 대대는 김량장 마을 서쪽 2.5km에서 철도를 끼고 그 남북에 진지를 다시 점령함으로써 적이 수원쪽으로 서진하는 것을 막기로 하였다.

북한군 제2사단 예하부대들은 몇 차례의 공격 끝에 2일 오후 김량장, 곤지암 일대로 진출하였으나,¹⁵³⁾ 제19연대 예하대대 및 제8연대 제2대대의 역습, 그리고 아군 공군기의 지속적인 포격으로 말미암아 진출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었다. 적은 몇 차례의 역습이후 그동안의 손실을 보충하고 부대를 정비하려는 듯 더 이상 정면으로는 공격 기도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 후 적 제2사단은 5일 미명부터 비로소 공격을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수원을 장악한 적 제4사단이 오산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김량장, 장호원 일대에서 안성방면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¹⁵⁴⁾

3) 시흥-안양 부근 상황

7월 4일 06:00에, 전날 영등포를 석권한 적 제4사단이 제105전차여단 소속의 T-34 전차 12대를 앞세우고, 경수가도를 따라 남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윽고 적의 선두 전차가 YAK기 3대의 엄호 하에 시흥을 지나 삼막리부근의 제8연대 진전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 적의 보병부대는 도로 서쪽의 안양천을 따라 진출하여 중박격포와 전차포의 화력지원 아래 제18연대의 진지를 공격하였다.¹⁵⁵⁾

이에 연대가 사력을 다하여 그 적을 저지하였으나, 제8연대의 대전차공격을 무릅쓰고 전차가 양 연대 사이의 도로를 돌파함으로써 10:00를 전후하여 양 연대는 각개 분산되고 말았다. 연대병력은 수원을 지향하여 발길을 돌리게 되고 말았으며 그 충격으로 안양의 전투사령부와 재편성중인 일부 병력도 철수길에 오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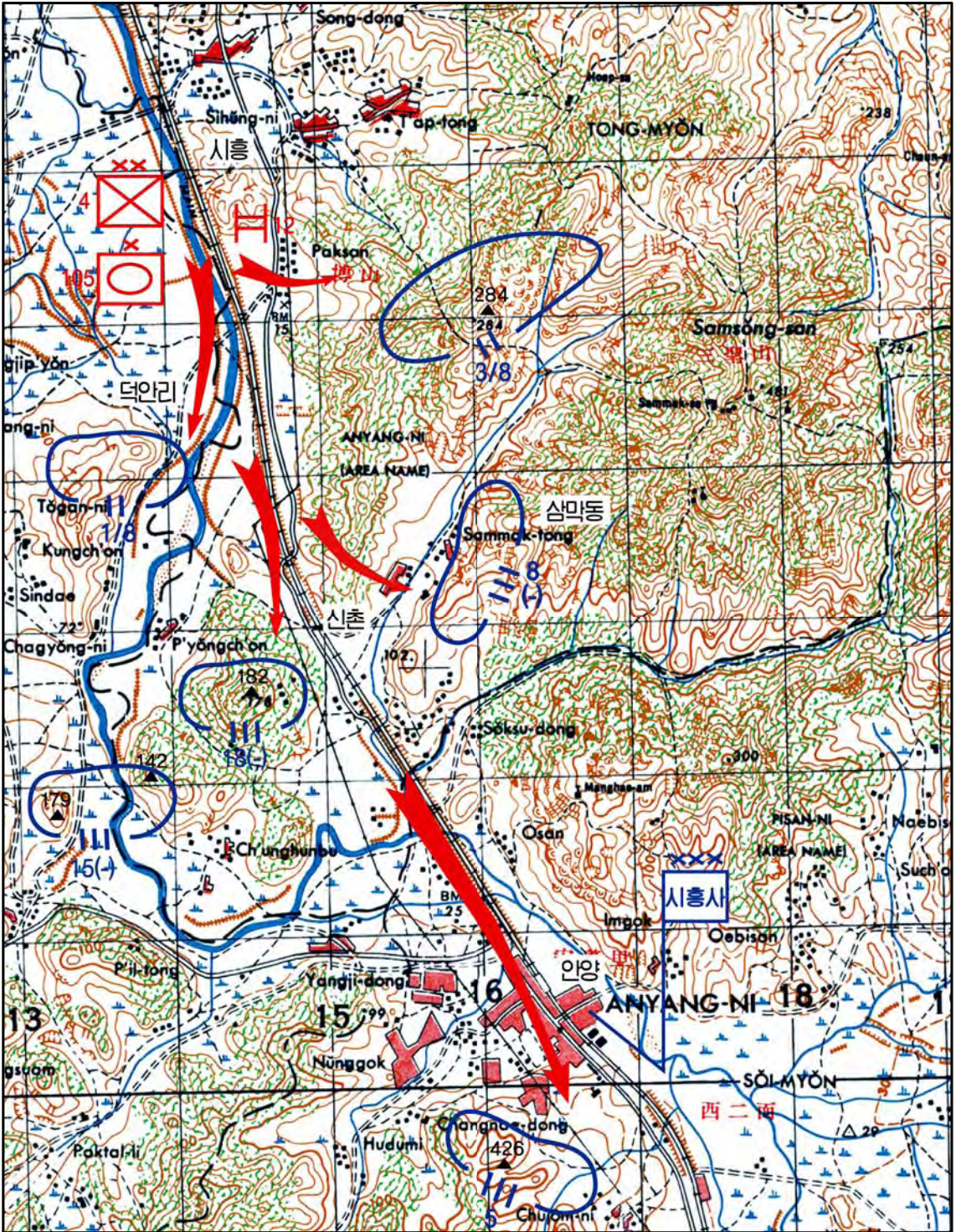
이리하여 정오 무렵에는 북한군 제4사단 선두부대가 제2선의 제7사단 진지까지 돌파하여 안양읍내로 진출하였다. 이 때의 상황에 대해 적의 보고서에 의하면, “안양역 부근에서 적 2개 대대규모의 조직적인 사격에 직면하였다”고 하여 안양 부근에서 제7사단 예하부대들이 치열한 지연전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⁵⁶⁾

이때 북한군은 북한군 야크기 4대가 적 제4사단 예하부대들을 엄호하면서 철수중인 국군의 부대행동을 방해하였는데, 때마침 미 공군기 편대가 나타나 이들 적기와 공중전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시키고 나머지는 격퇴함으로써 내닫던 적의 발길을 잠시 지연시켰다. 이와 같은 미 공군기의 제공위력 때문인지 적이 안양에서 군포에 진출한 것은 14:00가 되어서였다.¹⁵⁷⁾

여기서 426고지의 제5연대와 그 도로변의 김병화 소령이 지휘하는 보병학교의 일부 병력이 수원에서 재편되어 투입되어 적 전차를 향하여 모든 화력으로써 집중 사격을 가하여 적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적 전차는 유유히 1번 국도를 돌파하여 남진함으로써 군포의 제3선도 와해되고 말았다.¹⁵⁸⁾

이에 김홍일 소장이 직접 공병을 지휘하여 지지대고개에 나무를 잘라 기갑연대 장갑대대의 반궤도차와 함께 가로 질러놓아 임시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백방의 수단을 다하여 전차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그 진로를

<상황도 3-12> 시흥-안양 전투



막을 수는 없었다.

한편, 이와 같이 군포장전선이 무너짐에 따라, 퇴로차단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348고지의 제3연대는 하는 수 없이 동 진지에서 물러나, 동남쪽으로 348고지를 넘어 관교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두에서 연대를 지휘하면서 퇴로를 개척하던 연대장 최수창 중령이 사기막골 부근에 이르러, 앞을 가로막은 적의 저격을 받아 전사하고, 병력 또한 각개로 분산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적 전차가 군포장의 제2사단 저지진지를 돌파하고 시시각각 수원을 향하여 남진하게 되자,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육군본부를 수원에서 평택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곧 평택집결 명령을 하달한 다음, 제대를 편성하여 일부를 후위로 남겨 적의 공격을 저지하게 하는 가운데 본대를 차량으로 오산-평택간의 국도를 따라 철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후위부대는 수원의 북문(장안문)을 중심으로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병감인 최창식 대령은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공병으로 하여금 북문을 파괴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박후준 중위 등이 명령에 따라 북문의 파괴를 위한 폭파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때 마침 안양에서 철수하여 동문을 지나던 수도사단장 이종찬 대령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아연실색하면서 만류하였다.

즉, 그는 “현시점에서 이 북문을 파괴한다고 하여 전술적으로 아군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귀중한 민족의 사적만을 인멸케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후일 민족의 지탄을 어찌 받을 것이나?”라고 말함으로써 공병감으로 하여금 그 폭파명령을 거두도록 종용하였다. 이에 수궁한 공병감은 동 명령을 취소하고, 그 대신 이 무렵에 일본에서 공수로 보급된 바 있는 대전차지뢰 20발을 동문의 주위에 매설토록 하는 한편 병력을 성벽 누상에 배치하였다.¹⁵⁹⁾

이리하여 북문을 저지진지로서 남겨놓고, 김홍일 소장 등 시흥사의 장병은 육군본부의 철수에 이어 이날(4일) 오후 늦게 수원시내를 빠져나가 남향 길을 재촉하게 되었다. 이윽고 적의 전차가 동문 가까이에 나타나 전차포를 휘두르게 되니, 성루에 남아있던 병력이 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그 저지선에서 철수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 공격을 서두르던 적 전차 2대가 지뢰를 촉발케 함으로써 두발의 폭성과 함께 그 전차가 노상에 파괴되었다.¹⁶⁰⁾ 이것이 적의 T-34 전차를 파괴한 대전차지뢰의 첫 노성이었다. 어쨌든, 피아가 큰 공방전을 치르지 않고 아군이 물러섬으로써 고도 수원도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적 전차부대들이 17:00경 수원으로 들어왔으며, 적 제4사단이 21:00경에 들어왔다.¹⁶¹⁾

한편, 금곡리 부근까지 진출한 적은 4일 날이 밝자 그들 전차가 한강 남쪽에 진출하였다는 것에 사기가 고무되었음인지, 사열중대로써 의기양양하게 풍덕천-수원도로를 따라 남하하고 있었다.

이에 그 곳에서 대기 중이던 제1사단은 북한군 제3사단 선두에 선 2개 대대 규모가 제13, 제12 양 연대간의 V자형 진지 안으로 깊숙이 진출하게 되자, 그 좌우에서 Cal 50 등 자동화기로써 일제히 측사를 퍼부어 그 일파를 일거에 섬멸함으로써 서전을 장식하게 되었다.

그러자 뒤따르던 적의 주력이 풍덕천 삼거리 남쪽의 제22연대 진지를 강습하여 동 진지를 돌파하였다. 적이 188고지로 진출하게 됨으로써 사단의 방어선에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였다.¹⁶²⁾ 이에 대해서 적 문서에 의하면, “격렬한 전투를 치른 결과 오후 5시 30분 무렵 적의 저항은 격파되었고, 제3사단은 199고지 선을 점령하면서 수원으로의 진격을 성공적으로 개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⁶³⁾

그리하여 오후 무렵에 들어서면서 전황이 다시 역전되어, 국군 제1사단은 병력과 화력의 우세를 믿고 밀어붙이는 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전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력을 다하여 풍덕천-수원간의 본도를 지키다가 적의 전차가 수원북쪽의 국도 상에 나타나게 되자, 육본을 뒤따라 평택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북한군 제3사단은 국군 제1사단의 선전으로 수원으로의 진출이 다소 늦어져 7월 5일 새벽 무렵에서야 비로소 수원 동남쪽에 집결할 수 있었다.¹⁶⁴⁾ 김양장 부근의 제8연대 제2대대는 이날 오전에 접적 없이 전날의 진지를 확보하고 있다가 이 역시 오산을 향하여 철수하였다.

3. 결 과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수원북방에서 적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하여 축차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적을 저지하였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인하여 결국 7월 4일 하루간의 방어전투 끝에 수원 이남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북한군 제1군단은 수원을 점령한 후 7월 5일 새벽부터 전차부대를 앞세운 제3, 제4 양 사단이 서로 선두를 다투면서 남진하였으며, 이때 제6사단이 예비로 후속하였다. 이때 적 제1사단은 배속 전환되어 수원선에서 용인으로 전진하여 제2군단을 따르도록 하고, 이천부근의 제2사단을 새로이 제1군단에 편성되었다.

육군본부는 차량으로 수원에서 평택에 집결하였으며 안양-군포장 사이에서 분산되어 각개로 철수하게 된 시흥사의 장병 일부는 서해안쪽으로, 일부는 국도를 따라 남하하고 일부는 풍덕천-오산도로를 따라 오산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도중에 오산부근에서 스미스특수임무부대를 만나게 됨으로써 용기를 얻어 그 곳에 함께 잔류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동일 오후 늦게 보급물자를 만재하고 육군본부와 함께 평택역에 도착한 화차가 있었는데, 미 공군기가 화차와 육본의 철수차량에 공습을 가함으로써 귀중한 보급물자를 폭염으로 휘감아 놓은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이 거듭되는 아군기의 오폭으로 말미암아 인명과 물자에 입혀진 손실이 적지 않았다.

국군 주력이 남쪽으로 철수하고 있을 무렵 중부전선에서는 국군 제6사단이 이천-여주-충주를 잇는 선상에서 북한군과 대치하고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펼치고 있었으며, 중동부전선에서는 국군 제8사단이 제천에서 단양으로 이동 중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평택에서 4일 밤을 지낸 육군본부는 미 지상군의 지원에 힘입어 다음날 전면적인 부대 재편성에 착수하여 전열을 가다듬게 되었다. 이로써 이제 전국은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되었다.

제 6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결과

한강선 방어작전은 서울이 실함된 이후 국군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3개 혼성사단(수도·제2·제7사단)이 한강 남안에 방어선을 형성하여 전차 1개 여단으로 증강된 북한군 제1군단 3개 사단(제3·제4·제6사단)의 공격을 6일간이나 방어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의 성격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이 작전은 6·25 전쟁 초기 사활이 걸린 방어작전이었다. 시흥사 예하 병력들은 서울을 점령한 적보다 열세한 병력과 장비로서, 유엔이 참전을 결의하여 미 지상군을 한국전선에 파병하기까지, 한강남쪽에서 북한군 주력부대의 남하를 거의 몸으로 저지하였다. 이 작전은 동해안의 제8사단과 중부전선의 제6사단을 제외한 국군의 거의 모든 부대가 사활을 걸고 방어에 임하였던 기간 중의 최대의 작전이었으며, 전쟁의 대국적인 흐름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이 작전은 한반도에서 가장 길고 큰 한강을 이용한 하천선 방어작전이었다. 국군은 수도서울을 빼앗긴 이후 한강의 천연장애물을 이용하여 적을 저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시흥사 예하의 병력들이 서쪽으로부터 양화교에서 영등포, 노량진, 신사리, 광진교까지 약 24km의 한강남쪽의 방어선을 형성하여 적을 저지하였다. 한강은 평균 강폭이 1km 수심이 3m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단히 양호한 장애물이었다. 국군은 하천이 주는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의 남진을 지연할 수 있었다. 도하장비가 미비한 적의 입장에서 도하하는데 많은 시간과 출혈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이 작전은 초기전투 시 큰 피해를 입으면서 일방적으로 밀렸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장병들에게 적을 저지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부여해준 작전이었다. 시흥사 예하병력들은 적의 도하 기도를 적극 저지함으로써 적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또 적 주력의 남진을 6일간이나 저지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적 전차에 대한 공포심이나 패전 의식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한강선방어작전을 통하여 얻은 작전 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으나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된다. 첫째, 이 작전을 통해 국군은 재편성 기회를 획득하게 되었다. 국군은 초기전투의 충격으로 한강이북에서 거의 부대가 와해되어 분산 철수하였으나, 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분산된 각 부대 병력들이 집결지로 모여 들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군은 부대를 재편성함과 아울러 제1군단 편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둘째, 이 작전으로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최초 미 군사고문단의 판단으로는 국군이 한강선에서 약 3일 정도만 지연시킬 수 있다면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시흥사 병력은 이 선에서 예상보다 오래 적을 저지함으로써 미 지상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였고 나아가 유엔군을 편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셋째, 국군은 북한군의 작전기도를 좌절시킴으로써 전체 작전에 큰 차질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북한군은 주공인 제1군단으로 정면 공격을, 조공인 제2군단으로 우회 공격을 기도하였으나, 한강방어선을 돌파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지연되어 수원이북에서 국군 주력을 섬멸하려던 그들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군은 한강선에서 많은 시간과 전투력을 소모함으로써 속전속결이란 초기의 작전계획을 수정하여 차기 작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한강선 방어작전에서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하천선방어에 대한 전술적 상황을 효과적으

로 조치하였다. 한강 차안에 대한 소규모 정찰부대 운용이라든지 국군 방어병력이 배치되기 이전에 한강 철교 대안에 대한 위력사격을 실시하여 적에게 위협을 가한 조치는 적이 쉽게 도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강선 제방을 중심으로 적의 도하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병력을 배치하여 방어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적은 병력으로도 최대한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둘째, 미군 공중 전력의 효과적인 활용이다. 미 공군의 조기 참전으로 적을 지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특히 한강선 방어작전 시기 차안에 집결한 적 병력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으로 적에게 많은 출혈을 강요하였고 적의 주간 도하 및 기동을 제한함으로써 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사리 방면의 적 제3사단의 경우 일부 보병병력이 일찌감치 도하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군 항공기의 공습으로 인하여 주간기동이 제한되고 또 중장비의 도하가 지연됨으로써 더 이상 남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셋째, 김포사의 성공적인 측방 방호이다. 김포사 병력은 열세한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도 북한군 정예사단 중의 하나인 제6사단을 맞이하여 성공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방어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은 오류동 일대에서 자연장애물을 이용하여 적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아군 주력의 퇴로가 차단되는 위기를 극복해 주었다. 제6사단은 예상외로 국군의 완강한 저항과 역습을 받아 계획보다 진출이 크게 지연되었다. 여기서 적을 방어하지 못하고 돌파되었다면 아군 주력이 배치된 영등포-노량진 일대가 위협받게 되고 결국 퇴로가 막혀 한강방어선도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넷째, 사령관 김홍일 소장의 탁월한 부대지휘와 김포사 예하 장병들의 감투정신 등이다. 김홍일 장군은 사령관에 임명됨과 동시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건재가 무너진 병력들을 조기에 수습하여 부대를 재편성하였고 또 신속하고 적절하게 부대지휘관을 임명함으로써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 이때 국군 장병들의 감투정신과 희생정신은 가히 경이적이라고 평가된다. 장병들은 탄약과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적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적을 방어하였다. 제8연대의 경우 하루에도 수차례 여의도를 통해 영등포

로 진출하려는 적 제4사단의 집요한 파상공격을 모두 물리쳤으며, 노량진 철교를 통해 적 전차가 도하하기까지 한번도 방어선이 돌파되지 않고 적을 저지하고 있었다.

2. 전투준비태세

남침 직후 김홍일 장군 등 원로들은 서울을 조기에 포기하고 천연의 장애물인 한강선에서 적을 저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수도서울의 정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한 육군 지휘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군은 적이 서울로 진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강선에서 적을 저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육군본부는 다급한 상황에서 시흥지구전투사령부(김홍일 소장)를 편성하여 강북에서 철수한 병력들을 강남에 집결시켜 한강선에서 적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당시 국군으로서는 미 지상군이 참전하기까지 최소한 3일간은 버텨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을 맞고 있었다.

시흥사는 즉시 시흥에서 병력을 수습하기 시작하였고 그 병력이 500명 선으로 채워지면 곧바로 혼성제○대대로 명명하여 한강선으로 투입하였다. 아울러 사령관은 새로이 한강 방어편성지역을 분담한 각 혼성사단으로 하여금 지역 내에서 도하한 병력을 수습하여 강안에 재배치토록 진지편성을 독려하였다. 특히 적이 교량을 이용할 것에 대비, 노량진을 방어하는 혼성제7사단에 우선권을 두고 혼성대대들을 투입하였으며, 각 사단도 제각기 책임지역내 나루터방어에 중점을 두고 방어편성을 서둘렀다.

당초 시흥사는 한강선 방어부대에 대한 모든 지휘책임을 맡게 되었으나 통신망의 미비로 혼성제7사단과 혼성수도사단만을 주로 지휘하여 노량진-영등포의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었고, 혼성제2사단은 가로막힌 관악산으로 인하여 사실상 육본에 의해 직접 지휘통제를 받고 있었다. 시흥사는 한강방어선 편성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당면한 노량진-영등포 방어에 중점을 둔 나머지 김포방면과 신사

동 방면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포사는 이 무렵 6개 대대 병력으로써 김포방면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한강선 방어부대의 지휘체제는 일사불란하게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흥사 예하 각 지휘관들은 이와 같이 지휘체제의 미비와 견제와 병과가 무시된 혼성병력으로는 역습이나 기습에 의한 조직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만 강에 연하여 병력을 배치하여 정면에서 도하 접근하는 적을 결사적으로 격퇴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서울 점령 후 제1군단 예하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 그리고 제3사단 주력으로써 한강도하를 서두르는 한편, 미군의 지원을 의식하고 적 제6사단으로써 경인가도를 차단, 영등포에서 방어선을 펴고 있는 아군의 좌측면을 위협하면서 인천항을 확보함으로써 미군의 지원수단을 봉쇄하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남침을 계속하는 데는 도하 준비와 아울러 서울 점령에 따른 정세 판단, 우발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의 모색 등 선택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므로 북한군의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는 자연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3. 전장기능별 분석 및 평가

1) 지휘통제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방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정황이 없었고, 다만 적의 주공이 노랑진 정면을 돌파하여 시흥-안양-수원의 경부국도로 지향되리라는 판단 아래 병력이 수습되는 대로 그곳으로 투입하는 상황이었다. 한강선은 국군이 적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국가존망이 걸린 만큼 생명선으로 부각되었다.

에당초 육본이 시흥사에 견제가 무시된 혼성병력만으로 한강방어선 방어임무

를 부여했다는 것은,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과중한 임무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시흥사의 지휘통제 면에서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

김홍일 소장 중심의 지휘체제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구축되었다. 시흥사는 일부 대대급 이하는 조직 편성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단장과 연대장의 임명을 통해 지휘통제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된다. 김 소장은 사령부 지휘소를 설치하고, 제7사단 참모장인 김종갑 대령을 참모장으로 하는 사령부의 참모진을 구성하여 한강방어임무를 총괄하였다. 이때 그는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과 전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 등 참모들을 수원에 있는 육군본부의 총참모장을 보좌하는 본연의 직책으로 복귀토록 조치하였다. 김 소장은 사령부 요원으로써 새로이 전열을 재편함으로써 지휘통제의 단일화를 기하는 한편, 유재홍 준장과 이종찬, 임선하 대령을 지명하여 양화교에서 신사리에 이르는 방어책임을 분담토록 한 다음, 대대규모로 혼성 편성된 병력을 즉시 한강선으로 추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시흥사는 통신장비의 부족 등으로 생긴 문제를 전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극복해 나갔고, 주요 적의 도하예상지점 위주로 병력을 배치하여 지휘력을 집중시켰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 시흥사는 불리한 전쟁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각 예하사단들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강이라는 자연장애물을 심분 활용하여 방어작전을 수행하였고 또 열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역습을 실시함으로써 적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연시켰다고 평가된다.

2) 정 보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적의 도하능력이나 도하계획을 분석하는 능력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시흥사는 한강을 도하하려는 정면의 적이 어떤 부대이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을 방어하였으며, 또한 예하 각 사단이 인접부대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전투를 수행하였다.

비록 시흥사 예하부대들은 정면의 적정에 관한 첩보수집이나 정찰대를 운용하여 적의 도하징후와 기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수준에 그쳤다. 각 부대는 차안에서 피난민들을 통제하여 적정을 수집하거나 대안에까지 소규모 정찰대를 투입하였으나 정보 분석능력이 미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시흥사 예하 부대들은 한강이라는 하천정보나 지형정보 면에서는 적보다 우위에 있었다. 시흥사 예하부대들은 지형에 익숙한 부대들을 우선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이들은 지형, 하천, 도로 정보 면에서 익숙하여 작전에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작전 간에 운용된 항공정찰이나 각 부대의 정찰대는 적시에 적의 기동을 파악하였고 부분적인 전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반대로 적정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전체 전황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적정보로 인해 미 전방지휘소, 군사고문단, 대사관 그리고 대공포대 등이 대전으로 철수함으로써 결국 “1일까지 수원비행장을 확보하여 지상군의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고, 수원에 도착하기로 되었던 스미스부대의 착륙지를 부득이 부산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스미스부대가 7월 1일 부산에 도착하여 4일야 오산 북쪽에 진지를 점령하게 되어 3일간의 시간을 부산-오산 도로상에서 허비하게 되는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3) 기 동

육군본부와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부대건제를 무시한 채 도착하는 대로 대대단위 또는 그 이하 단위로 투입한 측면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지휘 및 통신체계는 말할 것도 없고, 뚜렷한 목표와 임무도 받지 못한 부대들이 무작정 투입되었으니 이들의 전투력의 발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사 각 혼성사단들은 당시 하천선 방어 교리가 없었지만 주요 도하예상지점에 병력을 집중 운용하여 배치함으로써 최대의 방어효과를

달성하였다. 병력의 집중운용은 어떠한 작전에서도 한 부대의 전투력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집중시킴으로써 우세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쟁의 원칙에 근거한다.

또한 시흥사 예하 각 사단과 연대는 충분한 예비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부분적으로 역습을 실시함으로써 전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장비와 병력의 열세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모한 역습을 실시함으로써 큰 희생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 예컨대 시흥사는 김포사에 비행장 탈환명령을 부여한 것은 부적절한 역습명령이었다고 분석된다. 화력과 병력이 절대적으로 열세한 상황에서 비행장 역습을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은 임무의 과중일뿐더러 적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결과로 분석된다. 제7사단의 경우도 부적절한 역습부대를 운용하여 큰 손실을 자초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병력 운용면에 있어서 육군본부가 사관생도들을 전장에 투입한 것은 실책중의 하나였다.

4) 화 력

시흥사는 예하 혼성사단으로 진지 배치를 일단 완료하였으나, 혼성사단이 이름만 사단이지 병력은 1개 연대 규모에 불과하였다. 당시 국군 주력은 교량을 이용할 수 없어 야포, 차량, 박격포 등 중장비를 이동시키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한강선에 배치된 최일선 전투부대의 화력은 공용화기로 연대당 고작 박격포 2~3문, 기관총 5~6정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항공화력 면에서는 적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다. 아군은 미 공군의 조기 참전으로 제공권을 장악하였으며, 적 집결지와 보급품에 대해 대대적으로 폭격하였다. 비록 한강선에서 근접 항공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한강대안의 적 집결지 등에 대해 집중 폭격함으로써 적의 기동을 크게 제한하였다.

또 각 부대는 부족하나마 화력 지원계획을 사전에 수립함으로써 역습에 부분적으로 성공하였다.

한편, 시흥사는 노량진 방면에 대전차 방비책이 미비하였음이 지적된다. 방어

선을 편성할 때 대전차호를 구축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전차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였으며, 대전차특공대와 같은 적 전차 파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적 전차가 불시에 노량진에 들어섬으로써 이때까지 진지를 결사 고수코자 하였던 장병들의 의지가 순식간에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그 전차에 대응할 대책을 찾지 못한 까닭에서였다.

5) 방 호

시흥사 예하 각 부대는 한강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대안의 적의 포격으로부터 쉽게 큰 피해를 입었다. 적의 포격으로 유무선 기재가 파손되어 인접 및 상급부대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유희병력이 발생하고 단일전선에서 싸우는 아군을 상호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통합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지원부대에서 지원부대를 엄호 및 경계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철수 시에도 상호 연락을 하지 않고 철수를 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으로 교량폭파의 문제이다. 공병은 한강교량을 폭파하였으나 5개의 교량 중 경인상행선과 경부선 철교를 완파하는 데 실패하였다. 경인상행선은 그 후 미 공군에 의해 재차 파괴되었으나 경부선 철교는 마지막까지 파괴되지 않고 방치되어 적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적의 입장도 전차 도하에 별다른 방도가 없었으니만큼 철교의 확보는 작전상 긴요한 문제였다.

당시 북한군이 도하작전시 주로 나룻배나 뗏목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다른 도하장비가 대단히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교량의 폭파 문제는 작전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였다. 당시 폭파계획을 완성할 때까지 미 고문관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협조와 지도를 받게 되었으나 공병으로서는 기술이 낮은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제원산출에서나 혹은 폭약의 장전 작업과정에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또한 교량폭파에 대한 사전 계획이 미비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었다.

다음 아군기 오폭에 대비한 대책 문제이다. 한강방어선에서 적을 저지한 것은

시흥지구사의 예하병력들의 역할이 지대하였으나 미 항공지원의 역할 역시 대단히 컸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작전 간에 피아를 분간하지 못한 오폭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당시 육군이나 군 지휘부에서 미군에 이러한 사실을 협조한 것이나 오폭을 피하기 위한 지침이나 요령을 하달하지 않은 것은 실책이었다고 분석된다.

이렇듯 미군기들이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 까닭은 당시 동경의 미극동군의 정보담당자에 의하면, 일부의 조종사들이 한반도의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 한강이 북의 적 집결지를 폭격하는 과정에서 금강을 한강으로 오인한 경우가 있었고, 또 지명을 잘못 해석하여 작전에 입함으로써 그 같은 오폭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연합작전 및 평시훈련의 중요성을 크게 일깨워주는 교훈이었다.

6) 전투근무지원

시흥사는 민간인을 동원하여 안양과 시흥의 두 곳에 취사장을 설치하고, 집결되는 병력에 대한 급식과 재편을 병행하였다. 시흥사 예하부대들은 각기 서울시민들, 청년단체, 부녀회 등의 지원을 받아 부상병의 응급처치와 후송, 보급추진, 그리고 피난민통제 등을 실시하였으나 병력수송 및 보급, 그리고 지휘체계 상에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군수 면에서 국군이 직면하였던 실정은 더욱 어려운 상태였다. 시흥사는 한강교 폭파로 각 사단에 지급될 보급품을 실은 1,318대의 차량들이 전부 한강북쪽에 갇혀 적의 수중으로 넘어감으로 인해 보급품과 보급차량의 부족을 실감해야 했다.

한강 남안에서는 적절한 교통통제소의 부재로 인하여 후방지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통신망의 두절로 상하는 고사하고 인접부대와의 연락마저 곤란하여 지휘계통 및 협조체제가 원활치 못하였다. 서울-수원간 국도에서는 군과 경찰이 피난민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었으므로 모든 도로상의 군 수송작전이 방해를 받고 있었다.

주 (註)

- 1) 당시 한강에는 하중리, 마포, 서빙고, 한남동, 뚝섬, 광나루 등 여섯 개의 나루터가 있었으며, 각 나루터에는 몇 척의 작은 목선이 있었다.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1985, p. 299.
- 2)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Government Printing Office,1961), pp. 203-204
- 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 176.
- 4) 북한은 1950. 6. 28. 11:30 김일성의 이름으로 '우리 조국의 수도 서울의 해방에 제하여'라는 제목에 '인민군대와 서울 시민에 보내는 축하연설'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37.
- 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38. 조선노동당 서울지도부 산하에 민주청년동맹, 여성동맹, 그리고 직업동맹과 농민동맹 및 문화단체총연맹 등의 적색 사회단체를 규합하였다.
- 6) 위의 책, p. 642.
- 7) 북한은 서울점령 직후 『서울신문』을 『조선인민보』라는 북한 기관지로 1950년 7월 1일에 그 첫호를 발간하였으며, 노동당 기관지인 『해방일보』를 서울에서 발간하는 한편, 지방 신문을 접수하여 도당기관지인 『○○도일보』라는 것으로 발행하였다.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40.
- 8) 북한군은 서울에서의 위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6월 30일 군단 예비부대인 제13보병사단을 투입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 169.
- 9)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13-116.
- 10)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상)』, pp. 450-454.
- 11) HQS 8th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Historical Manuscript File, Call No.8-5, Vol.4, 1954(unpublished), p. 16. 개전후 3주 동안은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군수지원은 주로 미 군사교문단의 소요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 1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13-116.
- 13) 기존의 한국전쟁사에는 북한군 제14연대로 기술되어 있으나, 적 문서인 라주바에프 보고서에 근거하여 제13연대로 수정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p. 168-169.
- 14)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 303.
- 15) 북한군은 전차를 도하시키기 위해 교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경부선 철교를 보수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조국해방전쟁사 1』(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 142-143.
- 16)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한 이후 3일간을 지체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 소련 군사교문단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각 사단장들은 서울에서 퇴각하는 적을 적극적으로 추격하거나 한강 도선장 등을 점령하지 않은 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모호하게 행동하였다. 또한 제105전차여단 예비부대들도 서울을 점령한 후 3일 동안 적을 추격하지 않은 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적에게 한강 남쪽 강변을 강화할 여유를 주었다"고 비판하였다. 『라주바에프 보고서』 제1권, pp. 166-167. 소련 교문단들은 "서울을 점령한 후 각 부대가 행한 극단적으로 완만한 행동과 개별부대 지휘관들의 임무유기로 인하여 적은 한강을 도하하고 교량을 파괴하였으며 남쪽 강변에 방어선을 조직하여 인민군의 진격을 늦출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자료,

- p. 183. 서울 점령 당일 적 제4사단은 문산 방면에서 철수하는 국군 제1사단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서북방에 저지선을 구축하였으며, 제3사단과 제105전차여단, 제17군단 포병연대는 한강도하를 하기 위해 부대정비에 임하고 있었다. 위의 자료, p. 302.
- 17) 위의 자료, p. 171.
 - 18) 국군 제3사단 공병대대의 경우 28일 뗏목 2개를 만들어 차량 12대를 비롯하여 모든 병력과 장비를 도하시킨 경우도 있었다. 박기석, 『정암유석』, 제일기획, 2000, pp. 106-107.
 - 19) 당시 한강에는 하중리, 마포, 서빙고, 한남동, 뚝섬, 광나루 등 여섯 곳의 나루터가 있었으며, 그 중 한남나루터는 가장 규모가 커서 자동차의 도하도 가능하였다. 각 나루터에는 몇 척의 작은 목선들이 있었다.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1985, p. 299.
 - 20) 8086th AU(FEC), Military History Detachment,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1956 (Unpublished),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No.914, pp. 4-5.
 - 2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구권), p. 710.
 - 22)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극동군 주한 전방지휘 및 연락단(Advance Command and Liasion Group in Korea, GHQ)’이다.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43.
 - 23) 박경석, 『오성장군 김홍일』, 서문당, 1984, pp. 437-438.
 - 24)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304-305.
 - 25) 여의도 돌다리를 제한점으로 우측은 혼성제7사단이, 좌측은 양화(안양천)까지를 혼성수도사단이 맡았다. 혼성수도사단장 이종찬 대령 증언(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 26)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이 수원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되어 수원에서 낙오병을 수습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쟁사』, p. 346.
 - 27)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상)』, 1970, p. 447. 부대단위별 총포현황은 보병 1개 연대에 겨우 소총이 약 300정, 경기 및 중기가 65정에 불과하였다. 대전차포와 곡사포는 제6사단과 제8사단에서 도합 30문을 보유하고 기타 사단은 전무하였다.
 - 28)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한국전쟁사』, 일신사, 1988, p. 252.
 - 2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703.
 - 30)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257-296.
 - 3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80.
 - 32) 군사편찬연구소(역), 『라주바예프보고서』 제1권, p. 173. 6월 28일 06:00 북한군 제6사단은 포병의 지원 하에 김포를 공격하였으며 10여 시간의 전투 끝에 시가지를 장악하였다. 저녁 무렵 제15연대가 전차와 자주포의 지원 하에 비행장을 점령하였다.
 - 3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79-680.
 - 34)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275.
 - 3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82. 각 부대의 공격목표는 늘언리, 안오쇠, 장산으로 결정되었으며, 공격개시선은 106고지-신월리였다. 기갑연대 1개 중대는 공격부대를 화력으로 일방 지원하다가 의명 48번 도로로 진출하여 국군 제1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였다.
 - 36)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277.
 - 37) 이 시각 제19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7대가 500파운드의 폭탄을 김포기지를 성공적으로 폭격하였고, 2대가 서울역을 폭격하였다. 제10장 공군작전 참조.
 - 38)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277.
 - 39)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280-281. 최복수 중령은 일본 육사 58기로 졸업하여 소위 임관한 후 일본 정보학교인 나카노 학교를 졸업한 후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는 광복이후 귀국하여 육사 특입7기로 임관한 후 남산정보학교에서 교관을 역임하였다.

- 40)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280.
- 41)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281.
- 42)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277.
- 4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84.
- 44) 임충식 중령은 지원병 1기 출신이며 광복 후 귀국하여 육사 1기로 임관하였다.
- 45)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283-284.
- 46) 위의 책.
- 4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89
- 48)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285-286.
- 49) 위의 책, p. 287.
- 50) 위의 책, pp. 289-291.
- 51)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290.
- 52)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291.
- 53)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293.
- 54) 신입 사령관이 부임 초에 그의 전술지휘소를 북한군과의 접촉지역으로부터 불과 3km밖에 안 되는 철산리에 설치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사-오류동방어선을 고수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조치였다.
- 55) 김포사는 이 무렵부터 비로소 시흥사의 통제 하에서 협조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다. 「시흥사 김홍일소장이 ○○에게」(1950.7.1. 16:00), Murzin 보고서, p. 54.
- 56)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293.
- 57) 「시흥사 정보참모가 육본 정보참모에게」(1950.7.2. 12:20), Murzin 보고서, p. 60.
- 58) 제18연대 제3대대 백찬섭 하사 증언(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 5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97.
- 60)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294.
- 6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97-698.
- 62)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295.
- 63) 한국 정부와 국회는 6월 27일 수원, 29일 대전으로 각각 이동하였고, 7월 8일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국방부, 『한국전란 일년지』, 1951, p. A74.
- 64) 북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40; 북한군은 제2군단이 춘천 조기점령에 실패하여 수원으로의 우회기동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작전의 차질을 초래하였다.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1984, p. 346.
- 65)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7월 5일 최고사령관 명령 제5호로써 서울시내에 제일 먼저 돌입한 제3, 제4사단에 '서울사단'의 명예칭호를 부여하였으며, 제105전차여단에도 사단승격과 동시에 '서울사단'의 명예칭호를 주었다.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제25권, p. 128.
- 66)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 303.
- 67) 북한군 제766부대는 총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동해안 교두보 확보 및 후방교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FEC G-2,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 5*, 1952(unpublished), p. 60.
- 68) 당시 한강에는 하중리, 마포, 서빙고, 한남동, 뚝섬, 광나루 등 여섯 개의 나루터가 있었으며, 각 나루터에는 몇 척의 작은 목선이 있었다.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1985, p. 299.
- 69)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상)』, 1970, p. 447. 부대단위별 장비현황은 보병 1개 연대에 겨우 소총이 약 300정, 경기, 중기관총이 65정에 불과하였다. 대전차포와 곡사포는 제6사단과 제8사단에서 도

- 함 30문을 보유하고 기타 사단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 70)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03.
 - 71)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292-296.
 - 72)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304-305.
 - 73) 여의도 돌다리를 제한점으로 우측은 혼성제7사단이, 좌측은 양화(안양천)까지를 혼성수도사단이 맡게 되었다. 혼성수도사단장 대령 이종찬 증언(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 74) 김상덕, 『7일간의 한강방어』, 국방군사연구소, 1998, p. 51.
 - 75)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309-310.
 - 76)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305-306.
 - 77)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03.
 - 78) 장택상씨 별장, 현재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고목나무와 집터만이 그때의 모습을 갖고 있다. 위치는 노량진 수산시장 안의 '별장횃집'이 들어서 있는 자리이다.
 - 79) 제1공병단 임재완 소령 증언(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 80)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308-309.
 - 81)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27.
 - 82)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28.
 - 83) 박경석, 『오성장군 김홍일』, 서문당, 1984, p. 376. 박경석 은 맥아더 전선시찰 상황에 대해서 김홍일 장군으로부터 직접 증언을 들었다고 하였으며, 제8연대 부연대장 이현진 중령도 김홍일 장군이 맥아더 원수 일행을 안내했다고 증언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제1권, 2003, p. 583.
 - 84)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참모장 김중갑 대령 증언(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 85) 박경석, 『오성장군 김홍일 장군』, 서문당, 1984, p. 377.
 - 86) 제18연대는 제1대대 제3중대(김상덕 대위)가 마포로 도하하여 28일 오후 양화나무의 돌출고지(현 인공폭포) 일대에 독자적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김상덕, 『7일간의 한강방어』, 국방군사연구소, 1998, p. 51.
 - 87)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12.
 - 88)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312-313.
 - 89) 이 폭격으로 북한군의 경부선철교에 작업 중이던 교판이 모두 파괴되었다. 제10장 공군작전 참조.
 - 90)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18.
 - 91)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324-325; 적은 한강교량에서 노량진으로 도하하여 접근하였으며, 흑석동 고지에 배치되어 있는 국군이 포격으로 저지하였다. 『방첩대장이 정보참모에게』(1950.6.30. 09:15), Murzin 보고서, p. 45.
 - 92) 이날 야간 노량진 방면으로의 적 일부의 도하로 인해 국군 제7사단은 한때 적정을 오판하는 등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다. 『시흥사 정보참모가 제7사단에게』(1950.6.30. 03:40), Murzin 보고서, p. 33.
 - 93)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21; 이날 적은 노량진 방면으로 3번 도하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격퇴되었다. 『김홍일사령관이 정보참모에게』(1950.6.30. 05:15), Murzin 보고서, p. 42.
 - 94)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28.
 - 95)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28.
 - 96)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14.
 - 97) 제8연대장 서종철 중령 증언(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 98)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25; 이날 08:20 L-4 1대가 이 일대를 정찰하던 도중 피격되었고 조종사는 전사하였다. 「시흥지구사 신중령이 육본 작전참모에게」(1950.6.30), Murzin 보고서, p. 49.
- 99) 「시흥지구사 신중령이 육본 작전참모에게」(1950.6.30. 17:00), Murzin 보고서, p. 41.
- 100)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22; 제10장 공군작전 참조.
- 101) 이 무렵 적 1개 중대병력이 흑석동 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적 1개 대대규모가 한강교 양쪽 진지를 점령한 상황에서 아군 진지로 포격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 정보참모에게」(1950.6.30), Murzin 보고서, p. 45.
- 102) 기존 공간사에 의하면, 공격시간이 30일 08:00로 기록되어 있으나, 적의 보고서에 의하면 새벽에 도하를 감행하였다.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 168.
- 103)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30.
- 104) 「총참모장이 제7사단장에게」(1950.6.30. 05:00), Murzin 보고서, p. 41; 「총참모장이 제2사단장에게」(1950.6.30. 05:07), Murzin 보고서, p. 33.
- 105) 「시흥지구사령관이 총참모장에게」(1950.6.30. 09:25), Murzin 보고서, p. 45. 결과적으로 이날(30일) 10:11 아군 폭격기가 서빙고를 포함한 한강대안의 적 집결지에 폭격을 감행하였다. 「시흥지구사 신중령이 육본 정보참모에게」(1950.6.30. 12:50), Murzin 보고서, p. 46.
- 106)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 168.
- 107) 이 무렵 총참모장은 제2사단장에게 서빙고와 독도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진지를 고수하도록 강조하였다. 「총참모장이 제2사단장에게」(1950.6.30. 08:35), Murzin 보고서, p. 43.
- 108)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330-331.
- 109)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31.
- 110) 제5사단장 이용준 소장이 수원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되어 수원에서 낙오병을 수습하였다.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p. 346.
- 111)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314-315.
- 112)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26.
- 113)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23.
- 114) 위의 책.
- 115) 당시 북한군 공병부대가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교량을 복구하였다.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 168.
- 116) 북한군 제105전차여단 기계화연대는 7월 1일 교두보 확보 작전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적 문서에 의하면, “기계화연대는 이날 도하작전에서 병력의 약 35%가 전사 혹은 부상당하였다”고 한다.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p. 168-169; 제10장 공군작전 참조.
- 117)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31.
- 118)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p. 168-169.
- 119)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32.
- 120) 제10장 공군작전 참조.
- 121)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34.
- 122)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335-337.
- 123)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37.
- 124) 위의 책, p. 338.
- 125) 위의 책.

-
- 126) 제10장 공군작전 참조.
- 127)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316-317.
- 128) 『방첩대장이 정보참모에게』(1950.7.2. 07:55), Murzin 보고서, p. 59.
- 129) 『○○이 ○○에게(미확인)』(1950.7.2. 22:00), Murzin 보고서, p. 63.
- 130) 『시흥지구사 김홍일 소장이 총참모장에게』(1950.7.2. 07:20), Murzin 보고서, p. 59. 김홍일 소장은 제7사단 측면의 적의 위협을 제거해 줄 것을 긴급 요청하였다.
- 131) 『○○가 ○○에게』(1950.7.2. 22:00), Murzin 보고서, p. 63.
- 132)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32.
- 133) 북한군 제3사단 제9연대는 국군으로부터 역습을 받아 공방전을 치열한 전개하였으며, 제9연대는 국군의 기습적인 측방공격에 의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 169.
- 134)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p. 68-169.
- 135)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33.
- 136)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40.
- 137) 김홍일 소장은 이날 아침(시간 미상) 한강방어선에 배치된 2개 사단과 김포사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통신장비의 미비로 전방 각 부대까지 전달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11:00가 되어서야 비로소 철수를 개시하는 부대도 있었다.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41.
- 138) 혼성제7사단 제1연대 혼성대대 부대대장 김상훈 대위 증언(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 139)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42.
- 140) 『수도사단장이 시흥사령부에게』(1950.7.3. 07:00), Murzin 보고서, p. 67.
- 141) 북한군 제4사단 및 제105전차여단 주력은 7월 3일 야간에서야 도하하기 시작하였고, 북한군 제4사단 제18연대, 제5연대는 한강을 도하하여 서북방에서 진출한 제6사단 예하부대들과 합동으로 영등포를 점령하였다.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p. 168-169.
- 142)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1950년 7월 5일 최고사령관 명령 제5호로써 서울 시내에 제일 먼저 돌입한 제3, 제4사단에 '서울사단의 명예칭호를 부여하였으며, 제105전차여단에도 사단승격과 동시에 '서울사단의 명예칭호를 주었다.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조국해방전쟁사1(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28.
- 143)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8호(1950. 7. 3).
- 144)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43.
- 145) 『김찬국이 정찰고문에게』(1950.7.2. 08:35), Murzin 보고서, p. 59. 7월 2일까지 수원비행장에는 국군을 지원하는 미 항공기들이 간헐적으로 이착륙하였다.
- 146)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8호(1950.7.3. 08:00).
- 147)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343-345.
- 148)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45.
- 149)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46.
- 150)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 173.
- 151) 위의 자료. 북한군 제2사단은 도하장비의 부재로 인하여 야포와 자주포 등 중장비의 도하가 지연되어 이날(2일) 비로소 도하를 완료하여 보병부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152) 위의 자료, p. 315.
- 153) 위의 자료.
- 154)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 185.

- 155)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 345.
- 156)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 171.
- 157) 7. 4. 10:00 아군 항공기들이 안양 앞의 적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였다. 『육본 정보참모가 제7사단장에게』(1950.7.4. 11:57), Murzin 보고서, p. 71.
- 158)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pp. 346-347.
- 159) 이 무렵 미군은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기 위한 한국군 및 미 전방지휘소의 긴급 요청에 따라 대전차지뢰 등을 일본에서 긴급 공수하여 지원하였다.
- 160) 이러한 내용은 적 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즉, 적 문서에 의하면, “수원으로 퇴각한 적은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교량을 파괴하였으며 대전차포를 매복시키기 시작하였다. 적의 저항에 의해 전차 2대가 지뢰 때문에 파괴되었고 1대가 대전차포에 의해 파괴당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 171.
- 161) 위의 자료.
- 162) 적 문서에 의하면, 적 3사단 예하부대들은 포병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에 공격을 전개하였고, 격렬한 전투를 치른 후 17:30분 무렵 적의 저항을 격파하였다고 하였다. 『라주바에프보고서』 제1권, p. 169.
- 163) 위의 자료, p. 170.
- 164) 위의 자료, 수원은 1950년 7월 4일 20:00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에 의해 점령되었다.



제 4 장 국군의 재편성과 유엔군의 창설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국군의 재편성과 전선 조정
제 3 절	한미 연합작전과 합동작전
제 4 절	유엔군사령부의 창설과 지휘체계 수립
제 5 절	국립경찰의 지휘체계 정비
제 6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개 요

이 장에서는 한강방어선이 붕괴된 후 단행되었던 국방체제상의 변동으로부터 미군과의 연합 및 지연작전을 위해 실시하였던 국군의 재편성 과정, 국군과 미군과의 연합 및 합동작전 체계, 유엔군의 창설과 지휘체계, 그리고 전시하 국립경찰의 정비와 활동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국군이 어떻게 체제정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전방부대의 전선(戰線) 조정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아울러 후방지역에서의 병력동원 및 후방치안을 목적으로 영호남(嶺湖南)지역에 설치된 편성관구사령부(編成管區司令部)의 설치 배경과 실체, 그리고 군의 작전에 협조하면서 일면전투(一面戰鬪)를 하면서 일면 치안을 유지해야 했던 국립경찰의 활동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때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7월 8일 비상계엄령의 선포에 따라 설치되었던 계엄사령부의 기능과 편성도 포함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한반도의 작전을 책임지는 현지사령관으로서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이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그의 작전개념, 7월 1일 미 극동군사령부의 전방지휘소 겸 연락단장인 처치(John H. Church) 준장과 육·해·공군총사령관에 새로 임명된 정일권(丁一權) 육군 소장간의 한미연합작전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한미연합전선에 관한 내용,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유엔군사령부의 창설과 이에 따른 지휘체계, 그리고 육·해·공군간의 합동작전 체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군과 유엔군의 연합 및 합동작전 개념, 유엔군사령부의 성격과 한국군과의 관계, 그리고 한미연합작전 개념과 지연작전을 위해 형성되었던 국군과 미군의 전선조정 및 배치 등에 대해서도 조명해 보았다.

국군의 재편성 과정에서는 기존의 육군 위주에서 탈피하여 해군과 공군의 재

편성 및 전력증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육군은 한강방어선이 붕괴된 이후 약화된 사단 및 연대를 재편성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는 개전 당시 8개 사단·2개 직할연대에서 5개 사단 3개 직할연대로 축소·감편되는 내용과 지휘관의 면면에 대해 고찰하였다. 육군에서는 전쟁 발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육군본부와 사단 사이에 군단사령부를 편성하여 경부축선의 이서(以西)를 담당하는 미군과의 연합 작전을 위해 제1군단을 창설하였다. 군단 창설은 창군 이래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동안 육군본부가 8개 사단 및 전투근무지원부대, 그리고 학교기관을 직접 통제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육군은 7월 8일 계엄령 선포에 맞추어 계엄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전라남북도 지역에 전북편성관구사령부와 전남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여 후방방어와 해편(解編)된 부대의 재건을 위한 병력동원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 후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던 영남지역에도 편성관구사령부가 설치되었다. 나중에 영남편성관구사령부는 경남편성관구사령부와 경북편성관구사령부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들 영남과 호남에 설치되었던 편성관구사령부는 8월 중 대구방위사령부에 모두 편입됨으로써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해군과 공군도 편제를 정비하고 전력을 강화해 나갔다. 해·공군도 지연작전 기간 중 편성 및 전력증강 면에서 변화를 보였다. 해군은 개전 당시 1개 통제부와 5개 경비부, 그리고 4개 정대(艇隊) 체제에서 전쟁 발발 후 북한군이 점령하게 된 경비부와 정대를 남해안에 있는 해군 경비부로 이동시켜 운용하였다. 또한 해군은 부산에 항만방어사령부를 설치하여 항만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해군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미 해군과의 원활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공군도 F-51 전투기 도입에 따라 비행단 및 정찰비행대,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근무지원부대로 편성되어 그 체제를 전투에 적합한 구조로 일신해 나갔다.

한편 한·미군 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미군은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을 담당하게 되었고, 국군은 그 이동(以東)에서 동해안까지의 전선을 담당하여 지연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스미스부대가 평택-안성에 전개한

7월 4일,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병력이 수원에서 철수하여 평택 남쪽으로 집결하는 상황을 맞게 되자 이 부대들로 제1군단을 창설하는 등 육군병력을 전반적으로 재편성하여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였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6·25 결의'와 '6·27 결의'의 후속조치로 유엔군사령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된 '7·7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그리고 유엔안보리는 유엔군사령부 설치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미국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 장군을 임명하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창설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7월 10일 국제연합장교단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국군과 유엔군 및 유엔 한국위원단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분석 및 평가에서는 국군 재편성의 의미와 의의, 그리고 한미연합작전 및 합동작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작전이 지연작전에서 갖게 되는 의의를 되새겨 보고 그 교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제 2 절 국군의 재편성과 전선 조정

1. 전시하 국방체제의 변동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은 정부와 국회는 1950년 6월 27일 수원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한강방어선이 붕괴될 상황에 이르러 정부는 6월 29일 대전으로 다시 이동하였다. 이처럼 전선 상황은 국군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 때에 이르러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개전 초기의 패전 책임을 물어 6월 30일 채병덕(蔡秉德) 육군총참모장을 경질하고, 정일권(丁一權) 준장을 소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총참모장 겸 육·해·공군 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¹⁾ 이에 따라 육군총참모장은 육군을 관장하면서 해·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상황은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유엔에서 2차례에 걸쳐 한국의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한강방어선을 시찰한 후 미국은 지상군 참전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스미스특수임무부대(Task Force Smith)'가 선견대로 한국에 파견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때 이승만 대통령도 7월 4일 특별방송을 통해 그간의 전쟁 경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민주우방의 원조에 감사를 표하면서 난국을 타개할 국민들의 쉼기를 촉구하였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7명으로 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정치공작 및 외교·군사·식량·정보 등 각 분야에 걸친 긴급조치를 추진하였다.²⁾ 이처럼 한국은 미 지상군의 참전과 보조를 맞추듯 전쟁수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먼저 한국 정부는 1950년 7월 8일 전쟁이 발발한지 14일 만에 대전에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³⁾ 당시 계엄령의 적용을 작전지역으로 국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제외한

것은 계엄령 선포 당시 이 지역을 아직 군사 작전지역으로 판단하지 않은 듯 하다.4) 비상계엄령의 선포로 육군총참모장 겸 육해공군총사령관인 정일권 소장이 계엄사령관을 겸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육군은 육군본부와 군단에 민사부(民事部)를 설치하였고,5) 육군 사단과 해군의 통제사령부에는 민사과(民事課)를 두어 민사 및 계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6) 육군본부는 작전에 수반되는 대민 관계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7월 9일 민사부를 설치하였고, 8월 10일에는 부산과 마산지구에 부산지구계엄사령부와 마산지구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하의 사법·행정에 속하는 계엄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7)

또한 한강방어선이 붕괴되고 미군의 참전으로 한미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전선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육군은 군단 창설과 사단 재편성, 그리고 후방에서 병력 충원 및 후방전투임무 수행을 위한 편성관구사령부(編成管區司令部)를 설치하게 되었다.8) 해군은 전쟁 당시 5개 경비부(警備府) 가운데 인천 및 목호경비부가 철수하였고, 부산경비부는 해군본부의 부산 이동으로 해체됨으로써 군산 및 포항경비부만 활동하게 되었다.9) 공군은 총참모장이 비행단장을 겸임하면서 정찰비행대와 근무부대를 창설하여 재편성을 단행하였다.10)

특히 국방부는 국군과 미군간의 연합작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7월 7일 유엔 군사령부의 창설을 계기로 7월 10일 국제연합장교단을 창설하여 국군과 유엔군 및 유엔 한국위원단과의 연락(외교업무 제외)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11)

위와 같이 정부는 전쟁 초기 실시하지 못했던 국방체제를 비상계엄령 선포로 완전한 전시체제로 전환하였고, 국군도 한강방어선 붕괴에 따라 재편성을 단행하여 부대편성 및 지휘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였다. 또 미국의 지상군 파병 결정에 따라 한미간에는 한미연합전선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한미연합 작전을 수행해 나갔다.

2.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설치

정부는 전시하의 작전수행을 적극 협조하기 위해 1950년 7월 8일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¹²⁾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계엄법에 근거하여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64조¹³⁾ 및 계엄법 제1장(계엄의 선포)의 제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엄을 선포하였다.

계엄법 제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제하여 병력으로써 군사상이나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히 경비에 필요한 지역을 구획하여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 “대통령은 전항에 의하여 계엄의 선포를 할 때에는 그 선포의 이유,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

따라서 7월 8일 계엄령 선포시 대통령은 계엄법에 의거 선포의 이유는 “북한의 전면적 불법 무력 침구(侵寇)에 의하여 군사상의 필요와 공공(公共)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하였다.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¹⁵⁾으로서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정일권”을 임명하였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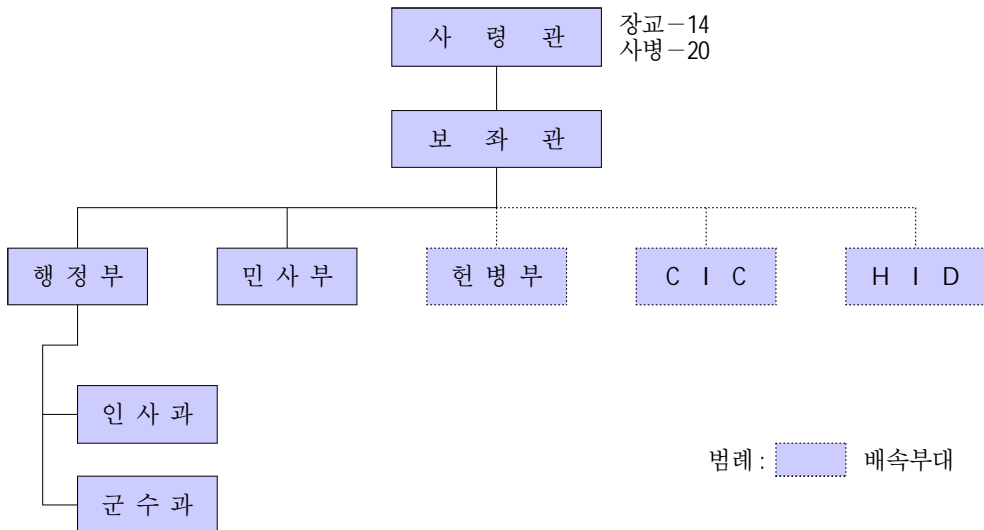
정부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인 정일권 육군 총참모장은 7월 8일 “포고 제1호”를 발령하였다. 포고 제1호에서 계엄사령관은 “국내의 모든 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과감한 작전수행을 도모하고 신속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및 계엄법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다.¹⁷⁾ 이승만 대통령도 7월 15일 ‘계엄선포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전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는 담화문에서 “작전지역에는 계엄령을 선포 하였으니 관민(官民)을 막론하고 말을 삼감으로써 무근(無根)한 풍설(風說)로 민심을 동요시키거나 국방치안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¹⁸⁾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계엄법은 규정하고 있다.¹⁹⁾ 이 때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해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단,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²⁰⁾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게 될 육군본부는 작전에 수반되는 대민 관계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7월 9일 민사부(民事部)를 설치하였다. 국방부 일반명령에 의해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계엄사령관 밑에 보좌관을 두었고, 참모부는 행정부와 민사부로 편성되었고, 지원부서인 행정부는 인사과와 군수과를 두었다. 또한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배속부대로는 헌병부, 방첩대(CIC), 첩보부대(HID)가 있었다.²¹⁾ <표 4-1>은 계엄사령부의 편성표이다.

이 중 민사부는 비상계엄령 선포로 작전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민·군 간의 긴밀한 협조와 기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민사부는 육군의 각 사단과 해군의 통제사령부에 민사과를 두어 민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민사부가 수행

<표 4-1> 계엄사령부 편성표(1950. 8. 10)



자료 : 국방부 본부 일반명령(육) 제40호(1950. 8.10).

해야 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전투지역 민간인의 철수 또는 징발, ② 계엄하 군사재판 및 일반사법 사무 감독, ③ 피난민(이재민)의 구호, ④ 민간고용인의 채용, ⑤ 필요한 물자 또는 인마(人馬)의 징발, ⑥ 지방행정 및 치안기관에 대한 감독, ⑦ 기타 민간과의 연락 등이었다.²²⁾

3. 육군의 재편성과 후방군사조직 편성

1) 육군총참모장의 교체

1950년 6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지도체제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일권(丁一權) 육군 준장을 소장으로 승진시켜 육군총참모장 겸 육·해·공군 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²³⁾ 정일권 장군의 총참모장 기용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6월 30일 18:00경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 대전의 충남도지사 집무실로 정일권 장군을 호출하였다. 수원에 있던 정일권 장군이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전의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것은 21:00가 넘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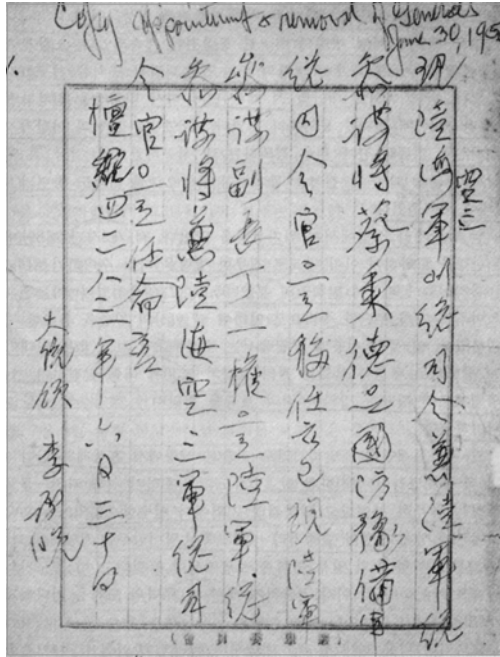
대통령 집무실에는 신성모(申性模) 국방장관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일권 장군에게 현 전쟁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었다. 정일권 장군은 이 날 채병덕 총참모장과 함께 한강방어선을 시찰하면서 생각했던 지연작전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지연작전은 아군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대전 북쪽의 먼 곳에서 방어선을 지킨다”고 설명했다.²⁴⁾ 이 말을 듣고 대통령은 매우 흡족해 하며 신성모 국방장관의 생각을 물었고, 국방장관도 좋은 의견이라고 말했다.²⁵⁾

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준비한 것을 달라고 하자 국방장관은 손에 들고 있던 널찍한 봉투에서 양면괘지 한 장을 꺼내어 대통령에게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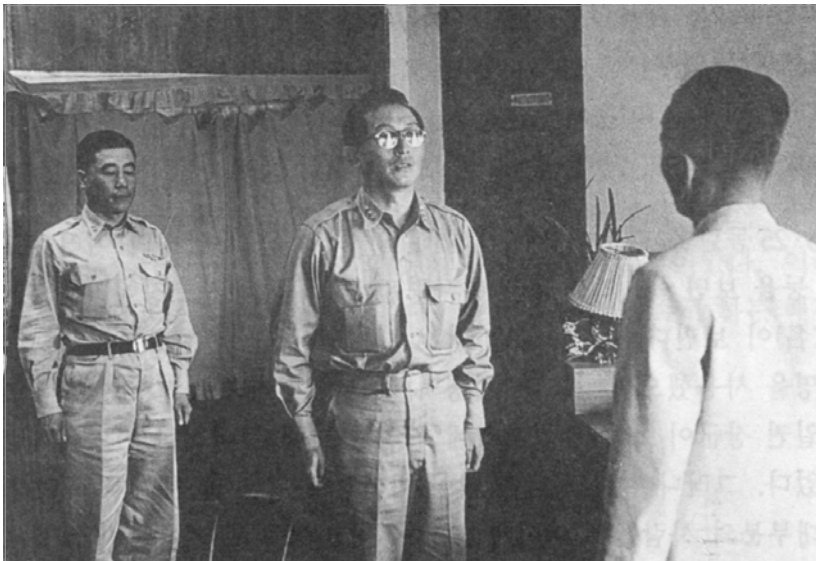
렸다. 대통령은 양면괘지를 보면서 읽어 내려갔다.

“임명장. 육군준장 정일권, 명(命) 육군소장 보(補) 육·해·공군총사령관 겸 육군총참모장. 1950년 7월 1일 대통령 이승만.”

정일권 장군의 육군총참모장 겸 육·해·공군 총사령관 임명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일권 장군은 총참모장에 임명된 후 육군본부 참모진을 개편하였다.²⁶⁾



정일권 소장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명령(1950. 6. 30)



정일권 육·해·공군 총사령관 겸 육군총참모장 취임식(1950. 7. 1)

2) 전선부대의 재편성과 전선조정

(1) 1

제1차 육군 재편성은 한강선 방어가 붕괴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정일권 총참모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육군 재편성은 38도선 초기 방어전투에서부터 한강방어선 전투를 거치면서 전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사단 및 연대를 해체하여 다른 사단 및 연대에 통합시키는 방식이었다. 또한 육군본부와 사단 사이에 고급사령부인 군단을 창설하여 육군본부의 지휘부담을 줄이고,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군단 창설의 필요성은 개전 직후부터 있었다. 6월 26일 의정부지구에 집결한 3개 사단을 통합지휘하기 위하여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였다. 또 6월 29일 한강선 방어를 위해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두어 작전을 통합하여 지휘하도록 한 것이 두 번째이다. 7월 5일 새로 창설된 제1군단은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지휘관 및 참모를 그대로 기용했다는 점에서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명칭만을 바꾸어 놓은 것과 같았다.

육군 총참모장에 새로 취임한 정일권 소장은 7월 3일 아침 한강방어선이 무너져 육군 주력이 수원 방면으로 철수하게 되고, 7월 4일 아침 북한군이 수원으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백일 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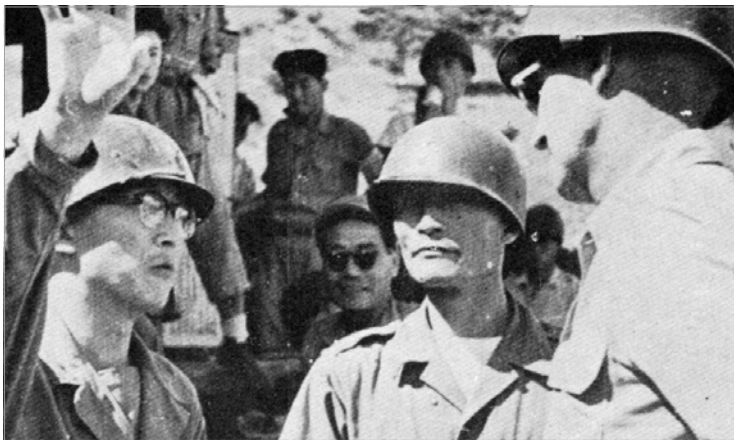
육박해 오자 육군본부 작전·행정참모부장 김백일(金白一) 대령에게 부대의 재편성 및 재배치 계획을 완성하여 각 부대에 통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김백일 참모부장은 7월 4일 아침에 북한군이 수원을 향하여 진격해오자 부대의 개편과 재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대에 긴급히 통보하고, 평택으로 이동하는 즉시 각 사단장만을 집합하도록 지시한 후, 육군본부의 평택 이동을 준비하였다.

한편 시흥지구전투사령관 김홍일(金弘壹) 육군 소장은 7월 4일 오후 육군본부가 위치한 수원의 농

립시협소에 잠시 들렀다가 평택으로 내려갔다. 그는 평택의 복단초등학교에 임시지휘소를 설치하고 스미스부대와 미 제34연대의 증원 상황을 지켜보면서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다.

이 때 김홍일 장군은 육군본부로 집합하라는 통보를 받고 4일 오후 평택군청에 설치된 육군본부로 갔다.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은 지휘소에서 제1군단 편성과 사단 개편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도착하는 대로 새로운 보직명령과 개편내용을 알려주고 있었다. 제1군단장에는 김홍일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제1군단 참모들은 대부분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참모들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참모장 유재홍 준장, 인사참모 김응수 대령, 정보참모 이종국 중령, 작전참모 김종갑 대령, 군수참모 이창일 중령(박병권 대령 7월 7일부)이었다.²⁷⁾ <표 4-2>는 제1군단의 지휘관 및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제1군단은 1950년 7월 5일 00:01부로 평택에서 창설되었다. 제1군단은 수도·제1·제2사단의 3개 사단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국군 제3·제5·제7사단은 이날로 해체하여 새로 편성된 제1군단의 3개 사단에 편입시켰다. 이로써 전쟁 당시 8개 사단이던 국군은 3개 사단이 해편(解編)되면서 전쟁 발발 10일 만에 5개 사단만 남게 되었다.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중앙)과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왼쪽)

<표 4-2> 제1군단 지휘관 및 참모현황(1950. 7. 5)

직 책	계급 / 성명	이전 직책	비 고
군 단 장	소장 김홍일	시흥지구전투사령관	
참 모 장	준장 유재홍	제7사단장	
인사 참모	대령 김응수		
정보 참모	중령 이종국		
작전 참모	대령 김종갑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참모장	
군수 참모	중령 이창일 (7. 7일부, 대령 박병권)		

새로 재편성된 수도사단은 제1·제8·제18연대로 편성하되, 여기에 제3·제9연대를 해편하여 편입하도록 하였다. 수도사단장에는 전쟁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었던 이준식(李俊植) 준장이 최초 임명되었다가 7월 7일부로 육군본부 명령에 의해 김석원(金錫源) 준장으로 교체되었다.²⁸⁾ 제1사단은 기존의 제11·제12·제13연대에 제15·제22연대를 해편하여 편입하도록 하였다. 사단장에는 개전 초기 제1사단장으로서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을 서울 북방에서 약 4일 동안 저지했던 백선엽(白善燁) 대령이 그대로 임명되었다. 제2사단은 제5·제16·제20연대를 기간으로 하고 여기에 제25연대를 해편하여 편입하도록 하였다. 사단장에는 전쟁 당시 육군사관학교 부교장이었던 이한림(李翰林) 대령이 임명되었다.²⁹⁾

그러나 중부전선과 중동부 전선을 맡고 있던 제6사단과 제8사단은 개전 초기 전투력을 온전히 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편성 간 부대 구조에 변동이 없었다. 또한 전쟁 당시 육군본부 직할연대는 기갑연대와 제17연대의 2개 연대뿐이었으나 재편성시 제3사단의 해편으로 동해안을 담당하고 있던 제3사단 제23연대가 육군본부 직할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육군은 전쟁 당시 8개 사단 2개 직할연대에서 재편성 이후 1개 군단, 5개 사단, 3개 독립 연대로 편성되어 미군과 함께 지연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³⁰⁾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4-3>과 같다.

<표 4-3> 육군 재편성 후 부대 편성(1950. 7. 5)

부 대	지 휘 관	편성 부대	편입 연대
제1군단	김홍일 소장	수도·제1·제2사단	·
재편성 사단	수도사단	이준식 준장 (김석원 준장 7월 7일부)	제3·제9연대
	제1사단	백선엽 대령	제15·제22연대
	제2사단	이한림 대령	제25연대
기존 사단	제6사단	김종오 대령	없음
	제8사단	이성가 대령	없음
육본 직할	기갑연대	유홍수 대령	·
	제23연대	김종원 중령	·
	제17연대	김희준 중령	·

육군재편성후 사단장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



제2사단장 이한림 대령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



제8사단장 이성가 대령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

(2)

육군은 창군 이래 최초로 군단의 창설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전선 상황은 국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사단은 재편성계획에 따라 개편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육군에서는 재편성 계획을 수원 육군본부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풍덕천 지구로 출동하기 직전인 7월 1일 오전 수원의 육군본부에 들렀을 때, 작전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이 흑판 위에 ‘국군재편성 계획’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에게 기왕이면 제1사단과 제5사단을 통합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내 뜻을 선선히 받아 주었다”고 술회하였다.³¹⁾

그러나 전투 간에 부대를 개편하는 것이었으므로 먼저 작전명령으로 각 부대의 전투행동을 통제하면서 부대 개편을 병행해야 되는 이중의 어려움에 있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7월 4일 오전 육군본부 작전명령을 하달하여 현전선의 고수와 재정비를 명령하지 않을 수 없었다.

- ① 군은 공세를 준비하는 동안 일부 병단으로 오산-안성 일대의 요선과 죽산-장호원-제천 부근을 점령하여 재편을 완료하고 군 주력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 한다. ② 제1군단(제17연대 배속)은 즉시 안성-오산-발안장선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평택지역에서 부대를 재정비하라. ③ 제6사단은 즉시 죽산-장호원선에서 전개하여 이천으로부터 청주로 향하는 적을 저지하고 제1군단과 협조하라. ④ 제8사단은 즉시 남한강 동쪽지역에서 남진을 기도하는 적을 제천 부근에서 저지하되 해당 지구에서 고립을 각오하고 고수에 임하라.³²⁾

이처럼 7월 5일 시행하도록 된 육군본부의 작전명령과 부대 개편 명령에 따라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수원의 상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육군본부의 명령을 미리 받아 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은 북한군이 수원을 점령한 5일 아침에는 오산을 향해 남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은 평택지역에서 군단 창설과 사단의 재편성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철수부대로 하여금 전선을 엄호하도록 군단작전명령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 ① 군단은 일부 병력을 안성-오산-발안장선에 배치하여 적을 저지하는 한편 주력을 평택 남쪽에 집결하려 한다.
- ② 수도사단장은 안성 부근에서 적의 남침을 극력 저지하라.
- ③ 제2사단장은 발안장 부근에서 적의 우회를 저지 격퇴하라.
- ④ 제17연대는 오산 부근에서 남침중인 적을 격파하라.
- ⑤ 각 사단장은 예하부대 병력을 7월 6일한 평택 부근에 집결하고 보고하라.
- ⑥ 안성-발안장선에는 우선 병력을 급파하라.
- ⑦ 군단의 임시지휘소는 7월 4일 18:00 이후 평택의 북단초등학교에 둔다.³³⁾

제1군단 작전명령에 따라 제8연대(연대장 이현진 중령)는 안성 북쪽 15km인 송전리에, 그리고 제20연대(연대장 박기병 대령)는 오산 서쪽 15km인 발안장으로 긴급 이동하여 갈곶리(오산 남쪽 1.5km)에 배치중인 제17연대(연대장 김희준 중령)와 연결하여 적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대는 4일 오후 주력부대의 철수와 함께 지정된 엄호진지로 이동하였으나 5일 아침까지도 제17연대와 연결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오산-서정리 축선이 적의 침공으로 무너지자 7월 5일 오후 평택의 각 사단 집결지로 합류하였다.

이 때 제1군단이 창설되었으나 인원 및 지원시설의 부족으로 아직 군단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홍일 군단장과 참모들은 임시지휘소에서 미 지상군의 전투상황을 지켜보면서, 각 사단의 집결과 개편을 신속히 완료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군단 예하의 각 사단은 야반까지 집결을 완료하고 보고하라.
- ② 각 사단의 집결지 및 재편성지역은 아래와 같다. 수도사단-합정리(평택 동쪽 2km), 제1사단-대흥리(성환 북쪽 2.5), 제2사단-객사리(평택 서남쪽 4km)
- ③ 군단지휘소는 평택초등학교에 위치한다.³⁴⁾

이와 같이 군단작전 명령 제2호에 따라 각 사단이 집결과 재편성을 서두르고 있는 동안 군단장은 작전참모를 오산 북쪽의 스미스부대가 배치된 곳으로 보내 미군들이 2.36 " 로켓포로서 북한군 T-34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미군 역시 2.36 로켓포로는 북한군 전차를 파괴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7월 5일부터 미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이 경부국도 중심의 작전에 들어감에 따라 정일권 총참모장은 이날 오후에 이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게 되었다. 이는 제1군단의 이동과 제6사단의 엄호임무 수행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았다.

① 연합군은 평택에 진출하여 강력한 방어태세를 취하는 중임. ② 제1군단은 하기의 할당된 경로에 따라 7월 6일 24:00까지 이동을 완료하라. A경로: 성환-입장-진천-오창리(차량수송), B경로: 조치원-청주-연담리-음성(철도 및 차량수송), C경로: 조치원-청주-증평 연담리(철도수송), 군단사령부 및 직할부대를 위하여 조치원-청주간의 철도수송을 준비한다. ③ 제17연대는 7월 6일 13:00부로 제1군단으로부터 배속을 해제하고 즉시 조치원에 이르러 군 예비가 되라. ④ 제6사단은 2개 연대규모로 7월 6일 24:00까지 정면을 고수케 하여 제1군단의 이동을 엄호하고 해당 사단 지역에 이동하라.³⁵⁾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3호를 수령한 제1군단장은 먼저 A경로의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충북 진천으로 진출하여 제6사단 제19연대를 지휘하도록 하였고, B경로의 제1사단은 충북 음성으로 진출하여 제6사단 제7연대를 지휘하여 남진중인 북한군을 저지·격파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C경로의 제2사단은 증평 지역에서 수도사단과 제1사단을 증원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7월 5일 육군본부에서는 7월 7일부로 제17연대를 육군본부 직할에서 해제하고 수도사단에 편입하도록 조치하였다.³⁶⁾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기간 편성된 제1·제8·제18연대 외에 제17연대를 배속 받아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7월 6일 아침 지연작전을 위한 방어진지로 이동을 시작한 제1군단 예하의 각

<표 4-4> 제1군단의 예하 사단 병력 현황

부 대	이동전 병력	도 착 후	
		목적지	병 력
수도사단	2,500명	진 천	7,855명
제1사단	4,000명	음 성	5,063명
제2사단	1,600명	증 평	6,845명

사단은 먼저 수습된 병력만을 데리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 때 각 사단의 병력은 1개 연대병력에 해당하는 약 2천명에서 4천명 수준이었다. 이들 사단의 출발 및 목적지 도착 이후 병력 현황은 <표 4-4>와 같다.

군단사령부도 이날 10:00에 성환(成歡)에 도착한 후 각 사단의 이동상황을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 때 수도사단은 이미 이곳을 통과하여 목적지인 진천(鎭川)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제1사단은 조치원에서 음성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에 군단 지휘부도 15:00에 다시 청주(淸州)로 이동하여 지휘소를 개소하였다.³⁷⁾ 이에 따라 국군은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을 미 제24사단에게 인계하고, 이날 24:00까지 진천 이동 지역으로 이동을 완료함으로써 한미 양군은 전선조정을 완료하였다.

3) 후방지역의 편성관구사령부 설치

국방부는 7월 8일 계엄령 선포에 따라 후방편성을 강화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엄지역에서 제외된 전라북도과 전라남도 지역에 편성관구사령부(編成管區司令部)를 설치하였다. 즉 편성관구사령부는 전시체제하에서 병력충원 및 후방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편성관구사령부는 신병보충에 역점을 두고 예비 및 지원부대를 보유하여 전쟁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³⁸⁾

국방부는 7월 8일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본부 일반명령에 의해 전주에 전북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고, 광주에 전남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전북편성관구사령관에 신태영(申泰英) 육군 소장을 임명하고, 전남

<표 4-5> 전남북 편성관구사령부 현황

구 분	사 령 관	참 모 장	비 고
전남편성관구사령부	이용준 육군소장	이형근 육군준장	제5사단 재건
전북편성관구사령부	신태영 육군소장	원용덕 육군준장	제7사단 재건

편성관구사령관에는 이용준(李應俊) 육군소장을 임명하였다.³⁹⁾ 전남편성관구사령관 이용준 장군은 참모장에 이형근(李亨根) 준장을 임명하였고, 전북편성관구사령관 신태영 장군은 원용덕(元容德) 준장을 그의 참모장에 임명하였다.⁴⁰⁾ 전북편성관구 내에서는 민기식(閔機植) 대령이 해편된 제7사단을 새로 편성하고 있었고, 전남편성관구 내에서는 이형석(李炯錫) 대령이 해편된 제5사단을 새로 편성하고 있었다.⁴¹⁾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는 7월 8일 부산(釜山)에 '제3군단사령부(가칭)'를 설치하고 이틀 뒤인 7월 10일에 전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을 제3군단장에 임명하였다.⁴²⁾ 이는 당시 이 지역이 계엄지역인 동시에 각종 부대가 집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제3군단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남북지역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하여 공병, 통신, 병기, 병참, 헌병, 그리고 육군남산학교 등 7개의 교육기관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둘째, 해편된 제3사단의 재편성과 제9사단의 창설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3군단은 7월 12일 그 명칭을 영남편성관구사령부로 개칭하였다. 또한 이날 전남편성관구사령부는 광주지구편성관구사령부로, 전북편성관구사령부는 전주편성관구사령부로 개칭되었다.⁴³⁾ 7월 17일에는 영남지구편성관구사령부를 경남편성관구사령부와 경북편성관구사령부로 분리함으로써 후방지역에는 4개의 편성관구사령부가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날인 7월 17일 국방부는 전남북지역을 통괄하는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西海岸地區戰鬪司令部)를 설치하였으나 7월 24일 북한군의 지역 내 진격으로 해체되었다. 7월 지연작전 기간 중 영호남지역에 설치되었던 편성관구사령부

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모두 해체되어, 7월 하순 제2사단을 기간으로 설치된 대구방위사령부(大邱防衛司令部)에 모두 편입되었다.⁴⁴⁾

4. 해·공군의 재편성과 전력강화

육군의 재편성 및 한미연합전선이 형성될 즈음 해·공군도 전력을 보강하고 지상군과의 합동작전 및 유엔 해·공군과의 연합 및 합동작전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1) 해군의 재편성과 전력강화

한국 해군은 개전 당시 3개 정대(艇隊)와 훈련정대를 주축으로 한 해상작전부대와 인천·군산·목포·부산·포항·목호에 설치된 6개의 경비부(警備府), 그리고 후방지원부대로 구성된 진해통제부(鎭海統制府)로 편성되어 있었다.⁴⁵⁾ 이 중 제1정대는 서해를, 제2정대는 동해를, 제3정대는 남해를, 그리고 훈련정대는 여수-진해 해안을 경비하였다.

해군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자 동서해안의 제1·제2정대 세력을 증강하여 해상을 봉쇄하며 해상작전을 실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해군본부에서는 7월 6일 2,500명의 병력증가에 대한 건의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였다. 또 해운공사(海運公司)의 선박을 해상작전(수송·상륙·보급)에 징발 운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7월 8일에는 부산의 제2부두에 항만방위사령부(港灣防衛司令部)를 설치하고, 부산경비부 제2정대 소속의 조선창(造船廠)을 항만방위사령부에 예속시켜 항만방위과 함께 한미 해군의 연합작전을 위한 연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⁴⁶⁾

또한 7월 8일 진해통제부사령관은 해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국으로부터 귀국한 총참모장 손원일(孫元一) 제독에게 인계하였다. 7월 9일에는 해병대의 증강을 위

하여 진해에서 함정 근무자를 제외한 육상근무자 500명을 선발하여 해병대요원으로 편입시키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해병대사령관(대령 신현준)에게 일임하였다.⁴⁷⁾

한편 한국 해군은 6월 27일 유엔해군의 일원으로서 미 해군이 한국해역에 전개됨에 따라 연합작전에 들어가 동·서 해상작전 및 지상군에 대한 지원 작전을 실시하였다. 6월 30일부터는 해상을 봉쇄함에 있어 37도선을 경계로 그 북부를 미 해군이 담당하고, 그 남쪽은 한국해군이 분담하여 작전을 실시하였다.

7월 10일부터는 유엔해군 함정과 본격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또 대전의 국방부에는 해군 연락관을 상주시키고, 해군본부는 부산의 제1부대에 있는 항만청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지연작전 기간 동안에는 아직 함포연락장교(NGLO) 등이 파견되지 않아 지원의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 대신 고문관들이 임시로 그 역할을 대행하기도 하였다.⁴⁸⁾

2) 공군의 재편성과 전력강화

개전 당시 한국 공군은 비행단과 이를 지원하는 항공기지사령부, 보급창, 공군 병원, 공군사관학교, 여자항공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공군의 전투력은 훈련기(T-6) 10대, 연습기(L-4: 6대, L-5: 6대) 12대 등 총 22대로 구성되었다.

개전 초 공군은 북한공군기가 서울·여의도·김포·수원 등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는데도 전투기가 없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다만 정찰 및 연락임무 수행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6월 27일 미 공군의 참전으로 제공권을 확보하는 한편, 7월 2일 미 극동공군으로부터 F-51전투기 10대를 인수함으로써 최초로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다.⁴⁹⁾

이에 따라 한국 공군은 7월 6일 비행단 소속의 항공기(L-4: 3대, L-5: 2대, T-6: 2대)로 정찰비행대를 편성한 다음 육군의 군단작전을 지원하였다. 7월 8일에는 공군을 비행단, 정찰비행대, 근무부대로 재편성하였다.⁵⁰⁾

비행단은 F-51전투기 10대와 T-6훈련기 4대, 그리고 통신반으로 편성되었고, 단장은 총참모장인 김정렬 장군이 겸직하였다. 정찰비행대는 T-6훈련기 2대, 연

락기(L-4: 3대, L-5: 2대) 5대로 편성되었다. 근무부대는 항공기지사령부, 보급창, 공군사관학교, 공군헌병대, 공군병원 등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 여자항공대는 6월 27일 폐지되었다.⁵¹⁾

이처럼 한국 공군은 지연작전 기간 중 F-51 전투기대로 비행단과 정찰비행단으로의 기구개편을 단행하여 육군 군단에 대한 정찰지원과 미 공군과의 연합작전으로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다. 미 공군도 7월 5일 대전에 공지합동작전본부를 설치하고 6개의 전술항공통제반(TACP: Tactical Air Control Party)을 운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이를 증강시킴으로써 공지작전의 효율성을 기했고, 또 작전 간에 발생하는 오폭사고를 줄여나갔다.⁵²⁾

공군본부는 7월 초 대전에 주둔하면서 이동하는 병력을 관리하여 원대로 복귀시키는 등 부대정비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7월 13일에는 전선의 남하로 대구로 이동하여 비행단 작전을 위한 후방지원업무에 주력하였다.⁵³⁾

제 3 절 한미 연합작전과 합동작전

1. 미국의 전쟁목표와 맥아더의 작전개념

6·25전쟁 당시 극동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원수는 미 지상군의 한반도 투입과 이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작전지휘권을 갖게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전구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 합동참모본부나 극동군사령부는 한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는 작전계획을 수립할 근거가 될 평가 및 판단서 조차도 없었다.⁵⁴⁾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수립했던 전쟁목표는 전쟁 이전상태의 회복이었다. 북한의 전면남침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정부는 전쟁의 목적을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38도선으로 분단상태로 있던 한반도 정치상황을 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에 한정했던 것이다. 이는 유엔의 결의안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6월 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는 “북한군의 불법 남침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미 합참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 장군도 “맥아더의 군사목표는 침략을 격퇴하고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말하였다.⁵⁵⁾ 이는 6월 30일 미 합동참모본부가 맥아더에게 이미 투입된 해군과 공군에 추가하여 한반도에서 미 지상군을 전개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때 내려진 것이었다.⁵⁶⁾

따라서 전쟁 초기 미국과 유엔은 이러한 전쟁목표의 틀 속에서 전쟁을 수행해 나갔다. 그러나 한국전선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전구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는 구체적인 군사목표가 담긴 공식적인 전략지시가 내려지지 않았다. 맥아더 장군은 상세하면서 구체적인 요건이 생략된 임무형 명령(mission type order)만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전쟁 초기 맥아더가 워싱턴에 요구하여 받은 지시 내용은



맥아더 장군(오른쪽)과 브래들리 합참의장(왼쪽)

전쟁이전 상태의 회복과 북한군 격멸이 전부였다.⁵⁷⁾

맥아더의 한반도에서의 전반적인 작전개념은 전쟁 초기에 이루어졌고, 그는 이러한 개념에 따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작전을 지휘했다. 그는 6월 29일 한국전선을 방문했을 때, 이미 북한군을 격퇴할 계획에 착상했다. 그는 상륙작전으로 승기를 잡은 후 차후 공세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맥아더는 이 개념에 따라 작전을 지휘했다. 그는 먼저 휘하의 제8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하여 북한군을 가급적 북쪽에서 접촉을 유지하면서 적의 진출을 지연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얻음으로써 부산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때 한국에 전개된 미군과 한국군을 증강하여 적의 진출을 저지한 후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할 상륙작전을 전개하고, 이 때 유엔군과 한국군은 전략적 공세로 전환하여 북한군을 격멸한다는 것이었다.⁵⁸⁾ 이 기간 맥아더의 해·공군에 대한 지침은 먼저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한 가운데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키는데 필요한 지상 작전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맥아더는 북한군의 진격저지와 함께 “절대 우위의 제공·제해권을 이용하여 북한군 배후에 상륙하여 일거에 적을 격멸한다”는 작전을 구상했다.⁵⁹⁾ 맥아더의 작전개념은 극동군사령부 작전참모 라이트(Edwin K. Wright) 장군에 의해 보다 구체화됐다. 이 작전개념에 따르면 맥아더는 “먼저 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의 1개 연대전투단으로 적의 남침을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이북에서 저지하고, 미 해병대와 제1기병사단을 7월 22일 인천으로 상륙시켜 북한군을 양쪽에서 공격한다”는 것이었다.⁶⁰⁾ 그러나 북한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상륙작전계획은 전선 상황의 안정과 상륙부대의 확보를 위해 그 시기를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지상군의 한·미 연합작전 합의

미 지상군이 한국에 전개되던 날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는 향후 전쟁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이는 맥아더의 작전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우선 조치로서 지연작전을 실시하여 일정 선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을 때 적 후방으로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반격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한미 양국군 간의 연합작전에 관한 합의는 7월 1일 한미군의 수뇌부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는 미 지상군이 투입이 결정되고, 선두부대인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전개한 7월 1일, 육군총참모장 겸 육해공군총사령관인 정일권 소장이 충남 대전의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에서 처치(John H. Church) 준장과 회동하여 향후 한미 양군이 협조해야 될 작전에 관해 합의한 것이었다.

7월 1일 첫 날 회의에서는 미 공군의 지원강화와 국군의 재정비, 탄약 및 장비의 긴급보충 등에 관해 협의하였고, 둘째 날인 7월 2일에는 스미스부대의 수송 및 배치, 국군과의 작전지역 분담, 장차 작전의 구상 등 한·미 양국군 간 연합 및 합동작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하였다. 합의의 커다란

틀은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미양군이 전선지역을 동서로 분할하여 작전을 실시하고, 또 남한에서 폭이 가장 좁은 37도선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 ① 한국군은 가능한 오래 한강선을 지탱한다. ② 한국군은 경부국도 연변에서 적을 저지하면서 미제24사단의 진출을 엄호한다. ③ 미 제24사단이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을 맡고, 한국군은 그 이동지역을 분담한다. ④ 한·미군의 최초 저지선은 남한에서 가장 폭이 좁은 평택-안성-충주-울진선으로 한다.⁶¹⁾

이의 실행은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수원에서 평택으로 철수한 7월 4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평택-안성선에 전개한 미 제24사단이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을 담당하게 되었고, 국군은 그 이동(以東)에서 동해안까지 전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또한 국방부는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평택-안성에 전개되고,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병력이 수원에서 철수하여 평택 남쪽으로 집결하자 이 부대들로 제1군단을 창설하는 등 육군병력을 전반적으로 재편성하여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선 조정을 하였다. 그 결과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한미연합전선의 형성이라는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한미연합전선 형성시 국군의 책임지역에는 제6사단의 제19연대가 안성 동측방 송전-죽산에, 제7연대가 그 동쪽 무극리-동락리에, 제2연대가 충주를 점령하고 있었다. 중동부지역의 제천에는 제8사단이, 그리고 동해안 울진 부근에는 제23연대가 작전 중에 있었다. 이때 한미연합전선은 제천부근을 제외하고는 대대-연대 단위의 부대가 주요 예상접근로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대규모가 작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대간의 간격이 넓어 방어력이 대단히 취약하였다.

반면에 북한군 전선사령부⁶²⁾는 이 무렵 후속하던 예비사단을 전방으로 투입하고 내무성 소속의 3개 국경경비여단을 제7·제8·제10사단의 전투사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7월 1일 전시동원령을 발동하여 그들의 남침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서부전선에서는 제4사단이 제105전차사단을 후속하여 공격을 선도하고, 그 뒤를 제3사단과 제6사단이 후속하여 남진 중이었다. 중부전선에서는 제2사단

이 이천에서, 제15사단이 장호원에서 남진 중이었으며, 충주 방면으로는 제12사단의 1개 연대와 제1사단이 집중하고, 제천 방면으로는 제12사단(-)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제5사단이 각각 남진하고 있었다.

이처럼 절박한 때인 7월 5일 미 제24사단 제34연대가 오산으로 진출한 스미스 부대의 뒤를 이어 다시 평택-안성에 전개하고, 다음날에는 국군 제1군단의 3개 사단이 진천·음성·증평으로 투입되었다. 이때 이르러 연합전선도 어느 정도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국방부는 유엔군의 지원과 미지상군의 참전, 육군의 재편성, 그리고 한미연합전선의 형성 등 일련의 상황변화를 계기로 삼아 조기반격작전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회 포착에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부대의 작전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인 전력의 약화로 미군과 더불어 지연작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지연작전은 북한군의 주공인 제1군단이 경부축선과 중서부축선 및 서해안축선으로 압박을 가하고, 제2군단이 중부 및 중동부축선과 동해안 도로로 남진하는가 하면, 이를 저지하려는 국군과 유엔군이 차령산맥과 금강-소백산맥선을 연하여 차례로 방어선을 형성함에 따라 이 공간에서 축선별로 전개되었다. 전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아 최소의 공간을 양보하고 최대한 시간을 획득함으로써 적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가하면서 아군의 전력을 신속히 회복하는 일이 당면 과제가 되었다.

3. 해·공군의 합동작전과 지상작전 지원

전구사령관으로서 맥아더 장군은 전쟁 초기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우세한 항공력과 해군력을 이용하여 이들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극동군사령부에서는 항공작전 간 해군과 공군에게 각각 상이한 작전지역 및 임무를 부여하였다. 해군 함재기들은 주로 38선 이북지역의 폭격임무나 후방차단작전

임무를 수행하였고, 미 제5공군은 38선 이남지역의 차단작전과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렇지만 맥아더는 제공권 장악을 위해 먼저 북한의 공군기지를 공격할 것을 지시했고,⁶³⁾ 이후에는 후방차단작전보다는 위급한 지상작전에 필요한 근접지원작전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었다. 7월 9일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사단만으로는 적 전차부대에 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비경제적인 것을 알면서도 “B-29중폭격기를 지상군 근접지원작전에 투입”하도록 명령하였다. 또 7월 13일에도 그는 미 극동공군에게 B-29중폭격기와 B-26경폭격기를 총 동원하여 음성, 장호원, 제천을 연결하는 지역의 적 보급로에 집중 폭격하도록 지시하였다.⁶⁴⁾

당시 어려운 상황 하에서 지상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 제24사단과 국군의 상황은 절박하였다. 공군의 활약에 대해 미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은 “전쟁 초기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 제5공군의 힘이며, 제5공군의 계속적인 공격이 없었다면 아무리 병사들이 용감하였다 해도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⁶⁵⁾

또한 극동해군에게 주어진 임무는 한국해안을 봉쇄하고 적에게 폭격 및 함포사격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워싱턴에서는 7월 1일 맥아더에게 한국해안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극동해군사령관 조이(C. Turner Joy) 제독은 7월 4일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봉쇄작전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⁶⁶⁾ 이에 따라 동해안은 미 해군에 의해 해안봉쇄가 이루어졌고, 서해안은 영국해군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남해안은 한국 해군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리고 해상봉쇄에 대한 작전한계는 동해안에서는 북위 41도선까지, 서해안에서는 39도 30분까지를 작전지역으로 하였다.⁶⁷⁾ 함포사격은 6월 29일부터 유엔 해군 함정에 의해 동해안에서 이루어졌고, 항공모함에 의한 항공폭격은 7월 3일부터 서해안에서 평양 및 해주비행장에 대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전쟁 초기 미 증원 병력이 전개되기 이전에 지상군에 대한 해·공군의 지원은 절대적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해공군의 지원에 힘입어 열세한 병력 및 화력을 만회하여 지연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1) 합동작전 체제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극동지상군의 제8군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였으나 극동해군과 공군에 대해서는 각 사령부를 통해 해·공군작전을 지휘했다. 1949년 8월 20일 합참 요구에 의하여 극동군은 작전참모 예하에 합동전략기획운영단(JSPOG: 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을 설치하여 극동군 관할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권 행사에 대해 조언 및 보좌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극동군사령부의 기구와 기능은 전략 통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극동군사령부 내에는 육해공군의 통합작전에 필요한 합동참모부가 구성되지 않은 채, 육·해·공군간 작전을 위한 협조와 조정은 극동군사령부 참모장인 알몬드(Edward M. Almond) 장군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나마 극동군사령부는 대부분 육군 참모로 구성되어 있어 육군의 개념이 존중되었고, 해군과 공군은 각각의 독자적인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꺼려하여 육군과 해·공군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전쟁초기 극동군사령부는 예하에 합동참모부를 구성하지 않음에 따라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항공작전이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미 제8군의 작전과 생존에 중요했던 7월 한 달 동안의 항공작전이 지상 작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편성 및 운용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용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는 극동군사령부의 참모부가 육군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에게 부과된 항공작전의 중요임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표적을 선정하고 항공 전력을 운용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낳게 하였다. 즉 극동공군은 많은 항공 전력을 전선지역에 투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군의 상황이 악화되어 갔다.⁶⁸⁾ 또한 표적 분석반이 오래된 지도를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표적을 선정하는 등 표적선정 업무에 정통하지 않아 항공전력 운용에도 낭비요소가 있었다.⁶⁹⁾

또한 극동군사령관은 극동해군과 공군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조종사는 조종사가 통제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군의 세부 사항

은 공군사령관이 통제하도록 하였으며 극동공군과 예하 비행부대에서 스스로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한국에 있던 미 제8군 전방지휘소 참모들은 항공지원 문제를 일본 이타츠키(板付)의 제5공군의 전방지휘소와 협조하지 않고 극동군사령부에 요청하여 다시 극동공군과 일본 이타츠키 제5공군 전방지휘소를 경유 대구에 있는 제5공군 전방지휘소에 지시되니 항공지원 요청이 4시간 이상이나 소요되었다.

그러나 근접항공지원 작전은 지휘 구조상의 문제보다는 주로 육군과 공군의 하부 단위에서 제도적인 절차 수립 및 통신장비 구축 등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보다 많은 비효율과 혼란을 가져왔다.⁷⁰⁾ 이에 극동군사령부 참모장 알몬드 장군은 육군 정보장교와 해·공군 작전장교로 구성된 표적분석반을 설치하여 그날그날의 상황에 따라 공군과 해군의 항공전력 운용을 조언하고 표적선정 건의, 가용 항공 전력의 활용 방안 제시 및 표적 분석과 우선순위 결정 등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2) 전술항공 통제 및 협조

제5공군은 한국전쟁 발발 초부터 주한미국인 철수작전을 지원하고 자체적인 방어작전을 수행하여왔으나 지상군이 참전하자 제5공군사령관은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전력 운영과 작전수행에 있어서 지상군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였다. 7월 4일 대전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설치되자 제5공군은 육군의 공지작전과와 공군의 전투작전과로 구성된 합동작전본부(JOC: Joint Operations Center)를 설치할 것을 원하였다. 그러나 미 제8군은 공지작전에 관해 훈련받은 장교가 없었고, 오산 전투 이후 급격한 전투손실로 장교가 부족하여 공군이 제기한 합동작전본부내의 공지작전과를 편성할 수 없어 일단 공군장교 10명과 사병 35명으로 구성된 전투작전과를 편성하여 공지작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7월 5일부터 임무를 수행했다.⁷¹⁾

공군으로 편성된 합동작전본부는 7월 14일 대전에 전술항공통제본부(TACC: Tactical Air Control Center, 호출부호 Mellow)가 설치됨으로써 이 두 기구는 지상군

의 근접항공지원 요청을 받아 한반도에서 공군작전 활동을 통제하게 되었다. 또 미 제8공군이 7월 13일 대구에 지휘소를 설치한데 이어 7월 14일 제5공군이 전방 지휘소를 대구에 설치함으로써 점차 육군과 공군의 근접항공지원 작전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⁷²⁾

한편 극동해군과 극동공군간의 항공작전도 단일화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즉 제77항모기동부대부대 함재기들이 비행하는 동안 무선교신을 중지하고 침묵을 유지했기 때문에 극동공군사령부는 함재기들의 평양공격을 여러 날 동안 모르고 있을 정도였다. 공군과 해군 항공대 간의 단일화된 통제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항공전력 운용이 불가능하며 공군과 해군항공대 지휘관이 목표를 각각 선정한다면 한반도에서의 항공작전은 효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쟁에 투입된 해병 항공 전력에 대해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8일 해군항공기가 기뢰작전과 대 잠수함 작전에 투입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 항공전력 운용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자신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작전통제의 개념을 제시하지 않아 극동해군사령관이 수락하지 않자 7월 15일 조정통제라는 간접적인 권한을 극동공군에 부여토록 협조하여 수락하였다.

한편 미 제5공군과 한국해역에서 활동하던 제77항모기동부대는 공역을 나누어 작전지역을 분담하는 방식을 취했다. 7월 23일 이전까지 해군 함재기들은 주로 38선 이북지역의 폭격임무나 차단작전 임무를 수행하였고, 제5공군은 38선 이남 지역의 차단작전과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담당하였다.⁷³⁾

3) 전술항공 운용 체계

미 제5공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야전과 전술공군간의 합동작전교리를 근거로 전술공군의 전술항공 운용체계인 합동작전본부(JOC), 전술항공통제본부(TACC), 전술항공통제반(TACP), 전술공중통제관(TAC)을 구성하였다.

합동작전본부(JOC: Joint Operation Center)는 지상군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중공격을 위해 정보와 전황을 바탕으로 전투기 전력을 배당하고 전술항공통제본부에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 유도용 VHF 무전기와 유선망을 이용하여 지상

군과 공군간의 작전을 협조하고 임무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공중에 체공중인 항공기에 대해 임무를 할당해 주고 그들의 임무수행을 조정 통제하는 역할은 전술항공통제본부에서 수행하였다.

전술항공통제본부(TACC: Tactical Air Control Center)는 대구에 위치하여 TQ-1 Plotting 장비와 VHF 무전기로 출격한 전력에 대한 정보제공과 임무지역으로의 유도 및 지시, 체공전력간의 공간관리, 전술항공통제관으로부터 요청된 공중공격을 합동작전본부에 전달 및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전술항공통제본부 및 합동작전본부의 무선통달 거리도 제한되어 일본과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정보획득을 위해 대구 상공까지 비행해야 했고, 전장에서 임무수행 중인 전투기와도 교신이 대부분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전술항공통제본부 및 합동작전본부와 체공중인 항공기간의 정보제공, 항공요청 등을 중계할 수 있도록 대구와 작전지역의 중간지점에 통신중계기(호출부호 Mosquito Mellow)를 제공시켜 운용하였다.⁷⁴⁾

전술항공통제반(TACP: Tactical Air Control Party, 호출부호 Angelo)은 무전기(AN/ARC-1 VHF)를 장착한 지프차와 조종사, 무전기 운용병, 운전병으로 구성, 연대급 이상의 지상군 부대에 파견하여 지상군 최전방에서 전술공군의 공격을 통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량의 이동제한, 무전기의 잦은 고장과 도달거리 및 사용주파수 등의 제한, 적시정보의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⁷⁵⁾ 전술항공통제반은 무전기(AN/ARC-1 VHF)를 장착한 지프차를 보유하여 임무수행에 나섰으나 무전기의 도달거리와 사용 주파수 등의 제한과 적시정보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⁷⁶⁾

전술항공통제관(TAC: Tactical Air Controller, 호출부호 Mosquito, T-6기종)은 이러한 전술항공통제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착안한 것이었는데 지상군 작전지역에 체공하여 지상군으로부터 요청받은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통신 중계기를 통하거나 직접 전술항공통제본부로 전파하고, 전술항공통제본부로부터 유도 받은 전투기의 공격을 전술항공통제반과 협조하여 통제하였다. 이러한 전력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 한반도 지형과 같이 산악지대가 많은 이탈리아 전투에서 운영한

바 있었다. 전술항공통제기는 전투기가 출격과 아울러 전술항공통제본부와 교신하면 합동작전본부로부터 표적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전술항공통제본부 지시에 따라 임무지역에 도착하면 전투기를 표적지역으로 유도 및 공격을 통제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⁷⁷⁾

한편 전쟁초기 전술항공통제관은 합동작전본부 설치과정에서부터 전술통제기 발전까지 근접항공지원 작전체계 확립과 임무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술항공통제관은 작전지역에서는 표적의 성질에 따라 전투기의 성능과 무장, 연료상태를 고려하여 공중공격을 유도, 통제하는 현장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상군과 전술항공통제반으로부터 획득한 현장 정보사항을 통신중계기를 통하여 합동작전본부로 전파하는 정보획득의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임무후에는 임무 중 발생했던 특기사항과 정보사항을 합동작전본부에 전파함으로써 차후 작전에 반영하게 하였다.⁷⁸⁾

합동작전본부는 정보획득이 당시 미 지상군의 거둬드는 후퇴로 인하여 통신망 구성이 제한을 받아 미흡한 상태였으나 전술항공통제관들이 가장 최근의 부대배치 상황 등의 정보사항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정보를 가장 신뢰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후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때까지도 전술항공통제 및 경보에 필요한 레이더가 배치되지 않아 합동작전 본부에서 수행하였던 출격한 전력에 대한 전술항공통제지시를 무선으로 연락하는 일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전술항공통제본부는 7월 14일 전술항공통제 및 경보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TTQ-1 Plotting)와 무전기(VHF)를 가지고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를 창설하여 7월 19일 대구로 이동하여 합동작전본부의 임무 일부를 인수하였다.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는 대구에 도착하여 한국에 있는 모든 전술항공통제반을 흡수하고 제8군의 부대확장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전술항공통제반을 제공·운영·통제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⁷⁹⁾

4) 근접항공지원

근접항공지원임무는 미 공군, 미 해군, 미 해병대 및 오스트레일리아 전투기와

전투폭격기에 의해 수행되었다. 7월 3일 극동공군은 한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기를 통제하기 위하여 일본 규슈에 위치한 이타츠케(板付) 공군기지에 합동작전본부를 설치하였다. 이 본부는 7월 5일 대전으로 이동하였고, 7월 14일 대구 제8군사령부 근처로 이동하였다. 이 시기 근접항공지원에 투입된 전투기는 F-51 전투기(프로펠라 추진식)와 F-80전투기였다. 그리고 해병대에서 운용된 F-4U전투기가 나중에 투입되었다.⁸⁰⁾

근접항공지원 요청은 지상군부대 →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 극동군사령부 → 극동공군 → 제5공군을 통해 항공기가 출격하게 됨으로써 요청부터 항공기 출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합동작전본부와 지상군 부대 간 공지작전 체계상 요구되는 전용 통신망인 전술항공통제망이 구성되지 않음으로써 미 제8군의 항공지원 요청은 간헐적이고 비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⁸¹⁾

이와 같이 비효율적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5공군은 전술항공지원 요청망을 통하여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였다. 즉 대대장은 자체 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대를 경유, 사단항공작전장교에게 요청하며 사단항공작전장교는 각 대대로부터 받은 항공지원 요청을 공군 연락장교(전술항공통제반 겸직) 및 포병 연락장교와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전술항공통제망으로 합동작전본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근접항공지원 요청 체계는 통신 소통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아 그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 이는 지상군 부대가 항공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항공지원 요청망이 구성되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 지상군 작전 통신망이 폭주하고 고장이 잦은 상태에서 연대-사단-제8군의 지휘계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항공지원 요청은 합동작전본부에 의해 비행부대에 전달되어 각 기지에서 발진한 항공기가 전선에 도착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⁸²⁾

또한 미 제8군 및 그 예하 부대들과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합동무선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지상군 지휘관들이 보유한 무전기로는 직접 공군이나 합동작전본부와 교신할 수 없었다. 당시 대대급 이하 지상부대는 대부분 FM 무전기만 보유하고 있어 VHF 무전기를 사용했던 해·공군 항공기와는 교신할 수 없어

직접적인 공중공격 요청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연대급 이상과 통신대대는 VHF 무전기와 FM 무전기를 같이 사용하였고 포병단에서 운영한 정찰기도 VHF 무전기를 사용하여 해·공군 항공기와 교신이 가능했다. 따라서 연대급 이상의 부대에서 육군 정찰기 또는 공군 전술항공통제관 및 전술항공통제반을 통해서만 전투기 공격을 요청할 수 있었다.⁸³⁾

이러한 경우 연대장들이 긴급항공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연대에 파견되어 있는 전술항공통제반이나 사단 인근 작전지역 상공에 체공중인 전술항공통제기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실제로 지상군 부대가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제8군에서 활동하고 있던 전술항공통제반(TACP)은 7월 초 6개 반에서 점차로 증가되어 7월 말에는 10개 반이 운용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군 사단에 1개 반, 미군의 연대급 이상 부대에 1개 반씩 할당되었다. 그러나 어떤 연대에는 TACP를 할당받지 못한 부대도 있었다.⁸⁴⁾

공군의 근접항공지원 작전은 전술항공통제체계를 활용하여 전투기가 출격하면 전투지역으로부터 대략 10마일 밖에서 지상군이 요청한 표적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표적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상군 포병 화력이나 연막포탄으로 표지하여 최종공격 지침을 전술항공통제반이나 전술항공통제관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상군에는 연대급 이상 부대에 전술항공통제반이 배치되었고 해병 보병부대에는 대대급 이상에 독자적으로 전술항공통제반(ANGELICO: Air Naval Gunfire Liaison Company)을 운용하였다. 당시 전선에서 지상군과 해병 보병부대는 항공전력의 운용 기준을 전술항공통제반의 위치와 우군 포병화력의 지원여부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즉 지상군과 공군은 전선으로부터 최인접지역에 위치해 있는 표적에 대해서는 항공폭탄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포병화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급한 경우와 1,000야드 밖의 차단된 표적과 포사격 거리를 벗어난 표적을 공격할 때는 항공전력을 운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해군과 해병보병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시 태평양 지역에서의 상륙작전을 토대로 해군의

합포사격 후에 근거리 포병화력 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전력을 포병화력으로 대신한 이른바 '날아다니는 포병'의 역할을 수행하여 병력 진출선으로부터 50~200야드 밖의 표적에 대해서 공격하는 전술을 운용하였다.⁸⁵⁾

따라서 전투기가 출격하여 전술항공통제본부과 교신하면 합동작전본부로부터 표적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전술항공통제본부의 유도에 따라 임무 수행지역에 도착하면 전술항공통제관이나 전술항공통제반의 유도하에 표적지역으로 진입하여 공중공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 4 절 유엔군사령부의 창설과 지휘체계 수립

1. 유엔군사령부의 창설 결의

유엔군사령부의 설치는 6월 25일과 27일(미국시각)의 두 번에 걸친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기초하여 7월 7일 유엔안보리의 “통합군사령부 설치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그 실현을 보게 되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8일 두 번째 결의문을 채택하자, 미국을 위시하여 오스트리아와 영국이 직접 해·공군을 파견하고, 이어서 각 회원국들이 한국을 원조할 뜻을 비쳐왔다. 이에 유엔에서는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세 번째 결의문을 채택하여 역사상 최초로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하고 유엔군사령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 창설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즉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의 지휘구조는 미국이 유엔을 대신하여 한국의 작전을 통제하고, 유엔과 현지 사령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배제하며, 정책적인 결정사항은 작전사령관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결정하도록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⁸⁶⁾

1950년 7월 7일 개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작성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유엔 결의안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확정하고, 군사력과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이 미국 책임하의 통합군사령부가 그러한 군사력과 기타지원을 운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미국이 그러한 군사력을 지휘할 사령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하고, 통합군사령부가 미국의 재량으로 북한군에 대한 작전 중 유엔기를 여러 참전국의 국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통합군사령부의 책임하에 취해진 작전경과

에 관한 적절한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고 결정하였다.⁸⁷⁾ 즉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침략자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유엔회원국들이 파견한 군대는 미국의 통일된 지휘체계 속에 둔다는 것이었다.

- ① 한국을 증원하는 모든 회원국의 군사 및 기타원조는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로 하여금 관장케 한다. ② 통합사령관의 임명을 미국에 요청한다. ③ 작전 중 참전국의 국기 및 UN기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⁸⁸⁾

이에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를 그 자신의 군사집행 대행기구로 지정함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대장이 한국에서의 작전임무에 관한 합동참모본부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⁸⁹⁾ 따라서 합동참모본부가 유엔을 대신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핵심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⁹⁰⁾ 또한 유엔 회원국으로부터의 전투 및 지원부대의 파견 제의는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를 거쳐 합동참모본부로 조회되었고, 합동참모본부는 이의 적부(適否)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건의하게 되었다.

특히 7월 7일 유엔군 창설 결의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은 그 날 유엔주재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장군으로부터 맥아더 원수에게 수여되는 유엔기

미 대사에게 유엔기를 수교하였고, 7월 13일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대장이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하여 유엔군사령관에게 전달하였다. 제8군사령부에는 그 4일 후인 7월 17일에 전달되었다.⁹¹⁾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 장군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다음날 7월 8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였고, 7월 10일에는 정식으로 임명하는 지시서를 발송하였다. 곧 이어 미 육군부도 7월 12일 맥아더에게 상세한 지침을 하달하여 “미국의 작전임무는 국제정치상 어디까지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지원하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강조했다.⁹²⁾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된 맥아더 장군은 우선 극동군사령부를 통해 유엔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가 7월 24일에 정식으로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극동군사령부의 인력 제한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참모는 극동군사령부의 참모진이 거의 그대로 보직됨으로써 미 극동군사령부가 이종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은 미 극동군사령부의 각 구성군(構成軍)인 미 제8군사령부(지상군), 미 극동해군사령부, 미 극동공군사령부를 통하여 유엔 지상군·해군·공군의 작전을 통제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부에 2주일에 한번씩 유엔군의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보고절차는 국방부를 거쳐 국무부로 보내,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단에게 제출되었다.⁹³⁾

2. 유엔군의 지휘체계

유엔군의 지휘체계는 유엔군 창설시 미국 대통령에게 유엔군사령관 임명에 대한 권한과 동시에 통제까지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를 그 대행기구로 지명하고 유엔군사령부에 전략지시를 내리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필요한 군사정보 및

자료제공 이외에도, 전쟁수행의 중간제대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구사령부인 미 극동군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국전선에서 지상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8군사령부로 하여금 미국이 결정한 군사정책 및 전략방침 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전쟁을 지도하고 통제했다.

이처럼 유엔의 통합군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유엔의 작전지휘체계는 기존의 미 극동군사령부가 추가로 유엔군사령부 임무를 겸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군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지휘면에서는 전쟁 기간 큰 무리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이는 유엔이 별도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극동에 있는 미국의 통합군사령부인 극동군사령부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따라 유엔으로부터 한국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전구사령관에 이르기까지의 전쟁지휘체계가 단순화됐다.

미 극동군사령관은 미국의 전쟁지도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군사기관으로부터의 모든 전략적 지시를 직접 받아 작전을 지휘했다. 맥아더의 유엔군사령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유엔의 집행기관 역할을 하게 될 트루먼 대통령이 그를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맥아더는 전쟁 이후 한국에 전개된 미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그가 사령관으로 있는 극동군사령부의 극동육군을 비롯하여 극동해군과 극동공군 등에 대한 통합군사령관으로서 각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작전지휘권이 있었다.

즉 한국전선에서 유엔군의 지휘체계는 “미국의 국가통수기구 및 유엔의 안보리 결의 → 미 합동참모본부의 전략지시 →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침 → 유엔지상군(제8군사령부)·유엔해군·유엔공군사령부 작전지시 → 한국군부대 및 유엔군부대로 연결되었다.

한국에서 지상전투를 책임지고 있던 미 제8군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이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전쟁이전부터 일본에서 점령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제8군의 사령관이었다. 미 제8군이 7월 13일 한국으로 이동하자 그는 한반도에서 미 육군의 작전에 대한 모든 지휘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 때 이승만 대통령

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하는 조치를 직접 취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5일 맥아더에게 보낸 개인 서신에서 전쟁 기간 동안 맥아더에게 한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이양한다고 밝혔다.⁹⁴⁾ 이틀 후인 7월 17일 맥아더 장군은 워커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것을 지시했다.⁹⁵⁾ 그러나 미 제8군사령부의 한국군에 대한 지휘는 제8군과 한국의 육군본부가 상하관계라는 위치 때문에 작전을 하는데 있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작전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국의 육군본부에 명령하기 보다는 요청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군과 조화를 이루며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⁹⁶⁾

제 5 절 국립경찰의 지휘체계 정비

전쟁 초기부터 국군과 합동작전을 벌인 전선지역의 경찰은 군의 지연작전에 따라 후방으로 철수하고, 도내의 경찰은 치안유지 및 공비출몰지역에 대한 탐색과 격멸전에 협력하였다. 당시 전투지대내에서 가장 악전고투한 강원도 경찰의 5개 대대병력은 지역별로 경비를 분담하다가 전세가 급전하자 곧 원주 부근으로 집결케 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곤란한 인제-강릉-홍천-삼척-영월-평창 일대의 경찰은 북한의 유격부대와 조우, 국지전투를 벌이면서 각개 철수하였다. 따라서 7월 5일 경찰병력의 일부는 영주-안동 부근으로 철수하고, 2개 대대규모의 병력만이 원주 부근으로 집결하여 제6, 제8 양사단의 작전을 지원하다가 충주-청주-대전으로 철수하였다. 또한 동해안의 경찰은 삼척에서 춘양-일월산 부근으로 철수한 다음, 26일부터 대유격전을 벌이면서 8월초에 청송 부근의 기갑연대 작전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서울-경기-충남북의 경찰은 지대내의 양곡과 인원을 수송하던 중 경찰사령부의 작전명령으로 7월 9일부터 대전 부근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이때 충청남도지사의 엄명에 따라 지역내의 행정관서장들은 적이 침입하기 직전까지 인원과 시설보호 및 물자수송에 전력하였다. 이어서 7월 14일 정부의 중앙행정부서가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함에 따라 경찰은 일부병력만을 뒤따르게 하고, 주력은 20일까지 대전에 잔류하여 미 제24사단의 방어전에 협력한 후 대구로 집결하였다. 이때 논산-강경선으로 철수한 충남경찰 1개 대대와 전북경찰이 이곳 도계를 연하여 적침을 저지하였다. 당시 전남북도 일원에는 4개 대대규모의 경찰이 산재하고 있었으나, 적이 도계를 넘어설 때까지 계엄지역에서 제외되고 있었으므로 각 경찰서장의 관장하에 행동하였다. 그러나 21일에 대전이 상실되고 양도

에 계엄령이 선포됨으로써 동지역의 경찰은 각 사단장이 관장케 되었다.

1. 정부 수립 이후 경찰의 조직과 발전

1) 중앙 조직과 지휘체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신생정부는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국가의 행정권을 완전히 인수하였다. 인수의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은 이미 7월 17일에 대한민국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마련되어 있었다. 정부조직법 제14조는 정부에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를 두고, 각 부에 장관 1인을 둔다고 규정하였다.

내무부 직제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15조에 있었다. 내무부장관은 “지방 행정, 선거, 치안, 소방, 도로, 교량, 하천, 수도, 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하고 지방치안단체를 감독한다. 이를 위해 내무부에 지방국, 치안국, 토목국, 통계국을 둔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가운데 치안국은 경찰조직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부서였다.

그리하여 조선말기의 경무청, 조선총독부의 경무국, 미군정하의 남조선과도정부(過渡政府)의 경무부로 이어지던 경찰의 중앙조직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내무부 치안국(治安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미군정하의 부(部)가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의 부로 계승되었지만 경무부는 내무부의 1개 국으로 예속되었다.⁹⁷⁾ 예를 들면 국방조직을 총괄하는 통위부(統衛部)는 정부 수립 이후 수평 이동을 하여 국방부로 개칭되어 육군과 해군을 지휘 감독하였다.

1948년 9월 3일 경무부는 정식으로 내무부에 인수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경무총감부와 감찰서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계급은 감찰관(경무관과 총경 사이 계급)이 없어지고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으로 이루어졌다. 치안

국장과 시경국장은 이사관(理事官)으로 보임되었다.⁹⁸⁾ 도 경찰국장에는 경무관이, 그리고 경찰서장에는 총경 및 경감이 보임되었다. 치안국의 국장은 총경으로 보임되었다.

1948년 11월 14일 치안국은 내무부 직제 개편으로 경무과, 보안과, 경제과, 수사지도과, 사찰과, 감식과, 통신과, 여자경찰과, 소방과의 9개 과로 되었다. 그 중 경무과는 조직, 인사, 보급,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감식과는 지문감식과 법의학적감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경제과는 일제시 전시체제에 따라 경제통제를 위하여 경무국에 설치되었던 것을 미군정하에서 폐지되었는데 정부 수립과 함께 다시 부활하였다. 그러나 1949년 7월 경제과는 다시 폐지되었다. 1949년 10월 23일에는 치안국에 교육과가 신설되어 경찰관의 교양교육과 승진시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950년 4월 1일 치안국은 여경과와 소방과를 폐지하고 이에 관한 업무는 보안과로 이관되었다.⁹⁹⁾

특히 경찰은 여순 10·19사건 이후 조직상의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치안국은 1948년 10월 여순 10·19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10월 하순에 비상경비총사령부를 설치하여 전국의 모든 전투경찰을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각 도(道)의 경찰국에도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하였다.¹⁰⁰⁾ 이에 따라 치안국장이 비상경비총사령관이 되어 그 예하에 행정·정보·작전·통신 부



6·25전쟁 이전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중인 경찰관의 모습

서로부터 보좌를 받았다. 각 도의 비상경비사령부도 이에 준한 참모조직을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비상경비사령부의 작전참모는 보안과장이 맡았다.

또한 경찰은 비상경비총사령부를 주축으로 전투력을 강화해 나갔다. 비상경비총사령부는 1949년 9월 2일 1개 중대규모의 특별기동대를 편성하였다. 1950년 4월 15일에는 경찰간부 24명을 육군보병학교에 입교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이들을 중심으로 2개의 전투경찰대대를 창설하여 군과 함께 공비토벌에 운용되었다. 이에 따라 1949년 4월 20일 제8·제9전투경찰대대가 창설되었고, 각 대대는 496명으로 편성되었다. 전쟁 이전 제8전투경찰대대는 강원도 영월과 장성일대에 배치되었고, 제9전투경찰대대는 강원도 춘천에 배치되었다.¹⁰¹⁾

6·25전쟁 발발시 경찰은 중앙에 내무부장관을 지휘 감독을 받는 치안국이 있었고,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는 경찰국이 있었고, 그 예하에는 경찰서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비상시 비상경비사령부 체제로 전환하여 치안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⁰²⁾

2) 지방조직과 지휘체계

경찰이 내무부로 속하게 되면서 각 시·도의 경찰국도 이제는 시장 또는 도지사의 보조기관이 되었다. 1948년 11월 18일을 기하여 서울시는 기존의 경찰조직인 제1경무총감부·수도관구경찰청·철도관구경찰청을 인수하였고 경상북도는 제2경무총감부를 전라북도는 제3경무총감부를 인수하였다. 서울특별시경찰국은 1949년 1월 1일부로 그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¹⁰³⁾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 경찰조직의 명칭에 대한 개편이 있었다. 1949년 2월 23일 정부는 이제까지 번호에 의하여 호칭되던 경찰국과 경찰서의 명칭을 지명에 의하여 부르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구경찰청은 서울특별시경찰국으로, 제1관구경찰청은 경기도경찰국으로, 제2관구경찰청은 강원도경찰국으로, 제3관구경찰청은 충청남도경찰국으로, 제4관구경찰청은 충청북도경찰국으로, 제5관구경찰청은 경상북도경찰국으로, 제6관구경찰청은 전라북도경찰국으로, 제7관구경찰청은 경상남도경찰국으로, 제8관구경찰청은 전라남도경찰국으로 개정되었다.¹⁰⁴⁾

<표 4-6> 6·25전쟁 당시 전국 경찰서 현황

구 분	경 찰 서	비 고
서울시 경찰국	서대문경찰서, 동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경무대경찰서, 성북경찰서, 영등포경찰서, 마포경찰서, 용산경찰서, 중부경찰서, 성동경찰서	10개
경기도 경찰국	용진경찰서, 연백경찰서, 개성경찰서, 장단경찰서, 파주경찰서, 포천경찰서, 가평경찰서, 강화경찰서, 양주경찰서, 김포경찰서, 인천경찰서, 인천수상경찰서, 동인천경찰서, 부평경찰서, 안양경찰서, 광주(廣州)경찰서, 양평경찰서, 수원경찰서, 용인경찰서, 이천경찰서, 여주경찰서, 평택경찰서, 안성경찰서, 고양경찰서, 배천경찰서	25개
강원도 경찰국	춘천경찰서, 홍천경찰서, 강릉경찰서, 횡성경찰서, 평창경찰서, 정선경찰서, 삼척경찰서, 원주경찰서, 영월경찰서, 울진경찰서, 인제경찰서, 주문진경찰서, 장성경찰서	13개
충청남도 경찰국	서산경찰서, 당진경찰서, 온양경찰서, 천안경찰서, 홍성경찰서, 예산경찰서, 조치원경찰서, 보령경찰서, 청양경찰서, 공주경찰서, 사천경찰서, 부여경찰서, 강경경찰서, 대전경찰서, 대안경찰서, 유성경찰서	16개
충청북도 경찰국	진천경찰서, 음성경찰서, 충주경찰서, 제천경찰서, 단양경찰서, 청주경찰서, 괴산경찰서, 보은경찰서, 옥천경찰서, 영동경찰서	10개
경상북도 경찰국	문경경찰서, 예천경찰서, 영주경찰서, 봉화경찰서, 상주경찰서, 의성경찰서, 안동경찰서, 영양경찰서, 김천경찰서, 선산경찰서, 군위경찰서, 청송경찰서, 영덕경찰서, 성주경찰서, 칠곡경찰서, 영천경찰서, 포항경찰서, 영일경찰서, 고령경찰서, 대구경찰서, 경산경찰서, 경주경찰서, 청도경찰서, 울릉경찰서, 남대구경찰서	25개
경상남도 경찰국	함양경찰서, 거창경찰서, 합천경찰서, 창녕경찰서, 밀양경찰서, 양산경찰서, 울산경찰서, 산청경찰서, 진주경찰서, 의령경찰서, 함안경찰서, 마산경찰서, 진해경찰서, 김해경찰서, 부산경찰서, 북부산경찰서, 수성경찰서, 동래경찰서, 하동경찰서, 삼천포경찰서, 고성경찰서, 충무경찰서, 거제경찰서, 남해경찰서	24개
전라북도 경찰국	군산경찰서, 이리경찰서, 금산경찰서, 무주경찰서, 김제경찰서, 전주경찰서, 진안경찰서, 부안경찰서, 정읍경찰서, 임실경찰서, 장수경찰서, 고창경찰서, 순창경찰서, 남원경찰서	14개
전라남도 경찰국	영광경찰서, 장성경찰서, 담양경찰서, 곡성경찰서, 구례경찰서, 함평경찰서, 나주경찰서, 광주경찰서, 화순경찰서, 순천경찰서, 광양경찰서, 목포경찰서, 영암경찰서, 보성경찰서, 여수경찰서, 진도경찰서, 해남경찰서, 강진경찰서, 장흥경찰서, 고흥경찰서, 완도경찰서, 무안경찰서, 벌교경찰서, 제주경찰서, 남제주경찰서, 모슬포경찰서, 성산포경찰서	27개

이처럼 관구경찰청은 경찰국으로 개편되고 경찰국과 경찰서의 명칭에 지명을 붙이게 될 무렵 경찰서의 증설도 이루어졌다. 경찰서의 증설은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49년 1월 18일 제주 4·3사건으로 문란해진 제주도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경찰서와 남제주경찰서 이외에 모슬포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증설하여 제주도에 총 4개의 경찰서를 운영하게 되었다.¹⁰⁵⁾

1949년 2월 23일에는 서울의 창덕궁경찰서(昌德宮警察署)가 폐지됨과 동시에 국가원수와 중앙청 경호경비를 위한 경무대경찰서(景武臺警察署)가 설치되었다. 인천경찰서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1949년 5월 17일 인천수상경찰서와 동인천경찰서를 증설하고 강원도 정선경찰서를 신설하여 삼척경찰서가 관할하던 구역의 일부를 떼어서 여기에 이관하였다. 이외에도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관할하던 경기도 고양군 일원은 1949년 10월 11일에 고양경찰서 신설로 분리되어 나갔다. 1949년 9월 3일에는 달성경찰서를 남대구경찰서로 개칭하였고, 1949년 12월 10일에는 북한군의 습격을 받아 문제가 된 바 있는 황해도 배천(白川)경찰서의 위치를 연백군 온천면에서 유곡면으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1945년 147개 경찰서로 출발한 경찰은 1949년 말 현재 서울특별시경찰국 및 8개 도경찰국 산하에 170개 경찰서로 늘어났다.¹⁰⁶⁾ 이들 각 시도별 경찰국 산하의 경찰서를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¹⁰⁷⁾

이들 각 경찰서 밑에는 파출소가 출장소가 편성되어 있었고, 파출소장은 각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파출소는 주로 읍이나 면 단위에 편성 운영되었다. 파출소장의 계급은 대부분 경위였다.

3) 철도 경찰

치안국에는 특수경찰로서 철도경찰이 편성되어 있었다. 철도경찰은 8·15광복 직후 전국철도시설을 부호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일제시대 철도는 거의 군수품의 수송에만 충당되고 있었을 뿐 일반 승객이나 민간물자 수송문제는 거의 경시되어 오다가 광복과 함께 갑작스러운 수송상황의 변화와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 즉 해외로부터 귀국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송, 일본 패전군의 이동과 귀국, 압제

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국민의 이동과 흩어져 있던 가족들의 귀향, 미군의 진주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물자·인원·장비·수송, 민간물자의 급증 등 수많은 수송문제가 야기되었다. 특히 공산분자들의 파괴활동은 철도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¹⁰⁸⁾

이에 따라 미 군정청에서는 철도 공안 문제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해 미 군정청은 1946년 1월 25일 일반경찰과 분리된 특수경찰로서 철도경찰부(鐵道警察部)를 설치하여, 철도 및 열차 내에서의 범죄사고의 미연방지와 단속 및 불순분자를 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철도경찰은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립경찰로 편입됨으로써 치안국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 때 철도경찰은 대통령령 제75호(1949년 4월 26일)¹⁰⁹⁾에 의해 철도경비와 이와 관련된 경찰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무부 치안국의 보안과 내에 철도경찰본대(鐵道警察本隊)를 두고, 서울, 용산, 청량리, 인천, 개성, 대전, 이리, 광주, 목포, 순천, 대구, 안동, 부산에 철도경찰대(鐵道警察隊)를 두도록 하였다.¹¹⁰⁾

철도경찰본대장은 경무관이, 그리고 철도경찰대장에는 총경 또는 경감 중에서 보임하도록 하였다. 철도경찰본대장은 상사의 명령을 받아 철도경찰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본대장의 명을 받아 철도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¹¹¹⁾

2. 전쟁 발발 후 경찰의 지휘체계와 정비

1) 경찰의 지휘체계와 군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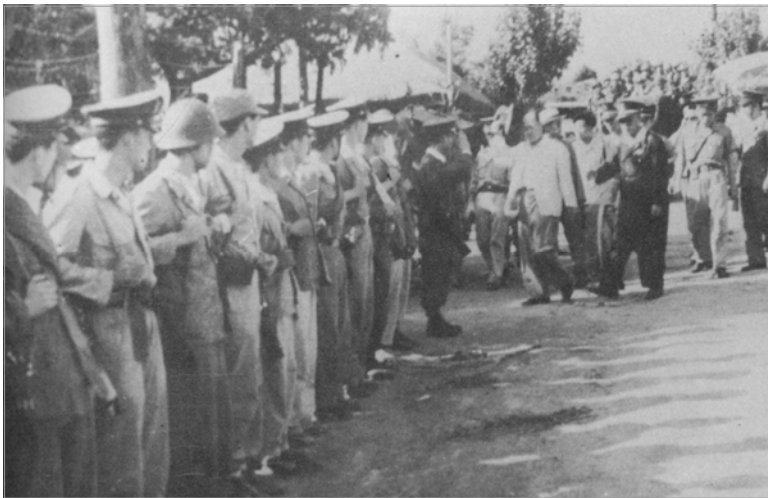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일 일어나자 경찰은 비상체제로 돌입하였다. 경찰은 남침 상황을 접수받자 치안국에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1948년 여순 10·19사건 이후 운영된 바 있는 비상경비체제로 전환하여 전국의

경찰을 지휘하였다.

비상경비총사령부는 전국 경찰에게 전투태세로 돌입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38도선의 접경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경찰국에는 국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 6월 25일 비상경비사령부가 북한의 남침에 맞서 전국 경찰에 내린 명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도(道) 경찰국 비상경비사령부는 남침하는 적(敵)에 결사적으로 저항하라.
- ② 각 경찰서 단위로 전투경찰부대를 즉각 편성하고, 비상경비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작전하라.
- ③ 철도, 군(軍) 주보급로, 주요 교량, 철교, 터널, 발전소, 식량창고 등 국가 주요시설경비에 만전을 기하라.
- ④ 피난민을 가장한 적의 오염을 색출하고, 후방교란책동을 봉쇄하라.
- ⑤ 현지 군(軍) 지휘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하라.
- ⑥ 전상(戰傷) 군관민의 입원후송에 철저를 기하라.
- ⑦ 전재(戰災) 피난민의 소개와 구호활동에 노력하라.¹¹²⁾

경찰은 전쟁 발발 이후 평시 치안경찰에서 전시 전투경찰체제로 즉각 전환하여 이에 대처하였다. 이에 따라 지휘체계는 치안국의 비상경비사령부가 각 시·



6·25전쟁 발발 직후 출동태세를 갖춘 경찰

도 경찰국을 통해 예하의 경찰서와 파출소를 지휘하였다. 경찰과 군과의 관계는 비상경비사령부의 명령에서 밝혔듯이 상호 협조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전쟁 당일 38도선 지역에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거나, 전쟁 초기 포천 동측방의 내촌 지역에서 육사생도대대와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기동대가 동일한 지역에서 작전을 실시할 경우에는 군이 경찰을 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군과 경찰의 관계는 1950년 7월 8일 계엄령이 선포되어 계엄사령부가 경찰을 통제할 때까지 이어졌다.

2) 38도선 접경지역 및 서울에서 경찰 활동

전쟁이 발발했을 때 38도선 접경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경기도 경찰국과 강원도경찰국은 군과 마찬가지로 바로 교전상태로 들어갔다. 경기도비상경비사령부 예하 경찰서 가운데 38도선 일대에서 전쟁 당일부터 북한군과 교전을 했던 경찰서는 용진경찰서, 청단경찰서, 연안경찰서, 배천경찰서, 개성경찰서, 장단경찰서, 파주경찰서, 그리고 개성철도경찰대 등이 있었다.

전쟁 발발 당시 경기도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경무관 이하영)가 담당했던 지역은 국군 제17연대와 국군 제1사단, 그리고 국군 제7사단의 책임방어지역이었다. 국군 제17연대와 함께 전투를 했던 경찰로는 용진경찰서여로 이들은 제17연대가 해상 철수할 때 같이 철수하였다. 제1사단 책임지역에서 전투를 전개했던 경찰로는 청단경찰서, 연안경찰서, 배천경찰서, 개성경찰서, 장단경찰서, 파주경찰서, 그리고 개성철도경찰대였다. 이들 경찰들도 국군 제1사단과 함께 전투를 하다가 역부족인 상황에서 강요에 의한 철수를 하였다. 그러나 개성철도경찰대는 경찰대장 감봉룡(甘鳳龍) 경감을 비롯한 50여명은 본부건물에서 적에게 끝까지 항전하다가 43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¹¹³⁾ 국군 제7사단의 책임방어지역에서는 동두천, 의정부, 포천경찰서가 적과 교전을 벌였으나 역부족이었다. 경기도비상경비사령부는 27일 인천에서 수원으로 철수하였다.

강원도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경무관 윤명운)가 담당했던 지역은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의 책임방어지역이었다. 국군 제6사단 책임지역 가운데 적과 교전을

했던 경찰로는 춘천경찰서, 홍천경찰서, 인제경찰서, 제9전투경찰대대(-)가 있었고, 제8사단 책임지역에서 적과 교전을 했던 경찰로는 주문진경찰서, 강릉경찰서, 삼척경찰서, 제8전투경찰대대와 제9경찰대대 제3중대가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주요 전투로는 춘천경찰서와 제9전투경찰대대(-)가 수행했던 춘천 부근 전투, 영월경찰서와 장성(長省)경찰서, 정선경찰서, 그리고 제8·제9전투경찰대대가 영월 일대에서 수행했던 전투가 있다.¹¹⁴⁾ 강원도비상경비사령부는 27일 홍천으로 이동하였다가 29일 다시 원주로 철수하였다.

서울시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이사관 김태선)는 전쟁이 일어나자 일면 전투준비를 갖추면서 헌병사령관과 협조하여 서울 시민의 동요를 막고자 노력하였다. 서울시경국장과 헌병사령관 송요찬 대령의 공동명의로, “북한군이 6월 25일을 기하여 38도선을 침범, 만행중이니 시민은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동시에 군경을 신뢰하여 동요치 말고 당국의 지시에 따를 것”을 공표하였다.¹¹⁵⁾ 서울시비상경비사령부는 의정부 축선의 전황을 수집하던 중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0호에 의거 “1개 대대의 전투경찰을 육군사관학교에 배속하라”는 명령에 따라 전쟁 당일 서울시경찰국 기동대(대장 경위 이강현) 300명이 포천 남동쪽에 위치한 내촌 지역으로 긴급출동하였다. 서울시 기동대는 26일 적의 공격을 받고 태능으로 후퇴하다가 서울시경찰국본부로 복귀하였다.¹¹⁶⁾ 이 무렵 의정부가 함락되고 서울이 위기에 빠지자 서울의 경찰서 병력을 동원하여 미아리 전선에 투입하였으나 적의 전차 공격 앞에 각개 분산되었다. 이에 서울시비상경비사령부도 27일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였다.

3) 서울 함락 이후 비상경비사령부의 조치와 활동

6월 28일 한강교 폭파와 잇따른 서울의 함락으로 경찰은 기동장비를 유기하고 병력이 분산됨으로써 재편성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비상경비총사령부는 7월 1일 최연(崔燕) 총경을 수원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함과 동시에 경찰병력을 수용하여 중대 또는 대대 단위의 전투경찰을 편성하여 군 작전에 협력하도록 하였다.¹¹⁷⁾

7월 2일에는 천안에 집결된 서울시경 병력과 평택에 집결한 경기도 병력을 안양과 수원지구의 전선으로 투입하고, 천안에 있던 철도경찰대 본부병력은 안양-수원-천안-조치원간의 후보급로를 확보토록 하였다. 경북, 충북, 충남의 각 도경 병력과 철도경찰대 본대병력 중에서 1,350명을 차출하여 천안-김천 사이의 철로,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경비를 강화하였다.

7월 3일에는 다시 수습된 서울시경 병력 300명을 동원하여 철도경비를 강화하고, 충북도경 병력 500명을 강원도 영월에 투입하였다.

7월 4일에는 경기도 병력 300명으로 수원-천안문의 철도경비를 보강하고, 서울시경 병력 500명은 천안주위의 야산에 배치하였으며 100명을 미군의 요청에 따라 평택주둔 미 스미스특수임무부대에 파견하였고, 대전으로 철수한 서울시경 병력을 이날 중으로 천안까지 전진토록 하여 그 중 500명으로 수원-천안 사이의 철도경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7월 5일에는 강원도경 병력으로 하여금 충북 제천 및 단양지구에 투입하여 적의 남진을 저지토록 조치하는 한편 천안에 집결중인 서울중부경찰서 병력을 음성지구 전선에 급파하여 군과 협조, 적의 전진을 지연토록 하였으며 충남병력 300명을 옥천-추풍령지구에 배치, 적의 유격활동을 봉쇄하게 하였다.¹¹⁸⁾

7월 6일에는 경·남북 경찰병력 720명으로 부산-김천 사이의 철도를 경비하도록 하였고, 대전에 집결 중인 서울 및 경기도 경찰병력 589명을 조치원 지역에 배치하였다. 7월 7일에는 대전에서 낙오병력 520명을 수습하여 대전 외곽경비와 금강연안의 각종 주정(舟艇)과 도섭장(渡涉場)이 적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봉쇄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7월 9일에는 충북경찰병력 250명을 충남병력과 교체하여 옥천지구에 배치하였다. 또한 경북 김천에 편성사령부를 설치하고 신상목 총경으로 하여금 낙오경찰병력을 통할 편성하도록 하여 전투훈련을 실시한 후 각 전선으로 보냈다. 10일에는 전선 상황의 추이에 따라 대전방어태세를 완비하고 간첩 및 불순분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였다. 11일에는 충남경찰병력 300명, 서울시경찰병력 200명을 1개 대대로 편성하여 윤석렬 총경을 대대장으로 청양지구에 배치하여 남침 유격대를 격멸하도록 하였다.

7월 12일에는 경기도 경찰병력 300명 및 재편성부대 200명을 1개 대대로 편성하고 이만흠 총경을 대대장으로 하여 충청도 홍산 및 사천 지구에 배치하였다. 경찰은 제1차 방어선을 추풍령으로, 제2차 방어선을 영동 삼도봉으로, 제3차 방어선을 남원 밤고개로 각각 설정하고 이곳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제1방어선인 추풍령지구에는 신상묵 총경이 지휘하는 경찰병력을 배치하였다. 또한 경찰은 강원도 경찰병력 중 1,500명을 전호인 총경 지휘하에 봉화, 영양, 안동, 영덕지구에 배치하였고, 권오철 총경 지휘하에 1,000명을 영동, 청송, 영일지구에 배치하였다.¹¹⁹⁾

7월 13일에는 경찰은 중요보급물자를 대전지구로부터 대구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경기경찰병력 200명 및 재편성 병력 300명을 동원하여 미군에 파견하여 금강선 방어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7월 14일에는 치안국 교육과장 김상봉 경무관을 총지휘관으로 하여 일부 경찰병력을 대전에 잔류시키고 나머지 비상경비 총사령부 요원은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대구로 이동하였다.¹²⁰⁾

제 6 절 분석 및 평가

1. 국군 재편성과 유엔군 창설의 의미와 의의

국군의 재편성은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한강방어선이 붕괴되는 긴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 재편성은 육·해·공군 등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차후 한미연합전선 형성과 지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하였다. 이때부터 국군은 지연작전이라는 새로운 작전개념과 새롭게 개편된 국방체제하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지원을 받으며 전쟁을 수행해 나갔다.

육군 재편성은 한강선 방어가 붕괴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새로 육·해·공군총사령관 겸 육군총참모장에 임명된 정일권 소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재편성은 38도선 초기 방어전투에서부터 한강방어선 전투를 거치면서 전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사단 및 연대를 해체하여 다른 사단 및 연대에 통합시키는 방식이었다. 또한 육군본부와 사단 사이에 고급사령부인 군단을 창설하여 육군본부의 지휘부담을 줄이고,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지상군의 재편성 및 연합전선의 형성과 때를 같이하여 해·공군도 전력을 보강하고, 지상군과의 합동작전 및 유엔 해·공군과의 연합작전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공군은 7월 2일 F-51 전투기 10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6일에는 비행단과 정찰비행단으로의 기구개편을 단행하여 군단에 대한 정찰지원과 미 공군과의 연합작전으로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다. 미 공군은 7월 5일 대전에 공지합동작전본부를 설치하고 6개의 전술항공통제반을 운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이를 증강 시킴으로써 공지작전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작전간에 발생하는 오폭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해군은 실질적으로 6월 27일부터 미 해·공군과 연합작전에 들어가 동서 양해안에서 해상작전 및 지상군 지원작전을 실시하였고, 6월 30일부터는 해상을 봉쇄함에 있어 37도선을 경계로 그 북부를 미 해군이 담당함에 따라 그 남쪽은 한국해군이 분담하여 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함포연락장교(NGLO) 등이 파견되지 않아 지원의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 대신 고문관들이 임시로 그 역할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국군의 재편성이 끝날 무렵 정부는 전시하의 작전수행을 적극 협조하기 위해 7월 8일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국방부는 국군과 미군간의 연합작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7월 10일 국제연합장교단을 창설하였다. 국제연합장교단은 국군과 유엔군 및 유엔 한국위원단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치된 유엔군 창설은 유엔헌장과 목적에 기초를 두고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서였다. 유엔군은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북한의 침략행위를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의해 무력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유엔안보리는 유엔군의 지휘권을 단일화하여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엔회원국 군대를 지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휘체계를 정비한 가운데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게 되었다.

한편 경찰도 전쟁 발발 이후 평시 치안경찰에서 전시 전투경찰체제로 전환하여 이에 대처하였다. 이에 따라 지휘체계는 치안국의 비상경비사령부가 각 시·도 경찰국을 통해 예하의 경찰서와 파출소를 지휘하였다. 경찰과 군과의 관계는 비상경비사령부의 명령에서 밝혔듯이 상호 협조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전쟁 당일 38도선 지역에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거나, 전쟁 초기 포천 동측방의 내촌 지역에서 육사생도대대와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기동대가 동일한 지역에서 작전을 실시할 경우에는 군이 경찰을 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렇듯 국군과 유엔군은 미지상군의 참전, 국군의 재편성, 국립경찰의 군 작전 협조, 그리고 한·미연합전선의 형성 등 일련의 상황변화를 계기로 삼아 조기반

격작전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회 포착에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작전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에 비해 상대적인 전력의 약화로 미군과 더불어 지연작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지연작전은 북한군의 주공인 제1군단이 경부축선과 중서부축선 및 서해안축선으로 압박을 가하고, 제2군단이 중부 및 중동부축선과 동해안 도로로 남진함에 따라 이 공간에서 축선별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국군과 유엔군은 최소의 공간을 양보하고 최대의 시간을 획득하며, 그동안 적에게는 최대의 손실을 가하면서 아군의 전력을 신속히 회복하는 지연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연합 및 합동작전의 의의

한미연합작전의 합의에 따라 평택-안성선에 전개한 미지상군이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국군은 그 이동에서 동해안까지 전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는 미 지상군의 투입이 결정되고, 선두부대인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전개한 7월 1일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이 대전의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에서 가진 처치 준장과의 작전협의를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가능한 한 오래 동안 한강방어선을 지탱하고, 차후 경부국도 연변에서 적을 저지하면서 미 제24사단의 진출을 엄호하며, 미군이 진출한 이후에는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은 미군이 맡고 한국군은 그 이동지역을 분담하되, 한·미 양군은 남한에서 가장 폭이 좁은 평택-안성-충주-울진선에서 적을 적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스미스부대가 평택-안성에 전개한 7월 4일, 시흥사령부 예하 병력이 수원에서 철수하여 평택 남쪽으로 집결하는 상황을 맞게 되자 이 부대들로 제1군단을 창설하는 등 육군병력을 전반적으로 재편성하여 한미연합작

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기로 하였다.

연합전선 형성시 국군의 책임지역에는 제6사단 제19연대가 안성 동쪽의 송전-죽산에, 제7연대가 그 동쪽의 무극리-동락리에, 제2연대가 충주를 점령하고 있었다. 충북 제천에는 제8사단이 그리고 동해안 울진 부근에는 제23연대가 작전 중에 있었다. 이때 연합전선은 제천부근을 제외하고는 대대-연대 단위의 부대가 중요 예상접근로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대규모가 작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대간의 간격이 넓어 방어력이 대단히 취약하였다. 그러나 국군은 이러한 열세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적의 남진을 최대한 지연시켜 나갔다.

또한 미 해공군의 지원에 이어 지상군이 한반도에 전개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 간에는 연합 및 합동작전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전쟁 초기 육·해·공군간의 합동작전의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 전쟁 발발 당시 극동군사령부는 육·해·공군간의 작전을 위한 협조와 조정은 극동군 참모장인 알몬드(Edward M. Almond) 장군을 통해 이루어졌다. 극동군사령부의 참모부는 대부분 육군 장교로 구성되어 있어 육군의 작전개념이 존중되었고, 해군과 공군은 각각의 독자적인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해 육군과 해·공군 간에도 갈등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의 작전과 생존에 중요했던 7월 한 달 동안 미 극동군사령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항공지원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더욱이 표적 분석반은 오래된 지도를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표적을 선정하는 등 표적선정 업무에 정통하지 않아 항공전력 운용에 낭비를 초래했다.

합동작전을 위한 지휘체계의 정비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공군 작전은 공군사령관의 통제하에 극동공군과 예하 비행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항공지원을 일본 이타츠키의 제5공군 전방지휘소와 협조하지 않고 극동군사령부에 요청하여 다시 극동공군과 일본 이타츠키 제5공군 전방지휘소를 경유 대구에 있는 제5공군 전방지휘소에 지시하여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공지원 요청이 장시간 지연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또한 미 극동군사령부는 육군 장교 위주로 편성된 관계로 실시간 부여되는 항

공작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경험을 구비하지 못해 극동공군이 많은 항공 전력을 전선지역에 집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군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은 극동군사령부에 표적선정위원회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소되었다.

그러나 적을 저지하기에 충분한 미 지상군의 증원 병력이 전개되기 이전 시간을 벌기 위해 공간을 양보하는 지연전에서 미 해·공군의 합동작전은 지상군의 열세한 병력과 화력을 보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의 남진을 지연시키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사전 대비나 준비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군 기습남침을 저지·격퇴하기 위하여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은 미군이, 그 이동지역은 한국군이 담당하여 지연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지연작전을 위해 미국과 유엔의 해·공군은 개전 초기부터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한 가운데 합동작전을 통해 지상군의 작전을 최대하여 적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또한 해·공군은 미 지상군의 증원 병력이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교두보를 확보하여 차후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 (註)

- 1)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이하 국방부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대구: 대한민국 국방부, 1951), pp. A58, A74.
- 2) 국방부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p. A74; 국방부, 『국방사』②(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p. 30-31.
- 3) 국방부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pp. A74, C5-C6.
- 4)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이대통령 특별담화」(1950. 7. 15).
- 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41권, p. 15. 제1군단은 1950년 7월 9일부로 민사부를 설치하고 민사부장에 박시창(朴始昌) 대령을 임명하였다.
- 6) 국방부, 『국방사』②, pp. 111, 115.
- 7) 「국방부 본부 일반명령(육 제40호)」(1950. 8. 10).
- 8) 국방부, 『국방사』②, p. 110.
- 9) 국방부, 『국방사』②, pp. 373-374.
- 10) 공군본부, 『공군발전사』 제1권, 1954, pp. 12-13; 국방부, 『국방사』②, p. 382.
- 11) 국방부, 『국방부사』 제2권, pp. 110-111; 「국본일반명령 제5호」(1950. 7. 7). 7월 10일 임선하 대령을 단장으로 잠정적으로 창설된 국제연합연락장교단은 「국본일반명령 제35호」(1950. 8. 2)에 의해 8월 6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 12) 국방부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p. A74.
- 13) 「헌법(1948. 7. 17 제정)」 제64조에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 하도록 보장되어 있다.
- 14) 「계엄법」(법률 제69호, 1949. 11. 24일 제정).
- 15)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이고, 경비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이다(「계엄법」 제1장의 제3조 및 제4조).
- 16) 국방부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p. C49.
- 17) 「계엄령 선포」(포고 제1호, 1950. 7. 8); 국방부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p. C3.
- 18) 국방부 전사편찬회, 「계엄령선포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 특별담화(1950. 7. 15)」, 『한국전란 1년지』, p. C3.
- 19) 「계엄법」 제2장(계엄의 효력) 제11조.
- 20) 「계엄법」 제2장(계엄의 효력) 제9조.
- 21) 「국방부 본부 일반명령 제40호」(1950. 8. 10).
- 22) 국방부, 『국방사』②, p. 115.
- 23) 정일권, 『6·25비록 전쟁과 휴전』(서울: 동아출판사, 1986), p. 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서울: 교학사, 1986), p. 203.
- 24) 정일권, 『6·25비록 전쟁과 휴전』, pp. 34-37.
- 25) 정일권, 『6·25비록 전쟁과 휴전』, p. 38.
- 26) 당시 육군본부 주요 참모로는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 인사국장 신상철 대령,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 군수국장 양국진 대령이었다. 정일권 장군은 총참모장 취임 이후 인

- 사국장과 작전국장에 황헌친 대령과 강문봉 대령을 각각 기용했다. 정일권, 『6·25비록 전쟁과 휴전』, p. 50.
- 27) 「제1군단 특별명령(갑) 제9호」(1950. 7. 5); 육군본부, 「부대 역사일지」, 『한국전쟁사료』 41권(서울: 군사연구실, 1986), p. 14.
 - 28) 「육본 일반명령 제2호」(1950. 7. 5); 「육본 일반명령 제3호」(1950. 7. 7).
 - 29) 「육본 일반명령 제2호」(1950. 7. 5).
 - 30) 「국본 일반명령 제2호」(1950. 7. 5) 및 「육군본부 특별명령 제9호」. 육군의 편성은 육군본부, 제1군단(수도·제1·제2사단), 제6·제8사단, 육군직할부대로 이루어졌다.
 - 31) 백선엽, 『한국 첫 4성 장군 백선엽 6·25전쟁회고록 軍과 나』(서울: 대륙연구소 출판부, 1989), p. 47(이하 『군과 나』로 약칭).
 - 3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0호」(1950. 7. 5).
 - 33) 「제1군단 작전명령 제1호」(1950. 7. 5).
 - 34) 「제1군단 작전명령 제2호」(1950. 7. 5).
 - 3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3호」(1950. 7. 6).
 - 36)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7호」(1950. 7. 7).
 - 3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p. 14.
 - 38) 국방부, 『국방사』②, p. 110.
 - 39) 「국방부 본부 일반명령 제4호」(1950. 7. 8); 국방부, 『한국전쟁사』②(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9), pp. 138, 728.
 - 40) 국방부, 『한국전쟁사』②, p. 728.
 - 41) 「국방부 본부 일반명령 제3호」(1950. 7. 7) 및 「육군본부 특별명령 제11호」(1950. 7. 7); 국방부, 『한국전쟁사』②, p. 727.
 - 42) 「국방부 본부 일반명령 제4호」(1950. 7. 8); 국방부, 『한국전쟁사』②, pp. 138, 151.
 - 43) 국방부, 『한국전쟁사』②, pp. 138, 151.
 - 44) 국방부, 『한국전쟁사』②, p. 139.
 - 45) 국방부, 『국방사』②, p. 372.
 - 46) 국방부, 『한국전쟁사』②, p. 853.
 - 47) 국방부, 『한국전쟁사』②, p. 853.
 - 48) 국방부, 『한국전쟁사』②, pp. 845-924.
 - 49) 국방부, 『국방사』②, p. 382.
 - 50) 국방부, 『국방사』②, p. 382.
 - 51) 공군본부, 『공군발전사』 제1권(대구: 공군본부, 1954), pp. 12-13.
 - 52) 대표적인 오폭사고로는 7월 3일 오전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의 F-51 전투기 4대가 평택역의 탄약 화차와 국군 제17연대를 오폭하여 큰 피해를 주었고, 이 날 오후 미 공군기가 수원비행장 및 수원 이남 1번국도상의 국군을 오폭하여 병력 200여명, 차량 30여 대의 손실을 주었다(국방부, 『한국전쟁사』②, pp. 42-43).
 - 53) 국방부, 『한국전쟁사』②, p. 891.
 - 54) Roy K. Flint, "The Tragic Flaw: MacArthur, The Joint Chiefs, and the Korean War,"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76), p. 90.
 - 55) Bradley's testimony, *MacArthur Hearings*, p. 954.
 - 56) Memo, JCS to Secretary of Defense, 18 May 1951, sub: "Directives and Orders to General MacArthur Containing Restrictions on the Conduct of the Korean Campaign." DA file G3 091 Korea, National

- Archives.
- 57) Flint, "The Tragic Flaw: MacArthur, The Joint Chiefs, and the Korean War," p. 101.
 - 58) MacArthur's testimony, *MacArthur Hearings*, p. 48; First Report of UNC to Security Council, *MacArthur Hearings*, p. 3388; Ridgway, *The Korean War*, pp. 26-27; Courtney Whitney, *MacArthur: His Rendezvous with Destiny*(New York: Knof, 1956), pp. 319, 342-345.
 - 59) MacArthur to JCS, 7 July 1950, *FRUS, 1950*, Vol.VII, p. 336.
 - 60) Schnabel and Watson, *The Korean War*, Vol.III, Part 1, p. 85;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39-140.
 - 61) 국방부, 『한국전쟁사』②, p. 116.
 - 62)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조정된 정세에 맞추어 전선사령부를 설치하고, 7월 5일 전선사령관에 부상 겸 산업상 김책을 임명하고, 전선사령부 참모장에 총참모부 참모장 강건 중장을 임명하였다.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1), p. 166; FEC,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5, p. 84.
 - 63) 공군본부, 『유엔공군사: 한국전쟁, 1950. 6-1952. 6』 상(서울: 공군본부, 1975), p. 34.
 - 64) 공군본부, 『유엔공군사』 상, pp. 49, 65.
 - 65) 공군본부, 『유엔공군사』 상, p. 70.
 - 66) Walter Kraig, Malcom W. Cagle, and Frank A. Man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New York, Toronto: Rineheart, Inc., 1952), p. 68.
 - 6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2; Kraig, Cagle, and Man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 68.
 - 68) 이에 대한 조치는 7월 21일 극동공군사령관이 극동사령부에 표적선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하자 7월 26일 맥아더가 육·해·공군 각 군 대표로 구성된 표적선정위원회 설치를 승인하여 전구 항공력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가 시작되었다. 이 위원회에서 항공표적의 식별 및 표적 개발업무의 수행과 항공표적을 선정하고 극동군사령관과 극동공군사령관이 승인한 기본계획에 일치되는 표적을 대상으로 항공작전을 계획하였다(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p. 52-54).
 - 6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pp. 44-45, 52, 54-55.
 - 70)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p. 44-45, 55.
 - 7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p. 79.
 - 72) 대전에 있던 합동작전본부와 전술항공통제본부는 7월 19일까지 대구로 이동함으로써 전술항공 통제체제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었다. 또한 제5공군도 7월 24일부로 대구에 기존의 전방지휘소를 주한 제5공군사령부로 바꿈으로써 제8군과 제5공군 간에는 상호 협조체제가 구축되었다(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 104).
 - 73)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p. 114-115).
 - 7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p. 107.
 - 7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pp. 79-80.
 - 76)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p. 79-80.
 - 77) 개전 초에는 L-5연락기로 전투기와 경폭격기를 표적지역으로 유도하였는데 아직 공중우세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가 느린 L형 항공기들은 적으로부터 격추될 위험이 많았다.

- 이러한 단점은 훈련기로 설계된 T-6기가 이 임무를 대행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었다. T-6연습기는 L형보다 비교적 속도가 빨라 적 YAK-9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7월 중순부터는 전폭기의 유도과 공중공격 통제는 T-6연습기가 대부분 담당했다. 제5공군은 7월 10일부터 운영된 전술항공통제부대를 8월 1일부로 주한 제5공군사령부 직속으로 제6147전술항공 통제대대(TACS: Tactical Air Control Squadron)를 정식 발족하여 운용하였다(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p. 81-83).
- 78) 6147th Tactical Control Squadron(Fifth Air Force) Historical Report for July 1950.
 - 79)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p. 104-106.
 - 8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95-96.
 - 81)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p. 106-108.
 - 82)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 108.
 - 83) Dario Politella, *Operation Grasshopper*(Tyler, Texas: Robert R. Longo Company, 1958), pp. 15-16. 27-30.
 - 84)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 79.
 - 85) 공군본부, 『한국전쟁에서의 항공작전』(서울: 공군본부, 1988), p. 421.
 - 86)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 101.
 - 8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51-1953*, vol.III, Part 1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p. 56-57.
 - 88) UN Document, S/1588.
 - 89)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p. 101-102.
 - 90)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 103.
 - 91) Schnabel and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51-1953*, vol.III, Part 1, p. 57.
 - 92)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 102.
 - 93)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 103.
 - 94) 서울신문사, 『駐韓美軍 30年』(서울: 서울신문사, 1979), p. 169.
 - 95)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102.
 - 96) Flint, "The Tragic Flaw: MacArthur, The Joint Chiefs, and the Korean War," p. 98.
 - 97) 경찰청, 『경찰50년사』(서울: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p. 100.
 - 98) 경찰청, 『경찰50년사』(서울: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p. 102.
 - 99) 경찰청, 『경찰50년사』, pp. 102-104.
 - 100) 경찰청, 『경찰50년사』, p. 116; 국방부, 『한국전쟁사: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Ⅰ(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7), pp. 839-840.
 - 101) 국방부, 『한국전쟁사: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Ⅰ, p. 840.
 - 102) 6·25전쟁 당시 내무부장관은 백성욱, 치안국장에는 장석윤(張錫潤), 그리고 서울시경국장에는 김태선(金泰善) 이사관이었다. 그리고 각 도의 경찰국장은 경무관으로 보임되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총경 및 경감으로 보임되었다.
 - 103) 경찰청, 『경찰50년사』(서울: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p. 105.
 - 104) 경찰청, 『경찰50년사』(서울: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p. 106.
 - 105) 경찰청, 『경찰50년사』(서울: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p. 106.
 - 106) 경찰청, 『경찰50년사』(서울: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p. 107.
 - 107)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Ⅱ(서울: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7), pp. 77-79.

- 108)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II(서울: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7), p. 83.
- 109) 대통령령 제75호 『철도경찰대설치령』(1949년 4월 26일);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II(서울: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7), p. 84.
- 110)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II, p. 83.
- 111)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II, p. 84.
- 112) 국방부, 『한국전쟁사: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Ⅰ, p. 840.
- 113) 국방부, 『한국전쟁사: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Ⅰ, pp. 844-848.
- 114) 위의 책, pp. 840-844.
- 115) 위의 책, p. 850.
- 116) 위의 책, p. 851.
- 117) 국방부, 『한국전쟁사: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Ⅰ, p. 852.
- 118) 국방부, 『한국전쟁사: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Ⅰ, p. 853.
- 119)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II, p. 257.
- 120)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II, p. 258.



제 5 장 서부 지역 지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전반적인 작전상황
제 3 절	죽미령 전투
제 4 절	오산 갈곶리 전투
제 5 절	평택-천안 전투
제 6 절	전의-조치원 전투
제 7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서부 지역 지연작전이란 6·25전쟁에 참가한 최초의 미 지상군인 제24사단이 경부 국도를 포함한 서부 지역 축선에서 북한군의 최정에 부대인 제105전차사단, 제3, 제4보병사단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수행한 작전이다.

맥아더 장군은 1950년 6월 30일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자 즉시 일본 큐슈에 있던 미 제24사단(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에 투입 명령을 내렸다. 이에 ADCOM¹⁾ 단장 처치 장군과 국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한·미작전협의를 통해 “미 지상군이 도착하면 국군은 경부 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 작전지역을 미군에게 인계하고, 그 동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연작전 임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24사단의 선발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7월 1일 부산에 도착한 후, 7월 4일 경부 국도 상의 죽미령에 배치됨으로써 미 지상군에 의한 작전이 서부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서부 지역 지연작전을 수행했던 미 제24사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과정과 이 부대가 실시한 죽미령 전투로부터 사단 주력이 금강방어선을 형성할 때까지의 지연작전에 대해 기술하였다. 아울러 서부 지역 지연작전에만 국한하기보다 미 지상군 투입 당시의 전반적인 작전 상황과 북한군의 작전기도, 이에 대한 맥아더의 작전구상 및 주요 지휘조치사항, 그리고 국군 총참모장의 주요 지휘조치사항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미 지상군이 투입된 당시의 전반적인 작전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군 제1군단은 주공방향을 경부 국도 축선으로 하여 7월 3일 한강선을 돌파하고, 7월 4일 수원을 점령한 후 일거에 부산까지 진격할 태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북한군 제2군단은 중동부 지역에서 진출이 부진한 가운데, 제2, 제15사단은 7월 초에 한강을 도하한 후 국군이 배치되지 않은 장호원, 이천, 여주 일대

까지 은밀히 기동하고 있었고, 제1, 제12사단은 충주 및 제천까지, 제5사단은 동해안에서 삼척까지 진출해 있었다.

즉 북한군은 최초 계획했던 제1군단의 서울 공격과 제2군단의 서울 동 측방 및 수원으로의 우회 기동에 의한 수원 이북에서의 국군 주력을 섬멸하려던 작전을 변경하여 북한군 제1, 제2군단 공히 남쪽 방향으로 신속히 공격하여 미 지상군이 증원되기 전에 부산까지의 진출을 기도하였다.

이에 대응한 국군은 한강방어선(漢江防禦線)에 배치되었던 혼성 수도사단과 제7, 제2사단은 7월 3일 방어선이 붕괴되자 축차적인 지연진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코자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반면 국군 제6, 제8사단은 중동부 지역에서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군 제2군단의 진출을 지연시키고 있었고, 특히 중부지역으로 은밀히 기동하는 북한군 제2, 15사단의 기도를 간파하고 제6사단 예하 연대를 신속히 출동시켜 지연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한 제3사단 제23연대는 동해안 울진 지역으로 출동하여 북한군 제5사단의 진출에 대비하였다.

위와 같은 작전상황 하에서 미 지상군이 참전하면서 6·25전쟁은 미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의 작전구상에 의해 수행되었다. 당시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의 남진(南進)을 1개 사단 및 1개 연대전투단으로 저지하고 해병여단 및 제1기병사단을 최단 시간에 인천 지역으로 상륙시켜, 북한군 주력을 섬멸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하였다.²⁾ 이러한 작전구상에 따라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시키기 위해 미 제24사단을 신속히 한반도로 투입시켰던 것이다.

한편 7월 1일부로 총참모장에 임명된 정일권 소장은 이날 ADCOM 단장인 처치 장군과의 작전 협의에 따라 미 지상군이 투입되기 전에 북한군의 남진을 조금이라도 더 지연시키기 위해 국군은 축차진지 점령과 부대 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7월 4일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전투 지역에 도착하자, 서부 작전지역을 미군에게 인계하고, 국군은 평택 일대에서 재편성을 실시후 그 동쪽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서부 지역 지연작전의 책임을 맡은 미 제24사단장은 평택-안성선(線)

을 주방어선(主防禦線)으로 선정하여 제34연대를 배치하고,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오산 북방의 죽미령에서 엄호 및 전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후속하는 제21, 제19연대는 차후 방어선으로 선정한 금강선에 배치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겠다는 작전복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24사단은 7월 5일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에 의한 죽미령 전투를 시작으로 미 제34연대에 의한 평택-천안 전투, 미 제21연대에 의한 전의-조치원 전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많은 인명 및 장비 피해를 입었다. 그후 7월 12일에 딘 소장은 예하 전 부대를 금강선 남안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토록 명령하였다.

결론적으로 평시 전투준비태세가 미비했던 미 제24사단은 죽미령에서 조치원에 이르기까지 잘 무장되고 잘 훈련된 북한군 정예부대를 맞이하여 용감히 싸웠으나, 많은 인명 피해 및 장비 손실을 입고 철수하였다. 반면 북한군에게도 많은 전투력 손실을 강요하고 남진 속도를 일정 기간 지연시켜 후속부대들이 전개하는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 지상군이 투입되는 시기에 있었던 전반적인 작전상황과 이후 실시된 미 제24사단의 서부 지역 지연작전에 대해서 기술하고, 당시의 상황을 오늘의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2. 작전지역 특징

서부 작전지역은 경부 국도인 오산-평택-천안-전의-조치원을 주 축선으로 한 지역이다. 당시 미 제24사단과 국군 제1군단의 전투지경선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 제24사단이 담당할 경부 국도 축선과 국군 수도사단이 담당할 진천-청주 축선의 중간선(線)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³⁾ 이러한 작전지역의 특징을 주요 도로망, 도시 및 마을, 고지군 및 하천 순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 도로망으로서 1번 국도와 경부 철도가 남북으로 잘 발달되어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주요 전투는 진행되었다. 그 외에 동측으로 용인에서 안성, 천안에 이르는 도로와 서측으로 아산-예산-청양-군산, 아산-유구-정산-부여, 천안-행정리-공주에 이르는 도로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차량 및 전차 기동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도로 외 지역은 고지 또는 논으로 형성되어 북한군의 전차 및 차량 기동은 불가하였다.⁴⁾

그리고 주요 도시 및 마을로서는 1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부터 오산, 평택, 천안, 조치원이 위치해 있었으며, 이들은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다. 즉 평택은 아산만과 연결되어 경부 국도와 온양-군산, 그리고 안성으로 가는 도로가 만나는 곳이고, 안성은 오산, 용인, 이천, 장호원, 진천으로 가는 도로가 만나는 곳이었다. 특히 천안은 군청 소재지로서 경부선 철도가 남북으로 지나고 장항선과 안성선 철도가 시작되는 철로의 교차로일 뿐만 아니라 경부 국도가 경부선 철도와 나란히 지나고, 천안-진천 도로, 천안-온양 도로, 천안-안성 도로가 지나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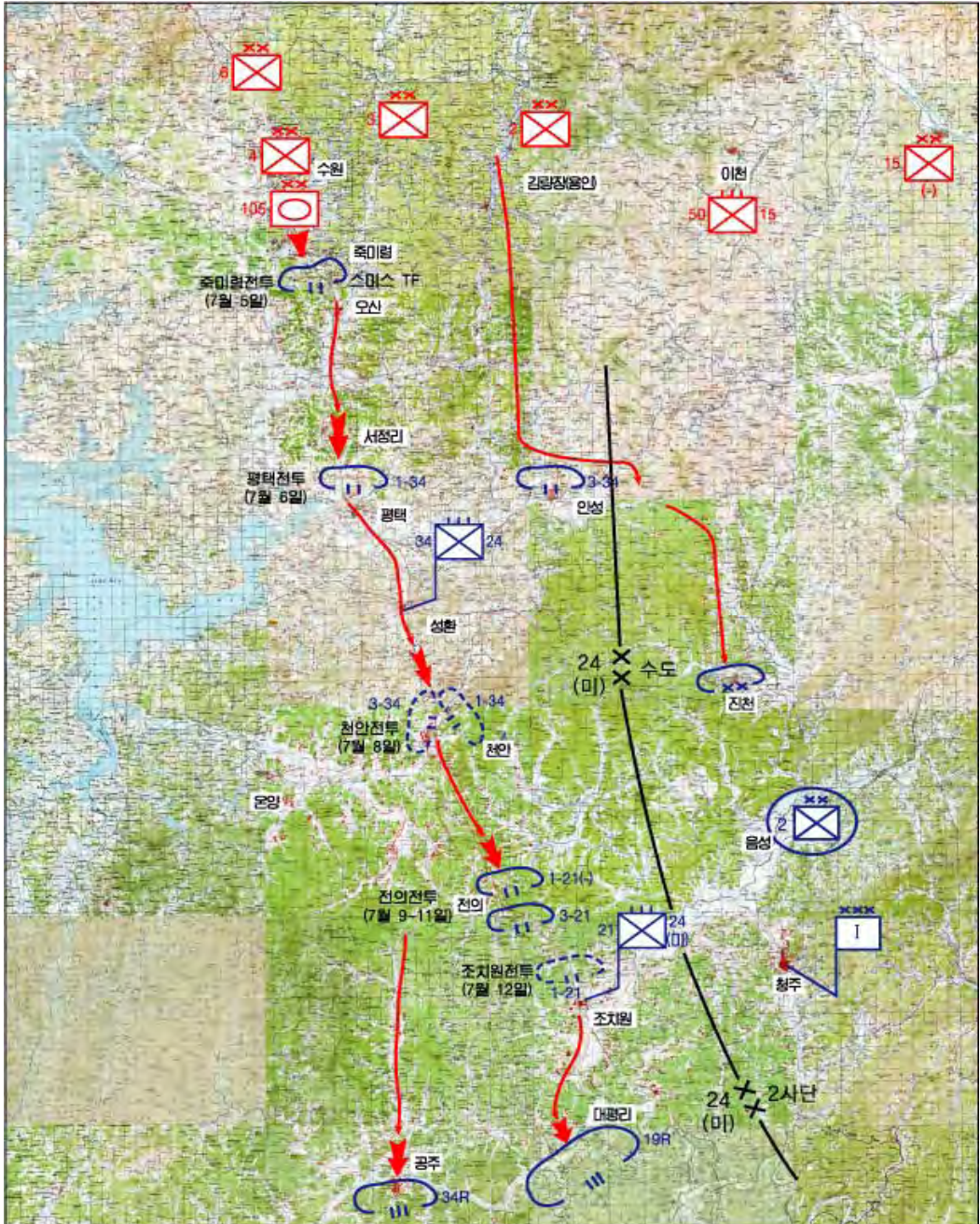
그리고 주요 고지군으로는 천안-안성 남쪽으로 차량산맥이 뻗어 있어 양호한 방어선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그 외 지역은 100~200m의 야산으로 형성되어 적 기계획부대의 기동을 제한할 수 있었다.

주요 하천으로는 북쪽으로부터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금강(錦江)과 그 외 소하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안성천과 금강이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즉 안성천은 안성에서 평택 남쪽으로 흘러 아산만과 합류하고, 강 하류에서의 폭은 200~300m로서 도섭이 불가하였다. 또한 금강은 차량산맥 남쪽에 위치한 하천으로 폭이 200~500m로서 도섭이 불가하였다.

다음은 전투가 실제로 발생했던 작전지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죽미령은 수원 남쪽 12km 되는 지점에 위치한 고개이며, 전방은 개활지 및 얇은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어 청명한 날씨에는 수원까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후방으로는 평택까지 개활지로 형성되어 있어 방어에 양호한 지역이었다.

평택 및 안성 북방 지역에는 100~200m의 낮은 고지군으로 형성되어 있어 방어

<상황도 5-1> 서부 지역 지연작전



의 이점(利點)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고, 안성천 남쪽 지역은 하천이라는 장애물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개활지로 되어 있어 적 화력에 취약하였다.

전의, 조치원 일대는 차령산맥을 관통하는 경부 국도 상에 200~400m의 고지들로 둘러싸여 도로 외에는 차량기동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방어 지역 서측에는 조천이라는 소하천이 있었는데, 이는 전의 북쪽에서 경부 국도 및 철도와 함께 나란히 남동쪽으로 향하여 조치원 남쪽에서 미호천과 합류하는데, 방어 지역을 종으로 가르고 있어 피·아간 기동에 불리한 하천이라 하겠다.

기상은 7월 5일부터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였다. 즉 아침에는 구름과 안개,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구름이 조금 있었으나 청명한 날씨였다.⁵⁾ 따라서 기상조건만으로 볼 때 근접항공지원에 큰 문제는 없었다.

제 2 절 전반적인 작전상황

1950년 6월 30일 미 트루만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승인하자, 북한군은 미 지상군이 더 증강되기 전에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새로운 작전방침을 수립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국군은 적의 주공격축선인 서부 작전지역을 미 지상군에 인계하고, 그 동쪽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한·미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국군은 사실상 맥아더 장군의 작전지휘 하에 운용되었으며, 지상작전은 주한 미 육군사령관이었던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 주도 하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절(節)에서는 서부지역 지연작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 지상군이 투입될 당시를 전후한 전반적인 피·아 작전상황과 북한군의 작전기도, 맥아더 장군 및 국군 총참모장의 작전구상과 주요 조치사항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1. 피·아 작전상황

1) 북한군 작전상황

북한군의 남침계획 제1단계 작전목표는 서울일대에서 국군의 주력을 포위섬멸하고, 6월 30일까지 수원-원주-삼척선을 점령하는 것이었다.⁶⁾ 그러나 북한군은 이날까지 국군의 한강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미 트루만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자,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 김일성은 제2차 작전방침을 발표하여 국군의 한강방어선을 강행 도하공격으로 돌파할 것을 독려했다. 이때의 작전목표는 영등포 일대에서 국군을

포위섬멸하고, 7월 6일까지 평택-충주-삼척선을 점령하는 것이다⁷⁾. 당시 북한군의 공격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군 제1군단은 주공 군단으로서 서부지역에서 계속 공격작전을 실시했다. 그 중에서 북한군 제4사단(사단장, 소장 이권무)은 군단의 주공 사단으로서 영등포-수원방향으로, 제3사단(사단장, 소장 이영호)은 군단의 조공 사단으로서 한남동-판교-풍덕천-수원 방향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국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7월 3일이 되어서야 한강을 도하할 수 있었다. 한강을 도하한 후에 부대정비를 실시한 후, 7월 4일에 공격을 재개하여 수원을 점령하고, 계속 오산-평택 방향으로 공격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이곳 수원부터는 북한군 제105전차사단과 제4사단이 선두에서 공격하고, 제3·제6사단은 후속하였다. 제1사단은 제2군단으로 배속 전환되어 수원, 이천을 거쳐 오천리(이천 서남 9km)에 집결하여 추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제1군단의 제2제대였던 제15사단은 제2군단으로 배속 전환되어 홍천지역으로 투입, 7월 3일에 여주일대에서 남한강을 도하한 후 음성방면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한편 북한군 제2군단은 조공 군단으로서 중동부지역에서 계속 공격작전을 실시했다. 즉 제12사단은 6월 30일 홍천을 점령한 후 원주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었고, 제2사단은 춘천을 점령한 후 가평을 거쳐 양수리 방향으로 기동하여 6월 29일에 덕소 일대에서 한강을 도하 후 7월 2일 김량장(현 용인)까지 진출해 있었다. 북한군 제2군단의 제2제대인 제5사단(-1)은 동해안 지역에서 제3경비여단이 강릉을 점령한 후, 초월하여 삼척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었다.⁸⁾

2) 국군 작전상황

미 지상군이 투입되기 전의 서부지역 국군 상황은 한마디로 붕괴 직전이었고, 중동부 지역은 국군 제6, 제8사단이 비교적 조직적으로 지연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먼저 서부지역에서는 시흥지구전투사(사령관 김홍일 소장) 예하 혼성 3개 사단

이 한강방어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잘 저지했으나, 7월 3일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되었다. 이들 사단은 철수하면서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방향인 안양, 군포일대에 지연진지를 편성하였고, 북한군 제3사단의 공격방향인 판교와 풍덕천 일대에 대해서는 예비로 있던 제1사단장의 통합지휘 하에 혼성 제3·제5사단의 예하 연대와 육사 생도대대로 지연진지를 편성하여 대비하였다.

다음날인 7월 4일이 되자, 북한군은 06:00에 전차를 앞세워 안양정면과 풍덕천(수원 동북쪽 10km) 정면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당시 안양에 있던 수도 및 제7사단 지역을 공격한 북한군은 군포장에 이르러 국군 혼성 제2사단의 반격을 받고 잠시 주춤했으나 14:00에 이곳을 점령한 다음 수원 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풍덕천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국군 제1사단은 이날 아침에 전차도 동반하지 않은 채로 남하 중인 북한군 제3사단에 대해 기습공격을 실시하여 부분적인 피해를 입히고 철수하였다. 이로써 수원은 이날 오후 늦게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각 부대는 전선을 이탈하여 남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중동부지역에서는 국군 제6사단 단독으로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제6사단은 초기전투에서 북한군 제2, 제12사단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원주, 충주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7월 1일경에는 예하 제19연대가 장호원 일대에서 북한군 제2사단을, 제7연대가 음성으로 이동하여 북한군 제15사단을, 제2연대가 충주에서 북한군 제12사단을 맞이하여 지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군 제8사단은 초기전투 후 대관령을 넘어 제천으로 이동하여 7월 1일 방어진지를 편성했으나, 7월 3일 육본명령 체계상의 혼란으로 안동까지 내려갔다가 7월 6일 단양으로 올라와 북한군 제12사단의 공격에 대비하게 된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국군 제3사단 23연대가 7월 1일 울진 지역에 배치되어 북한군 제5사단 및 제766유격대원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2. 북한군 작전기도

당시 북한군의 작전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남침계획 3단계 공격작전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제1단계 공격작전계획인 38선에서 수원-원주-삼척선(線)까지의 부대별 기동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군은 작전 단계마다 김일성이 작전방침을 내려 작전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부대별 세부 기동계획은 없으나 작전수행방법이 명시되어 있어 그들의 기도를 대강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남침계획 3단계 공격작전과 김일성의 작전방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의 작전단계별 기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북한군의 남침계획과 김일성의 작전방침

(1) 9)

북한군의 남침계획 기본개념은 “공격집단을 금천-구화리, 연천-철원, 화천-양구 지역에 집중하여 공격작전을 전개함으로써 2일내에 서울 부근의 국군주력부대를 포위섬멸하고, 그 후 전과를 확대하여 남해안까지 진출한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제1단계 계획은 “서울지역에서 국군의 주력을 포위섬멸하고, 또한 서울지역 국군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국군의 후방 3개 사단의 증원을 차단하기 위해 인제-홍천-수원방향으로 전략적 기동을 실시하며, 작전중심 약 90km를 5일 만에 진출한다”는 것이다. 제2단계 계획은 “국군 증원 병력을 격멸하고 전과를 확대하여 작전중심 약 180km를 14일 만에 진출한다”는 것이다. 제3단계 계획은 “국군의 잔류 병력을 소탕한 후 신속히 남해안으로 진출하여 주요항구를 점령하며, 작전중심 약 80km를 10여일 만에 진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침계획에 있어 제1단계 부대 운용계획은 매우 자세하게 수립되어 있는데 제2권에서 세부적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2)

10)

김일성은 그해 9월 15일까지 작전단계별로 5차에 걸쳐 작전방침을 내린 것으로 그들의 '조선전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작전개시 일자와 완료 일자가 실제 수행한 작전경과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전쟁 후 작전결과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각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작전기도 분석에 관련되는 제2, 제3차 작전방침만 소개하고자 한다

제2차 작전방침은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의 작전에 관한 것으로 "괴뢰군(국군)이 강하천 장애를 이용하여 방어를 강화하기 전에 빨리 한강을 강행 도하여 괴뢰군들을 영등포 일대에서 포위소멸하고 평택-충주-삼척계선에 진출함으로써 미군의 전투전개를 파탄시키고 다음 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제3차 작전방침은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작전에 관한 것으로 "적들에게 숨 돌릴 여유를 주지 않고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여 금강과 소백산줄기 계선을 유지하려는 미군의 기도를 파탄시키고 적의 기본집단을 대전과 소백산줄기의 동남부에서 각개 포위 소멸함으로써 남해와 대구방향으로 신속히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북한군의 남침계획 제1단계 공격작전은 각 사단별 부대 운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김일성의 제1차 작전방침은 서울 이북에서 국군의 주력을 포위 섬멸한다는 작전개념은 일치하나 구체적인 부대 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북한군의 작전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남침계획 제1단계 작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한강선-홍천-강릉선까지 진출한 상황에서 제1단계 부대 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나를 분석하고, 이 시기에 김일성이 발표한 제2, 제3차 작전방침을 당시 상황과 연계시켜 분석함으로써 북한군의 작전기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평택-충주선에 대한 공격 작전기도

(1)

북한군은 김일성의 제2차 작전방침에 따라 6월 30일 한강을 강행 도하하여 영등포-수원-평택 방향을 주 공격방향으로 지향하여 7월 7일까지 평택-안성-충주-제천-영월선을 점령하고자 하였다. 이 단계에서 작전은 북한군의 남침계획 제1단계 부대 운용 계획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부대별로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군 제1군단의 부대 운용이다. 제1군단은 최초 주공 군단으로서 국군의 주력을 서울 이북에서 섬멸하는 것이며, 한강 이남으로의 공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그러나 김일성의 제2작전방침에 따라 6월 30일에 한강방어선을 강행돌파하기 위해 북한군 제3사단(사단장, 소장 이영호), 7월 1일에 제105전차여단과 제4사단(사단장, 소장 이권무)이 각각 공격을 개시했다. 이들은 국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도하가 지체되다가 7월 3일에 주력부대가 한강을 도하할 수 있었다. 이후 북한군은 7월 4일에 수원을 점령하고, 계속 오산-평택 방향으로 공격하기 위해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북한군은 서울 점령에 늦었던 북한군 제1사단을 제2군단으로 배속 전환시켜 수원-이천-충주방향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제1군단의 제2제대였던 제15사단도 제2군단으로 배속 전환시켜 홍천-여주 방향으로 이동하여 7월 3일에는 이포, 여주일대에서 남한강을 도하한 후 무극리-동락리-음성 지역으로 진출케 하였다.

다음은 북한군 제2군단의 부대 운용이다. 군단의 주공인 제12사단은 홍천을 점령한 후 제603모터사이클연대의 좌측방을 엄호하며 홍천-여주-수원 방향으로 진격하여 국군 주력의 퇴로와 후방부대의 전방증원을 차단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홍천을 점령한 후 원주에서 충주, 제천방향으로 공격방향을 변경하였다.¹¹⁾ 그리고 제2사단은 춘천에서 가평, 송현(성남) 방향으로 공격하여 서울의 동측방을 점령하여 국군 증원 병력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6월 29일 덕소-양수리

<표 5-1> 북한군 부대 운용

구 분	제1군단					
	제105전차사단	제4사단	제2사단	제3사단	제6사단	제13사단
공격방향	경부 국도 (1번)	경부 국도 (1번)	김량장-진천	제4사단 후속(동)	제4사단 후속(서)	서울 위수 임무 수행
목 표	평택		진천	-	-	-
비 고	제병협동		제2군단에서 배속 전환	제4사단 근접 후속		

구 분	제2군단				
	제15사단	제1사단	제12사단	제5사단	모터사이클연대
공격방향	장호원-음성	서울-충주 (이동 중)	원주-충주 원주-제천	강릉-삼척	장호원-음성 원주-충주
목 표	음성	충주	충주, 제천	삼척	음성, 충주
비 고	제1군단에서 배속 전환				제12, 제15사단에 배속 운용

일대에서 한강을 도하 후 기동로를 변경하여 7월 2일에 김량장(현 용인) 및 곧지암 방향으로 기동했다. 이때부터 북한군 제2사단은 제1군단으로 배속 전환되어 서부지역에서 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제2군단의 제2제대였던 제5사단(-1)은 홍천에서 원주-제천, 충주방향으로 투입하여 중앙선 및 5번 도로로 증원되는 국군 후방부대를 차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해안의 강릉지역으로 투입되어 삼척방향으로 진출 중에 있었다.¹²⁾

(2)

위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북한군은 그들의 제2군단 예하 사단들의 진출속도가 지연되자, 최초 수원 일대에서 국군의 후방을 차단하여 국군의 주력을 섬멸하고자 했던 계획은 취소하고, 반면 국군의 재편성 및 미군의 방어편성 시간을 박탈하기 위해 공격속도를 증가시켜 신속히 남쪽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다.

첫째, 북한군 제1군단은 제2사단에 의한 서울 동측방 공격과 제12사단과 제

603모터사이클연대에 의한 수원으로의 기동에 의한 포위로 수원 이북에서 국군 주력을 섬멸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북한군의 최정예부대인 제105전차사단과 제3·제4·제6보병사단을 경부축선에 신속히 투입하여 직접 공격함으로써 국군의 재편성과 미 지상군의 방어편성 시간을 박탈하고자 기도하였다.

둘째, 북한군 제2사단과 제15사단은 당시 국군이 배치되지 않은 이천, 장호원, 진천, 음성 지역으로 은밀히 기동하여 국군 또는 미 지상군의 후방을 차단하여 섬멸하고자 기도하였다.¹³⁾

셋째, 북한군 제12사단은 홍천을 점령한 후 제603모터사이클연대와 함께 여주-이천-수원 방향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취소하고 원주에서 바로 충주 및 제천 방향으로 진출하여 국군 제6, 제8사단이 서부지역으로 증원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기도하였다.

넷째, 북한군 제1경비여단이 강릉을 점령하면 북한군 제5사단 1개 연대를 투입하여 동해안 축선을 따라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5사단 전부를 투입하여 당시 동해안에 배치되었던 국군 제8사단을 격퇴시키고 신속히 부산까지 진출하고자 기도하였다.

3) 천안 및 차량산맥선에 대한 공격기도

(1)

북한군은 7월 6일 평택-안성을 점령한 후, 김일성의 제3차 작전방침에 따라 7월 8일 공격을 개시하여 차량산맥선과 금강선을 돌파하고 대전과 소백산맥에서 국군의 기본집단을 타격하여 7월 20일까지 전주-논산-대전-문경-울진을 연하는 선 또는 그 남쪽을 점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전방침은 죽미령 및 평택에서 미 지상군과 직접 전투를 치루고 난 후에 내린 것으로 한반도에 투입된 미 지상군을 조기에 괴멸시켜 축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김일성은 서울의 전선사령부¹⁴⁾에 나타나서 소위 전투방법을 제시하면서 "진출속도를 더욱 강화하라"는 독전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아

<표 5-2> 북한군 부대 운용

구 분	제1군단					
	제105전차사단	제4사단	제3사단	제2사단	제6사단	제13사단
공격방향	경부 국도	논산-대전	경부 국도 (전의-조치원)	진천-청주 -보은	제4사단 후속(서)	서울 위수 임무 수행
목 표	대전		대전	보은		
비 고	제105전차사단과 제병협동			은밀 기동		

구 분	제2군단				
	제15사단	제1사단	제12사단	제5사단	모터사이클연대
공격방향	음성-괴산-문경	충주-문경	제천-단양-영주	삼척-울진	장호원-문경 원주-영주
목 표	문경	문경	영주	울진	음성, 충주
비 고	제1군단에서 배속 전환				제12, 제15사단 배속 운용

제3차 공격작전에 비중을 크게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3차 작전방침을 내린 7월 7일 기준으로 전선 상황을 살펴보면 <표 5-2>, <표 5-3>과 같다.

경부 국도축선에서는 제105전차사단과 제4보병사단이 평택을 점령한 후, 천안 공격을 위해 하루 동안 정비를 실시했다. 이들은 군단의 주공 사단으로 계속해서 천안-조치원-대전 축선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북한군 제2사단은 그 동쪽에서 국군과 접촉이 없는 가운데 중산리(진천 북쪽)까지 진출해 있었고, 북한군 제15사단은 동락리 일대에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의 기습 공격으로 진출이 지연되어 장호원, 금왕 일대까지 진출해 있었다. 그리고 북한군 제1사단은 제15사단과 합세하여 음성을 공격한 후 충주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었고, 북한군 제12사단은 국군 제6사단 및 제8사단에 의해 저지당하면서 충주 및 제천 북쪽까지 진출해 있었다. 그리고 북한군 제5사단은 동해안에서 전선사의 직접 통제를 받으며 삼척까지 진출해 있었다.

김일성은 7월 8일에 또 한 번 공격속도를 재촉하는 방송과 함께 이른바 전선의 정비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⁵⁾

“① 전선총사령부를 신설하여 제1·2군단의 작전지휘를 담당케 한다. 전선사령관에 김책 대장, 군사위원에 김일, 참모장에 강 건을 임명한다. ② 인민군의 병력을 증강하고 해안봉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경비여단과 청년훈련대를 주체로 제7·제8·제9사단을 창설한다. ③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부대 내에 군사위원 제도를 채택한다. ④ 전시총동원 법을 제정하여 인민개병의 내실을 거두기 위해 군사훈련을 강화한다” 등이다.

즉 미 지상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휘체계를 보강하고, 병력 증강과 전시 총동원체제 확립 등 장기전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2)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김일성의 제3차 작전방침에 따른 천안 및 차령산맥선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 작전기도는 큰 맥락에서 제2단계 공격작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한군 제1군단을 주공으로 하여 천안-조치원-대전 축선 방향으로 신속한 공격하여 미 지상군의 방어준비 시간을 박탈하고, 제2군단 예하의 사단들도 중동부 산악지역의 각 축선을 따라 신속한 공격을 독려하여 국군의 방어준비 시간을 박탈하고자 기도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투수행에서는 제2차 공격 작전과 차이점이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군의 공중공격 및 포병화력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대를 분산 운용하고, 야간전투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야간 공격시에는 일점양면전술에 의해 미군 방어진지의 측후방으로 침투하여 지휘소 및 통신소, 화력지원수단을 우선 파괴하여 방어선을 붕괴시키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둘째, 북한군 제6사단은 미 항공정찰을 피해 서남부지역으로 은밀히 기동시켜 이 지역을 조기에 점령하고자 기도하였다. 제2, 제15사단도 계속해서 청주, 대전 방향으로 공격하여 한·미군의 전선을 분리하고자 기도하였던 것이다.

셋째, 미 지상군 투입에 대한 조치로서 3개 경비여단을 보병사단으로 증편하고, 상륙작전에 대비하여 해안방위부대의 편성을 서둘렀다. 그리고 제2군단장 교체 및 군사위원제도 채택 등에 의한 독전을 강화하였다.

즉 당시의 북한군 공격작전은 한·미연합군을 위협할 수 있는 대담한 기동에 의한 부대집중운용을 통한 포위섬멸 등은 구사하지 못하고 오로지 독전에 의한 신속한 공격만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북한군은 제공권이 상실된 상황하에서 미군의 공중공격과 포병사격 등에 의한 피해 증가로 주간공격을 할 수 없을뿐더러 부대를 집중 운용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3. 맥아더 장군의 작전구상 및 주요조치

당시 극동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의 기본임무는 극동에서 위기에 부딪혔을 경우에 일본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즉 1949년 한국에서 주한 미 전투부대가 철수한 후에 맥아더에게는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오로지 한국에 있는 미 군사고문단과 미국인들을 일본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책임만 갖고 있었다.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이 6월 26일에 맥아더에게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국군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명령함으로써 6·25전쟁에 대한 책임을 안게 되었다.¹⁶⁾

이와 같이 미군은 6·25전쟁에 참전이 결정되었지만 한국방어를 위한 작전계획은 없었다. 이에 미군의 작전수행은 사전 수립된 작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맥아더 장군의 작전구상에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당시 맥아더 장군의 작전 구상과 이에 따라 이루어진 극동사 차원의 주요조치, 그리고 지상작전을 직접지휘 했던 미 제24사단장의 작전복안 및 조치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맥아더의 작전구상

(1)

17)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한 직후인 6월 25일 맥아더 사령부는 “북한군의 남침 병

력은 4개 사단과 3개 경비여단으로 총 병력 7만 명, 전차 70대"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맥아더 원수가 한강변을 시찰한 직후에는 "북한군의 남침병력은 6개 사단과 3개 경비여단, 그리고 2백대에 가까운 소련제 전차이다"라고 비교적 정확히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보판단을 토대로 맥아더 장군은 미 지상군 투입을 건의하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당시 맥아더 사령부 및 예하 부대의 장병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북한군의 능력을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즉 "북한군은 훈련이 제대로 안된 오합지졸의 미개 군대로서 미 지상군이 나타나기만 하면 도망갈 것이다. 반면 한국군은 사기가 오를 것이다(뉴욕 헤럴드 트리뷴지 게재)"라는 기사가 이를 증명한다.

이를 문제 삼아 일부 역사가들은 맥아더 장군이 북한군의 능력은 과소평가하여 전투준비가 안 된 소규모 부대를 축차적으로 투입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맥아더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서 "미 지상군 부대가 전장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적 사령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적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완만한 행동을 취하게 한다는 책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¹⁸⁾고 기술하여 소규모 부대의 축차적 투입은 적의 공격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궁여지책(窮餘之策)이었다고 술회하였다.

(2)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6월 29일 한강방어선 시찰에 나서게 되는데, 수원비행장에 도착하여 처치 장군으로부터 작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한강변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대안의 북한군 작전활동을 확인하고,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국군의 전투력을 확인한 후에 미 지상군 참전을 미 합참에 건의하였다. 이때 지상군 투입을 고려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¹⁹⁾

맥아더는 6월 30일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자 인천 상륙작전 구상에 따라 주일 미군 중에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사단을 즉각 투입케 하였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은 자신의 인천 상륙

작전 구상을 극동사령부 작전부장 라이트 소장이 주도하는 합동전략 계획 수립단(JSPOG)에서 작전계획으로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 1개 연대전투단으로 적의 남침을 최대한 북쪽에서 저지하고, 미 해병대 및 제1기병사단으로 7월 22일에 인천으로 상륙시켜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한다”는 것이다.²⁰⁾

그리고 7월 6일 맥아더 장군은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을 불러 이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 자리에서 정보부장인 윌러비 장군은 게이 소장에게 “당신은 최대한으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상륙이 늦어지면 서울을 점령하여 북상하는 딘 소장이 이끄는 미 제24사단의 후미에 상륙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오”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즉 맥아더 장군은 제24사단장 딘 장군의 모든 병력이 북한군을 한강선으로 충분히 격퇴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았다.²¹⁾

2) 미 제24사단 투입 명령 및 한반도 전개

(1) 24

맥아더 장군은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자 제8군사령관 워커(W. H. Walker) 중장에게 즉시 제24사단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하였다. 당시 주일 미군은 제8군 예하에 제1기병사단(칸토 부근), 제7사단(혼슈 북부 및 홋카이도 부근), 제24사단(큐슈 중북부), 제25사단(오사카 부근) 등 4개 사단이 있었는데, 이중 한국에 파견할 최초 부대로서 제24사단을 지명했다.²²⁾

그리고 딘 소장에게 “① 제24사단장은 부대의 건제를 유지하여 한국으로 이동, 당분간 극동사의 직접 통제 하에 행동하라. ② 주력에 앞서 소규모의 특수임무부대를 공수하여 북한군을 막으라. ③ 특수임무부대는 수원에 도착시키되 그것이 불가능하면 착륙지점을 부산으로 변경 수송할 것을 처치 장군에게 일임하라”고 지시하였다.²³⁾

한편 제8군사령부는 미 제24사단에 작전명령 제2호(1950. 7. 1, 03:15 서면하달)

로 “① 제24사단은 남진하는 공산군을 저지하기 위하여 즉시 한국으로 이동하라. ② 사단 선발대로서 4.2 “박격포 2개 소대와 75mm 무반동총 2개 소대로 증강된 보병 2개 중대규모는 대대장 지휘 하에 즉시 공중이동하고, 1개 포대는 대대장 지휘 하에 해상이동 하라. 한국에 도착하면 처치 장군의 명령에 따르라. ③ 사단 주력부대는 해상으로 이동하라. ④ 사단사령부는 빠른 시간 내에 한국으로 공중 이동 하라. ⑤ 사단이 한국에 도착하면 조기 공세작전을 위한 기지를 설치하라. ⑥ 선발대는 가능한 북쪽으로 이동하여 북한군과 접촉을 유지하여 서울-수원 간에서 적의 전진을 지연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라. 그리고 딘 소장은 한국에 도착하면 주한 미 지상군을 지휘하라”고 하달하였다²⁴⁾.

이에 따라 미 제21연대 제1대대를 모체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미 최초의 지상군부대로서 한국전에 투입되고, 이어서 미 제24사단 전체가 한국전에 투입된다. 이러한 부대는 증강된 1개 대대 규모 또는 연대 및 사단규모에 불과하지만 맥아더 장군의 작전구상에 의해 임무가 부여되고 투입된 부대로서 작전적 부대임을 알 수 있다.

(2) 24

딘 소장은 선발대로 제21연대 제1대대(장, Charles B. Smith 중령)²⁵⁾를 지명하고, 이에 스미스 중령은 B·C소총중대, 4.2 “박격포반 및 75mm 무반동총반 일부, 그리고 제52포병대대 A포대를 포함하여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스미스 중령은 밤새도록 부대편성 작업을 실시한 후, 7월 1일 03:00에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트럭으로 구마모또 기지를 출발하여 08:05에 이다쓰게(板付) 공항에 도착했다. 여기서 스미스 중령은 사단장 딘 소장으로부터 “부산에 도착하면 가능한 부산에서 먼 북쪽에서 적을 지연하도록 하라. 그리고 처치 장군을 만나 지시 받아라”는 지침을 받았다. 그리고 스미스부대는 08:45에 C-54수송기 4대로 공항을 출발했다. 그러나 부산 수영비행장의 상공은 짙은 안개로 착륙할 수가 없어서 복귀했다가, 이날 14:00~15:00 사이에 겨우 착륙하였다. 이들은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20:00에 기차로 부산역을 출발하여 7

월 2일 08:00에 대전에 도착했다.²⁶⁾

그리고 제52포병대대 A포대는 7월 2일 대대장 페리(Millero Perry) 중령이 직접 인솔하여 하카다(博多)항에서 승선하여 이날 저녁 부산에 도착하였다. 7월 3일은 선박 하역작업과 철도 적재작업을 실시하고, 7월 4일 평택에서 스미스부대와 합류함으로써 특수임무부대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미 제34연대도 7월 2일 밤 부산항에 도착하여, 7월 5일 오전에 평택 및 안성지역에 각각 1개 대대씩 전개시켰다. 또한 미 제21연대(-)는 7월 3일 모지(門司)와 사세보 항에서 승선하여 7월 4일 아침에 해상으로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후 열차로 북상하여 전의-조치원 일대에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쓰지도우(辻堂) 해안에서 상륙작전 훈련을 하고 있던 미 제19연대도 7월 4일 해상으로 부산에 도착하여 열차로 대구로 이동하여 주한 미군의 예비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6월 30일 밤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된 지 4일 만에 일본에 주둔하였던 미 제24사단 병력과 장비의 대부분이 한반도에 도착 완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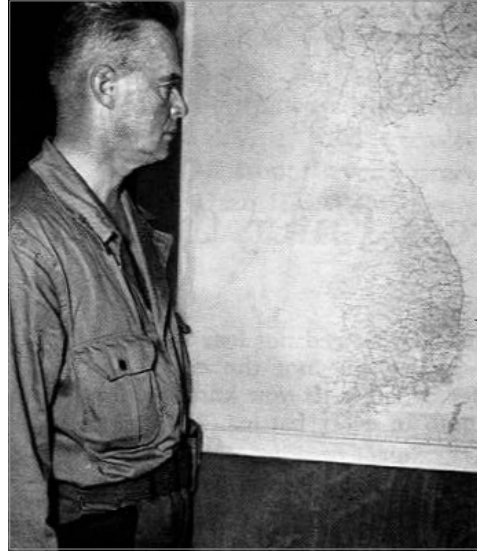
<표 5-3> 미 제24사단 예하 부대 한반도 전개 현황

부 대		도착일정/장소		
TF스미스	스미스 대대 (제21연대1대대)	7. 1 / 부 산	7. 5 / 죽미령	7. 10 / 조치원
	제52포병A포대	7. 2 / 부 산	7. 5 / 죽미령	7. 2 / 대평리
제34연대	연대본부	7. 2 / 부 산	7. 5 / 성 환	7. 8 / 공 주
	제1대대	7. 2 / 부 산	7. 5 / 평 택	7. 6 / 천 안
	제3대대	7. 2 / 부 산	7. 5 / 안 성	7. 6 / 천 안
제21연대	연대본부	7. 4 / 부 산	7. 7 / 조치원	7. 12 / 옥 천
	제1대대(-)	7. 4 / 부 산	7. 7 / 전 의	7. 10 / 조치원
	제3대대	7. 4 / 부 산	7. 7 / 전 의	7. 12 / 옥 천
제19연대	연대본부	7. 4 / 부 산	7. 6 / 대 구	7. 12 / 대평리
	제1대대	7. 4 / 부 산	7. 6 / 대 구	7. 12 / 대평리
	제2대대	7. 4 / 부 산	7. 6 / 포 향	7. 12 / 대평리
포병연대	제52대대	7. 2 / 부 산	7. 4 / 죽미령	7. 12 / 대평리
	제63대대		7. 7 / 천 안	7. 12 / 공 주
	제13대대			7. 12 / 대평리
	제11대대		7. 7 / 전 의	7. 12 / 대평리

3) 딘 소장의 작전복안 및 전투준비태세

(1)

딘 소장은 예하 부대들을 한반도로 전개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7월 3일 아침에 일본 아시아(蘆屋) 공군기지를 출발하여 10:30에 대전비행장에 도착하였다.²⁷⁾ 그는 곧 충청도청 내에 있는 ADCOM으로 가서 처치 장군으로부터 전방 작전상황과 스미스부대를 평택과 안성의 양개 통로를 확보토록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의 조치에 동의하였다.



딘 장군의 작전 구상

이날 오후에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7월 4일 00:01부로 주한 미군병력을 귀관의 지휘 하에 들게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²⁸⁾ 이에 딘 소장은 주한 미군(USAFIK²⁹⁾)사령부를 설치하여 처치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ADCOM과 KMAG³⁰⁾에 있는 22명의 장교들은 사령부의 일반 및 특별참모요원으로 흡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딘 소장은 미 제24사단장으로서 그리고 주한 미군사령관으로서 과연 어느 선에서 북한군을 저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사단에 주어진 임무는 가급적 북쪽에서 적을 저지하고 공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전 정면에서 남진하고 있었는데, 경부 국도 축선에서는 전차를 선두로 하여 2만 5천명의 병력이 남진 중에 있었고, 또한 중부도로와 동해안 방면에서의 적의 상황도 용이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부대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와 제34연대뿐이었다.

이날 딘 소장은 처치 장군과 함께 전반적인 작전상황을 검토하면서 작전을 구상하였는데, 그 결과 주요내용은 “① 스미스부대를 전방으로 진출시켜 조기에 접

적케 함으로써 그들의 남하를 가능한 한 전방에서 지연케 한다. ② 스미스부대가 3일에 맡았던 평택-안성의 2개 통로에는 제34연대로 교대 배치하여 도로를 따라 남하하려는 북한군의 공격기도를 분쇄한다. ③ 그리고 이 동안 사단주력이 북상하여 금강선에 배비를 끝냄으로써 이 선(線)에서 적을 격멸한다”는 것이다.³¹⁾ 그리고 이날 14:00에 이곳에 도착한 포병사령관 바스(George B. Barth) 장군에게 사단장을 대신하여 전방으로 가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지도하고 새로운 작전 복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³²⁾

이는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수립한 최초의 작전복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 운용 개념에 따라 사단장 딘 소장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사단의 전초부대로서 오산 북방 죽미령에 배치하고, 제34연대는 주 방어 지역으로 선정한 평택-안성선에 배치하여 적의 진출을 최대한 지연시키도록 하고, 이어서 투입되는 제21연대 및 제19연대를 금강선에 배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7월 5일 새벽에 제34연대와가 평택에 도착하자 사단장은 연대장 러브리스 대령에게 “① 한강을 도하한 적은 기갑부대와 함께 수원 부근에서 남하중이며,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오산 부근에서 그들을 저지할 것이다. ② 귀 연대의 제1대대는 평택 부근에 진지를 점령 중일 것이다. ③ 제3대대로써 안성을 확보토록 하라. ④ 연대지휘소는 성환에 위치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³³⁾

이와 같이 딘 소장이 평택-안성선을 주방어선으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³⁴⁾

첫째, 평택은 금강 이북지역에서 1번 국도의 방어에 가장 유리한 지형이라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그 서쪽은 아산만에 연하는 안성천이 천연적으로 평택의 서측방을 방호하고, 동쪽의 안성과의 사이에는 남북의 종적도로가 빈약하므로 적의 공격축선이 오산-평택의 국도상으로 지향되리라 내다본 것이다.

둘째, 안성은 경기와 충청내륙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서, 안성-천안의 안성선 철도의 시발점이자 동북으로 장호원, 동남으로 진천, 서남으로 성환과 천안, 서쪽으로 평택, 북쪽으로 용인과 오산으로 연결되는 방사선도로의 중심지역이다.

그러므로 적이 안성을 수중에 넣게 되면 성환이나 천안으로 기동하여 1번 국도의 동측방을 위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진천-청주로 빠지는 길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강 남쪽에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은 대략적으로 ① 평택-안성-충주-삼척을 연하는 선, ② 차령산맥선, ③ 금강선, ④ 소백산맥선, ⑤ 낙동강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평택-안성선이 가장 북쪽에 있기 때문이다. 즉 맥아더 장군이 가급적 북쪽에서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단장은 금강 이북지역에서 적과의 결전을 시도하기 위한 주방어선으로 안성-평택선이 가장 양호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2) 24 35)

6·25전쟁에 참전한 미 제24보병사단 전투준비태세는 매우 미비하였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미비점을 부대편성 및 주요장비, 교육훈련, 장병전투능력 및 군 기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① 부대 편성 및 주요장비 확보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은 군 감축이 진행되면서 해외파병 병력이 줄어들게 되었고, 더 나아가 충분치 못한 재정적 지원으로 군 현대화는 미뤄야 했다. 이에 따라 주일 미 지상군은 모두 병력 부족 상태에 있었다. 각 사단은 전시(戰時) 병력인 18,900명의 66% 수준으로 인가된 평시(平時) 병력인 12,500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제24사단은 10,700명, 제1기병사단은 11,300명, 제7사단은 10,600명을 보유하고 있었다.³⁶⁾

이에 따라 각 사단의 연대는 2개 대대만을 보유하게 되었고, 인가된 전차중대는 어느 연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사단의 중형(中型) 전차부대는 M-24경전차(輕戰車)로 무장되었으며, 또한 포병대대는 2개 포대만 운용되어 정상적인 전투력 발휘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³⁷⁾

그리고 북한군의 소련제 T-34 신형전차를 파괴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 M-24경전차는 T-34 전차를 격파할 수 없었고, 75mm 무반동총과 2.36"로켓발사기 등 대

전차화기도 T-34 전차를 파괴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전차 방어가 불가능했다.

그리고 통신장비는 대부분 녹슬고 건전지는 방전되어 작동이 잘 되지 않았다. 이는 상급 및 예하부대 그리고 포병 및 박격포 등 지원부대와 통신이 되지 않아 결정적인 순간에 전투력을 통합하지 못하였고, 상급 및 인접부대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조기에 철수하는 원인이 되었다.

② 교육훈련³⁸⁾

당시 일본 점령군으로서 있었던 미 제8군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불과 수년 만에 전투부대에서 식민지군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 1946년 후반에 장교와 부사관(副士官)들의 가족들이 일본에 도착하면서 전통적인 '식민지 군'의 생활형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젊은 사병들의 일본 생활은 하나의 모험이었다. 기지 바로 앞에는 새롭고 이상한 문화에 유혹되었고, 이곳의 일본 여자들과 살며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적은 성병이었고, 과음은 모든 부대와 계급에서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미 제8군 예하 부대들은 전투부대로서의 교육훈련보다 점령군부대로서의 경찰 역할이 훨씬 중요하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1949년 워커 장군(General Walker)³⁹⁾이 지휘를 맡고 나서, 제8군은 더 이상 팔자 좋은 '식민지 군'이 아니라 전시를 대비한 전투부대로서 교육훈련 강화를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워커의 바람직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훈련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일본은 인구가 너무 많아 제병협동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제8군은 연대, 사단, 군 훈련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큐슈의 모리와 같은 좁은 지역에서는 제한된 보병대대의 기동과 포병 실사격(實射擊) 훈련을 허용하였지만 사격과 기동을 연결하는 제병협동훈련은 할 수가 없었다.

즉 제21보병연대는 6·25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포병 실사격하에서 기동한 적이 없었고 전차와의 협동훈련 경험도 없었다. 전술훈련은 구마모토 외곽의 좁은 훈련지역에서 분대, 소대 그리고 약간의 중대 수준에서만 이루어졌다. 제52포병대대의 사격포대는 105mm 곡사포 실사격 훈련은 1년에 단 한 번만 모리 지역에

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75mm 무반동총과 60mm, 81mm, 4.2~박격포 사격훈련 여건도 나빠서 포반훈련 등 비사격(非射擊) 훈련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제34연대 및 제19연대의 훈련장 여건은 제21연대 보다 훨씬 더 나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커 장군은 더 큰 규모의 부대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제8군 예하 대부분의 대대들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6·25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육군 훈련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불행하게도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로 많은 부대가 불합격하였다. 그리고 대대급 이상 부대 훈련을 통해 숙달할 수 있는 참모업무 협조, 표준운용절차, 재보급기술, 화력지원, 탄약취급 등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준비할 기회가 매우 부족했다. 이러한 훈련기회 상실은 실제 전투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③ 장병전투능력 및 군기

제24사단의 장병들의 전투능력은 신분별로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고급간부와 부사관(副士官)들은 제2차 세계대전 경험자들로서 전투지휘가 훌륭했지만, 초급간부는 개인별 능력의 차이가 많았다.⁴⁰⁾ 그리고 병사(GI Bill)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전투경험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복무 후의 교육과 저 이자 대출을 주요 입대동기로 삼았으며, 이 들 중에는 영창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불량배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전투능력은 부대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제21, 제34보병연대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1연대는 연대장 스티븐슨 대령이 상식과 건전한 정신으로 엄격한 군기를 세웠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는 최선을 다해 훈련시켰고, 운동경기를 통한 경쟁을 특히 좋아 했다. 제1대대는 스미스 중령이 지휘했고, 제3대대는 쟈슨(Carl C. Jensen) 중령이 지휘하는 등 최고 지휘관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 결과 육군훈련시험에서 예하 2개 대대가 모두 합격하였다.

반면 제34연대는 군기가 엉망이었다. 연대장이 직접 성병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고 장병들은 점점 더 부대 내로 활동이 제한되었다. 군인이라기보다는 포로처럼 취급받았다. 이로 인하여 제34연대의 사기는 푹 떨어졌고, 연대의 실적은 저하되었으며, 연대장은 결국 보직해임을 당하였다. 러브리스(Jay B. Loveless) 대

령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몇 달 전에 부대를 인수하여 부대원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제1대대장 에이레스 중령도 대전에서 대대장으로 부임하여 대대원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리고 부대훈련도 제대로 못시켜 연대의 2개 대대는 육군훈련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하였다.

위의 양개 연대는 같은 제24사단 예하 부대이면서도 전쟁에 참가하기 전 훈련상태와 부대군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평시 전투준비태세의 차이는 전투현장에서는 더욱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5-4> 미 제24사단 지휘관 현황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사 단 장	소장	딘(William F. Dean)	대전	
부사단장	준장	처치(John H. Church)		
TF 스미스	중령	스미스(Charles B. Smith)	오산	
제34연대	연대장	대령	러브리스(Jay B. Lovless)	성환
		대령	마틴(Robert R. Martin)	천안
		중령	웨드링턴(Robert L. Wadlington)	공주
	제1대대장	중령	에이리스(Harold B. Ayres)	평택
	제3대대장	중령	스미스(Davide H. Smith)	안성, 천안
소령		랜트론(Newton W. Lantron)	공주	
제21연대	연대장	대령	스테픈(Richard W. Stephens)	조치원
	제1대대(-)	대위	알카이어(Charls R. Alkire)	전의
	제3대대장	중령	젠슨(Carl C. Jensen)	전의
제19연대	연대장	대령	멜로이(Guy S. Meloy)	대평리
	제1대대장	중령	윈스테드(Otho T. Winstead)	대평리
	제2대대장	중령	맥그레일(Thomas M. McGrail)	대평리
포병연대	사령관	준장	바스(George B. Barth)	
	제52포병대대장	중령	페리(Miller O. Perry)	오산, 대평리
	제63포병대대장	중령	드레슬러(William E. Dressler)	천안, 공주
	제13포병대대장	중령	스트래턴(Charles W. Stratton)	대평리
	제11포병대대장	중령		조치원, 대평리

4. 국군 총참모장의 작전 구상 및 주요조치

정일권 준장은 1950년 6월 30일 오전에 귀국신고차 대전에 내려갔으며,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총참모장직을 임명받았다. 그리고 그는 곧 수원의 육군본부로 가서 전임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과 교체하고, 채(蔡) 소장과 함께 한강변을 돌아본 다음에 ADCOM으로 처치 장군을 찾아가서 “미 공군의 지원 강화와 국군의 재정비 그리고 장비 및 탄약의 긴급보충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때부터 정일권 총참모장은 국군에 관련된 모든 작전상의 조치를 미 지상군 투입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미간 연합전선 형성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7월 1일 아침에 수원의 육군본부를 작전참모부장에게 맡기고 ADCOM 단장 처치 장군과의 작전협의를 위해 대전의 충남도청으로 향하였다.⁴¹⁾ 그는 하루 종일 처치(Church) 장군과 함께 한·미연합작전에 대한 구상과 전선(戰線)의 재정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때마침 이날 오전에 미 지상군 선발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이타즈케(板付) 기지를 출발하여 부산의 수영비행장으로 공중이동 중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수송 및 배치계획과 더불어 전반적 상황을 재검토하였는데, 이때 처치 장군과 협의한 내용은 “① 국군은 가능한 한 오래 한강방어선을 지탱한다. ② 상황의 진전에 따라 북한군의 남진을 경부 국도 축선에서 축차로 저지하면서 미 제24사단의 진출을 엄호한다. ③ 미 제24사단이 진출한 다음에는 미 지상군은 경부 국도 축선을 포함한 서부지역을 맡고, 국군은 그 동쪽지역을 담당한다. ④ 한·미 양군의 최초저지선은 가장 폭이 좁은 평택-안성-충주-울진선으로 한다. ⑤ 이 선에서 적을 저지하면 극동군사령관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적을 포위 섬멸한다”라는 것이었다.⁴²⁾

2) 미 지상군 투입 전(前) 국군에 의한 지연전

(1)

정일권 소장은 7월 2일 아침에 수원의 육군본부로 복귀하는 즉시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에게 처치 장군과 합의한 작전협의 내용을 토대로 “군은 연합군의 전투참가를 위한 시간 여유를 얻기 위하여 별명이 있을 때까지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평택 부근에 집결할 준비를 하라”는 육본작명 제18호를 구두로 하달하였다.⁴³⁾ 이는 하루가 늦은 7월 3일에 문서명령으로 배포된 것인데, 이날 국도 연변의 관교-군포장선까지 밀린 시흥지구전투사 예하 부대들은 육본작명에 따라 지연전 및 철수를 준비하였고, 제6사단 제19연대는 이천 부근에서 접적이 시작되었다.

한편 7월 2일 오후에 대전의 국방본부로부터 “미 제24사단의 주력이 평택-안성선에 배치될 것이며 그 선발대는 더욱 북쪽으로 전진할 것이니 미군과 협조를 유지하라”는 통보를 받고 총참모장은 이미 처치 장군과 한·미간에 합의한 작전방침에 따라 전선을 정리키로 하였다. 즉 오산, 평택 일대의 서부 지역 지연작전은 미 지상군에게 인계하고 국군은 평택에서 제1군단을 창설하여 진천, 음성, 증평 일대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7월 4일 아침에 북한군이 다시 수원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자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은 부대의 개편과 재배치 계획을 일단 마무리하여 각 부대에 긴급히 구두 통보하고, 7월 5일 오전에 ‘현 전선의 고수와 재정비’에 관한 명령을 육본작명 제20호(7. 5)로 하달하였다.⁴⁴⁾

이날 오후 늦게 수원을 점령한 북한군은 다음날인 5일 아침에는 필히 오산을 향하여 다시 남침할 것이 분명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지연대책을 서둘러 시행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평택 지역에서 군단의 창설과 사단의 개편을 동시에 진행키로 하고 우선 일부 철수부대로 하여금 전선을 엄호토록 하는 군단작명 제1호(7. 5)를 하달하였다.⁴⁵⁾ 이에 따라 제2사단은 제20연대(장, 박기병 대령)를 발안장(오산 서쪽 15km) 부근에, 제8연대(장, 이현진 중령)는 송전리(안성 북쪽 15km)에 배치하여 갈곶리(오산 남쪽 1.5km)에 전진 배치 중인 제17연대(장, 김희준 중령)와

연계 하에 적을 저지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 양개 연대는 7월 4일 오후에 주력부대의 철수와 함께 지정된 엄호진지로 이동하였던 만큼 5일 아침까지도 제17연대와 연계를 맺지 못하였다. 이날 오산-서정리 축선이 적의 침공으로 무너지자 이날 오후에 평택의 각 사단 집결지로 합세하였다. 이와 같이 국군은 미 지상군이 참전함에 따라 이들의 전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2) 17

당시 대전에 있던 육본직할의 제17연대(장, 백인엽 대령)⁴⁶⁾는 6월 29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금강선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받고 배치장소를 정찰 중에 있었는데, 6월 30일에 갑자기 이를 변경하여 평택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는 수정 명령을 정일권 총참모장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제17연대는 금강선에 1개 대대만 남겨두고, 연대(-1)는 7월 1일 09:30에 열차 편으로 대전을 출발하여 정오에 천안에 도착하였다. 정확한 행선지도 모르고 올라온 제17연대는 천안역에서 2시간을 지체하다가 다시 북상명령을 받고 평택으로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평택역에서 하차하여 평택 북쪽 8km 전방의 서정리로 도보로 이동하여 이 곳에서 숙영하고, 다음날 방어 배치에 들어갔고, 연대지휘소는 평택의 성동초등학교에 설치하였다.⁴⁷⁾

이와 같이 정일권 총참모장이 제17연대를 금강선 배치계획을 취소시키고 평택으로 이동시킨 이유는 미 지상군의 투입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군의 지원이 절실했고, 또한 전방이 위급한 상황에서 접적이 없는 후방(금강선)지역에 1개 연대를 위치시키는 것은 병력 운용의 낭비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육군본부 임시지휘소의 평택 설치 운영

7월 4일 오전에 수원에서 평택으로 이동을 시작한 육군본부의 차량중대는 수원-오산 간에서 아군기의 오폭(誤爆)으로 수명의 사상자를 내고 일부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곧 수습하여 목적지인 평택에 도착하였다. 작전참모부장 김백일 대

령은 평택에 도착하는 즉시로 군청에 임시지휘소를 설치하고 전방제대만을 이곳에 남도록 하고 후방제대는 곧 대전으로 이동시켰다.

그가 이곳에 임시지휘소를 설치한 이유는 첫째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총참모장으로부터 사단의 개편 및 인사명령을 이날 밤 안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예하 사단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했었다. 둘째는 이날 스미스부대를 비롯하여 미 제34연대의 2개 대대 및 제52포병대대가 진지배치를 위하여 집결하고 있었고, 미 제24사단의 포병사령관 바스(George B. Barth) 장군이 딘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평택 근처로 이동 중에 있었으므로 한·미 양군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였다.

따라서 작전참모부장은 평택의 육본임시지휘소에서 7월 4일 밤늦게까지 제1군단사령부의 편성과 사단의 재편성에 몰두할 수 있었고, 예하사단에 부대개편 및 인사명령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7월 5일 아침에는 제17연대로부터 미 지상군의 증원상황을 직접 보고를 받게 되고, 평택중학교에 위치한 제1공병단(장, 윤태일 중령)에서는 미군으로부터 공병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가 접수되면서 미 지상군 상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7월 5일 오후에, 북한군 제4사단 및 제107전차연대의 선두가 이미 오산을 점령하고 서정리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육군본부 임시지휘소에서는 통신 및 공병 등 미군의 작전을 직접 협조할 수 있는 요원만을 남겨두고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4) 국군 제1군단 창설 및 부대 재배치

육군본부는 미 지상군이 투입됨에 따라 한·미 연합작전 협의에 따라 서부지역작전을 미군에게 인계하고 국군을 재편성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따라 7월 5일 00:01부로 제1군단을 평택에서 창설하고,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을 군단 예하에 두고, 제3, 제5, 제7사단을 해체하였다. 국본일반명령 제2호(1950. 7. 5)와 육본특명 제9호로 국군 최초의 군단 창설을 보게 되었다.⁴⁸⁾

7월 5일은 제1군단이 정식으로 창설하는 날이었으나 아직 지원부대와 참모부

요원의 편성이 미비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단장과 참모들은 임시지휘소로 돌아가서 각 사단의 집결과 개편을 신속히 완료하라는 군단작명 제2호(7. 5)를 하달하였다.⁴⁹⁾

그리고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7월 5일 오후에 '제1군단의 이동과 제6사단에 엄호임무 수행'을 명령하는 육본작명 제23호(7. 6)를 하달하였다.⁵⁰⁾ 이에 따라 제1군단장은 먼저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진천으로 이동하여 제6사단의 제19연대를 통합지휘하고, 제1사단은 음성으로 이동하여 제6사단의 제7연대를 통합 지휘하여 남하 중인 적을 저지하도록 명령하고, 제2사단은 증평으로 이동하여 제1사단 및 수도사단을 증원토록 하였다.

다음날인 7월 6일 아침에 이동을 시작한 각 사단은 직접 지휘할 연대병력들을 모두 장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 수습된 병력만으로 목적지로 이동하였다. 군단지휘부도 이날 10:00에 성환에 이르러 각 사단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였는데 같은 시각에 수도사단은 이미 이곳을 통과하여 진천으로 이동 중에 있었고, 제1사단은 조치원에서 음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따라서 군단지휘부는 이곳 성환에서 예하사단의 이동을 통제하면서 3시간 정도를 더 머물러 있다가 15:00경에 청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군단예하 전 부대는 이날 24:00까지 목적지까지 이동을 완료하였다.

<표 5-5> 국군 제1군단 예하 사단 병력 현황

사 단	이동 전	목적지 도착 후
수도사단	2,500명	7,855명(진천)
제 1 사단	4,000명	5,063명(음성)
제 2 사단	1,600명	6,845명(증평)
제17연대		1,400명(진천)

제 3 절 죽미령 전투

1. 전투 개요

죽미령 전투는 7월 5일에 6·25전쟁에 최초로 투입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장, Charles B. Smith 중령)가 오산 북방 죽미령에서 북한군 제105전차사단 및 제4보병사단을 상대로 실시한 전투이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제21연대 제1대대 B, C중대와 제52포병대대 A포대를 주축(主軸)으로 편성되었다. 이 부대는 7월 1일 부산에 도착하여 7월 3일 평택 및 안성에 배치되었으나, 그 후 사단장 딘 소장의 작전복안에 따라 7월 4일 야간에 평택에서 이동하여 다음날 03:00에 죽미령에 도착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105mm 포병진지는 후방 1.8km되는 지역에 선정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이날 새벽에 공격함으로써 방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스미스 중령은 07:00경에 북한군 전차 8대가 수원에서 남진(南進)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들이 08:15경에 전방 1.8km 지점에 접근했을 때 포병사격을 실시하였으나 적 전차들은 꿈적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방어진지에 접근하였고, 이에 75mm 무반동총 및 2.36"로켓포반에서 사격을 실시하여 적 전차를 명중시켰으나 파괴시킬 수가 없었다.⁵¹⁾

북한군 전차대가 진지 중앙의 경부 국도를 따라 기동하여 능선 꼭대기를 넘어 반대편 경사를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포병에서 추진 배치된 105mm 곡사포 1문이 대전차고폭탄(對戰車高爆彈)으로 직접 조준사격을 실시하여 2대를 격파했다.⁵²⁾ 그러나 다른 적 전차가 이 105mm 곡사포를 파괴하고 계속해서 포병진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사격을 실시했다. 이때 포병대대장 페리 중령의 진두지휘로

2.36 “로켓포반은 적 전차를 근거리에서 측방 공격하여 2대를 멈추게 하였으나, 나머지 33대는 포병진지를 완전히 통과하여 오산방향으로 내려갔다.

한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원들은 적 전차들이 후방으로 지나간 불안한 상황에서 적 보병의 공격을 기다려야 했다. 드디어 10:00경에 스미스 부대원들은 북한군들이 3대의 전차를 선두로 하여 병력이 탑승하고 내려오는 트럭행렬을 목격했다. 적들이 전방 1k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박격포와 직사화기로 집중 사격하였고, 이에 북한군들은 하차하여 양 측방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의 야포와 박격포는 참호 속의 스미스 부대원을 맹포격했고, 후속하는 적 보병들이 관측되었다.

이 때가 14:30경이었다. 스미스부대는 근접항공지원도 받을 수 없었고, 통신 두절로 포병화력지원도 받을 수 없었으며, 소화기 탄약은 부족하여 병사들은 진지를 이탈하고 있었다. 또한 후방이 차단되어 병력 증원이나 보급품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고, 본부와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스미스 중령은 철수하기로 결심했다. 따라서 스미스부대는 북한군 최정예 부대를 맞이하여 6시간 15분의 사투(死鬪) 끝에 죽미령진지에서 철수했다.

이러한 죽미령 전투는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한 지연전이었고, 제24사단장 딘 장군의 입장에서는 경계부대 전투였지만, 스미스 중령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시키기 위한 치열한 방어 전투였다.

본 절에서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한반도로 전개하여 죽미령 방어진지에 배치될 때까지의 과정과 전투경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전투 경과

1) 방어준비

(1)

① 스미스부대(미 제21연대 1대대)

1950년 6월 30일 한국으로 출동명령을 받은 스미스부대(동 사단의 제21연대 제1대대의 별칭)는 밤새 부대편성을 실시하여 7월 1일 공중수송으로 부산에 도착하였고, 7월 2일 08:00에 대전역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대전비행장으로 이동하여 대대병력들은 휴식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대장은 대전의 충남도청으로 가서 처치(John H. Church) 장군에게 도착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작전상황 설명을 들었다. 이때 처치 장군은 “우리는 국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왔으므로 정신적으로 더욱 그들을 지원하라”고 강조하였다. 그 당시 스미스부대의 출동병력 및 장비현황은 <표 5-6>과 같다.

<표 5-6> 스미스부대 출동 병력 및 장비 현황

구분	병 력			장 비			
	계	장교	사병	75mm 무반동총	4.2" 박격포	60mm 박격포	2.36" 로켓포
수량	406명	17명	389명	2정	2문	4문	6문

② 제52포병대대(-)

스미스부대와 함께 한국으로 출동명령을 받은 제52포병대대(장, Miller O. Perry 중령)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하가다 기지(Camp Hakata)에서 부대편성을 실시한 후 7월 2일에 배편으로 부산에 도착하였다. 다음날인 7월 3일 오후에 열차편으로 대전에 도착하여 처치 장군의 지시를 받아, 다시 21:00에는 북상하여 성환역에 도착하였다.⁵³⁾ 이곳에서부터는 차량으로 야간이동을 개시하여 7월

4일 아침에 8km 북쪽의 평택에 이르러 스미스 중령의 지휘 하에 들어갔다. 이날 페리 중령은 스미스 중령과 함께 지형정찰을 실시하여 죽미령 보병진지로부터 1.8km 후방의 수청말 일대에 진지를 선정하였다. 이때 출동한 포병부대의 주 병력은 A포대이며, 그 외에 대대본부 병력 1/2와 근무포대 병력 1/2이 함께 출동하였다.

<표 5-7> 제52포병대대(-) 출동병력 및 장비 현황

구분	병력			장비				탄약	
	계	장교	사병	105mm 야포	0.5" 기관총	2.36" 로켓포	차량	고폭탄	대전차 고폭탄
수량	134명	9명	125명	6문 (M2A1)	4정	4문	73대	1,200발	6발

(2)

① 최초 지형정찰

스미스 중령은 7월 2일 대전에 도착하여 처치 장군으로부터 전방 상황설명을 듣고 난 후에 몇 명의 참모들을 대동하고 지형정찰을 위해 대전으로부터 136km 거리를 지프차로 달려 오산에 도착하였다. 오산 북쪽 4km 지점의 죽미령을 방어 지역으로 선정하고 현지에서 진지편성을 위한 구두명령을 하달한 다음 오후 늦게 대전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처치 장군은 정찰을 마치고 돌아온 스미스 중령에게 “즉시 안성과 평택으로 북상하여 병력을 배치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스미스 중령은 자신이 방어 지역으로 선정했던 죽미령 진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서 스미스부대는 다음날인 7월 3일 아침에 열차편으로 이동하여 정오에는 평택과 안성 부근에 각각 1개 중대를 배치하고 지휘소는 평택의 국도 변(邊)에 위치시켰다.

처치 장군은 스미스 중령이 죽미령에 방어 배치하겠다고 건의하였으나, 평택-안성 지역에 배치토록 명령한 것은 평택, 안성 지역에 배치하도록 한 한·미 작전협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에서 죽미령에 이르는 도로

② 2차 지형정찰 및 전투 지역 재선정

스미스 중령은 7월 3일에 평택-안성의 양개 통로에 배치한 병력을 7월 4일 오전에 평택에 집결토록 지시하고, 포병대대장 페리 중령과 함께 두 번째로 오산 북쪽에 대한 지형정찰에 나섰다. 한편 바스(George B. Barth) 장군은 7월 4일 15:00경에 평택에 도착하여 스미스 중령에게 "귀관이 처치 장군에게 건의한 바 있는 오산 부근의 양호한 진지를 확보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때 스미스 중령은 이미 그 준비에 착수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계획을 바스 장군에게 설명한 후 부대를 이동시킬 준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스미스 중령은 먼저 평택에서 오산까지 17km를 이날 중으로 이동할 수송수단의 확보를 부대대장에게 당부하고 자신은 다시 방어지역에 대한 지형정찰에 나섰다. 이 날은 포병대대장 페리 중령과 함께 실시하였는데, 죽미령 고개에서 약 1.8km 남쪽의 수청말 일대에 포병진지를 선정하였다. 이어서 정오에 죽미령에 이르러 1차 지형정찰 때 선정한 대대 관측소와 진지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사단장이 스미스부대의 방어진지를 평택, 안성에서 죽미령으로 변경한 이유는 7월 4일 08:00에 미 제52포병대대(장, Miller O. Perry 중령)가 평택에 도착하여 스미스 중령의 지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미 제34연대가 곧 도착이 예

상되었기 때문이다. 즉 제34연대가 주방어선인 평택-안성선을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전초부대로서 전방으로 추진하여 운용하겠다는 사단장의 작전복안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바스 장군이 나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내가 사단장의 명령을 받고 평택에 도착하였을 때, 스미스 중령은 평택-안성 통로에 배치하였던 양개 중대를 이미 전방으로 출발시키기 위해 평택 부근에 집결토록 지시한 후였다”라고 하여 명령이 후달(後達) 되었음을 토로하였다.⁵⁴⁾ 이에 대해 딘 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7월 4일 오후에 내가 다시 대전으로 올라왔을 때까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아직 접적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 이때 스미스 중령은 내가 명령한 바에 따라 오산 부근에 그의 부대를 배치하기 위하여 정찰에 나섰던 것으로 안다”라고 하였음을 볼 때 스미스 중령 자신이 취한 조치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⁵⁵⁾

당시 국도는 7월 4일 오후부터 수원 쪽에서 남하하는 국군의 철수 대열과 피난민 때문에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스미스부대는 병력수송을 위하여 후방으로부터 징발된 각종 민간차량의 운전사가 부족하여 사병들 중에 운전경험자들을 급히 뽑아 충당케 함으로써 평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⁵⁶⁾ 이로서 스미스부대는 평택을 출발한 후 24:00가 되어서야 오산의 진위교를 통과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였으며, 이곳에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하여 새벽 03:00경에 죽미령의 각진지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늦게 출발하게 된 이유는 징발된 차량의 한국인 운전수들이 북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으므로 운전할 줄 아는 병사들을 차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평택에서 오산의 죽미령까지 20km 정도밖에 안되는 거리를 약 3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은 도로에 남쪽으로 철수하는 국군과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스미스부대는 7월 2일 08:00경에 대전에 도착하여 7월 3일에 평택-안성에 각각 1개 중대씩 배치하였다가, 7월 4일 야간에 죽미령 진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서 방어준비를 서둘러야 할 귀중한 시간에 부대이동으로 낭비하고 방어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맞이하게 되었다.

(3)

① 스미스 대대

스미스 대대 장병들은 7월 5일 03:00에 진지에 진입하였으며, 이날 점령한 진지 편성은 2개 소총중대를 좌우측의 횡격실 능선에 배치하여 1번 국도 및 철로를 통제하도록 하였다. 즉 117고지 우단을 B중대와 C중대의 전투지경선으로 하여 서측에 B중대(장, 중위 Charles Thomas), 동측에 C중대(장, 대위 Richard W. Dashmer)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B중대는 도로 서측의 소능선 100고지에 제3소대(장, John J. Doody 중위)를 배치하고, 도로 동측의 117고지 일대에 나머지 제1, 2소대를 배치하였다. C중대는 117고지 우단에서 경부선 철로가 지나가는 곳인 92고지까지의 능선상에 3개 소대를 배치하였는데, 그 중 1개 소대는 동측방을 향하여 배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보병진지는 1,700m 방어정면에 걸쳐 예비가 없는 일선 배치로 끝냈던 것이다.

그리고 2문의 4.2 "박격포는 B중대가 배치된 117고지 후방 370m 지점에 진지를 선정하였고 대대를 일반지원토록 하였다. 그리고 2정의 75mm 무반동총과 2.36" 로켓포는 모두 적 전차의 접근이 예상되는 1번 도로변에 배치하였다.

이 당시 스미스부대는 7월 5일 03:00에 방어진지에 도착하였으나 7월 4일부터 내린 비와 야음으로 인하여 개인호와 화기의 엄체호 구축은 곤란하였다. 그리하여 날이 새기를 기다려서 진지구축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② 제52포병대대(-)

제52포병대대장 페리 중령은 스미스 중령과 협의하여 보병진지로부터 1.8km 후방인 수청리 입구(국도 서쪽 150m)에 진지를 편성하였다.⁵⁷⁾ 이곳 진지는 주 도로에서 쫓차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소로였기 때문에 곡사포를 2대의 쫓차가 견인하였다. 대대장은 A포대(포대장, Dwain L. Scott 중위) 곡사포 6문 중에서 전방의 보병부대를 지원할 4문(1~4번포)은 이곳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다른 1문(제5번포)은 대전차포로서 운용하기 위해 포병진지로부터 500m 전방인 90고지 하단(국도 서쪽 50m)에 두어 적의 전차를 직접 조준할 수

있게 하였고, 나머지 1문(제6번포)은 평택에 남겨 두었다.⁵⁸⁾ 날이 밝으면서 보병 지원용 4문의 곡사포는 제원기록사격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대 본부 및 근무포대에서 차출된 4정의 기관총과 4문의 2.36인치 로켓포도 도로와 포진지 주변에 배치하여 죽미령 쪽을 지향토록 하였다. 1,200발의 고폭탄은 포대별로 집적(集積)하여 즉각 사용토록 준비하고 나머지 예비탄약은 트럭에 적재한 채로 도로변의 은폐된 곳에 위치시켰다. 특히, 문제의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 고폭탄(HEAT)은 불과 6발만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포병대대 전체가 24발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A포대가 사세보 향을 출발할 때 이 중 6발만을 휴대하였기 때문이다.

③ 교량 폭파 및 장애물 운용 준비

오산-평택 간에는 북으로부터 오산교를 비롯하여 갈곶, 야막, 하북, 진위, 탄현(독곡), 아곡, 지제, 통복교 등 대소의 교량이 있었으나, 이 중에 오산교, 진위교, 통복교는 기술적 가치가 비교적 큰 교량이라 할 수 있었다.

당시 공병학교를 통합 지휘한 국군 제1공병단(장, 윤태일 중령)은 수원에서 마지막 철수에 들어갈 때 공병감 최창식 대령으로부터 “수원-대전간의 모든 교량을 폭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폭파 준비 작업을 실시토록 하였으나, 실제 폭파 준비 및 폭파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⁵⁹⁾

그러나 당시 참전자 중 일부는 “미군부대가 오산 북쪽으로 올라간 바로 그날(7월 4일 야간)과 다음날 낮에 교량을 파괴했다”라는 증언을 하였다. 한편 바스 장군과 스미스 중령 일행은 평택에서 오산으로 이동하면서 오산-평택 간의 교량에 폭파작업을 준비 중이던 국군 제1공병단의 병력들을 발견하고 중단토록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바스 장군은 “평택에서 오산으로 이동 중에 오산 남쪽에서 교량폭파 작업 중인 한국 공병을 발견하고 ‘그 교량은 우리가 사용할 계획이니 폭파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올라갔다”라고 술회하였다. 또한 그는 “어떤 교량에서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작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폭약상자를 강물에 집어던진 일도 있다”라고 하였다.⁶⁰⁾

이로 미루어볼 때 스미스부대가 7월 5일, 오산 북쪽에서 전투 중에 한국공병은 이 지역에서 1~2개의 교량을 파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아군부대가 전방에서 전투하고 있는데 후방의 교량을 먼저 파괴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바스 장군이 부상하면서 교량 폭파작업을 중단케 한 것도 차후의 철수를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⁶¹⁾

기타 장애물로서 지뢰 및 철조망 지대 운용은 당시의 자재 부족과 방어준비 시간 부족 등으로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전차 전투

7월 5일 07:00에 죽미령 진지에는 비고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까지 볼 수 있었다. 이때 스미스 중령은 수원 부근에서 적 전차 8대가 남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두전차가 보병진지 전방 1,800m(포병진지 전방 3,600m)인 병점리의 만곡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08:16에 포병사격을 요청하였다. 이에 보병진지에 나가 있던 관측장교는 포병사격 유도로 탄착을 조정하여 적 전차에 집중사격을 퍼붓도록 하였다. 그러나 적 전차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왔다.⁶²⁾

이어서 75mm 무반동총(2정)은 적 전차가 사거리 내(보병진지 전방 630m)에 들어오자 일제히 사격을 가하여 적 전차에 명중시켰으나 적 전차는 끄덕도 하지 않았다.⁶³⁾ 반면에 적 전차의 85mm 주포와 7.62mm 기관총이 보병진지에 사격을 가하면서 굉음을 내며 고개 정상으로 다가왔다. 이때 커너(Ollie D. Connor) 소위가 지휘하는 도로 동쪽변의 2.36 "로켓포조가 지근거리(약 15야드)에서 적 전차의 장갑이 약한 측면과 후면에 22발을 사격하였으나 역시 별 효과도 없이 적 전차는 08:30에 죽미령을 넘어섰다.

이번에는 포진지에서 추진 배치된 1문의 105mm 직사포로 대전차포탄을 발사하여 고개를 넘어 내려가는 2대의 전차를 파괴시켰다. 이때 파괴된 선두전차는 뒤따라가는 전차대의 전진을 위함인 듯 도로변으로 비켜서면서 2명의 적병이 포탑 뚜껑을 열고 손을 들며 먼저 나왔다. 그러나 세 번째로 나오던 적병이 갑자기 따발총을 기관총 진지를 향해 난사하여 기관총 부사수가 전사하였다. 이때 경계

중이던 소총수들은 즉각 응사하여 그들을 모두 사살하였는데, 이 불의의 사격으로 전사한 기관총 부사수는 미 지상군 최초의 전사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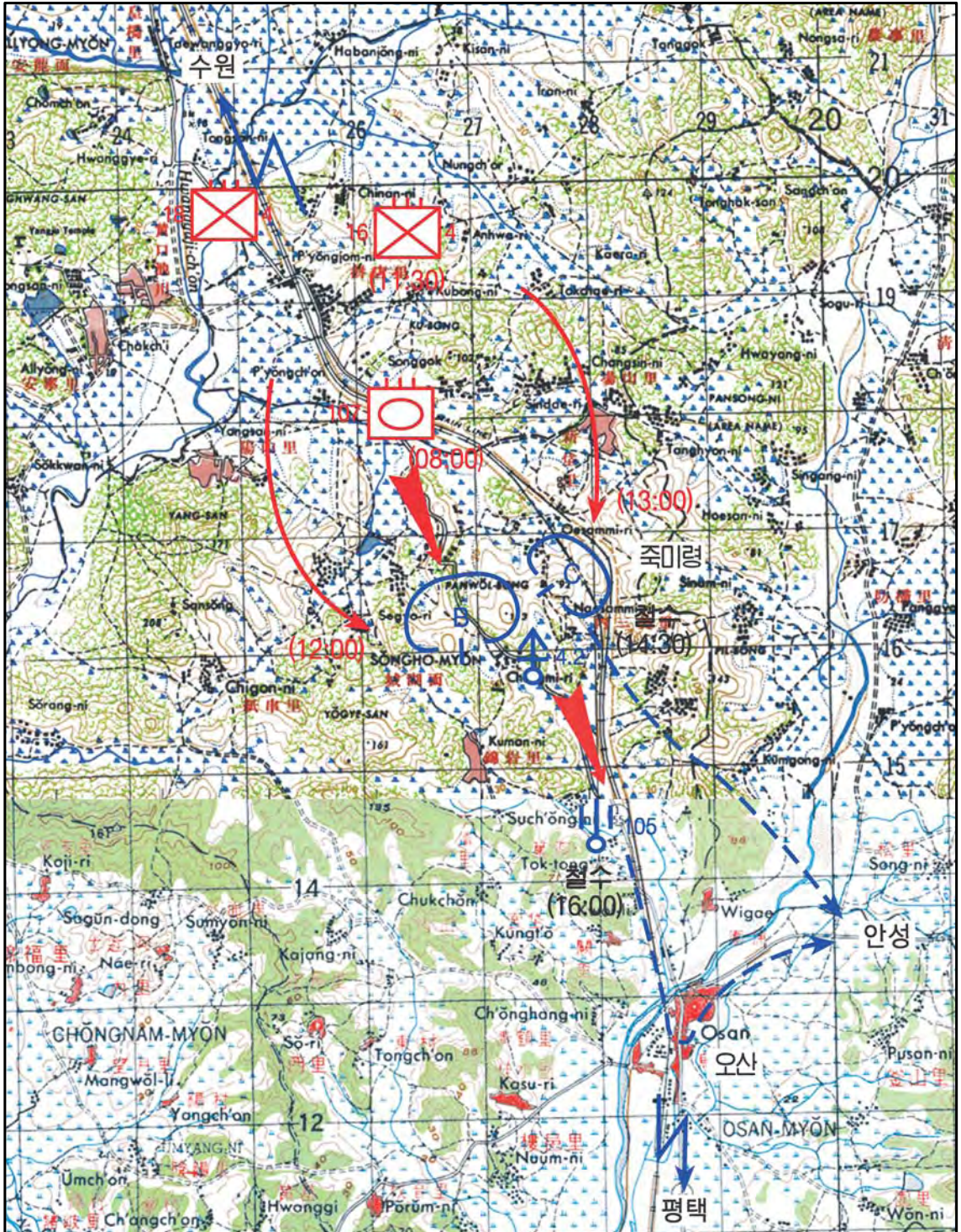
그들은 전차 4대를 1개 집단으로 편성한 듯 먼저 2개 집단 8대로 보병진지를 통과한 다음 포진지 쪽으로 향하고, 09:00에는 모두 33대의 전차가 안부(鞍部)를 통과하였는데, 이때까지 적 전차 사격으로 미군은 20여명의 전사상자를 내었다. 그리고 보병과 포병진지 간에 가설된 전화선은 전차에 의하여 절단되어 09:00에 보병과의 통신이 중단되었고, 무전기마저 소통이 불량하여 지프차에 실린 무전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11:00에는 그것마저 불통되었다. 따라서 전방의 보병진지에서는 후방의 포병진지에 상황을 알릴 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포병사격도 요청할 수 없었다.

이후 포병진지 부근까지 침입한 적 선두전차대는 아군의 사격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다가 포병진지로부터 약 450m 거리에서 직사화기의 사격을 피하여 차폐된 곳에 잠시 숨었다. 그리고는 포탑을 닫고, 85mm 전차포와 7.62mm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포병진지를 돌파하여 지나갔다.

적 선두전차대가 지나간 다음, 10분 뒤에 그들의 본대로 보이는 전차대열이 포병진지에 접근하자 이번에는 포병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진지를 이탈하는 소동을 벌여졌다. 이에 혼란에 빠진 포대를 바로잡기 위하여 장교들이 앞장서서 포탄을 직접 장전하고 부사관들이 조준하여 사격하였고, 특히 대대장 페리 중령과 포대장 스콧(Scott) 중위의 술선수범으로 공포분위기가 점차 사라지면서 병사들이 원위치로 돌아감으로써 혼란이 수습되기에 이르렀다.

적 전차는 도로를 따라 급히 남하할 속셈으로 우선 그 주변만을 유린하고 오산 쪽으로 내려갔는데, 10:15에는 본대의 최종 전차가 이곳의 포진지 부근을 모두 통과하였다. 이로써 스미스부대의 대전차전은 2시간의 사격전 끝에 보병진지 뒤쪽에서 2대, 포진지 근방에서 2대를 각각 파괴함으로써 도합 4대의 전과를 올렸고, 경과한 듯한 3대의 전차는 완속으로 그들의 주력전차대를 뒤따라 내려갔다.⁶⁴ 이 전투에 참가한 적의 전차부대는 제105기갑사단(장, 소장 유경수) 예하의 제107전차연대였다.

<상황도 5-2> 죽미령 전투



3) 보병전투

적 전차부대가 보병과 포병진지를 통과하여 남하한 다음 전선은 다시 고요하였다. 이때 죽미령에 배치된 보병들은 적의 후속부대가 곧 침공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각자의 진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적의 전차대가 보병진지를 통과한지 1시간 뒤인 10:00경에 스미스 중령은 117고지로부터 수원 전방에 나타난 3대의 전차와 차량에 탑승한 북한군의 보병 부대를 목격하였는데 그 종대의 길이가 수 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지난밤에 수원에서 휴식과 정비를 마치고 남침을 시작한 적 제4사단 예하의 제 16 및 제18연대 주력이었다.

그들 행군종대가 11:45에 아군진지 전방 900m에 이르자 스미스 중령은 곧 사격명령을 내렸다. 이에 4.2 박격포탄이 적의 트럭에 명중되고 기관총은 그들 보병의 행군종대를 향하여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고, 포탄이 명중될 때마다 적병의 시체가 공중으로 비산되고 차량은 박살이 나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행군종대 선두에서 전진하던 전차 3대가 180~270m 전방까지 근접하여 전차포와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하고, 화염에 휩싸인 차량종대의 후방으로부터 다른 북한군의 일단이 국도 양측에 산개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동쪽의 뱀골(92고지 동쪽 1km)로 침입한 적들은 C중대의 측방을 위협하면서 포위를 피하는 듯 하였고, 국도를 따라 정면에서 공격하던 적도 점점 근접하였다.

12:30에는 적이 서쪽 국도 건너편의 100고지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스미스 중령은 그곳에 배치한 B중대의 1개 소대를 117고지의 중대 주력과 통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적이 양측방에서 위협하게 되자, 그는 4.2 박격포를 117고지로 끌어올려 전면방어에 들어가도록 명령하고 부대대장 마틴(Floyd Martin) 소령에게는 도로변과 박격포진지에 쌓아둔 탄약을 후방으로 운반토록 조치하였다. 적의 포격이 더욱 치열함에 따라 사상자는 점점 증가되었고, 특히 철도의 동쪽 능선으로부터 기관총 사격을 받게 된 92고지의 C중대는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다.

한편 포병진지에 있던 페리 중령은 단절된 보포간의 통신선을 연결코자 2회에 걸쳐 가설병(架設兵)을 파견하였으나 적 편대의 사격을 받아 모두 무위로 돌아갔고, 13:00에 세 번째로 작전장교 보좌관으로 하여금 가설병을 인솔시켜 “적의 사격지점을 피하여 도로의 동쪽을 따라 새로이 통신선을 가설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상황이 급박하였기 때문인지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이윽고 14:00에 이르러 적은 보병진지의 양측방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 일부는 후방에까지 침입하였으며, 수원-죽미령 간의 국도에는 그들의 후속부대들이 길을 매워 남하 중이었다.

이날 14:30경에 스미스 보병부대 장병들은 탄약이 소진되고 통신마저 두절되어 포병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일기불순으로 항공지원은 더욱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스미스 중령은 14:30을 기하여 상호엄호 하에 철수키로 결심하였다. 그의 복안은 C중대, 의무중대, 대대본부, B중대 순으로 철수하되 경로는 철도 동쪽의 낮은 능선을 따라 오산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공 및 포병의 지원도 없이 주간 철수를 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때 스미스 중령은 마지막 엄호부대인 B중대가 철수준비를 끝냈을 무렵, 117고지를 떠나 철도연변을 따라 포병진지쪽으로 내려가다가 포병대대장이 보낸 유선 가설반을 만나 그들과 함께 포병진지까지 가게 되었다. 스미스 중령은 포병진지는 유린당한 것으로 예상하고 상당히 걱정하였으나 모두 무사하고 다만 페리 중령과 사병 1명만이 부상을 입고 있었으므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포병에게도 철수명령을 내렸다.

이에 포병들은 그곳에 대기시킨 차량 중에 수대가 파괴되었으므로 가동 차량만을 골라 타고 가기로 하고, ‘조준경’과 ‘마개쇠’ 그리고 ‘방향틀’만을 빼어 차량에 실었다. 스미스 중령과 페리 중령을 선두로 한 차량행군중대는 16:00에 그곳을 출발하였다.

스미스 중령 일행은 적의 전차가 평택 쪽으로 남하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한 탓으로 오산 남쪽 교외에서 안성에 이르는 좁은 통로를 따라 빠져 나가려고 하였

다. 그러나 갈림길 전방에 이르렀을 때에 길목에 적 전차 3대가 버티고 있었고 전차병들이 나와서 휴식하고 있음을 목격하자 급히 행군대열을 되돌려 다시 오산 북쪽으로 나아가 직접 안성 쪽으로 갈 수 있는 동쪽의 소로를 따라 나가기로 하였다.

이곳에서 보병진지에서 분산 철수한 100명을 합하여 모두 200명을 10대의 차량에 분승시키고, 맨 앞에는 지형에 익숙한 윤승국 대위⁶⁵의 유도차와 경호차가 선도하며 오산을 출발하였다. 이들 차량중대가 안성으로 이동하는 동안 적의 편익대 사격으로 혼란이 일기도 하였으나 19:00에는 미 제34연대 제3대대(장, David H. Smith 중령)가 배치된 안성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죽미령 전투에서 스미스부대는 포병사격 초탄을 발사할 때부터 철수개시까지 약 6시간 15분을 지탱함으로써 미 제34연대의 전투준비 시간을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확보하였다.

3. 전투결과

1) 피·아 전투 손실

스미스부대가 천안에 도착한 후 수습된 인원은 최초 185명이었으나, 얼마 뒤에 C중대장 대쉬머(Dashmer) 대위가 65명을 인솔하고 복귀함으로써 도합 250명으로 보병의 손실은 모두 150명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B중대의 손실이 많았다. 이 중에 낙오병들은 뒤에 평택, 천안, 대전 등지로 나가거나 심지어는 동서해안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였다. 버나드(Bernard) 소위의 경우는 12명을 인솔하여 오산전투 2일 뒤인 7월 7일에 천안으로 나왔는데 도중에 5회에 걸쳐 사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페리 중령의 미 제52포병대대도 15명의 전방관측요원을 포함하여 도합 31명의 손실을 입었고, 7월 7일까지 수습된 인원은 103명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손실은 그들 스스로가 밝힌 바와 같이 그 공격의 선두에 섰던 제105 전차사단의 문화부사단장 안동수 대좌를 비롯한 42명의 전사자와 85명의 부상자를 내었고, 전차 4대가 격파되고 2대가 반파되어 기동을 하지 못하는 등 6대의 손실을 보았다.

2) 전투 후 전황

한편 미 제34연대(장, Jay B. Lovless 대령)가 7월 5일 오전 중으로 모두 평택에 도착하여 전날 스미스부대가 배치되었던 곳에 투입되었는데, 이때 제1대대(장, Harold B. Ayres 중령)는 평택 지역, 제3대대(장, David H. Smith 중령)는 안성지역에 각각 배치되었다. 그러나 연대는 이날 오전에 발생한 죽미령 전투 상황에 대해서는 통신수단 미 구축으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7월 5일 자정이 조금 지나서 스미스부대원 4명이 성환의 미 제34연대 지휘소에 나타나 최초로 전투 상황을 알렸고, 이와 때를 맞추어 도착한 미 제52



죽미령 전투 전적비

포병대대장 페리 중령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한편 스미스 중령은 86명의 장병을 인솔하여 성환을 거쳐 7월 6일 오전에 천안에 도달하였다. 이리하여 천안에서 수습된 보병부대는 7월 6일 오후에 대전으로 보내어 7월 9일까지 205명의 보충병과 소요장비로 재편성을 완료한 후, 투입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제52포병대대는 곡사포의 재보급을 받고 7월 14일에 대평리 부근에 투입된 제19연대(장, Guy S. Meloy 대령)의 지원을 위하여 다시 출동케 된다.

제 4 절 오산 갈곶리 전투

1. 전투 개요

오산 갈곶리 전투는 국군 제17연대가 오산 부근 갈곶리(오산과 평택 사이)에서 스미스부대 방어진지를 통과한 북한군 제105전차 및 제4보병사단을 상대로 수행한 전투이다. 그리고 제17연대는 미 지상군이 투입된 후에 경부 국도 축선에서 전투를 치룬 유일한 국군부대이다.

국군 제17연대는 초기 용진반도 전투를 수행한 후 대전으로 철수하여 육본직 할로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6월 29일 금강선 배치 명령을 받고 준비 중에 있었다. 그러나 6월 30일 정일권 소장이 총참모장으로 취임하면서 연대의 전방 이동을 명령함으로써 금강선에는 1개 대대만 남겨두고 연대(-)는 오산일대의 갈곶리로 이동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아울러 제1대대에서 2개 중대를 오산 북방 은개 부락에 전초진지로 운용하였다. 이곳은 미 제52포병 A포대 진지인 수청말로부터 동쪽으로 약 500m되는 지역으로 스미스부대와 협조를 염두에 두고 취한 조치였다. 방어 지역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도사단 고문관이던 라이트 중령과 특수임무부대장인 스미스 중령으로부터 죽미령에서 함께 방어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당시 연대장이었던 김희준 중령은 상급부대의 지시가 없었고 이미 한차례 방어진지 이동을 실시하여 병력들의 피로가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하였다.⁶⁶⁾

7월 5일 스미스부대를 공격했던 적 전차가 10:00경에 전초진지 전방에 나타나자 중대의 기관총과 총류탄 등으로 사격함으로써 갈곶리 전투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국군의 사격은 적 전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적 전차의 사격으로 대전차 특공조 요원들은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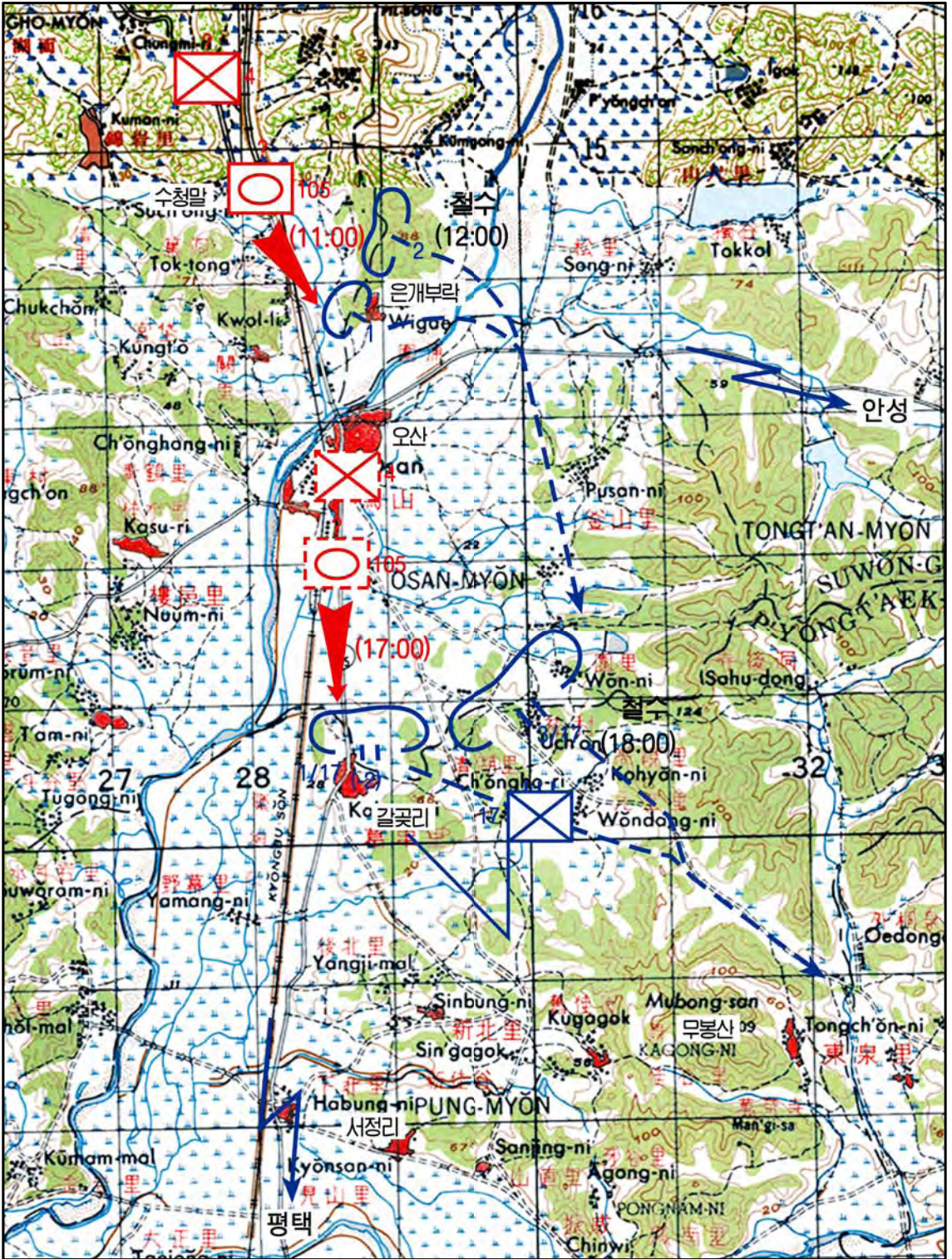
북한군의 선두전차는 계속 공격하여 11:00경에 제17연대 주력이 배치된 갈곶리 진지(오산 남쪽 1.5km) 500m 전방에 나타났다. 이에 81mm 박격포 사격을 실시하였으나 적 전차 4대는 50m 간격으로 신속히 접근하여 아군진지 300m 전방에 이르러 주변을 경계하는 듯 하더니 곧 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국도 좌우측에 배치된 2.36"로켓포가 즉각 사격에 들어갔고, 81mm 박격포를 비롯하여 총유탄 및 중기관총까지 일제사격을 가하여 명중시켰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적 전차는 아군의 집중사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출된 아군 진지에 대하여 사격을 실시한 후 서정리 쪽으로 남하하였다. 이어서 적 전차 본대 20여대가 후속하여 그 뒤를 따라 지나갔다.

연대장은 다시 적의 보병부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15:30에 철수하는 미군 4명으로부터 죽미령 전투 상황을 듣고 즉각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하였다. 이어 16:00경에 아무 경계대책도 없이 유유히 아군진지에 접근하는 적 보병부대에 대하여 국도주변의 2개 중대가 먼저 사격을 가하여 피해를 입혔으나, 이에 대응한 적의 공격은 매우 강렬하게 반격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81mm 박격포탄은 이미 소모하였고,⁶⁷⁾ 소화기의 실탄도 거의 바닥났고, 적 전차는 이미 방어진지 후방으로 통과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방어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17:00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연대는 이날 11:00부터 17:00 사이에 오산 북쪽과 남쪽 일대에서 북한군 전차 및 보병부대를 상대로 전투를 수행하고 천안으로 철수한 다음 새로운 임무를 띠고 청주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상황도 5-3> 갈곶리 전투



2. 전투경과

1) 방어준비

(1) 17 (68)

국군 제17연대는 웅진반도에서 철수하여 대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6월 29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금강선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받고 금강선으로 이동하여 방어진지를 선정 중에 있었다. 그런데 6월 30일에 갑자기 이를 변경하여 “평택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는 수정 명령을 받았다.⁶⁹⁾

따라서 제17연대장은 정상계통에 의하여 이루어진 명령이 아님을 알고 이날 20:00에 국방부장관에게 가서 상황을 문의한즉, 그는 “총참모장이 곧 정일권 장군으로 교대될 것이니 그의 지시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대장은 정일권 소장으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난 다음 1개 대대만을 금강선에 배치하고 나머지 2개 대대를 대전으로 다시 집결시켜 7월 1일 오전에 열차편으로 평택을 향해 이동하였다.

이들은 09:30에 대전역을 출발하여 정오에 천안역에 도착하였으나 행선지에 대한 추가 명령이 없었던 탓으로 2시간을 지체하다가 얼마 뒤에 다시 이동명령을 받고 평택까지 이동하였다. 이날 오후에 평택역에서 하차하여 8km 전방의 서정리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이곳에서 숙영하였다. 다음날 7월 2일에 탄현(숯고개) 일대에 방어진지 편성에 들어갔고 연대지휘소는 평택의 성동초등학교에 설치하였다.

연대장은 최초 국방부로부터 “평택까지 전진하여 평택-안성선을 방비(防備)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서정리 부근의 탄현(숯고개)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7월 2일) 오전에 수도사단 미고문관이던 화이트(White) 중령으로부터 “UN군이 도착 중이니 이곳에서 함께 방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도 있어 탄현일대에 방어 배치를 서둘렀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에 화이트 중령이 다시 와서 “오산 북쪽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수정 제의가 있었으나, 연대장은 “그것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더러 이때의 상황으로 보아 병력이 이미 진지에 진입 중에 있었고, 또한 지원화기의 보유상태와 사기 등 제반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의견에 따를 수 없었다”라고 술회하였다.⁷⁰⁾

당시 전방으로 출동한 제17연대의 병력과 장비, 지휘관 현황은 <표 5-8>, <표 5-9>와 같다.

<표 5-8> 제17연대 출동 병력 및 장비

병력 (2개 대대)	장비			
	81mm 박격포	60mm 박격포	2.36" 로켓포	기관총
1,412명	12문	12문	18문	32정

<표 5-9> 제17연대 지휘관 현황

직책	연대장	제1대대장	제2대대장	제3대대장
성명	대령 백인엽(7. 3) 중령 김희준(7. 4)	소령 이관수	소령 송호림	소령 오익경

(2)

71)

연대가 진지 배치에 들어가던 7월 3일 오전에 평택역에서는 국군에 수송될 보급품의 하역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었다. 즉 전방 각 사단에 공급될 탄약 20량과 일반보급품 7량, 그리고 공차 10량 등을 역구내에 대기시켜 놓고, 우선 탄약부터 하역한 다음 트럭에 적재하려던 참이었다.

이날 15:00에 오스트레일리아 공군기 4대가 나타나 이 화차(貨車)를 폭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적재한 탄약이 연쇄 폭발하여 삼시간에 평택역이 파괴되고 시내의 건물과 인명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던 것이다. 이때부터 열차는 그 남

쪽의 성환역까지만 운행할 수 있게 되고, 그 북쪽의 평택-서정리-오산쪽으로 올라가는 모든 인원과 장비는 성환역에서 바꾸어 수송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의 오폭은 수원-평택간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진지에 투입 중이던 제17연대와 전방으로부터 남하 중인 피난민대열에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제17연대의 피해는 병력 200명이 사상되고 차량 30대가 파손되었으며, 연대장 백인엽 대령도 파편상을 입고 후송케 된 것이다. 따라서 부연대장인 김희준 중령이 연대장 직무대리가 되어 연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오폭사고는 전선이 유동적이어서 피아의 식별을 할 수 없는데다가 한국지형을 잘 모르는 항공조종사들의 과오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육본과 ADCOM의 즉각적인 항의로 곧 시정되었다. 이후 7월 5일부터 미 제5전술공군으로부터 2개의 전술항공통제반(TACP)이 대전에서 도착되어 지상 작전에 협조하게 되었고, 육군본부도 긴급히 훈령을 하달하여 "전 부대는 7월 5일 이후부터 백색 광목천을 이용하거나 일정한 곳에 백색 페인트를 칠하여 아군부대임을 표시토록 하라"고 하였다.

(3) : 72)

국군 제17연대(-1)는 7월 3일에 평택 북방 서정리 부근에서 진지배치 중에 육군본부 작전명명에 따라 다시 7월 4일에 도보로 8km 북상하여 갈곶리(오산 남방 1.5km)로 전진 배치하게 되었다. 연대는 아군기의 오폭으로 연대장 백인엽 대령이 부상을 당하여 부연대장 김희준 중령이 연대를 지휘하여 재배치에 들어갔다. 이러한 부대 재배치는 육본명령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한편 이날 오전에 스미스 중령 일행이 지형정찰 길에 갈곶리(오산 남쪽 1.5km)의 연대 임시지휘소에 들려 김희준 중령에게 "제17연대도 우리와 함께 전진 배치해 달라. 적의 전차를 저지하려면 병력을 전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형상으로 보아 죽미령 부근이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그러한 취지는 수궁이 가지만 빈번한 부대이동으로 인한 혼란과

병사들의 사기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연대의 재배치 문제는 전날 백인엽 대령이 육군본부에 이미 상황을 보고하고 오산 부근에 배치토록 명령을 받았던 까닭으로 새로이 연대를 지휘하게 된 연대장으로서도 최초의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스미스 중령은 "그렇다면 우리만이라도 오산 북쪽으로 추진 배치할 것이니 뒤에서 우리 진지에 낙오탄(落伍彈)이나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한다"면서 그곳을 떠났다.

연대는 7월 4일 오후에 오산 남쪽의 갈곶리 부근에 재배치를 끝내고 탄약의 추진 보급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전날 오프으로 많은 탄약이 손실되어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이날 밤에 미군부대(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오산 쪽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목격한 연대장은 그들과의 협조를 위하여 제1대대에서 일부 병력을 추출하여 오산 전방의 은개 부락(오산 북쪽 1km)에 전진 배치시켜, 미 제52포병대대와 연계를 맺도록 조치하였다.

(4)

73)

연대는 갈곶리-청호리(갈곶리 동쪽 1km) 부근의 낮은 구릉 일대에 제1대대를 서측으로, 제3대대를 동측으로 배치하였고, 제1대대에서 2개 중대를 추출하여 오산 북쪽 은개 부락 일대에 배치하여 전투전초로 운용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제1, 제2중대를 전투전초로 내보내고, 제3중대는 1번 국도와 42고지를 포함하여 배치하였고, 제3대대는 66고지와 동쪽의 오산-안성간의 통로를 포함하여 서측으로부터 제9, 제10, 제11중대 순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연대관측소는 66고지에 설치하였다. 이곳은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고 개활하여 적 전차 공격에는 부적합한 곳이었으나, 스미스부대를 근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후방에 이르는 2개의 통로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한편 전초로 운용한 제1대대 제1중대와 제2중대를 오산 북쪽 은개 부락(오산 북쪽 1km) 하단에 전진 배치하여 제1중대장으로 하여금 통합지휘토록 하였다. 이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와 상호협조를 고려한 조치였으나, 즉시령에 배치된 스미스부대 및 500m 서측의 미 포병진지와 협조를 위한 통신수단이 전혀 없었다.

연대는 독자적으로 적 전차를 방어하기 위하여 1번 국도를 중심으로 2.36 ㄴ로켓포 여러 문을 배치하고, 제1대대 제4중대 81mm 박격포와 중기관총도 1번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제3중대 지역에 집중 운용하였다. 또한 연대의 공용화기도 대부분 1번 국도를 지향토록 배치하였다.

2) 전초진지 전투

7월 5일 10:00경에 은개 부락에 배치된 전초진지(제1, 제2중대)에서는 국도를 따라 남하하는 적 전차를 목격하고 즉각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이들은 미 포병진지에서 적 전차에 대하여 먼저 로켓포와 기관총 사격을 집중하는 것을 직접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구릉의 서쪽에 배치된 제1중대(장, 강은덕 대위)는 총유탄과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포탑 뚜껑을 열고 남하하는 적의 전차병을 제압하였으나 전차에는 전혀 사격의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중대의 좌측 하단에 배치된 로켓포반은 유효사거리가 훨씬 넘는 500m에서 사격하여 진지 위치를 폭로하게 되었다. 이에 적 전차는 오산교(오산 북단) 앞에 도착하자, 아군 진지를 향하여 전차포와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격으로 2.36 ㄴ로켓포를 지휘하던 제1중대 제1소대장 이규한 중위와 사병 1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2명의 사병이 전사하였다. 이후에 전초부대는 바로 철수하였다.⁷⁴⁾

3) 주진지 전투

이날 11:00경에 북한군의 선두전차는 제17연대 주력이 배치된 갈곶리 진지 500m 전방에 나타나자, 연대는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가는 동시에 제4중대의 81mm 박격포소대로 하여금 그들 선두전차 4대를 포격토록 하였다. 이는 전날에 제3중대와 제9중대의 2.36 ㄴ로켓포 6문을 국도 주변에 집중 배치하여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중대와 제12중대의 중화기도 대부분 이곳을 지향토록 조치한 상태였다.

그들 선두전차는 50m 간격으로 신속히 접근하면서 아군진지 300m 전방인 갈꽃교에 이르러 주변을 경계하는 듯 하더니 곧 난사를 가하였다. 이에 국도 좌우측에 배치된 제3, 제9 중대의 2.36"로켓포조가 즉각 대전차 사격에 들어갔고, 81mm 박격포를 비롯하여 총유탄 및 중기관총까지 일제사격을 가하였다. 여기서 2.36"로켓포조원 4명과 소총병 3명이 전사하고, 대대관측소에 직격탄이 명중되어 혼란이 있었으나 대대는 진지를 고수하면서 계속 응사하였다. 적 전차는 아군의 집중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격하면서 서정리 쪽으로 바로 남하하고, 이어서 보병을 동반하지 않은 20여대의 후속전차가 그 뒤를 따라 지나갔다.

연대는 다시 적의 보병부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적의 보병부대들은 16:00경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아무 경계대책도 없이 유유히 아군진지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에 국도주변의 2개 중대가 먼저 일제사격을 가하자 적 선두차량은 진지 전방 300m의 갈꽃교를 지난 길가에 처박히면서 행군중대가 멈췄고, 그들의 일부병력은 이곳에서 하차하여 66고지를 향하여 공격하였다.

연대는 전차와 포병화력 지원을 받는 적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81mm 박격포탄은 이미 소모하여 화력지원을 할 수 없었으며, 소화기 실탄도 바닥날 상태에 있어 더 이상 저항할 전투력이 없었다. 이에 연대장은 철수를 결심하고 17:00에 각 부대로 하여금 안성 또는 평택을 경유하여 천안에 집결토록 명령하였다.

철수명령을 받은 제1대대장은 국도를 따라 서정리로 나가다가 19:00에 서정리의 장로교회마당과 길가에 적 전차 여러 대가 버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방향을 바꾸어 서쪽의 개울을 따라 평택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제3대대는 적 전차가 아직 통과하지 않은 오산-안성간의 개활지를 택하여 천안과 조치원으로 각각 분산 철수하였다.

3. 전투결과

국군 제17연대는 갈곶리 전투가 있기 전인 7월 3일 아군기의 오폭으로 200명 정도가 사상을 입었다. 전투 중에는 대전차공격을 위해 도로변에 배치되어 적 전차에 대하여 사격을 하였던 로켓포반에서 전사 2명, 부상 9명이 있었고, 2.36 로켓포 4정이 파괴되었다. 이와 같이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 조기에 철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군의 피해는 알 수 없으나 극히 미미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투 후 제17연대(-1)는 육본 작명에 따라 7월 6일에 천안에 집결, 7일에 수도사단에 배속되어 조치원을 경유하여 진천으로 이동하고, 한편 금강선에 남아있던 제2대대는 7월 11일까지 이곳을 지키다가 미 제34연대에게 책임지역을 인계하고 7월 14일에 본대와 합류하였다.

제 5 절 평택-천안 전투

1. 전투 개요

평택-천안 전투는 미 제34연대(장, Jay B. Loveless 대령)가 7월 6일부터 8일까지 평택에서 천안에 이르는 경부 국도 축선에서 북한군 제105전차사단 및 제4사단을 상대로 수행한 전투이다.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이 주방어선으로 선정하여 가장 기대를 걸었던 전투였으나 조기 철수로 딘 소장의 작전구상을 무산시킨 전투이기도 하다.

딘 소장은 7월 4일 부산에서 열차로 북상한 제34연대로 하여금 7월 5일 오전에 제1대대를 평택에, 제3대대를 안성에 배치하여 평택과 안성에 이르는 방어선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⁷⁵⁾ 이에 연대는 7월 5일 방어진지를 점령하여 전투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죽미령에서 치른 치열한 전투상황을 통신망 미구성으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스미스부대의 전투상황은 제34연대 1대대 지휘소에 도착한 부사단장 바스 장군으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고, 스미스부대가 참패했다는 자세한 소식은 포병대대장 페리 중령으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다. 여기서 바스 장군은 지휘관들에게 “최대한 버티되 고립 위험시 스미스부대와 같이 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성환에 위치하고 있던 연대 본부에 들러 평택과 안성은 방어하기에 불리한 지역이니 천안에서 방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연대장은 대전의 사단장과 통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사단장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34연대의 장병들은 북한군을 경시하여 금번 작전은 국지적 군사행동으로 금방 끝날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⁷⁶⁾

제34연대 제1대대 장병들은 7월 6일 동(曠)이 트자마자 평택 북쪽 서정리 일대

에서 적 전차와 보병들이 방어진지로 접근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북한군들은 방어 전방에 있는 폭파된 철교에 이르자, 보병들은 철교를 우회하여 측방을 공격하였고, 포병 및 전차들은 지원사격을 실시했다. 이때 제1대대 장병들은 북한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대대장 에이어스 중령(Harold B. Ayers)은 연대본부와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부사단장 바스 장군의 지시를 상기하면서 전투실시 1시간 만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또한 안성에 배치되었던 제3대대는 접적이 없는 상황에서 연대명령에 따라 천안으로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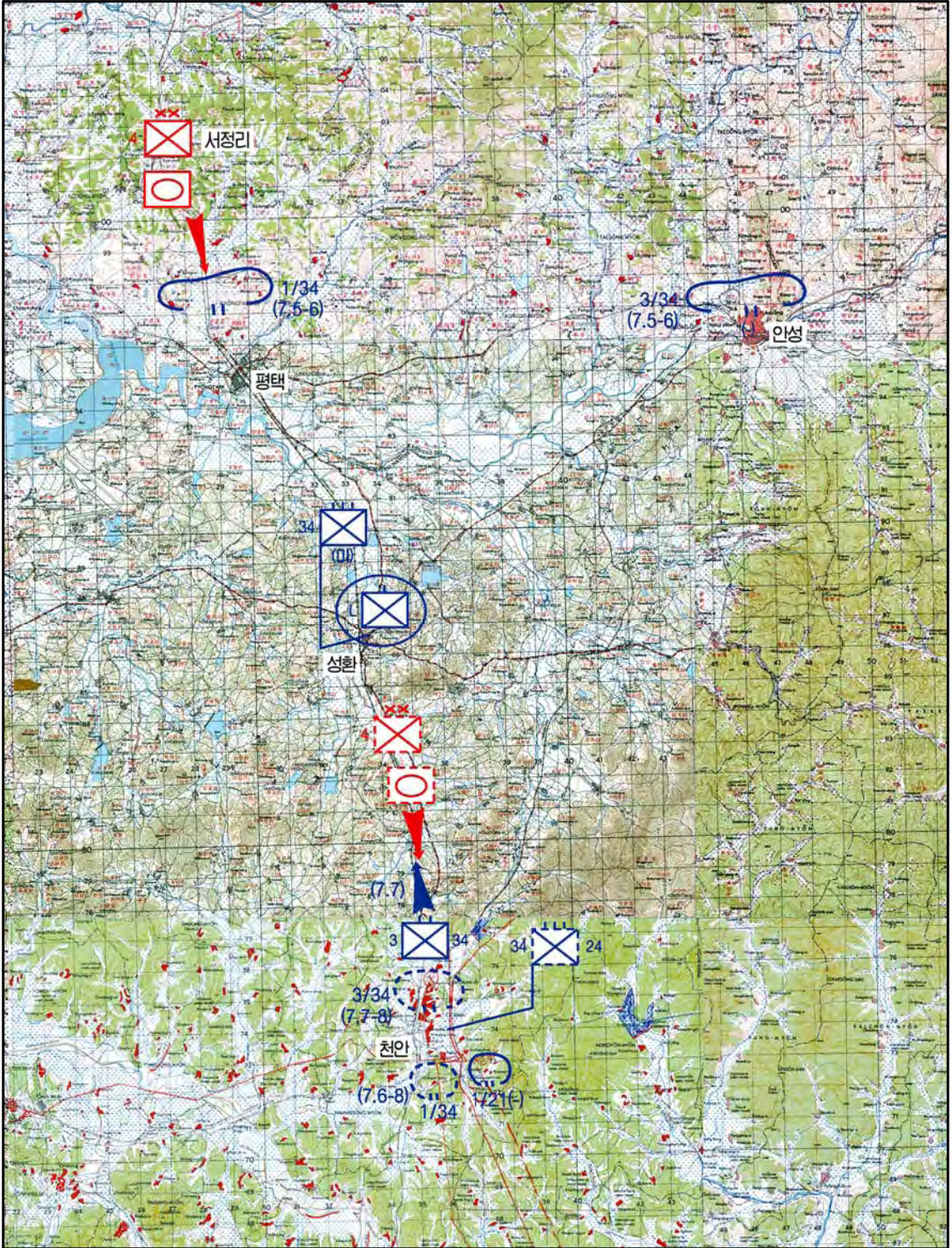
이로서 제34연대는 딘 소장이 가장 중요시 한 평택-안성선에서 제대로 저항한 번 해보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몹시 노여워했으며, 다음날(7월 7일)에 안성에서 철수한 제3대대를 북쪽으로 전진시켜 적과의 접촉을 유지토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접적 전진 중이던 제3대대는 적 매복조의 기습 공격을 두 차례 받고 혼란에 빠져 천안으로 철수하였다. 연대장은 철수하는 제3대대 병력들을 천안 외곽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토록 하고, 제1대대는 안성에서 천안에 이르는 도로를 통제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천안방어에 들어갔다.

딘 사단장은 제34연대의 전투능력에 크게 실망하여 연대장을 교체하였다. 신임 연대장 마틴(Robert R. Martin) 대령은 천안 남쪽에 위치한 주지휘소는 부연대장이 위치하도록 하고, 본인은 직접 소수의 연대본부 병력을 이끌고 시내로 들어가 예하 대대병력들을 독려했다.

7월 8일 06:00에 북한군이 천안 시가지 공격을 감행하자 외곽방어선은 조기에 붕괴되고, 적 전차가 천안 시내를 마음대로 유린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적극적인 전투지휘로 천안을 고수하고자 하였으나, 08:00경에 2.36"로켓포로 직접 적 전차를 공격하다가 적 전차로부터 사격을 받고 전사했다. 보직된 지 하루만이었다.

연대장이 전사한 제34연대 병사들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하 대대들은 천안에 많은 장비를 유기하고 철수함으로써 평택-천안 전투는 종료되었고, 연대는 천안-공주도로를 따라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이동하였다.

<상황도 5-4> 평택-천안 전투



2) 피·아 전투상황

(1)

북한군은 제2단계 작전 목표선인 평택-안성-영월-삼척선을 점령하기 위해 계속 공격 중에 있었다. 그들은 죽미령에서 미 지상군의 참전이 확인됨에 따라 차후 정세 추이에 대한 불안감이 배태(胚胎)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본다. 즉 참전 미군의 병력규모와 그 활동전방에 대하여 부심하게 됨으로써 종전과 같은 전차 단독의 진지들과를 단념하고 전반적인 전선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보전협동공격 체제로 전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7월 5일 14:30에 스미스부대가 죽미령 진지에서 철수하기 전에 북한군의 전차부대는 먼저 진지를 돌파하여 오산을 지나 서정리까지 남하하였으나, 다시 오산으로 되돌아가는 신중함을 보였다. 오산까지 진출한 그들은 그날 오후 늦게 제4사단의 및 전차부대 일부가 서정리로 진출하여 그곳에서 다음날의 평택 공격을 준비하였다.

북한군 제2사단은 7월 5일 아군과 접촉 없이 안성을 거쳐 진천으로 이동 중에 있었고 제15사단은 장호원을 거쳐 7월 6일 무극리, 동락리 지역으로 은밀 기동하다가 국군에 기습을 당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입고 퇴각하였다. 또한 그들 제1사단은 충주로 이동 중에 있었다. 제12사단은 충주와 제천으로 기동하였으며 충주에서 국군 제6사단과 교전이 있었다. 제5사단은 동해안에서 아군과 접촉 없이 삼척까지 진출하였다.

(2) 24

서부지역에서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죽미령 전투에서 패배(敗北)하여 안성, 성환을 거쳐 천안에 집결 중에 있었다. 그리고 미 제34연대는 7월 5일,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죽미령 전투를 실시하는 동안 평택 및 안성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 중에 있었다. 그리고 미 제21연대(-), 제19연대는 7월 4일 부산에 도착하여 전선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서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국군은 7월 5일 제1군단을 창설하고, 7

월 6일 수도사단은 진천, 제1사단은 음성, 제2사단은 증평으로 이동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한군 제2, 제15사단의 은밀 기동을 저지하고자 먼저 출동하였던 국군 제6사단은 제19연대를 안성에, 제7연대를 동락리로 이동시켜 국군 제1군단의 방어진지 편성을 엄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연대는 충주에 배치하여 북한군 제12사단 일부와 제1사단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8사단은 단양으로 이동하여 남한강 일대에 방어 배치하였고, 동해안의 제23연대는 접적(接敵) 없이 울진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2. 전투경과

1) 방어준비

(1) -

미 제34연대(장, Jay B. Lovless 대령)는 일본 큐슈의 사세보(佐世保)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7월 1일 밤에 6·25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사세보항에서 승선을 끝내고, 7월 2일 저녁에 병력들은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장비는 하루 뒤인 7월 3일 오후에 2척의 LST편으로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연대는 밤을 새우는 장비 하역작업을 실시한 후 병력과 함께 부산역으로 수송하였고, 7월 4일 새벽에 대대장이 공식 중인 제1대대를 먼저 출발시켜 오후에 대전에 도착하도록 하였다.⁷⁷⁾

대전에 도착한 제34연대 제1대대는 이곳에서 신임대대장 아이레서(Harold B. Ayres) 중령을 맞이하였다.⁷⁸⁾ 제34연대를 평택-안성선에 투입하기로 결심한 사단장은 제1대대를 우선 평택으로 이동시켜 저지진지를 확보토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는 야간 열차편으로 대전을 출발하여 다음날인 7월 5일 05:00에 평택에 도착하여 그 북쪽에 있는 칠괴리(평택 북쪽 3km)와 지제리(칠괴리 서쪽 2km) 일대에 국도를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7월 4일 저녁에 부산을 출발한 연대본부와 제3대대(장, David H. Smith)는 제1대대가 평택에 도착했을 무렵인 7월 5일 새벽에 대전에 도착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대전에 도착한 제34연대장 라브리스(Jay B. Loveless) 대령에게 “① 한강을 도하한 적은 기갑부대와 함께 수원 부근에서 남하 중이며,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오산 부근에서 그들을 저지할 것이다. ② 귀 연대의 제1대대는 평택 부근에 투입되어 진지를 점령 중일 것이다. ③ 제3대대로서 안성을 확보하라. ④ 연대 지휘소는 성환에 설치하라”는 요지의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평택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병과 전차, T-34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화기도 없는 제34연대에게 평택을 고수하라고 지시했다.⁷⁹⁾

위와 같은 사단장의 명령을 수령한 제34연대장은 이날 오후에 제3대대를 안성에 배치하고, 연대지휘소는 성환에 개설하였다. 이때 연대 예비가 없음을 감안하여 제3대대 L중대(중대장: 중위 Morlott)를 연대 예비로 성환에 집결 보유하였다. 그리고 연대의 4.2 “박격포 중대는 대대에 분할 배속하여 화력을 증강시켰다.

딘 소장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오산 부근으로 투입할 당시까지만 하여도, 북한군의 전력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오관하여 오산 북쪽에서 적을 능히 저지하여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동안 후속할 제34연대를 평택-안성선에 전개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7월 5일 05:00에 평택읍으로부터 4km 북쪽의 방어진지에 도착한 제1대대는 1번 국도를 포함하여 서쪽의 지제리 부근에는 A중대, 그 동쪽의 칠괴리 부근에는 B중대를 각각 배치하였고, 대대지휘소는 평택읍 북쪽의 국도변에 설치하고, 그 부근에 C중대를 예비로 집결 보유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개인호를 구축하고, 박격포 사격제원을 확보하는 등 방어준비에 바쁜 오전을 보냈다.

이날 오후에 안성에 도착한 제3대대는 안성읍 동북쪽의 94고지 일대와 서북쪽의 용인-안성도로변에 I, K 2개 중대를 배치하였고, L중대는 연대 예비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연대지휘소는 성환에 설치하였다.

한편, 제34연대의 전투준비는 대단히 미흡하였다. 연대장 러브리스 대령은 불과 두 달 전에 전임 연대장이 보직 해임된 자리에 들어와 아직 연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단장이 제1대대장으로 임명한 아이레서 중령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다만 그가 제2차 대전 때 이탈리아 전선에서 대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31세의 '침착한 인물'이라는 것 외에는 대대장의 신상과 약조차도 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즉 지휘 상의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였다.

그리고 성환의 제34연대 본부는 오산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와 통신이 되지 않았고, 또한 평택의 제1대대 및 안성의 제3대대와도 유무선이 통하지 않아 전령통신을 이용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무전기 성능이 좋지 못하여 10km 내지 20km의 거리에서 통화가 되지 못했고, 유선은 피난민이 짐을 꾸리기 위한 노끈 대용품으로 야전선을 절단해 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34연대는 스미스부대의 전투상황을 바스 장군이 7월 5일 11:00 전 후에 오산으로부터 평택에 도착하여 '스미스부대의 화력이 적의 전차를 격파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전반적인 상황은 이날 자정이 넘어서 도착한 페리 중령과 스미스 중령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즉 가장 중요한 전투 준비 시기에 연대는 전방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3)

바스 장군은 평택의 제34연대 제1대대 지휘소에 도착하여 대대장 아이레서 중령에게 "곧 적 전차가 들이닥칠 것이니 전방을 정찰하여 경보토록 하고, 로켓포 반을 추진 배치하여 전차에 대비토록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예비인 C중대에서 1개 소대를 뽑아 2.36"로켓포를 장비케 하여 페인(Charles E. Payne) 중위 지휘 하에 차량으로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나아가 적 전차의 남하를 저지하는 한편, 좌일선인 A중대로 하여금 도로상에 대전차 차단진지를 급편케 하였다.

그 후 페인 중위 소대가 서정리 마을 북쪽 1.5km 정도 전방에서 적 전차 1대

를 발견하였다. 이에 페인 중위 소대는 그 전차가 로켓포의 사정거리 내에 접근하자 로켓포를 발사함으로써 적 전차와 첫 화력대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각이 7월 5일 18:00경이었다. 그러나 2.36 〃로켓포에 명중된 적 전차는 태연자약하였고, 반면 적 전차가 난사한 기관총에 새드릭(Kenneth Shadrick) 일병이 전사하였다.⁸⁰⁾

이와 같이 페인 중위가 대전차공격에 실패하고 복귀하자, 대대장 아이레서 중령은 그때까지 평택에 남아 있었던 국군 육군본부에 교량폭파조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그날 저녁에 교량폭파조(李昌馥 중위, 安昌植 소위, 사병 2명)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아이레서 중령의 지시를 받아 평택 바로 북쪽에 있는 통북천 교량에 폭파 준비하였다.⁸¹⁾

한편 1번 국도를 담당하고 있는 A중대(중대장, Leroy Osburn 대위)에 지시하여 소총 1개 분대에 화기소대의 2.36 〃로켓포 3문과 기관총 1정을 증강한 도로 차단조를 급편하여 제1소대장 드리스켈(Herman L. Driskell) 중위의 지휘아래 도로상에 차단진지를 구축토록 하였다.

(4)

대전에 있던 사단장 딘 소장은 7월 5일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전투 상황을 확인코자 오후 늦게 부관인 클라크 중위(Arthur M. Clarke)를 대동하고 평택으로 달려가 20:00 전후에 제1대대 지휘소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사단장은 바스 장군을 만나 함께 초조히 스미스부대의 소식을 기다렸으나 알 수가 없었다.⁸²⁾

이에 사단장은 이날 오전에 스미스부대가 죽미령에서 접적한 바 있다는 것과 오후에 오산 남쪽 서정리 부근에 적 전차가 출현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각까지 평택으로 철수한 스미스 부대원이 없다는 것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스미스부대는 적에 포위되어 전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안고 있었다. 이날 자정이 지난 7월 6일 01:00에 스미스부대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 대전의 사단지휘소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평택에서 스미스부대에 대한 걱정만 하였을 뿐 제34연대에 대하여 차후작전에 대한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⁸³⁾

이후 제52포병대대장 페리 중령은 제34연대 제1대대에 그들의 위급한 전투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평택에 지프-차로 급히 달려가 다음 날인 7월 6일 01:00 전후에 제1대대지휘소에 도착하였다. 한편 스미스 중령은 안성의 도립병원에서 부상병에 대한 응급치료를 대강 끝낸 후 86명의 부대원을 인솔하여 7월 6일 02:00 전후에 성환의 제34연대본부에 도착하였다. 그곳에 중상자 4명을 치료차 남겨두고, 곧 천안을 거쳐 대전으로 철수하였다. 이로서 제34연대 본부 및 제1대대장은 스미스부대의 전반적인 전투상황을 알게 되었다.

(5)

84)

사단장이 대전으로 떠난 직후인 01:05를 전후하여 평택의 제1대대 지휘소에 스미스부대 본대에서 낙오되어 방황하던 4명이 도착하여 스미스부대의 패전(敗戰)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또한 그 무렵에 제52포병대대장 페리 중령이 도착하여 스미스부대의 전투상황을 전파함으로써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때 바스 장군은 사단장 대리로서 대대장에게 “최선을 다하여 현진지를 고수 하되, 특히 후방경계를 강화하고 퇴로를 확보하여 스미스부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01:30에 제34연대장과 차후대책을 협의코자 성환으로 이동하여 02:30 전후에 연대지휘소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연대지휘소에서 바스 장군과 연대장 러브리스 대령은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연대장은 바스 장군으로부터 평택에 있는 제1대대의 배치 현황과 오후에 있었던 페인 중위의 대전차공격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다. 여기서 바스 장군은 “당면한 적의 기세로 미루어 보아 현재처럼 평택과 안성에 병력을 분산하여 운용하는 것은 방어에 불리하니, 연대를 천안으로 집결시켜 방어력을 강화하라”고 연대장에게 강조하고, 그는 날이 새기 전에 먼저 천안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연대장은 바스 장군에 대해 사단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포병사령관 대리인 그가 보병연대장인 자신에게 작전지시를 할 수

있으나 하는 문제로 고민하였지만, 당시 상황이 긴급하여 연대장은 이를 승복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04:00경에 연대 S-3인 던(John J. Dunn) 소령을 제1대대에 급파하여 “대대는 당면한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되, 위협하지 않을 정도로 현 진지를 확보하다가 천안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연대는 “천안에 병력을 집중하여 그곳에서 결전(決戰)을 실시한다”는 바스 장군의 방침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는 당초 평택-안성선을 고수키로 한 사단장의 의도를 깊이 헤아리지 못한 조치였음이 그 후 바로 알게 되었다.

2) 평택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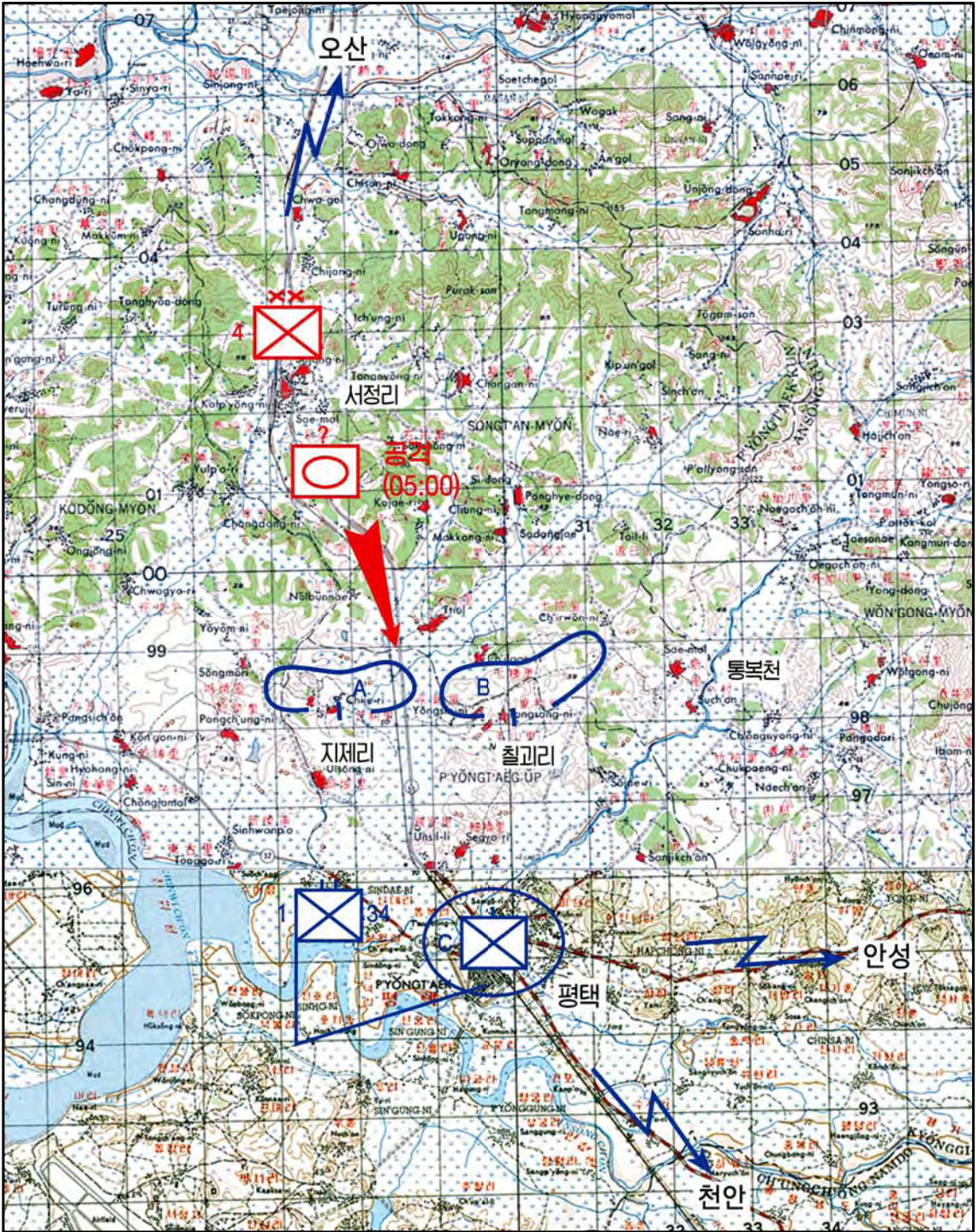
(1) 1 85)

제1대대장 아이레서 중령은 7월 6일 새벽에 적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예비로 있던 C중대로 하여금 정찰대를 전방으로 내보내어 03:00에 국도상의 교량(서정리 남동쪽 2.8km)을 폭파토록 하였다.

제1선의 A, B 양 중대는 스미스부대의 패전 소식에 반신반의하면서 개인호(個人壕) 밖에서 웅크린 채로 밤을 지새우고 야전식량으로 이른 아침식사를 들고 있었다. 왜냐하면 밤새 비가 내려 개인호 속에 물이 가득 차서 들어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때쯤 전날 밤 서정리에서 숙영한 북한군 제4사단의 선두부대가 전차를 앞세우고 농무가 자욱이 깔린 국도를 따라 남하한 것이다. 이때가 04:30경이었는데, 대대장은 지휘소를 떠나 국도상의 도로 차단소에서 경계태세를 확인한 뒤 도로 서쪽의 A중대본부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적의 공격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A중대의 중앙에 진지를 점령한 제2소대의 선임하사 콜린스(Roy F. Collins) 상사로서, 그는 소대진지의 능선위에서 전투식량(C-Ration)을 먹고 있다가 엔진 소음을 듣고 정면을 주시한 결과 희뿌연 안개 속에서 남쪽으로 이동 중인 전차형태의 움직이는 물체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곧 소대장인 리들리(Robert R. Ridley) 중위에게 신속히 달려가 ‘적 출현’ 보고를 하였는데, 그때가 05:00경이었다.

<상황도 5-5> 평택 전투



바로 그 시각, A중대본부에서도 대대장과 중대장 오스번(Leroy Osburn) 대위가 적을 발견하고, 즉시 전투태세에 돌입하도록 하였다. 잠시 뒤에 적의 선두전차가 두 시간 전에 C중대원이 파괴한 교량에 이르러 전진을 멈추었고, 그 뒤로 13대의 전차가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 적 전차병이 교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차 밖으로 나왔는데, 이를 노려보고 있던 대대장은 때를 놓칠세라 4.2 "박격포에 사격명령을 내렸고, 4.2 "박격포는 적 전차 중대(縱隊)에 화력을 집중하자, 적 전차는 85mm 전차포로서 대응사격하면서 끊어진 다리의 좌우로 산개하여 개울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적 전차가 개울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뒤따르던 보병들도 도로의 좌우로 전개하여 일부는 동쪽의 B중대 정면으로, 일부는 A중대 정면으로 공격하였다. 이때 불행하게도 대대의 유일한 지원 화력이었던 4.2 "박격포가 단 1명뿐이었던 관측병이 적 전차 사격에 의한 충격으로 실신하여 화력요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적 공격은 더욱 강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대대장은 더 이상 방어진지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중대장 오스번 대위에게 1개 소대의 엄호아래 중대 주력을 현 진지에서 철수시키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B중대의 전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대지휘소로 달려가서 B중대의 상황을 유선으로 알아보니 A중대와 다름이 없었다. 이에 대대장은 04:00경에 지휘소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연대 작전과장(S-3)으로부터 "대대는 당면한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되, 위협하지 않을 정도로 현 진지를 확보하다가 천안으로 집결하라"는 연대장의 명령과 현 상황을 검토한 끝에 천안으로 철수시키기로 결정을 내리고, B중대에도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⁸⁶⁾

이어서 대대는 09:00에 지휘소를 철수하여 연대지휘소가 있는 성환으로 이전하는 한편, 지원 중인 한국공병의 교량폭파조로 하여금 일선 중대가 평택에 집결하는 즉시로 평택 북쪽의 통복천 교량을 폭파토록 하였다.⁸⁷⁾

이리하여 B중대가 A중대의 엄호 하에 먼저 평택으로 철수하여 C중대와 함께 대대본부의 뒤를 따라 성환으로 집결하였다. 한편, A중대는 B중대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병력을 간신히 수습하여 09:30경에 평택에 집결하여 이날 저녁때가

되어서 천안 남쪽의 지연진지에 도착하였다.

(2)

88)

이와 같이 7월 6일 아침에 제1대대가 평택 전투에서 패배하여 천안으로 철수하게 되자, 연대장 러브리스 대령은 12:00경에 안성의 제3대대(-)도 “즉시 철수하여 천안 남쪽에 진지를 구축하라”고 명령하고, 연대본부도 천안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연대 예비로 보유 중인 L중대로서 성환 남쪽에 진지를 점령케 하여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천안으로 집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서 제3대대(-)는 차량으로 안성-천안도로를 따라 철수하여 21:00경에는 천안 남쪽 5km 지점에 도착하였는데, 이때 도로 좌측에는 먼저 도착한 제1대대가 있었다. 천안으로 철수한 제1대대는 바스 장군의 지시에 의해 천안 남쪽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한편 성환에서 철수시 후위로 남겨진 L중대는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적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철수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제1대대와 함께 철수함으로써 적과 접촉이 단절되어 적정을 탐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7월 6일 아침 바스 장군은 성환을 떠나 천안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제21연대 제1대대(장, Charles B. Smith 중령)의 잔여병력인 제A·D중대 및 본부중대가 D중대장 알카이어(Charles R. Alkire) 대위 지휘 하에 열차편으로 천안역에 도착하고 있었다. 이를 본 바스 장군은 제34연대가 천안으로 철수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이 부대를 삼룡리(천안 남쪽 4km) 일대, 1번 국도 동쪽 무명고지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바스 장군은 14:00를 전후하여 천안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평택에서 철수한 제34연대 제1대대의 선두가 그곳에 도착하고 있었는데, 이 부대를 삼룡리 일대, 1번 국도의 서쪽 106고지에 진지를 점령토록 조치하였다.

한편, 성환에서 천안으로 이동한 연대장은 바스 장군이 조치한 바에 따라 제1대대는 천안에 집결하는 즉시 삼룡리 진지를 점령하도록 하였고, 제3대대도 안

성에서 철수하면 삼룡리에 배치하려 하였다. 이로써 천안 남쪽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여기에서 적의 공격을 강력히 저지하기로 하고, 16:00에 연대의 철수상황을 대전의 사단장에게 전문(電文)으로 보고하였다.

(3)

89)

사단장 딘 소장은 7월 6일 16:00에 제34연대장 러브리스 대령으로부터 평택-안성선에서 천안으로 철수했다는 보고를 받고 대노(大怒)하여 즉시 천안으로 달려갔다. 이날 저녁 무렵에 천안의 연대지휘소에 도착하여 바스 장군과 연대장 그리고 제1, 제3대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작전방침을 논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사단장은 그가 방어의 최적지라고 판단한 평택-안성선에서 연대가 큰 저항도 없이 조기에 철수한 것에 대하여 심하게 추궁하였으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난 다음이었다.

딘 소장의 당시 감정상태로는 그 즉시로 연대를 평택으로 북상시킬 생각이었으나 이미 날이 어두워졌으므로 적의 기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별명이 있을 때까지 현진지를 고수하라"라고 지시한 다음, 그는 대전의 사단지휘소로 복귀하였다. 그날 밤 사단장은 사단 주력과 지원화력이 도착하기까지 최대한 적의 전진을 지연시키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라고 판단하고, 제34연대에 "날이 밝은 다음 1개 중대를 경부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시켜 적과 접촉을 유지하고, 적의 전진을 지연토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사단장은 7월 7일 날이 밝자 예하 참모에게 "항공정찰을 강화하여 천안 북쪽의 적정을 수집하라"고 지시하였다.

다른 한편 일본 큐우슈우(九州)의 벳푸(別府)와 구마모토(熊本)에 각각 주둔 중이던 제19연대와 제21연대가 사세보(佐世保) 항에 집결하여 7월 4일에 해상이동으로 부산에 도착하였고, 이 부대들은 장비 도착 및 하역작업을 끝내고 7월 7일 부산에서 경부선 열차를 이용하여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전 병력을 대전 정면에 집중 운용하고 싶었으나 주한 미군사령관으로서 국군이 담당할 작전책임지역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제21연대(-)

만 대전으로 이동시키고, 제19연대는 전략예비로써 대구에 집결하도록 조치하였다.⁹⁰⁾

이와 같은 조치로 연대본부와 제3대대뿐인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가 정오 무렵에 대전에 도착하였는데, 사단장은 제21연대장에게 “즉시 조치원으로 전방 추진하여 천안의 제34연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1번 국도 보급로를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 사단장 명령에 따라 이날(7월 7일) 오후에 조치원으로 이동한 제21연대(-)는 연대지휘소를 조치원에 개설하고, 다음날에는 제3대대를 전의 마을(조치원 북서쪽 10km) 남동쪽 2.5km인 개미고개 좌우측에 지연진지를 점령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날 극동군사령부로부터 “제24사단은 1개 대대를 추출하여 연일비행장(포항)의 공군 제35전투비행단(장, Robert Witty 대령)을 경비케 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단장은 대구의 제19연대 제2대대를 포항으로 급히 이동하게 조치함으로써 대구에는 예비 병력으로 제19연대 제1대대만 남게 되었다. 당시 제35전투비행단은 연일비행장을 기지로 삼기 위하여 1개 대공포대의 경비 하에 활주로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추가 경비 병력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대전에 도착 중인 포병과 전차 등을 전선으로 보내었는데, 이날 저녁 무렵에는 제34연대 지원포병인 제63포병대대 일부와 사단 전차인 제78전차대대 일부가 천안으로 추진되었다.

3) 천안 전투

(1) 3

91)

안성에서 접적 없이 철수한 제3대대는 7월 6일 야간에 천안에 도착하여 천안 남쪽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때 1개 중대를 북상시키라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34연대장 러브리스 대령은 제3대대 L중대(장, Archie L. Stith 중위)에 연대 정보 수색(I&R)소대를 배속시켜 천안에서 1번 국도를 따라 성환 쪽으로 이동하여 적과 접촉을 유지토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L중대(+)는 7월 7일 08:10에 차량기동대

로 편성된 수색소대를 선두로 하여 천안을 지나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천안 읍내는 대부분이 피난가고 노인들과 경찰 일부만 남아 있었다.

이날 10:30경에 L중대가 천안 북쪽 4km에 이르렀을 무렵, 연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제34연대장 앞. 1950. 7. 7, 10:25발. 최소한의 수송수단으로 1개 대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켜라. 그리고 적과 접촉을 유지하여 준비된 진지로 철수하면서 지연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라. 항공정찰 결과에 따르면 안성천 남쪽에는 적의 기갑부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명령을 받았다. 사단장은 전날 밤에 연대에 하달한 1개 중대에 추가하여 1개 대대를 접적 전진시키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제3대대(-)로 하여금 L중대를 후속하여 북쪽으로 이동토록 조치하고, 천안 남쪽의 삼룡리 부근에 지연진지를 점령 중인 제1대대의 일부를 천안으로 이동시켜 안성에서 천안에 이르는 동북쪽의 도로를 통제하도록 하였다.

(2)

92)

딘 소장은 평택-안성선에서 제대로 저항 한번 없이 예하 대대를 철수시킨 제34연대장 러브리스 대령을 해임하기로 결심하고, 최고 책임자로 마틴(Robert R. Martin) 대령을 지목하고 그를 우선 천안으로 보내어 그곳의 전황을 파악토록 조치하였다.⁹³⁾ 마틴 대령은 제34연대 제3대대가 천안에서 북쪽으로 이동한 후에 천안의 연대지휘소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단화에 약모차림으로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때 제3대대 주력은 부대리(천안 북쪽 3.5km) 일대를 이동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낮을 넘어서게 되자 연락기가 통신통을 연대에 투하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34연대장 앞. 1950. 7. 7, 16:00발. 귀 부대의 전진에는 주의를 요함. 연대의 동측방과 서측방에서 큰 규모의 적 병력이 확인되었음. 안성 부근에는 전차(40~50대)와 차량들이 집결 중이고, 미양(안성 서남쪽 5km)과 성환 부근에도 많은 병력이 집결 중임. 적이 귀연대의 측면 포위를 기도할 것임"으로써 사단장이 적정이 위급함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에 연대장 러브리스 대령은 안성 부근의 적이 천안 동북쪽으로 측방공격을 기도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안성 가도(街道) 쪽을 막고 있는 제1대대(장, Harold B. Ayres 중령)의 방어태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마틴 대령과 함께 대대지휘소로 달려갔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사단장의 연대장 교대명령서를 휴대하고 그곳에 도착한 부사단장 멘노허 장군과 처치 장군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15:00에 대전을 출발하여 막 그곳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부사단장 멘노허 장군이 연대지휘권의 인계와 인수명령서를 전함으로써 그의 입회하에 연대장의 교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절차가 끝난 것은 18:00경이었다.

사단장 딘 소장이 작전 중에 연대장을 교체하게 된 배경은 우선 평택-안성선에서 조기 철수한 러브리스 대령에 대한 불신이었다. 그리고 7월 7일 오후에 "성환과 안성 부근에 적의 대부대가 집결 중에 있다"는 항공정찰 보고를 받고, 천안을 확보할 가용수단이 마땅치 않아 마틴 대령의 지휘역량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장은 제34연대에 위협을 경고하는 한편, 부사단장인 멘노허(Pearson Menohor) 장군을 급히 천안에 보내어 연대장을 교체토록 조치하였던 것이다.

(3) 3

94)

7월 7일 아침부터 천안에서 경부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점적 전진을 하고 있던 제3대대는 15:00경에 선두의 연대 정보수색소대는 직산(천안 북쪽 6.5km)역 북쪽 700여m의 삼거리 부근, L중대는 그 남쪽 1.5km 지역에, 그리고 대대 주력은 부대리 부근을 이동 중에 적의 기습을 받고 각각 진지를 편성 중에 있었다.

이와 같이 선두에서 전진하고 있던 정보수색소대가 그 부근의 마을을 점거 중인 소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소화기와 박격포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정보수색소대는 적과 1대1 규모의 대결인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정지하고 바로 L중대 진지로 철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3명의 실종자를 내기까지 하였다. L중대에 도착한 정보수색소대장이 점적 상황과 소대원의 실종 사실을 대대장에게 보고하였

다. 마침 대대의 작전장교(S-3)인 시거(Eoone Seegars) 소령이 중대에 도착하여 그들을 지휘하여 전방으로 나아가 실종병사 3명을 구출하였다.

그리고 L중대가 직산역 남동쪽 1km에 지점에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 서쪽의 내동(직산역 남쪽 1km) 부근으로부터 적의 화력기습을 받아 교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부대리 부근의 대대 주력도 적의 측방공격을 받아 철수중이었다.

따라서 제3대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대에 나와 있던 연대작전과장(S-3)던 소령은 상황의 위급함을 깨닫고, 그 길로 천안의 연대지휘소로 급히 복귀하여 연대장에게 제3대대의 철수상황을 보고하였는데, 그 시각은 이미 마틴(Robert R. Martin) 대령이 연대의 지휘권을 인수한 다음이었다. 이리하여 연대 작전과장으로 부터 첫 보고를 받은 신임연대장 마틴 대령은 우선 그에게 “제3대대를 수습하여 당초의 대대 진지를 확보하라”라고 명령한 다음 뒤이어 연대 본부중대를 이끌고 직접 적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으로 나아갔다.

한편, 던 소령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3대대의 작전장교인 시거 소령과 더불어 천안에 집결한 제3대대의 일부 병력을 수습하여 곧 차량으로 이들과 함께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동 중에 적의 기습을 받아 선두차에 탑승하였던 던 소령과 시거 소령이 중상을 입게 되고, 뒤따르던 병력은 분산하여 천안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상으로 낙오가 된 던 소령은 이날 저녁 포로로 잡혔고, 시거 소령은 중상으로 끝내 숨지게 되었다.

그 동안에 천안 북쪽으로 달려 나가 상황을 확인한 연대장은 제3대대가 유기한 장비와 차량 일부를 회수하여 천안으로 되돌아가, 집결 중인 제3대대로 하여금 천안 외곽에서 결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서 제3대대는 19:00에 천안읍 외곽지대에 방어진지를 새로이 점령하게 되었다.⁹⁵⁾ 제1대대는 이날 오전부터 점령한 동북쪽의 안성가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로써 제34연대는 천안읍을 중심으로 북쪽의 경부 본도, 그리고 서쪽의 천안역과 철로를 싸안은 마제형의 진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도상의 예상 적 전차 접근로에는 대전차 지뢰 800여발을 매설하여 적 전차의 전진을 저지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4) 가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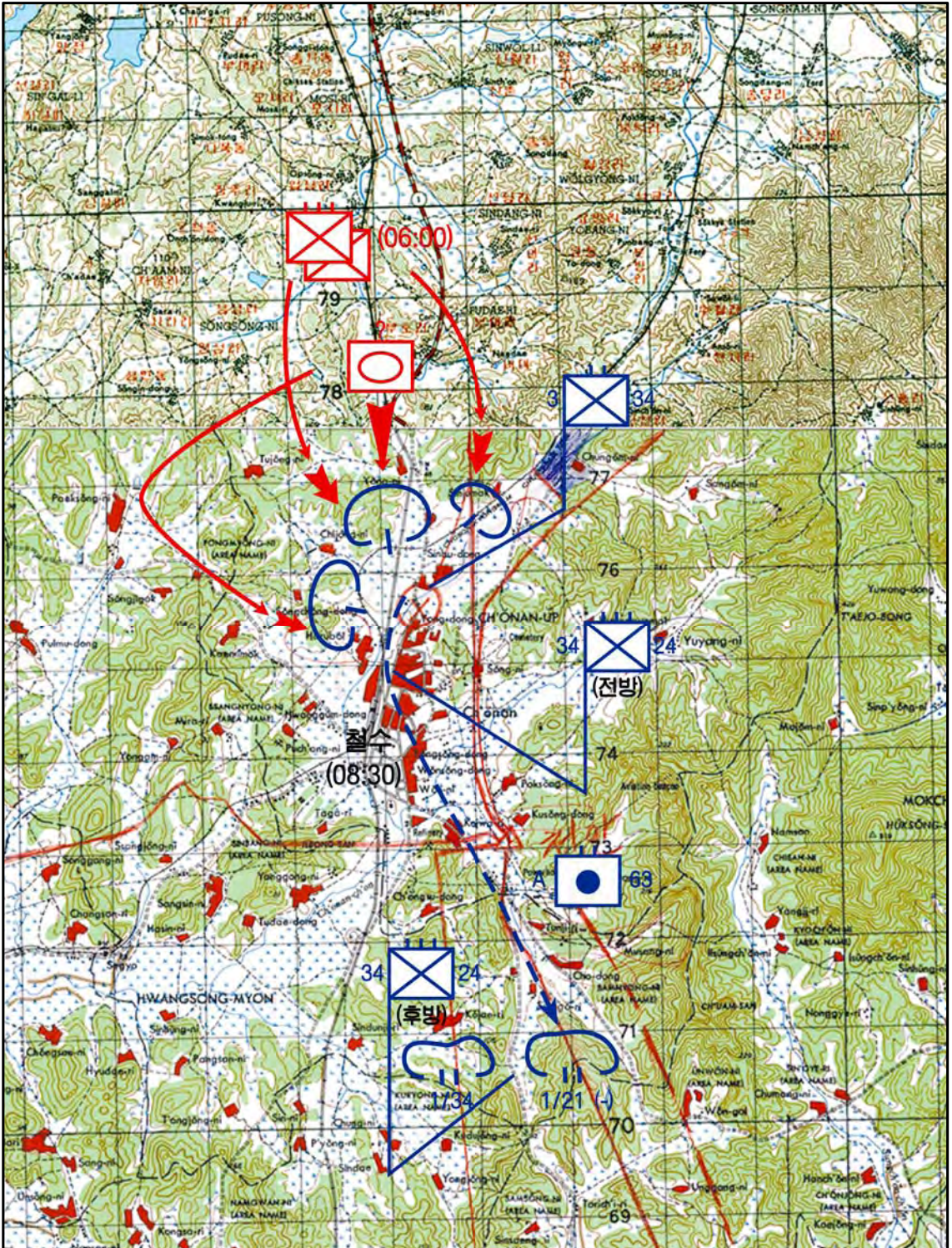
천안 외곽진지에서 결전을 하기로 다짐한 마틴 대령은 연대지휘소를 제21연대 제1대대(-)와 제34연대 제1대대 A중대가 지연진지를 확보 중인 삼룡리 부근으로 이동시켜 부연대장 웨드링턴(Robert L. Wadlington) 중령으로 하여금 보급책임을 맡게 하고, 자신은 읍내에 남아서 부대지휘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20:00에 제63 포병대대(장, Robert H. Dawson 중령)의 A포대와 제78전차대대 A중대의 M-24 경전차 1개 소대가 급히 증원되었는데, 연대장은 이들을 연대지휘소 부근에 위치시켜 제3대대를 화력지원토록 하였다.

이날(7월 7일) 해가 지면서 적의 압력이 있었으나 밤 동안 큰 접전은 없었다. 그리고 자정 무렵에 적이 보전협동으로 한 차례 야습을 시도하였으나, 포병이 적 전차에 대전차고폭탄을 집중하여 2대를 격파함으로써 그들의 전진을 격퇴시켰다. 또한 제34연대장 마틴 대령은 천안 읍내에서 제3대대(장, David H. Smith 중령)와 함께 밤을 새웠다. 이날 자정이 지난 뒤로 삼룡리의 연대지휘소와 천안의 제3대대 사이에 통신이 곧잘 두절되어 부연대장 웨드링턴 중령을 비롯한 후방의 지휘소 요원들이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날을 새게 되었다.

드디어 7월 8일 06:00부터 천안 정면에서 적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성환쪽에서 국도를 타고 들이닥친 6대의 전차를 선두로 북한군 제4사단 제16, 제18연대가 서북쪽의 경부 본도와 동북쪽의 안성가도를 따라 읍내로 돌입하였는데, 이때에 연대는 전날 진전에 800여발에 달하는 대전차지뢰를 매설하여 쉽사리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믿었지만, 적 전차는 의외로 그 지뢰지대를 유유히 통과하였으며, 읍내에 진입하는 즉시로 천안역 건물과 교회 등 미군이 잠복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건물과 차량들에 포격을 가하였다. 당시 미군의 지뢰가 단 한발도 폭발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대략 적이 야음을 타고 들어와서 사전에 이를 제거했거나 또는 잘못 매설되었거나, 아니면 불량품이어서 불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 천안 읍내에서는 2시간 가까이 시가전(市街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적 전차가 좁은 읍내에 진출하여 휘젓고 다님에 따라 연대의 지휘 기능이 마비되었다.

<상황도 5-6> 천안 전투



이에 연대장 마틴 대령은 무엇보다도 적 전차의 격파가 선결문제라고 판단하고 직접 2.36 〃로켓을 들고 읍내 한복판에서 적 전차와 대결하다가 08:00에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이는 제34연대장으로 부임한지 하루만이였다. 그에게 미 극동군사령부에서 7월 11일에 십자훈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수여함으로써 그는 이 전쟁 중 연대장으로서의 첫 전사자가 된 동시에 첫 십자훈장(DSC) 수상자가 되었다.⁹⁷⁾

연대장의 전사소식이 알려지자 연대의 전황이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제3대대장 스미스 중령이 동분서주로 부대를 지휘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의 증원으로 말미암아 천안에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09:00를 전후하여 대대장은 하는 수 없이 포병에 연막차장을 요청하고, 병력을 천안에서 철수토록 명령함으로써 각기 현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었는데, 대대장은 10:00에 삼룡리의 연대지휘소에 도착하자마자 혼절하여 후송되었다.

(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단장은 제34연대 부연대장 웨드링턴 중령으로 하여금 연대장을 대리하여 병력을 수습토록 한 다음, 제63포병대대 A포대와 더불어 행정리 삼거리(삼룡리 남쪽 10km)에서 공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금강(錦江)으로 철수하면서 지연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삼룡리의 제34연대 제1대대(-)와 제21연대 제1대대(-)는 각각 천안에서 제3대대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본대에 합류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웨드링턴 중령은 10:00에 포병을 먼저 광정리(행정리 남쪽 10km) 부근으로 철수시켜 보병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혼절한 제3대대장 스미스 중령은 후송시키고 대대의 선임장교인 란트론(Newton W. Lantron) 소령이 대대장 대리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에게 연대지휘소 부근에서 낙오자 수용선을 설치하여 병력을 수습한 후 광정리에 지연진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제1대대 엄호 하에 제3대대가 낮 동안 병력을 수습한 병력은 모두 176명이었는데, 그나마 대부분의 공용화기는 천안에 유기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

에서 제3대대는 란트론(Lantron) 소령 지휘 하에 광정리로 철수하여 그곳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지연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연대지휘소는 오후에 공주에 개설함으로써 평택-천안 전투는 막을 내렸다. 한편 경부 국도 축선은 제21연대가 전의 마을에 배치됨으로써 담당하게 되었다.

3. 전투결과

1) 전투 피해

평택 전투에서는 조기에 철수하였기 때문에 전투피해는 거의 없었다. 천안 전투에서는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으나 천안에 고립되었던 제34연대 본부 병력 일부와 제3대대 장병들의 인명 피해와 장비 손실이 심대했었다. 즉 신임연대장 마틴 대령과 제3대대 작전장교 시거 소령이 전사하고, 연대작전과장 던 소령을 포함한 60여명이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제3대대장 스미스 중령은 천안으로부터 탈출 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탈진되어 후송되는 등 제3대대 장병은 모두 175명만이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천안으로부터 탈출 시에 그들은 박격포, 기관총 등 공용화기 대부분을 유기하였다.

한편, 평택-천안 전투에 참가한 북한군은 제4사단 예하 제16, 제18연대와 제105전차사단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들도 아군의 항공 및 포병사격에 의한 피해가 컸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개된 자료가 없어 정확한 피해 정도는 알 수 없다.

2) 전투 후 전황

사단장 던 소장은 제34연대가 7월 8일 천안에서 철수함에 따라 이후의 작전복안을 구상하게 되었다. 즉 북한군의 주공격축선인 경부 국도는 7월 7일 대전에 도착한 제21연대(-)에 맡기고, 천안전투에서 만신창이가 된 제34연대는 공주 정

면으로 철수하면서 지연전을 수행토록 조치하였다. 이들 부대는 장차 금강선을 연한 방어 편성을 고려한 사전조치였다.

즉 천안을 지난 경부 국도는 행정리에서 곧장 남동쪽을 향하여 전의-조치원-대평리-대전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의 무명도로는 행정리에서 곧장 남쪽을 향하여 광정리-공주-논산으로 연결되는데, 이들 두 도로는 모두 금강을 통과하게 된다.

따라서 사단장은 위의 두 도로가 금강을 지나는 대평리(조치원 남쪽 14km) 및 공주(대평리 서쪽 14km)가 적의 주 도하지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두 곳에서 적의 도하 공격을 저지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제34연대는 최대한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공주로 철수하여 강 남쪽에 방어진지를 점령케 하고, 제21연대는 조치원을 확보하여 국군과의 연계를 도모케 하는 가운데, 대구에 있던 제19연대를 대평리의 방어진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단장은 이미 대부분의 전력을 전선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여하히 접적 중인 병력을 뽑아 금강방어선을 점령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예비인 제19연대의 전용(轉用)을 모색하던 중, 7월 8일 오후에 미 제25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이 주한 미군사령관인 딘 소장의 명령을 수령하기 위하여 일본 오사카(Osaka, 大阪)에서 대전에 도착하였다. 이에 제25사단장에게 “귀 사단의 선발대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로 대구의 제19연대와 그 임무를 교대하라”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단장은 제25사단으로서 일반 예비임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제19연대를 대전으로 이동토록 조치하였다.

이제 사단장은 모든 가용전투력으로 금강선에서 결전을 실시할 것을 결심하고, 이날 낮 중에 개별적으로 하달한 구두명령을 종합하여 21:45에 작전명령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⁹⁸⁾

- 『① 사단은 어떠한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금강선을 고수하려 한다. ② 제21연대는 조치원 정면에서 적의 침공을 저지하라. ③ 제34연대는 공주로 축차 철수하면서 적의 침공을 지연하라. ④ 제11포병대대 A포대는 제21연대를 직접지원하라. ⑤

제63포병대대 A포대는 제34연대를 직접지원하라. ⑥ 제78전차대대 A중대는 제21연대를 지원하라. 그중 1개 소대는 제34연대를 지원하라. ⑦ 사단수색중대의 전차대는 제21연대를 지원하라. ⑧ 제3공병대대는 제34연대의 철수에 따른 도로차단과 금강에 가설된 모든 교량에 대한 폭파준비를 하라. 1개 중대로서 제21연대를 지원하라.』

이에 추가하여 딘 소장은 제21연대장에게 강조하되, “반드시 조치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측의 국군 제1군단이 청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조치원을 잃으면, 국군 제1군단의 서측방 및 후방이 노출되어 보급로를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국군 제1군단이 청주에서 철수할 때까지 만이라도 조치원을 사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귀 연대는 향후 4일 동안은 다른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 6 절 전의-조치원 전투

1. 전투 개요

전의-조치원 전투는 미 제21연대(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경부 국도상의 전의 및 조치원 일대에서 북한군 제105전차사단 및 제4, 제3사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전투이다.

미 제21연대는 제34연대에 이어 일본의 기지에서 출발, 7월 4일 부산에 도착하여 7월 7일 대전에 도착하였다. 이에 단 소장으로부터 “제21연대는 조치원 북방으로 이동하여 제34연대를 지원하고, 보급로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의 마을 남동쪽 일대 횡격실 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 후 7월 8일 제34연대가 천안전투에서 패배하여 철수하자, 단 소장은 제21연대가 전의-조치원 방향의 도로에서 지연전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제34연대가 공주 방향의 도로에서 지연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21연대는 전의 마을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혼성 제1대대(-)을 전의 남동쪽 1km 지점에, 제3대대를 전의 남동쪽 2km 지점에 종(縱)으로 배치하여 경부 국도 및 철로를 통제케 했다. 연대장은 대대장이 없는 혼성 제1대대(-)를 직접 지휘하여 화력계획을 수립하고, 공병들로 하여금 전의 마을 북쪽의 철교와 교량을 폭파토록 하는 등 방어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한 공중공격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근접항공지원팀을 요청해서 배속 받았다.

7월 9일 16:45분에 혼성 제1대대(-)는 진지 전방에 나타난 11대의 적 전차와 수 백 명의 병력을 발견하고 포병사격 및 공중공격을 요청하여 적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 다음날인 7월 10일 06:00에 혼성 제1대대(-)는 북한군 제4사단 병력들로부터 짙은 안개 속에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을 받았으나 4.2 박격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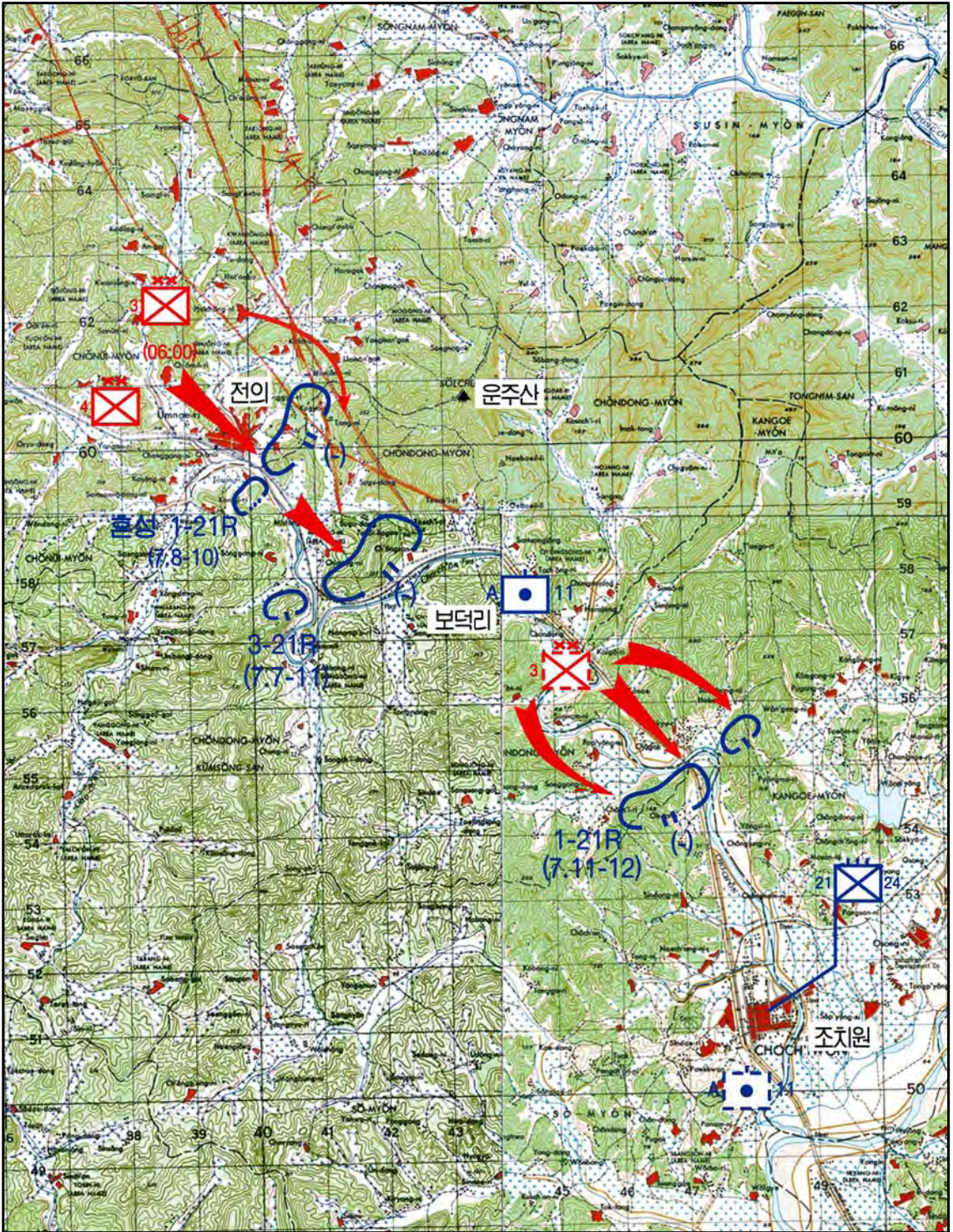
차단사격을 실시하여 저지하였다. 그러나 11:30경에 박격포 진지가 유린당하고 포병사격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측방과 후방이 차단당하자 연대장은 철수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제3대대의 공세행동으로 혼성 제1대대(-) 진지를 재탈취했으나 적정이 위험하여 원진지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7월 11일 새벽 북한군 제3보병사단¹⁰⁰은 제34연대 제3대대 진지를 공격했다. 이때 북한군은 사전 침투한 적 후방 침투조들을 활용하여 대대 지휘소 및 박격포 진지에 대한 포사격 유도과 후방 차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대장 켄슨 중령을 포함하여 병력의 60% 가량이 손실을 입고 조치원으로 철수하였다.

7월 12일, 북한군 제3사단은 공격기세를 몰아 조치원 북방에 배치된 제21연대 제1대대 방어 지역을 동·북·서 3면에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죽미령 전투와 전의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던 제1대대(대대장, Charles B. Smith 중령)는 북한군 제3사단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연대장 스테판 대령은 전날 제3대대와 같이 후방이 차단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철수 명령을 하달했다. 이로써 제21연대는 모두 금강을 건너 왔다. 그동안 제21연대는 전의-조치원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북한군 제3, 제4사단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히고, 이들의 진출을 4일 간이나 지연시켰다.

한편 제34연대는 7월 8일 천안에서 철수하여 공주방향으로 이동 중에 광정리에 제3대대를 배치하고, 수촌리에 제1대대를 배치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하고자 하였다. 전의 방면에 공격을 하던 북한군 제4사단은 7월 10일 공주방향으로 전환하여 7월 11일야에 광정리에 도착하여 제3대대를 공격하자, 제3대대는 바로 철수하여 공주 정면에 배치하였다. 한편 수촌리에 배치되었던 제1대대는 7월 12일 접적이 없는 가운데 사단장 명에 의거 금강을 건넜다. 이렇게 하여 미 제24사단 전 병력은 7월 12일부로 금강을 건너와 금강선을 연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고자 하였다.

<상황도 5-7> 전의-조치원 전투



2. 전투경과

1) 방어준비

(1) 21

미 제21연대는 일본 구마모토의 우드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가, 미 제34연대에 이어 두 번째로 6·25전쟁에 투입된 연대이다. 그런데 제1대대(대대장, Charles B. Smith 중령)는 이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로 편성되어 7월 5일에 죽미령 전투를 치루고 대전으로 이동하여 정비 중에 있었고, 그 나머지의 A, D 양개 중대와 대대본부 일부병력은 D중대장 알카이어(Charles R. Alkire) 대위가 지휘하여 7월 6일 평택 전투가 있었던 날에 천안 역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이 곳에 있던 부사단장 바스 장군의 지시에 의해 천안 남쪽 삼룡리 부근의 지연진지에 투입되었다. 이 부대를 편의상 제21연대 혼성 제1대대로 명명하였다.¹⁰¹⁾

그리고 연대본부 및 제3대대(장, Carl C. Jensen 중령)는 연대장 스테판(Richard W. Stephens) 대령이 직접 인솔하여 7월 4일 부산에 도착하여 7월 7일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사단장 딘 소장은 이들에게 “대전에 집결하는 즉시로 북쪽으로 이동하여 조치원 부근에 지연진을 점령하여, 제34연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동 연대의 보급로를 확보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본부는 조치원에 설치하고 제3대대는 전의 마을 남동쪽 2.5km 되는 지점인 미곡리 부근(조치원 서북쪽 10km)의 진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한편, 제21연대 혼성 제1대대(-)는 7월 8일 제34연대가 천안 전투에서 패배하여 철수할 때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제21연대장 스테판 대령의 명령에 의거 국도를 따라 전의 남동쪽 1km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곳에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B, C중대 보충병과 합세케 되었다. 진지와 전의 마을 사이에는 논이 가로놓여 있어 그곳을 지나는 1번 국도와 마을을 아울러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감제고지였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남동쪽으로 1.5km 되는 곳에는 전날(7월 7일)에 제3대대가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2)

전의 남동쪽 1km 되는 지역에는 나지막한 능선이 남서쪽으로 뻗어 소하천(조천)에 이르는데, 이 능선의 앞과 뒤는 논이었다. 그리고 조천 건너에는 다른 능선이 나란히 있었다. 이 능선의 남동쪽 1.5km 되는 지역에는 운주산에서 뻗은 능선이 앞 능선과 거의 평행하게 뻗어 조천에 이르고 있으며, 조천 건너편에는 작성산에서 뻗은 작은 능선이 나란히 있었다. 그리고 조천을 따라 1번 국도와 경부선 철도가 나란히 지나고 있었으며, 운주산에서 뻗은 능선에는 1번 국도가 지나는 곳에 개미고개가 있었고, 고개 밑으로는 경부선이 지나는 철로 터널이 있었다.¹⁰²⁾

제21연대는 전의 남동쪽 1km되는 소능선에는 알카이어 대위가 지휘하는 혼성 제1대대(-)로 제1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이로부터 남동쪽 1.5km의 능선에는 켄슨 중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로 제2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혼성 제1대대(-)는 A중대(중대장 : Earl Babb 중위)를 서, D중대(중대장 : Charles R. Alkire) 를 동으로 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도로 및 철로 건너에 있는 오얏고지(전의역 남동쪽 800m, 표고 100m 정도)에는 빅슬러 중위가 이끄는 1개 소대를 배치하였다.

또한 켄슨 중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는 I중대 및 L중대를 운주산에서 뻗은 능선에 배치하고 K중대를 하천 건너의 작성산에서 뻗은 능선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박격포는 능선 뒤편에 배치하였고, 제11포병대대 A포대(155mm 곡사)는 제3대대 진지 남동쪽 5km의 보덕리(CR4555)에 진지를 점령하게 하였다. 이때 연대지휘소는 조치원에 위치하고 있었다.

(3)

103)

미 제21연대는 제24사단 예하 3개 연대 중에서 가장 훈련이 잘된 부대라 할 수 있다. 연대장 스티븐슨 대령의 강력한 지휘로 엄격한 군기를 세웠고, 최선을 다해 훈련시켰으며, 운동경기를 통한 경쟁을 특히 많이 시켰다. 제1대대는 스미스 중령이 지휘했고, 제3대대는 켄슨(Carl C. Jensen) 중령이 지휘하는 등 최고 지

휘관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 결과 육군훈련시험에서 예하 2개 대대가 모두 합격하였다.

그리고 제21연대는 전투에 투입되어서도 타 연대보다 전투준비를 철저히 했다. 7월 9일 아침, 참호를 깊게 파고 포병 및 박격포 운용을 위한 화력계획을 수립하였고, 4.2와 81mm 박격포 및 155mm 야포의 제원기록사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3공병대대 B중대는 적 전차의 진출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전의에 이르는 교량을 폭파하는 등 전투준비를 서둘렀다. 또한 공중공격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근접항공지원팀을 요청해서 배속 받았다.

2) 전의 전투

(1)

104)

7월 8일 천안을 수중에 넣은 북한군 제4사단(장, 소장 이권무)은 계속 1번 국도를 따라 남하하여 7월 9일 오전에는 전의 마을에 도달하였는데, 미군의 공중 공격으로 부대이동에 신중을 기하는 듯하였다. 따라서 전의 마을 남동쪽의 능선에 진지를 점령한 혼성 제1대대(-)는 적과 접촉이 없는 가운데 한낮을 넘기게 되었다.

이날 15:00경에 혼성 제1대대(-)는 적 전차 11대가 국도와 철로를 따라 전의 마을로 진입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이에 즉각 연대를 직접지원하는 제11포병대대 A포대의 155mm 곡사포와 4.2"박격포가 적 전차에 대해 포화를 집중하였고, 이어서 근접항공지원사격을 요청한 결과, 바로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가 나타나 적 전차를 공격하였다. 그 결과 16:50경에 11대의 전차 중 5대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또한 항공관측에 의하면 전의 마을 부근에서 모두 12대의 차량이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중공격에 타격을 입고 피해가 컸음인지 적은 더 이상 공격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제3, 제4전술항공통제단은 황혼 무렵에 전의 마을과 평택 사이의 국도에서 200여대의 적 차량중대를 포착하여 공중공격을 가한 결과 그중 100여

대를 파괴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적 제105전차사단(장, 소장 유경수)의 정치군관이었던 오기완 대위가 “천안 남쪽에서 미군 항공기 30여대로부터 5시간 이나 공중공격을 받아 전차 15대와 차량 30여대가 파괴되었다. 이것은 개전(開戰) 이래 미 공군으로부터 입은 가장 큰 손실이었으며, 우리는 대공장비를 갖추지 않고 전진만 하다가 그들 항공기의 좋은 밤이 된 셈이다”라고 뒷날 증언하여 그 당시에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음을 인정했다.¹⁰⁵⁾

이와 같이 공중공격으로 적의 전진을 저지한 후 저녁 무렵에 연대장 스테판 대령은 뉴욕 헤럴드 트리뷴(New York Herald-Tribune)지의 특파원인 비가트(Homer Bigart) 기자와 함께 제1선인 혼성 제1대대(-)로 달려가 알카이어 대위와 A중대장 밥(Earl Babb) 중위 등과 더불어 그곳의 참호 속에서 밤을 새웠다.

(2) 1 (-) 106)

7월 10일 이날은 새벽안개가 유난히 짙게 깔려 논바닥과 도로, 그리고 능선의 구비마다 낮게 드리워 그야말로 동서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에 장병들은 06:00경에 적이 진전으로 접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적은 새벽안개를 이용하여 일부병력을 은밀히 진전에 접근시켜 요란사격으로 아군의 진지 배치상태를 탐지한 다음, 07:00경에 박격포 지원사격을 실시하고, 보병병력들은 국도 서쪽의 빅슬러 중위 소대 정면으로 집중 공격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4.2 박격포로서 빅슬러 소대를 지원토록 하여 적의 공격을 격퇴시켰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하는 동안 적의 일부가 안개 속에 기도비닉을 유지하여 도로 동쪽의 대대 주진지의 동측방으로 우회하여 박격포 진지로 침투하였고, 이와 동시에 진지 정면에서 적 전차 1대가 안개 속에 도로를 따라 진지 후방으로 통과하였다. 그러나 능선 위의 주진지에서는 08:00경에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적이 진지 후방으로 침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때가 늦어 08:30경을 전후하여 적 보병 일부와 전차가 합류하여 박격포 진지를 유린하고 말았다.

그리고 주진지 정면에서는 09:00경에 적의 공격이 재개되었는데, 그들은 전의 마을로부터 대대 주진지 동쪽 정면으로 기어올랐다. 이때 박격포 진지와는 통신이 두절되어 사격 요청을 실시하지 못하고, 포병사격 요청으로 이들을 저지시켰는데, 이때가 11:00경이 되었다.

이번에는 그 서측의 빅슬러 중위가 소대 정면으로 적의 강력한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연대장에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연대장은 4.2 "박격포와 통신이 두절되어 화력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 이 후 빅슬러 중위로부터 화력지원과 증원요청이 빗발치듯 하였으나 연대장은 즉각 증원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빅슬러 중위에게 진지의 고수만을 엄명하였다. 한편 공중지원을 요청하여 엄호토록 하였는데, 이에 11:30경에 출격한 공군기가 도로에 늘어선 적 전차에 로켓탄을 퍼붓고 능선을 기어오르는 적 부대 위에 기총소사를 가하여 적 공격을 잠시나마 저지시킬 수 있었다.

한편 적의 포병화력으로 연대장의 차량무전기와 포병관측수(FO)의 무전기가 파괴됨으로써 바로 그 후방에 있는 제3대대와 제11포병대대 A포대(155mm곡사)에서는 혼성 제1대대(-)의 전투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 이에 제11포병대대 A포대는 전방대대 진지가 와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진지 위로 포병사격을 퍼부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혼성 제1대대(-)는 적과 아군의 양쪽 포화를 동시에 뒤집어쓰는 역경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주진지에서는 정면의 적에 의한 사격과 아군의 오인(誤認) 포병사격에 견디다 못하여 진지를 이탈하는 병사가 속출하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스테판 대령은 진두지휘로 진지고수를 독려하였으나 결국에는 연대장과 중대장 등 몇몇 장교와 병사들만이 남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연대장과 혼성 제1대대(-)원들은 주진지 남동쪽에 가로 놓인 개활지를 건너 미곡리 부근의 제3대대(장, Carl C. Jensen 중령) 진지로 철수케 되었다. 뉴욕 트리뷴지 비가트 기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가 12:05이라고 하였다.¹⁰⁷⁾

이후 혼성 제1대대(-)는 조치원으로 철수하였다. 이날 저녁 조치원에서 병력을 점검한 결과 A중대는 181명중 27명이 부상을 입고 30명이 실종되었으며, D중대

는 3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박격포는 모두 유기된 상태였다. 이날 대대는 전체적으로 20%의 손실을 보았다.

(3) 3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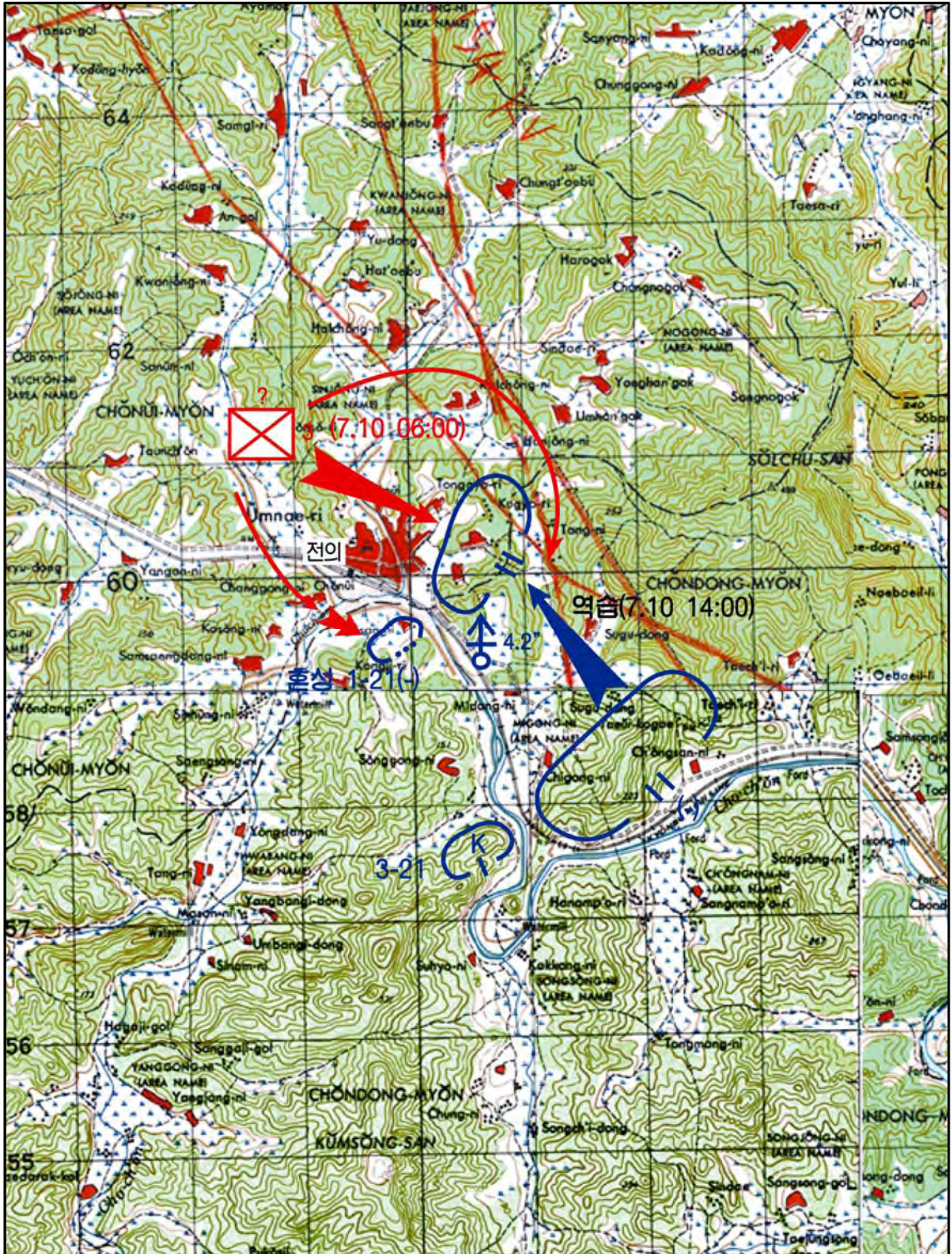
7월 10일 제3대대진지로 철수한 연대장 스테판 대령은 대대장 쟈슨 중령에게 “즉시 역습을 감행하여 혼성 제1대대(-)의 진지를 탈환하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연대장은 철수병력과 함께 조치원의 연대지휘소로 복귀하였다.

이에 연대장으로부터 역습명령을 받은 제3대대장 쟈슨 중령은 14:00에 제78 전차대대 A중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대대 병력을 이끌고 서북쪽으로 나아가 134고지 부근에서 진지를 재편중인 적을 무찌르고 당초의 혼성 제1대대(-) 진지를 다시 확보하였다. 그러나 국도 서쪽의 빅슬러 중위 소대 진지는 회복치 못한 채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곳에서 방어태세로 밤을 새우기로 하였다. 그리고 연대장은 제3대대의 진지회복 상황을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적이 지금 전의 마을에 집결 중에 있고, 또한 빅슬러 소대가 점령했던 진지를 적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적이 야간에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20:45에 연대장에게 “상황에 따라 귀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3대대를 원래의 대대진지로 철수토록 하라. 그러나 본관은 조치원의 중요성을 귀관에게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바이다. 조치를 상실하면 한국군의 보급로를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사단장은 대전에서 정비 중에 있던 연대의 제1대대(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조치원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연대에 합류토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접수한 연대장은 제3대대에게 야음을 이용하여 원래의 대대진지로 철수토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21:30경에 사단장이 연대장에게 “조치원 북쪽 3km(송곡리 동쪽 고지)에 축차저지선을 편성하라. 부득이한 경우 이 선까지 철수하되, 명일 하루 동안은 이 선을 기필코 지탱해낼 것으로 믿는다”는 요지의 전문을 보냈다. 이는 대구에 있던 제19연대가 다음날(7월 11일) 전선에 투입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조치원 북쪽에서 최소한 하루를 더 지탱해야 한다고 판단

<상황도 5-8> 전의 전투



하여 취한 조치였다.

이와 같은 사단장의 조치에 따라, 제3대대는 자정 직전에 혼성 제1대대의 진지에 유기된 장비들을 회수하여 원래의 진지로 철수하였다. 그런데 도로 서쪽의 K중대 진지에서는 적 1개 소대 규모가 점령하고 있어 1시간 가까이 전투를 벌인 끝에 진지에서 적을 몰아내었다. 그리고 대대는 진지보완공사와 도로에 지뢰 매설 작업으로 밤을 새웠다.

이날 제3대대의 공세적인 전투에서 특징적인 것은 제78전차대대 A중대의 M-24경(輕)전차가 처음으로 진의 마을 남쪽 국도상에서 적 전차를 상대로 대전차전을 벌였는데, 중(重)전차인 적 T-34전차에는 적수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투에서 아군 전차 2대가 파괴되었고, 적 전차 1대를 격파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 공군이 대량 공중강타를 시도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날 오후에 F-80 제트기 1대가 평택 부근에서 국도를 따라 남하 중인 적의 차량 중대를 포착하여 제5공군사령부에 보고하였고, 이에 제5공군이 가용한 전폭기를 총동원하여, 그 차량중대를 공중공격 한 결과 전차 38대와 자주포 7대 그리고 트럭 117대를 파괴하였다. 이 전과의 정확한 수치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대량 공습은 전날에 실시했던 공중공격과 더불어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이후부터 적은 주간공격보다 야간공격 위주로 실시했다.

(4) 3

7월 11일 새벽에 미곡리 부근의 진지를 다시 점령한 제3대대(장, Carl C. Jensen 중령)는 날이 미처 밝기 전에 적의 공격을 맞이하게 되었다. 적은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공격하였는데, 공격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이는 북한군 제3사단(장, 소장 이영호)이 새로이 투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 사단은 한강선을 돌파한 뒤로 줄 곳 북한군 제4사단(장, 소장 이권무)을 후속하면서 부대정비를 실시하고 병력 및 장비를 보충 받아 전투력이 증강되어 있었다.

그들은 전날 야간에 일부는 제3대대 K중대 진지를 점령하고, 일부는 그 동쪽에 있는 제3대대의 병력배치상태와 지휘소의 위치 등을 사전에 파악하였다. 그

리고 이튿날 새벽, 공격시에 먼저 야포와 박격포로서 진지 남동쪽의 도로변에 위치한 지휘소 부근에 집중 포격을 가하여 통신취급소와 탄약저장소를 파괴하여 통신 기능이 마비되고 탄약의 연쇄 폭발로 대대본부 병력의 반 이상이 살상되었다.

이와 같이 적은 대대의 통신수단을 단절시킨 다음, 전차가 도로 중앙을 따라 돌파를 시도하는 동시에 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병력으로서 진지 좌우의 측방을 포위 공격하였고, 일부 병력은 동쪽으로 멀리 우회하여 지휘소 후방의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부상병의 후송이나 탄약의 재보급을 방해하였다.

반면 제3대대는 초기에 통신이 두절되어 전방 관측병이 적 전차 및 밀집된 병력 등 좋은 표적을 획득했으나 지원포병진지에 사격 요청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06:30 전후에 적 전차 4대가 지리지대를 뚫고 도로를 따라 방어진지를 돌파함으로써 대대병력들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또한 도로 건너에 배치된 K중대에서는 적이 중대본부 근처까지 접근하여 기관총 사격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중대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혼란한 전투상황이 정오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대대진지는 모두 유린되고 말았다. 이에 대대는 개별적으로 진지에서 이탈하여 조치원으로 철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대장 젠슨(Jensen) 중령과 정보장교가 적탄으로 전사하는가 하면 L중대장과 대대 인사, 작전장교 등이 실종되었다.

또한 대대지휘소 후방 1km 되는 지점이 적에 의해 차단됨으로써 일부 병력은 조천을 건너 남쪽으로 퇴로를 찾게 되었으며, L중대 제1소대장 버나드(Carl F. Bernard) 소위 등 일부는 동쪽으로 적의 도로 차단망을 강행 돌파하여 오후에 조치원에 집결하였다.

이날 대대병력은 최초에 667명이었으나 조치원에서 수습된 대대병력은 장교 8명과 사병 142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차 2대가 파괴된 것을 비롯하여 병력 60%와 장비 대부분을 잃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스테판 대령은 이들 대대원 150명으로서 1개 화기중대와 3개 소총소대를 임시 편성토록 하였다. 이후 7월 15일까지 322명이 실종 중 복귀하여 병력 손실은 반감되었다.

3) 조치원 전투¹⁰⁹⁾

7월 10일 밤에 사단장으로부터 조치원 북쪽 3km선까지의 철수를 승인 받은 연대장 스테판 대령은 제1대대장 스미스(Charles B. Smith) 중령에게 대전에서 조치원에 도착하는 대로 사단장이 지정한 지연진지를 점령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전방의 제3대대로 하여금 접적을 유지하면서 철수케 함으로써 이 축선에서 최대한 지연하기로 하였다.

이에 7월 11일 새벽에 스미스 중령은 B, C 양개 중대를 이끌고 조치원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 먼저 도착한 혼성 제1대대(-)를 통합하였다. 비로소 제1대대장 스미스 중령은 전 대대병력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어서 07:30경에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송곡리(조치원 서북쪽 3km) 부근의 조천 남안에 있는 무명고지(표고 170m)를 점령한 다음 진지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7월 11일 전방의 제3대대가 적과 접적을 유지하여 축차적인 철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제3대대는 정오를 넘기지 못한 채 궤멸상태에 빠졌었다. 이로서 연대장은 제3, 제1 양개 대대로써 축차적으로 지연한다는 최초 계획은 무산되고, 제1대대만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제1대대 역시 죽미령 전투에서 와해된 후 대전에서 부대정비를 실시하였으나, 대부분 신병으로 보충되어 전투력 발휘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적도 미곡리 부근에서 제3대대의 완강한 저항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탓인지 더 이상 공격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사단장은 대구와 포항에 위치한 제19연대 및 제13포병대대를 대전에 집결토록 하고, 이들이 이동하는 동안 전방의 전투상황을 지켜보았는데, 저녁이 되자 제3대대의 참담한 패전 보고에 접하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사실상 조치원의 운명이 시각을 다투게 되었음을 깨닫고, 공병으로 하여금 조치원에서 금강에 이르는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토록 하여 연대의 철수를 엄호케 함으로써 조치원에서 철수시를 대비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였다.

7월 12일 오전에 조치원 북쪽에 홀로 남았던 제1대대는 2,000여명으로 추산되

는 적으로부터 동·북·서쪽의 3개 방향에서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스테판 대령은 진지 고수만을 고집할 경우, 전날 제3대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대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대대로 하여금 조치원으로 집결하여 차량편으로 금강 남쪽의 대평리로 철수토록 조치하고, 12:00에 이와 같은 상황을 대전의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대장 스미스 중령은 철수시에 적과의 교전에 말미암은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1개 중대씩 한꺼번에 진지에서 이탈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추격을 끊도록 하였다. 이에 대대는 철수 중 접전 없이 조치원 부근에 집결하여 연대지휘소 부근에서 적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곳을 떠나 차량으로 경부국도를 따라 금강을 건너 15:30에 금강 독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4) 공주방향 지연전

(1) 34

한편, 미 제34연대는 7월 8일 10:00에 천안에서 철수하여 공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금강으로 철수하면서 지연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연대장 웨드링턴 중령은 먼저 철수한 제3대대로써 광정리 부근의 지연진지를, 연대본부 및 제3대대 철수를 엄호한 제1대대로써 수촌리 부근의 지연진지를 각각 점령하게 하고 연대지휘소는 공주에 설치하였다.

북한군은 이 방향에 대해 7월 10일까지 공격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의-조치원 방향의 공격에 주안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뒷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당시 북한군 제4사단은 공주방향으로 공격하고 제3사단은 전의-조치원 방향으로 공격할 예정이었으나, 제3사단(장, 소장 이영호)이 7월 10일 밤 늦게 전의 마을로 도착하여 전선 투입이 늦었기 때문에 제4사단은 공주방향으로 공격을 바로 전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말미암아 제34연대는 이날까지도 별다른 접적 없이 광정리와 수촌리 지연진지를 확보하고 있었고, 연대본부 및 직할대 일부 병력은 공주 경찰병력과

함께 금강 남안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공병으로 도로 절단과 교량폭파의 준비작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북한군 제4사단은 전의에서 공주 방향으로 전환한 후, 7월 11일에 드디어 광정리의 제34연대 제3대대(장, 대리 Newton W. Lantron 소령) 지연진지에 도달하여 공격하자, 대대는 가벼운 전투 끝에 철수하여 바로 금강을 건너왔다. 그리고 수촌리에 지연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대대(장, Harold B. Ayres 중령)는 M-24 경전차 1개 소대(제78전차대대 A중대) 지원 하에 금강 이북에서 마지막 지연전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적 포병사격으로 전차 2대가 파괴되었을 뿐 대대는 별다른 접적 없이 밤을 넘기게 되었다. 한편 적 공격에 대비하여 제3공병대대 D중대는 금강에 이르는 도로의 교량을 모두 폭파하고 도로를 절단하였다.

7월 12일에 제3대대로써 공주 부근에 방어진지를 점령케 하였고, 일몰 무렵에는 강의 북쪽에 남겨 놓았던 제1대대를 철수시킴으로써 연대 전 병력이 금강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21:00에는 공주 정면의 금강교를 폭파함으로써 금강 선 방어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2)

110)

천안에서 철수하던 7월 8일에 사단장 딘 소장은 육군본부로부터 지원 받은 기병 1개 중대를 미 제34연대에 배속시켜 천안 서쪽지역(예산-청양 부근)의 적정을 수집하는데 운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국군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 제6중대(중대장, 박익균 중위)는 7월 9일 대전에서 공주로 이동하였다. 이날 아침에 중대는 트럭에 마량(馬糧)과 SCR-694 무전기 1대를 싣고 오후에 공주에 도착하였다. 미 제34연대 지휘소(공주중학교인 듯)에 가서 배속 신고를 하고, 연대장으로부터 “공주를 기점으로 예산, 청양의 삼각지역을 수색정찰을 실시하여 적정을 수집, 보고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제6기병중대는 지휘소를 공주사범학교에 정하고 공원에 무선통신소를 설치하여 대전의 연대와 교신을 유지하였다. 이어서 7월 10일 날이 밝자 중대장은 직접 제1소대(장, 김관섭 소위)를 이끌고 금강을 건너 북쪽으로 이동하여 예산초

등학교에 도착하였다. 이곳을 수색거점으로 삼아 천안-예산도로를 수색하였으나 적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이날 저녁에 중대장은 예산지서의 경비전화로 공주의 중대를 불러 다음날 나머지 중대원 모두를 예산으로 집결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7월 11일 아침 07:00에 공주에 있던 2개 소대가 예산으로 향하다가 유구(예산 남동쪽 16km)에서 적 2개 중대를 습격하여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는 전과를 거두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7월 11일 2개 소대는 예산으로 가기 위해 금강을 건너 산정리(유구 남쪽 4km) 부근에서 아군 지프차를 타고 달려오는 북한군을 기습공격 한 결과 적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잡았다. 이때 포로 신문(訊問)으로 “제6사단 유격 백 몇 부대인데, 2개 중대로서 유구를 해방시켰다”는 진술을 얻었다. 또한 어느 주민이 “인민군이 지금 유구 우체국장과 의용 소방대장을 인민재판해서 죽인 다음, 유구초등학교에서 환영식을 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2개 소대장(조돈철 소위, 최문호 소위)은 유구 마을 남쪽 어구에 기관총 2정을 추진시켜 엄호하도록 조치하고, 주력은 마을 서남쪽으로 과수원이 있는 작은 고지를 점령한 다음 마을을 공격키로 하였다. 이에 도로에 연한 제방을 따라 은밀히 과수원고지를 점령하여 숲에 취해 즐고 있는 적 보초 2명을 처치한 뒤, 고지에서 마을을 내려다본즉, 초등학교의 교정에 2개 중대 규모의 적 병력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환영식장으로 접근해서 일제사격을 가하면서 기습공격을 하니, 적은 당황해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기만 했다.

이 전투는 한 시간만인 13:00에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는데, 전투결과 적의 시체 60여구가 확인되었고, 소총도 60여정이나 노획하였다. 그리고 아군 지프차 1대를 회수하고 차량 2대를 파괴하였다. 아군은 김성경 하사 1명만 부상 입었다.

3. 전투결과

1) 전투피해¹¹¹⁾

미 제21연대의 전의 전투 결과에 따른 정확한 피해는 알 수 없으나 7월 10일과 11일에 입은 손실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제1대대의 병력 피해는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으나 20%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3대대는 대대장 전사를 포함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7월 11일 조치원에서 수습된 대대병력은 당초 667명 가운데 장교 8명과 사병 142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15일까지 322명이 실종 중에 복귀하였다. 그리고 2개 대대분의 장비 및 무기와 975명분의 보급품을 유기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이 전투에서 아군의 효과적인 근접항공지원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조종사의 관측보고에 의하면 7월 10일 하루 공격으로 전차 38대, 자주포 7대, 트럭 117대, 수백명의 병력을 격멸시켰다고 하였다.¹¹²⁾ 그리고 제105전차사단 정치장교 오기환 대위의 증언에서도 전차 15대와 차량 30여대가 파괴되었다고 하였다.

2) 전투 후의 개황

사단장 딘 소장은 7월 11일 미 제19연대를 대전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이동이 늦어져 7월 12일 제21연대가 강을 건너 넘어설 때까지 방어지역인 대평리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이에 금강을 막 건너온 미 제21연대에게 재수습된 325명의 병력으로서 금강 남안의 대평리 일대 제방을 연하여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케 하였다. 미 제19연대는 7월 12일 오후 늦게 대평리에 도착하여 방어진지를 인수하고, 미 제21연대는 대전 동측방 방호를 위해 옥천 터널 일대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미 제34연대(장, 대리 Robert L. Wadlington 중령)는 7월 11일에 공주로 철수한 제3대대로써 공주 북쪽의 금강선에 방어진지를 점령하게 하였고, 7월 12

일 일몰 무렵에 마지막으로 금강을 건너 온 제1대대는 연대 예비로 집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군 기병 제6중대는 7월 12일 아침에 예산에서 공주로 복귀하기 위해 유구를 거쳐 22:00에 금강 북안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교량이 파괴되어 마필(馬匹)의 도강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중대는 강의 서안을 따라 밤새 말을 달려 이튿날 새벽에 부여의 대안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배를 구하여 강을 건넜고, 7월 14일 아침에 공주의 미 제34연대와 합류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7월 14일 야간에 제3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을 대평리 정면에, 제4사단을 공주 정면에 각각 전개한 다음 7월 14일부터 본격적인 금강 도하공격을 실시하였다. 이 무렵의 북한군은 홍성(제6사단)-공주(제4사단)-조치원(제3사단)-청주(제2사단)-괴산(제15사단)-문경(제1사단)-풍기(제12사단)-영해(제5사단)선을 연하여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7월 14일 현재 북한군의 전투서열은 10개의 전투사단과 1개의 기갑사단 및 1개의 기갑연대가 공격 제대로 나섰고 3개의 예비사단이 이들 공격제대를 후속 중에 있었다.

제 7 절 분석 및 평가

1. 전반적인 작전상황 평가

1) 전체 작전에 미친 영향

미 제24사단의 신속한 투입은 북한군의 공격을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축선에서 2주간 지연시켜 북한군에게는 충격과 피해를 주었고, 국군에게는 사기 앙양과 재편성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후속부대로 한반도에 투입된 미 제25사단과 제1기병사단의 전방전개 시간을 획득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 지상군은 북한군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리 투입함으로써 북한군의 작전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했다. 미 지상군은 강력한 화력운용을 바탕으로 전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북한군은 수원 이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전차 단독에 의한 과감한 전진을 할 수 없었고, 정면 공격보다는 야간 위주의 측후방 침투에 의한 후방 교란 및 차단작전 위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 제24사단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북한군에게도 많은 피해를 강요하여 작전지속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는 궁극적으로 낙동강방어선에서 북한군이 조기에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는데 기여했다.

둘째, 국군의 사기 앙양과 재편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군이 한강방어선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7일간이나 지연시킬 수 있었던 것도 미 지상군의 증원이 곧 있을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초로 투입된 미 제24사단이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을 담당함으로써 국군은 제1군단을 창설하여 중부지역으로 이동하여 북한군 제2, 제15사단의 기동을 저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동부지역의 제6, 8사단과 연결하여 전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셋째, 미 제24사단이 가장 위급한 시기에 북한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의 진출을 약 15일 간이나 지연시켜, 후속부대인 미 제25사단과 제1기병사단이 상주 및 영동 일대에 투입되는 시간을 획득하였다.

한편, 최초 전투에서의 연속적인 패배는 미군 장병들에게 패배의식을 갖게 하여 전투 경험이 부족한 미군 초급간부 및 병사들은 북한군의 측 후방 공격만 있으면 단결력을 상실하고 탈출만을 생각하게 하는 패배 의식을 갖도록 했다. 이는 전장에서의 주도권 상실로 차후 작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 미 제24사단의 축차적 조기 투입에 대한 평가

미 제24사단은 일본 점령군으로 활동하다가 전투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규모 부대씩 축차적으로 6·25전쟁에 투입함으로써 각각의 전투에서 상대적인 전투력 열세로 북한군에게 패배하였다. 이와 같이 미 지상군을 소규모 부대씩 축차적으로 투입한 조치에 대해 맥아더 장군의 실책으로 보기도 한다. 즉 맥아더 장군이 북한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전투준비가 안 된 소규모 부대씩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국군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위급한 시기에 미 제24사단이 최소한의 전투준비가 이루어진 부대부터 축차적으로 신속히 투입하였기 때문에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즉, 평시 전투준비태세가 미흡했던 미 제24사단을 전투태세를 완전히 갖춘 다음에 전선에 투입하였다면 맥아더 장군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 공산화된 이후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전쟁 상황에서 볼 때 당시의 축차적 조기 투입은 맥아더 장군의 적시적절한 조치라 볼 수 있겠다.

3) 전쟁준비태세 평가

미 제24보병사단의 전투 실패 원인은 작전지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쟁 전 전투준비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전투준비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은 본문 제2절에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4) 한·미작전 협조 문제

미 지상군이 투입되기 전에 실시한 ADCOM 단장 처치 장군과 정일권 총참모장과 작전협조는 매우 가치 있는 조치였다. 주요 내용은 “미 지상군이 도착하면 국군은 서부지역을 인계하고, 재편성을 실시한 후 그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평택-안성-영월-삼척선을 주방어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군은 한강방어선에서 최대한 오래 지연하고, 양수리 및 양평 일대로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해 대비한다”로서 한·미연합전선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 제17연대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협조된 작전을 실시하지 못했다. 당시 특수임무부대장이었던 스미스 중령은 방어 지역 선정에 있어서 국군 제17연대에게 대전차방어에 유리한 죽미령에서 함께 방어하자는 제의가 있었지만, 제17연대장은 상급부대 차원에서 지시가 없었고, 이미 방어 지역을 한 번 옮겨서 병력들이 지쳐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였다. 이는 미 스미스부대와 국군 제17연대를 협조하고 통제하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호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협조된 작전을 실시하지 못하고 별도의 작전을 수행하였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죽미령 방어진지 준비 기간 중 교량폭파 관련하여 한·미간에 작전협조가 미흡했다. 바스 장군과 스미스 중령 일행은 7월 4일 평택에서 오산으로 이동하면서 오산-평택간의 교량에 폭파작업을 준비 중이던 국군 제1공병단(장, 윤태일 중령)의 공병들을 발견하고 중단토록 요구하였으나, 육군본부로부터 폭파명령을 받은 국군 공병은 폭파 준비를 계속하고 일부 교량은 폭파하였다. 이는 교량폭파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있어 한·미간에 원활한 협조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셋째, 미 제21연대에 의한 조치원 전투는 국군 제1군단의 후보급로 확보와 측방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사단장 딘 소장은 국군 제1군단의 군수품이 조치원을 통해 청주로 수송됨을 간파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원 북방에서의 지연기

간을 설정하고 예하 부대에 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조치원 북방에 투입되었던 제21연대는 적극적인 전투행위로 진지를 사수하여 7월 9일부터 4일간 북한군의 최정예부대인 제105전차사단과 제4, 제3사단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7월 12일 철수했던 것이다. 아울러 12일 조치원을 상실하자 동쪽의 청주에서 적 제2사단(장, 소장 최현)의 공격을 막고 있던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도 이날 물러났다. 이는 한·미 간에 작전 협조가 잘 이루어진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 전장기능별 평가

1) 지휘통제 기능

지휘통제라 함은 부대활동에 대한 결심을 수립하여 지시를 하고, 임무수행 상태를 지도 및 조정하며, 제 작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중추기능이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제34연대 제1대대가 평택 전투에서 조기 철수는 지휘통제의 문제에서 발생했다. 딘 소장은 평택-안성선을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양호한 방어선으로 선정하였으나, 제34연대는 이 방어선에서 너무 일찍 철수하여 사단장은 노발대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지휘통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서 발생했다.

먼저 연대장의 우유부단(優柔不斷)한 조치였다. 연대장은 사단장이 지시한 평택-안성선에서의 방어와 부사단장이 바스 장군이 현장에서 지시한 천안에서의 방어를 두고 고민하다가, 사단장과 통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스 장군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예하대대에 천안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발생했다. 사단장의 '평택-안성 방어선 고수' 지시에 대해 바스 장군과 적극적인 토의를 했어야 했다.

다음은 사단장 딘 소장의 명확한 지휘통제력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평택 전투 전날 7월 5일 제1대대 지휘소에 20:30경에 도착하여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전방의 스미스부대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하면서도 바스 준방이나 제34연대장, 그리고 제1대대장에게 평택-안성 방어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때 한 번만 강조했더라도 제1대대가 평택에서 조기 철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딘 장군도 회고록에서 자신의 평택-안성선의 고수에 대한 복안을 휘하 장병에게 확실하게 납득시키지 못한 점을 거듭 후회하였다.

둘째, 통신수단 마비는 지휘통제 마비로 이어졌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평택의 제34연대 및 대전의 사단지휘소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장 단독으로 철수를 명령하였고, 평택의 제34연대 제1대대도 성환의 제34연대 본부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철수를 대대장 단독으로 결정했다. 성환의 제34연대는 스미스부대 및 제1, 제3대대와는 유무선 통신이 중단되어 전령통신을 운영하였고, 그리고 대전의 사단지휘소와 통신이 제때에 되지 않아 적시적인 보고와 결심을 획득할 수 없었다.

이는 무선은 무전기 성능이 좋지 못하여 10km 내지 20km의 거리를 통하지 못했고, 유선은 피난민이 짐을 꾸리기 위한 노끈 대용품으로 곳곳에서 야전선을 절단해 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연대장의 지시가 예하 부대에 적시에 하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대의 상황이 연대에 즉각 보고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방대대는 실제로 각 대대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셋째, 전투 중에 제34연대장의 교체는 타당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단장 딘 소장은 7월 6일 평택에서 조기 철수하고 난 다음에 당시의 러브리스 대령으로는 천안방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연대장 교체를 결심했다고 한다. 제34연대장의 교체는 다음날인 7월 7일 18:00경에 이루어졌다. 이때는 제3대대가 천안에서 평택방향으로 점적 전진 중에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교전 중에 있었다.

신임 연대장 마틴 대령은 7월 8일 08:00에 전사하기까지 6시간 동안 전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지휘하여 철수만 일삼던 예하 장병들에게 강한 전투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대장은 예하 부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2.36 “로켓포 사수가 되어 전투를 수행하다가 전사(戰死)하였고, 연대장의 전사는 예하 부대의 붕괴로 이어져 10:00에 천안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이라도 부대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하들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효과적인 지휘를 하기는 어렵다. 결국 훌륭한 고급장교 한명이 천안 전투에서 부임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사하였다.

전임 연대장이 아무리 무능했다 하더라도 전투행위 중에 지휘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지휘조치라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휘관의 진두지휘는 반드시 필요하나 지휘관에 의한 직접적인 전투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정보 기능

적 및 작전지역에 관한 첩보 및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여 실시간에 적절한 형태로 필요한 부서에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군의 능력에 대한 맥아더 사령부의 최초 정보판단은 부정확하였다. 미 극동사령부는 최초 북한군의 규모를 실제보다 소규모로 판단하였으나 맥아더 장군이 한강변을 시찰한 직후의 판단에서는 “북한군의 남침병력은 6개 사단과 3개 경비여단, 그리고 2백대에 가까운 소련제 전차이다”라고 하여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맥아더는 더 많은 증원부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북한군의 실제 전투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했다. 당시 맥아더 사령부 및 예하 부대 장병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미 지상군이 나타나기만 하면 한국군은 사기가 오르고, 북한군은 도망갈 것으로 믿고 있었다. 즉 북한군을 동양의 미개 군대 정도로 파악하고, 경찰작전 행동 정도로만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군의 규모 및 능력 판단에 있어 오판(誤判)은 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둘째, 적과의 접촉 단절로 적 기도 파악이 미흡하였다. 평택 전투 후 철수 시 제34연대장은 후위로 남겨진 L중대에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적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철수하라”라고 명령했지만, 중대장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1대대와 함께 철수함으로써 적과 접촉이 단절되어 적정을 탐지할 수 없게 되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적과 접촉을 유지하여 적의 기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미 지상군 부대는 미흡하였다.

셋째, 항공정찰에만 의존한 정보수집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항공정찰로는 은폐, 엄폐된 부대들에 대한 식별이 불가하여 위와 같은 착오가 있을 수 있었다. 북한군들은 여름이라는 녹음을 이용하고 야간을 이용하여 활동하였기 때문에 항공정찰로만 적정수집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적정 수집을 위해 연대 수색이나 사단수색중대를 활용한 정보수집 노력이 미흡하였다. 항공정찰에만 너무 의존하여 측 후방으로 침투하는 소규모 침투부대에 대한 적정 수집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3) 기동 기능

결정적인 속도와 압도적인 작전템포로 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전투력을 이동시키거나 배치시켜 전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방어 시에는 적의 기동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우세한 기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방어준비시간에 부대이동을 두 번 실시하여 방어준비시간이 부족했다. 즉 스미스부대는 방어준비를 서둘러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서 7월 5일 새벽, 스미스부대는 진지 구축 조차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국군 제17연대도 같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방어 시에 신속한 방어 지역선정은 방어준비시간 획득에 긴요함을 알아야 하겠다.

둘째, 천안 북쪽지역에 대한 제34연대 제3대대의 점적 전진은 결국 방어준비

시간만 허비했다. 딘 소장은 평택 조기 철수에 책임을 물어 북한군과의 접촉 유지를 위해 최초에는 1개 중대규모의 점적 전진을 명령했다가 추가로 1개 대대의 점적 전진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점적 전진을 실시했으나, 도중에 적의 매복사격을 받고 천안 외곽진지로 철수함으로써 방어 준비할 시간을 도로상에서 보내고 말았다. 따라서 점적 전진부대로는 최초 지시한 1개 중대 규모(L중대와 연대수색소대)가 적당했으며, 제3대대는 방어 지역을 조기 선정하여 방어준비를 했어야 했다.

셋째, 전의 전투에서 제21연대 제3대대의 적극적인 공세행동의 효과는 미미했다. 혼성 제1대대(-)가 7월 10일 적의 압력에 의해 12:00경에 철수하게 되자, 연대장 스테판 대령은 제3대대로 하여금 14:00에 공격하여 혼성 제1대대 진지를 탈환하도록 하였다. 제3대대는 연습에 성공하여 진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야간에 다시 원진지로 철수하였고, 그 사이 북한군의 일부는 원진지를 점령하여 지휘소, 박격포진지 등 주요한 위치를 파악하여 다음날 공격시 화력을 유도 등 공격을 선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제3대대의 연습은 죽미령 전투 이후 최초의 공세행동으로 적에게 심리적 위협을 줄 수는 있었으나, 연습을 통해 적 주력을 격멸하여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공격 시 적에게 약점도 노출시켰다. 즉 제3대대의 공세행동은 지연작전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전투력 낭비였다.

넷째, 대기동으로서 대전차지뢰 운용 등 장애물 운용은 미흡했다. 죽미령 및 평택 전투에서는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고, 천안에서는 대전차지뢰를 800여발 매설하였으나 적 전차가 접근 시에 한발도 작동되지 않았다. 이는 적이 사전에 모두 제거하였거나, 불발탄이거나, 매설시 안전핀을 뽑지 않았거나 이들 중 하나일 것이다. 교량폭파 등도 병력 및 화력과 통합된 효과적인 운용은 없었다. 전반적으로 장애물 운용은 매우 미흡하였다.

다섯째, 항공 및 포병화력 등으로 북한군의 기동을 제한했다. 즉 부대 운용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간기동을 제한시켰다. 당시 북한군이 공격작전에서 대담한 기동에 의한 부대집중을 통한 포위섬멸 작전을 구사하지 못하고, 오르지

각 방어진지마다 측 후방 침투에 의한 공격만을 강조했던 것은 아군의 항공 및 포병화력에 의한 피해 때문에 기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4) 화력 기능

적의 전투력을 파괴, 무력화, 제압하여 중심을 마비시키고 전투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근접항공 지원은 지상 작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죽미령 전투와 평택 및 천안 전투에서 하루도 제대로 못 버티고 조기에 철수한 것은 근접항공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전의 전투에서 약 3일간 적의 공격을 지연하면서 북한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것은 포병 및 박격포 화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고 결정적으로 근접항공 지원사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전쟁 초기 근접항공작전에 동원된 항공기는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 해병대 항공기와 호주전투기 등이었다. 반면 근접항공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때 항공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군에 대한 오폭으로 피해도 컸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항공작전의 통제를 위해 JOC(Joint Operation Center; 합동작전본부)를 7월 5일 대전에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근접항공지원사격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전술항공통제반이 전의 전투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적 전차 및 차량에 많은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후속제대의 투입을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죽미령 진지의 조기 붕괴 원인은 포병과의 통신망 두절이었다. 죽미령 전투에서 적 보병을 태운 차량중대는 포병의 좋은 표적이었으나, 통신수단이 없어 포병사격을 전혀 실시하지 못했다. 포병사격요청 무전기는 기능 고장으로 불능이었고, 유선은 적 전차 궤도에 의해 절단되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포병이 침묵함으로써 스미스부대는 보병화력으로만 싸우다가 조기에 철수하였다.

그리고 평택 전투에서는 연대를 직접지원하는 제63포병대대가 그때까지 도착하지 않아 포병지원이 없는 가운데, 4.2 "박격포사격 지원을 받았고, 그것마저 단 1명뿐이었던 관측병이 적의 전차 포탄이 작렬하는 충격으로 실신하여 사격유도

를 할 수 없게 되어 화력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기 철수 원인은 대대장의 지휘 잘못도 있겠지만, 화력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도저히 철수할 수밖에 없는 전투력 열세도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이었다.

전의 전투에서 혼성 제1대대(-)는 적의 포병화력으로 연대장의 무전차와 FO의 무전기가 파괴됨으로써 바로 그 후방에 있는 제3대대와 포대에서 대대의 고전상황을 헤아릴 길 없는 상태로 악화되었다. 이에 대대의 진지가 와해되었다고 판단한 제11포병대대 A포대가 대대의 진지에 사격을 퍼붓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주진지에 버티고 있던 연대장 이하 대대원이 호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적과 아군의 양쪽 포화를 동시에 뒤집어쓰는 역경에 빠지게 되었다. 이어서 4.2 "박격포 진지까지 유린됨으로써 대대는 철수를 하게 되었다. 이때도 효과적인 화력 지원이 되었다면 북한군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었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전진을 지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5) 방호 기능

인원, 무기 및 장비, 정보체계, 주요시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용 전투력을 보존하여 작전능력을 계속유지 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군의 측후방 침투전술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다. 북한군은 정면 공격보다 측후방으로 침투하여 지휘소, 통신시설, 박격포 또는 포병진지 등을 습격하여 마비시키고 퇴로를 차단으로 미군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철수토록 강요하였다. 미군은 당시 부족한 병력으로 광정면을 담당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주요시설인 지휘소 등이 먼저 붕괴되어 전방전투력을 조기에 철수하는 사례의 연속이었다. 주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강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 준 것이다.

둘째, 아군기에 의한 오폭으로 더 많은 손실을 입었다. 국군 제17연대는 7월 3일 아군기에 의한 평택역 오폭으로 연대장을 포함하여 병력 약 200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국군에게 수송될 탄약 20량과 7량이 폭파되었다. 이로써 동 연대

는 박격포탄과 소총탄 등을 추가 보급 받지 못하여 전투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또한 전의 전투에서도 철수하는 제21연대 병력을 적으로 오인하고 사격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투 시에 아군기에 의한 오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전투근무지원 기능

부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제반근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전투수행을 보장하는 기능이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미군들의 전투근무지원 능력은 탄약, 유류, 식량, 보급품 등 모든 면에서 북한군에 비해 월등하였다. 그러나 적 T-34전차를 격파시킬 수단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 미군의 무기체계로 볼 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간다. 105mm 곡사포 고폭탄과 75mm 무반동총, 2.36"로켓포 등 모두 적 T-34전차를 파괴시킬 수 없었다. 유일하게 105mm 곡사포 대전탄 고폭탄(HEAT)만은 격파시킬 수 있었으나 6발밖에 보유하지 못했다.

대전전투에서 3.5"로켓포와 중전차가 도착할 때까지 적전차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은 공중공격 외에는 없었다. 이는 전투근무지원능력보다는 아무래도 평시전투준비태세의 미비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주 (註)

- 1) ADCOM Advanced Command and Liaison Group 미 극동사령부 전방지휘 및 연락단, ADCOM은 1950. 6. 27~7. 15 간 운용되었다.
- 2) 육군본부, 『정책과 지도』 유엔군 전사 제3권, p. 192. 최초 인천 상륙작전계획인 “블루하트”계획이다. 이 계획은 7월 10일에 무효화되었다. 이후 “크로마이트”계획에 의거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했다.
- 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955, 육본작명 제23호. 7월 1일 정일권 총참모장과 처치장군의 협의에 따라 그어진 선이다.
- 4) 7월 초로서 논에는 농작물이 무성하여 전차의 기동이 불가하였다.
- 5) 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1년지』, p. 16.
- 6)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②, p. 12.
- 7)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p. 140.
- 8)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②, pp. 12-39.
- 9) 위의 책, pp. 7-11.
- 10)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pp. 69-270.
- 11) 북한군 제12사단이 기동한 방향은 최초계획에는 제2군단 제2제대였던 제5사단(-)이 기동하기로 되어 있었다.
- 12)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②, 제2절 참조.
- 13)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지연작전기)(1979), p. 110;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p. 144. “7월 2일에 김량장리 계선에 진출하여 적(=국군)의 전선 서부와 중부와의 연계를 끊어 버리고 수원방향의 적의 측익을 위협하였다”고 기술하였다.
- 14) 전북한군 제105전차사단 정치장교 오기완 증언, 당시 전선사령부는 서울 용산으로 알고 있었다.
- 15) 러시아 비밀외교문서(심지화 편), 130. 김일성은 7월 7일 UN안보리에서는 세 번째로 한국지원에 관한 결의문 - 통합사령부 설치에 대한 결의문 - 을 채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했다.
- 16)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June-November 1950) (Washing, D.C., 1986), pp. 42-43.
- 17)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이원복 역, 『6·25전쟁』 제1권(38선초기전투와 지연작전) (명성출판사, 1991), p. 150.
- 18) 具範模 譯, 『맥아더 회고록』(서울: 한림출판사, 1971), p. 402.
- 19) 육군본부, 『정책과 지도』 유엔군 전사 제3권, p. 192.
- 2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88-489.
- 21) 육군본부, 『정책과 지도』 유엔군 전사 제3권, p. 192.
- 22) 국방군사연구소, 『오산-대전전투』(서부지역지연전), p. 14.
- 2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지연작전기)(1979), p. 66. 극동군사령부 작전지시 1950.6.30 (전문CX56978, C26979); 육군본부, 『정책과 지도』 유엔군 전사 제3권(1973), pp. 117-118.
- 2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9.
- 25) 위의 책, pp. 60-61. 스미스 중령은 1939년 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를 졸업한 34세의 유능한 장교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는 태평양에 있었던 미 제25사단에서 복무했으며, 강한 정신력과 육체를 소유했었다.
- 26) 위의 책, p. 61.

- 27) 위의 책, pp. 63-64. 7월 3일 공보업무를 위하여 한국으로 떠나는 극동군사령부 소속의 Ben L. Tufts 대위와 함께 대전비행장에 도착했다.
- 28) 위의 책, p. 64.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이 주한 미육군사령관이 되기 전에는 ADCOM단장인 처치 장군이 주한 미군사령관을 대행하였다.
- 29) 주한 미군, U.S. Army Forces in Korea.
- 30) 주한 미군사고문단,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 3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44.
- 32)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65.
- 33) 국방군사연구소, 『오산-대전전투』, p. 60;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73.
- 3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73;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이원복 역, 『6·25전쟁』 제1권, p. 164.
- 35) Roy K. Flint, "TF Smith and 24th Division: Delay and Withdrawal (5-19 July 1950)," *America's First Battles 1776-1965*(Univ. Press of Kansas, 1986);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p. 113-114.
- 36) 미 제25사단만이 13,000명으로 평시 인가병력을 초과했다. 이는 예하 제24보병연대만이 유일하게 3개 대대를 모두 보유하였기 때문이다.
- 37)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지연작전기), p. 51; 육군본부, 『정책과 지도』 유엔군 전사 제3권, p. 121. 제8군의 모든 사단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사용하던 중(重)전차를 일본지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없애고 경(輕)전차만 보유하고 있었다.
- 38)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113.
- 39) Flint, "TF Smith and 24th Division: Delay and Withdrawal (5-19 July 1950)," *America's First Battles 1776-1965*(Univ. Press of Kansas, 1986);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109. 그는 유럽에서 조지 패튼(George Patton) 장군의 예하 군단에서 성공적으로 지휘한 경험이 있었으며, 군대를 전쟁에 대비해 훈련시킬 줄 아는 노련하고 적극적인 전투지휘관이었다.
- 40) 제21연대 제1대대 A중대 빅슬러(Ray Bixler) 소위와 같이 전의 전투에서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였지만, 제34연대 제3대대 예하 중대장 들은 집적 전진 중, 적의 기습을 받아 적과 규모가 대등한 데도 부상자를 남겨둔 채 철수를 지시했다.
- 41)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116. 육군본부와 ADCOM은 수원에 있었으나, 6월 30일 오후에 한강방어선이 붕괴되었다는 잘못된 항공정찰보고로 ADCOM이 야간에 대전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 42) 위의 책, p. 117.
- 4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934.
- 4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955. 새로 창설된 국군 제1군단과 제6, 제8사단에 대한 명령이었다.
- 45) 위의 책, p. 118. 군단 창설 후 최초의 명령이었다.
- 46) 제17연대는 초기 웅진반도전투에서 철수하여 당시 육본직할로 대전에 있었다.
- 47)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p. 61-62; 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전 제17연대장 백인엽 대령(1977. 4. 20, 인천시 선린학원, (예)증장).
- 48) 제4장 제2절 참조.
- 4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21.
- 50) 위의 책, p. 955.
- 51)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69;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이원복 역, 『6·25전쟁』 1권(1991), p. 169.

- 52)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68. 당시 유일하게 적 전차 파괴가 가능한 포병의 105mm 대전차고폭탄은 제24사단 전체에 단지 18발의 밖에 없었고, 52포병대대 A포대는 그중에서 6발을 휴대하고 전투에 참가하였다.
- 53) 위의 책, p. 63. 평택역까지 열차로 이동하지 못하고 성환역에서 하차하여 차량으로 이동한 이유는 7월 3일 오후에 일어난 오폭으로 말미암아 평택역이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54)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67.
- 55) William F. Dean, "General Dean's Story"(New York, 1954), p. 20.
- 56)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45. 당시 육본에서 차량 지원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57)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65; 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공병육(현지주민, 1978.4.4 오산읍, 우리 복덕방).
- 58)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68. 제52포병대대 A포대는 105mm 6문 중 1문은 견인차의 고장으로 평택에 두고 5문만 죽미령에 전개하였다.
- 59)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지연작전기), p. 47; 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허필은.
- 60)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65;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63.
- 61)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63. 67; 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황원회(黃元會)(1978. 4. 13 전사편찬위원회 사무실, (예)중령).
- 62)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p. 68-69.
- 63) 당시 스미스 중령은 대전차고폭탄을 절약하기 위해 75mm 무반동총반에게 적의 전차가 630m(700야드) 이내에 접근할 때까지 사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 64)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67.
- 65) 제52포병대대 연락장교.
- 66)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62.
- 67) 각종 탄약 및 보급품은 7월 3일 평택역에서 아군기의 오폭으로 많은 양이 폭발되어 추가보급이 중단되었다.
- 68) 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백인엽(전 제17연대장, 1977. 4. 20, 인천시 선인학원, (예)중장);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61.
- 69) 6월 29일 조치는 맥아더 원수가 전선을 정찰하고 돌아간 다음,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무쵸(Muccio) 대사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 다음 준비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였다. 6월 30일 조치는 이날 아침에 미국유학길에서 이곳에 도착한 정일권 준장(7. 1부 소장)이 당시의 상황을 판단한 조치였다.
- 7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p. 47, 61.
- 71) 위의 책, p. 41.
- 72) 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김희준(金熙濬)(후임 제17연대장, 1978. 3. 15, 서울시 건설공제조합장실, (예)준장);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62.
- 73)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p. 62-64; 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김희준(金熙濬), 정규환 대위(전 제17연대 제3대대 제12중대장, 1978. 4. 10, 경북 달성군 대한중석 이사실, (예)소장), 김희제 중위(전 제17연대 제1대대 작전장교, 1978. 3. 25, 강원도 춘천시 직업훈련원, (예)대령), 윤중환 중위(전 제17연대 제1대대 제3중대 제1소대장).
- 74)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57.
- 75)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이원복 역, 『한국전쟁』 제1권(명성출판사, 1991), pp. 163-165.
- 76) 국방군사연구소, 『오산-대전전투』(서부지역지연전)(서울: 군인공제회 제1인쇄소, 1993), p. 62.
- 77)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77.

- 78) 던 사단장은 이날 낮에 일본에서 비행기로 대전비행장에 도착한 아이러서 중령을 공식 증인 제1 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 7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77, 79.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73.
- 80) 위의 책, p. 79.
- 8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75. 당시 공병학교 폭파교관 이창복 중위 증언.
- 82) 바스 장군 역시 죽미령의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그곳을 떠났으므로 그 결과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 8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79-80.
- 84) 위의 책, pp. 80-81.
- 85) 위의 책, p. 81.
- 86) 위의 책, p. 81. 연대 S-3인 던(Dunn) 소령이 제1대대 지휘소에 급파된 것은 통신이 되지 않아 연 대장의 명령전달과 더불어 제1대대의 상황을 직접 확인코자 한 것이었다.
- 8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80. 이날 아침에 미군 중령으로부터 폭파명령을 받고 대 기 중이던 교량 폭파조(李昌馥 중위, 安昌植 소위)가 통북천 교량을 폭파하였다.
- 8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82.
- 89) 위의 책, pp. 82-84.
- 90) 던 소장은 7월 4일부로 주한 미군사령관에 임명됨으로써 사실상 국군 작전까지 책임을 지게 되었다.
- 9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82-83.
- 92) 위의 책, pp. 83-84.
- 93) 위의 책, p. 83. 마틴 대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전선에서 제44사단장 던 소장 예하 연대장 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평소 던 소장이 그의 과단성과 용감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장교였다.
- 9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84.
- 95)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10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85.
- 9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85-88.
- 97) 위의 책, p. 87;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90.
- 98)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92.
- 9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89;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지연작 전기), p. 92. 제21연대 제1대대 A, D 중대와 본부중대 1/2로 편성된 부대를 말한다.
- 100) 7월 10일까지는 북한군 제4사단이 공격을 선도하였다.
- 10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82, 89. 혼성 제1대대(-)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를 찾아 후속 중이었다.
- 102) 전의 마을 남동쪽 1km 되는 지점의 개미고개와 철로 터널은 지금도 있다.
- 10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13-116; Flint, "TF Smith and 24th Division: Delay and Withdrawal (5-19 July 1950)," *America's First Battles 1776-1965* (Univ. Press of Kansas, 1986).
- 10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90-91. 95-96.
- 10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95.
- 10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92-94.
- 107) 위의 책, p. 93.
- 108) 위의 책, pp. 94-96.
- 109) 위의 책, pp. 96-99.
- 110)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2권, p. 95; 군사편찬연구소 증언록, 전 기병중대장 박익균.
- 11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98-99.
- 112) 위의 책, p. 95.



제 6 장 중서부지역 지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북한군과 국군 상황
제 3 절	이천지역 전투
제 4 절	진천 전투
제 5 절	음성 전투
제 6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중서부지역 지연작전은 6·25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 까지 중서부지역의 이천, 진천, 청주, 음성 지역에서 국군 제1군단 이하의 수도사단 및 제1사단, 그리고 제2사단이 북한군 제1군단 이하의 제2사단과 제2군단 이하 제15사단의 남진을 저지·지연하기 위해 전개한 공방전을 일컫는다.

기습남침으로 수도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제1군단 이하의 각 사단을 경부축선에 투입하는 한편 중동부전선을 담당했던 제2군단을 내륙으로 집중하여 위력적인 공격을 계속하였다. 당시 중서부지역으로 집중된 북한군의 병력은 제2사단이 춘천-가평-광주 축선을 따라 진천 방면으로 서남진하였고, 제2군단의 예비로 전선에 투입된 제15사단이 홍천-이천-장호원 축선을 따라 음성 방면으로,¹⁾ 그리고 제2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된 제1사단이 수원-김량장리-장호원 축선을 따라 충주 방면으로 동남진하였다.

반면에 한강방어선 유지에 실패한 국군은 기존에 작성된 하천선 방어개념²⁾에 따라 신림-목계-장호원-죽산-안성을 연하는 차령산맥 북쪽에 제2차 방어선을 내정하였다. 그러나 적의 선봉이 지역 내로 쇄도하고 서부전선의 방어를 담당한 유엔군이 오산에서 후퇴해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중앙지대에 새로운 진지를 편성함에 따라 국군은 진천을 기준으로 그 동쪽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국군은 주로 기동이 용이한 주요 축선에 중점적으로 병력을 배치해 적의 남진을 저지하는 한편 전열을 정비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1사단과 제6사단 제7연대는 음성 일대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의 남진을 저지하였으며,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와 수도사단은 이천-곤지암 및 진천 일대에서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저지·지연하였다. 이후 축차적인 지연전을 실시해 소백산맥과 금강을 연하는 선에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 작전으로 국군은 군단 창설과 부대 재편성 등 전열의 재정비가 가능했으며, 유엔군은 본격적인 병력의 투입과 전개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전쟁초기 국면에서 국군 및 유엔군의 성공적인 전쟁 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중서부지역의 작전지역은 진천, 청주, 음성, 괴산 등 주요 거점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어간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 내의 지형은 고지대의 경우 표고 400~800m의 고지군과 계곡이 어우러져 기복이 심하고 삼림이 울창한 반면 논과 밭이 산재해 있는 저지대는 표고 100~200m의 구릉지대로 기복이 완만하며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미호천과 금강, 남한강 등이 남쪽과 서쪽으로 흐르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³⁾ 작전기간 중 지역의 기상조건은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이 있으나 비교적 청명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동남풍이 부는 가운데 기온은 평균 24.7℃를 기록하였다.

지역 내 도로망은 이천-여주-장호원-충주를 연결하는 도로와 여주-장호원-음성-충주를 잇는 도로, 그리고 증평-괴산-연풍을 연결하는 도로는 동서로, 이천-진천-청주를 잇는 도로와 음성-괴산-미원을 연결하는 도로는 남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한편 국군 제1군단의 좌측에는 북한군 주공인 제1군단의 남진을 저지하던 미 제24사단이, 우측에는 육군직할의 제6사단과 제8사단에 배치되어 있었다.

제 2 절 북한군과 국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1) 북한군 전투편성

국군 제1군단이 방어를 담당한 중서부지역의 정면에는 북한군 제1군단 예하의 제2사단과 제105전차사단⁴⁾ 예하의 제203전차연대, 그리고 제2군단 예하의 제15사단이 투입되었다. 북한군 제2사단은 3각 편제 개념에 의거하여 3개 보병연대(제4연대·제6연대·제17연대)와 예하에 3개 포병대대를 둔 포병연대, 그리고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소대로 편성되었다. 대대 및 중대의 편성은 3개 중대와 3개 소대로 이루어졌다.

제2사단과 동일한 편제를 유지한 북한군 제15사단은 제45연대, 제48연대, 제50연대의 3개 보병연대와 포병연대(3개 포병대대)로 편성되었다.⁵⁾ 또한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사단의 예하 연대인 제203전차연대는 3개 전차대대로 편성되었으며, 4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군 제1군단 방어정면의 북한군 전력은 사단 및 연대포병 등의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고 있는 완전편성된 2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연대(-1)였다. 제2사단과 제15사단의 포병화력은 <표 6-1>과 같다.

포병은 보병에 배속되어 운용되었고, 주공 방면에서 활동하는 보병연대에는 2개 포병대대와 2개 76mm 자주포포대, 1개 독립대전차대대가 배속되었다. 조공 방면의 보병연대에는 1개 포병대대와 1개 76mm 자주포포대가 배속되었다. 그리고 122mm 곡사포포대는 주로 대포병 사격에 활용되었다.⁶⁾

<표 6-1> 중서부지역 북한군 지원화력⁷⁾

구 분	화 포				박격포		계
	122mm 곡사포	76mm 사단포/연대포	76mm 자주포	45mm 대전차포	120mm	82mm	
제2사단	12	36	16	43	18	81	206
제15사단	12	24	16	36	18	81	187
계	24	60	32	79	36	162	393

한편 중서부지역에 투입된 북한군 중 제1군단의 지휘관 및 참모는 군단장 김웅(金雄) 중장, 문화부군단장 김재욱(金在郁) 소장, 참모장 유신(柳新) 소장으로 구성되었다. 군단 예하의 제2보병사단은 사단장 최현(崔賢)⁸⁾ 소장을 비롯하여 참모장 현과 총좌, 제4연대장 이성호 대좌, 제6연대장 김익현 대좌, 제17연대장 전관수 대좌, 포병연대장 마동결 대좌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제105전차사단의 사단장은 유경수 소장이고 제203전차연대장은 최을석 대좌였다.

제2군단의 지휘부는 군단장 김무정(金武亭) 중장, 문화부군단장 임해 소장, 참모장 김광협 소장으로 편성되었으며, 예하의 제15보병사단은 사단장 박성철(朴成哲)⁹⁾ 소장을 비롯하여 참모장 김욱(金郁) 대좌, 제45연대장 이철룡 대좌, 제48연대장 김치규 대좌, 제50연대장 이을설 대좌, 그리고 포병연대장 김연섭 대좌로 구성되었다.¹⁰⁾ 그리고 고속기동부대로서 독립연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는 연대장 최문섭 대좌와 참모장 신영모 소좌 등으로 이루어졌다.¹¹⁾

2) 공격준비태세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주력을 재편성한 다음 6월 30일 아침부터 제2단계 작전계획의 수행에 돌입하였다.¹²⁾ 제2단계 작전의 방침은 국군이 하천장애물인 한강을 이용해 방어를 강화하기 이전에 신속히 한강을 도하, 국군의 퇴로와 병력 증원을 차단하는데 있었다. 아울러 영등포 일대에서 국군의 잔여병력을 포위 섬멸

하고 평택-충주-삼척계선으로 진출, 미군의 전투전개를 좌절시키고 향후의 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¹³⁾

이처럼 국군의 완전격멸과 미군이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하도록 격멸한다는 공격목적은 남동해안의 부산과 울산, 포항의 항구를 신속히 장악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부대 및 물자의 집결 가능성을 제거하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북한군 지도부는 신속한 목표달성을 위해 대처하고 있는 주력을 중앙방향, 즉 서쪽으로부터 수원-대전-부산과 동쪽으로부터 원주-안동-포항 방향으로 집중시켰다.¹⁴⁾

이에 따라 수원-대전-부산 축선의 공격을 담당한 제1군단은 국군을 추격 섬멸하면서 전과확대를 통해 주요 지역을 확보하는 새로운 임무를 예하의 제2사단과 제15사단에 부여하였다.

(1) 2 (- -)

제2사단은 계획보다 지연된 6월 30일에 조안리(서울 동방 25km) 지역에서 한강 도하를 완료한 후 광주 경안리 및 하번천리 일대에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제2사단은 7월 1일 늦은 오후 김량장리-천전리(수원 북서방 7km) 철도선에 진출해 제1군단으로 예속 전환되었다.¹⁵⁾ 그리고 군단의 좌익으로 좌측방 엄호와 함께 제203전차연대(-1)와의 협조를 통한 청주-보은 방면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았다.¹⁶⁾ 이는 국군의 전선을 중부와 서부로 양단한 후 그 여세를 몰아 대전을 공격할 때에는 좌익으로부터 압박을 가하려는 기도였다.¹⁷⁾

사단의 공격형태는 개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2개 연대로 병진공격을 실시하고, 1개 연대는 예비로 두었다. 따라서 사단의 우익에는 제4연대를 그리고 좌익에는 제6연대를 두었으며, 제17연대는 제4연대를 후속하였다. 김장량리 점령을 위해 제2사단은 광주-김장량리간 방면에 제4연대를 투입하고, 제6연대를 곤지암과 임원리 방면으로 우회토록 하였다. 이어 안성-진천-청주 점령전투에는 포병을 중앙에 배치, 도시에 포격을 가한 후 국군의 측방으로 기동하여 타격을 가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다.¹⁸⁾

(2) 15 (- -)

국군 제1사단의 방어지역인 여주-음성 방향의 공격을 담당한 제15보병사단은 6월 22일 나진과 회령에서 기차를 이용하여 김화로 이동한 후 도보로 38도선을 넘어 춘천에 도착하였다. 이후 남진을 계속한 제15보병사단은 흥천 일대에 집결하였고,¹⁹⁾ 이곳으로부터 전력의 증강과 전과확대를 위해 전투에 투입되었다.²⁰⁾

이와 함께 새로운 임무가 사단에 부여되었는데, 이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선형 공격제대인 제12보병사단이 흥천을 점령함에 따라 1개 모터사이클대대와 합동으로 용두리(흥천 서남방 20km)-광탄리-이포리-여주간 도로를 따라 서남방면으로 후퇴하고 있는 국군을 추격하는 것이었다.²¹⁾

이를 위해 사단은 2개 제대로 전투편성을 하였으며, 2개 보병연대로 병진공격을 실시하고 1개 보병연대는 예비로 두는 공격형태를 취하였다. 제1제대는 사단의 주력으로 제45보병연대와 제48보병연대로 편성되었고, 제2제대는 제50보병연대로서 사단 예비로 편성되어 제1제대를 후속하였다. 제1제대는 이포리 일대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금사리 및 궁리 지역에서 남한강을 도하하였다. 이후 여주-장호원 방면으로 진출하여 음성을 점령하고,²²⁾ 이어 괴산-상주 방면으로 진격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²³⁾

반면에 제2제대인 제50보병연대는 1개 포병대대와 함께 동남방으로 진격을 실시하고, 아울러 충주를 점령하기 위해 전투를 수행중인 제12사단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²⁴⁾ 그러나 음성을 점령한 후 제50연대는 새로운 임무를 받고 청안-미원리를 경유해 보은으로 진격하게 되었다.²⁵⁾

3) 전투력 수준

(1)

서울을 점령한 후 제2단계작전 수행을 위해 중서부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의 총병력은 대략 1만 7,000~1만 8,000명이었다. 광주-진천-청주 방향의 제2사단은 개전 직전 약 1만 1,00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춘천지역 전투에서

전체 병력의 약 40%에 이르는 인명손실을 보았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병력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인 보유 병력은 약 6,000~7,000명으로 추산되었다.²⁶⁾ 또한 홍천-여주-음성 방면의 제15사단은 다른 북한군 사단과 마찬가지로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 그리고 통상적인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1950년 6월 28일 현재 제15사단은 1만 97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²⁷⁾

중서부지역에서 피아간의 화력을 뒷받침하는 장비의 상대적 전투력 비율은 병력 상황과는 달리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북한군은 초기전투에서 발생된 장비의 피해를 신속한 보급을 통해 보충한 반면 국군의 경우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북한군은 개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완전편성에 가까운 장비를 보유할 수 있었다. 이때 북한군이 보유한 화력은 122mm 곡사포 24문을 비롯하여 각종 포 523문으로 국군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세하였으며, 더욱이 사거리와 구경 등 장비의 성능을 비교할 경우 그 격차는 훨씬 심하였다.

이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의 화력은 122mm 곡사포 24문, 76mm 견인포 60문, 76mm 자주포 32문, 45mm 대전차포 79문 등 각종 포 195문으로 이루어졌고, 이외에도 120mm 박격포 36문과 82mm 박격포 162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진천-청주 방면에는 122mm 곡사포를 비롯한 각종 포 206문의 화력을 갖춘 제2사단 포병이 배치되었다.²⁸⁾ 또한 여주-음성 방면에는 제15사단 포병이 배치되었으며, 122mm 곡사포 12문과 76mm 자주포 16문 등 187문의 각종 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2) ()

제2사단은 1949년 말부터 동해안에서 대대훈련으로부터 사단급의 공지협동훈련에 이르기까지 산악전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전투훈련을 실시하였다. 사단은 경험 많은 소련군 교관들을 사단사령부는 물론 각 연대본부에 1명씩 배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전 당시 제2사단의 대부분의 병사는 6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순수 군사훈련에 비해 정치적 사상교육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결과, 전술교리훈련은 전체시간의 60%를 넘지 못했으며, 40% 이상을 공산

당 선전교육에 치중하였다.

개전 초기 제2사단은 춘천지구에서 전투를 치루는 동안 상당한 수준의 병력손실을 입었으며,²⁹⁾ 이어진 제2차 작전과정에서도 유엔공군의 항공폭격과 포격으로 보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인명손실에 대한 병력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량마저 부족한 상황에 처했으나 야음을 이용해 운반된 탄약은 충분하게 보급되었다.

한편 제15사단은 민주청년훈련소 예하의 제7·제8·제9훈련지소를 흡수해 1950년 3월에 창설되었다. 군관 및 하전사들은 만주에서 돌아온 한인지원군 출신이었으며, 잔여 연대병력은 북한지역에서 징집된 청년학생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에 대한 군사훈련은 사단창설로부터 전쟁발발 직전까지 소련고문관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명의 소련군 중령이 사단사령부에 배치되었고, 또한 각 연대에도 2명의 영관급 장교가 배치되었다. 사단의 모든 전투명령서는 북한군 부대장 명의로 발행되었으나, 이에 앞서 소련 군사고문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사단의 장비 및 군수지원은 다른 사단과 마찬가지로 소련군의 군수지원교리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후방으로부터의 군수지원을 최소화하고 전투지역에 인접한 점령지역에서 물자의 징발을 확대하였다. 식량의 조달은 농촌지역에서 징발하거나 지방의 식량창고를 탈취해 해결하였고, 후방으로부터 지원되는 기본적인 품목은 무기와 탄약, 연료였다. 그러나 후방으로부터의 군수지원은 유엔공군의 폭격으로 횡수가 점차 감소했으나, 야포는 신속하게 보충됨으로써 보급상의 문제는 대두되지 않았다.³⁰⁾

(3)

제2보병사단의 우측에는 경부국도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제1군단 예하의 제3사단과 제4사단, 그리고 제6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한편 홍천-여주-음성 방면의 공격을 담당한 제15사단의 좌측에는 제12보병사단이 위치하였다. 제2단계 작전계획에 따라 원주를 점령한 제12사단은 충주와 단양을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원주-충주와 원주-제천 등 2개 방면으로 진격하였다.³¹⁾

2. 국군 상황

1) 국군 제1군단 현황

한강방어선이 와해되고 북한군의 남진이 수원에 이르자 육군본부는 부대를 정비하고 전선을 조정해 작전의 전환점을 마련하려 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제1군단을 창설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육본의 작전지휘권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지휘기능을 상실한 사단을 통폐합해 지휘체계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중서부지역의 방어임무를 담당할 국군 제1군단은 육군본부의 재편성계획에 따라 1950년 7월 5일 평택에서 창설되었다.³²⁾ 새로이 창설된 국군 제1군단은 기존의 사단을 통폐합해 예하에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의 3개 사단을 편성했으며, 이때의 병력은 약 8,100명을 유지하였다. 당시 각 사단은 3개 보병연대로 편성되어 수도사단은 제1·제8·제18연대, 제1사단은 제11·제12·제13연대, 그리고 제2사단은 제5·제16·제20연대를 각각 예하에 두고 있었다.

국군 제1군단의 지휘부는 군단장 김홍일(金弘壹) 소장과 참모장 유재흥(劉載興) 준장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참모는 인사참모 김웅수(金雄洙) 대령, 정보참모 이종국(李鍾國) 대령, 작전참모 김종갑(金鍾甲) 대령과 군수참모 이창일(李昌一) 중령으로 편성되었다.³³⁾ 그리고 예하 사단의 지휘관은 수도사단장 이종찬(李鍾贊) 대령, 제1사단장 백선엽(白善燁) 대령, 제2사단장 이한림(李翰林) 대령이었다.

군단은 편성을 완료함과 동시에 1950년 7월 1일 한·미간에 합의되었던 작전 구상³⁴⁾을 근거로 전선조정을 실시, 경부국도 이동(以東)지역으로부터 음성에 이르는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군단은 경부국도를 경계로 미 제24사단을 좌익에, 남한강을 경계로 육군본부 직할의 제6사단을 우익에 두고 있었다.³⁵⁾ 군단의 창설과 함께 7월 5일 미군이 경부국도 연변에서 전투상황에 돌입하자, 육군본부는 이날 하오 예하부대에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³⁶⁾ 제1군단에 하달된 임무는 다음의 경로를 따라 7월 6일 24:00까지 부대이동을 완료하는 것이었고, 육본 직할인 제6사단은 제1군단의 집결을 엄호하는 것이었다.

명령에 따르면, 수도사단은 군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이용하여 성환-입장-진천을 경유 오창리에 집결하고, 제1사단은 철도 및 차량을 이용하여 성환-조치원-청주-연담리를 경유 음성에 집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2사단은 군단사령부와 마찬가지로 철도를 이용하여 성환-조치원-청주-연담리를 경유하여 증평에 집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1군단의 부대이동은 7월 6일 아침을 기해 개시되었다. 각 사단은 집결이 완료된 부대부터 우선적으로 출발시키는 한편 미집결된 부대는 연락이 되는 대로 본대를 후속하도록 조치하였다. 군단의 좌일선으로 진천지역의 방어임무를 담당할 수도사단은 제6사단 제19연대³⁷⁾가 진천 북쪽에서 북한군 제2사단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부대이동을 실시하여 역리(진천 서남방 5km)에 사단전방지휘소를 설치하고 다음날 전선을 인수하였다. 또한 군단의 우일선으로 음성방어를 담당할 제1사단도 제6사단 제7연대가 음성 북쪽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는 동안 담당지역으로 진출하여 7월 10일 전선인계와 배치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군단 예비로 수도사단과 제1사단에 대한 증원임무를 부여받은 제2사단은 증평으로 이동해 집결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수도사단이 진천탈환작전을 전개하자, 군단명령에 의해 2개 연대를 투입하였다. 군단사령부는 예하 사단의 이동상황을 확인·감독한 후 7월 6일 15:00에 성환을 출발해 청주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2) 전투준비태세

중서부지역에서 국군이 실시한 방어작전은 1949년 연말의 종합정보고서에 근거해 1950년 3월 25일에 확정된 국군 방어계획에 기초하였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로 작성된 이 방어계획을 하달 받은 각 사단은 38도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남한지역의 큰 강을 이용해 지연전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지연전은 최초 한강 이남으로 전략적인 철수를 수행하면서 한강선, 금강선, 낙동강선에서 축차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³⁸⁾

이와 같이 국군은 주요 산맥이나 하천 등 방어에 유리한 자연장애물을 이용하는 기본 방어계획에 따라 한강을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형성했고, 한강방어선이 돌파되자 신림-목계-장호원-죽산-안성을 연하는 선을 제2차 방어선으로 설정하였다.³⁹⁾

그러나 초전의 혼란을 수습하기에 앞서 북한군의 선봉이 제2차 방어선으로 쇄도하고, 서부전선의 방어를 담당한 미군이 그들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실패하고 후퇴함에 따라 육군본부는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중앙지대에 새로운 방어전지의 편성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육군본부는 부대 재편을 통해 제1군단을 창설하고, 군단 예하의 수도사단과 제1사단에 진천과 음성지역의 방어임무를 맡기는 한편 군단 예비인 제2사단에게는 이들 사단에 대한 증원 임무를 부여하였다.⁴⁰⁾ 그러나 이들 사단의 병력 전개는 대대 또는 연대 단위의 부대가 예상되는 적의 접근로를 점령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광정면의 방어지역을 담당, 방어력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3) 전투력 수준

국군 제1군단이 평택에서 재편성을 시작해 재배치될 때까지 각 사단의 병력 현황은 급속도로 증가되어 3개 사단의 병력은 전쟁 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는 재편성이 진행되는 동안 분산되었던 병력이 원대로 자진 복귀하고, 그리고 낙오자를 수습하여 충원하는가 하면 대한청년단원 및 학도병들이 자원해 현지 입대하는 등 여러 보충원에 의해 신속하게 증원되었기 때문이었다.⁴¹⁾

그러나 병력상황과는 달리 군단의 장비보급 상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육군본부는 7월 5일부터 부대별 보급계획표를 작성하는 등 후방 군수지원체제의 정비에 착수해 점차 지원마비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으나, 아직 전시동원이나 징발 등 국민총력전체제를 갖추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⁴²⁾

국군은 7월 3일까지 미군으로부터 105mm 곡사포 12문, M1소총 990정, 탄약 등을 보급 받아 제1군단에 지급하는 등 미 군원보급과 장비를 일부 수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군 군수지원부대도 이제 겨우 전개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우선

<표 6-2> 국군 제1군단의 재편성간 병력증가 실적⁴³⁾

구 분	재배치 이전	재배치 이후
수도사단	2,500명	7,855명
제1사단	4,000명	5,063명
제2사단	1,600명	6,845명
계	8,100명	19,763명

순위도 미군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재편성 당시의 국군에 대한 군원장비의 보급은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⁴⁴⁾

4) 인접부대 상황

군단의 우인접부대는 김종오(金鍾五) 대령이 지휘하는 제6사단이었다. 제6사단은 2개 연대규모로 7월 6일 24:00까지 진천-음성 정면을 고수해 새로 창설된 제1군단의 부대이동을 엄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⁴⁵⁾ 이에 따라 진천 북방에는 사단 예하의 제19연대가, 그리고 음성 북방에는 제7연대가 배치되었다.

한편 군단의 좌인접부대는 한·미간에 합의된 작전구상에 따라 경부국도 서부지역을 담당할 미 제24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상황도 6-1> 중서부지역 지연작전-1



<상황도 6-2> 중서부지역 지연작전-2



제 3 절 이천지역 전투

1. 전투개요

이천지역 전투는 한강방어선이 와해된 직후인 1950년 6월 30일부터 국군의 재편성이 실시되기 직전인 7월 4일까지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가 국군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는 한편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2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한 지연작전을 말한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6월 29일 새로운 작전에 대한 기본방침에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한강 도하에 성공하였고, 제1군단의 좌익을 담당할 제2사단도 한강을 도하한 후 광주-이천을 거쳐 김량장리로 진출, 아군 전선의 양단을 시도하였다.

반면에 국군은 적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제6사단 예하의 2개 연대를 여주-이천-안성지역으로 급파해 국군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는 한편 차령산맥 회랑으로 철수해 병력수습과 부대재편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제6사단 제19연대는 이천지역에 급파되어 이천-곤지암 일대의 주요 고지를 장악하였다.⁴⁶⁾ 그리고 광주-이천-죽산 방향으로 우회 남하하는 북한군 제2사단 제6연대의 공격을 저지·지연하였다.

이 전투로 인해 국군의 주력을 수원 이북지구에서 포위 섬멸하고 진천-청주 방향으로 진출해 전선을 양단하려던 북한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반면에 병력수습과 부대재편 등 전열 정비를 계획했던 국군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2. 북한군과 국군상황

1) 북한군 상황

(1)

북한군은 서울-홍천을 연하는 선에서 일제히 진격, 신속하고 강력한 공격으로 금강-소백산맥선 이북에서 유엔군 주력을 포위 섬멸한 후 주력은 경부국도와 중앙도를 연해서 신속히 남으로 진격하려 하였다.⁴⁷⁾ 이처럼 신속한 기동에 중점을 둔 북한군은 각 군단간의 상호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 축선별로 국군을 각개 격파하여 중심지역으로 깊이 진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서부지역에는 제2사단과 제15사단이 진천과 음성 방향으로 각각 투입되었다.

제2사단은 진천과 청주를 점령한 후 교통의 중심지이며 전략적 요충인 대전을 포위할 태세를 갖추는 한편 대전 동남으로 뻗친 경부국도로 진출해 대전 방면에서 후퇴하는 국군 및 미군의 퇴로를 차단하려 하였다. 이처럼 제2사단은 군단의 좌익을 엄호하면서 청주와 보은을 제압함으로써 국군과 미군이 금강-소백산맥선에 고착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김천-대구로 진출해 서부전선에 대한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려 하였다.⁴⁸⁾

(2)

한강을 도하한 북한군 제2사단은 제2군단에서 제1군단으로 예속이 전환되며 군단의 조공 임무를 부여받았다. 사단은 예하 3개 보병연대 중 제4연대와 제6연대를 제1제대로 편성해 병진공격토록 했으며, 제17연대를 제2제대로 편성해 제1제대를 후속토록 하였다. 그리고 포병연대 예하의 3개 포병대대에게는 화력지원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제4연대는 주공 방면인 광주-김량장-안성 방면의 공격을, 제6연대는 광주-이천-죽산 방면으로 우회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예비인 제17연대는 주공인 제4연대를 후속토록 하였다.

한편 사단의 우익에는 경부국도를 따라 수원-평택-천안 방면으로의 진격임

무를 지닌 제3사단이, 그리고 좌익에는 홍천에서 투입되어 여주-장호원 방면의 공격을 담당한 제15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2) 국군상황

(1) 6

한강방어선이 붕괴되고 북한군의 선봉이 안양-수원지역으로 진출하자 육군본부는 제6사단의 1개 연대를 이천으로 이동시켜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서부지역의 국군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였다.⁴⁹⁾ 북한군은 수원-오산 축선에 대해 압력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중서부지역으로도 진출을 시도, 중부 내륙지대를 따라 철수하는 국군의 퇴로차단을 기도하였다.⁵⁰⁾ 이에 따라 북한군은 제2사단을 광주-이천 방면으로 투입하는 한편 제15사단을 제2군단으로 예속 전환하여 장호원-음성 방면에 투입하였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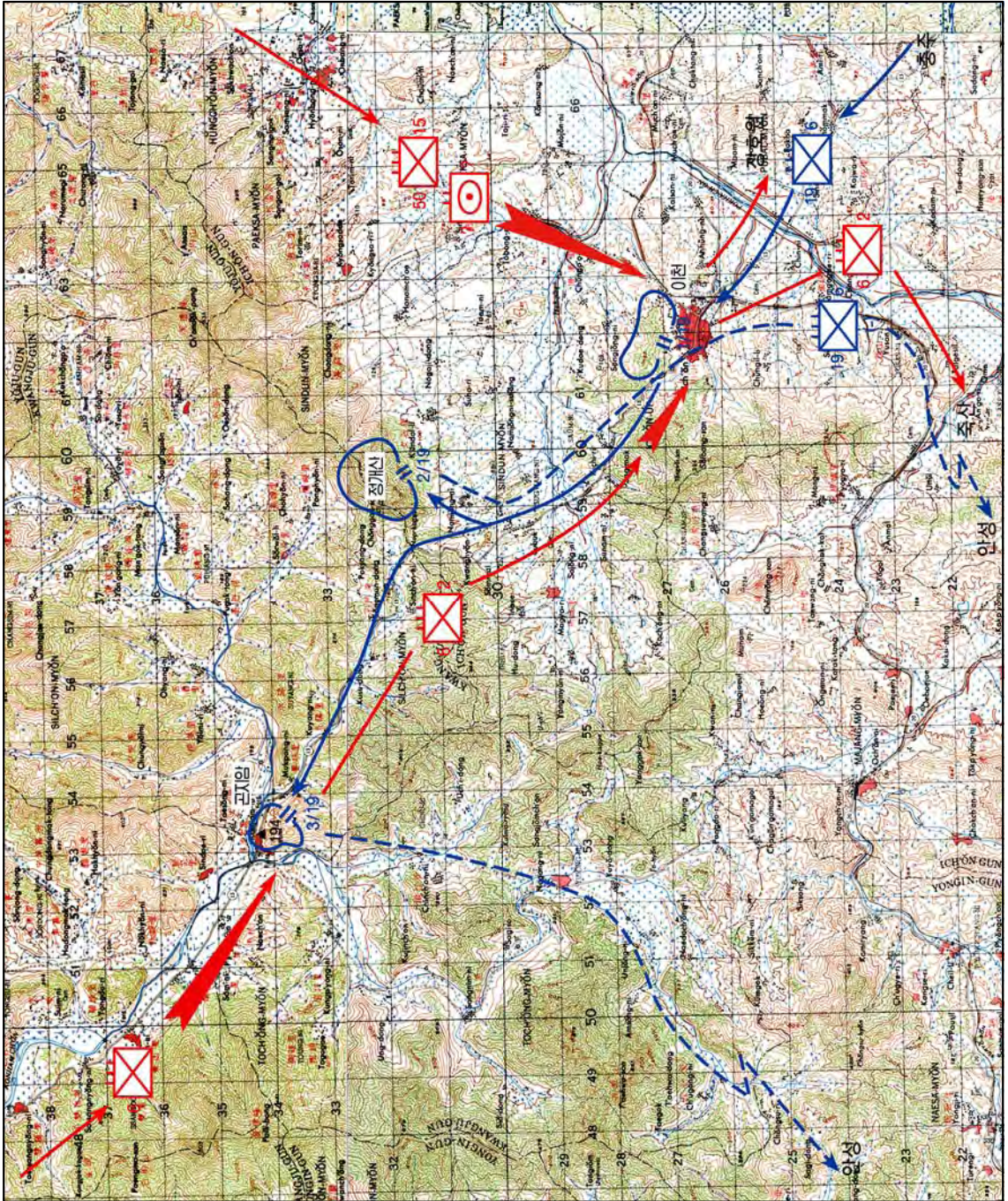
한편 1950년 7월 1일 총참모장으로 임명된 정일권(丁一權) 소장은 분산병력의 수습과 부대재편을 위해 제2사단장이었던 이형근(李亨根) 준장을 이천지역에 급파하였다. 현지에 도착한 이형근 준장은 산재해 있던 국군 및 경찰의 수습에 나서 급조된 혼성부대를 편제하였다. 이른바 '이천지구전투사령부'⁵²⁾의 창설이었다.

이천지구전투사령부는 대부분이 적의 파상공세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 낙오병과 경찰병력으로 구성되었다. 예하에는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이천지역에 배치된 제6사단 예하의 제19연대와 증파된 제2연대 제2대대가 소속되어 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다.⁵³⁾ 사령부는 약 3,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연대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는 400~500명의 기마경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⁵⁴⁾ 전투편성 및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이형근 준장과 예하 공병대대장 윤태일(尹泰日) 중령이 있었다.⁵⁵⁾

(2)

제6사단 제19연대는 이천지역으로 급파되어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연대는

<상황도 6-3> 이천-곤지암 지연작전



예하의 각 대대를 이천에서 곤지암리 사이에 동에서 서로 배치하였는데,⁵⁶⁾ 제1대대는 이천 외곽에, 제2대대는 정개산 일원에, 그리고 제3대대는 곤지암리 남쪽의 194고지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각 대대가 점령한 진지는 이천-곤지암리와 곤지암리-김량장리를 연하는 도로의 감제가 가능한 고지였다.

(3)

한강을 도하한 북한군 제2사단은 6월 30일 10:00 무렵 하번천리와 경안리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하루 동안 교두보를 확장하기 위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다음날 북한군은 적의 한강 도하와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남한산성 인근의 595고지를 점령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던 국군을 공격한 후 김량장리-천전리 철도선까지 진출하였다.⁵⁷⁾

한편 육군본부는 북한군의 남진이 계속되자 단시일 내에 전열을 정비한 후 기회를 포착하여 공세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안성-죽산-장호원-목계-신림을 연하는 차령산맥 북쪽에 제2차 방어선을 형성하기로 하고 비교적 전력이 온전한 제6사단의 2개 연대를 여주-이천-안성지역으로 급파하기로 하였다. 육군본부는 이러한 작전계획⁵⁸⁾을 하달해 제6사단의 제7연대와 제19연대로 하여 아군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는 한편 분산병력의 수습과 부대의 재편 및 진지편성에 주력토록 하였다.

3. 전투 경과

이천지구전투사령관 이형근 준장은 이천 일대에 산재해 있던 국군 낙오자와 경찰병력을 수습해 편제를 완료한 후 이천 북방에서 북한군의 한강도하를 저지하기 위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후퇴하는 국군을 추격해 한강을 도하한 북한군 제2사단은 6월 30일 10:00 무렵 하번천리와 경안리 일대에 교두보를 확보했는데,

이천지구전투사령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투를 실시하였다.⁵⁹⁾ 이어 7월 1일 아침에는 595고지(남한산성 동쪽 7km) 부근에서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투입된 북한군 제2사단 제17연대와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⁶⁰⁾

한편 제6사단 제19연대는 홍천 점령을 기도하는 북한군 제12사단의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 철수를 단행해 황성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6월 30일 13:00 무렵 「이천으로 이동해 적의 남진을 저지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받았다.⁶¹⁾ 원주로 이동한 연대는 보급품을 지급하는 등 부대 정비를 실시하였다.

연대는 열차편으로 충주로 이동한 후 다시 차량과 도보로 이천으로 직진하여 7월 1일 24:00 이천지역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연대의 진지배치는 이천으로부터 194고지(곤지암리 남쪽 0.5km)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동으로부터 서쪽으로 제1대대와 제2대대, 그리고 제3대대 순이었다.⁶²⁾

7월 2일 07:00경 곤지암리 인근 194고지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3대대 예하 제10중대는 고지 아래의 사거리에서 북한군의 대열을 목격하였다. 중대 규모의 보급부대로 판단된 북한군은 우마차에 보급품을 가득 싣고 경비병도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중대장 김두일(金斗逸) 대위는 2개 소대로 이들을 포위한 후 예상되는 도주로는 병력을 중점 배치하였다. 중대장의 사격개시 명령과 함께 교전이 전개되었다. 피아간에 치열한 총격전이 이어졌고, 결국 적은 전멸되었다.

한편 우제일선인 제1대대는 7월 2일 09:00 무렵 2개 대대로 추정되는 북한군과 이천 북쪽의 북하천 일대에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은 행군대열로 남하하던 중 제1대대의 기습을 받고 대응했으나 많은 사상자를 낸 채 물러났다. 그리고 수차에 걸친 탐색전마저 실패한 후 제1대대와 대치하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북한군은 122mm 곡사포 등 강력한 포격을 가하면서 1개 연대규모로 공격을 가해왔다. 이들은 광주-이천-죽산 방면으로의 우회기동 임무를 부여받고 이천지역으로 남하한 북한군 제2사단 제6연대로 판단되었다. 적의 강력한 공격에 직면한 제1대대는 이들의 공격을 지탱하지 못하고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 무렵 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제19연대를 증편으로 이동시켜 사단의 제2선을 구축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연대는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진천으로 철

수하여 명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제19연대에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제19연대는 북한군과 축차적으로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7월 4일 12:00에 안성을 거쳐 진천 북쪽으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4. 전투 결과

이천지역에 배치되었던 국군과 경찰 병력은 진천-청주 방향으로 진출을 기도하는 북한군 제2사단의 남하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였다. 특히 제6사단 제19연대는 접적 유지와 단계적인 철수로 곤지암-이천 방향으로 신속하게 우회 기동하려던 북한군 제2사단 제6연대의 진출을 지연하였다.

이 지연작전으로 인해 북한군 제2사단은 진천-청주 방향으로 진출해 국군의 전선을 양단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반면에 국군은 병력수습과 부대 재편 등 전열을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천지역 지연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국군은 비록 급조된 군경 혼성부대였지만, 북한군 500여 명을 사살하고 17명을 생포하는 한편 2대의 전차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속사포 12문과 중기관총 20정, 소총 200여 정, 총탄 및 포탄 수만 발, 트럭 5대, 오토바이 2대를 노획하였다.⁶³⁾

뿐만 아니라 제19연대 제3대대는 194고지 일대에서 전개한 기습전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100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5명의 포로를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우·마 40필과 HMG 15정 및 실탄 40상자, 122mm 포탄 500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⁶⁴⁾

제 4 절 진천 전투

1. 전투 개요

진천 전투는 1950년 7월 6일부터 13일까지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이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2보병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진천 및 미호천 일대에서 실시한 방어전투를 일컫는다.

당시 수도사단은 한강방어선에서 철수한 후 신설된 제1군단으로 편입⁶⁵⁾과 동시에 육본의 명령에 따라 진천지역의 방어임무를 부여받고 차량으로 이동해 진천에 투입되었다. 반면에 북한군 제2사단은 제1군단으로 예속이 변경되면서 부여받은 새로운 임무, 즉 군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면서 진천-청주 방면으로 진출하는 임무수행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김장량리와 안성을 점령한 후 진천을 공격하기 위해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 그리고 1개 전차연대(-1)를 투입하였다.⁶⁶⁾

이런 가운데 수도사단 제1연대는 진천 북방 중산리 일대에서 제6사단 제19연대의 후위중대와 함께 북한군 제2사단의 선두부대인 제6연대의 공격을 저지한 후 백곡천으로 철수하였다. 이어진 북한군의 백곡천 도하를 저지하는데 실패한 수도사단 제1연대는 봉화산 및 문안산 일대에 주저항선을 형성하는 한편 군단 예비인 제2사단의 지원을 받아 반격전을 전개한 후 군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철수를 실시하였다. 청주 북방의 미호천에 저지진지를 편성한 수도사단은 북한군의 수차에 걸친 도하를 저지, 지연시킨 후 청주 남쪽으로 철수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처럼 수도사단은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진천 일대에서 저지, 지연시킴으로써 진천-청주를 점령한 후 여세를 몰아 대전을 좌익으로부터 압박하려는 적

의 기도를 분쇄하는 한편 국군 및 유엔군의 전선정제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진천의 지리적인 상황은 천안-장호원을 잇는 583번 도로와 성환-증평 간 584번 도로, 이천-청주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585번 도로가 진천을 통과하고 있다. 또한 지형적인 조건은 주변이 전답과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나, 서쪽과 남쪽은 300~400m의 고지들로 둘러싸여 있다. 주변의 주요 감제고지는 북서쪽의 옥녀봉(△456)과 무제봉(△574), 백석봉(△468)이 있으며, 서쪽에는 만뢰산(△612)이, 그리고 남쪽에는 문안산(△415)과 봉화산(△410), 양천산(△350)이 있다. 진천 동쪽 5km 지점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미호천이 있으며, 진천의 북쪽에는 서에서 동으로 흘러 미호천에 합류하는 백곡천이 흐르고 있다.⁶⁷⁾

2. 북한군과 국군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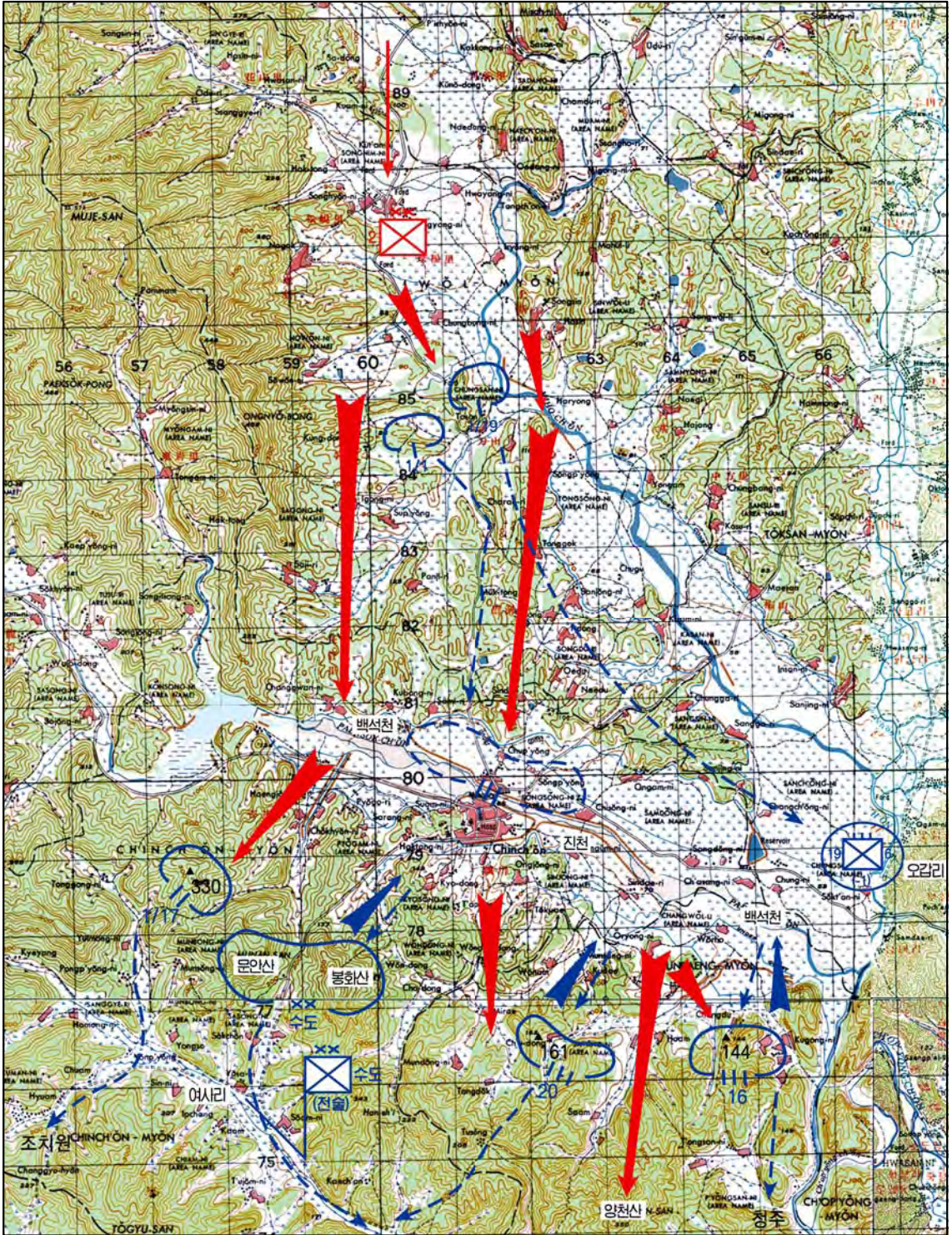
1) 북한군 상황

(1)

중서부지역의 요충인 진천 북쪽에는 북한군 제1군단 예하인 제2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춘천전투에서의 비효율적인 전투지휘로 작전에 차질을 가져온 제2사단은 6월 28일 사단장이 이청송 소장에서 최현 소장으로 교체되었고, 6월 30일에는 제2군단에서 제1군단으로 예속이 전환되어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⁶⁸⁾

제2사단이 부여받은 새로운 임무는 주공인 제1군단의 좌익을 엄호하면서 진천-청주-보은 방면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⁶⁹⁾ 이는 진천-청주를 돌파해 중부 및 서부로 전선을 양단한 다음 중부 이서(以西)의 국군을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서 포착 섬멸하고, 그 여세를 몰아 대전을 좌익으로부터 압박하려는 의도였다.⁷⁰⁾

<상황도 6-4> 진천 전투



(2)

북한군 제1군단의 조공으로서 진천 방면으로의 진출임무를 부여받은 제2사단은 보전협동공격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예하 3개 연대 중 제6연대와 10대의 전차로 이루어진 1개 전차대대를 제1제대로, 제4연대와 제17연대를 제2제대로 편성하고, 그리고 포병연대 예하의 3개 포병대대가 화력지원을 담당하였다. 한편 사단의 우익에는 제1군단 주력인 제4사단과 제3사단, 그리고 제6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이 배치되어 있었고 제2군단 예하의 제15사단이 있었다.

2) 국군상황

(1)

수도사단은 1950년 7월 5일 신설된 제1군단에 편입되면서 제1연대와 제8연대, 그리고 제18연대를 예속하고 평택으로 집결하였다.⁷¹⁾ 그러나 당시 수도사단은 사령부만 모양을 갖추고 있을 뿐 예하 연대의 상황은 물론 위치마저도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군단창설과 함께 군단장에 임명된 김홍일 소장은 7월 5일 극도로 쇠약해져 고통을 받고 있던 이종찬 대령을 대신해 육군사관학교장인 이준식(李俊植) 준장을 혼성수도사단장에 보임하였다. 아울러 육군본부의 명령이행에 착수, 안성-발안장간에 저지진지를 편성⁷²⁾하기 위해 집결한 각 사단 병력에서 1개 연대씩을 차출해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7월 5일 18:00에 수도사단은 「당일 야간에 합정리로 집결하라」는 군단명령을 받았다.⁷³⁾ 이는 현 전선을 육군본부 직할부대 및 미군에게 인계하고 수도사단은 군단 예하부대로써 진천부근으로 전용하려는 예비조치였다.

한편 수도사단의 책임방어지역인 진천지역에 투입된 전투편성 및 지휘관은 제1군단장 김홍일(金弘壹) 소장을 비롯해 이준식 준장과 김석원(金錫源) 준장이 수도사단장으로 있었는데, 김석원 준장은 7월 7일부로 사단장에 보임되었다. 그리고 제1연대장은 이희권(李喜權) 중령, 제8연대장은 이현진(李賢進) 중령, 그리고

제18연대장은 임충식(任忠植) 중령이었다.

각 연대는 3개 보병대대로 편성되었으며, 제1연대의 각 대대장은 제1대대장 장태환(張泰煥) 소령, 제2대대장 이의명(李義明) 소령, 제3대대장 이철원(李哲源) 소령이었으나, 7월 12일부터 김황목(金煌穆) 소령으로 제3대대장이 교체되었다. 그리고 제8연대는 제1대대장姜正喜(姜正喜) 대위, 제2대대장 정승화(鄭昇和) 소령, 제3대대장 박태원(朴泰元) 소령이었으며, 제18연대는 제1대대장 박철용(朴哲用) 소령, 제2대대장 장춘권(張春權) 소령, 제3대대장 김봉상(金鳳霜) 소령이었다. 이외에도 배속부대로는 유흥수(劉興守) 대령의 독립기갑연대와 김희준(金熙濬) 중령의 제17연대, 그리고 박기병(朴基丙) 대령의 제20연대와 김찬복(金燦福) 중위가 지휘하는 군단 제2포병중대가 있었다.

당시 수도사단의 총 병력은 약 8,000명 규모였고, 주요 화기로는 105mm 유탄포 6문, 81mm 박격포 20문과 60mm 박격포 51문, Cal. 45 SMG 29정, HMG 29정, CMG 35정, 그리고 2.36" 로켓포 199문과 기타 CAR, BAR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⁷⁴⁾

(2)

중서부지역의 진천-청주 방면에 대한 방어임무를 맡은 수도사단의 방어개념은 축차적인 철수를 실시하면서 하천이나 산악지형 등 방어에 유리한 자연장애물을 이용해 지연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단은 지연전을 통해 진천-청주 방면으로 진출해 국군의 전선을 중부와 서부로 양단한 후 대전 공격시 좌익으로부터 압박을 가하려는 북한군 제2사단의 기도를 좌절시키는 한편 국군의 전선조정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사단은 각 연대별로 이동을 실시하였다. 제1연대는 한강 방어선에서 철수해 집결지인 평택에서 부대를 수습한 결과 제1대대가 비교적 온전한 전투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연대장 이희권 중령은 제1대대에 병력과 장비를 우선 보충토록 한 후 20대의 차량에 분승시켜 진천으로 출발시키고, 잔여 병력은 부연대장 김황목 소령이 수습해 출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의 연대 병력은 800명이었고, 보유 장비는 81mm 박격포 4문에 불과하였다.⁷⁵⁾

제8연대 또한 평택에 집결해 도보행군으로 천안을 경유, 7월 8일 늦게 여사(진천 남쪽 4km)에 도착하였다. 제8연대의 병력은 약 1,000명이었고, 제2대대가 비교적 건제를 유지함으로써 전투력이 가장 강한 부대였다. 그러나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전투능력이 미약해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제18연대는 열차를 이용해 청주로 이동한 후 병력이 겨우 500여 명인 제3연대를 흡수 통합하였다. 제1대대와 제2대대의 건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제3연대 병력으로 제3대대를 편성하는 한편 잔여병력으로는 비교적 전투력이 온존한 제2대대를 우선 보충하였다. 따라서 제2대대의 병력은 600여 명으로 전투수행이 가능했으나, 제1대대와 제3대대는 300~400명에 불과하고 장비마저 미약해 경계근무만을 수행하고 재정비에 주력하였다.⁷⁶⁾ 또한 포병 운용을 위해 사단장은 한강도하 전에 이미 상실된 포병대대를 대신해 7월 6일 대전에서 새로 창설된 제1포병단의 제2포병중대를 지원받았다.⁷⁷⁾

한편 이준식 준장의 후임으로 수도사단장에 보임된 김석원 준장은 진천지역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군간 협조체제를 원활하게 유지하였다. 따라서 지역 내의 학생과 청년들은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녀자들까지 탄약운반과 식사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사단의 철수와 함께 모두 귀가 조치하였다.⁷⁸⁾

3) 적의 공격징후 및 아군의 조치

한강을 도하해 경안리 일대에 교두보를 확보한 북한군 제2사단은 이천지역에 투입된 제6사단 제19연대를 추격하며 7월 1일 김장량리 방면으로 남진을 계속하였다.⁷⁹⁾ 그들은 7월 6일 포병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공격을 전개해 안성을 점령했고, 동남 방면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다음날 17:00 진천 북쪽의 중산리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서쪽의 옥녀봉(중산리 서쪽 2.5km)으로부터 동쪽의 신월리(중산리 동쪽 1.7km) 사이에 병력을 전개하였다.

수도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군단장으로부터 진천 북쪽으로 진출해 제6사단 제19연대를 수용, 통합 지휘해 적의 남침을 저지하라는 명령⁸⁰⁾을 받고 제1연대장

에게 병력을 진천 북쪽으로 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제8연대와 제18연대의 지휘를 위해 소재를 파악했으나,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사단장은 병력의 배치와 운용을 위한 피아의 능력을 고려해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작전계획에 따라 제1연대를 진천 백곡천 남안에 배치, 축차 지연전을 실시토록 한 사단장은 제8연대와 제18연대에 대해서는 봉화산과 문안산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사단의 전방지휘소를 역리(진천 서남쪽 5km)에 개설하였다.

한편 군단사령부를 청주로 이동한 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송림리 부근에 전차를 동반한 북한군의 출현보고를 받은 다음 이들이 이천으로부터 제19연대를 추격한 단대호 미상의 1개 사단으로 추정하였다.⁸¹⁾ 그리고 현재의 수도사단 병력으로는 진천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는데 역부족이라 판단하고 육군본부에 병력증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조치원에서 청주로 행군 중이던 육본직할 제17연대를 군단에 배속하고,⁸²⁾ 독립기갑연대 장갑 제1중대와 기갑연대 도보대대, 신설된 제1포병단 예하의 1개 중대를 수도사단에 증원하였다.⁸³⁾

3. 전투 경과

1) 중산리 전초전

(1)

군단 작명에 따라 평택을 출발한 수도사단 제1연대는 7월 6일 10:00경 진천에 도달하였다. 사단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연대장 이희권 중령은 지연전을 실시중인 제6사단 제19연대 병력과 합세해 급편진지를 점령하고 아울러 적의 침공을 저지 격파할 것을 제1대대장 장태환 소령에게 지시하였다.⁸⁴⁾

선봉중대로 백곡천을 건넌 제1대대 제1중대는 급행군으로 중산리(진천 북쪽

4.5km)에 이르러 제19연대의 후위중대와 합세하였다. 그리고 진천-청주간 585번 도로를 중심으로 동쪽의 116고지로부터 서쪽의 90m 능선에 급편진지를 편성하고 개인호 구축에 돌입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이들 중대에 포격과 함께 소규모 적이고 산발적인 사격을 가해왔다. 제1중대장 윤홍정 중위는 116고지에 올라 적정을 살피던 중 송림리 방면에서 1개 연대규모의 적이 집결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대대에 이러한 상황을 보고한 중대장은 양 중대에 상황을 전파함과 동시에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2)

송림리에 집결한 북한군 제2사단 제6연대는 7월 7일 14:00를 기해 포병의 지원을 받으면서 585번 도로 양측으로 전개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산리 남쪽 능선을 방어하고 있던 제1연대 제1중대와 제19연대 후위중대는 북한군의 집중적인 포격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에 전차와 포격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은 행군대열로 남하를 시작하였다.⁸⁵⁾

그들의 선두가 가까운 거리에 도달했을 때, 116고지에서 이를 지켜본 제1중대장의 사격명령이 내려졌다. 불의의 기습사격을 받은 북한군은 약간의 인명손실을 입은 채 중산리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양 중대의 위치가 노출되었고, 이를 확인한 북한군은 병력을 양분해 한 무리는 도로변을 따라 내려오고, 다른 한 무리는 되마루(송림리 동남 2km)에서 미호천 동안으로 우회해 중대의 동측방을 공격하였다.

양 중대장은 이러한 북한군의 공격 양상을 예상했지만, 화력의 열세로 그들의 접근을 저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25고지에서 전황을 주시하던 대대장은 연대장의 승인 아래 접적을 유지하며 지연전을 실시할 것을 중대장에게 명령하였다. 20:30경 미호천 동안(東岸)으로 우회한 북한군이 청룡리(△116 동남쪽 15km)로 침투해 중대의 배후를 위협하였다. 더 이상의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중대장은 남쪽으로 물러나 자레-94.4고지 사이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당시 북한군은 장호원(진천 동북쪽 30km)에 1개 사단규모의 병력과 구경미

상의 포 5문, 차량 40대가 집결하고 있음이 항공정찰결과 확인되었으며, 또한 2개 연대규모의 병력이 광혜원리(진천 북쪽 15km)에 집결하고 있다는 첩보보고가 있었다.⁸⁶⁾

진천 북쪽에 병력을 집결하고 있던 북한군은 7월 8일 08:00를 기해 대구경포를 이용해 공격준비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은 제1연대 제1중대와 제19연대 후위중대의 방어진지인 자례-94.4고지선을 공격하였다.

북한군 제2사단장 최현 소장은 선두부대를 보강하기 위해 1개 자주포대대와 1개 전차연대(-1)를 파견하고 있었다.⁸⁷⁾ 보병을 동반한 전차는 585번 도로를 따라 내려오고, 나머지 병력은 도로 우측의 동성리와 좌측의 사곡리로 나뉘어 남하하였다. 이들의 남하와 동시에 잠시 중지되었던 북한군의 포격이 아군 진지에 집중되자 양 중대는 혼란에 빠져들었고, 병력은 분산된 채 진천으로 빠져나가 연대에 합류하였다.

(3)

한편 청주지구로 이동한 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북한군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수도사단장으로부터 송림리 부근에 수 미상의 전차와 함께 1개 연대규모의 적이 집결중이라는 보고를 접한 군단장은 이들이 이천에서부터 제6사단 제19연대를 추격해 온 북한군 제2사단 제6연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수도사단 전력으로는 진천의 방어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육군본부에 병력 증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육군본부는 조치원에서 청주로 행군하고 있던 육군본부 직할 제17연대를 군단에 배속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⁸⁸⁾ 뿐만 아니라 장갑차 3대를 보유하고 있던 독립기갑연대 장갑 제1중대와 도보대대, 그리고 신설된 제1포병단의 1개 중대를 각각 증원하였다.⁸⁹⁾ 그러나 증원 부대들은 배속명령을 받고난 후 조치원 및 대전을 출발했기 때문에 전투에 배치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날 육군본부는 수도사단장에 대한 갑작스런 교체를 단행,⁹⁰⁾ 새로운 사단장으로 대전에서 학도의용군을 모집하고 있던 김석원 준장을 임명하였다. 이 인사

조치는 신성모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따라서 군단장인 김홍일 장군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사단장으로 보임된 김석원 준장은 곧장 진천으로 직행해 밤늦은 시간에 사단 지휘소가 설치된 역리에 도착하였다. 이어 사단사령부를 역리로부터 3km 북쪽에 있는 여사(如土)로 이동시키고 작전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포병중대를 비롯한 사단주력이 아직도 진천에 도착하지 않았고, 다음날 15:00경에야 도착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사단장은 제1연대장에게 사단 주력이 도착할 때까지 반드시 진천을 사수하라고 명령하였다.

2) 주저항선 전투

(1)

북한군의 선두부대는 7월 8일 06:00 무렵 진천 북쪽 변두리까지 접근하였다.⁹¹⁾ 연대장 이희권 중령은 진천 외곽을 동서로 흐르는 백곡천에서 이들의 계속된 남하를 저지하기로 결정하고 남안의 제방에 저지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진천교를 폭파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미 고문관은 파괴를 주장했으나 사단장은 이를 단호히 일축하였다.⁹²⁾ 백곡천은 도섭이 가능하고 하상이 견고해 진천교를 폭파하더라도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북한군은 약 30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을 도섭점에 실시하고, 이어 연막탄을 쏘아 시야를 가린 후 백곡천 북안의 성석리(진천 동쪽 1.5km)와 사미(진천 서북쪽 1.5km), 그리고 장관리(진천 서쪽 3km)를 통해 일제히 도섭을 시작하였다. 제방 뒤쪽의 경사면에 호를 파고 도하하는 적을 저지하던 병사들은 북한군의 포화와 기관총사격으로 희생이 속출하였다. 이에 대대장 장태환 소령은 그들의 집중사격을 뚫고 성산초등학교 뒤에 방열한 81mm 박격포진지로 달려가 직접 지휘하며 도섭중인 북한군을 타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사화기에 주춤하던 병사들도 제방 위로 몸을 일으켜 혼란상태에 빠진 적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혼란을 수습한 북한군은 3대의 전차를 이용해 진천교 북단의 벌터에서

백곡천 남안의 제방을 파괴하는 한편 대구경포를 쏘아대며 다시 도섭을 시작하였다.⁹³⁾ 계속된 적의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악전고투하던 연대는 16:50에 백곡천 남안의 방어선을 부득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병사들은 각개로 탈출해 149고지(진천 서남쪽 1km) 서쪽에 집결한 후 다시 봉화산 서쪽의 잣고개로 철수해 사단주력에 합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2사단은 09:00경에 진천을 점령하였다.⁹⁴⁾

제1연대가 진천을 사수하기 위해 일전을 전개하고 있던 15:00경 사단 주력이 사단지휘소가 설치된 여사에 속속 도착하였다. 병력의 운용에 관해 고민하던 사단장은 진천의 전세가 이미 적에게 기울었고, 현 시점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주력의 투입은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니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행군과 전투에 지친 병력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지시하였다.

제8연대는 사단의 우일선으로 봉화산에, 그리고 제18연대는 좌일선으로 문안산에 각각 진입하고, 제1연대 및 독립기갑연대는 양 연대의 중앙인 잣고개를 장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7연대(-2)는 사단의 예비로 상계리(여사 서북쪽 2km)에 두고 문봉리로부터 계곡을 따라 접근하려는 적의 기도를 차단토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진천이 실패될 무렵, 신형 105mm 유탄포 4문으로 구성된 제1포병단 예하 1개 중대가 사단지휘부에 도착하자 사단장은 사석리(여사 동쪽 1km)에 배치하였다.

군단 예하의 각 사단이 부여된 진지를 점령하고 전투준비를 완료함에 따라 군단장은 진천지구의 전세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였다. 이는 군단의 예비로 연탄리(증평 서북쪽 1.5km)에 두고 있던 제2사단의 1개 연대를 수도사단에 증원해 진천을 동서 양면으로 협공, 탈취하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제2사단 제20연대는 19:00에 수도사단의 우익인 161.5고지(진천 남쪽 3km)로 이동하였고, 제20연대의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도사단과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제16연대가 구곡리(진천 동남쪽 4.5km)로 진입하였다. 또한 수도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M8 장갑차 3대를 이끌고 청주에 도착한 독립기갑연대 장갑 제1중대를 진천으로 이동시켜 사단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한편 진천을 점령한 북한군은 감제요지인 봉화산과 문안산을 탈취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야간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벽암리-교성리 선으로 물러나 탐색전을 전개하였다.

(2)

야간공격에 실패하고 후방으로 물러나 탐색전을 전개하던 북한군은 다음날인 7월 9일 09:00 집중적인 포격을 시작으로 주저항선인 봉화산 및 문안산에 대해 보·전·포의 일제공격을 개시하였다. 월등하게 우세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적의 공격에 직면한 아군은 악전고투했으나 주저항선을 지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마침내 주저항선이 붕괴되었고, 12:00경 북한군은 진천을 중심으로 남쪽 2.5km에 이르는 반월형의 거점을 점거하였다.⁹⁵⁾

한편 사단장은 주저항선이 붕괴되자 병력을 증강해 일거에 진천을 탈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군단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구하였다. 그는 제20연대를 수도사단에 배속하고 군단 우익의 제2사단으로 하여 동쪽을 엄호하도록 하였다.⁹⁶⁾

(3)

사단 우측에서 협동공격을 담당한 제2사단 제16연대는 구곡리로부터 계곡을 따라 전진해 13:00경 소가리(진천 동남쪽 3km)에 도달하였다. 이후 연대장 문용채 중령은 첩보를 통해 북한군이 진천 읍내에 자주포 1문과 소수의 병력만을 잔류시키고 있음을 파악하고, 1개 중대를 선발해 상덕리를 경유 진천으로 돌입하도록 명령하였다.⁹⁷⁾

이들은 연대 주력의 엄호를 받으며 장월리(소가리 북쪽 1km)를 거쳐 상덕리로 직진하던 중 106고지 부근에서 쏘아대는 북한군의 포격을 받고 분산되었다. 또한 연대 역시 연신한 그들의 집중포격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간파하고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상덕리에 전개시킴으로써 연대는 한 걸음도 이동하지 못한 채 점점 병력 손실만 늘어났다.⁹⁸⁾ 마침내 연대장은 144고지로 물러나 급편진지를 점령할 것을 명령하였다.

7월 10일 06:00에 144고지로 물러나 있던 제16연대는 상덕리(진천 동쪽 3km)

에 위치한 북한군으로부터 보·전·포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⁹⁹⁾ 그들은 585번 도로의 돌파에 거듭 실패하자 사단 우익의 양천산을 넘어 사단의 배후를 공격하려 하였다. 이처럼 북한군의 주공방향이 전환되면서 제16연대는 대규모의 병력과 전투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대는 약속된 사단의 포격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사단에 보낸 연락장교마저 연락이 두절되어 피아는 물론 인접상황의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에 연대장 문용채 대령은 17:00를 기해 현존 병력을 측방연대와 연계가 가능한 선까지 철수시키며 지연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연대의 철수기미를 간파하고 범바위(진천 동남쪽 4km)쪽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왔다. 연대는 그들에게 반격을 가한 후 다시 철수를 시작해 연담리(구곡리 남쪽 5km)에서 부대를 수습하고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청주로 이동하였다.

한편 연대장 박기병 대령을 대신해 제20연대의 주력을 지휘한 김한주 소령은 신정리(△161.5 북쪽 2.5km)까지 진출했으나 원덕리로부터 잠입한 북한군에 의해 좌측방을 공격받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경우 고원무렵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한 연대장은 공격대대장인 김한주 소령에게 철수를 명하였고, 공격대대는 원위치로 후퇴해 진지를 보강하고 적과 대치하였다. 연대는 야간의 부대지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61.5고지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주간에는 적의 포격으로 인한 인명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확장 배치하였다.

7월 10일 아침 북한군은 강력한 포격과 함께 1개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시도했으나 연대에 의해 진전에서 저지되었다. 16:00에 접어들어 강력한 적의 포격이 재개되었고, 약 30분이 지나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이 범바위쪽에, 그리고 또 다른 1개 연대규모가 신정리에 집결하고 있었다.¹⁰⁰⁾

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북한군이 야간을 이용한 우회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사양리(△161.5 동쪽 1.5km)나 문덕리(△161.5 서쪽 1.5km)에서 계곡을 따라 접근할 경우 연대가 적의 포위망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병력을 집결시켜 좌우 250m로 축소 배치한 연대장은 능선 서쪽계곡에 잠복조를 배치하였다.

18:00경 범바위 부근에 집결한 1개 연대규모의 북한군이 이동을 시작해 선두가 중리에 이르렀다. 연대가 전투태세에 돌입한 직후 상공에 B-29 및 B-26 폭격기 편대가 출현해 진천읍내를 비롯해 북한군이 집결한 신월리-장월리-범바위선에 폭격을 가했다. 이어 F-51 전투기가 나타나 기총사격과 네이팜탄 공격을 가해 적에게 상당한 손실을 주었다.¹⁰¹⁾

(4)

사단장의 구두명령에 따라 제18연대 제2대대는 봉화산을 탈취하기 위해 10:00에 역리를 출발하였다. 13:30 봉화산 서쪽의 사석리에서 전개한 제2대대는 공격 목표인 봉화산을 향해 전진하였다. 대대는 2개 중대를 병행 공격시키고 1개 중대를 예비로 한 공격대형을 갖추었다. 따라서 제5중대는 봉화산의 연봉인 "나"고지를 탈취하고 주봉인 "가"고지로, 그리고 제6중대는 "가"고지로 진격하였다. 예비인 제7중대는 양 중대의 사이에서 북한군의 계곡 접근을 막고, 제6중대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었다.

대대의 공격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나 8부 능선을 넘어서면서부터 상황이 급변하였다. 그동안 반응이 없던 북한군은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최후저지사격을 가해 더 이상의 전진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대대장 장춘권 소령은 중화기중대장에게 적의 기관총을 제압하도록 지시하고, 제5중대장과 제6중대장에게는 돌격을 계속하도록 명령하였다. 양 중대의 협공으로 "나"고지에 이어 주공인 "가"고지마저 탈환한 대대장은 정상에 대대지휘소를 설치하는 한편 적의 역습에 대비한 사주방어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¹⁰²⁾

야간으로 접어들며 북한군의 강력한 포격이 시작되었고, 이어 수많은 적이 봉화산으로 밀어닥쳤다. 고지의 북쪽 능선에 전진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제6중대는 개인호에 의지한 채 대대의 유효적절한 화력지원을 받으며 진전에서 적을 격퇴하였다. 수차에 걸친 일진일퇴의 격전 끝에 마침내 중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가"고지를 유지하였다.

한편 제18연대가 봉화산의 동쪽 능선을 확보하고 있던 7월 10일 01:00를 기

해 북한군의 강력한 포격이 일대에 집중하고 연대규모의 병력이 동쪽 기슭과 원덕리 방향으로부터 침공을 시작하였다.¹⁰³⁾ 그들은 포격으로 주봉과 연봉을, 그리고 전차포로는 주봉의 전사면을 정확하게 강타하였다. 전사면에 배치된 병사들은 포격을 피하기 위해 진지를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3차에 걸친 북한군의 야간기습을 저지하였다.

대대장 장춘권 소령은 주간기습을 실시해 진천으로 돌입할 것을 연대장에게 건의했으나 연대장은 병사의 피로도와 전력의 열세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대신에 고지 앞에 돌출해있는 적의 149고지(진천 서남쪽 0.5km)를 탈취해 기습을 사전에 방지하라고 명령하였다.

대대장으로부터 149고지 탈취명령을 받고 일부 병력을 엄호를 위해 현 진지에 잔류시킨 제6중대는 목표고지를 향해 이동하던 중 원덕리로 우회한 적의 기습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나, 봉화산에서 전황을 주시하던 연대의 지원으로 가까스로 능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00에 하달된 연대의 철수명령으로 봉화산은 북한군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¹⁰⁴⁾



봉화산 전경

한편 봉화산의 서쪽 능선을 장악하고 있던 제8연대 또한 01:00부터 개시된 북한군의 포격을 받았다. 봉화산과 문안산에 대한 야간기습을 실시한 그들은 양 고지의 중앙인 잣고개의 돌파를 막기 위해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고개의 북쪽 기슭으로 전세를 시작하였다. 교성리에 있는 북한군의 전차는 잣고개와 봉화산을 향해 포격을 가했으며, 대구경포는 양 고지의 후사면과 사단 전방지휘소까지 위협하였다. 현 위치의 사수명령을 받은 연대는 밤새 계속된 적의 포격으로 많은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

제18연대 제2대대와 마찬가지로 제8연대도 7월 9일 10:00에 공격개시선인 돌팍이-상계리(여사 서북쪽 1.5km)를 출발해 문안산으로 향했다. 제17연대가 공격 목표인 문안산을 좌측으로 우회해 적의 우측방을 공격하고 제8연대는 정면공격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연대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대는 제2대대뿐이었고, 게다가 연대에 나와 있던 사단장은 대대로부터 1개 중대를 차출해 연대의 잔여병력과 함께 봉화산 공격에 투입하였다.

고지공격에 나선 제2대대(-1)는 8부 능선에서 적의 화망에 걸려 더 이상의 전진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연대장 이현진 중령은 신속히 고지를 탈환하라고 계속 독려했다. 대대장 정승화 소령은 북한군의 사격이 뜸해진 틈을 타 돌격을 명령, 고지정상의 한쪽을 점령했으나 포병중대의 오인 사격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채 분산되었다.

그러나 대대장의 지시를 받은 중화기중대장 김종민 중위가 81mm 박격포를 이용해 엄호사격을 실시하고, 사단장의 출현소식이 대대에 전해지자 사기가 충천한 장병들은 돌진을 재개, 목표인 문안산을 점령하였다. 이어 연대장의 구두명령을 받은 대대는 봉화산으로 이동해 제5중대를 흡수한 후 제18연대와 함께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한편 사단에 배속된 제17연대 제1대대는 제3중대와 제1중대를 각각 좌·우일선으로, 그리고 제2중대를 예비로 하여 문안산을 향해 나아갔다. 북한군의 화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강력해졌고, 아군의 사상자는 점차 증가되었다. 그러나 대대는 우일선을 담당한 제1중대가 반 이상의 병력손실에도 문안산의 좌측능선을

탈취함에 따라 같은 시각에 도달한 제8연대 제2대대와와의 연계에 성공하였다.

제8연대 및 제17연대와 마찬가지로 독립기갑연대 도보대대와 제1연대도 13:30을 기해 봉화산 서쪽과 문안산 동쪽을 목표로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봉화산과 문안산으로 접근하는 아군에 대해 포격을 집중하였다. 그럼에도 피아간의 접전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봉화산과 문안산을 연결하는 잣고개로의 진출은 다소 쉬워보였다.

그러나 잣고개 양 능선에는 수 미상의 북한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아군이 고개 앞에 도달하자 그들은 교차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런 공격을 받은 아군 병사들은 뒤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광경을 주시하고 있던 사단장은 중앙의 돌파를 우려하고 양 연대장에게 공격재개를 지시하였다.¹⁰⁵⁾

상당 시간에 걸쳐 흩어진 병력을 수습한 양 연대는 포병의 직접지원을 받으며 잣고개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때 봉화산과 문안산의 방어에 실패한 북한군은 고개에서 물러나 도주함으로써 양 연대는 고개를 장악하고 좌우측의 고지와



봉화산과 문안산 사이에 위치한 잣고개 전경

연계를 이룰 수 있었다.

7월 10일 01:00에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문안산 방어에 실패한 후 각 개 분산되었던 제1연대와 제17연대는 문안산 남쪽 기슭에서 병력수습에 나섰다. 제1연대 제1대대는 병력을 수습할 사이도 없이 사단으로부터 탄약을 보급 받은 직후 문안산을 탈환하기 위해 우측으로 야간기습을 개시하였다.¹⁰⁶⁾ 고지의 9부 능선까지 접근에 성공한 대대는 돌격을 통해 적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으며, 이 전투에서 대대규모의 적을 격퇴하였다. 피아간의 기습공격이 이어지고, 고지 쟁탈전이 저녁 무렵까지 계속되었다.¹⁰⁷⁾ 대대는 16:00경 기만작전을 통해 고지 정상에 접근한 북한군과 격전을 거듭해 이를 격퇴하고 진지를 사수하였다.¹⁰⁸⁾

제17연대 제1대대는 좌측으로의 기습을 전개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330고지의 1개 대대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대대장은 즉각 공격대형으로 전개하고 모든 화력을 집중해 그들을 공격하면서 전진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강력한 사격으로 대대의 근접을 저지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중대규모의 특공대를 선발해 고지의 후미에 투입함으로써 그들의 사격을 종식시키고 고지를 장악하였다.

(5)

사단은 연속된 반격을 통해 봉화산-문안산-330고지선을 장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1개 연대규모의 병력피해를 입은 북한군은 산발적인 탐색전과 포격으로 사단의 진격을 저지하는 한편 우회침공을 시도하였다. 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에 연이어 실패한 북한군은 사단의 배후를 차단하기 위해 오후 늦게부터 사양리(진천 동남쪽 4km) 방면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선두는 이미 양천산 북쪽 기슭에 이르고 있었다.

한편 사단은 봉화산-문안산을 확보했으나 진천을 탈환하기 위한 진격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격을 담당할 예비대가 없고, 병사들의 피로도 또한 극에 달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부 국도를 따라 남진한 북한군이 천안을 지나 전의에 도달함으로써 사단의 배후가 위협받고 있었다. 이러한 전황을 감안한 사

단장 김석원 준장은 지연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고 미호천 남안의 확보를 위한 명령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 ① 사단은 7월 10일 16:00를 기해 현 접촉선을 이탈한 다음 미호천 남안에 저지 진지를 점령하고 적을 저지 격멸하려 한다.
- ② 제18연대는 지대 내의 적을 격파하고 제1대대로써 미호천 남안으로 철수, 사단의 우일선으로서 신안리-외하리간을 점령하고 적의 도하에 유의하라.
- ③ 제1연대는 지대 내의 적을 격파하고 제1대대로써 미호천 남안으로 철수한 다음 사단의 중앙이 되어 585번 도로로부터 정상리간을 점령하고 적의 도하를 억제하라.
- ④ 제8연대는 지대 내의 적을 격파하고 제2대대로써 미호천 남안으로 철수한 다음 사단의 좌일선으로 문암리-신대리간을 점령하고 적의 도하에 유의하라. 특히 천수천(미호천 지류) 부근의 경계를 철저히 하라.
- ⑤ 제17연대는 제2대대로써 제1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명에 의해 주중리에 집결해 사단의 예비가 되라.
- ⑥ 제20연대는 제2대대로써 현 진지에서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고 명에 의해 영운동에 집결해 부대를 정비하라.
- ⑦ 포병중대는 연막으로써 사단의 이탈을 차장한 다음 화력의 우선권은 제20연대 및 제17연대에 두되 제1대대에 이어 율양동으로 전환하라.
- ⑧ 각 부대는 주간철수를 위하여 기도비닉에 철저를 기하라.
- ⑨ 나머지는 주중리에 재한다.¹⁰⁹⁾

3) 미호천 방어전

(1)

7월 10일 16:00 명령에 따라 사단은 배속된 제17연대 및 제20연대의 엄호를 받으며 철수를 시작하였다. 사단 주력은 북한군으로부터 이탈, 여사리를 거쳐 585번 도로를 따라 밤늦게 작명에 명시된 저지진지를 점령했으며, 사단장을 비롯한 사단지휘부도 사단 주력이 철수한 다음 오근장에 도착하였다.¹¹⁰⁾ 그런데 사단의 철수과정에서 유엔공군기에 의한 근접항공지원이 실시되었다. 사단의

철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진천 및 그 일대에 B-29 및 B-26폭격기가 출현해 대대적인 폭격을 실시하고, 이어 나타난 F-51전투기는 기총사격으로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였다.¹¹¹⁾

한편 제20연대는 사단의 배후를 차단하기 위해 전환한 북한군의 위협에 처했으나 유엔공군의 근접항공지원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병력을 다시 수습한 후 침공을 재개하였다.¹¹²⁾ 사양리 계곡으로 주력을 남하시키는 한편 연대 정면에 1개 중대를 배치해 연대를 견제하고 문덕리 방면으로 1개 중대를 우회시켜 연대의 배후를 차단하였다.

북한군으로부터 완전 포위되었음을 직감한 연대장은 사단으로부터 어떠한 명령도 하달되지 않자 독단적으로 철수를 결심하였다. 가까스로 포위망을 돌파해 역리에 집결한 연대는 비로소 사단이 철수한 사실을 알고 청주 남쪽의 영운동으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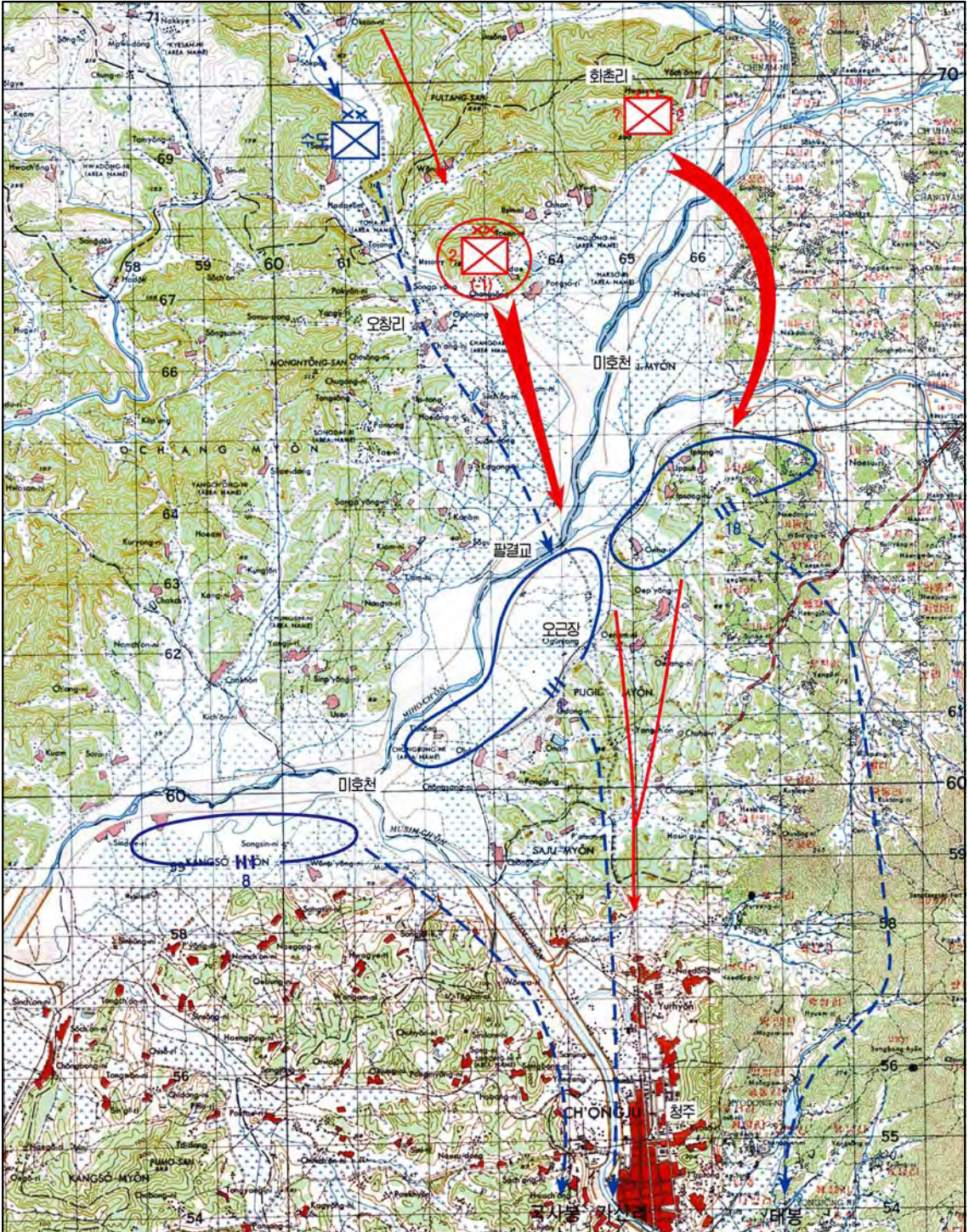
또한 330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17연대 제1대대는 22:00경 잣고개를 통해 남진한 적의 대열이 여사에 집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철수를 결심하였다. 제1연대로부터 배속 받은 1개 중대를 철수엄호부대로 임명하고 조치원 방향으로 이동을 개시해 7월 11일 조치원에 도착했고, 다시 보은으로 이동해 본대와 합류하였다.¹¹³⁾

(2)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미호천 남안으로 철수한 사단은 동에서 서로 제18연대, 제1연대, 제8연대순으로 저지진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제17연대(-2)는 예비로 두려웠으나 철수과정에서 통신두절로 행방을 알 수가 없었고, 제20연대는 청주 남쪽 영운동에서 부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 무렵 군단사령부가 위치한 청주에는 수개 연대의 지휘소와 보급소가 산재하고, 낙오병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어 혼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각 연대는 이곳에 집결하고 있는 병력을 수습해 손실된 병력을 보충할 수 있었다. 제1연대는 오근장에서 제9연대를 흡수해 재편성을 실시했는데, 제1연대 병력은 제1대대로,

<상황도 6-5> 미호천 방어작전





미호천의 남북을 연결하는 팔결교 모습

제9연대 병력은 제2대대로 그리고 제1연대와 제9연대의 잔여 병력으로 제3대대를 편성하는 한편 연대장에는 제1연대장인 이희권 중령을 그대로 유임시켰다.

한편 양천산과 585번 도로를 따라 남진한 북한군은 08:00경 청주 북방 10km의 오창에 도달해 미호천 도하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호천은 청주 북쪽 7km에서 동서로 흐르는 금강의 지류로써 사단 정면의 하폭은 200m, 수심은 1m, 유속은 완만해 도섭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북한군이 집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사단은 공군에 항공지원을 요청했고, 약 30분 후 F-51전투기 2개 편대가 나타나 기총사격과 네이팜탄 공격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북한군은 집결이 완료되자 도하 준비에 나섰고, 사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호천의 유일한 교량인 팔결교를 폭파하였다.¹¹⁴⁾ 그리고 14:00경에는 다시 한번 공군의 항공지원을 요청해 오근장 북쪽의 적 집결지를 공격해 많은 손실을 주었다.¹¹⁵⁾

이렇듯 2회에 걸친 공중폭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정찰대는 7월 12일 10:00부터 도하지점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이어 14:00경에는 1개 연대가 화산리에 집

결하고 있었다.¹¹⁶⁾ 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군단에 포격지원을 요청해 전 포 11문으로 집중포격을 실시하였다. 이 포격으로 북한군은 800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고 분산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 야간도하를 시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아군의 항공정찰 결과 포착되었다. 사단장은 이를 예하 지휘관에게 통보하고 경계강화에 주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예상한 대로 그들은 21:00를 기해 보·전·포 협동으로 화산리 및 오근장으로 도섭을 개시하였다. 남안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8연대와 제1연대는 포병의 탄막사격과 전후 저격사격으로 도섭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일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적의 도하는 다음날인 7월 13일 04:00부터 재개되었다. 그들은 30여 분에 걸쳐 각종 포화를 미호천 남안의 아군 진지에 집중한 후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도섭을 시작하였다. 그들의 도하공격을 받은 각 연대는 일진일퇴의 격전을 반복했으며, 사단장은 진두에 나서 전투를 지휘하였다. 5시간 동안 지속된 격전이 있는 후 병력의 열세로 인해 사단의 주저항선은 와해되었고, 적은 교두보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현지 전선에 직접 나와 전투광경을 관찰하던 군단장은 수도사단장에게 앞서 하달했던 군단 작명 제10호를 실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적으로부터 이탈해 청주 남쪽 431고지-국사봉간에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진지구축에 주력하였다.¹¹⁷⁾

한편 7월 13일 05:00 무렵 청주로 접근한 북한군은 포병을 중앙에 배치한 후 시가지를 향해 포격을 개시하였다. 이후 청주의 서북쪽과 서쪽으로 기동한 북한군 제2사단은 7월 13일 자정 무렵에는 청주를 완전 점령하였다.¹¹⁸⁾

(3)

한편 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군단지휘소에서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백일 대령 등과 함께 청주고수 여부를 놓고 작전회의를 열었다. 일부 참모와 지휘관들은 병력의 손실을 보더라도 시가전을 전개할 것을 강

조한 반면 제20연대장 등은 훈련이 미비한 병력으로 특수전인 시가전을 전개하기는 무리이므로 미원-마동리-문의 선으로 철수해 방어선을 형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군단장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청주방어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청주를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¹¹⁹⁾

4. 전투 결과

북한군 제1군단의 좌익인 제2사단은 경부 축선의 좌측을 따라 남진해 아군의 전선을 양단한 후 대전을 좌측으로부터 압박을 가하려 하였다. 그러나 수도사단의 저항에 막혀 그러한 기도가 좌절되었고, 다음 작전단계로의 진행에 차질을 가져와 결국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한강방어선이 와해된 후 무게획적으로 분산 철수한 수도사단은 부대의 재편과 함께 실시된 이 전투로 인해 “이제 싸워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배경에는 군의 전선정제에 필요한 시일을 확보하기 위한 군단장과 사단장 등의 철두철미한 작전지도, M-2형 105mm 곡사포와 같은 신형장비의 확보, 적시에 실시된 우군기의 항공지원과 같은 요인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장병의 사기를 고취한 것이 작용하였다. 또한 “여기서 지면 설 땅이 없다”는 장병들의 결의가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였다.

진천전투는 결과적으로 축차적인 철수와 지연전을 통해 국군과 유엔군이 소백산맥-금강을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한 중요한 전투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 기간을 통해 수도사단이 올린 전과와 피해는 다음과 같다. 적 사상 550명, 포로 5명을 획득하였고, 장총 10정과 다발총 21정, HMG 9정, LMG 3정, 권총 2정 등을 노획하는 한편 박격포 5문을 노획 및 파괴하였다. 반면에 수도사단은 전사 28명, 전상 1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¹²⁰⁾

제 5 절 음성 전투

1. 전투 개요

음성 전투는 1950년 7월 4일부터 13일까지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제1사단과 육군직할 제6사단 제7연대가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5사단과 이를 지원하는 제1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무극리, 동락리, 가장동 등 음성 일대에서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당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는 여주-장호원간 도로를 따라 남진하는 북한군 제15사단을 저지하는 한편 국군 제1사단의 음성진출을 엄호하는 임무를 맡고 음성 북방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다.¹²¹⁾ 또한 재편성 이후 제1군단에 예속되어 음성 지역의 방어임무를 부여받은 제1사단은 철도 및 차량을 이용해 청주와 증평을 경유 7월 8일 음성 일대에 전개하였다.

반면에 북한군 제15사단은 광주-진천 방향으로 진출하는 제2사단과 원주-충주 및 제천 방향으로 진출하는 제12사단 사이에 발생한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 홍천에서 투입되었다.¹²²⁾ 그리고 여주 방향으로 진출해 장호원을 점령한 후 음성을 공격하기 위해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를 투입하였다.

이런 가운데 제6사단 제7연대는 가엽산 및 부용산 일대에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장호원-음성 및 장호원-충주 방향으로 공격을 가해오는 북한군 제15사단을 무극리 및 동락리에서 저지하였다. 이어 7월 8일 제6사단 제7연대로부터 전선을 인수한 제1사단은 소여리, 용산리, 비산리 등에서 북한군의 침공을 1차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제1사단은 증원 병력인 북한군 제1사단의 지원을 받은 제15사단의 총공세와, 그리고 인접부대와와의 전선조정을 위한 제1군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괴산 및 미원으로 축차적인 철수를 실시하였다.

한편 음성의 지리적인 상황은 충주-음성-청주를 연결하는 36번 도로와 장호원-음성-괴산을 잇는 507번 도로, 그리고 음성-목도리-괴산을 연하는 516번 도로가 음성을 통과하고 있다. 또한 음성 일대에는 장호원-무극-진천을 잇는 593번 도로와 장호원-생극-충주를 연결하는 3번 도로가 있다.

음성의 지형적인 조건은 400~500m의 많은 고지들로 둘러싸여 분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변에는 가엽산(△710), 부용산(△644), 보현산(△507), 보덕산(△507), 가막산(△510) 등 주요 감제고지들이 있으며, 음성천이 부용산과 가엽산에서 발원해 음성 시내를 관류한 후 남동쪽으로 흐르다가 괴산 북쪽에서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에 합류한다.¹²³⁾

2. 북한군과 국군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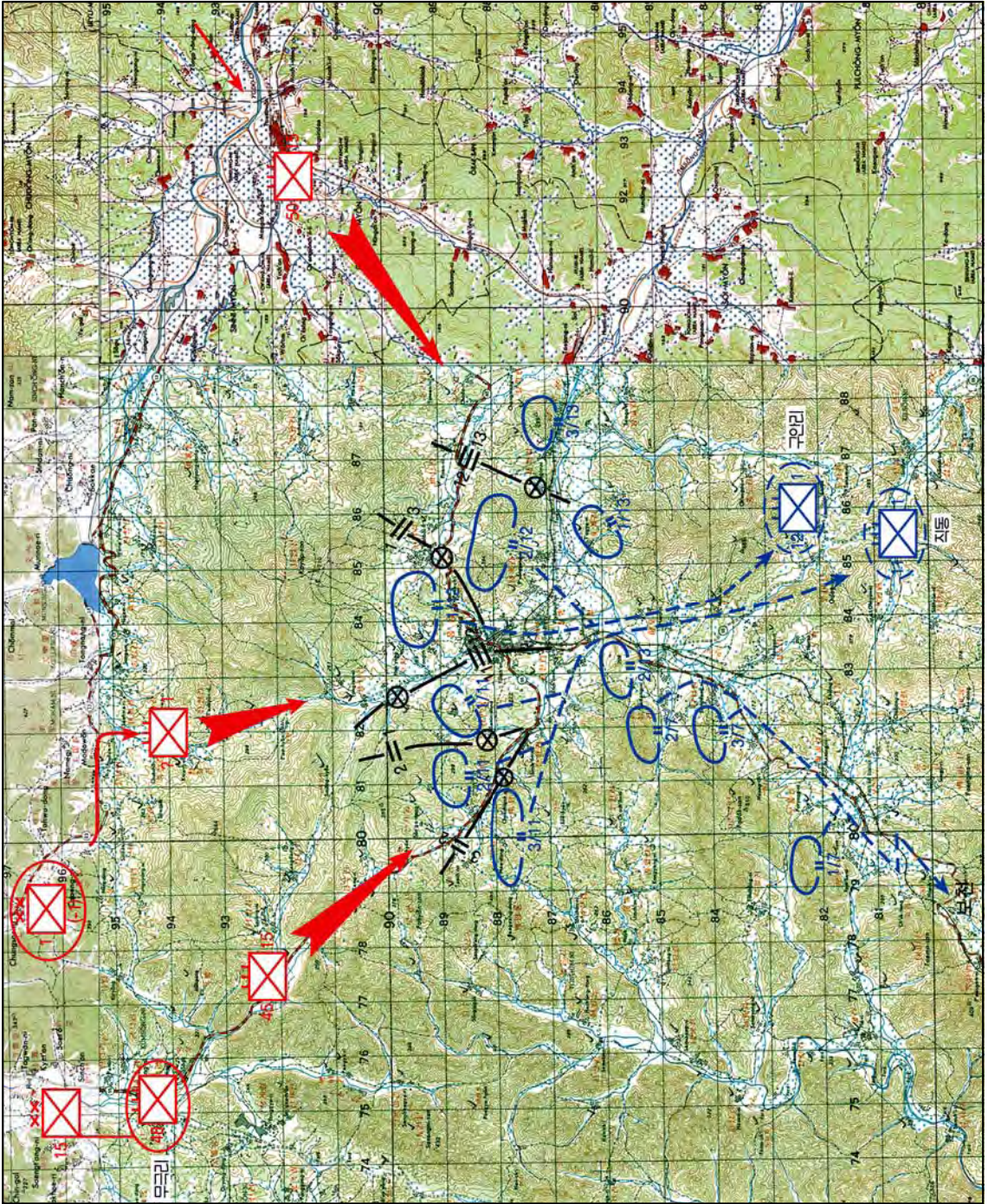
1) 북한군 상황

(1)

중서부지역 요충인 음성 북방에는 남한강을 도하해 이천-장호원 방면으로 남진하고 있던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5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제15사단은 제12사단이 홍천을 점령하자 7월 1일 전선에 투입되었다.¹²⁴⁾ 제1단계작전에서의 차질로 인해 발생한 제2사단과 제12사단간의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 홍천에 투입된 사단은 홍천-여주간 도로를 따라 국군을 추격한 후 장호원 및 음성을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사단 예하의 제45연대와 제48연대는 사단의 주력으로 음성을 공격하고, 제50연대는 1개 포병대대를 지원받아 제12사단의 충주 점령을 지원하였다.¹²⁵⁾

한편 고속기동부대로 편성된 제603모터사이클연대 예하의 1개 대대는 제15보병사단과 함께 홍천에 투입되어 홍천-여주간 도로를 따라 서남 방면으로 후퇴하는 국군을 추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¹²⁶⁾

<상황도 6-6> 음성지구 전투



(2)

북한군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예속이 전환되어 홍천-여주-음성 방향으로의 진출임무를 부여받은 제15보병사단은 2개 보병연대로 병진공격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45연대와 제50연대가 제603모터사이클연대 예하의 1개 대대와 함께 제1제대로 편성되었고, 사단예비로 편성된 제48연대는 제2제대로서 제1제대를 후속하였다. 또한 화력지원은 포병연대 예하의 3개 포병대대가 담당하였다.¹²⁷⁾ 한편 사단의 우익에는 제1군단으로 예속이 전환된 제2보병사단이 투입되었고, 좌익에는 제12보병사단이 있었다.¹²⁸⁾

2) 국군상황

(1) 1

국군 제1사단은 군단의 우일선부대로서 중서부지역의 음성 방면에 대한 방어 임무를 부여받았다. 제1사단은 제11연대·제12연대·제13연대를 예속하고 1950년 7월 5일에 창설된 제1군단에 편입되었으며,¹²⁹⁾ 주력을 이동해 공세이전을 실시하려는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작전지역으로 이동하였다.¹³⁰⁾ 한편 제1사단의 음성 전개에 앞서 제6사단 제7연대는 여주-장호원간 도로를 따라 남진하는 북한군 제15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군 제1사단의 음성 집결을 엄호하기 위해 음성 북방에 진출하여 진지편성을 완료하였다.

7월 8일 음성에 진출한 제1사단은 제6사단 제7연대로부터 전선을 인수하고 병력을 전개하였다. 음성 시내에 사령부를 설치한 제1사단은 제11연대를 좌전방에, 제12연대를 우전방으로 하여 제1일선에 배치하고, 제2선에 제13연대를 배치하였다. 당시 제1사단은 예하에 보병 3개 연대를 두고 있었고, 1개 보병연대와 1개 대전차포중대, 1개 야포대를 배속하고 있었다.

사단의 전체 병력은 6,500여 명이었고, 주요 장비는 105mm 유탄포 6문, 57mm 대전차포 4문, 81mm 박격포 19문과 60mm 박격포 24문, 그리고 2.36" 로켓포 37문과 50mm 기관총 17정, 30mm 기관총 40여 정을 보유하고 있었다.¹³¹⁾ 그러나 이러

한 전력은 1개 연대의 장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증평에서 통합한 제15연대와 배속된 제6사단 제7연대까지 합한 것이었다.

한편 책임방어지역인 음성지역에 투입된 제1사단의 전투편성 및 지휘관은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을 비롯해 사단장 백선엽(白善燁) 대령과 참모장 석주암(石主岩) 대령이었으며, 각 참모는 인사참모 김병온(金炳濶) 중령, 정보참모 최혁기(崔赫基) 소령, 작전참모 문형태(文亨泰) 중령, 군수참모 이철희(李哲喜) 중령으로 편성되었다.

제1사단은 제11연대·제12연대·제13연대의 3개 보병연대로 편성되었으며, 각 연대는 3개 보병대대로 이루어졌다. 제11연대의 전투편성은 연대장 최경록(崔慶祿) 대령과 제1대대장 장근술(張根述) 대위, 제2대대장 정영홍(鄭永洪) 소령, 제3대대장 김재명(金在命) 소령이었다. 제12연대는 연대장 김점곤(金點坤) 중령과 제1대대장 신현홍(申鉉洪) 소령, 제2대대장 이무중(李茂重) 소령이었다. 그리고 제13연대는 연대장 최영희(崔榮喜) 대령과 제1대대장 김진위(金振暉) 소령, 제2대대장 안광영(安光榮) 소령, 제3대대장 최병순(崔炳淳) 소령이었다.

그리고 배속부대인 제6사단 제7연대의 전투편성과 주요 지휘관은 연대장 임부택 중령과 부연대장 최영수 중령, 제1대대장 김용배 소령,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 제3대대장 이남호 소령이며, 또한 대전차포중대장 박철원(朴哲遠) 대위와 제16야전포병대대 제2포대장 이만호(李萬浩) 중위로 편성되어 있었다.

(2)

중서부지역의 우전방인 음성 일대에 대한 방어임무를 부여받은 제1사단은 지연전을 실시해 남한의 남동부를 신속하게 장악하기 위해 음성을 점령하고 괴산-상주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15사단의 기도를 좌절시키는 한편 국군의 전선조정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얻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제1사단은 제5사단 예하의 제15연대를 흡수해 제13연대와 통합했고,¹³²⁾ 앞서 음성 일대에 진출해 있던 제6사단 예하의 제7연대를 진지인수와 동시에 작전통제하에 둬으로써 전투태세를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동과정에서

각 연대를 학교 또는 공공시설 등에 집결시켜 부대나 개인이 도착하는 즉시 수용하였다. 그리고 전투 중 손실 또는 행방불명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공백은 선임자로 보충 발령하고, 이로 인해 부족한 소대장은 선임 부사관으로 충당하였다. 사단은 이처럼 부대의 건제를 유지하면서 2개 소대에 미달하는 중대는 재편성을 실시하였다.¹³³⁾

한편 제6사단 제7연대는 제1사단의 음성 전개에 앞서 북한군 제15사단이 점령한 장호원에 대한 탈환임무를 사단장으로부터 부여받고, 적정을 파악한 후 그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춘천전투 이후 실시하지 못한 부대정비를 통해 병력 및 장비를 점검함으로써 전투준비를 완료하였다. 당시 제7연대의 전력은 장교 88명, 사병 1,626명의 병력과 105mm 유탄포 6문, 57mm 대전차포 4문, 81mm 박격포 10문, 60mm 박격포 18문을 보유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충주중학교에 사단지휘소를 설치하고 있던 7월 4일 20:00 장호원에서 철수한 사단헌병대 및 강원도 전투경찰대로부터 북한군 제15사단이 장호원을 향해 남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¹³⁴⁾ 사단장은 북한군의 남진이 계속될 경우 서부전선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판단하고 충주중학교에 집결해 있던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에게 장호원을 사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적정을 확인한 후 연대 주력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각 대대장 및 참모요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적은 현재 장호원선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② 연대는 이 적을 격파하고 장호원을 확보하려 한다.
- ③ 제2대대는 지체 없이 장호원 방면으로 진출해 적과 접촉을 유지하고 그들의 병력 규모와 진출선을 보고하라.
- ④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출동태세로 대기하라.
- ⑤ 협조지시
- ㉠ 각 대의 기동은 차량으로 한다.

- ㉠ 방광, 방음을 철저히 하라.
- ㉡ 이동간의 통신은 무선으로 한다.¹³⁵⁾

3. 전투 경과

1) 음성북방 전초전

(1) 7

연대장으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은 제2대대는 차량을 이용해 7월 4일 22:00경 연대집결지인 충주중학교를 출발하였다. 장호원을 향해 집결지를 출발한 제2대대가 음성 북쪽 7km지점의 동락리 부근에 도달했을 때, 대대장은 전방에서 기계화부대의 기동소리가 들린다는 침병중대장의 보고를 받았다. 대대장은 침병소대장 윤수용(尹銖庸) 소위에게 행군을 계속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전면에 주의력을 집중하고 차량의 전조등을 소등하도록 하였다.

기동을 시작한 차량행렬이 동락리를 지나 모도원(毛陶院)의 산모퉁이를 통과할 무렵 침병소대의 50mm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이는 침병소대가 장갑차 1대와 여러 대의 사이드카로 편성된 북한군 정찰대를 만나 사격전을 전개한 것이었다. 갑작스런 조우전으로 인해 본대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300m 후방에서 뒤따르던 대대장은 총성을 듣고 적과 조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대장은 즉시 대대병력을 하차시켜 도로 북측의 산기슭으로 전개시키는 한편 제8중대에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사격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적의 응사가 없자 그들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한 대대장은 야습에 대비하도록 병력배치를 조정한 후 연대장에 상황을 보고하였다. 날이 밝은 후 대대는 교전장소에서 북한군 장갑차 1대와 사이드카 5대, 시체 5구를 발견하였다.

7월 5일 02:00경에 제2대대장으로부터 교전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공백상태인 무극리-음성간 도로를 방어하기 위해 제1대대를 투입하는 한편 제3대대를

병암리 방면으로 이동시켰다. 이때 제3대대는 횡성 남쪽의 지연전 과정에서 분산된 병력을 새로 대대장으로 임명된 이남호 소령이 수습하고 있었다.

05:00를 기해 제2대대를 모도원에서 반전시킨 연대장은 1시간 후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출동을 확인한 후 분산된 각 대대의 상황파악을 위해 08:00에 연대 본부를 음성으로 이동하였다.¹³⁶⁾ 이 무렵 연대장은 무극리를 향해 나아가던 제1대대로부터 1개 중대규모의 북한군 정찰대를 격퇴시켰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3시간 후에는 기름고개(油峴)에서 북한군 1개 대대로부터 역습을 받고 있어 지원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았다.¹³⁷⁾

제2포병중대와 57mm 대전차포중대를 소여리로 추진시킨 연대장은 진천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복귀한 제2대대에게 제1대대를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적과의 정면충돌을 피할 것과 유리한 지형에서 기습을 가해 최대한의 시간을 얻을 것을 병암리로 진출한 제3대대에 지시하였다. 또한 연대 중앙의 가엽산에는 춘천경찰서장 조규홍 중령이 지휘하는 전투경찰대를 배치해 경계임무를 부여하고, 일부 병력으로 피난민을 통제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날이 밝자 전리품을 후송하고 부대를 정제한 다음 모도원까지 이동한 제2대대는 즉시 진천으로 나가 제19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았다. 진로를 돌려 대소원에 도달한 대대는 이곳에서 작전참모 양중호 중령으로부터 “충주로 갈 필요 없이 바로 진천으로 직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울러 연대본부와 사단사령부도 곧 음성과 증평으로 이동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대대는 곧장 진천을 향해 출발했고, 도중에 도착한 증평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10:00경에 사단 연락장교로부터 음성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음성으로 복귀한 대대는 제1대대의 동측방에 배치되어 제1대대의 무극리 진출을 엄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2)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제1대대장 김용배 소령은 7월 5일 06:00에 무극리로 부대를 출동시켰다. 두 시간 후 앞서 가던 정찰

대가 소여리를 지나 기름고개로 접어들 때, 고개를 넘고 있는 한 무리를 발견하였다. 정찰대장 이상우 중위는 본대에 정지신호를 보내고 대원들을 도로감제가 가능한 언덕위에 배치하고 무리의 동정을 살폈다. 자전거를 탄 군인과 사복한 몇 명이 앞장을 서고, 뒤에는 1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행군대형으로 따르고 있었다.

100m 전방에 접근하면서 그들이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대에 보고하기엔 늦었다고 판단한 정찰대는 그들을 향해 사격을 집중하였다. 기습공격을 받은 그들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으나 제3중대가 발사한 60mm 박격포격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급기야 40여 구의 시체와 자전거 2대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3시간이 경과한 후 제1대대의 주력이 기름고개 정상에 이르렀을 때, 도주한 북한군의 본대로 보이는 1개 대대규모가 고개의 서쪽에 있는 보현산 동쪽의 험한 지형을 이용해 포격을 가하면서 제1대대의 전진을 저지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연대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기름고개 동쪽의 385고지 일대에서 적과 대치했으며, 18:00경 용산리로 이동한 제2대대와 연계해 그들의 야간침투에 대비하였다.

한편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제1대대와 제2대대가 야간을 이용해 보현산 북단의 376고지와 385고지를 각각 점령함에 따라 7월 6일 04:00를 기해 공격을 재개, 무극리를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제1대대와 제2대대, 그리고 제2포병중대는 약정된 신호에 따라 04:00에 각종 화기의 화력을 일제히 보현산으로 집중하였다.¹³⁸⁾

385고지에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던 북한군은 아군의 측면사격으로 더 이상 지탱을 하지 못한 채 퇴각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기회를 잡은 제1대대장은 81mm와 60mm 박격포로 계속 적을 제압하도록 하고, 105mm 포의 사격을 보현산 서쪽의 346고지로 연신시킨 후 제1중대와 제2중대를 각각 우일선과 좌일선으로 하여 반격토록 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이미 고지를 포기하고 346고지 방향으로 퇴각한 후였다. 공격 개시 1시간도 못되어 보현산을 점령한 대대는 제2대대와 제2포병중대의 지원 아래 도주하는 적을 추격해 12:00경 무극리를, 그리고 14:00에는 무극리 북쪽 2km까

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¹³⁹⁾

그러나 도주하던 북한군은 새로운 병력을 증원받아 1개 연대규모로 장갑차를 앞세운 채 포격을 가하면서 대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¹⁴⁰⁾ 이에 대대장은 무극리의 확보를 포기하고 백야리 지역의 351고지에 진지를 편성,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급편 방어태세에 들어간 제1대대는 북한군의 움직임에 감지할 수 없었다. 다음날 저녁 무렵 소대규모의 적 정찰대들이 507번 도로상에 출현한 후 사라졌으며, 이를 대대관측소에서 바라보고 있던 대대장은 적의 야간기습을 예상하고 대비하였다.

(3) 141)

엄호부대도 없이 병암리를 향해 출발한 제3대대는 동락리 부근을 지나던 7월 5일 08:00경에 북한군 정찰대를 만나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대대장 이남호 소령은 도로상에서 우왕좌왕하는 적의 퇴로에 박격포 사격을 집중하고 2개 중대로 그들을 추격하는 한편 2개 중대로 공격중대를 지원토록 하였다. 대대는 도주하는 적을 모도원 북쪽까지 추격하면서 병암리로 진출하려 했으나, 17:00경에 그들의 증원 병력이 합류함에 따라 1개 중대를 제외한 주력은 동락리로 복귀해 야간 기습에 대비하였다.

7월 6일 아침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제3대대장 이남호 소령은 모도원에 잔류시켰던 제9중대까지 본대에 합류시킨 뒤 08:00에 차량을 이용하여 동락리로부터 철수를 개시하였다.

대대장은 병력 수송차량이 견학리(음성 북쪽 6km) 부근에 이르자 병력을 선두로부터 차례로 하차시킨 후 빈 차량은 음성의 연대본부로 돌려보내고, 병력은 음폐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아울러 제10중대를 잔류시켜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대 주력은 마수리(견학리 남쪽 2km)-가엽산을 거쳐 용평리 부근으로 우회, 14:00경 신덕저수지 남단의 S자형으로 된 3번 도로변에 전개시켰다. 이로써 대대는 아침의 철수 이전과 거의 같은 장소에 다시 배치된 상태였으나, 모도원과 동락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국군이 충주로 철수한 것으로 알 수

밖에 없었다.

30분이 경과하자 남으로 향하는 피난민의 대열이 도로를 메우며 내려오고 있었다. 피난민으로부터의 첩보를 통해 북한군이 모도원까지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된 대대장은 여러 주민의 제보를 분석한 후 그들이 곧 이곳을 통과할 것이라고 각 중대에 통보하고 방어태세를 굳건히 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제1대대와 병행해 무극리를 공격한 제2대대는 7월 6일 13:00 무렵 무극리 동북쪽의 무명고지를 점령했으나, 제1대대가 적의 역습을 받고 백야리로 철수함에 따른 연대의 명령으로 가엽산 서쪽의 644고지로 철수하였다. 대대는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산간로에 대한 방어와 병암리-대소원간, 그리고 무극리-음성간의 적정을 보고하는 임무를 부가적으로 부여받았다.¹⁴²⁾

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부대를 644고지로 이동시켜 배치한 후 쌍안경으로 사방을 두루 살피던 중 동락리의 학교 교정에 북한군의 대병력이 집결해 있음을 관측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군인들이 바글거리고 10여 문의 야포가 충주 방향으로



동락국민학교의 6·25전쟁 당시 모습

방열되어 있었으며, 노상에는 장갑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이 줄지어 있었다. 적이 완전히 무방비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각 중대장들은 즉시 그들을 공격할 것을 대대장에게 건의하였다. 그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대대장은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대대는 동락리에 침입한 적을 격멸하려 한다.
- ② 제5중대는 1개 소대를 이곳에 잔류시키고, 220고지(동락리 남쪽 1km) 북단부를 점령해 동락리의 적을 격멸하라.
- ③ 제6중대는 216고지(동락리 동쪽)의 남단부를 점령하고 동락리의 적을 격멸하라.
- ④ 제7중대는 215고지(동락리 서쪽)-대화리(215고지 남쪽)를 점령하고 동락리의 적을 격멸하라.
- ⑤ 제8중대는 제5중대 지역으로 이동해 적의 포진지를 격파하라.
- ⑥ 협조지시
 - ㉠ 각 중대는 위장을 철저히 하고 적에게 관찰당하지 않도록 하라.
 - ㉡ 제6중대의 사격개시에 맞추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라.
 - ㉢ 아군간의 오인사격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이탈을 금한다.
 - ㉣ 대대장은 제8중대와 같이 위치한다.¹⁴³⁾

명령 하달이 완료된 15:00에 각 중대는 3개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했고, 부대 대장 허용우 대위는 잔류대장으로써 제5중대의 1개 소대만을 지휘해 644고지를 방어하였다. 대대장 김종수 소령과 81mm 박격포반장 신용관 중위는 각각 포탄을 2발씩 메고 220고지로 이동했으나, 제6중대와 제7중대는 눈과 발을 가로지르고 3번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위험부담 때문에 전진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각 중대는 적과의 거리가 200~300m인 각각의 진지로 무사히 이동하였다.

17:00 정각에 제6중대 지역으로부터 총성이 울리자 제5중대와 제8중대는 북한군이 집결한 방향을 향해 소총사격을 집중하였다. 휴식을 취하거나 저녁식사 준비를 하던 그들은 기습사격을 받고 쓰러졌고, 또한 사방으로 뛰쳐나갔다. 이 와중에도 적의 포병은 제8중대를 향해 포격을 가하기 위해 사거리를 조정하기

시작했고, 포신은 높이 치솟고 있었다.

그러나 대대는 포관을 장착하지 못함으로써 포격을 하지 못하고, 북한군의 포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피투성이가 된 부사수가 포관을 메고 달려왔고, 박격포반장이 포신을 포관 위에 올려놓고 팔로 높낮이를 조정하며 1발을 발사하였다. 이 포탄은 마침 거리조정을 끝낸 적의 포진 중앙에 떨어지고, 연이은 포격이 그들의 탄약고에 명중하였다. 주변이 어두워짐에 따라 대대는 아군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현 위치를 고수하라는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철저한 경계태세에 돌입하였다.¹⁴⁴⁾

한편 저녁 무렵 동락리 부근에서 포성과 총성이 들리면서 한 무리의 병력이 제3대대의 전면으로 다가왔다. 대대의 좌일선인 제11중대장이 이들이 비무장한 북한군임을 확인하여 보고하자 대대장은 그들이 가까운 거리로 접근한 후에 집중사격을 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한 병사의 오발로 대대의 모든 화기가 집중사격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놀란 그들은 다시 도로 북쪽 고지로 도주하였다.

다음날인 7월 7일 05:00에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전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북한군의 유기시체가 1,000여 구에 이르고, 이들로부터 122mm 곡사포 6문, 76mm 곡사포 8문, 중기관총 및 경기관총 41정, 권총 및 소화기 등 2,000여 정, 장갑차 10대 및 사이드카 20대, 질차 20대와 2½톤 차량 40대, 그리고 통신장비 등을 노획한 사실을 알았다.¹⁴⁵⁾ 대대장은 노획한 적의 장비를 후송할 수 있는 방안을 군수주임과 협조하라고 작전장교에게 지시하였다. 그리고 3번 도로의 차단과 적의 접근을 경계하는 임무를 제7중대에게 부여하고, 다른 3개 중대는 마을에 들어가서 수색으로 전과를 확대하도록 지시하였다.

잠시 후 병사들은 마을 주변에 숨어있던 적을 사로잡아 대대장 앞으로 끌고 나왔다. 그 수는 97명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소좌급의 연대 군수참모와 중대장 등 간부장교 5~6명도 끼어있었다. 이때 투입된 북한군의 병력은 장갑차와 포병 지원부대까지 합해 2,000여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아군으로부터 불의의 사격을 받고 우왕좌왕하다 1개 대대규모가 충주 방면으로 진입, 제3대대로부터 기습사격을 받고 다시 한번 큰 피해를 당하였다.¹⁴⁶⁾



가업산 기슭에 세워진 동락리전투 전승비

한편 제3대대장 이남호 소령은 좌일선의 제11중대는 제2대대와 연계하고, 나머지 중대에는 진지전면의 수색을 지시하였다. 수색 결과 지난밤 제11중대가 확보하고 있던 진지전면에서 북한군 유기시체 100여 구와 동락리로 연결된 도로상에서 10여 구의 시체를 추가로 발견하였다.

약 30분 후 제2대대와 연계한 제3대대는 376고지 방향으로 도주하는 30여 명의 북한군을 추격해 5명을 사로잡고 나머지를 사살한 후 전투를 종결하였다. 이후 제3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08:00에 모도원으로 이동, 그들의 역습에 대비하면서 노획품 후송작전을 엄호하였다.

(4)

북한군의 움직임을 통해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병암리와 무극리가 이미 피탈되었고, 그들이 음성-충주 방향으로 진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였다.¹⁴⁷⁾ 따라서 장호원 방면에 대한 공격을 지양하는 한편 음성지구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

구하였다. 연대장은 무극리까지 진출한 제1대대를 백야리로, 제2대대를 644고지로 각각 철수시키고 3번 도로를 따라 병암리로 진출한 제3대대도 가엽산 북단으로 우회시켜 음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이로써 각 대대는 7월 6일 14:00 무렵 계획된 진지를 확보하였다.¹⁴⁸⁾

그러나 일몰 무렵 연대장은 제2대대가 동락리 부근에서 적과 교전중임을 제1대대와 제3대대를 통해 보고받았다. 이에 연대장은 각 대대장에게 현 위치를 고수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제3대대장에게 제2대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 이동을 금할 것과 날이 밝는 즉시 제2대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7월 7일 05:00 연대장은 전날 저녁 무렵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던 제2대대로부터 동락리에서 북한군 1개 연대를 섬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07:00 무렵 제2대대의 전과를 확인하기 위해 작전지역에 나온 연대장은 제3대대를 모도원 방향으로 진출시켜 적의 역습에 대비시키는 한편 제2대대에는 주변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정보주임 김동명 대위에게 포로와 노획문서를 분리해 후송하도록 하고, 군수주임 조한섭 대위에게 노획차량과 연대의 병력수송차량을 동원해 장비를 후송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직접 지원하였다.

이처럼 노획장비 후송과 전장정리 지휘에 주력한 연대장은 해질녘에 제2대대와 제3대대를 644고지와 가엽산 북쪽 기슭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 무렵 연대장은 “제1사단이 음성지구를 방어하기 위해 현재 증평에 도착하였다. 연대는 제1사단의 전개가 완료될 때까지 제1사단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하라”는 사단장의 전신명령을 받았다.¹⁴⁹⁾

2) 주저항선 전투

(1) 1

제1군단의 우익으로 음성지구로 이동하기 위해 평택부근에 집결, 병력을 수습하고 있던 제1사단은 7월 6일 북한군이 안성-평택 근교까지 도달함에 따라 제

편이 완료되기도 전에 성환에서 열차와 차량, 그리고 도보로 음성을 향해 각각 이동하였다. 당시 음성지구는 제6사단 제7연대가 작전 중에 있었으며, 즉각 전투 태세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지 못했던 제1사단은 일단 증평에 머물며 최종적으로 부대정비를 실시하였다.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7월 6일 성환에서 청주로 이동하고 있던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으로부터 제5사단의 예비부대를 통합지휘, 음성으로 직행해 군단의 우익을 담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¹⁵⁰⁾ 이에 사단은 음성을 향해 출발했고, 도중에 증평에 집결해 부대정비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제5사단 예하의 제15연대를 증평에서 제13연대와 통합해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였다.¹⁵¹⁾

이어 사단장은 작전협의를 위해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을 만나 음성지구의 적정을 청취하고 진지교대를 위한 인수인계 일시를 7월 8일 15:00로 정하는 한편 동시부로 제7연대를 작전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부대정비의 완료와 함께 7월 8일 05:00에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12:00까지 제11, 제12, 제13연대순으로 음성지구로 진입할 것을 참모장 석주암 대령에게 지시하였다. 이어 각 연대의 대대장급 이상의 선발대 요원과 함께 지형정찰을 위해 음성으로 출발하였다. 일행은 음성 서남쪽 7km의 보천에 설치된 제7연대 전방지휘소에서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으로부터 북한군의 동향과 전투 및 부대 배치상황을 브리핑 받았다.

사단장은 2개 연대규모의 병력일지라도 장비는 1개 연대 수준에도 미달하고 기동력도 없을 뿐 아니라 18:00 이후에는 제7연대마저 현재의 배치선에서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¹⁵²⁾ 그리고 적을 음성 근교로 유인해 타격을 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하고 음성 북측과 남측의 외곽 주요 지역에 저지선을 형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10:00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

- ① 사단은 7월 8일 15:00를 기해 음성지구의 방어임무를 제6사단 제7연대로부터 인수하고 동시부로 동 연대를 작전상 통제한다.

- ② 제12연대는 15:00까지 393고지(음성 동쪽 2km)－용추리(음성 북쪽 1km)간에 부대를 전개하고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라.
- ③ 제11연대는 15:00까지 299고지(음성 서북쪽 3km)－족지곡(299고지 서쪽 1km)간에 부대를 전개하고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라.
- ④ 제13연대는 15:00까지 229고지(음성 남쪽 3km)와 하당리(음성 남서쪽 3km)간에 부대를 전개하고 제2저지선을 형성하라.
- ⑤ 제7연대는 현 진지를 계속 확보해 제11, 제12, 제13연대의 전개를 엄호하고 18:00를 기해 보천으로 철수하라.
- ⑥ 제16포병대대 제2포대는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 ⑦ 제7연대 대전차포중대는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 ⑧ 사단 공병대는 사단사령부를 경계하라.
- ⑨ 탄약보급소 및 육군병원은 대전에 위치한다.
- ⑩ 사단사령부는 음성에 위치한다.¹⁵³⁾

각 연대장은 사단의 작전명령을 받고 예하의 대대장과 함께 배정된 방어의 지역의 지형정찰을 위해 출발했고, 집결지의 각 연대는 참모장의 지휘에 따라 방어진지로 진입하기 위한 행군을 계속하였다.

(2)

지형정찰을 마친 제12연대장 김점곤 중령은 연대가 담당할 사단의 우일선 지역에는 충주－음성간 36번 도로와 병암리－충주간 3번 도로가 대소원(음성 동북쪽 9km)에서 교차하며, 병암리－대소원간 3번 국도상의 모도원 부근에는 가엽산과 644고지 사이를 통과하는 산간로가 곧장 음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36번 도로와 산간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느낀 연대장은 제2대대를 우일선으로 393고지에, 제1대대를 좌일선으로 용추리 부근에 전개해 15:00까지 진지편성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

19:30경 연대장은 가엽산 북쪽 기슭에 배치되었던 제7연대 제3대대가 연대의 방어지역을 통과해 보천으로 이동중인 것을 확인하고 야간방어에 대비하였다.

이때 서쪽으로부터 포성과 총성이 연대지역에 울려 퍼졌는데, 이는 제7연대의 철수를 알아차린 북한군의 기습으로 판단되었다.¹⁵⁴⁾ 따라서 각 대대장은 예상되는 적의 접근로상에 국지경계병력을 보강하고 그들의 기습에 대비하였다. 하지만 부대배치를 고지의 하단부로 조정함으로써 개인호를 구축하지 못하고 지형지물에만 의존하였는데, 제13연대 제3대대가 우측에 배치됨에 따라 방어에 큰 도움이 되었다.

7월 9일 04:30 대대방어정면에 갑작스레 포탄이 작렬하기 시작했고, 점차 대대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대대관측소가 설치된 393고지는 병력이 은신하기에 용이했지만, 저지대인 도로변에 배치된 병력은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약 30분이 경과하자 북한군의 포격은 점점 서쪽으로 옮겨가 음성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안개로 덮인 36번 도로상에서 북한군 기계화부대의 기계음이 들려왔다.

대대장 이무중 소령은 확인을 위해 제13연대 제3대대와 접경한 제7중대를 야전전화기로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고 다른 중대도 마찬가지로였다. 뿐만 아니라 연대와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단선된 듯 하였다. 대대장은 관측소에서 나와 교육관 전자열 중위와 함께 각 중대지역을 순회하면서 피해상황을 확인하였다. 10여 명의 사상자를 확인했으나 도로변에 배치되었던 병력은 보이지 않았다.

대대장은 이들이 극심한 포격을 피해 안전지대로 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관에게 행방을 찾게 하였다. 그리고 제5중대와 제6중대를 다시 393고지의 8부능선에 배치하자 적탄을 피해 음성 부근까지 물러났던 제7중대가 복귀함으로써 대대는 원상을 회복하였다. 장갑차를 선두로 한 북한군 1개 대대는 아군의 저지선 돌파를 위해 수차에 걸쳐 파상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12:00경 대소원 방면으로 되돌아갔다.

한편 좌일선 부대로 용산리에 배치된 제1중대 역시 7월 9일 06:00부터 산간로를 따라 침입한 북한군의 기습으로 용추리까지 후퇴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제2중대와 제3중대를 병행공격시켜 각 진지를 다시 확보하였다. 그러나 보유탄약이 부족해 14:00에 제2중대와 제3중대를 복귀시켜 용추리선을 보강, 제11연대와 연계하였다.

(3)

사단의 좌일선으로 용산리-음성을 연하는 선의 서쪽지역을 담당한 제11연대는 북한군에 비해 병력이나 장비면에서 월등히 열세하였다. 따라서 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연대의 우일선으로 제1대대를 222고지에, 제2대대를 소여리(음성 서쪽 3km)-299고지간의 중앙 제1선에, 그리고 좌일선으로 제3대대를 내동(음성 서쪽 3.5km)-족지곡(소여리 남쪽)간에 전개시켜 역팔자형 진지를 편성하였다.¹⁵⁵⁾ 따라서 연대는 예비 병력을 유지할 수는 없었다.

7월 8일 15:00경 제11연대는 제7연대의 암호를 받으며 진지편성을 완료하고 방어태세에 들어갔는데,¹⁵⁶⁾ 이때 사단으로부터 “제7연대가 18:00를 기해 사단의 예비가 되어 보천으로 집결하므로 제11연대는 제7연대와 긴밀하게 협조해 제7연대의 최종통과시간을 확인하고 추격해올지 모르는 적을 철저히 경계하라”는 명령을 받고 각 대대에 이를 전달하였다.¹⁵⁷⁾

제2대대장 정영홍 소령은 명령에 따라 소대규모의 경계부대를 기름고개에 배치하고 대대관측소인 299고지에서 경계부대와 각 중대간에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해질 무렵 백야리에 있던 제7연대 제1대대가 계획대로 대대의 전면을 통과하기 시작하는데 이어 644고지의 제2대대가 19:30에 완전 통과하였다. 대대장은 상황을 연대장에 보고하고 각 중대에 “지역 내의 제7연대는 19:30을 기해 완전 철수하였다. 이후 접촉하는 것은 모두 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어둠이 내려 500m 거리의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시점에 기름고개의 경계부대로부터 소대규모의 병력이 기름고개를 통과해 대대 전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대장은 경계부대에게 385고지(소여리 북쪽 1km)의 능선을 따라 철수할 것을 지시하고 확인을 위해 대대중심부에 배치된 제6중대지역으로 갔다. 이곳에서 대대장은 100m 거리로 접근한 북한군 정찰대를 목격하고 각 중대에 별명이 있을 때까지 사격을 금지하도록 명령하였다.

북한군은 아군의 상황을 모른 채 대대지역으로 들어섰고, 또 다른 병력이 100m 정도의 후방에서 진입하고 있었다. 대대장은 이러한 상황을 연대에 보고하고 대대의 사격개시와 함께 적의 퇴로인 기름고개 입구와 보현산 동쪽 기슭에

대해 지원포격을 요청하였다. 또한 대대의 남단에 배치된 제7중대에게 “적의 선두가 중대지역을 벗어나기 직전에 사격을 가하라”고 지시하였다. 북한군 행군대열의 반 이상이 대대의 방어정면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는 순간 중대의 집중사격이 시작되었다.¹⁵⁸⁾

음성 외곽의 222고지 남쪽 기슭에 포진하고 있던 제16포병대대 제2포대장 이만호 대위는 사단 작전참모로부터 “1개 대대규모의 적이 507번 도로를 따라 남하해 소여리를 통과하고 있다. 기름고개 입구에 포격을 가해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 포격은 보병부대의 소총사격과 동시에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포대장은 즉시 전포대장에게 사격준비를 지시했고, 잠시 후 총성과 함께 5문의 105mm 곡사포가 기름고개 입구를 향해 불을 뿜었다.

한편 제3대대장 김재명 소령은 제2대대 지역에서 전투가 시작되자 부대대장에게 내동의 제11중대를 장악하도록 하고, 자신은 족지곡의 도로변에 배치한 나머지 중대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때 제2대대의 집중사격을 받은 북한군은 서쪽으로 뛰어들었지만, 제3대대의 공격으로 완전 분산되었다. 상황을 주시하던 연대장은 적의 저항이 없자 사격을 중지시키고 각 대대에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음날인 7월 9일 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지난 밤 전투에서 획득한 포로로부터 별다른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자 각 대대에 적의 습격에 대비해 방어태세를 철저히 할 것과 보천에 집결한 제7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가 연대의 서측방 엄호를 위해 하당리-상당리간에 배치되었으므로 상호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⁵⁹⁾

그러나 북한군은 지난밤의 전투에서 음성진출에 실패하자, 날이 밝기도 전에 음성 전역에 포격을 가하고 음성 동쪽의 사단 우일선 정면에 1개 연대를 배치해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지난밤 전투에서 패한 북한군 제15사단 제48연대를 대신해 투입된 제15사단 제50연대로써 8대의 장갑차로 증강되어 있었다. 06:00경 이 포격은 제11연대와 제12연대가 함께 지휘소로 사용하고 있는 음성 역사(驛舍)에 명중했고, 이에 따라 양 연대는 지휘소를 오리장교 밑으로 이전하였다.

이때 제1대대장 대리 장근술 대위는 전령을 통해 “용산리의 제12연대 경계부

대가 06:30 주진지로 철수함에 따라 산간로를 통해 침투한 적이 주진지대 전방으로 근접하고 있으며, 그 일부가 대대정면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용산리 일대에 포격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하지만 제2포대는 사단의 작전지시에 따라 제12연대 정면에 지원 사격을 실시하고 있었고, 제12연대 제1대대는 목표인 용산리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이 무렵 제2대대와 제3대대는 방어진지를 8부 능선으로 이동하던 중 북한군으로부터 포격을 받았다. 그러나 포격이 주로 507번 도로변으로 집중되어 양 대대 모두 큰 피해는 없이 10명 내외의 부상자만 발생하였다. 23:00경 북한군은 음성 일대에 포격을 가하며 동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다시 시작하였다.¹⁶⁰⁾

(4)

제13연대장 최영희 대령은 7월 8일 제1대대를 우일선으로 하여 229고지(음성 남동쪽 2.5km)에, 제2대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신천리(음성 남서쪽 2.5km)에 각각 전개시키고, 제3대대를 예비로 울남리(음성 남쪽 5km)에 두어 사단의 제2저지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연대장은 우측에서 충주를 방어하던 제6사단 제2연대가 이날 아침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을 받고 수안보로 이동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이에 사단의 동측을 방어하기 위해 사단은 1개 대대를 295고지 부근으로 이동토록 지시하고 대전차포중대를 배속시켰다. 연대장은 제3대대와 대전차포중대를 16:00부터 295고지에 배치하여 경계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7월 9일 04:00무렵 연대장은 경계진지에 나가 있는 제3대대장 최병순 소령으로부터 "대소원 방면에서 적이 04:00를 기해 대대지역으로 집중포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연대장은 즉각 이를 사단장에 보고함과 동시에 대소원 방면의 북한군을 제압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제2포대의 사정거리가 295고지에 미치지 못하므로 제3대대는 그들을 견제하며 편성된 진지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¹⁶¹⁾

한편 제3대대장은 연대는 물론 좌측의 제12연대 제2대대와도 통신이 단절되

고, 북한군의 포격이 점점 음성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 후 교육관에게 대대지역에 배치된 대전차포중대를 포함한 각 중대의 피해유무를 파악하고, 경계를 강화하면서 저지대에 설치된 국지경계초소를 현 시간부로 철수시키라고 지시하였다.

북한군은 23:00를 기해 음성의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포격을 가하면서 야간공격을 재개하였다. 적으로부터 포격을 받은 연대는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연대본부도 당촌(음성 남쪽 3km)에서 구안리(음성 남동쪽 6km)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5)

제1사단이 음성지구를 확보하고 있을 무렵 충주와 진천이 북한군에게 피탈됨에 따라 사단의 좌우측 모두가 노출되는 상황에 처하였다. 사단장은 곧장 제13연대의 1개 대대로 사단의 동측방을 방어토록 하고 동시에 보천으로 철수중인 제7연대의 2개 대대로 사단의 서측방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음성에 설치한 사단 사령부의 경계는 사단공병대에게 맡겼다.¹⁶²⁾

한편 제1사단의 진지점령을 엄호한 제6사단 제7연대는 북한군과의 접촉이 없자 7월 8일 18:00를 전후해 모든 배치선에서 철수를 개시하였다.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연대지휘소를 음성에서 보천으로 이동하고, 후방지휘소를 도안(증평 북동쪽 3km)으로 옮겼다. 그리고 보천 부근에 집결한 제1대대를 20:00에 연대본부의 북쪽 300고지에 배치한 후 연대의 경계임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철수 중에 있던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제1사단장으로부터 사단의 서측방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7연대(-1)는 21:00부터 1시간에 걸쳐 하당리(신천리 남쪽 1km)－상당리를 각각 확보하고 제1사단의 서측 정면을 보강하였다. 이로써 제7연대는 음성지구의 방어임무를 제1사단에 인계하고 예비로 전환했으며, 가업산의 강원전투경찰대는 상주방면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패전을 거듭하던 북한군 제15사단은 좌우에 인접한 북한군 제1사단과 제2사단이 충주와 진천을 점령하고 남하를 계속한데 자극을 받고 7월 9일 새벽을

기해 포격을 가하며 음성의 동·서 양측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¹⁶³⁾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적의 포격이 음성 일대로 번지자 사단 사령부 및 각 연대지휘소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과 유선통신망의 보수, 사상자 후송, 탄약추진 등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사령부는 06:30에 마송리(보천 북쪽 1km)로 이동했고, 동시에 각 연대지휘소도 옮기게 되었다.¹⁶⁴⁾

3) 괴산 북방 지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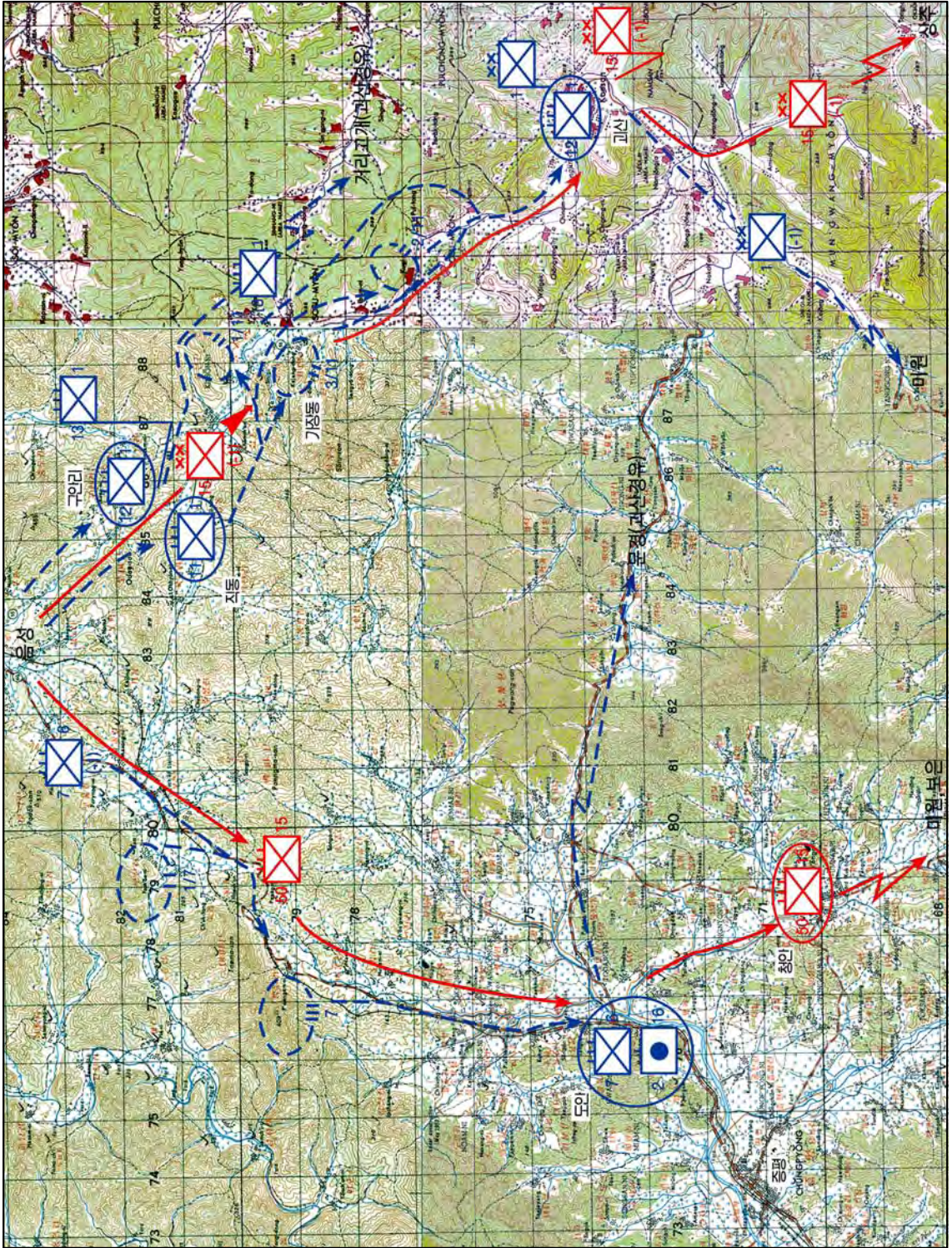
(1)

7월 9일 야간 공격을 개시한 북한군은 7월 10일 아침 사단의 좌우측방과 전면 에 압박을 가하며 우일선 정면의 돌파를 시도하였다.¹⁶⁵⁾ 사단장은 북한군의 공격세가 이전과 달리 집요하고 치열하자 제13연대 제3대대를 철수시켜 주진지를 보강하였다. 이때 사단장은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최대한 지연시키며 미원 부근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인접지역 상황은 제6사단이 수안보 부근에서, 수도사단이 진천 북쪽의 미호천 부근에서 적과 대치 중이었다. 피아의 상황을 검토한 사단장은 사단의 좌우측방이 무너진 상황에서 음성을 고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생각하였다. 또한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더 이상의 지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06:00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사단은 적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현 전선에서 미원지구로 철수하려 한다.
- ② 제11연대 ㉗ 연대는 10일 06:00부로 36번 도로 좌측 지대 내에서 지연전을 감행하면서 길동(구안리 서남쪽)에 집결한 다음 신기리(구안리 동남쪽 2km)선을 점령해 제13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㉘ 제12연대의 엄호하에 미원(괴산 남서쪽 22km)으로 이동해 사단의 서측방을 방호할 준비를 하라.
- ③ 제12연대 ㉗ 연대는 10일 06:00부로 36번 도로 우측 지대 내에서 지연전을 감행하면서 구안리에 집결한 다음 괴산(음성 남동쪽 13km)으로 이동해 사단 예비가 되라. ㉘ 괴산 북쪽의 오룡동(괴산 서북쪽 2km)–정용리(오룡리 서쪽 1.5 km)선에서 제11연대의 철수를 엄호할 준비를 하라.

<상황도 6-7> 음성-괴산 철수작전



- ④ 제13연대 ㉠ 연대는 최초 제11, 제1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 제11연대의 엄호하에 미원으로 이동, 사단사령부와 각 연대를 수용할 준비를 하라.
- ⑤ 공병대는 제12연대가 괴산을 철수한 뒤 괴산교를 폭파하고, 괴산 남쪽의 19번 도로에 대전차장애물을 설치하라.
- ⑥ 제6사단 제7연대(배속부대 포함)는 10일 06:00부로 배속해제한다.
- ⑦ 협조지시 ㉢ 낙오자 통제선과 수집소는 최초 길선리(구안리 남쪽 1km)–마송리간에, 다음은 대덕리(괴산 동쪽 2km)–오룡교(괴산 서쪽 6km)에 각각 설치 운용한다. ㉣ 구안리부터 507번 및 19번 도로의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사상자의 후송차량, 2. 탄약보급 차량, 3. 보병부대, 4. 통신부대, 5. 공병 파괴조, ㉤ 제6사단 제7연대는 도안에서 512번 도로를 이용하라. ㉥ 지대 내에 유도병을 설치해 철수부대를 집결지로 유도하라.
- ⑧ 보급사항 ㉦ 탄약은 각 저지선에서 계속 지원한다. ㉧ 보급품은 선발대와 같이 미원으로 후송하라. ㉨ 군 탄약보급소와 육군병원은 대전에 위치한다.
- ⑨ 지휘 및 통신 ㉩ 사단지휘소는 10일 12:00부터 괴산에서 개소하며, 12일 12:00 이후부터는 미원에서 개소한다. ㉪ 지연전 수행간 사단장은 엄호부대와 같이 위치한다.¹⁶⁶⁾

한편 제12연대장은 사단 철수명령을 수령 후 예하대대에 철수를 지시하였다.

(2)

7월 9일 23:00부터 과상적으로 공세를 취한 북한군은 날이 밝자 점차 포격의 강도를 높이고 장갑차를 선두로 36번 도로를 따라 제12연대 제2대대의 전면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연대장 김점곤 중령은 전력이 약한 제1대대를 철수시키고, 음성으로 향하고 있는 북한군을 393고지에서 저지하도록 제2대대에 지시하는 한편 철수는 393고지의 남쪽이 개활지이므로 제13연대의 엄호하에 실시토록 하였다.

제12연대는 12:00경 구안리에 집결해 부대를 수습한 후 20:00에는 괴산중학교에서 부대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06:00에 사단명령에 따라 괴산 북쪽의 오룡동–정용리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제11연대의 철수에 대비하였다.

한편 사단의 좌일선인 제11연대의 정면에서도 7월 9일 23:00를 기해 북한군은 파상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제2포대의 집중포화로 돌파가 좌절된 그들은 다음날 04:00부터 보현산 서측을 우회해 하당리 부근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방어를 맡은 제7연대 제2대대와 교전이 전개되었다.

제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06:00에 각 대대의 철수를 지시하면서 18:00까지 계획된 저지진지를 점령한 후 제13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신기리(구안리 남동쪽 4km)에, 제3대대는 가장동(신기리 남쪽 1km)에 각각 배치되어 507번 도로를 차단하는 한편 제2대대는 구기리(가장동 남동쪽 2km)에 위치하였다.¹⁶⁷⁾

연대장은 적 접근의 조기경고와 저지진지의 기만을 위해 각 대대전면의 주요 지점에 1개 중대규모의 전진진지를 편성토록 하였다. 그리고 예비인 제2대대로부터 1개 중대를 차출, 용치(신기리 동쪽 3km)에서 연대 우측방의 경계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제11연대는 7월 12일 02:00에 적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괴산 방면으로 철수를 시작, 송정리(미원 서남쪽 5km)로 이동해 사단의 서측방 방어에 들어갔다.

사단의 제2선인 제13연대는 제1선 연대가 음성에서 철수를 시작한 7월 10일 11:00부터 북한군 교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앞서 연대장 최영희 대령은 지난밤 23:00부터 북한군의 강력한 포격이 경계진지에 집중되자 제3대대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적의 일부는 이미 제3대대의 후방을 차단하고 있었다. 295고지(음성 동쪽 4km) 남쪽 기슭의 충북선 철로 주변에 도달한 제3대대는 이곳에 진출해 있던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분산되었다. 03:00에 편성된 진지에 집결해 점검한 결과 2개 소대병력과 대전차포중대가 합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사단장과 연대장은 즉각 이들을 구출하도록 강력히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29고지의 제1대대 진지 전면으로 음성천을 다시 건넌 제3대대는 적진으로 스며들어 대전차포진지를 확인했으나, 병력과 장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06:00 무렵에 대대는 대전차포중대의 복귀 소식을 연대로부터 전달받고 철수를 시작하였다.



정용리 인근의 야산. 음성에서 철수한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제1대대가 이곳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한편 정오 무렵 음성을 점령한 북한군은 연대에 대한 추격을 포기하는 듯 했으나 23:00에 포격을 개시하며 연대정면을 공격하였다.¹⁶⁸⁾ 연대는 적의 공격을 저지 지연하던 중 11일 01:00에 제11연대의 엄호를 받으며 미원지구로 철수하였고, 이후 제11연대와 제12연대의 미원지구 진입을 엄호하였다.

(3) 가

7월 11일 아침 제13연대가 507번 도로를 따라 철수를 개시하면서 그 뒤를 따라 북한군 정찰대가 09:50경 구만리고개 일대에 출현하였다. 길동에 배치되었던 제11연대의 전초중대가 그들의 전진을 저지하는데 실패하고 10:00경 신기리로 후퇴하였다. 상황을 보고받은 제11연대장은 14:00경 제1대대를 신기리 건너편의 262고지에 배치하였다.¹⁶⁹⁾

야포와 박격포 지원을 받는 북한군이 20:00 무렵 1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262고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와 전초중대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에

실패한 그들은 병력을 증원받아 재공격을 실시, 262고지 일대에서 전투가 계속되었다.¹⁷⁰⁾

7월 12일 02:00를 기해 연대장은 괴산중학교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던 제2대대를 가장동 남쪽 1km의 507번 도로 좌우측에 긴급 투입한 후 04:00에는 제3대대를 제2대대 좌측의 371고지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대전차포중대를 제2대대 지역에 배치해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 전차에 대비하였다. 또한 262고지에서 교전중인 제1대대를 철수시켜 제2대대 우측의 369고지에 재배치하고, 05:00에 신기리의 전초중대마저 제1대대 우측으로 철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06:00경 제11연대는 371고지-369고지를 연하는 방어선을 형성하였다.¹⁷¹⁾

한편 가장동으로 진출한 북한군은 10:00무렵 1개 대대병력으로 도로 좌우측에 배치된 제2대대를 공격했으나 연대의 집중사격을 받고 가장동 뒤편으로 물러났다. 14:00 무렵 증원을 받은 그들은 2개 대대병력을 가장동 일대에 전개하고 야포 및 박격포 사격을 가하며 재공격을 준비하였다. 그들의 기도를 간파한 제11연대장은 그들을 포위 격멸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연대의 공격계획에 따라 각 대대는 16:30에 병력배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를 간파한 적은 포위를 모면하기 위해 18:00 무렵 가장동에 진출한 병력 중 일부를 길동쪽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 병력으로 262고지-신기리 선에 저지진지를 점령하였다.¹⁷²⁾ 19:20 제11연대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주력인 제1대대는 용고개-369고지 선을 확보하고 2개 중대 병력으로 금봉산에서 신기리를 향해 공격하였다. 제3대대 또한 1개 중대로 설우산을 확보토록 하고 1개 중대로 350고지에서 262고지를 향해 공격하였다. 제11연대는 어둠 속에서 근접전을 치르는 격전을 전개하여 262고지-신기리 선을 확보하였다.

이 무렵,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인접사단과의 전선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원지역으로의 철수를 결정하고 제11연대와 제12연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¹⁷³⁾ 7월 13일 03:00에 제11연대장은 제2대대의 엄호하에 제1대대와 제3대대를 괴산을 경유해 미원으로 철수시키고, 제2대대도 엄호임무를 완료하는 즉시 철수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3일 저녁 제11연대가 미원에 집결을 완료

함으로써, 북한군 제15사단은 괴산을 점령하게 되었다.¹⁷⁴⁾

한편 제12연대는 사단 우전방인 282고지 일대에서 음성-목도리-괴산을 잇는 516번 도로를 따라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접근로를 이용하지 않았고, 또한 사단의 철수명령이 하달되어 제11연대에 앞서 미원으로 철수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주력인 제11연대와 제12연대가 철수를 시작함에 따라 지원포병인 제6사단 제16포병대대 제2중대도 배속이 해제되어 원대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군단으로부터 포병 1개 중대를 배속받았다.¹⁷⁵⁾

(4)

제11연대의 서남쪽 정면에서 북한군의 음성 공격을 저지한 제6사단 제7연대는 제1사단 작명에 따라 7월 10일 06:00를 기해 제1사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었다. 연대는 즉시 각 대대와 제2포대, 대전차포중대를 도안에 있는 후방지휘소 부근에 집결시켰다. 08:00에 제7연대는 차량편으로 512번 도로를 따라 괴산을 경유 연풍지역으로 이동, 원대복귀하였다.

한편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7월 12일 03:00에 단행된 제11연대의 신기리-가장동선 철수를 계기로 음성지구전투를 종결하였다. 이어 12:00부로 사단사령부를 미원에 개설하는 한편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해 추격해오는 북한군 제15사단과의 전투를 전개하였다.

4. 전투 결과

북한군 제15사단은 음성 일대에서 제6사단 제7연대와 제1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고, 이어 제1사단의 축차 철수와 지연전을 통해 다시 한번 저지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군 제15사단은 중서부지역을 동남진해 영남의 발판인 상주 방

면으로 접근하려던 계획이 지연됨으로써 다음 작전단계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군 지도부는 군단장을 교체하며 목표달성에 주력했으나, 7월 중순부터 강력해진 미 공군의 공중폭격 등에 의해 작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북한군 제15사단의 남진을 계획대로 저지·지연한 제1사단은 괴산-미원으로의 축차적인 철수와 지연전을 통해 인접부대의 전선정제에 기여하였다. 또한 소백산맥 방어선을 형성한 후 공세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한편 음성지구 전투기간 동안 제1사단과 제6사단 제7연대는 북한군 2,943명을 사살하고 350명을 포로로 획득하였다. 또한 장갑차 7대와 각종 포 24문, 박격포 31문, 그리고 1,197정의 소총을 노획하는 대전과를 올렸는데, 이는 동락리 일대에서 제6사단 제7연대가 북한군 제48연대로부터 거둔 전과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피해는 28명 전사와 194명의 전상자가 발생했으며, 포격으로 인해 일부 장비가 파손되었다.¹⁷⁶⁾

제 6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결과

6·25전쟁의 전 기간을 통해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에 국군이 전개한 지연전이 갖는 중요성은 전략 및 전술적 차원은 물론 전투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개전 초기 국군은 서울 실패와 한강교 조기폭파로 병력과 장비의 절대부족 등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미군의 증원과 교두보 확보는 전쟁수행의 핵심이었다. 이는 공간을 양보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벌기식' 지연전을 의미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군은 개전 초기의 승기를 최대한으로 이용, 조속한 시일 내에 남한을 해방하기 위해 총공세를 전개하였다. 북한군은 3개 사단을 증편하고 후방사단을 전선에 투입하는 등 전과확대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국군은 한편으론 북한군의 남하를 최대한 저지하면서 또 한편으론 전투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쨌든 북한군은 전쟁의 조기종결을 시도했고, 국군과 미군은 이러한 위기국면을 조속히 수습해 공세이전을 위한 부산교두보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쟁 초기의 국군이 수행한 지연전은 차후의 반격작전에 기여하는 한편 한미군사동맹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전투사적(戰鬪史的)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 국군이 전개한 지연작전은 전략 및 전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성격과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둘째, 미군의 증원과 국군의 재편성 및 지휘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제공하였다.
셋째, 낙동강 방어선 형성과 부대의 재배치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부 축선의 좌측방을 엄호하고 한·미 연합전선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2. 전장기능별 분석

1) 지휘통제

중서부지역의 방어를 담당한 제1군단은 미군의 증원과 교두보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얻기 위해 시간별기식의 지연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런 계획에 따라 군단장을 비롯한 각 사단장들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어임무에 임하였다.

예를 들면, 음성지구 방어임무를 부여받은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이동과정 중에도 각 연대를 학교 또는 공공시설에 집결시켜 부대나 개인이 도착하는 즉시 수용하는가 하면 전투 중 손실 또는 행방불명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임자를 보충·발령하는 등 전투태세강화에 주력하였다.

또한 진천전투 당시 백곡천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던 수도사단 제1연대는 진천을 고수할 주저항선 진지구축에 한계가 따르자 방어에 유리한 봉화산과 문안산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방어태세를 보여주었다.

방어 작전에 있어서도 지휘관들은 북한군의 약점을 발견하고 적극적인 공세행동으로 기습을 전개, 많은 피해를 가하는 한편 심리적인 마비를 달성해 적의 오판 유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예는 제6사단 제7연대가 수행한 동라리 전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제7연대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주민으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기습공격을 실시, 북한군 제15사단 예하의 1개 연대규모를 섬멸하는 대전과를 거두는 한편 국군의 자신감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정 보

적과 작전지역에 관한 첩보와 정보를 수집·생산해 적재적소에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인 정보우위 달성과 효율적인 제 전투력을 보장하는 정보는 전쟁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50년 7월 6일 제6사단 제7연대 제2대대가 수행한 동락리 전투는 이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군은 주민으로부터 입수한 그릇된 정보를 맹신한 채, 경계에 소홀히 하는 등 방심함으로써 국군의 기습공격에 허를 찔리게 되었다.

3) 기동 및 대기동

지연작전 초기에 국군의 전투준비태세는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따라서 지역 내에 유개호의 구축이나 철조망 또는 대인지뢰 등의 설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진천 북방에 긴급 투입된 수도사단 예하의 중대는 형식적으로 유개호를 구축했으나, 적의 전차포에 의해 단번에 파괴됨으로써 그들의 접근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제1군단의 작전지역 내에는 작전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몇몇 교량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거나 폭파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작전전개에 혼선을 불러왔다.

예를 들어, 수도사단이 백곡천에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북한군의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진천교 폭파를 논의할 때, 사단장과 미 고문관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교량폭파에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군 전차의 도하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백곡천 방어선이 와해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반면에 미호천 방어전 당시 미호천에 설치된 팔결교를 북한군의 도하가 개시되기에 앞서 폭파함으로써 적의 도하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4) 화력운용

중서부지역에서 지연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대전차 대비책이 미비하였다. 특히

진천전투 당시 북한군 전차에 너무나 무력하였다. 방어선을 편성하면서 대전차호를 구축하거나 장애물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차부대를 이용한 북한군의 전술운용에 속수무책이었다. 또한 대전차특공대와 같은 적 전차 파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대전차포 같은 화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화력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5) 방 호

방어작전에서 지형조건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방자(防者)의 이점인 지형의 적절한 이용을 통해 적이 불리한 지형에서 전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6·25전쟁 당시 피아간의 공방전은 대개 고지쟁탈전의 양상을 띠었다. 이는 한국의 지형적인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고지의 확보는 도로망과 계곡을 감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동을 통제하는 이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수도사단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문안산과 봉화산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전개한 것도 진천-청주간 도로와 잣고개를 통제 및 장악하여 차후 공격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계는 기습을 방지하고 행동의 자유를 유지함으로써 전투력을 보존하는데 긴요한 요소이다. 동락리 전투에서 국군 제7연대 제2대대에 대패를 당한 북한군 제15사단 제48연대는 그들이 전진하려는 충주 방면에 정찰대를 파견하지도 않았고, 동락초등학교 교정에 주둔하면서 전방과 측방에 대한 전초를 운용하지 않았다. 단지 도로변과 학교 정문에만 보초를 세우는 평상시의 보초운용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군 지휘관은 인접한 무극리를 국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644고지에 소초조차 운용하지 않음으로써 패배를 자초하였다.

6) 전투근무지원

지연작전을 전개할 당시 제1군단 예하의 각 사단은 병력과 장비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1개 사단이 1개 연대 수준의 전투력 밖에 지니지 못한 상황이었다. 마찬가지로 탄약 및 군수품 지원상태도 전쟁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작전이 경과되면서 상황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이면에는 지역주민의 헌신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식량과 연료의 보급도 현지 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방추진으로 충족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진천전투 당시 수도사단장은 지역 내의 학생과 청년 등 200여명을 탄약 및 식사추진 등 전투지원 업무에 운용함으로써 작전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주 (註)

- 1) Roy E. Appleman, U. 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 C. : GPO, 1986), p. 104.
- 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1950. 3. 25).
- 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戰鬪史 : 鎭川—化寧場戰鬪(中西部地域 遲延戰)』(서울 : 군인공제회 제1인쇄사업소, 1991), pp. 9-11.
- 4) 김일성은 1950년 7월 5일 제105전차여단의 서울점령 공로를 찬양하며 사단으로 승격시키고 '조선인민군 서울 제105땅크사단'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1』(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153.
- 5) 기존 전사는 북한군 제15사단의 편성을 제48연대, 제49연대, 제50연대와 포병연대로 밝히고 있으나, 적측문서 및 포로심문조서에 따르면, 제45연대, 제48연대, 제49연대와 포병연대로 밝혀지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 ② : 北韓의 全面南侵과 初期防禦作戰』, 2005, pp. 418-419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p. 308-309, 342-343 ;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679, 683, 860, 902, 924.
-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290.
- 7) GHQ, FEC,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1950. 10. 15) ;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1073, 1081, 1087.
- 8) 1907년 함북 혜산에서 출생, 1920년에 만주의 항일유격대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1929년 4월 중국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1939년까지 항일유격대활동을 재개하고 1941년에는 소련군관학교를 졸업하였다. 입북 후 내무성 38경비여단장(1947년)과 인민군 정치국장(1948년)을 지내고 6·25전쟁에는 제2사단장과 제2군단장으로 참전하였다. 국토통일원, 『북괴인물』, 1971, p. 441 ; 북한연구소, 『최신 북한인명사전』, 1996, p. 826 ; FBIS, *Daily Report : East Asia, North Korea, Biographic Information on 100 Officials*(Washington, D.C., : 1989), p. 44.
- 9) 1912년 함북 길주에서 출생, 일본 상지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 공산당에 입당하고 1936년 동만주에서 김일성 항일유격대로 활동하였다. 1945년 8월 김일성과 함께 입북하여 6·25전쟁 발발당시 제15사단장으로 참전하였다. 국토통일원, 『북괴인물』, 1971, pp. 200-201 ; 북한연구소, 『최신 북한인명사전』, 1996, pp. 356-357 ; FBIS, *Daily Report : East Asia, North Korea, Biographic Information on 100 Officials*(Washington, D.C., : 1989), p. 18.
- 10) GHQ, FEC,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1950. 10. 15).
- 11) GHQ, FEC,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 1231.
- 12)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 1950. 6. 25~1951. 12. 31』, 1950. 6. 30일자.
- 1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현대 편』(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40.
- 14)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39.
-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①, 2001, pp. 307-308.
- 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p. 199.
- 17) 국방부, 『한국전쟁사 :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75 ; 육본정보참모부, 『북괴 6·25남침분석』, 1970, p. 157.
-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①, 2001, p. 199.

- 19) GHQ, FEC,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688, 902, 995.
-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189.
-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p. 308.
-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p. 308.
-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p. 343.
-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p. 189.
-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p. 343.
- 26) 북한은 1950년 7월 1일 만 17~36세(1914~1932년 출생자) 주민을 대상으로 전시동원령을 선포하였다. 동원령이 선포된 직후 서울에서는 조직적인 대규모 쫓기대회와 시가행진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며, 7월 10일까지 쫓기대회를 통해 7,612명이 의용군으로 지원하였다. 배경식, 『남한지역에서 북한의 전시동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2002, pp. 256, 268.
- 27) GHQ, FEC,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1950. 10. 15).
- 28) 반면 이 지역에 투입된 국군 수도사단의 화력체계는 이미 한강도하 전에 상실되었고, 7월 6일 대전에서 새로 창설된 제1포병단 제2포병중대의 화력지원을 받게 되었다. 당시 사단의 주요 장비는 105mm 유탄포 4문, 81mm 박격포 16문, 60mm 박격포 27문 등이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2권(개정판), 1979, p. 276.
- 29) GHQ, FEC,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1950. 10. 15),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제2사단의 세부 인명손실은 제17연대 2,185명, 제6연대 1,400명, 제4연대 70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고, 실제 손실률은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30) GHQ, FEC,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1950. 10. 15).
- 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326.
- 32) 국방부본부, 『일반명령 제2호』(1950. 7. 5); 육군본부, 『특별명령 제9호』(1950. 7. 5).
- 33) 육특(갑) 제9호, 군단특(갑) 제1호(1950. 7. 5), 1950년 7월 5일 창설 당시의 군단 군수참모는 이창일(李昌一) 중령이었으나, 1군 특명(갑) 제15호(1950. 7. 7)에 의해 7월 7일부로 박병권(朴炳權) 대령으로 교체되었다.
- 34) 한미간의 작전지역분담은 ‘미 지상군이 투입되면 화력과 기동력이 우수한 미 지상군은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을 담당하고, 국군은 그 이동지역을 담당한다’는 작전구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진천-화령장전투(중서부지역 지연전)』, 1991, p. 18.
- 3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3호』(1950. 7. 6, 17:00). 이 작명에서 육군본부는 군단 및 사단의 전투지 경선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예하부대에 시달하였다. ① 유엔군과 제1군단간: 동산리(천안군 동면)-만뢰산-장군봉-오산리(안성군 금광면)-보평리(안성군 보개면)-쌍령산(안성군 접이면)-호리(용인군 만곡면)-금어리(용인군 만곡면)-동림리(광주군 모대면)-신촌리(시흥군 대왕면) 선상은 제1군단에 속함. ② 제1군단과 제6사단간: 남한산-홍호리 서방 수류교차점-대둔리-이전동(원주군 건등면)-금왕산(양평군 양평면)-응봉산선상은 제6사단에 속함.
- 36)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3호』(1950. 7. 6, 17:00).
- 37)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육군본부의 작전명령 제6호(1950. 6. 30)에 의해 1950년 6월 30일 24:00 까지 예하의 제19연대를 이천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 3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1950. 3. 25), 기본계획, 부대편성, 제일선부대, 후방부대, 대공경계, 해안경비, 부록 및 부도로 구분되어 작성된 이 작전명령은 총 120쪽으로 이루어졌다. 부록에는 군대구분, 작전도, 정보부록, 육군방어계획, 공병부록, 통신부록이 포함되어 있다.
- 3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0호』(1950. 7. 5, 10:00). 육군은 일부 병단으로 오산-안성 일대의 요선

- 및 죽산-장호원-제천 부근을 점령하여 재편을 완료하고 군 주력의 용이한 진출을 도모하였다.
- 4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3호』(1950. 7. 5, 10:00).
 - 41) 1950년 7월부터 대전 이남지역에서 학생이나 청년들을 대량으로 모집하여 전선에 투입했으나, 조직적이고 강력한 군사동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배경식, 『남한지역에서 북한의 전시동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②,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257.
 - 42) 남한의 공식적인 인적 및 물적 동원은 1950년 7월 26일 긴급명령 제6호로 발동된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선포된 이후부터이며, 이 조치가 실질적인 전시동원령이었다. 배경식, 『남한지역에서 북한의 전시동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②,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257 ;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상), 1970, pp. 443-447 ; 육군본부 군사감실, 『후방전사』(군수편), 1953, pp. 293-295.
 - 43)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122.
 - 44) 육군본부 군사감실, 『후방전사』(군수편), 1953, pp. 66-6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부사』 제2권, 1991, p. 109.
 - 4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3호』(1950. 7. 6, 17:00).
 - 46)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호』(1950. 6. 30). 제6사단장은 제19연대를 6월 30일 24:00까지 이천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7월 1일 12:00에 『사단작명 제58호』(1950. 7. 1)로 제2연대 예하의 제2대대를 이천 방면으로 이동시켜 제2사단에 배속하였다.
 - 47) 육본정보참모부, 『복괴 6·25남침분석』, 1970, p. 112.
 - 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①, 2001, p. 199.
 - 4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6호』(1950. 6. 30).
 - 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64.
 -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②: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작전』, 2005, p. 31.
 - 52) 이형근, 『이형근 회고록: 군번 1번의 외길 인생』(서울: 중앙일보사, 1993), p. 62. 기존 전사에서는 이천지구전투사령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령부의 존재마저도 이형근 준장의 증언과 물전보고서 등 일부 기록에 미미하게 기술되고 있다. 전쟁초기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령부의 역할은 좀 더 구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 53) 보병 제6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8호』(1950. 7. 1) ; FEC, 『물전보고서』(1950. 7. 2, 15:00), ‘발신 미상이 육군총참모장에게’ ; 『물전보고서』(1950. 7. 2, 22:00), ‘제6사단장이 육군총참모장에게’, 이천지구전투사령부와 제6사단 제19연대간의 연속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단지, 앞의 물전보고서에서 제6사단장이 “제19연대가 전선에 급파되어 이형근 준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라고 총참모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사단 작명 제58호에 의거 “제2연대 예하의 1개 대대를 이천 방면으로 이동시켜 제2사단에 배속시켰다.”는 부대역사록을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 54) FEC, 『물전보고서』(1950. 7. 6), ‘정기정보보고 No. 1(1950. 7. 1)’.
 - 5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79. 제6사단 제19연대 이외의 이천지 역전투사령부의 전투편성은 사령관과 공병대대장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제1권(개정판), 1977, p. 305.
 - 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p. 307-308.
 - 5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3호』(1950. 7. 6, 17:00).
 - 5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p. 307-308.
 - 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07 ;

- 일본육전사보급회 편,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①: 38선 초기전투와 지연작전』(서울: 삼화인쇄, 1986), p. 161.
- 61)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호』(1950. 6. 30).
 - 62) 제1대대는 이천 인근의 야산에, 제2대대는 이천-곤지암간 도로의 감제가 용이한 정개산에, 제3대대는 곤지암-김장량리간 도로의 감제가 용이한 194고지 일대에 배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 63) 일본육전사보급회 편,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①: 38선 초기전투와 지연작전』(서울: 삼화인쇄, 1986), p. 161.
 - 64)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305.
 - 65)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2호』(1950. 7. 5).
 - 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②, 2001, p. 21.
 - 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진천-화령장 전투(중서부지역 지연전)』, 1991, p. 29.
 - 68)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 1468.
 - 6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199.
 - 7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현대편』(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44; 육본 정보참모부, 『북괴 6·25남침분석』, 1970, p. 154;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75; Roy E. Appleman, *U.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GPO, 1986), p. 102.
 - 71)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호』(1950. 7. 5).
 - 7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0호』(1950. 7. 5, 10:00).
 - 73)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2호』(1950. 7. 5, 18:00).
 - 7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포병, 제1사단, 제11연대 전투상보』(43), 1986, p. 568.
 - 75)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76.
 - 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진천-화령장 전투(중서부지역 지연전)』, 1991, pp. 31-32.
 - 77)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p. 276-277.
 - 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진천-화령장전투(중서부지역 지연전)』, 1991, p. 38.
 - 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173;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6. 30일 및 7. 1일자.
 - 80)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3호』(1950. 7. 6, 12:0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군단 전투상보』(41), 1986, p. 171; FEC, 『물전보고서』(1950. 7. 7. 23:58), ‘육군총참모장이 제1군단장에게’.
 - 81) 이들은 김량장리-안성 축선으로 남하해 온 북한군 제2사단 주력과 제203전차연대(-1) 소속의 병력 및 전차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187;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②, 2001, p. 21.
 - 8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5호』(1950. 7. 7, 18:00).
 - 83)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7호』(1950. 7. 7, 23:00).
 - 8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제1연대 전투상보』(41), 1986, pp. 499-500.
 - 85)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7일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22.
 - 86) 장호원에 집결중인 병력은 이포 일대로 남한강을 도하한 북한군 제15사단이었고, 광혜원에 집결 중인 병력은 북한군 제2사단 주력(제4연대와 제17연대)이었다.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6일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189.
 -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②, 2001, p. 21.

-
- 8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5호』(1950. 7. 7).
 - 8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7호』(1950. 7. 7).
 - 90)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3호』(1950. 7. 7).
 - 9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186.
 - 92) 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반격시에 불편을 주고 또한 전차나 포가 어디서든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진천교를 폭파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수도사단 G-3 박경원 소령의 증언.
 - 93) 수도사단의 강력한 저항을 받은 북한군 제2사단장은 1개 자주포대대와 전차대대를 08:00경 투입, 선두부대를 증원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22;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40.
 - 94)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현대편』, 1981, p. 1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22;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년 7월 8일자;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군단 전투상보』(41), 1986, pp. 190-191.
 - 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22.
 - 9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군단 전투상보』(41), 1986, pp. 192-193.
 - 9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군단 전투상보』(41), 1986, pp. 192-193.
 - 98)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9일자.
 - 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42.
 - 100)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10일자.
 - 101) 제10장 공군작전 참조.
 - 10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군단 전투상보』(41), 1986, pp. 195-206.
 - 103)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10일자.
 - 104)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현대편』, 1981, p. 172.
 - 105)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1979, pp. 293-294.
 - 10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군단 전투상보』(41), 1986, pp. 206-207.
 - 1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42.
 - 10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제1연대 전투상보』(41), 1986, p. 503.
 - 109)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p. 304-305.
 - 11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제1연대 전투상보』(41), 1986, pp. 505.
 - 111) 제10장 공군작전 참조.
 - 112)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11일자.
 - 113) 이로써 북한군 제2사단은 7월 10일 21:00 무렵에 진천을 완전 점령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187;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10일자; 러시아 국방부 편, 김중복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40.
 - 11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군단 전투상보』(41), 1986, p. 215.
 - 115) 제10장 공군작전 각주 참조.
 - 116)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12일자.
 - 117) Roy E. Appleman, *U.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GPO, 1986), p. 102.
 - 11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현대편』, 1981, p. 1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

- 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342;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13일자.
- 119) 군단장인 김홍일 소장이 청주방어의 전술적인 의미를 저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주는 삼면이 평야이고, 동쪽은 300m 내외의 야산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도로상황은 보은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마저 적에 의해 차단된다면 시가전을 할 만큼의 병력손실이 예상되었다. 또한 이미 미군이 방어하고 있던 정부국도에서 조치원이 이미 적의 수중에 넘어간 상황이었으므로 병력을 보존하여 청주 남쪽에서 적을 저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었다.
- 12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1986, pp. 501-505.
- 121)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0호』(1950. 7. 5). 제7연대의 음성 북방 전개는 육군본부 작명 제6호(1950. 6. 30)에 의거 제6사단 제19연대가 인천지역에 투입됨에 따라 충주의 제2연대와 약 40km의 간격이 발생되었고, 이 공간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써 육군본부의 작전계획과도 일치되었다.
- 122)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복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37.
- 1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진천-화령장전투(중서부지역 지연전)』, 1991, p. 126.
- 124)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6. 28일자. 북한군 제15사단은 6월 28일 춘천지역에 예비대로 남아 있었다.
- 1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189.
- 1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2001, p. 308.
- 1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pp. 308-309.
- 128) Roy E. Appleman, *U.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GPO, 1986), pp 103-104.
- 129)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호』(1950. 7. 5).
- 13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3호』(1950. 7. 6, 17:00).
- 131)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31)』 제2권(개정판), 1979, pp. 252-253.
- 132)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2호』(1950. 7. 5). 제15연대는 제1사단 제13연대에 흡수 통합되었으나 제15연대장 최영희 대령의 건의로 국일명(육) 제54호(1950. 8. 25)에 의거 제13연대가 제15연대로 개칭됨으로써 현재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오고 있다.
- 133)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52.
- 134) 북한군 제15사단은 7월 5일 07:00를 기해 2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여주-장호원 방면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 16:00에 장호원을 점령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189;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4일자.
- 135)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36.
- 136) 국방부, 『한국전쟁사: 북한괴뢰군의 남침(1950. 6·25~7.31)』 제2권, 1968, p. 412.
- 1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325; 국방부, 『한국전쟁사: 북한괴뢰군의 남침(1950. 6·25~7.31)』 제2권, 1968, p. 412. 이들은 무극리-음성 방면으로 진격하던 북한군 제15사단 제45연대 예하 병력이었다.
- 13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사단 전투상보』(43), 1986, p. 779.
- 139)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43. 이 전투에서 제1대대는 북한군 사살 270명과 포로 6명, 45mm 대전차포 1문, 중기관총 9정 및 경기관총 1정, 그리고 자동소총 2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5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
- 140)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6일자. 북한군 제15사단은 7월

- 5일 장호원을 점령한 후 음성 방면으로 남하하여 병암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 141) 동락리 전투는 제6사단 제7연대 제2대대의 단독작전이라는 주장과 제6사단 제7연대의 합동작전이라는 수행 주체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주장을 공식자료와 비교·분석하고, 당시 전투에 관여했던 주요 직위자들의 증언을 참고로 하여 기술하였다.
 - 142)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p. 243-244.
 - 143)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진천-화령장전투(중서부지역 지연전)』, 1991, p. 142.
 - 144) 국방부, 『한국전쟁사: 북한괴뢰군의 남침(1950. 6. 25~7. 31)』 제2권, 1968, pp. 414-415.
 - 145) 노획한 무기는 후송 후 대전에서 시민에 공개되었으며, 각종 무기 1점씩은 유엔본부로 보내져 소련제 무기의 증거품으로 제시되었다.
 - 146)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49.
 - 147) 북한군 제15사단의 주력은 7월 6일 11:30 무렵에 이미 음성 서북방 11km의 정생리 지역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Ⅰ, 2001, p. 325.
 - 148) 국방부, 『한국전쟁사: 북한괴뢰군의 남침(1950. 6. 25~7. 31)』 제2권, 1968, p. 412.
 - 149)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51.
 - 15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군단 전투상보』(41), 1986, p. 14.
 - 151)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2호』(1950. 7. 5).
 - 152) 당시 제1사단의 전력은 1개 연대 수준에도 미달하였다. 가용 병력은 약 6,500명이었고, 보유 장비는 105mm 곡사포 6문, 57mm 대전차포 4문, 81mm 박격포 19문과 60mm 박격포 24문, 2.36" 로켓포 37문, 50mm 기관총 17정, 30mm 기관총 40여 정이었다. 이마저도 제15연대와 제7연대의 인원과 장비를 합한 수준이었다.
 - 153)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53.
 - 154)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8일자.
 - 155) 제1사단 제11연대, 『작전명령 제21호』(1950. 7. 7, 18: 20).
 - 156) 제11연대가 적의 주접근로로 판단되는 507번 도로를 담당하게 된 이유는 연대가 증평에 집결했을 당시 유일하게 3개 대대의 건제를 유지하면서 1,300여 명의 병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연대장인 최경록 대령의 고향이 보천으로서 현지 지리에 밝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56.
 - 15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사단 전투상보』(43), 1986, P. 781.
 - 158)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8일자;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사단 전투상보』(43), 1986, p. 781.
 - 159)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62.
 - 16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사단 전투상보』(43), 1986, p. 782.
 - 161)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63.
 - 162) 국방부, 위의 책, p. 260.
 - 16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Ⅰ, 2001, p. 204.
 - 164)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64.
 - 16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사단 전투상보』(43), 1986, p. 782.
 - 166)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p. 264-265.
 - 16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사단 전투상보』(43), 1986, p. 783.
 - 168)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10일자.

- 16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사단 전투상보』(43), 1986, pp. 787-789.
- 170)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11일자;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사단 전투상보』(43), 1986, p. 789.
- 171) 제1사단 제11연대, 『작전명령 제22호』(1950. 7. 1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사단 전투상보』(43), 1986, pp. 787-788.
- 172)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12일자. 북한군 제15사단 예하 연대중 제50연대는 보천-청안 방면으로 우회기동 중에 있었다.
- 17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사단 전투상보』(43), 1986, pp. 790-791.
- 174)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 7. 13일자.
- 175) FEC, 『물전보고서』(1950. 7. 9. 14:45), '제1군단장이 제1사단장에게'.
- 176)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71.



제 7 장 중동부지역 지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북한군과 국군 상황
제 3 절	충주 전투
제 4 절	단양 전투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중동부지역 지연작전은 한강방어선이 형성된 직후인 1950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충주, 제천, 단양 등 중부 내륙의 차령산맥으로부터 소백산맥에 이르는 지역에서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이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2사단과 제1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공방전을 의미한다.

서울을 빼앗기고 한강방어선마저 돌파당한 국군은 신림-목계-장호원-죽산-안성을 연결하는 차령산맥 일대에 제2차 방어선을 설정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이러한 국군의 계획을 방해하면서 유엔군이 참전하기 이전에 중부 내륙 일원을 신속하게 공략해 영남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려 하였다.¹⁾

이에 따라 북한군은 중부 및 동부전선의 제2군단 병력을 중동부지역으로 집중시켜 강력한 공격을 전개하였다. 반면에 개전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기도 전에 적의 공격을 받은 국군은 축차적인 철수를 통해 부대를 재편하는 한편 미군과의 작전지역을 분담,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중앙지대에 새로운 진지를 편성하였다.

중동부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부여받은 육군본부 직할의 제6사단과 제8사단은 접근이 쉬운 공격 축선에 병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해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면서 전열정비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제6사단 예하의 제2연대가 충주 일대에 배치되어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 및 제1사단과, 그리고 제8사단이 제천 및 단양 일대에서 북한군 제12사단(-1)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 적의 남진을 지연하는 한편 소백산맥과 금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 작전으로 국군은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창설 등 전반적인 전열의 정비가 가능했고, 유엔군은 본격적인 병력의 투입과 전개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얻음으로써 전쟁 초기 국군 및 유엔군의 성공적인 전쟁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한 작전지역은 원주, 충주, 제천, 단양 등의 주요 거점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통하는 3번 도로 축선을 따라 좁은 기동공간과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걸친 약 70km의 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차령산맥이 단절되는 북저남고(北低南高) 형상으로 대부분이 고산지대이며, 기복이 심하고 삼림이 울창하다.

지형은 태백산맥에서 분기된 소백산맥이 남서쪽으로 뻗어내려 평균 600~1,000m 내외의 준봉이 추풍령-지리산으로 이어져 영남과 호남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이화령과 조령, 죽령은 천험(天險)의 관문이고, 충주 일대의 계족산·남산·대림산, 문경 일대의 조령산·주흘산, 그리고 단양 일대의 소백산·연화봉·금수산·천주봉 등은 전술적으로도 중요한 고지들이다.

또한 작전상 중요시되는 지역 내의 하천은 남한강과 달천강이 있다.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영월-단양-충주를 경유해 동에서 서로 흐르며, 달천강은 속리산에서 발원해 남에서 북으로 흐르다 충주를 지나 탄금대에서 남한강과 합류한다.

도로망은 이천-충주-문경-상주에 이르는 3번 도로와 원주-충주-괴산을 잇는 19번 도로, 제천-단양-풍기를 잇는 5번 도로가 남에서 북으로 이어져 있고, 괴산-문경간 512번 도로와 제천-영춘간 522번 도로 등이 동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²⁾

한편 중동부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육군본부 직할 제6사단과 제8사단의 좌측에는 제1군단 예하의 제1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백선엽 대령이 지휘하는 제1사단은 음성 일대에서 중서부지역을 동남진하려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5사단을 저지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제8사단의 우측에는 김종원 중령이 지휘하는 제3사단 제23연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제3사단 제23연대는 동해안을 따라 남진해 포항과 부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군 제5사단과 제766부대 및 제945육전대를 저지하는데 주력하였다.

제 2 절 북한군과 국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1) 북한군 전투편성

육군본부 직할의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이 방어를 담당한 중동부지역의 정면에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2보병사단과 제603모터사이클연대가 투입되었다. 그리고 제1보병사단이 1950년 6월 30일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예속이 전환되어 이 지역에 투입되었다.³⁾

북한군 제12사단은 3각 편제개념에 따라 3개 보병연대(제30·제31·제32연대)와 예하에 3개 포병대대를 둔 포병연대, 그리고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소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각 대대는 3개 중대로, 각 중대는 3개 소대로 이루어져 있었다.⁴⁾ 북한군 제1사단 또한 제12사단과 동일한 편제로써, 예하에 3개 보병연대(제2·제3·제14연대)와 1개 포병연대(3개 포병대대)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45mm 대전차대대와 SU-76 자주포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정찰소대, 수송소대, 경비소대로 이루어졌다.⁵⁾

이외에도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가 투입되었는데, 연대는 예하에 7개 대대(모터사이클대대 4, 장갑차대대 1, 45mm 대전차포대대 1, 120mm 박격포대대 1)와 3개 중대(기술, 경비, 의무)를 두고 있었다. 각 모터사이클대대는 모터사이클 3개 중대와 중기관총중대, 82mm 박격포중대, 통신소대, 보급소대로 편성되었다. 45mm 대전차포대대는 대전차포 4개 중대와 통신소대, 보급소대, 지휘소대로, 그리고 120mm 박격포대대는 3개 박격포중대와 지휘소대, 보급소대로 구

성되었다. 그러나 장갑차대대의 편성은 미상이다.

한편 모터사이클대대의 병력은 3개 모터사이클중대 457명, 중기관총중대 53명, 82mm 박격포중대 51명, 통신소대 23명, 보급소대 26명 등 총 610명이었다. 또한 장비는 사이드카가 장착된 모터사이클 139대, LMG 46정, HMG 12정, 82mm 박격포 8문, UNI 야전용 전화기 8대와 ASRM 무선세트 2대, 소련제 짚차 20대와 4륜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45mm 대전차포대대의 병력수는 4개 대전차포중대 119명, 통신소대 23명, 보급소대 26명, 지휘소대 18명 등 총 186명이었다. 장비는 45mm 대전차포 16문, SMG 8정, M1938(수량 미상), UNI 전화기 16대와 ASRM 무선세트 3대, 소련제 짚차 14대와 4륜 트럭 1대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갑차대대는 BA-64형 사마호트 6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⁶⁾

이와 같이 중동부지역의 북한군 전력은 완전 편성된 2개 보병사단과 1개 모터사이클연대 등이 투입되었으며, 사단 및 연대포병 등 막강한 화력을 지원받고 있었다. 제12사단의 지원화력은 76mm 자주포 16문과 75mm 무반동포 24문, 45mm 대전차포 48문과 37mm 대전차포 12문 등 100문의 포병화력과 75문의 각종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1사단은 122mm 곡사포 12문, 76mm 곡사포 36문, 76mm 자주포 16문, 45mm 대전차포 48문 등 112문과 99문의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제603모터사이클연대의 지원화력은 45mm 대전차포 16문과 120mm 박격포 12문 등 28문이었다.

<표 7-1> 중동부지역 북한군 지원화력⁷⁾

구 분	화 포						박격포		계
	37mm 대전차포	122mm 곡사포	76mm 곡사포	76mm 자주포	75mm 무반동포	45mm 대전차포	120mm	82mm	
제12사단	12			16	24	48	12	63	175
제 1 사단		12	36	16		48	18	81	211
제603모터 사이클연대						16	12		28
계	12	12	36	32	24	112	42	144	414

<상황도 7-1> 중동부지역 지연작전



보병에 배속되어 운영된 포병은 주공 방면의 보병연대에는 2개 포병대대와 2개 76mm 자주포포대, 1개 독립대전차대대가 배속되었고, 조공 방면의 보병연대에는 1개 포병대대와 1개 76mm 자주포대대가 배속되었다. 그리고 122mm 곡사포포대는 대포병 공격에 주로 활용되었다.

한편 중동부지역에 투입된 북한군 제2군단 및 예하부대의 전투서열을 살펴보면, 김광협 소장의 후임으로 김무정 중장이 군단장에 보임되어 문화부군단장 임해 소장과 최인 소장의 후임 참모장인 김광협 소장과 함께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제12사단은 전우 소장에 이어 사단장에 보임된 최충국 소장을 비롯해 참모장 지병학 총좌와 제30연대장 최학순 대좌, 제31연대장 이원성 대좌, 제32연대장 황동화 대좌, 그리고 포병연대장 손응삼 대좌로 구성되었다.

제1사단은 사단장 최광⁸⁾ 소장과 참모장 한경⁹⁾ 총좌, 제2연대장 김양춘¹⁰⁾ 대좌, 제3연대장 이창권 대좌, 제14연대장 황석 대좌와 포병연대장 현학봉 대좌로 이루어졌으며, 제603모터사이클연대는 연대장 최문섭 대좌와 참모장 신영모 소좌로 구성되었다.¹¹⁾

2) 공격준비태세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제1단계작전을 완료한 북한군은 주력의 재편성과 함께 6월 30일을 기해 제2단계 작전에 착수하였다.¹²⁾ 북한군은 신속히 한강을 도하해 국군의 잔여병력을 포위 섬멸하고 평택-충주-삼척계선으로의 진출을 통해 미군의 전투전개를 좌절시키려 하였다.¹³⁾ 이를 위해서는 남동해안의 부산과 울산, 포항 등의 항구를 신속히 장악, 새로운 부대 및 물자의 집결 가능성을 제거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북한군 지도부는 주력을 중앙방향, 즉 서쪽으로부터 수원-대전-부산과 동쪽으로부터 원주-안동-포항 방향으로 집중시켰다.¹⁴⁾

이에 따라 중동부지역을 담당한 북한군 제2군단은 원주-안동-포항 방면의 진출을 기도하였다. 이 방면에는 2개의 남북으로 통하는 접근로가 있는데, 하나는 원주-충주-문경-김천으로 이어지는 접근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원주-제천-단양-영주-안동-의성-영천을 연하는 접근로이다. 군단 예하의 제1사단

은 전자의 접근로를, 그리고 제12사단은 후자의 접근로를 따르게 되었다.

두 접근로상의 문경과 단양은 지형적으로 중요 지역으로, 그 남쪽의 상주, 함창, 예천, 영주 등은 그 영향권에 있는 소도시이다. 따라서 단양과 문경을 점령할 경우 남쪽의 소도시는 물론 대구로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고, 또한 요충지인 안동을 점령하면 대구-포항간 동서회랑과 부산의 관문인 경주를 차단할 수 있었다.¹⁵⁾

(1) 12 (- - , - -)

개전 초기 인제-홍천 축선을 통해 횡성과 원주를 차례로 점령한 제12사단은 「홍천을 점령한 후 홍천-여주 방향으로 진출해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한다」는 기존의 임무 대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는 원주-제천 방향과 원주-충주 방향의 2개 방향으로 국군을 추격하는 것으로,¹⁶⁾ 궁극적으로는 원주-제천-단양-영주-안동 접근로를 따라 한반도의 동남부로 진출하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사단 주력은 포병연대(-)의 화력지원 아래 제천-단양 방향으로 진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한편 원주-충주 방향의 진격은 1개 포병대대와 사단포병 예하의 2개 포대로 증강된 제31연대가 담당하였다. 이들은 사단 주력과는 별도로 충주를 점령한 후 충주-수산-예천으로 우회 기동해 예천을 점령하는 임무가 추가로 부여되었다.¹⁷⁾ 이는 소백산맥을 넘어 철수하는 국군 제8사단의 퇴로와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국군의 증원 병력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사단은 최초로 1개 제대의 전투대형을 구성해 예하의 3개 보병연대로 병진공격하는 공격대형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제30연대와 제32연대는 원주-제천 방향을, 제31연대는 원주-충주 방향의 공격을 각각 담당하였다.

(2) 1 (- -)

제1군단에 예속되어 고량포-문산 축선을 통해 서울로 진출한 제1사단은 제2단계 작전 개시와 함께 제2군단으로 전환되었다. 제12사단 제31연대의 후속으로 충주에 진입한 사단은 문경-함창 방향으로의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는 제2군단

의 원주-충주-문경-김천으로 이어지는 접근로를 따라 상주, 함창으로 진출해 대구와 안동을 점령함으로써 대구-포항간 동서회랑과 부산의 관문인 경주를 차단하려는 의도였다.¹⁸⁾

제1사단은 이를 위해 전투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였다. 제1제대는 제3연대와 제14연대로 편성했고, 제2연대는 제2제대로서 제1제대를 후속토록 하였다. 그리고 포병연대는 화력지원을 담당토록 하였다.¹⁹⁾

3) 전투력 수준

(1)

중동부지역의 확보를 위해 투입된 북한군의 병력은 총 2만 5,000명으로 같은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 및 제8사단의 1만 880명에 비해 거의 2.5배에 달하는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사단별 병력투입 현황은 제12사단 1만 2,000명과 제1사단 1만 1,000명, 제603모터사이클연대 2,000명이었다.²⁰⁾

병력뿐 아니라 북한군의 화력을 뒷받침하는 장비의 상대적 전투력 비율은 병력의 격차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북한군은 122mm 곡사포 12문을 비롯해 각종 포 228문을 보유함으로써 보유량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으며, 성능까지 고려할 경우에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하였다. 중동부지역에 투입된 북한군 포병전력은 122mm 곡사포 12문, 76mm 곡사포 36문, 76mm 자주포 32문, 75mm 무반동포 24문, 37mm 대전차포 12문, 45mm 대전차포 112문이었으며, 이외에도 120mm 박격포 42문 등 총 186문의 박격포를 보유하였다.

북한군은 충주지역 전투에 122mm 곡사포 등 각종 포 159문을 보유한 제12사단 포병을 배치하였고, 단양지역 전투에는 제12사단과 제603모터사이클연대 포병을 배치 운용하였다.

(2) ()

중동부지역에 투입된 북한군 제12사단은 1950년 3월 한인계 중공군 출신 1만 2,000명을 주축으로 원산에서 창설된 부대이다. 남침 직전에 창설된 제12사단은

협동작전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실전경험이 풍부한 병력으로 편성되어 개개인의 전투능력은 비교적 우수하게 평가되었다.²¹⁾ 제12사단은 공격 방면인 인제-홍천간의 산악로를 직진하기 위해 개전에 앞서 산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산악전과 야간침투작전에 숙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전 직후 홍천을 예정보다 3일 늦게 점령하고, 특히 홍천 북방 전투에서 많은 인명손실을 입음으로써 작전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였다.²²⁾

한편 북한군 제1사단은 개전 초부터 한강방어선을 돌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병력 및 장비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7월 1일 선포된 전시동원령에 의해 총원된 의용군으로 병력수는 1만 2,000명에 달하였다. 이들 의용군은 강제로 납치된 민간인이 30%에 달했고, 개인화기도 지급받지 못하고 비무장상태로 전선에 투입된 병력도 15%에 이르렀다.²³⁾

(3)

원주-충주 방면을 공격하는 제12보병사단 제31연대의 우측에는 제2군단 예하의 제15보병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원주-제천 방면을 공격하는 제12보병사단(-)의 좌측에는 제2군단 예하의 제5보병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2. 국군 상황

1) 국군 제6사단 및 제8사단 현황

중동부지역의 방어임무를 담당한 제6사단은 개전 초기 춘천 및 홍천 북방 일대에서 북한군 제2사단과 제12사단의 공격을 저지, 지연하면서 횡성-원주를 거쳐 충주로 철수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제6사단은 예하에 제2, 제7, 제19연대의 3개 보병연대와 제16야전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9,300여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충주에 사령부를 설치한 제6사단장은 육군본부의 명령²⁴⁾에 따

라 제19연대와 제7연대를 이천 및 음성 일대로 급파해 군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동해안의 38도선 경비를 담당하던 제8사단은 개전초기 주문진, 사천, 강릉 일대에서 북한군 제1경비여단과 제5사단 제10연대의 공격을 저지한 후 제천으로 철수하였다. 제8사단은 제천 신림에서 전투를 치룬 후 육군본부의 충주 이동 명령에 따라 열차편으로 이동하던 중 명령이 번복되어 단양으로 복귀해 남한강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제21연대가 단양읍-고수리에 이르는 남한강변 약 10km 정면에 배치되었으며, 제10연대가 단양 주변의 경계와 적의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 사단예비로 단양읍에 위치하였다. 제8사단은 예하에 제10연대와 제21연대의 2개 보병연대와 제18포병대대, 공병대대로 편성되어 6,000여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충주지역 방어를 담당한 제6사단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편성은 사단장 김종오 대령을 비롯해 참모장 고시복 중령, 인사참모 김인철 소령, 정보참모 김안일 중령, 작전참모 양중호 중령, 군수참모 황필주 소령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사단 예하의 각 연대장은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 제19연대장 민병권 중령이었다. 사단 직할대인 제16야전포병대대장은 김성 소령, 공병대대장은 박정채 소령, 연대수색대장은 문장욱 중위였다.

제2연대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편성은 연대장 함병선 대령을 비롯해 부연대장 김봉철 중령, 인사주임 안시홍 대위, 정보주임 송대후 소령, 작전주임 전동식 소령, 군수주임 김용휴 대위, 대전차포중대장 이훈 중위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예하의 각 대대장은 제1대대장 박노규 중령, 제2대대장 김상룡 소령, 제3대대장 이운산 소령이었다.

단양지역의 방어를 담당한 제8사단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편성은 사단장 이성가 대령을 비롯해 참모장 최갑중 중령, 인사참모 이춘섭 소령, 정보참모, 육군수 소령, 작전참모 정진 소령, 군수참모 전부일 소령이었다. 사단 예하의 각 연대장은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과 제21연대장 김용배 중령이었으며, 사단 직할대인 제18포병대대장은 장경석 소령 그리고 야전공병대대장은 김묵 대위였다.

2) 전투준비태세

국군의 중동부지역 지연작전은 1949년 연말의 종합정보보고서를 근거로 1950년 3월 25일 확정된 국군방어계획을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육군본부로부터 방어계획을 하달 받은 각 사단은 이를 기초로 방어선 점령을 위주로 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적의 주공을 진지 전방에서 격파해 38도선을 확보하고, 만일 실패할 경우에는 남한지역의 큰 강과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지연작전을 전개하는 것이었다.²⁵⁾ 따라서 한강 이남으로 전략적인 철수를 실시하면서 한강선, 금강선, 낙동강선에서 축차적으로 지연전의 수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하천선 방어개념에 따라 중동부지역의 방어임무를 담당한 제6사단과 제8사단은 지역 내의 주요 거점인 충주와 단양 등에 병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해 남한강 일대에 저지진지를 편성하였다.²⁶⁾

충주지역의 방어를 전담한 제6사단 제2연대는 지휘본부를 충주국민학교에 설치하고, 적의 접근로로 예상되는 원주-충주간 19번 도로 축선에 의한 적정을 탐색하면서 남한강 차안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배속된 제16야포대대 제1포대를 연수동에 배치해 지원토록 함으로써 보포협동의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천지역에 대한 병력지원으로 야기된 병력의 열세를 충주경찰서 소속의 경찰병력으로 충원함으로써 군경협동의 방어태세를 갖추었다.²⁷⁾

3) 전투력 수준

충주 전투가 시작되기 전인 7월 5일에 제6사단 제2연대는 이천지구에 배치된 제19연대를 증원하기 위해 예하의 제2대대를 파견함으로써 남한강 방어전을 전개할 시점의 병력은 사실상 보병 2개 대대와 1개 포대, 배속된 중대규모의 경찰병력뿐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총 병력은 제2연대(-)의 1,800명과 제1포대 89명, 충주경찰서 경찰병력 187명 등 2,076명이었다. 그러나 7월 9일 제19연대가 수안보로 집결함으로써 제7연대를 제외한 제6사단의 병력은 5,745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단양지구에 투입된 제8사단은 6월 29일 진부리에서 원주로 이동할 당시

<표 7-2> 중동부지역 국군 병력현황(1950. 6. 29~7. 7)²⁸⁾

구분	제6사단				제8사단				합계
	사령부	제2연대	제19연대	계	사령부	제10연대	제21연대	계	
장교	157	87	90	334	136	105	112	353	687
사병	1,890	1,590	1,931	5,411	1,611	1,771	2,400	5,782	10,193
계	2,047	1,677	2,021	5,745	1,747	1,876	2,512	6,135	10,880

육군총참모장에게 보고한 2개 보병연대 6,135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동부지역에 투입된 국군의 병력은 1만 880명으로 2만 4,000명의 북한군에 비해 1:2의 열세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전투력의 불균형은 장비에 있어 더욱 심화되었는데, 화포의 구경이나 보유문수 등 질적인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북한군은 최신형의 122mm 곡사포 12문을 비롯하여 76mm 곡사포 36문과 76mm 자주포 48문, 45mm 대전차포 96문, 그리고 186문의 박격포 등 총 398문의 각종 포를 보유하였다.

반면에 중동부지역의 국군이 보유한 주요 장비는 105mm 야포 28문과 57mm 대전차포 17문, 2.36" 로켓포 298문, 그리고 60mm 박격포와 81mm 박격포 105문 등 각종 포 448문을 보유하였다. 이 외의 장비로는 HMG 52정, LMG 49정, Cal. 50기 관총 77정 등을 들 수 있고, 나머지는 개인화기 수준이었다.

부대의 기동에 필요한 차량은 물론 각종 군수품도 전쟁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지역 내의 사단은 민간차량을 동원해 병력수송 등에 이용했는데, 제8사단의 경우 300여대의 차량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연료는 비축용 휘발유 190D/M을 획득해 해결했으며, 비축용 정부보유미 8,000가마를 조달해 전투식량으로 활용하였다.²⁹⁾

4) 인접부대 상황

중동부지역의 우일선인 제8사단의 우측에는 김종원 중령이 이끄는 제3사단 제23연대가 동해안의 방어를 위해 배치되었다. 좌일선인 제6사단의 좌측에는 백선엽 대령이 지휘하는 제1사단이 배치되었다.

제 3 절 충주 전투

1. 전투 개요

충주 전투는 1950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국군 제6사단(-)이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와 제1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충주와 수안보를 비롯한 소백산맥 일대에서 전개한 공방전을 일컫는다. 흥천을 피탈당한 국군 제6사단은 연대별로 철수를 실시해 7월 3일 충주에 집결하였다. 이 무렵 육군본부는 경부 축선을 따라 철수하는 국군의 주력을 엄호하기 위해 비교적 온전한 전력인 제6사단의 2개 연대를 여주-이천-안성 지역으로 급파할 것을 지시하였다.³⁰⁾

또한 분산병력의 수습과 부대재편을 실시한 국군이 경부국도를 기준으로 그 동쪽의 방어진역을 담당함에 따라 제6사단은 충주지역을, 제8사단은 제천 정면을, 제1사단은 음성 정면을, 그리고 수도사단은 진천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이에 앞서 제6사단은 제19연대와 제7연대를 기동엄호부대로서 이천지역과 음성에 배치함으로써 충주지역의 방어는 사실상 제2연대가 전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전개된 충주-수안보지역 전투는 처음부터 제6사단 제2연대가 제19연대의 제2대대와 제16포병대대 제1포대의 지원 아래 북한군 제1사단 및 제12사단 제31연대와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반면에 북한군 제12사단은 원주를 점령한 후 예하의 제31연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는 충주를 점령한 후 문경-함창 방향의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대신에 수산-예천간 도로를 따라 우회기동하여 예천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들로부터 임무를 인계받은 북한군 제1사단은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예속이 전환되면서, 서울-수원-이천-장호원의 경로를 통해 중동부지역으로 이동해 충주에 진출하였다. 이어 남진을 계속한 북한군 제1사단은 문경방어를 위해



남한강과 달천강의 합류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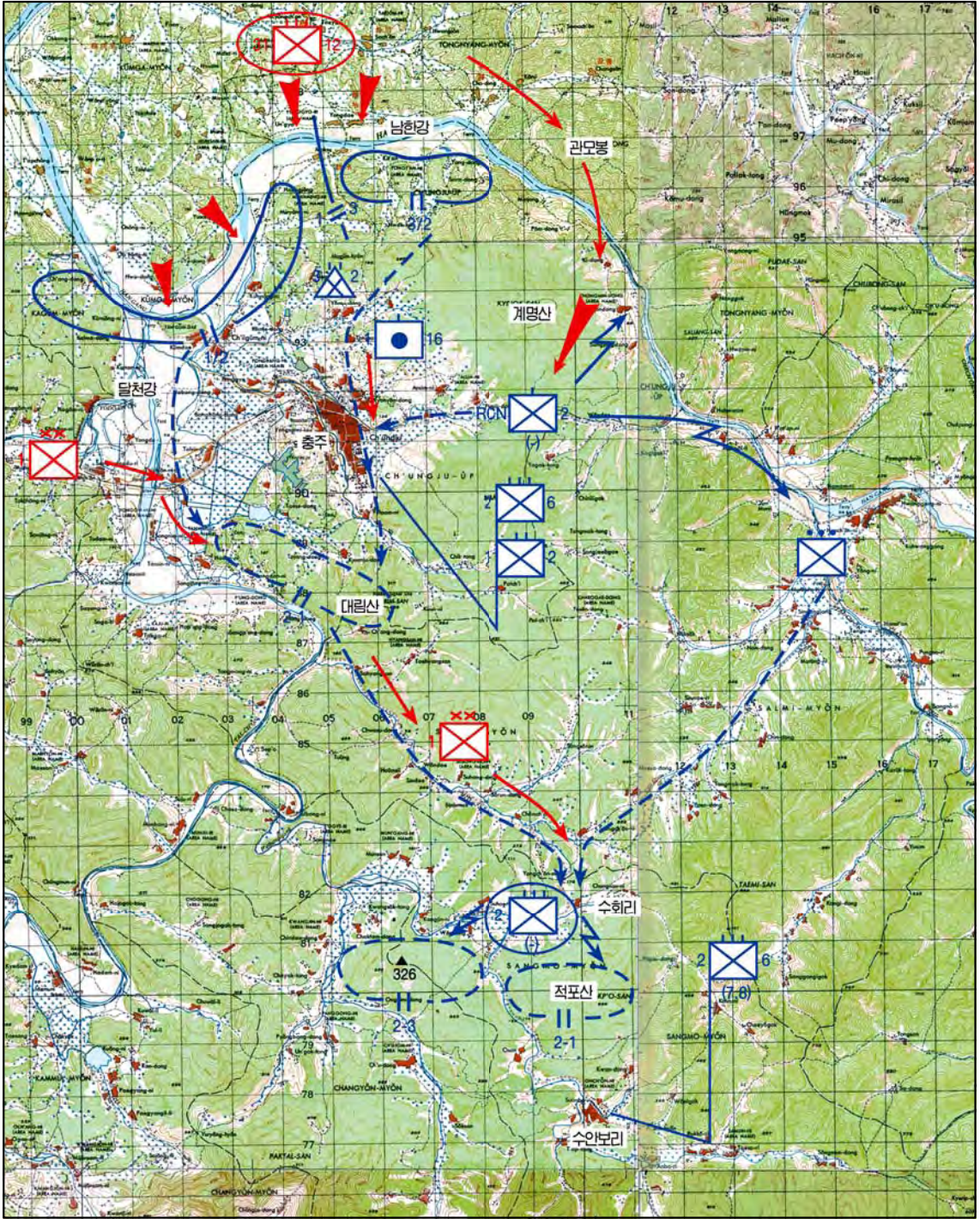
소백산맥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한 국군 제6사단 제2연대 및 제19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였다.

이와 같이 국군 제6사단은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 및 제1사단의 공격을 충주-수안보 일대의 방어선에서 저지·지연시킴으로써 소백산맥과 금강으로 이어지는 방어선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충주 및 수안보 일대의 지형적인 상황은 남북으로 통하는 3번 도로 축선을 따라 좁은 기동공간과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걸친 약 70km의 긴 종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차령산맥이 단절되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북저남고 형상으로 대부분이 고산지대이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는 충주 일대의 계족산과 남산, 대림산, 문경 일대의 조령산, 주흘산 등이 있으며, 하천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 남한강과 남에서 북으로 흐르다 남한강에 합류하는 달천강이 있다.

도로망은 이천-충주-문경-상주로 이어지는 3번 국도와 괴산-충주-원주로 연결되는 19번 국도가 발달되어 있으며, 괴산-문경과 문경-농암을 잇는 지방 도로가 있다. 그리고 철도는 충북선이 충주를 통과하고 있다.³¹⁾

<상황도 7-2> 충주-수안보 전투



2. 북한군과 국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1)

충주 북방의 원주 일대에는 인제-홍천 축선을 따라 공격을 실시해 1950년 7월 2일 원주를 점령한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2사단이 집결하고 있었다. 이들은 홍천을 점령한 후 여주 방면으로 진출해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는 작전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남진과정에서 작전상의 차질을 빚은 제12사단은 원주를 점령한 후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원주-충주 및 원주-제천의 2개 방면으로 나뉘어 철수하는 국군을 추격하는 임무였다. 이에 따라 원주-제천 방면의 공격은 제12사단 주력이 맡았고, 원주-충주 방면은 사단 예하의 제31연대가 포병연대 예하 1개 포병대대와 사단포병 예하 75mm 2개 포대와 함께 담당하였다.³²⁾

제12사단 제31연대는 충주를 점령한 후 7월 11일 예천을 점령하는 새로운 임무를 또다시 부여받았다.³³⁾ 이는 제천-단양-영주 방면으로 진격하는 사단 주력과는 별도로 수산-예천간 도로를 따라 우회기동하여 예천을 점령하는 한편 소백산맥을 넘어 철수하는 국군 제8사단의 퇴로와 남으로부터 올라오는 국군의 증원 병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판단되었다.

한편 제1사단은 충주 점령 이후 예천 점령임무를 부여받은 제12사단 제31연대의 임무를 인수하고 문경-함창 점령을 위한 공격에 돌입하였다. 제1사단은 개전 초 제1군단 예하로 고랑포-문산 축선을 돌파한 후 서울 서측으로 진출,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³⁴⁾ 그리고 서울을 점령한 후 남진과정에서는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예속 전환되었다.

제1사단은 충주점령 임무를 군단장으로부터 부여받고 수원-이천-장호원 방면으로 진출하는 한편 제15사단의 음성공격을 지원하였다. 충주에 진출한 사단은 철수하는 국군을 추격하며, 문경-함창의 점령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는 영남

공격을 위한 발판인 이들 도시를 장악한 후 요충인 대구와 안동을 점령함으로써 대구-포항간 동서회랑과 부산의 관문인 경주를 차단하려는 의도였다.³⁵⁾

(2)

북한군 제12사단은 충주 및 단양 등을 점령한 후 소백산맥을 돌파하기 위해 우회돌파, 포위 등 일점양면 전술을 사용하며 협동공격을 실시하였다.³⁶⁾ 따라서 예하 3개 보병연대 중 제30연대와 제32연대를 원주-제천-단양 방면에 투입하기 위한 주력으로 편성하였다. 제31연대는 포병연대 예하의 1개 포병대대와 사단 포병 예하 2개 포대와 함께 원주-충주 방면의 공격 제대로 편성되었다.

한편 제1사단은 제15사단과 음성 전투를, 제12사단 제31연대와 충주 전투를 협동으로 실시하였다. 사단은 문경 방면의 공격을 위해 예하의 제3연대와 제14연대를 제1제대로 편성하였는데, 제14연대에게는 우회기동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음성 전투의 증원 병력으로 투입되었던 제2연대는 제2제대로 편성하고, 포병연대는 화력지원을 담당하였다.³⁷⁾

한편 제12사단의 우익에는 여주-장호원-음성 방면으로의 진격임무를 부여받은 제15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좌익에는 동해안을 따라 남진하여 울진-영덕을 점령하고 궁극적으로 부산점령에 기여토록 임무를 부여받은 제5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2) 국군 상황

(1) 6

북한군 제12사단은 흥천을 점령한 후 철수중인 국군 제6사단을 추격하며 7월 2일 08:00에는 황성을, 그리고 13:00에는 원주를 점령하였다.³⁸⁾이에 앞서 7월 1일 18:00를 기해 사단사령부를 황성에서 충주로 옮긴 제6사단은 각 연대의 추차 철수를 실시해 7월 3일 집결을 완료하였다.³⁹⁾

그러나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제6사단 제7연대와 제19연대가 기동엄호부대

로 다시 서부전선으로 급파됨에 따라 충주지역에 남아있던 제2연대가 충주지역 방어를 전담하였다. 제2연대는 충주초등학교에 본부를 설치하고 원주-충주간 19번 도로 축선에 방어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제3대대는 우전방인 남한강변에, 제1대대는 좌전방인 달천강변에 각각 방어진지를 편성했으며, 제16포병대대 제1포대는 연수동에서 지원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제2연대 제2대대는 제19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천지역으로 급파되었다. 대대장 대리인 제1중대장 이종기 대위(40)의 지휘로 7월 3일 여주에 도착한 대대는 제19연대 주력과 함께 적과 교전을 전개하고 백암-죽산-안성을 거쳐 진천으로 철수하였다.⁴¹⁾

따라서 충주지역에는 방어를 전담한 제2연대 예하의 제1대대와 제3대대, 제16포병대대 제1포대가 남아 있었고, 부족한 병력보충을 위해 충주경찰서장 김대벽 총경을 비롯한 경찰병력이 방어작전에 참여하였다. 연대의 총 병력은 제2연대(-)의 1,100여 명과 제1포대 89명, 충주경찰서 경찰병력 187명 등 약 1,400명이었고, 보유 장비는 105mm 유탄포 5문과 57mm 대전차포 6문, 2.36" 로켓포 508문, 60mm 및 81mm 박격포 30문 등 기본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⁴²⁾

한편 충주지역의 방어를 전담한 제2연대의 전투편성 및 지휘관은 연대장 함병선 대령을 비롯해 부연대장 김봉철 중령의 지휘부와 인사주임 안시홍 대위, 정보주임 송대후 소령, 작전주임 조정련 대위, 군수주임 김용휴 대위의 참모로 편성되었다. 또한 각 대대장은 제1대대장 박노규 중령, 제2대대장 이종기 대위, 제3대대장 이운산 소령이었다. 지원 및 배속부대장은 제16포병대대 제1포대장 김장근 대위와 충주경찰서 김대벽 총경이었다.

(2)

충주지역의 방어를 담당한 제6사단 제2연대의 방어개념은 국군방어계획에 따라 큰 강을 이용해 지연전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남한강을 이용한 방어진지 편성을 결정하고, 적의 주공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주-충주간 19번 도로에 연한 남한강 차안에 제3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16야포



국군 제6사단 제2연대 제1대대의 방어진지인 남한강 차안(탄금대-목행교)

대대 제1포대의 주사격 방향을 19번 도로와 대안의 도하지점으로 집중시켰다.

제2연대의 방어배치는 좌전방에 제1대대를, 우전방에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는 지역방어 형태였다. 이는 충주를 통과하는 3번 도로와 19번 도로에 대한 통제 의의였으며, 또한 병력의 중점 배치를 통해 21km에 이르는 넓은 방어정면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제2대대가 제19연대를 증원하기 위해 파견됨에 따라 예비대는 보유할 수 없었다.

연대는 충주로 철수한 직후 제반 악조건 속에서도 각종 진지와 교통호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지형이 대부분 구릉지대로써 은폐 및 엄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축성자재마저 보급되지 않아 주변 마을에서 자재를 구해 진지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진지는 북한군의 집중포화를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유개호가 구축될 수 없었다.

그리고 통신은 연대와 대대간에 2회선의 유선을 지하로 매설하고 SCR/300 무전기를 설치해 24시간 교신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대대와 중대, 중대와 소대간에는 1회선의 유선을 매설하였다. 또한 남한강 차안에 중대 단위의 청음초를

2~4개소씩 설치 운용, 북한군의 동정을 감시하였다.

한편 취사 및 탄약운반 등 군수지원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었다. 충주부녀회는 주먹밥을 만들어 제공하고, 애국청년단원들은 지게와 리어카를 이용해 탄약운반은 물론 중대까지 식사운반을 담당하였다.⁴³⁾

(3)

제6사단 제2연대는 사단사령부가 증평으로 이동함에 따라 7월 5일 17:00에 충주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⁴⁴⁾ 그러나 연대는 충주와 인접한 지역의 적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은 북한군 제12사단 예하의 제31연대가 7월 3일 원주를 출발해 7월 4일 05:00에 충주 북방 7km 지점의 대전리 지역에 집결해 있었다.⁴⁵⁾ 또한 여주 방면에서는 남한강을 도하한 북한군 제15사단이 7월 5일 16:00에 장호원을 점령한 상태였다.⁴⁶⁾

이에 따라 연대는 충주 북쪽의 19번 도로와 서북쪽의 3번 도로에 경계의 중점을 두고 적정을 파악하는가 하면 인접한 동량면과 가금면 일대에 대한 위력수색을 전개, 방어진지 편성을 위한 지형정찰을 실시하였다. 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적의 상황과 지역의 특성, 병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남한강과 달천강 남안에 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예상접근로인 원주-충주간 19번 도로와 이천-충주간 3번 도로 축선에 연한 도하지점 부근에 병력을 중점 배치해 적을 포착·섬멸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세가 험하고 강안이 가파른 동측의 계명산(△775) 부근의 경계임무는 수색중대에 부여하고 만일에 대비해 중대규모의 기동타격대를 유지토록 하였다.

아울러 포병은 현 위치인 연수동에서 연대를 일반지원하면서 주사격 방향을 북쪽의 19번 도로와 대안의 도하지점 부근에 집중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미 목행교를 폭파한 공병에게는 달천교와 철교를 확보토록 하고, 전투 병력의 확보를 위해 경찰병력을 비롯한 본부의 행정요원에게도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이와 같이 방안을 세운 연대장은 북한군의 침공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7월

6일 하오에 위력수색중인 각 대대를 충주로 집결시키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면서 7월 7일 07:00를 기해 방어진지 점령을 지시하였다.

- ① 연대는 충주지역으로 침공하는 적을 저지 격멸한 다음 별도의 명령에 의거하여 공세이전하려 한다.
- ② 제3대대는 계명산-금릉동간의 강반진지를 점령하여 남한강선으로 침공하는 적을 격멸하라.
- ③ 제1대대는 금릉동-창동리간의 좌일선 진지를 점령하여 달천강선으로 침공하는 적을 격멸하라.
- ④ 수색중대는 상중-목벌리-한천리간의 동측방을 경계하라.
- ⑤ 제1포대는 현 위치에서 연대를 일반 지원하되 화력의 우선권을 제3대대 정면으로 지향케 하라.
- ⑥ 공병중대는 달천교와 철교를 정비하되 별도의 명령에 따라 지역 내의 교량을 폭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 ⑦ 경찰대는 2개 소대를 제1대대에 배속하고 잔류 병력으로 주요관서를 경비하라.
- ⑧ 의무중대는 봉방동에 연대 구호소를 설치하고 일선대대의 위생병까지 장악하여 부상자를 즉각 후송케 하라.
- ⑨ 통신대장은 연대와 대대간에 2회로의 유선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무선을 확보토록 하라.
- ⑩ 헌병대장은 지역 내의 교통을 통제하고 이탈병력을 수용하라.
- ⑪ 연대지휘소는 충주초등학교이며 상황이 전개되면 나는 연수동으로 나갈 것이다.⁴⁷⁾

3. 전투 경과

1) 남한강 방어선 전투

(1)

충주로 철수한 제2연대 제3대대는 남한강 북쪽 3~6km의 대전리-사암리-영

덕리 일대에 대한 적정탐색에 돌입하였다. 7월 6일 14:00에 송강리 부근에서 중대규모의 북한군과 교전한 제3대대는 영덕리 부근에서도 적의 정찰대와 조우전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적과의 접촉이 빈번해지자 대대장 이운산 소령은 대대의 모든 병력을 19번 도로 축선상의 사암리 일대에 매복시켰다.⁴⁸⁾

그러나 매복 직후 대대는 남한강 남안에 방어진지 편성을 계획하고 있던 연대장 함병선 대령으로부터 “즉시 목행동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7월 7일 09:00에 진지점령을 완료하고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이로써 제3대대는 연대의 우일선으로 계명산 서쪽 기슭의 용곡으로부터 용탄동과 목행동을 거쳐 목행교에 이르는 5km의 방어정면을 담당하였다.

대대의 방어정면은 우제일선에 용곡-지탄리간에서 조돈진 나무목의 방어를 담당한 제9중대가, 중앙제일선은 용탄동에서 용탄진 정면을 담당한 제10중대가, 그리고 반송나무목과 목행교 부근의 방어를 위해 목행동에 배치된 제11중대가 좌제일선을 담당하였다. 제12중대는 대대의 전면지원을 위해 81mm 박격포 4문을



용곡 전경

142고지 직후방에 방열했으며, 중기관총 2정은 대대의 양 측방에서 교차사격이 가능토록 배치하였다.

제3대대 방어정면의 강폭은 200~250m로 넓고 수심이 깊어 도섭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대대장은 대안까지 사격의 위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병력을 배치하고 사격방향도 도선장으로 집중시켰다. 그러나 제3대대 방어정면의 동측방인 계명산 동쪽 지역에 대한 경계대책은 공백지대나 다름없을 정도로 미흡하였다. 이는 이 지역이 가파른 강안절벽으로 이어져 기동로가 거의 없으며, 적의 접근로를 원주-충주간 도로를 중심으로 한 북쪽으로 예상해 병력을 북쪽의 강안에 중점 배치한 결과였다.⁴⁹⁾

대대장은 연대의 방침에 따라 북쪽 강안에 병력을 중점배치한 후 연수동에 위치한 제16포병대대 제1포대장 김장근 대위와 화력지원에 관해 협조를 마치고 대대 OP로 돌아왔다. 짙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대대장은 각 중대에 적정보고와 진지보강 특히 모래사장에 설치한 매복초소의 위장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남한강 대안에 진지를 구축한 북한군은 포격을 시작했고,⁵⁰⁾ 곧이어 북쪽 나루터인 조둔진 부근에서 대대를 향해 자동화기사격이 가해져, 피아간의 사격이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11:00를 지나 사격전은 일단락되었으나, 포격전은 종일토록 계속되었다. 15:00경 북한군의 모터사이클분대가 조둔진과 용대, 용교리 및 문산리 등 대안의 도선장 부근에 나타나자 대대는 집중사격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이들은 도하 지점을 미리 선정하려는 정찰대로 판단되었다. 이후 제3대대는 현 진지의 보강에 주력하였고, 날이 저물자 야간경계로 전환하였다.⁵¹⁾

한편 제1대대는 연대의 좌일선으로 충주지역 서반부인 달천강 부근의 진지를 점령, 제3대대의 남한강선 진지와 연계를 이루었다. 이 지역은 충주의 관문인 3번 도로가 통과하고 달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전술적인 요지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연대장은 제1대대 병력을 달천강 하구부근에 배치해 좌우 양측방의 방어선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주력은 서북쪽의 칠금동-용두동-창동리를 연하는 강안의 진지를 점령했고, 좌인접 연대와의 접경부근

공백지대는 증강된 1개 소대에 위력수색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의 우제일선인 제3중대는 금릉동으로부터 탄금대에 이르는 3km의 방어정면 중 금릉동 북쪽의 149고지와 칠금동간의 2km 정면만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통합지휘하는 충주경찰서 소속의 경찰병력에 맡겨 군경합동 방어태세를 취하였다. 제2중대는 달천강 서쪽의 277고지 북쪽 기슭에 서북향의 반월형 진지를 점령, 적이 남한강 서안을 따라 여주로부터 충주로 접근하는 것에 대비하였다.

대대장 박노규 중령은 제2중대와 제3중대를 제일선에 배치하고, 제1중대는 대대 예비로 달천교 동쪽의 신촌에 두었으며, 제4중대는 충주역 서쪽의 하방부락 부근에 포진지를 구축하고 지원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이처럼 15:00까지 진지편성을 완료한 제1대대는 개인호와 중화기진지를 구축하고 야간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제2연대가 남한강과 달천강을 장애물로 서북향 진지를 편성했지만, 충주지역의 방어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리-진본리-황강리 등 우인접 사단과의 공백지대에 대한 대책은 강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대장은 연대수색중대에 기동경계임무를 부여하였다.

연대수색중대는 안림동(충주 동쪽 5km) 부근으로 진출해 북쪽으로는 상종과 하종을 거쳐 기동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목별리와 한천리를 거쳐 황강리에 이르는 충주 동측방의 위력수색임무를 수행하였다. 중대는 위력수색활동 중 어떠한 적정도 수집할 수 없었으나, 실제로 적은 종민동 동북쪽의 관모산 부근에 집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대본부는 수색중대의 보고를 토대로 이 지역에 적의 진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연대에 배속된 제16포병대대 제1포대(52)는 연대장의 지시로 연수동에 포진지를 선정하고, 제3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19번 도로 축선에 화력의 중점을 두었다. 이는 북한군의 도하작전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2)

남한강 북안에서 도하준비를 완료한 북한군은 7월 8일 01:00 무렵부터 3시간여에 걸쳐 연대의 방어진지에 포격을 가하였다. 이어 04:30부터 적은 보병화력

이 증강된 공격준비사격을 제3대대 진지와 제1대대 지역의 칠금동 부근에 집중하였다. 저지진지를 파괴한 후 도하를 시도하려는 적의 포격으로 유개호를 마련하지 못한 제3대대는 많은 손실을 입었다.

05:00 무렵 북한군은 남쪽으로 포병사격을 연신한 후 짙은 안개를 이용해 중대규모의 북한군이 제3대대의 우일선인 용곡 부근의 하상을 통해 진전으로 쇄도하였다. 적의 접근로로 예상하고 사격방향을 이곳으로 집중시켰던 대대는 기관총 등 모든 화기의 사격을 동시에 개시하였다.⁵³⁾ 그리고 또 한 무리의 북한군이 용탄진을 건너 목수 부근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대대의 사격을 받고 분산 도주하였다.

이처럼 적은 조둔진을 비롯해 용탄진, 목행지 및 반송나루터 등 제3대대 전면과 제1대대의 유송리, 및 오목골 등지에서 도강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적의 주력은 남한강을 도하해 충주 북쪽으로 침입을 시도했고, 특히 제3대대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⁵⁴⁾ 반면에 연대의 좌일선으로 달천강 좌우 측방의 진지를 고수하고 있던 제1대대는 유송리 부근에서 중대규모의 적이 칠금리 방면으로 도강하자 탄금대에 배치된 경찰병력과 합세해 격퇴하였다.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피아간에 치열한 교전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1시간 30여분이 지나 07:00 무렵에 이르자 제3대대 진지의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적의 병력은 계속 밀려들어 교두보를 확보하고 진전으로 쇄도하였다.⁵⁵⁾ 증원을 받지 못한 제3대대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황이 악화되었고, 더욱이 인접한 제1대대 제3중대 진지마저 크게 흔들림으로써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편 충주의 동측방에서는 또 다른 북한군이 침공을 시도하고 있었다. 관모봉 골짜기에서 계명산 동쪽으로 강을 건넌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서쪽으로 진격하였다.⁵⁶⁾ 그러나 이 지역의 경계를 담당하던 연대수색중대는 그들의 선두가 상종당 고개를 넘어선 후에야 이를 포착할 수 있었다. 더욱이 수색중대는 경계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불시에 그들을 만나게 되어 지형도 불리한 상황이었고, 병력도 1개 소대에 불과하였다.

그들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실패한 수색중대 제1소대는 마지막에 부근으로 후퇴



마지막재 전경

하였다. 마지막재는 충주 동쪽 4km 지점에 위치한 마지막 관문으로 이곳이 적의 수중에 넘어갈 경우 연대 주력의 퇴로가 차단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1개 소대의 병력일지라도 이 고개를 고수해야만 하였다.

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즉시 현지로 가서 병력을 규합, 적을 저지하라. 곧 증원 병력을 보내겠다”라고 정보주임 송대후 소령에게 지시하고, 연대의 행정요원을 전투편성해 파견하였다. 현지에 도착한 정보주임은 뒤따라 온 연대본부요원까지 통합해 08:00경 적의 진격을 저지하였다.

제일선에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던 제3대대는 결국 진지가 와해되었고, 대대 병력은 분산되어 19번 도로로 밀려들었다. 대대장 이운산 소령은 금릉동 고개마루에 저지진지를 구성하기 위해 병력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전방과 측방에서 대규모의 적이 밀려드는 등 전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3)

연대장은 사단장 김종오 대령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병력 증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제1대대와 제3대대, 그리고 제1포대의 힘을 모아 진지를 일부 조정하고 금릉동 부근에 새로운 저지진지를 편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3대대장에게 대교광산과 금릉동간의 저지진지 고수를 지시하고, 연수동의 제16포병대대 제1포대를 충주 남쪽의 호암동으로 이동시켜 제3대대의 수습을 엄호하도록 명령하였다. 제1대대장 박노규 중령에게는 서측방 3번 도로의 경계를 강화해 충주-수안보 축선을 확보토록 하고 대대에비인 제1중대를 금재고개로 급파해 제3대대를 지원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08:30경 연대는 사단장으로부터 현진지로부터 철수해 충주 남쪽에서 최대한의 지연전을 전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단장은 제2연대가 현재의 상황을 수습해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으면, 12시간 이내에 제2연대 제2대대와 제19연대의 1개 대대를 급파해 지원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2연대가 철수를 개시할 무렵, 우일선의 방어선이 무너져 제3대대의 분산병력이 충주시내로 밀려들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재의 직할대도 호암동 부근으로 분산 후퇴함으로써 체계적인 철수가 어려워졌다.

연대장은 제1대대장에게 달천장 부근의 병력을 충주 남쪽 3km의 대림산(△317)과 단월동(충주 서남쪽 3km)간으로 즉시 이동시켜 엄호진지를 급편토록 지시하고, 제3대대를 비롯한 충주 주변의 모든 장병들은 수회리로 집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연대장은 제1대대의 엄호 아래 충주에서 분산된 연대병력을 수회리에서 수습하려 하였다.

제1대대는 곧장 현진지를 이탈해 충주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중대별로 단월동 부근의 114고지와 싸리고개 동쪽의 181고지, 그리고 대림산을 각각 점령함으로써 11:00 무렵에는 연대장이 지시한 엄호진지의 편성을 완료하였다.

이때의 아군의 상황은 충주 주변의 분산병력이 3번 도로와 호암동 계곡으로 남하하고, 동남쪽의 문화리에 집결한 수색대는 36번 도로를 따라 수회리로 직행하였다. 반면 적은 남한강 방어선이 무너지자 도하를 실시해 충주 시내로 진입



제6사단 제2연대의 집결지인 수회리 전경

하였다. 또한 동측방으로 침공한 북한군은 남산으로 스며들었고, 일부는 제3대대를 쫓아 호암동 입구로 밀려들었으나 대림산에 포진한 제1대대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았다.⁵⁷⁾

한편 연대장은 지휘소를 수안보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수회리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적과의 접촉이 단절되자 그들이 재공격을 위해 전열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⁵⁸⁾ 그리고 지금의 엄호진지가 급편진지로 편성되어 동쪽의 36번 도로와 세성동 일대 등 측방의 위협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현 병력으로 적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적포산(△ 698)–326고지(수회리 서쪽 3km)선에 저지진지를 편성하기로 하고,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철수시켜 새로운 진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연대장의 구두명령에 따라 제1대대가 3번 도로 동쪽의 적포산 일원을 맡았고, 제3대대는 그 서쪽의 풍치(일명, 바람재)–326고지간에서 좌일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대림산 부근에서 철수를 엄호하던 제1대대는 3번 도로를 따라 16:00경

적포산에 도달하여 북쪽 기슭에서 동쪽으로부터 제3, 제1, 제2중대의 순으로 진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수회리로 집결한 제3대대는 전열을 정비한 후 제10, 제9, 제11중대 순으로 이에 연한 좌일선 진지를 점령해 충주-수안보간 적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2) 충주 반격전과 축차 지연전

(1)

충주로부터 11km 후방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한 제2연대는 반격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연대수색중대를 대립산으로 보내 적의 동정을 탐색하였다. 18:00경에는 제19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천지역에 투입되었던 제2연대가 배속이 해제되어 수안보로 귀대하였다. 뒤를 이어 지원 병력인 제19연대 제2대대가 도착하였다. 그리고 「진천의 제19연대를 수안보로 이동시킬 예정이며, 선전대로 2개 대대를 선행시킨다」는 사단장의 친서를 연락장교로부터 받았다.

연대장은 4개 대대를 투입해 충주를 탈환하기로 결심하고, 제3대대는 현진지를 고수하고 다른 3개 대대가 반격을 전개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배속된 제19연대 제2대대를 동북쪽으로 우회시켜 적의 동쪽 측면을 공격하고,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정면공격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격개시선은 목벌리의 서북쪽 계곡과 설운동-세성동간으로 선정하고 공격개시시간을 7월 9일 05:00로 예정하였다. 그리고 각 대대는 공격개시 1시간 전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토록 하였다. 특히 제3대대는 현진지를 21:00 이전에 모두 인수하고 우회공격부대는 야간기동으로 목벌리까지 이동하며, 공격대대의 모든 장병은 1일분의 전투식량을 휴대할 것 등을 포함한 반격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수안보의 연대지휘소에서 구두로 하달되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충주탈환을 위한 반격준비가 속속 진행되어 야간에는 진지교대가 이루어졌다.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용천리와 수회리로 각각 집결해 공격태세를 갖추었고, 특히 제19연대 제2대대는 야간기동으로 다음날 02:30에 문화리 서쪽의 신당마을

을 지나 목벌리로 전진하였다.

(2)

연대의 좌일선으로 적의 동쪽 측면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제19연대 제2대대는 공격명령을 받고 야간기동을 실시한 끝에 7월 9일 04:00에 목벌리에 도달하였다. 공격개시를 1시간 앞두고 목벌리에 도착한 제19연대 제2대대는 아침식사를 포함한 휴식을 중대별로 실시하였다.⁵⁹⁾

그러나 10여 분이 지나자 194고지 동쪽 기슭의 제6중대 지역에서 적의 소총화력과 수류탄이 작렬하였다. 기도비닉과 식후 흡연에 유의토록 한 대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담뱃불로 기도가 노출되어 적으로부터 불의의 기습을 받은 것이었다. 그들의 공격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졌고, 대대는 사상자가 속출할 뿐만 아니라 퇴로마저 차단되자 일부 병사들은 남한강으로 뛰어 들었다.

대대장은 신당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남한강으로 뛰어 들어 강을 따라 남쪽으로 후퇴하였다. 신당에서 병력을 수습하던 09:00경 대대장은 수안보로 집결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았다. 대대장은 집결지에 도착해 개인화기를 휴대하고 모여 있는 대부분의 대대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처럼 제19연대 제2대대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적의 기습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한편 좌일선으로 진출한 제2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용천리와 수회리를 출발해 3번 도로를 따라 세성동 남쪽의 신대부락 부근에 도달하였다.⁶⁰⁾ 이곳에서 05:00를 기해 제2대대는 3번 도로 동쪽의 세성동 계곡을 통해 대립산(△317)을 목표로 진격하고, 제1대대는 도로 서쪽의 두웅산(△459)을 향해 서북진하였다. 07:00경 제2대대는 대향산을 넘어 대립산 동측의 구릉리 부근으로 돌진했고, 제1대대는 두웅산을 무혈점령한 다음 계속하여 북쪽 능선을 따라 달천강 동측으로 나아갔다.

대립산 서남쪽의 창동 부근에서 이르렀을 때, 일단의 적이 소향동-달천강간의 제1대대 정면에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이어서 소향동 북쪽의 3번 도로 상에 2대의 전차가 대대규모 이상의 적과 함께 나타나 기총사격을 가하며 접근하였다.



총추탈환 반격작전 당시 공격목표인 대림산 전경

이들은 제2군단으로 예속이 전환되면서 제15사단과 제12사단 사이로 남하임무를 부여받은 북한군 제1사단이었다.⁶¹⁾

대대장 박노규 중령은 제1중대와 제2중대장에게 즉각 창동쪽으로 진격토록 무전으로 명령하였다. 이들은 3번 도로를 횡단해 동북쪽으로 돌진했으나, 적의 화망에 부딪쳐 20여분 동안의 교전 끝에 뒤돌아섰다. 따라서 3번 도로 축선으로 지향한 제1대대의 진로는 봉쇄되었다.

그러나 3번 도로상에 출현한 전차는 사실은 장갑차로써 소향동에 돌입해 제1대대와 제2대대의 중앙지대에서 측면을 위협했고, 이와 협동한 일부의 적이 남쪽의 원대 부근으로 밀려들었다.⁶²⁾ 또한 08:00경에는 달천강 서쪽의 동막동 부근에서 새로운 적이 나타나 측방에서 사격을 가하며 서측 후방으로 도강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제2대대는 공격개시 3시간 만에 오히려 적의 역습에 휘말렸으며,⁶³⁾ 제2대대는 이런 적정마저 파악하지 못한 채 구룡리 고개를 넘어섰다. 연대본부

는 적의 장갑차가 원대를 통과한 지 30여분이 지난 09:00에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세성동 남쪽의 226고지와 문래산간의 횡격능선으로 물러나 저지진지를 급히 점령토록 지시하였다. 이곳은 공격개시선인 신대부근의 좌우측 능선으로 여기에서 3번 도로 축선으로 밀려드는 적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선두는 이미 신대를 통과해 용천리 쪽으로 쇄도하였다. 따라서 문래산을 점령하려던 제1대대는 문강리 남쪽으로 이동하고, 동북쪽으로 진출한 제2대대는 퇴로가 완전 차단되었다. 게다가 동쪽의 설운동 계곡에서 중대규모의 적이 나타나 별말 부근으로 침입하였고, 문래산 서쪽의 필봉부락 부근에서도 대대규모의 적이 달천강을 도하함으로써 측면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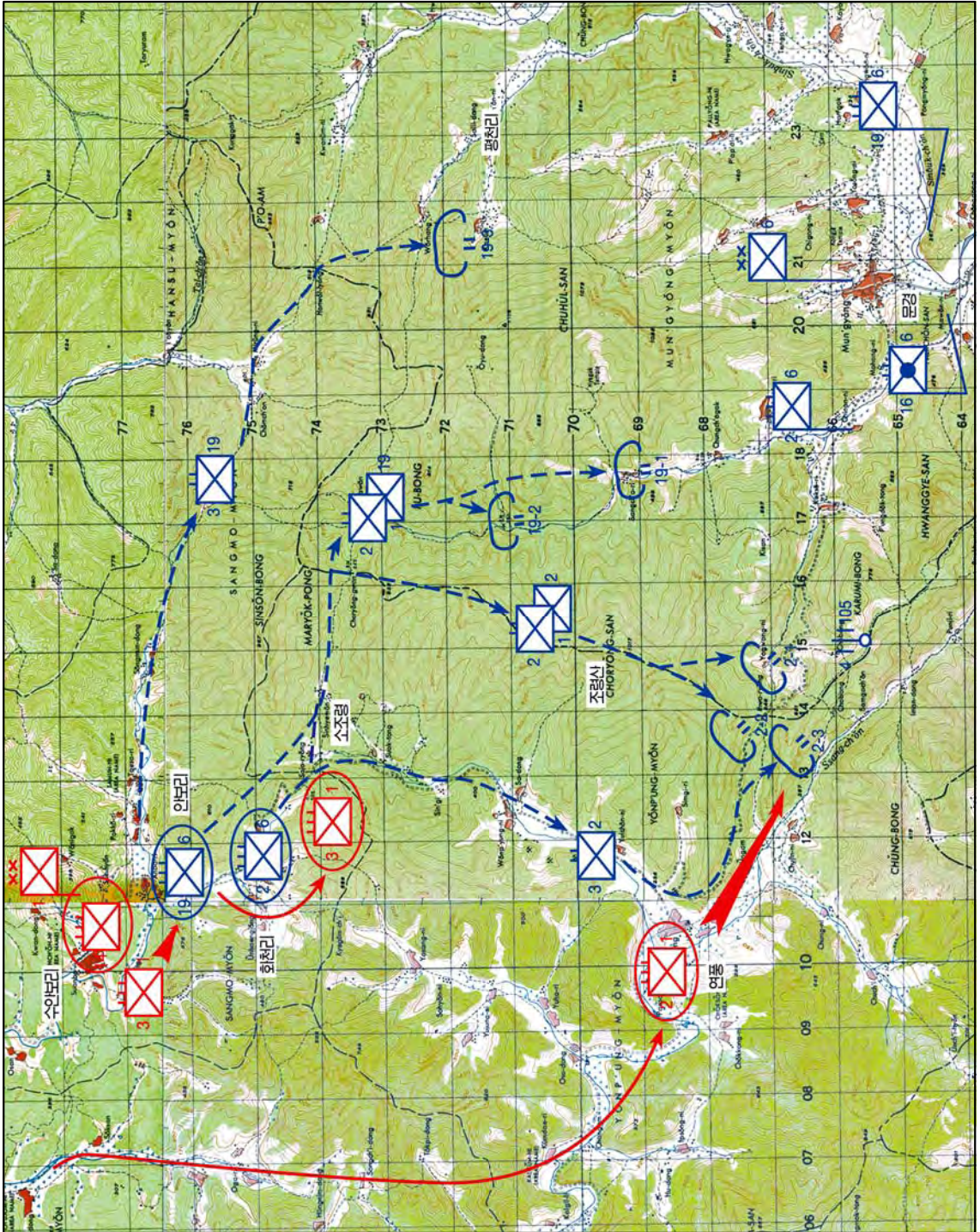
(3)

한편 수안보에 위치해 사단장에게 전황을 보고하면서 병력의 증원과 항공지원을 요청했던 연대장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수안보 확보를 위해 마지막 보루인 적포산-326고지간을 점령하기로 결심하였다. 따라서 문강리 남쪽에 집결하고 있던 제1대대를 적포산(△698)으로 철수시켜 앞서 배치되어 있던 제3대대와 함께 적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적 후방에서 퇴로를 모색하고 있던 제2대대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 수안보로 집결하고 수색중대와 공병 제1중대 등 직할대 병력을 통합하여 수회리 남쪽의 풍치(바람재)를 점령토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2연대가 적포산-326고지간에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방어에 임하고 있는 동안 진천에서 작전지역을 수도사단에게 인계하고 이동한 제19연대(-)의 주력이 도착하였다. 제19연대는 도착 즉시 제2연대의 진지를 인수하고, 목벌리에서 분산되어 수안보로 집결하고 있던 예하의 제2대대를 통합해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이 무렵 북한군은 제6사단의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3번 도로와 36번 도로가 연결되는 용천리 부근까지 침입한 후 공격을 중지함으로써 이후 전선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한편 현 임무를 제19연대에 인계하고 수안보로 이동한 제2연대는 분산병력을 수습해 부대를 재정비한 다음 7월 10일 14:00에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지휘소를

<상황도 7-3> 이화령-조령 진지점령



화천리(수안보 남쪽 4km)로 이동하였다.⁶⁴⁾ 그리고 수안보-연풍 축선의 길목 좌우 양쪽에 있는 610고지-478고지선에 병력을 배치하여 새로운 저지진지를 구축하였다.⁶⁵⁾

(4)

한편 북한군 제15사단의 음성점령을 지원하고 7월 9일 22:00 무렵 황강리(충주 동쪽 10km) 지역에 집결한 제1사단은 문경-함창 축선으로의 진격을 지시받았다. 다음날 2개 보병연대로 진격을 실시한 북한군은 22:00 무렵에 문강리(충주 동남방 9km)를 점령하고, 7월 11일 아침에 화천리 362고지(문경 서북방 12km, 소조령)에 도달하였다.⁶⁶⁾

적은 아군의 저항과 협소한 기동공간으로 진격이 저지되자 일시 공격을 중단한 채 소백산맥을 돌파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악소로와 계곡을 통해 우회기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북한군 제1사단은 현 진지상에서 사단의 주력을 고착시키는 임무를 예하의 제3연대에 부여하고, 제14연대를 서측방으로 우회시켜 수안보 남쪽의 연풍으로 직진토록 하였다.⁶⁷⁾ 이는 사단을 전후방에서 동시에 포위공격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적이 박달봉(수안보 서쪽 6km)을 넘어 오가리 부근에 도달한 7월 11일 10:00 무렵에서야 이를 간파하였다. 퇴로차단의 위협을 느낀 사단은 일사불란한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7월 11일 야간에 문경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한편 증평에서 보은으로 사단지휘소를 옮기고 차기대책을 숙의하던 제6사단은 7월 10일 11:00에 육군본부로부터 조령과 이화령을 포함한 문경지역의 방어명령을 받았다. 이는 소백산맥과 금강을 연하는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해 통제력 있는 작전지도를 실시하려는 육본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단은 죽령-문경간 방어임무를 부여받고 새로 창설된 제2군단에 배속되었다.⁶⁸⁾

사단장은 진지점령에 앞서 문경지역의 지형을 분석하고 부대이동 소요시간을 산출하는 한편 병력 사용계획과 화력운용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조령

과 이화령에 주안점을 두고 기동예비대를 보유한 거점방어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15:00에 문경으로 이동해 문경초등학교에 사단지휘소를 설치하였다.⁶⁹⁾

- ① 사단은 제19연대를 우1선으로, 제2연대를 좌1선으로, 그리고 제7연대를 예비로 한 방어태세를 취해 문경지역으로 침공하는 적을 저지격멸하려 한다.
- ② 제19연대는 현 위치 화천리로부터 즉시 조령으로 이동해 평천리와 조령 제1, 제2 양 관문에 경계의 중점을 두고 우1선을 고수하라.
- ③ 제2연대는 현 위치 신평에서 즉시 이화령으로 이동해 3번 도로에 경계의 중점을 두고 좌1선을 고수하라.
- ④ 제7연대는 현 위치 괴산으로부터 이동해 문경에 도착하는 즉시로 기동태세를 갖추고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
- ⑤ 제16포병대대는 사단을 일반지원하되 화력의 우선권을 이화령 정면으로 지향케 하라.



681고지 전경. 국군 제6사단 제2연대 제3대대의 방어진지

- ⑥ 공병대대장은 사단의 주력이 통과하는 즉시로 연풍-괴산간과 이화령-연풍간의 도로를 파괴하고, 별도의 명령에 따라 지역 내의 주요 교량을 폭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 ⑦ 통신중대장은 각 연대의 진지 점령과 동시에 유무선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 ⑧ 의무중대장은 진안리에 사단 수용소를 설치하라.
- ⑨ 나머지는 문경초등학교에 위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진천의 제19연대는 괴산과 수안보를 거쳐 사단의 우일선인 조령을, 충주의 제2연대는 수안보-연풍을 거쳐 좌일선인 이화령을 점령했고, 그리고 음성에서 보천을 경유 괴산으로 내려간 제7연대는 예비로 문경에 집결하였다. 또한 사단에 배속된 제16포병대대도 이곳에 집결해 지원태세를 갖추었으며, 공병대대도 이화령-연풍 및 연풍-괴산 간에서 주요 지점의 도로 및 교량파괴 등 임무를 수행하였다.⁷⁰⁾ 이처럼 예하의 각 연대는 7월 12일 05:00까지 예정된 진지를 점령하고 방어태세에 돌입하였다.

4. 전투 결과

제6사단은 영남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충주-문경-함창 방면으로 진격한 북한군 제1사단을 저지·지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단은 적의 예상접근로에 병력을 중점 배치하는 한편 남한강을 이용한 하천방어를 실시하였다. 또한 축차적인 철수와 적의 진출로를 통제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는 등 소백산맥에서 방어선을 형성하기까지 성공적인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이는 국군에게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유엔군에게는 본격적인 병력전개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후 제6사단은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소백산맥으로 철수해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7월 13일부터 문경-영강선 방어작전에 돌입하였다. 이 지역은 충주로부

터 문경과 점촌을 거쳐 상주에 이르는 중부지역의 요지로서, 이 지역이 돌파될 경우 낙동강까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요충지였다.

한편 제6사단은 충주지구 전투기간 중인 1950년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1,450명의 북한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81mm 박격포 4문을 비롯해 LMG 9정과 BAR 2정, 소련식 장총 94정, 다발총 9정, 각종 소총 40정, 그리고 수류탄 29발과 각종 포탄류 180발 등 많은 무기와 장비를 노획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사단의 병력 손실은 전사 31명, 전상 205명이었다. 각 계대별 전사자는 사령부 13명, 제2연대 13명, 제19연대 5명이며, 이 중 4명의 장교가 전사하였다.⁷¹⁾

또한 사단은 적지 않은 양의 장비가 파괴 또는 유기되었는데, 자동소총을 비롯한 각종 소총 864정과 2.36" 로켓포 23문, 박격포 6문, 유탄발사기 110정 등의 손실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M1소총실탄 약 34만 발 등 엄청난 양의 실탄이 같은 기간에 소모되었다.

제 4 절 단양 전투

1. 개 요

단양 전투는 국군 제8사단이 중앙선 축선을 따라 남진하는 북한군 제12사단 제30·32연대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단양일대에서 치른 방어전투이다.⁷²⁾

단양을 중심으로 한 작전지역은 남고북저(南高北低)의 험준한 지세 탓으로 교통이 매우 불편하였다. 지역 내의 천연장애물인 남한강은 폭이 100~150m, 수심이 평균 2m에 달하여 도섭(渡涉)이 불가능하였다. 특히 국군 제8사단이 단양 부근의 남한강변에 하천선 방어진지를 편성할 당시에는 며칠간 계속 내린 비로 인해 강물이 넘칠 만큼 불어나 도하작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는 상태였다.

작전지역내에는 소백산맥의 주봉(主峰)인 소백산(△1,439)을 비롯하여 연화봉(△1,394), 도솔봉(△1,314)이 연이어 산줄기를 이루면서 남동 방향으로 뻗어내려 조령-추풍령-지리산으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단양 일대 남한강 주변의 금수산(△1,015)·천주봉(△579)·슬음산(△671)·두악산(△732)·324고지·봉화대(△360)는 감제고지로서 전술적으로 중요시 되었다.

지역 내의 교통망은 중앙선이 제천-단양-죽령-풍기로 연결되며, 이와 거의 평행하게 5번 도로가 북서쪽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이 도로는 비포장인데다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았으며, 교량이 설치되지 않아 상진리에서는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하가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중앙선에는 단양철교가 가설되어 있었으나 7월 5일 국군 제8사단 공병대대 폭파반이 교량을 폭파함으로써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외에 제천에서 어상천면의 안터에 이르는 도로와 단양에서 영춘으로 이어지는 도로, 단양에서 충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었으나 겨우 우마차나 다닐 수 있는 상태여서 전반적으

로 지역의 교통은 불편한 편이었다.⁷³⁾

1950년 6월 27일 강릉에서 대관령으로 철수한 국군 제8사단은 육군본부 작전 명령에 따라 7월 3일 신림전투에 참가하였다. 7월 4일 제8사단은 충주로 이동하라는 육군본부의 명령을 받고 7월 5일 제천에서 열차를 이용해 대구를 경유 목적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제8사단장은 육군본부에 사단의 충주이동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전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로부터 이에 대한 답신이 없자 사단장은 직접 대전의 육군본부로 달려가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제8사단의 충주 이동 명령은 철회되고 제천으로의 복귀가 결정되었다.

제8사단장은 중앙선 축선상의 관문인 제천 일원이 병력의 공백지대가 되어 있는 상황의 위급함을 절감하고, 안동까지 남하한 사단 주력을 급히 되돌려 북상시켰다. 제8사단은 7월 6일 18:00에 단양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이때 단양의 남한강 교량이 공병대대에 의해 폭파된 상태였고, 제천 방면에서 남하한 북한군 제12사단(-) 전위가 남한강 대안까지 진출한 상태였다. 이에 국군 제8사단은 남한강변에 방어진지를 급히 편성하고 북한군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2개 연대로 편성된 국군 제8사단은 단양 북쪽의 남한강 남안에 병력을 배치하여 북한군 제12사단(-)의 공격을 저지하는 한편, 제10연대 제1대대로 하여금 매포초등학교에 위치한 북한군의 전방지휘소를 기습하도록 하여 이들의 기세를 꺾어 놓았으며, 상진리 지역에서 도하를 시도하는 적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8사단은 양방리와 장현리 지역으로 침투한 북한군으로부터 배후를 위협받게 되자 7월 12일 풍기로 철수하여 새로운 저지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2. 전투 경과

1) 국군 제8사단의 남한강 방어선 형성

(1)

1950년 6월 27일 강릉에서 철수한 국군 제8사단은 대관령 너머 유천리와 횡계리에서 전열을 재정비한 후 다음날 08:00를 기해 강릉 탈환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강릉 탈환을 위한 전투가 한창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28일 14:00에 경찰 경비전화를 통하여 제6사단장 김종오(金鍾五) 대령으로부터 “제8사단은 28일 중 원주로 철수하여 그곳을 확보하라”는 육본의 작전지시가 전달되었다.⁷⁴⁾

이 명령에 따라 제8사단은 6월 29일 06:00를 기하여 300대의 차량중대를 이루고 원주를 목표로 하진부리(下珍富里)를 출발하였다. 출발 당시 제8사단장이 육군총참모장에게 무선통신으로 보고한 제8사단의 총병력은 6,135명이었다.⁷⁵⁾ 이 보고에 의하면, 사단사령부에 장교 136명, 부사관과 사병 1,611명, 제10연대에 장교 105명, 부사관과 사병 1,771명, 제21연대에 장교 112명, 부사관과 사병 2,400명이었다.⁷⁶⁾ 그러나 부대 이동의 경험이 없었던 제8사단은 시속 5마일 안팎의 속도로 행군하였기 때문에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차량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였다.

행군제대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던 사단장은 대화(大和)로 나아가 원주-횡성에서 피난 나온 주민들로부터 그곳의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횡성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단장은 원주까지의 이동거리와 행군속도를 감안한 끝에 사단이 원주에 도착하기 전에 북한군이 그곳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서 목적지를 제천으로 변경하였다. 제8사단장은 모든 차량을 평창에 집결하도록 하고 일부 차량을 회송시켜 도보행군을 하던 보병부대를 병력 수송토록 하였다. 이것은 북한군이 빠르게 남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차량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연료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단장은 군수참모와 병참참모에게 연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병참참모 마웅호(馬雄豪) 대위는 몇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을 대동하고 제천으로 내려갔다. 이곳에서 주민의 제보로 제천역 근처 방공호에 은닉된 200여 드럼의 휘발유를 찾아내어 극적으로 연료를 획득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천농업창고에 보관된 정부 보유미 2만 가마도 얻었는데 이중 8천 가마의 쌀을 부대 전투식량으로 사용하게 되어 부대작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⁷⁷⁾

제8사단이 대화-평창-주천을 거쳐 제천으로 철수를 완료한 것은 7월 2일 11:00경이었다.⁷⁸⁾ 제천으로 이동을 완료한 제8사단은 곧 제천 방어와 원주 탈환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제8사단은 사단지휘소를 제천의 의림초등학교에 개설하고 제21연대(연대장 김용배 중령) 주력을 도화리(桃花里)-무도리(務道里)선에 배치하여 영월(寧越)-주천리(酒泉里) 방면에서의 북한군 공격에 대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6사단 방어지역을 인수하라'는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7월 3일, 제21연대 1개 대대로 증강된 제10연대(연대장 고근홍 중령)를 신림리(神林里)로 진출시켜 제6사단 제7연대(연대장 임부택 중령)와 임무를 교대하게 하였다.

7월 3일, 제10연대(+)는 제천에서 열차편으로 신림역 북쪽의 '가리파'⁷⁹⁾ 터널 입구 부근까지 이동하여 하차한 후 고개 정상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때 북한군의 공격이 개시되어 가리파고개 일대가 순식간에 격전장으로 변하자 제10연대는 제6사단 제7연대와 진지교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리파고개 정상을 중심으로 좌우 능선에 급편방어진지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⁸⁰⁾

당시 원주에서 남하한 북한군은 최충국(崔忠國) 소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제12사단이었다.⁸¹⁾ 북한군 제12사단은 6월 30일 흥천을 점령한 후 7월 2일 08:00경 횡성을, 그리고 13:00경 원주를 점령하였다.⁸²⁾ 이후 북한군 제12사단은 주력(제30·제32연대)이 원주-제천 방면으로, 제31연대가 원주-충주 방면으로 나뉘어 국군을 추격하였다.⁸³⁾ 제12사단 주력은 7월 3일 06:00에 원주를 출발해 제천으로 향하던 중 문현고개(중앙선 빠리굴 부근)에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병력과 교전을 벌였다. 14:00에 문현고개 부근 고지를 점령한 북한군 제12사단(-)은 18:30에 신림리(제천 서북방 16km) 지역까지 진출하였는데, 여기서 국군 제10연대(+)와

<상황도 7-4> 국군 제10연대의 신림전투



교전을 벌이게 되었다.⁸⁴⁾

그러나 북한군은 갑자기 공격을 중지하고 이따금 요란사격만 가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국군의 유리한 감제고지 선점(先占)과 북한군의 화력지원 부족에서 기인하였다.⁸⁵⁾

북한군은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자주포포대를 전투대열로 추진하는 한편, 측방으로 은밀하게 우회하여 언제든지 제10연대를 포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반면에 국군 제10연대(+)는 전방이 소강상태에 놓이자 방어진지에 배치되어 있던 장병들은 보급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두 끼나 굶어 허기와 피로에 지친 끝에 모두가 졸고 있었다.⁸⁶⁾

7월 4일 새벽, 북한군은 자주포포대를 전투대열로 추진시키고 37mm 대전차포 중대를 직접조준사격에 투입한 후, 보병이 포병의 직접조준사격 및 박격포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산악소로를 따라 공격하였다.⁸⁷⁾ 905고지로 우회한 북한군은 제10연대의 방어진지 일부를 기습하여 돌파구를 형성하였다. 이로 인해 연대 방어진지는 08:00 무렵에 맥없이 무너져 연대는 신림리의 579고지와 624고지 선으로 후퇴하였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연대 예비인 제3대대를 즉각 투입시켜 전선을 보강하고 사단으로부터 배속 받은 제21연대 제1대대로 역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신림리 가리파고개의 상황은 계속해서 불리하게 전개되었으며, 결국 제10연대(+)는 제천으로 분산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써 국군 제8사단이 원주를 탈환할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제8사단장이 제천을 방어할 태세를 갖추려고 제21연대의 엄호하에 가리파고개에서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있을 때 육군본부로부터 충주로 이동하라는 작전명령이 하달되었다. 북한군 제12사단(-)은 7월 4일 18:00경 제천을 점령하였다.⁸⁸⁾

(2)

8

국군 제8사단의 충주 이동 명령은 7월 4일 17:15에 제6사단장을 통해 전달되었다. 제6사단장은 육군총참모장으로부터 “제8사단은 주력을 충주로 급파하라.

제8사단이 충주를 담당함으로써 제6사단은 청주로 급파될 것이다”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⁸⁹⁾

이러한 명령을 받은 이성이 사단장은 중앙선 축선의 관문이며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인 제천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포기하게 하는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18:35에 육군본부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문의하였다.

제6사단장이 전달해준 명령을 받았다. 제8사단을 충주로 이동하라는 명령은 분명 제천과 단양을 적에게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적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지켜야만 한다. 적은 단양을 탈취한 후 안동, 부산, 김천, 대구로 진격할 것이다. 따라서 제6사단이 충주를 방어하고, 제8사단이 단양을 방어해야만 한다. 현 진지를 고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이 무선전문에 대해 신속한 회신을 요구한다.⁹⁰⁾

육군본부의 회신과 관계없이 육본작명이 하달된 이상 사단장은 이동준비에 착수하도록 하였으며, 사단공병대대(대대장 김묵 대위)로 하여금 신림리-제천간의 모든 철교와 교량을 폭파하게 하였다.⁹¹⁾

당시 제8사단의 기동력은 300여 대의 차량과 이에 소요되는 충분한 연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전날부터 제천역 부근에 대기시켜 놓은 열차를 이용한다면 사단이 동시에 열차행군을 실시할 수 있었다. 사단장은 제천-충주간 산악도로를 도로로 행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열차편으로 안동-대구-청주를 경유 충주로 이동하는 시간이 엇비슷한 점을 감안하여 열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개전 이래 계속된 전투와 행군으로 지쳐 있는 장병들이 열차로 행군하는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⁹²⁾

제8사단은 7월 5일 02:00에 제천을 떠났다. 이때 사단장은 행군제대가 출발한 다음 짚차로 밤을 지새우면서 충주, 청주를 거쳐 다음날 오전에⁹³⁾ 육군본부에 도착하여 하달된 작전명령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당시 육본 수뇌부들을 찾을 수 없었던 제8사단장은 신성모 국방장관을 만나 작전명령의 부당함을 전하였고, 곧 이어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 이하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앙선 축선의 중요



국군 제8사단 사령부와 제10연대가 주둔하던 구단양읍

성을 브리핑하였다. 이에 딘 소장은 즉시 복귀하라고 지시하였다.⁹⁴⁾ 육군본부에서는 7월 5일 10:00부로 “제8사단은 즉시 남한강 북동지구에서 남진을 기도하는 적을 제천 부근에서 저지 해(該) 지구에서 고립을 각오하고 고수 방어하라”는 작전명령 제20호를 하달하였다.⁹⁵⁾

제8사단장 이성이 대령은 중앙선 축선상의 전황이 매우 위급하게 되었음을 직감하고 곧 대전역으로 가서 철도비상전화로 이동상황을 확인한 결과 이동부대는 이미 대구, 영천, 안동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15:00경 선발대는 대구에, 중간제대는 영천에, 그리고 공병파괴반을 제외한 후방제대가 안동에 각각 도착한 상태였다. 이에 사단장은 참모장에게 제천으로 되돌아갈 준비명령을 시달한 후 L-5 연락기 편으로 대구에 도착하여 사단 주력과 합류하였다.⁹⁶⁾

이 무렵 사단공병대대의 S-3 서정우 중위가 지휘하는 폭파반이 제천 동남쪽 1km에 위치한 소하천상의 철교를 비롯하여 단양에 이르는 사이의 대소철교를 폭파하면서 남행 중에 있었다. 7월 5일 23:00에 안동에 집결한 사단은 이곳에서 숙영하고 6일 10:00에 출발하여 18:00 단양에 도착하였다.⁹⁷⁾ 이때는 이미 공병폭파반이 단양철교를 폭파한 뒤이고 원주-제천으로 남하한 북한군 제12사단 주력의 전위가 남한강 북안까지 도달해 있었다. 사단은 이곳에서 급히 하차하여 지휘소를 단양중학교에 개설하고 남한강변을 따라 즉각 전투준비에 착수하였다.⁹⁸⁾

(3) 8

단양으로 복귀한 국군 제8사단은 제21연대를 단양읍(丹陽邑)－현천리(玄川里)－심곡리(深谷里)－고음동(古音洞)－기촌리(基村里)－고수리(古藪里)에 이르는 남한강 연변의 약 10km 정면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제10연대를 사단예비로 하여 단양주변의 경계와 북한군의 기습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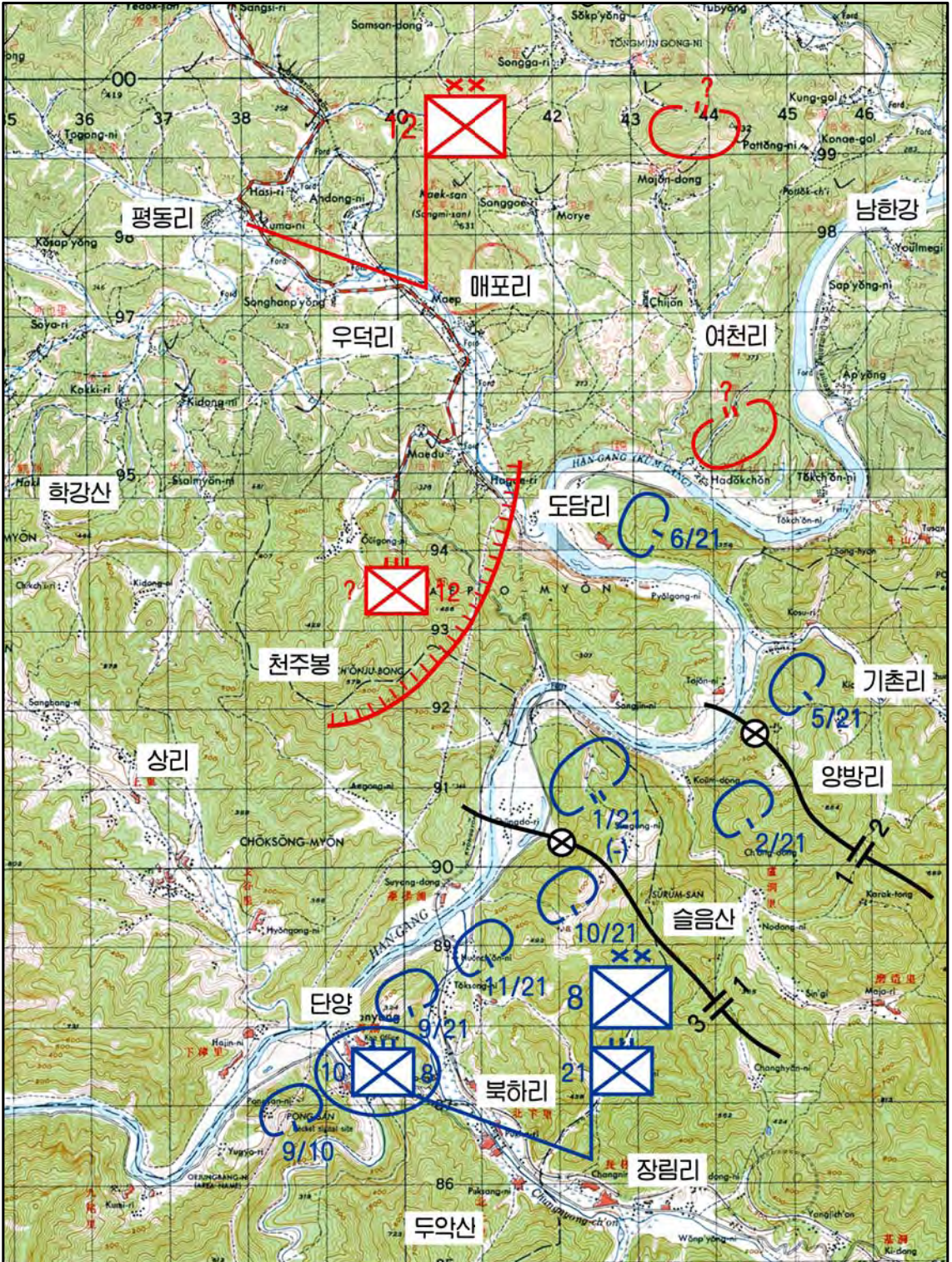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제21연대는 제3대대(대대장 이창률 소령)를 서쪽의 324고지－현천리에, 제1대대(대대장 최취성 대위)를 중앙의 슬음산(瑟吟山, 671m)－고음동－664고지 서쪽 능선에, 그리고 제2대대(대대장 박영섭 대위)를 동쪽의 664고지－기촌리－고수리에 각각 전개하였다. 이 무렵 청풍 부근으로 적 일부가 침입했다는 현지 경찰의 정보 보고에 따라 제7중대(중대장 김성빈 대위)를 급파해 사단의 서측 방을 엄호하게 하였다.

한편 제10연대(연대장 고근홍 중령)는 단양역전의 동굴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제3대대(대대장 하병래 소령)가 단양외곽을 방어하는 가운데 주력이 단양초등학교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8사단은 개전 이후 제6사단과 더불어 견제를 유지한 부대였지만, 개전 당시부터 2개 연대에 불과한데다가 초기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전투력이 약화된 상태였다. 이에 사단은 제천에서 사단과 함께 남하한 약 1,000명의 청년방위대원과 학생들을 충원하여 전투력의 보강을 시도하였다. 사단이 보유한 주요장비는 105mm포 13문을 비롯하여 57mm 대전차포 11문, HMG-23정, LMG-21정, Cal-50 기관총 30정, 81mm 박격포 19문, 60mm 박격포 27문, 2.36" 로켓포 120문 등으로써 장비의 손실은 비교적 많지 않았지만, 북한군과 비교해 열세였으며 야포와 대전차포의 화력지원이 지형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강릉에서의 원활한 후방철수와 제천에서의 정부보유양곡의 후송으로 보급이 비교적 양호하고 사기도 왕성하였다. 더욱이 전쟁 발발 당일 저녁에 모두 철수해버린 미 고문관들이 미 극동사령부의 복귀 명령에 따라 7월 4일경 제8사단에 합류했다.⁹⁹⁾

한편, 제8사단 정면의 북한군은 제12사단 제30, 제32연대였다. 7월 6일 16:00경

<상황도 7-5> 1950년 7월 6~8일 피·아 남한강 배치



제천을 점령한 북한군 제12사단(-)은 계속해서 국군 제8사단을 추격해 7월 6일 20:00경 하리(단양 서북방 3km),¹⁰⁰⁾ 매우(단양 북방 8km),¹⁰¹⁾ 별곡리(단양 서북방 8km)¹⁰²⁾ 지역의 남한강 북쪽 강변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제12사단 선두부대가 도하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북한군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국군 제8사단 방어진지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는 한편, 도하를 준비하였다.¹⁰³⁾

2) 국군의 매포리 기습과 북한군의 도하

(1) 10

7월 6일 국군 제8사단은 단양에 다다른 얼마 뒤에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3호(1950. 7. 6. 17:00)를 수령하였다. 이 작전명령에서 육군본부는 제8사단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8사단은 1개 연대로 원주-제천으로부터 북서방향으로 공격하고 기타부대로 현 방어정면을 고수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라. 제8사단장과 제6사단장은 원주에 대한 공격개시 시간 및 공격개시선에 관하여 긴밀히 연락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다.¹⁰⁴⁾ 이러한 육군본부의 명령은 제8사단이 제천을 떠나 안동·대구로 열차 행군하는 동안에 북한군이 제천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 제8사단이 제천까지 북상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취한 조치였다.¹⁰⁵⁾

이 명령을 받은 제8사단장은 참모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였다. 참모회의 결과 북한군의 선견대(先遣隊)가 이미 도담리 대안의 덕천리-여천리(麗川里)-덕문곡리(德文谷里) 부근에 도달한 현 상황하에서 사단 전체가 적전(敵前) 도하를 시도하여 제천을 거쳐 원주로 진격한다는 것은 적으로부터 협공과 후방차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육군본부에서 명령이 하달된 이상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제8사단은 우선 1개 연대만이 남한강을 도하하여 천주봉(天柱峯, △579)을 거쳐 도로를 따라 제천으로 공격하되, 북한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때에는 지체 없이 단양으로 후퇴하여 하천방어로 적을 저지 격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¹⁰⁶⁾

이에 따라 사단장은 제21연대를 남한강연안에 배치하고, 제10연대를 공격부대로 하여 천주봉 점령 후 단양-제천간 도로의 서측방을 따라 공격하며, 그 진전을 보아 제21연대도 공격 이전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남한강을 건너 남하한 피난민을 심문하던 첩보대로부터 매포리의 매포초등학교에 적의 전방지휘소가 추진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졌다. 이에 사단장은 정보참모 육근수(陸根洙) 소령에게 즉시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확인 결과 제보자가 제천의 유지와 경찰관이라는 점으로 믿을만한 첩보라고 결론지었다.¹⁰⁷⁾

사단장 이성이 대령은 작전계획을 수정하여 제10연대의 1개 대대만으로 적 전방지휘소를 기습하여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로 결심하고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¹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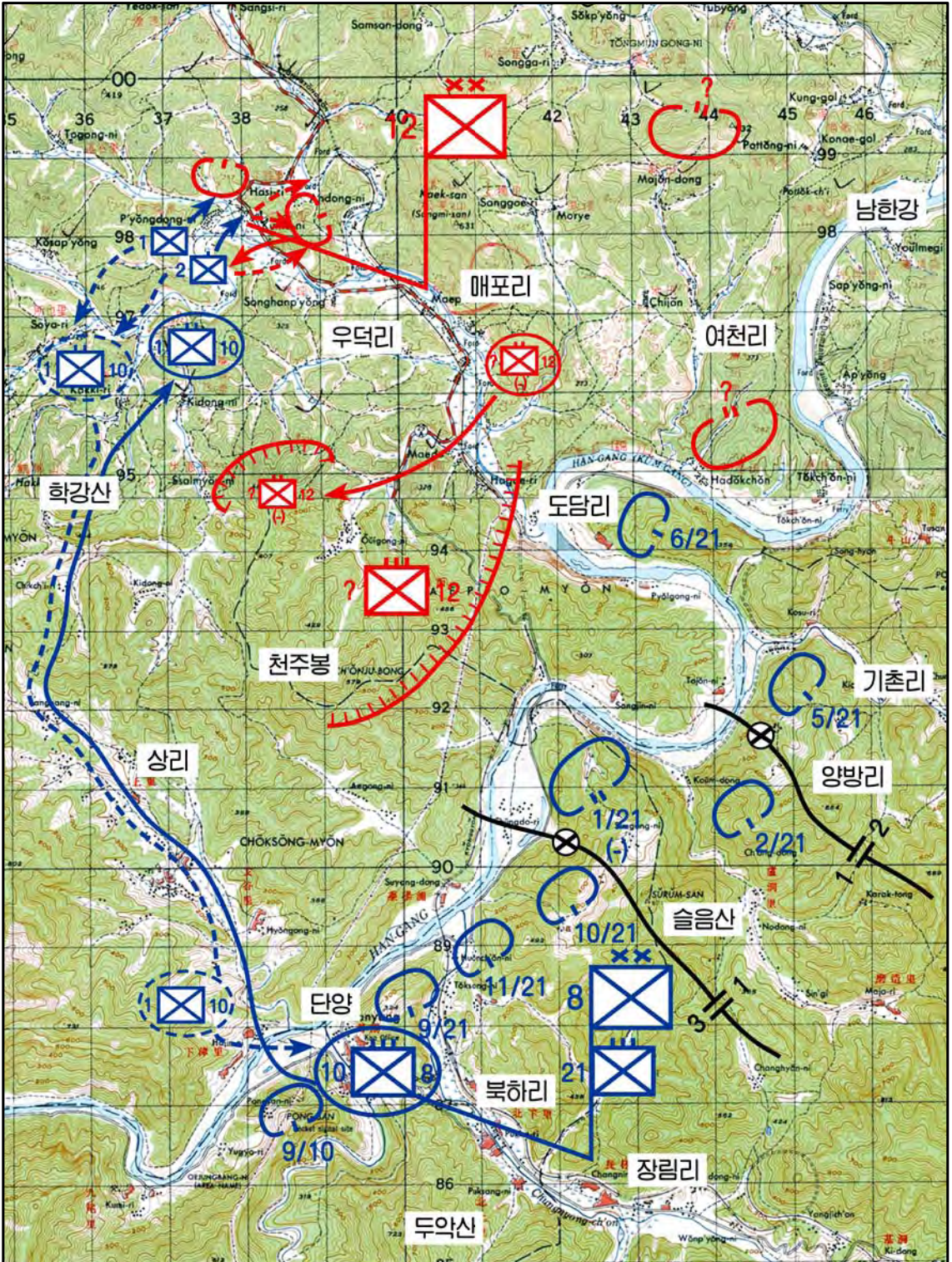
이 명령에 따라 사단 공병대대(대대장 김묵 대위) 제2중대(중대장 이용구 중위)가 제10연대의 도하를 위한 교량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무렵 계속된 장마로 인해 홍수가 저 전날 공병대대 제3중대(중대장 오명환 중위)가 차량부대의 철수를 위하여 임시로 부설한 상진리(上津里) 부근의 가교¹⁰⁹⁾가 대안의 적과 홍수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하폭이 좁은 하진리(河津里) 대안의 중방리(中坊里)를 도하지점으로 선정하였다.

공병대대 제2중대는 뗏목을 엮어 만든 나룻배로 강 양안을 왕복 운행할 수 있도록 중방리에서부터 하진리 사이에 굽은 쇠줄을 가설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장비의 부족과 때마침 하진리에 출현한 북한군 정찰대의 방해로 실패하였다.¹¹⁰⁾

이렇게 되자 제10연대 제1대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7월 6일 23:00에 단양을 출발하여 중방리에서 먼저 도하를 감행한 제2중대(중대장 안동훈 중위)가 교두보를 확보하는 가운데 3척의 나룻배로 강을 건너 7월 7일 05:00에 도하를 완료하였다.

제10연대 제1대대는 기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천주봉(△579)을 우회하여 금수산(△1,015) 계곡의 현곡리(玄谷里)-하리(下里)-상리(上里)-송현(松峴)을 거쳐 각기리(角基里) 서쪽 계곡에 이르러 공격준비를 갖추고 휴식을 취하였다. 제1대대는 7월 8일 04:00에 공격목표인 매포초등

<상황도 7-6> 국군 제10연대 제1대대의 매포리 기습전



학교를 눈 아래 굽어볼 수 있는 평동리(坪洞里)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21연대는 324고지-현천리-슬음산-664고지-기촌리-고수리에 이르는 강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으며, 제10연대 주력은 단양초등학교에 집결하여 공격태세를 갖춘 다음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18포병대대는 공격대대의 직접지원태세를 갖추는 한편 교란사격을 계속하고 있었다.¹¹¹⁾

7월 8일 04:00에 평동리 남쪽 능선으로 진출한 제10연대 제1대대장 박치옥(朴致玉)소령은 정찰대로부터 매폐초등학교에 북한군 지휘소가 분명히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의 257고지와 그 동남쪽의 265고지에는 증강된 1개 중대규모의 적이 분산 배치되어 지휘소 경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이에 대대장은 05:00를 기해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¹¹²⁾

동틀 무렵인 05:00에 제2중대의 특공대가 325고지 북쪽으로 진출하여 267고지의 북한군 매복조 1개 분대를 섬멸하는 즉시 대대주력은 267고지로 진출하고 뒤이어 제2중대가 개활지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목표 지점 100m 전방의 세천(細川)



북한군 전방지휘소가 있던 매폐초등학교

제방으로 약진한 제2중대는 때마침 목표지점으로 집중되는 81mm 박격포 사격에 호응하여 4정의 기관총과 6문의 2.36" 로켓포, 그리고 20여 정의 유탄발사기 등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불의의 기습에 당황한 북한군은 군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다가 쓰러지거나 고지쪽으로 도망쳤다. 257고지에 있던 1개 중대규모의 적만이 소총과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저항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속칭 옷말의 329고지 동쪽 능선으로 신속하게 기동한 제1중대가 돌진하면서 급습하자 북한군은 분산되기 시작하였다.

이틈을 이용해 제2중대는 목표지점 50m 전방에서 또 한 차례 돌격준비 사격을 가하고 일제히 약진하였다. 이때 영천리(令泉里)로 남하하고 있던 1개 대대규모의 북한군이 속칭 생선바위로 급진하고 122mm 유탄포와 120mm 박격포 사격을 집중하여 선두에서 돌진하던 중대장 안동훈(安東勳) 중위가 전사하였다. 중대장의 전사에도 불구하고 선임장교 유학성(兪學聖) 중위의 '돌격 앞으로'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돌진하였다.

북한군의 화기가 개활지를 벗어나지 못한 중대에 집중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였지만 선두가 과감하게 매포초등학교에 돌입해 수류탄을 투척하고 사격을 가해 전과를 확대하였다. 이때 전황의 추이를 지켜보던 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상 더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 제2중대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때 전열을 재정비한 265고지의 북한군이 제2중대의 퇴로를 차단하려고 진전 출격을 시작하자 267고지 동사면을 확보한 제3중대(중대장 박용학 중위)가 즉시 81mm 박격포를 비롯해 지원사격을 집중하여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포격이 제3중대가 위치한 267고지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2중대는 제1중대의 엄호하에 329고지 동단으로 분산철수하고 제1중대는 제2중대의 엄호하에 329고지를 거쳐 물러섰다. 우덕리(友德里) 계곡에서 일단 병력을 수습한 제10연대 제1대대는 단양으로 급히 철수하기로 하고 제1중대의 엄호하에 제3중대를 선두로 하여 속칭 버심이 고갯마루로 진출하였다. 이때 미면리(米面里)-481고지에 이르는 일대의 북한군이 공격을 가해 왔다. 북한군이

이미 퇴로를 차단하고 전후에서 협공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대대장은 도하지점인 하진리를 대대 집결지로 정한 후 각 중대별로 분산하여 북한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각 중대는 금수산(錦繡山)－학강산(鶴降山)으로 분산 철수하였다. 이때 북한군의 포격과 추격이 급박하게 이루지면서 제10연대 제1대대는 부상자도 수습하지 못한 채 철수해야만 했다. 제1대대는 북한군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18:00에 하진리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연대에서는 남한강 북안에 교두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제9중대(중대장 박병석 대위)만이 남안의 봉화대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서 장병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제1대대는 제3중대가 하진리 서쪽 고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도하를 시작하여 21:00에 단양초등학교에 집결하였다. 이 무렵 적은 전방지휘소 기습에 대한 분풀이나 하는 듯이 단양읍내를 비롯한 전 전선에 포격을 집중하였다. 이날 제1대대는 적 100여 명을 살상하고 3대의 장갑차와 10문의 소구경포 그리고 3대의 트럭을 파괴 또는 소각하는 전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였다.¹¹³⁾

제1대대의 매포리 기습은 사단장 이성가 대령의 과감한 결단에 의한 것으로 제6사단의 동락리 전투¹¹⁴⁾와 더불어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매포리에서 기습을 당한 북한군은 주력을 신속히 남하시켜 천주봉－358고지에 전개하고 7월 8일 저녁부터 하괴리(下槐里) 터널고지에서 단양을 비롯한 국군 제8사단 진지에 대해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군은 상진리－덕천리에서 남한강 도하를 준비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7월 6일 20:00에 하리, 매우, 별곡리 지역의 남한강 북쪽 강변까지 진출한 북한군 제12사단은 선두부대가 도하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7월 7~8일까지 국군 방어진지에 대한 정찰과 도하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국군으로부터 불의의 기습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북한군 제12사단은 예하 2

개 연대 병력과 전 화력을 동원해 총 공격을 시도하고자 했다.¹¹⁵⁾

7월 6일 저녁부터 324고지-슬음산-기촌리-봉우등(峰郵登, △695)에 이르는 10km 정면을 담당하고 있던 제21연대는 즉시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한편, 포병의 제압사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8사단 제18포병대대가 보유한 105mm(M-3) 포는 사정거리가 짧아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전선은 저녁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밤이 깊어가면서 더욱 세차게 내려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¹¹⁶⁾

북한군의 남한강 도하가 임박해지자 사단장은 적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7월 8일 21:00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단작명 제12호'를 하달하였다.

- ① 적은 금명간에 도하를 감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사단은 적의 도하를 저지하고 한강선을 계속 고수하려 한다.
- ③ 제21연대는 현진지선에서 적을 저지하라. ④ 제10연대는 1개 대대로써 단양-외중방리(外中坊里)선을 확보하고 주력은 장림리(長林里)에서 재편하는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라.
- ⑤ 제18포병대대는 신기리에서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단 화력의 우선권은 제21연대에 있다.
- ⑥ 공병대대는 주력(2개 중대)을 즉각 출동시켜 제21연대장 지휘하에 동측방을 엄호하라.
- ⑦ 여하한 경우에도 유무선(有無線)을 유지하라.
- ⑧ 사단지휘소는 23:00 이후 북상리(北上里)에 위치한다.¹¹⁷⁾

북한군의 도하공격은 7월 8일 23:30경부터 도담리(道潭里) 서안과 상진리에서 시작되었다. 북한군 제12사단은 포병 2개 포대, SU-76 자주포 및 대전차포로 직접조준사격을 가하는 한편, 엄폐된 화기진지에 있던 각종 화포와 박격포로 단양 동북방의 국군 진지에 사격을 가한 후 남한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¹¹⁸⁾

도담리와 상진리는 국군 제8사단 제21연대 제2대대와 제1대대가 담당하던 지역이었다. 제2대대는 제5중대(중대장 이성오 중위)가 외양방리(外陽坊里)의 664고지에, 제6중대(중대장 우교봉 중위)가 고수리-695고지를 각각 점령하고 있었으

며, 제7중대(중대장 김성빈 대위)가 청풍에 파견된 상태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슬음산에서 664고지 서쪽 능선에 이르는 정면을 담당하였는데, 제1중대(중대장 양보 중위)가 심곡리(深谷里) 돌출부 일대에, 제2중대(중대장 김종호 중위)가 664고지 서쪽 능선에, 제3중대(중대장 김한용 중위)가 예비대로서 슬음산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강릉공격에서 낙오한 박격포소대가 복귀하지 않아 중화기중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제4중대(중대장 김광철 중위)가 고음리(古音里) 서북쪽 능선에 위치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도하가 최초로 목격된 것은 도담리 서안의 제2대대 지역에서였다. 23:30경 1개 중대규모의 북한군이 10여척의 철선과 뗏목을 이용해 도하하는 것이 목격되자 제6중대의 전 화력과 대대의 박격포 사격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더욱 맹렬한 포격을 가하면서 도담리 강변에 도착하는 즉시 358고지의 서쪽능선으로 올라와 피아간에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고수리로 진출한 북한군이 제6중대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이에 제6중대는 적의 포위망을 돌파



슬음산에서 바라본 북한군 최초 남한강 도하지역. 상진리(좌), 도담리(우)

<상황도 7-7> 7월 8~9일 북한군의 남한강 도하 공격 상황



하면서 9일 03:00에 695고지로 이동해 계속해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한편 664고지에 거점을 확보하고 외양방리-기촌리에 이르는 강안에 매복 중이던 제5중대의 정면에는 강안이 벼랑을 이룬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북한군의 도하가 없었다. 그러나 제6중대가 358고지에서 물러남으로써 적이 도담리 일대를 점령하자 제2대대장은 매복중인 제5중대 병력을 기촌리 남쪽 능선으로 이동시켜 고수리 계곡으로의 적 침입을 대비하게 하였다.

이 무렵 제21연대장은 북한군의 도하공격이 개시되자 연대에 배속된 공병대대(-)를 제2대대로 급진시켜 동측방을 엄호하게 하였다. 당시 공병대대는 제10연대 제1대대의 남한강 도하 지원이 적의 방해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후 단양중학교에 집결하여 대기 중이었다. 7월 8일 오후 북한군의 포격이 개시되고 공격이 임박해지자 사단장의 긴급명령에 따라 공병대대 제1중대와 제3중대가 21:00에 단양중학교를 출발하여 23:00에 제21연대 관측소인 당동리(堂洞里)의 562고지로 진출하였다. 이후 공병대대(-)는 23:30경 북한군이 도하를 개시하자 제21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2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664고지로 추진 중에 있었다.

제2대대 지역에서 북한군이 도하할 무렵, 심곡리 부근의 제1대대 지역에서도 적의 도하가 목격되었다. 23:30경 도담리의 제2대대 진지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리자 심곡리의 제1중대와 제4중대는 아연 긴장하여 60mm 박격포의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 이때는 이미 1개 중대규모의 북한군이 남안에 거의 도달한 상태였고, 그 뒤를 이어 2개 중대규모의 북한군이 도하 중에 있었다. 제1중대와 제4중대는 박격포와 기관총을 동원해 집중 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유탄포와 직사포 사격이 돌출부로 집중되는 가운데 강안에 도달한 북한군이 수류탄을 던지고 다발총을 난사하면서 돌출부의 중앙까지 진입하였다. 이에 제1중대와 제4중대는 각각 상리고지와 고음동고지로 이동했다. 이때 야음을 틈타 고음동 계곡으로 침투한 북한군이 하양방리의 제2중대와 교전을 벌이면서 그 일부가 노동리(盧洞里) 방향으로 우회 공격하자, 퇴로차단을 우려한 제1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1중대와 제4중대는 9일 03:00까지 슬음산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한편 고음동의 제2중대는 심곡리의 돌출부로 상륙한 북한군이 제1, 제4중대와 교전을 벌이자 강안에 추진한 매복조를 철수시키고 조명탄을 발사하였다. 이때 이미 도하한 1개 소대규모의 적이 계곡을 통해 동쪽 능선으로 침입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남안의 모래사장을 벗어난 1개 중대규모의 적이 제4중대의 동측방과 노동리 정면을 공격하기 시작한 상태였다. 제2중대는 야음을 틈타 접근한 적과 수류탄 투척전까지 벌였지만 적의 박격포화와 직사포화가 664고지 서쪽 능선 일대에 집중됨에 따라 제2중대는 02:30에 관측소가 있는 고지일대로 후퇴하여 664고지 서남쪽의 무명고지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슬음산에 위치한 제3중대는 고음동으로 침입한 적이 북쪽 능선으로 공격하면서 대대주력과 노동리를 위협하자 00:30에 노동리로 진출하여 제1대대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로써 제1대대는 03:00 현재 주력이 슬음산 일대에 집결하고 제2중대가 664고지 서남쪽의 무명고지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다.

23:30경부터 북한군의 도하 공격이 있던 제1, 제2대대 지역에서와는 달리 324고지-현천리를 연해 배치된 제3대대 지역에는 적 도하가 없었다. 당시 제3대대는 속칭 윗터내에 관측소를 개설하고 제9중대(중대장 최영구 중위)가 324고지에, 제10중대(중대장 황기상 중위)가 5번 도로에서 현천리에 이르는 강안 일대에, 그리고 제11중대가 예비대로서 속칭 덕상(德尙)골 서쪽 능선에 배치되어 5번 도로를 감제하고 있었다.

제3대대 지역에서의 전투는 피아간에 포격전으로 전개되었다. 북한군 주력의 남하와 더불어 개시된 적의 포격이 전 진지선을 교란하였는데 특히 제9중대가 점령한 324고지에 집중되었다. 대대장 이창률 소령은 적의 집중포격과 진지의 제한으로 신기리로 물러선 57mm 대전차포의 직접지원을 연대장에게 긴급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1:30에 2문의 57mm 대전차포가 지원되었으며, 이들 대전차포는 속칭 윗터내 하단과 324고지 동쪽의 도로변에 추진되어 터널고지와 북한군의 집결예상지로 추정되는 속칭 애실 부근의 계곡에 대해 사격을 집중하였다. 북한군도 포진지를 목표로 응사함으로써 피아간에는 포격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적의 야포사격이 집중되면서 22:30에 신기리로 퇴각하였다.

한편, 개전초기 보유한 105mm포 15문 중 2문만을 유기한 제18포병대대는 덕상골에 포진하고 기동리-천주봉-매포리-덕천리에 이르는 지역에 교란사격을 계속하였다.¹¹⁹⁾ 제18포병대대는 제10연대 제1대대의 매포리 기습전을 계기로 급진한 북한군이 매포리 남쪽 속칭 새터계곡에 야포를 포진하기 전까지 화력의 우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군의 야포가 추진되면서 피아간에는 한동안 포격전이 전개되었다. 120mm 박격포까지 가세한 적의 포화가 포병진지에 집중되자 사단장은 '작명 제12호'로 대대의 신기리 철수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제18포병대대(대대장 장경석 소령)는 사정(射程)을 고려해 북상리 계곡으로 진지를 전환하였다.

3) 단양 외곽전투

(1) 324 - 664

7월 8일 23:30경부터 도담리와 심곡동 돌출부로 도하를 개시한 북한군은 국군 제21연대 제2대대 제6중대와 제1대대 제1, 제4중대를 돌파한 다음 교두보를 확보하고 후속주력의 도하를 엄호하였다.

이렇듯 북한군의 도하공격이 개시되자 도담리와 고수리지역의 국군 제21연대 제2대대는 9일 03:00에 제6중대가 695고지로 물러서고 제5중대가 고수리 계곡을 방어하기 위해 기촌리 방면 능선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적은 야포와 자주포¹²⁰⁾ 포격을 가한 후 120mm와 82mm 박격포 사격을 695고지-664고지에 집중하면서 주력이 도담리로 도하하였으며 05:00부터 695고지와 기촌리 방면으로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¹²¹⁾

제6중대는 집중사격과 2.36" 로켓포를 동원해 계속해서 북한군의 공격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이때 기촌리의 제5중대 정면을 돌파한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고수리 계곡을 거쳐 금곡리(金谷里) 계곡선으로 진입하여 695고지 서남쪽 능선으로 공격을 개시하고, 고수리의 강변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우회한 북한군 일부가 695고지 동쪽계곡으로 공격함으로써 제6중대가 적에게 포위당할 위기에

놓였다.¹²²⁾

이와 같은 전황의 추이를 인식한 대대장 박영섭 대위는 때마침 진출한 사단 공병대대(-)를 음지촌(陰地村) 서쪽 능선상의 봉우리로 신속히 기동시켰다. 06:00에 제2대대 관측소가 위치한 664고지로 진출한 공병대대(-)는 제2대대장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음지촌 부근으로 전진하였다. 07:00에 공병대대(-)는 선임자인 제1중대장 이우팽 중위의 지휘하에 제1중대를 좌측으로, 제3중대(중대장 오명환 중위)를 우측으로 하여 음지촌 부근의 양 갈래 능선에 각각 전개하였다. 공병대대(-)의 임무는 상양방(上陽坊)으로 물러선 제2대대 제5중대와 연계를 유지하면서 계곡을 제어하고 695고지의 서남쪽 능선으로 공격하는 북한군의 측면을 공격하는 한편, 제6중대의 철수를 지원하는 것이었다.¹²³⁾

포위당할 위기에 처한 제6중대는 07:00에 음지촌 부근으로 진출한 공병대대(-)와 더불어 남쪽에서 포위한 적을 협공하면서 포위망을 돌파하여 10:00에 664고지로 집결하였다. 공병대대(-)는 새로운 명령에 따라 음지촌에서 물러나 가락동 동북쪽 능선을 점령하고 북한군의 우회공격에 대비하면서 제2대대의 동측방을 엄호하였다.¹²⁴⁾

도담리를 비롯하여 고수리-봉우등-중리-금곡리 일대를 석권한 북한군은 7월 9일 11:00에 664고지로 포격을 집중하면서 북쪽의 기촌리 능선과 서북쪽 능선으로 증강된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빗줄기도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제2대대장 박영섭 대위는 이 일전이 남강변에서의 승패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21연대장에게 전황을 보고하면서 사정거리가 짧아 낙탄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병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병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대대가 보유한 전 화력을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포병의 초탄이 북쪽 능선에서 정확히 작렬하자 병사들은 빗발치는 적의 포화도 잊은 채 상반신을 일으키며 함성을 질렀고 대대장은 효력사(效力射)를 긴급히 요청하였다.¹²⁵⁾

당시 대대장 이하 대부분의 장병들이 서북청년단원으로 구성된 제18포병대

는 사정거리가 7,000m에 불과한 105mm포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포격 지원을 하였다. 제18포병대대가 발사한 포탄은 능선을 불길로 뒤덮고 순식간에 적을 몰아냈다. 그러나 북한군의 대응 포격도 강화되어 양측간의 포격전이 지축을 뒤흔들었다. 기촌리와 석탄광산 부근의 북쪽 산기슭에 포진하고 있던 북한군은 18:00에 연대 전 정면의 진지선에 대해 유탄포와 직사포, 그리고 박격포 사격을 가하면서 공격을 재개하였다.

오전 중에 맹위를 떨친 포병지원이 연대 전 정면으로 확산되어 그 위세가 감소되자 이 틈을 이용해 북한군은 19:30에 북쪽과 서북쪽의 7부 능선, 그리고 외양방-하양방으로 침공하여 일부가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주력이 호를 구축하는 것처럼 보였다.

약 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2대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맞아 분전하였지만 증강된 1개 대대규모의 적이 포위하고 비 내리는 음산한 밤이 짙어지면서 병사들 사이에 불안한 분위기가 짙게 감돌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21:00에 음지촌 계곡으로 침입한 적 일부가 다발총사격으로 후방을 교란하는 가운데 북쪽과 서북쪽 능선, 그리고 외양방-하양방의 북한군 주력이 일제히 공세를 가하자 병사들은 진지선을 이탈하기 시작하여 근접전도 제대로 벌이지 못한 채 진지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에 제2대대장 박영섭 대위는 공병대대의 엄호하에 가락동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그 일대에 급편진지를 마련하여 적의 지속적인 침공에 대비하였다.

한편, 상진리에서 도하를 강행한 북한군의 압박으로 심곡동 돌출부에서 물러선 제1대대는 주력이 슬음산을 제2중대(중대장 김종호 중위)가 664고지 서쪽 능선을 각각 확보하고, 심곡리-고음동으로 침입한 적과 대치한 채 포격전을 계속 전개하였다. 10:00에 우인점 부대인 제2대대가 664고지에서 거점방어로 전환하자 제2중대는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슬음산 동쪽 능선으로 진지를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슬음산의 동서와 북쪽 능선을 확보하여 밀집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제1대대 정면에서는 7월 9일 18:00부터 적이 포격을 진지선에 가하는 동시에

증강된 1개 대대규모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 주력이 북쪽 능선으로 공격을 집중하자 이곳을 담당하고 있던 제3중대(중대장 김한용 중위)는 즉각 유도된 포병 제2중대(중대장 김영택 중위)의 직접 지원하에 일제사격을 가해 적을 속칭 심실부락 일대에 정착시켰다.

아군의 집중 화력에 막혀 고음동으로 후퇴한 적은 아군 제2대대 정면으로 공격한 적이 외양방-하양방으로 진출하여 직사화기와 박격포의 사격으로 동측방을 위협하기에 이르자 이에 호응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제3중대는 이를 일격에 격퇴하고 어둠이 깃들 무렵 속칭 심근 부근의 봉우리 일대에 호를 구축하는 것처럼 보이는 적에게 박격포 사격을 집중하였다.

이 무렵 동쪽 능선을 담당한 제1대대 제2중대는 외양방-하양방으로 침입한 적이 돌출진지를 점령한 제3중대에 대해 측면에서 사격을 가하자 중대의 전 화력을 동원해 이를 견제하였고, 어둠이 깃들자 동측방의 계곡에 조명탄을 계속 쏘아 올렸다. 그리고 서쪽 능선을 확보한 제1중대(중대장 양보 중위)는 속칭 꽃



상진나루. 현재는 상진교가 놓여 있다.

거리에서 제3대대를 공격한 북한군이 하리 서쪽의 무명고지를 점령하자 60mm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집중사격을 가해 이를 견제하였다.

그런데 우인접인 제2대대가 가락동으로 물러서게 되어 동쪽의 측면과 배후가 노출되자 제1대대는 제1중대 일부 병력을 동남쪽 능선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제21연대와 진지교대를 위해 진출하는 제10연대를 엄호하게 하였다.

한편, 324고지에서 현천리에 이르는 정면을 담당하던 제3대대 지역에서는 심곡리 돌출부로 침투한 적이 04:00부터 박격포 사격을 가하면서 강변로와 심곡리로 뺀 북쪽 능선을 타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하리 서쪽 무명고지의 동북쪽과 서북쪽 능선을 점령하고 있던 제10중대는 대응 사격을 가하면서 대대의 81mm 박격포와 포병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북쪽 능선으로 공격을 시도한 1개 중대 규모의 적은 V자형 진지를 점령한 중대의 협공을 받고서 05:00에 퇴각하였다. 이후 제10중대 지역에는 정적이 감돌다가 18:00에 연대 전 정면에 걸친 포격과 더불어 슬음산에 대한 공격에 호응하듯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속칭 뒤실과 동북쪽의 심실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이 북쪽 능선을 피하고 양쪽 능선으로 공격함으로써 화력이 분산된 제10중대는 고전을 하게 되었다.

이에 제1대대장 이창률 소령은 예비인 제11중대의 2개 소대를 꽃거리로 신속히 기동시켜 뒤실에서 공격중인 북한군의 측방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서북쪽에서의 북한군 공격은 둔화되었으나 새롭게 투입된 2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이 북쪽 능선으로 공격하여 제10중대는 삼면으로 포위된 채 전황이 시시각각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제1대대장은 돌출된 무명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병력의 손실을 자초하기보다는 차라리 방어에 유리한 511고지에서 결전을 치루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제10중대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0중대는 꽃거리 일대를 확보한 제11중대(-)의 엄호 하에 21:00에 511고지로 물러났다. 여기서 제10중대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적에게 화력을 집중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이 무렵 324고지를 점령한 제9중대(중대장 최영귀 중위)는 속칭 뒤실로 우회한 적이 제10중대를 협공하자 60mm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을 가해 이를 견제하였는데, 제10중대가 적의 공격에 밀려 511고지로 철수하자 1개 소대를 동북단으로 추진시켜 방어하도록 하였다.

한편, 7월 9일 정오 무렵에는 삼척과 정선의 경찰대대가 단양지역으로 합류하였다. 김두용(金斗用) 총경이 지휘하는 삼척경찰대는 국군 제8사단이 강릉에서 대관령을 거쳐 제천으로 철수하자 도계-황지의 산악로를 거쳐 정선에 도달한 다음 이곳에서 최형식(崔亨植) 경감이 지휘하는 정선경찰대와 합세하여 1개 대대를 편성하고 영월로 향했다. 이곳에서 집결중인 경찰병력을 규합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다가 밀려 순흥-풍기를 거쳐 이날 12:00에 단양으로 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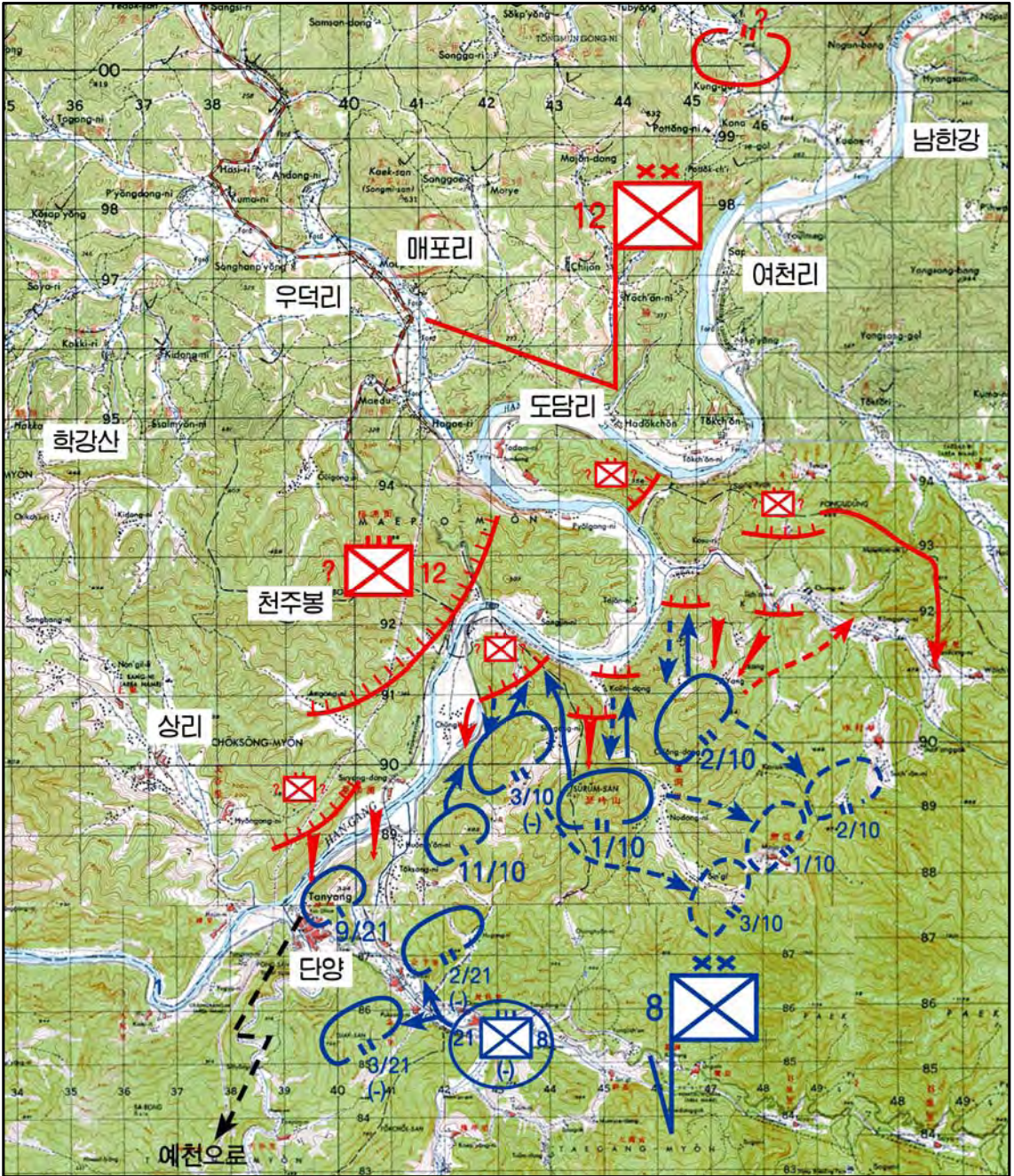
적이 동측방으로 우회하는 징후가 보이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을 추출하는 문제로 고심하던 제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경찰대대의 진출을 환영하고 대대장 김두용 총경에게 소백산맥의 영마루 일대를 차단하여 사단의 후방 엄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대대는 충분한 실탄과 보급지원을 받고서 백룡사 계곡-희방사를 거쳐 자정 무렵에 삼척경찰대가 국망봉(△1421)에, 정선경찰대가 소백산 일대에 각각 배치되어 적의 우회에 대비하였다.¹²⁶⁾

(2) 21 10

북한군의 계속된 포격과 집요한 공세로 제21연대가 혼전을 거듭하면서 전투력이 저하되자 제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7월 9일 20:00에 제10연대와 제21연대의 작전임무를 교대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¹²⁷⁾

사단예비로써 장림리의 대강초등학교에 집결 대기 중이던 제10연대는 '사단작명 제14호'가 하달되자 즉시 제21연대와 작전임무를 교대할 준비를 착수하였다.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제1대대(대대장 박치옥 소령)를 슬음산에 배치해 여기를 기점으로 반격을 감행하기로 하고, 제2대대(대대장 정순기 대위)를 가락동에, 제3대대(대대장 하병래 소령)를 현천리에 각각 진출시켜 제21연대의 진지를 인수하게 하였다.

<상황도 7-8> 7월 9~10일 단양 외곽지역 전투상황



제10연대는 20:30에 제2대대가 진지점령을 위해 장림리의 대강초등학교를 출발하였으며, 후속해 제1대대가 출발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가 현천리 부근에 포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둠이 깃들고 계속 내린 비로 산간도로가 미끄러워 행군속도는 느렸다.

장림리의 대강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출발한 제2대대는 7월 10일 03:00에 진지교대를 완료하였다. 후속한 제1대대는 03:00에 제21연대 제1대대와 진지교대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20:30에 단양읍내로 집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324고지는 제21연대 제9중대가 계속해서 확보하고, 제3대대는 현천리 일대를 담당하라”¹²⁸⁾는 수정 명령이 시달됨으로써 23:00에 제21연대 제3대대 주력과 511고지의 진지를 교대 완료하였다.¹²⁹⁾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연대가 일선(一線) 전개를 완료하자 공격 명령을 하달하였다. 연대장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은 제2대대는 05:00에 제5중대(중대장 김동중 중위)가 우측에서, 제6중대(중대장 김순기 대위)가 좌측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제7중대(중대장 이영규 중위)는 가락동 동북쪽 능선을 확보하고 음지촌 계곡을 제어하면서 적의 우회예에 대비하였다.

우측 공격을 담당한 제5중대는 제2소대(소대장 이홍진 중위)를 선봉으로 하여 664고지 정상을 탈취하였다. 이 무렵 좌측의 제6중대는 서쪽 능선을 타고 하양방을 목표로 돌진 중이었는데, 적 화력에 밀려 고전하자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5중대가 측방지원에 나섰다. 이에 적진지가 교란되자 이틈을 이용해 제6중대가 돌진하여 07:00에 하양방-664고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664고지를 탈취하는 즉시 양방-외양방-기촌리의 적을 공격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2대대는 제5중대가 양방-기촌리로, 제6중대가 외양방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전날부터 진지를 구축하여 밀집방어 태세를 갖춘 적은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며, 제10연대의 전면적인 반격으로 결정적인 위협을 받게 되자 08:00부터 야포와 직사포, 그리고 박격포 등 전 화력을 동원해 일시에 공격선으로 퍼부었다.

전황의 추이를 지켜보던 연대장은 대포병(對砲兵) 사격을 긴급히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정거리가 짧은 105mm포는 적의 포병진지에 미치지 못하여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에 적의 화력이 더욱 맹위를 떨치자 연대장은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는 664고지로 물러나 제6중대가 고지 좌측에, 제5중대가 우측에 진지를 점령하고, 제7중대가 계속해서 가락동 동북쪽 능선을 점령하여 적의 우회공격에 대비하였다.

한편, 고음동-심곡리 공격을 담당하게 된 제10연대 제1대대는 05:00에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대대 우측 공격을 담당한 제3중대(중대장 박용학 중위)는 고음동으로 진격하였다. 대대의 좌측 공격을 담당한 제2중대(중대장 김익수 중위)는 계곡을 횡단하여 상리로 진격한 후 부락 서쪽 능선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대대 제3중대와 제2중대가 적과 교전을 벌이고 있을 무렵 하리 서쪽의 무명고지를 탈취한 제3대대 제11중대가 서측방으로 신속히 기동하여 합세하자 적의 화력이 분사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3중대와 제2중대는 일시에 적진으로 진입하기 위해 약진하였는데 바로 이 순간 적의 포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적포의 초연과 굉음이 병사들의 귀와 눈을 가려 방향감각을 잃게 하였으며, 사상자가 여기저기서 속출하였다. 대대장의 명령에 의해 각 중대는 적의 포격권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으나 계속된 적의 포격이 퇴로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병사들은 분산되고 말았다.

분산철수를 단행한 제1대대 주력은 슬음산에서 재편하는 즉시로 제3중대를 좌측에, 제1중대를 우측으로 하여 슬음산을 확보하고, 제2중대를 동남쪽 능선에 배치하였다. 이후 피아간에는 한동안 치열한 포격전만이 계속되었다.

4) 단양에서 풍기로의 철수

(1)

7월 10일 해질 무렵 북한군은 전 진지선에 걸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현천리 동쪽의 제10연대 정면에 대한 적의 공격은 견제공격인 듯 공세가 강하지 않아 일격에 격퇴되고 사격전만이 계속되었지만, 제21연대 제9중대(중대

장 최영귀 중위)가 확보하고 있던 324고지에는 21:00경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일시에 공격을 감행하였다.¹³⁰⁾

북한군의 324고지 공격상황을 보고 받은 사단장은 단양이 함락될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직감하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작전지역의 교통 중심지로서 전술적인 요충지인 단양을 잃게 된다면 그 전방의 방어진지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며, 결국에는 단양지구에서 전면적인 철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게 된 제8사단은 사단 포병으로 하여금 324고지 일대를 집중적으로 포격하게 하는 한편, 장림리에서 집결대기중인 제21연대를 북상리-북하리에 투입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하였다.¹³¹⁾

사단장의 작전개념은 전방연대인 제10연대로 현 방어선을 계속 확보하고, 제21연대를 단양 남동쪽의 5번 도로를 감제하는 고지 선에 배치하여 북한군을 이선에서 일단 저지한 후 역습을 감행하되, 전방 연대 방어선이 돌파될 경우에는 단양-죽령간의 험준한 산악지대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북한군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가한다는 것이었다.¹³²⁾

이에 따라 장림리 대강초등학교에서 부대정비를 끝마친 제21연대는 사단 작전 명령을 받자 곧 출동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때 지난 6월 28일 사단이 대관령에서 강릉을 목표로 반격작전을 펼쳤을 당시 실종되었던 제4중대 제3소대장 신영철(申榮徹) 중위가 2문의 81mm 박격포와 소대원들을 이끌고 원대복귀하였다. 이로써 제4중대는 중화기중대로서의 기능을 되찾게 되었다.¹³³⁾

제21연대의 출동 준비가 완료되자 연대장은 각 대대에 다음과 같이 출동명령을 하달하였다.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각각 북하리의 437고지와 두악산을 목표로 진격하여 적의 공격을 차단하는 한편 단양 상실이 확인되는 즉시 역습을 감행하여 제9중대를 구출하라는 것이었으며, 제1대대는 예비로서 현위치에 대기하라는 것이었다.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7월 10일 21:20에 제2대대(대대장 박영섭 대위)가 선봉이 되어 5번 도로를 따라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제2대대는 23:00에 목표지점인

437고지에 진출하였다. 제2대대를 후속한 제3대대(대대장 이창률 소령)는 장춘리에서 능선을 타고 두악산으로 진출하였다. 제3대대는 야간 산악행군으로 인해 진출 속도가 늦어 7월 11일 02:00경 두악산 북쪽 산비탈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양을 굽어보는 324고지의 제21연대 제9중대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상급부대와 통신이 두절된 채 1개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협공을 받은 제9중대는 연대의 지휘를 벗어나 독단으로 가산리-도락산(△964)-적성리를 거쳐 예천으로 철수하였다. 7월 11일 04:00에 북한군 제12사단은 단양을 점령하였다.¹³⁴⁾

한편, 이날 단양에서 서북쪽으로 23km 떨어진 청풍방면의 제21연대 제7중대(중대장 김성빈 대위)도 적의 공격을 받아 예천 방면으로 분산 철수했다. 분산 철수한 제7중대는 12일에 예천에 도착하여 단양에서 주력과 떨어져 철수한 제9중대와 합류하였다.¹³⁵⁾

(2) -

7월 11일 전날 단양을 탈취한 적은 전열을 정비하는 듯 전 전선에 대해 포격을 가할 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현천리-슬음산-664고지 선을 확보하고 있던 국군 제10연대도 방어태세를 고수하였다.

피아간의 전투가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19:00경 30분간에 걸쳐 미 제5공군 F-51 2개 편대가 단양시가지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였다. 미 공군의 폭격은 비록 적의 공격기도를 무산시킬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중앙선 축선상에서 미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이 실시됨으로써 적의 사기저하와 아군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였다.¹³⁶⁾

적은 미 공군기의 기총소사와 로켓포 공격으로 일시 침묵하다가 20:30부터 포격을 가하고 21:00부터 2개 연대 규모로 국군 제10연대 진지선을 일제히 공격하였다.

664고지 부근의 제2대대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20:30부터 집중 포격에 이어 상양방, 외양방, 음지촌 등 3면에서 협공을 개시하였다. 제18포병대대의 엄호사

격이 즉각 유도되고, 제2대대가 육박전을 전개하면서까지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동북쪽 능선과 하양방·노동리 방면에서 적의 과상공세로 인해 제2대대는 23:00 무렵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가락동으로 철수하였다.¹³⁷⁾

슬음산의 제1대대 지역에서는 적이 방어상의 요충인 슬음산을 기필코 탈취하려는 듯 포격을 집중하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에 제1대대도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는 좌우인접인 제2대대와 제3대대의 진지선이 무너짐으로써 적의 포위망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한 연대장의 긴급명령으로 23:30에 제1대대는 제2중대를 선두로 하여 적의 포위망을 뚫으면서 장현리로 축차 철수하였다.

511고지 부근의 제3대대 지역에서는 슬음산-664고지 정면에 대한 공격에 뒤이어 1개 중대규모의 적이 상진리로 추진한 직사포의 엄호하에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3대대는 포병의 엄호사격과 제12중대의 지원사격하에 전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그런데 21:30에 324고지-단양을 탈취한 2개 중대 규모의 적이 제11중대의 서측방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일선 주력과 예비대간의 진지선이 차단되고 주력이 포위될 위기에 놓이자 제3대대장은 제9중대와 제10중대를 사주방어(四周防禦)로 전환시키고, 제11중대에 꽃거리의 적을 격퇴하도록 명령하였다.

무명고지 일대에서 사주방어에 들어간 제3대대 주력은 서남쪽으로 우회한 적과 백병전을 전개하는 등 혼전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혼전 끝에 서북쪽 능선상의 적을 일단 물리쳤으나 현천리 계곡과 하리쪽으로 우회한 적이 합류하면서 압박하자 무명고지의 대대주력은 독립된 채 분전해야만 했다. 이에 제9, 제10중대장은 대대장에게 철수를 요청하였다. 제3대대장은 계속 분전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황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연대장에게 긴급히 전황을 보고하는 한편 독단으로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23:00경 제9, 제10중대는 즉각 유도된 포병의 차단사격(遮斷射擊)하에서 포위망을 뚫고 속칭 광과이를 거쳐 장현리로 분산 철수하였으며, 이를 엄호한 제11중대도 후속하여 물러났다.¹³⁸⁾

이렇듯 제2, 제3대대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슬음산의 제1대대마저 적에게 포위

되어 고전하자 제10연대장은 제1대대의 철수를 명령하고 속칭 가리점-넓은들선에 수용선을 설치하여 연대 헌병대와 57mm 대전차포중대(중대장 최만호 중위)로 하여금 분산 철수하는 부대를 수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 12일 01:00에 각 대대의 재편성이 완료되자 제2대대를 674고지에 제1대대를 마조리에 그리고 제3대대를 장현리에서 급편진지를 점령하게 했다.¹³⁹⁾

북한군이 2개 연대 규모로 총공격에 나서 국군 제10연대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제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북상리-북하리-장현리-마조리선에서 적을 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하리의 437고지와 북상리의 두악산에 위치하고 있던 제21연대는 적이 21:00에 시작된 제10연대 정면에 대한 총공격에 뒤이어 제10연대의 후방을 교란하고자 1개 중대 규모로 덕상골에 침입하자 제2대대 제6중대로 하여금 이를 격퇴하게 하는 한편 23:00경 제10연대의 진지선이 무너져 철수하기에 이르자 제5중대를 후곡리 고지로 급진시켜 엄호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21연대장은 연대예비로 대강초등학교에 집결 대기 중이던 제1대대를 23:00에 하달된 사단작명 제16호에 의거하여 936고지로 출동시켰다.¹⁴⁰⁾

국군 제10연대는 장현리에 3개 대대가 집결한 뒤 사단계획에 따라 7월 12일 02:30에 674고지에서 장현리를 잇는 선상에 지연진지를 편성하였는데, 제3대대가 좌측을, 제1대대가 중앙을, 제2대대가 우측을 담당하였다.

664고지-슬음산-현천리의 진지선을 탈취한 북한군은 한동안 공격을 멈추었다가 아군의 새로운 방어선을 탐지한 듯 포격을 집중하면서 야음을 틈타 664고지와 슬음산 사이의 계곡을 따라 제1대대와 제3대대로 쇄도하는 한편, 사단의 동측방을 위협하던 2개 대대 규모의 적이 음지촌 계곡을 통하여 674고지의 제2대대 정면으로 쇄도하였다.

마조리-장현리선의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즉각 계곡 일대에 대한 야포의 엄호 사격과 전 화력을 집중하여 일단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삼면으로 포위된 채 압박을 받은 674고지의 제2대대는 중앙이 돌파되면서 끝내 진지를 사수하지 못하고 속칭 가리점으로 물러났다. 더욱이 제21연대 제1대대(대대장 최취성 대위)

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936고지에서 총성과 수류탄의 작렬음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자 제10연대는 퇴로 차단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562고지에 있던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이미 죽령으로 전방지휘소를 이동한 사단장에게 후방이 차단될 위기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제10연대를 우선 1178고지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북하리-북상리선을 확보한 제21연대 주력을 즉각 936고지로 급진시켜 제10연대의 재편과 진지선의 편성을 엄호하면서 반격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사단장의 철수 명령에 따라 제10연대는 06:30을 기하여 속칭 가리점 일대를 확보한 제2대대에게 936고지에 대한 공격 감행을 지시하는 한편, 제3대대와 제1대대를 1178고지로 이동시켰다.

936고지에 대한 공격을 담당하게 된 제2대대는 제5중대가 가리점 계곡을 타고 북쪽 능선으로 공격하는 가운데 대대 주력이 서북쪽 능선상의 봉우리를 점령하고 마조리-장현리를 석권한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09:00경 동쪽하늘에 F-51 전폭기 2개 편대가 나타나 포병의 백린탄유도에 따라 적선에 기총소사와 로켓포 사격을 가한 뒤에 네이팜탄을 퍼부었다. 공군의 항공지원으로 적의 공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제2대대는 제1대대의 뒤를 이어 축차로 물러서기 시작해 11:00에 연대주력과 합류하였다.

1178고지를 확보한 제10연대는 수류탄 투척전까지 전개하면서 고지를 계속해서 확보하였다. 그러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할 무렵인 14:00에 봉우등-어곡리-속칭 상의골로 우회한 적이 연화봉(△1,394)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대를 공격해 진지선을 탈취함으로써 1178고지의 아군이 협공당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1363고지 일대를 확보한 사단 공병대대(-)의 엄호하에 제10연대를 죽령 서남쪽의 두솔봉(△1,314) 일대로 물러서 결전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제10연대는 제1대대가 정면의 적을 저지하는 가운데 제3대대를 선두로 하여 물러서기 시작하였는데 적의 포격이 퇴로를 위협하였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분산 철수하였다. 1363고지에서 철수한 제10연대는 18:00에 두솔봉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진지를 급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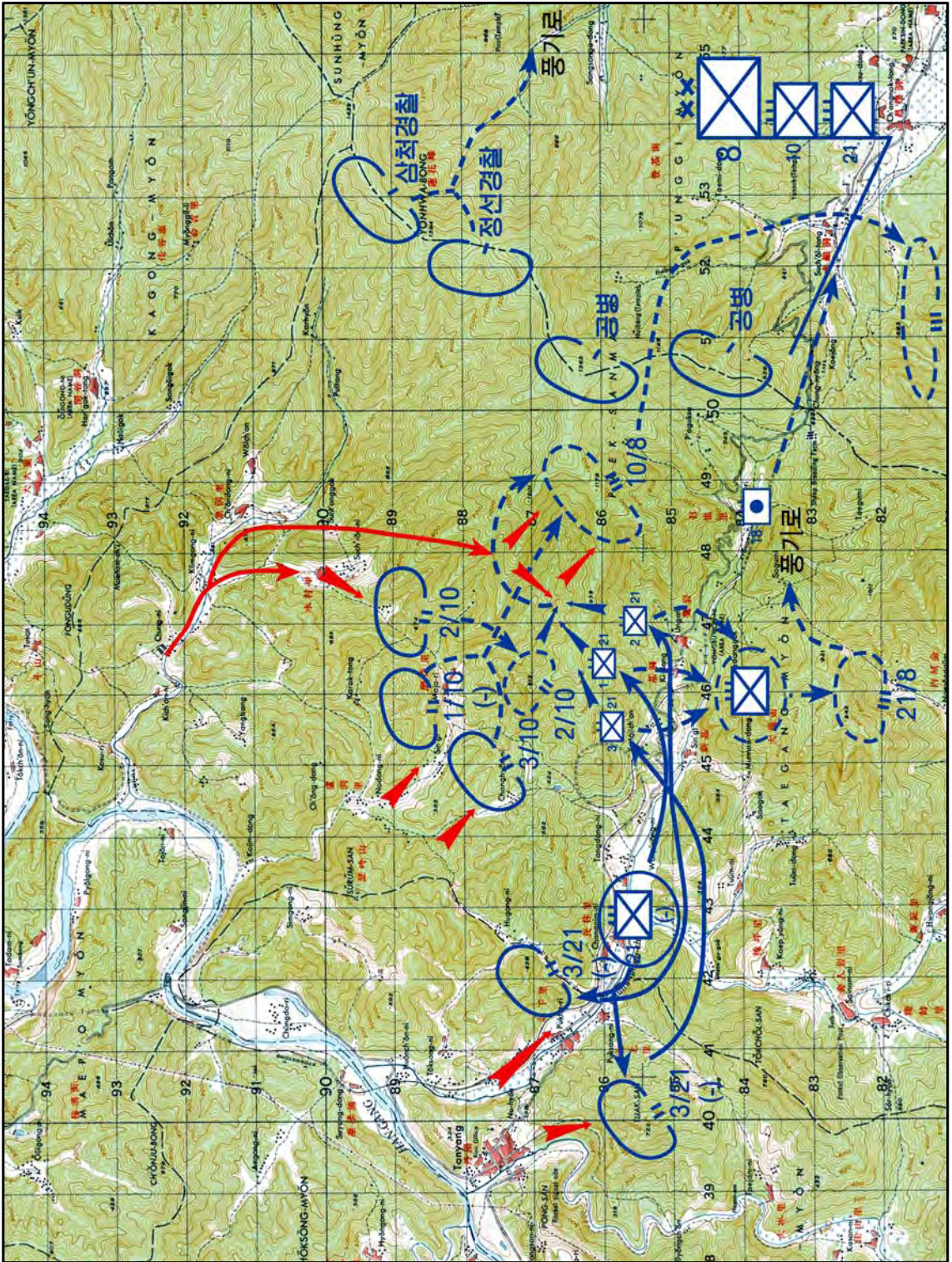
한편, 제21연대는 제1대대가 936고지에, 제2, 제3대대가 북하리-북상리 선을 점령하고 있었다. 936고지의 제1대대는 제3중대를 북쪽 산비탈 좌측에, 제1중대를 중앙에, 제2중대를 우측에 배치하고 진지편성 중 대대 규모로 추정되는 적으로부터 기습 포위 공격을 받았다. 약 50m의 거리를 두고 피아간에는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제1대대장 최취성 대위가 적의 총탄에 두부를 관통당하여 전사하였다. 계속되는 적의 공세로 중앙에 돌파구가 확대되면서 제1대대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험준한 지형과 짙은 안개 속에서 병사들은 방향도 분간하지 못한 채 계곡을 배회하다가 일부는 뒤이어 반격하는 제10연대 제2대대와 합류하였으며, 일부는 적중에 낙오하였다가 풍기에서 연대와 합류하였다.

그리고 북하리-북상리의 제21연대 주력은 제10연대가 마조리-현리선에서 물러서고, 936고지로 진출한 제1대대가 우회한 적에 의해 돌파되어 후방차단의 위협을 받게 되자 긴급히 시달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06:00에 포병의 엄호를 받으며 축차로 물러서기 시작해 09:30에 제3대대가 따리굴, 제2대대가 속칭 매바위에 전개한 후 936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북한군은 제1대대와의 교전에 이어 제10연대 제2대대의 공격으로 타격을 받은 듯 처음에는 그 저항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마조리-현리선의 적이 속칭 가리점 계곡과 북쪽 능선으로 급진하면서 제3대대의 측방을 위협하고 포격을 유도하였다. 점차 증강되는 적의 공세에 밀린 제21연대 주력은 11:00에 제3대대가 제2대대의 엄호하에 물러서기 시작하고 뒤이어 제2대대가 1178고지를 확보한 제10연대의 지원 아래 철수하였다. 점차 치열해지는 적의 차단사격으로 분산된 연대 주력은 이때 시달된 사단장의 명령으로 942고지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

사단 주력이 죽령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제18포병대대의 역할이 주목된다. 마조리-장현리선까지 적이 침투한 이후에도 5정의 Cal50 기관총을 부근 고지에 거치한 채 당동리 계곡에서 지원사격을 계속하던 제18포병대대는 7월 12일 07:00에 북하리-북상리선의 제21연대 주력이 물러서자 신기리의 예비진지로 이동하였다. 제21연대가 계속해서 철수하는 상황에서 진지의 노출을 우려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11:00에 진지 전환이 이루어졌다. 사단장은 안전한 지대로의 진지

<상항도 7-9> 7월 11~12일 북상리-마조리 전투상항



전환을 명령하였지만 포병대대장 장경석 소령의 고집으로 죽령 부근의 목장에 포진하게 되었다. 이곳은 죽령의 서북쪽 산비탈로 진지의 노출이 우려되었지만 다른 마땅한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정거리를 가능한 한 연신시킬 수 있는 곳이었다.

때마침 날씨가 흐리고 비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진지가 노출되지 않아 얼마동안은 적을 강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오 무렵부터 불기 시작한 바람으로 안개가 걷히고 시계가 맑아지자 적의 포격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단장은 즉각 무선통신으로 제18포병대대장에게 “야포는 사단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귀중한 존재이므로 즉각 진지를 전환하여 무모한 손실을 피하라”고 엄명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은 “진지를 전환하여 적을 타격하지 못한다면 야포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또 적포가 남한강을 도하한 이상 대포병전을 전개하여 이들을 격퇴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욱도 물러설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¹⁴¹⁾

그러나 사정거리가 7,200~7,600m로 제한된 105mm포로서는 적의 포병진지를 타격할 수 없었다. 반면에 적의 포는 제18포병대대의 진지전방 2~3km까지 깊숙이 날아들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18포병대대는 20:00까지 진지를 고수하면서 지원사격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936-1178고지까지 도달한 적의 공세가 한풀 꺾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18포병대대에서도 포차 1대와 방향틀이 파괴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20:30에 풍기를 향해 철수를 시작하였다.

한편, 연화봉-1363고지-죽령선에서 적의 우회에 대비하던 경찰대대와 사단 공병대대도 20:00경까지 모두 풍기로 철수하였다. 삼척 경찰서장 김두용 총경이 지휘하는 경찰대대는 7월 11일 연화봉-1363고지선으로 진지를 전환한 이후 공병대대와 상호협조 하면서 적의 우회에 대비하고 있었다.¹⁴²⁾

그런데 7월 12일 13:00경 어의곡리와 금곡리 계곡으로부터 1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기습을 당해 공병대대(-)가 확보한 1363고지로 밀린 후 공병대대의 엄호하에 희방사 골짜기로 들어섰다. 그러나 적의 집요한 추격으로 인해 경찰대

대는 4~50명 가량의 사상자를 낳았다.

1363고지-죽령선을 확보하고 적의 우회에 대비하면서 사단의 방어중심을 유지하고 있던 사단공병대대(-)는 연화봉 일대의 경찰대대가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고 물러서자 1363고지의 제3중대(중대장 오명환 중위)가 연화봉의 적을 격퇴한 후 제10연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후 공병대대(-)는 675-623고지를 연한 선을 확보하고 죽령 서북쪽의 노출된 목장에 위치한 포병진지를 방호하다가 20:30에 포병대대가 풍기로 이동하고 21:00에 사단 주력이 철수하자 그 뒤를 따라 풍기로 향했다.

(3)

제10연대가 두솔봉을 점령할 무렵 죽령의 영마루 서북쪽 1km 지점의 목장에 포진한 제18포병대대는 적선에 포격을 가하였으나 사정거리가 짧아 적의 포병진지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에 적은 제18포병대대의 진지까지 포격을 가하였다.

942고지의 제21연대 제2, 3대대는 936고지 일대에 대한 기관총과 박격포사격을 지속하면서 적의 공격을 견제하다가 제10연대가 두솔봉으로 물러서자 전 화력을 936고지-1178고지로 집중하여 적을 교란하였다.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가운데 날이 어두어지자 풍기에서 전열을 정비키로 한 사단장의 긴급명령으로 21:00에는 죽령을 넘어 풍기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미 공군의 공중공격과 국군 제8사단의 저항으로 큰 타격을 받은 듯 북한군은 한동안 공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의 우회를 우려한 사단장은 풍기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일전을 치르기로 결심하고 사단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21:00를 기하여 제10연대가 942고지에서 물러서는 제21연대 주력을 엄호하는 가운데 국군 제8사단은 죽령을 넘어 풍기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8사단이 7월 6일 남한강 방어선을 구축한 이후 7일간 북한군 제12사단(-)을 맞아 남한강·연화봉·죽령·도솔산이라는 천혜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적의 공세를 지연시킨 단양전투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국군 제8사

단은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풍기·영주지구에서 북한군을 지연시키며 중부전선의 국군 작전 전반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전투 결과

7월 6일 단양으로 진출한 국군 제8사단은 7월 8일 적의 전방지휘소를 기습하여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기세를 올렸다. 이날의 기습 공격으로 국군 제8사단은 북한군 100여 명을 사살하고 3대의 장갑차, 10문의 소구경포, 3대의 트럭을 파괴 또는 소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는 제6사단의 동락리 기습과 더불어 아군의 제2단계 작전(지연작전)의 서전을 장식하였음은 물론, 개전 초기 후퇴만 해오던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8일 야간부터 강행된 적의 도하로 피아간에는 일진일퇴의 격전을 치러야 했다.

국군 제8사단은 병력과 화력의 열세로 10일에 단양을 상실한데 이어 11일에는 제10연대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12일에 죽령으로 물러섰다가 풍기로 철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군 제8사단은 반격전까지 실시하면서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축차로 물러서는 지연전을 벌려 7일 동안 지탱함으로써 전 전선에서 유독 돌출된 전선을 계속 확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서부전선의 국군 부대들은 소백산맥 일대에 저지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결과

중동부지역 지연작전은 한강방어선이 형성된 직후인 1950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충주, 제천, 단양 등 중부 내륙의 차령산맥으로부터 소백산맥에 이르는 지역에서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이 북한군 제2군단 이하의 제12사단과 제1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작전이었다.

제2단계 작전에 착수한 북한군 제2군단은 국군의 잔여병력 섬멸은 물론 미군의 전투전개를 저지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중동부지역에 대한 진출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제12사단은 원주-제천-단양 방면으로, 그리고 제1사단은 충주-문경-함창 방면으로 진격하여 영남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국군은 신림-목계-장호원-죽산-안성선에 제2방어선을 형성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육군본부 직할인 제6사단과 제8사단을 활용하였다. 충주와 단양에 배치된 제6사단과 제8사단은 적의 예상접근로에 대한 병력의 중점 배치와 남한강을 이용한 하천선 방어로 적의 진격을 최대한 저지하였다. 또한 축차적인 철수와 지형의 이점을 이용한 방어진지 점령 등 소백산맥에서 방어선을 형성하기까지 성공적인 지연전을 수행함으로써, 전열의 정비와 초기 작전 전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중동부지역 지연작전에 있어 충주전투는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국군 제6사단 제2연대가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와 제1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충주와 수안보 일대에서 전개한 공방전이다. 제6사단 제2연대는 사단의 방어계획에 따라 남한강 차안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예상접근로에 병력을 중점 배치하는 한편 축차적인 철수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선점, 효과적으로 적의 남

진을 저지하였다.

전투결과, 북한군은 영남진출을 위한 신속한 거점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다음 단계로의 작전 전개에 적지 않은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국군은 소백산맥선에서 방어선을 형성함으로써 전열정비와 함께 미군의 한반도 전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단양전투는 국군 제8사단이 북한군 제12사단 제30·제32연대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단양 일대에서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은 하천선 방어개념에 따라 예하의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남한강 남안에 배치하여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단은 제10연대 제1대대로 하여금 매포 초등학교에 위치한 적 전방지휘소를 기습하도록 하여 초전에 적의 기세를 꺾었으며, 상진리 지역에서 도하를 시도하는 적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사단은 양방리와 장현리 지역으로 침투한 적으로부터 배후의 위협을 받게 되자 천혜의 방어 요새를 포기하고 철수를 개시하였다.

제8사단은 병력과 화력의 열세로 10일에 단양을 상실한 데 이어 11일에는 제10연대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다음날에는 죽령으로 물러섰다가 풍기로 철수해야만 했으나 이 과정에서 반격전까지 실시하면서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축차로 물러서는 지연전을 벌여 7일간을 지탱함으로써 전 전선에서 유독 돌출된 전선을 계속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서부전선의 국군은 소백산맥 일대에 저지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군은 전력운용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2. 전장기능별 분석 및 평가

1) 지휘통제

중앙선 축선을 담당한 제8사단장의 작전지휘는 비교적 견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8사단장은 전투가 하루, 이틀 한두 번에 종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사단의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한 사전, 사후 조치를 면밀하게 취함으로써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였고, 차후 작전을 건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육본의 명령에 따라 사단이 제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사단장은 6월 28일 제6사단과의 통화로 원주로 철수하라는 육군본부의 명령을 받고, 사단 병력을 유천리와 하진부리에 집결시켜 원주로 차량행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이미 횡성에 진입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신속한 상황 판단 하에 진로를 바꾸어 평창, 영월을 거쳐 7월 2일 제천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철수 과정에서 사단장은 개전초기 산업현장에서 징발한 300대의 차량을 동원해 장비와 물자를 먼저 소개하고, 차량을 다시 회송시켜 병사들의 신속한 철수를 지원하였다. 또한 제천역 근처 방공호에 은닉된 200여 드럼의 휘발유를 찾아내 연료를 획득하고 제천농업창고에 보관된 정부 보유미 2만 가마를 확보해 부대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매포리 기습은 사단장의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국군 제8사단은 적의 약점을 재빨리 간파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공격을 실시함으로써 적에게 예기치 못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매포리 기습은 제6사단의 동락리 전투와 더불어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육본의 충주이동 명령에 대한 사단장의 신속한 조치는 중앙선 축선의 조기붕괴로 인한 부산 함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도 노출하였다. 우선 매포리 기습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기습 자체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적에게 퇴로를 차단당함으로써 제10연대 제1대대는 중대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병력을 잃었다. 제1대대가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하진리에 집결하였을 때 퇴로확보의 부실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납득이 가는 일이다. 기습시에는 사후 귀환시의 퇴로를 확보해 두어야만 기습부대가 무사히 원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슬음산 방어전투와 관련된 문제이다. 제10연대가 실시한 슬음산 부근 방어전투는 약 2시간만에 아군의 실패로 끝났다. 병력 혹은 장비의 열세

는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지형적인 조건이나 방자의 잇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 2시간 만에 방어선이 와해되어 패퇴하게 된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로 전투 지역 내의 소도시나 밀집부락은 그 자체의 전술적 가치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의 상실은 전투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단양의 경우 풍기-영주-안동에 이르는 5번도로의 관문일 뿐만 아니라 협동 공격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요충지임으로 마땅히 이에 대한 방어에 유념했어야 한다. 그러나 7월 9일의 연대 진지교대에서도 새로운 주방어부대인 제10연대에 이를 인계하거나 배속도 하지 않은 채 제21연대 제9중대가 계속 단독으로 방어하다가 10일에 상실함으로써 사단 예비인 제21연대를 이 정면에 투입해야 했기 때문에 사단 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 정 보

다른 작전지역의 사단과 마찬가지로 중앙선 축선의 제8사단도 적에 대한 정보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 제8사단은 전투정면의 적이 개전 초기부터 상대해 오던 북한군 제1경비여단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제8사단 전투정면의 적은 6월 30일 흥천을 점령하고 7월 2일 횡성과 원주를 점령한 후 남하한 북한군 제12사단이었다. 북한군 제12사단은 주력(제30·제32연대)이 원주-제천 방면으로, 제31연대가 원주-충주방면으로 나뉘어 국군을 추격하였다. 제12사단 주력은 7월 3일 06:00에 원주를 출발해 제천으로 향하던 중 신림리에서 국군 제10연대(+)와 교전을 벌이게 되었다.

피난민들에 의한 정보 획득을 제외하면, 제8사단의 정보력은 전투 정면의 적 단대호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정보 부재에 의한 방어진지의 조기 붕괴는 신림전투에서 단적으로 보여진다.

이 전투에서 적은 갑자기 공격을 중지하고 이따금 요란사격만 가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국군이 유리한 감제고지를 선점(先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의 우회와 화력의 보강을 위한 조치였다. 북한군은 화력을 보

강하기 위해 자주포포대를 전투대열로 추진하는 한편, 측방으로 은밀하게 우회하여 언제든지 제10연대를 포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반면에 국군 제10연대는 전방이 소강상태에 놓이자 방어진지에 배치되어 있던 장병들은 잠에 빠지는 등 경계 태세를 늦추었다. 적의 공격 준비에 대한 정보 수집의 부재는 결국 단 한번의 적 공격에 천혜의 방어진지가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3) 기 동

지연작전에 있어 기동성의 확보는 작전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작전기간 동안 국군은 부대기동에 필요한 차량마저 작전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족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지역 내의 사단은 민간차량을 동원하여 병력수송 등에 이용하였는데, 다행히도 지역 내의 각 사단은 이를 가능케 하는 광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6사단의 경우 인근 영월탄광의 차량을 동원하는가 하면, 제8사단은 300여 대의 차량을 민간으로부터 동원함으로써 축차 철수 등 지연전에서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4) 화 력

개전초기 보유한 105mm포 15문 중 2문만을 유기한 제18포병대대는 덕상골에 포진하고 기동리-천주봉-매포리-덕천리에 이르는 지역에 교란사격을 계속하였다. 제18포병대대는 제10연대 제1대대의 매포리 기습전을 계기로 급진한 적이 매포리 남쪽 속칭 새터계곡에 야포를 포진하기 전까지 화력의 우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적의 야포가 추진되면서 덕상골의 포병진지가 노출되어 집중포격을 받기에 이르자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적의 포격권을 벗어난 신기리 정차장 부근으로의 이동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제18포병대대는 “포병이 포병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안전지대로 물러선다면 완전히 적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점을 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신기리가 아닌 북상리 계곡에 위

치하게 되었다.

사정거리가 7,200~7,600m로 제한된 105mm포로서는 적의 포병진지를 타격할 수 없었다. 반면에 적의 포는 제18포병대대의 진지전방 2~3km까지 깊숙이 날아들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18포병대대는 사단이 풍기로 철수할 때까지 진지를 고수하면서 지원사격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죽령까지 도달한 적의 공세는 한풀 꺾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18포병대대에서도 포차 1대와 방향틀이 파괴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18포병대대는 비교적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관측, 사격지휘, 전포, 측지, 통신 등 주특기 교육에 대한 체계가 서있지 않았던 포병의 창설 초창기에도 불구하고 초급장교들의 노력으로 팀훈련과 각종 사격제원의 준비, 그리고 각종 장비의 가동상태 등 준비성이 뛰어났다.

한편, 미 제5공군 F-51 2개 편대의 단양시가지 폭격은 비록 적의 공격기도를 무산시킬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중앙선 축선상에서 미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이 실시됨으로써 적의 사기저하와 아군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였다.

5) 전투근무지원

작전기간 동안 국군은 병력과 장비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충주방어를 담당한 제6사단의 경우 1개 연대, 단양 방면의 제8사단도 2개 연대 수준의 전투력 밖에 지니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탄약 및 군수품 지원상태도 전쟁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만큼 악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작전기간이 경과하면서 상황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헌신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된 결과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역할은 진지구축과 탄약 및 식사 운반과 같은 국군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인 노동력 제공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예를 들면, 충주 전투에서 애국청년단원들은 지게와 리어카를 이용해 탄약운반과 중대까지 식사운반을 담당하였고, 충주부녀회는 주먹밥을 만들어 제공하였다.

한편 단양지구의 경우에는 사단공병대대 제천 동남쪽 1km에 위치한 소하천상의 철교를 비롯하여 단양에 이르는 모든 철교를 폭파함으로써 적 자주포의 기동을 어렵게 하여 적의 남진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제천에서 사단과 함께 남하한 약 1,000명의 청년방위대원과 학생들이 전투력 보강을 위해 충원되었다. 사단은 청년방위대원 500명과 학생 250명을 양개 연대에 배치하는 한편, 나머지 학생 250명을 사단사령부의 후방요원으로 충원하였다. 그리고 고참병을 일선 연대로 차출하여 전투력의 보강을 시도하였다.

주 (註)

- 1) Roy E. Appleman, *U.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G.P.O., 1986), p. 102.
- 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충주-점촌전투』, 1992, pp. 11-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단양-의성전투』, 1987, pp. 31-32.
- 3)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 14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25.
-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작전』 ②, 2005, pp. 16, 418.
- 5)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 1430.
- 6)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621, 674, 1231. 이 연대의 편성, 병력현황 등은 기존의 연구 성과와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제603모터사이클연대 소속의 포로 중 주요 직위자에 대한 심문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p. 419를 참고.
- 7) GHQ, FEC,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1950. 10. 15)*;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1073, 1081, 1087.
- 8) 1918년 함북에서 출생한 최광(崔光)은 해방 전 김일성 항일유격대원으로 활동하던 중 해방과 동시에 입북하였다. 6·25전쟁 기간 동안 제1사단장, 강건군관학교장, 제5군단장을 지냈고, 전후에는 노동당 중앙위 후보위원과 공군사령관, 민족보위성 부상을 역임하였다. 1963년 대장으로 인민군 총참모장에 오른 후 노동당 중앙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국방위 부위원장을 거쳐 인민군 차수가 되었으며, 1995년 10월 인민군 원수로 승진하여 인민무력부장을 지냈다. 국토통일원, 『북괴인물』, 1971, pp. 414-415; 북한연구소, 『최신 북한인명사전』, 1996, pp. 784-785.
- 9) 1916년 충남 부여에서 출생한 한경(韓璟)은 중국으로 건너가 1934년부터 민족혁명당 간부학교, 중앙군관학교, 연안항일군정대학을 수료한 후 연안군정학교 중대장 등을 지내며 항일운동에 주력하였다. 해방 직후인 1946년 입북하여 전쟁 당시에는 제1사단 참모장을 거쳐 군단참모장, 제4군단 군사위원을 지냈으나 1958년 무렵 실종되었다. 김종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pp. 130-131.
- 10) 1915년에 출생한 김양춘(金陽春)은 1937년부터 항일유격대원으로 활동하던 중, 해방이 되자 입북하였다. 전쟁 기간 중 제1사단 제2연대장, 제3사단장 등을 지냈고, 전후에는 제15사단장과 제1군단장, 제1집단군사령관을 지내며 인민군 상장에 오른 그는 199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고, 1994년 7월 사망하였다. 북한연구소, 『최신 북한인명사전』, 1996, p. 169.
- 11)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621, 674, 1231.
- 12)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1950. 6. 25~1951. 12. 31』, 1950. 6. 30일자.
- 13)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현대편』(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40.
- 14)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39.
- 15) Roy E. Appleman, *U.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G.P.O., 1986), p. 102.
- 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26;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40.
- 17)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 14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

- 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26.
- 18) Roy E. Appleman, *U.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G.P.O., 1986), p. 1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45.
 - 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p. 204-205.
 - 2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 1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작전』 ②, 2005, p. 428.
 - 21) 북한군 제12사단은 전체 병력의 약 3/4이 고참병이고 나머지는 모두 신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력의 교육수준도 절반 이상이 무학이며, 일부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수준이다.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77.
 - 22)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 1468. 제12사단은 흥천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약 400명의 인명이 희생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제12사단장을 1950년 6월 29일부로 전우(全宇) 소장에서 최충국(崔忠國) 소장으로 교체하였다.
 - 23)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381.
 - 24)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호』(1950. 6. 30); 『작전명령 제20호』(1950. 7. 5, 10:00).
 - 2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1950. 3. 25).
 - 26)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5호』(1950. 7. 7, 18:00).
 - 27)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06. 사단은 제2연대의 병력부족을 감안하여 모병관(金鍾運 중위)을 임명하여 모병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모병된 병력은 사단사령부와 함께 증평으로 이동하여 청주의 신병교육대에 흡수됨으로써 충주 전투에는 참전하지 못하였다.
 - 28) FEC, 『물전보고서』(1950. 6. 29, 06:20), ‘제8사단장이 육군총참모장에게’.
 - 29) 육군본부, 『이성이 장군 참전기: 영천대회전』, pp. 127-128.
 - 3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3호』(1950. 7. 6, 17:00).
 - 3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전투사: 충주-점촌전투』, 1992, pp. 13-16.
 - 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26.
 - 33)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 1468.
 - 3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②, 2005, p. 120;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p. 151-153.
 - 35) Roy E. Appleman, *U.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G.P.O., 1986), p. 1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45.
 - 36) 육본정보참모부, 『북괴 6.25남침분석』, 1970, p. 181.
 - 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p. 204-205.
 - 38)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년 7월 2일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p. 173.
 - 3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30; FEC, 『물전보고서』(1950. 7. 2, 15:00).
 - 40) 제6사단 제2연대본부, 『특별명령 제34호』(1950. 7. 2). 문서명령은 이날부로 하달됨.
 - 41) 기존의 전사에서는 여주 지역으로 진입한 북한군을 가평에서 서남진한 제2사단의 선봉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산측 자료에 따르면, 이 병력은 흥천에서 투입되어 용두리-광탄리를 거쳐 이포에서 남한강을 건너 여주로 진출한 제2군단 예하의 제15사단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방부 군사

- 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08.
- 4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82. 전투상보에 표기된 제2연대의 병력 1,677명에서 제2대대 병력 500여 명(추정인원)을 제외한 수치임.
- 4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전투사: 충주-점촌전투』, 1992, p. 3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76. 7월 9일 이후의 전투근무지원 미흡은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4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36. 제6사단 지휘소가 증평으로 이동한 시점은 7월 5일 23:00였다.
- 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26;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년 7월 3일자;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33.
- 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189.
- 47)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p. 208-209.
- 48)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는 7월 4일 05:00 무렵에는 대전리 지역의 남한강 북안까지 진출, 충주 점령을 위한 전투를 시작하였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현대편(25)』, 1981, p. 1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326;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년 7월 4일자; FEC, 『물전보고서』(1950. 7. 4 09:30).
- 4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76.
- 50) FEC, 『물전보고서』(1950. 7. 8, 09:40), '제6사단장이 정보국장에게'.
- 51)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년 7월 6일자. 모터사이클연대는 제12사단과 합동으로 충주지역에서 남한강을 도하, 충주를 점령하였다.
- 52) 육군본부는 1950년 7월 7일 일반명령 제4호로 제6사단포병대를 제16포병대대로 개칭하여 사단에 배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포대도 제16포병대대 제1포대로 명명되었다.
- 53) 당시 대대의 화력운용 상황을 보면, 제12중대 제1소대장 배철기(裴哲基) 소위가 지휘하는 중기반은 용곡 동쪽의 사래실 능선 하단에서, 제2소대장 최영준(崔永俊) 소위는 목수 나무목 등에서 교차사격을 실시하였고, 제10중대 제2소대장 김동호(金東鎬) 소위와 제3소대장 정용해(鄭龍海) 소위가 이끄는 소대원들은 용탄진 부근에 집중사격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대 좌일선인 제11중대 제1소대장 이윤옥(李允玉) 소위와 제3소대장 최철주(崔哲柱) 소위는 반송나무목에 화망을 형성하였으며, 권상근(權尙根) 중위가 지휘하는 81mm 박격포소대는 대안의 적의 집결지를, 제1포대장 김장근(金長根) 대위는 조돈진-용대-문산리 계곡 등 적의 예상접근로 일대에 집중포격을 실시하였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19.
- 5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41.
- 55)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년 7월 6일자. 이들 자료는 북한군이 7월 6일에 남한강을 도하하여 충주를 점령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 5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41.
- 57)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년 7월 8일자;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42.
- 58) FEC, 『물전보고서』(1950. 7. 9, 21:30), '작전참모가 정보국장에게', 이 보고에 따르면 충주를 점령한 북한군은 교현국민학교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2개 대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 59)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25.
- 60) 국방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p. 228.

- 61)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년 7월 8일자, 1950년 7월 10일자;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43. 북한군 제1사단은 충주-문경 함창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7월 9일 달천강을 도하하였다.
- 62) 제1대대 정면에 나타난 북한군은 제1사단 예하의 제3연대로서 장갑차를 선두로 하여 수안보로 남하하고 있던 중이었다.
- 63)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년 7월 9일자.
- 64)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1950. 6. 25~1951. 12. 31)』, 1950년 7월 10일자.
- 6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44.
- 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p. 205, 345. 제1사단 예하의 제2연대는 음성을 점령하기 위해 전투를 전개하고 있던 제15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 1468.
- 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205.
- 6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42호』(1950. 7. 12, 24:00). 제2군단은 7월 10일 청주에서 이미 지휘부 구성을 완료하였고, 다음날 01:00에 경북 함창으로 이동하여 7월 12일 국군 일반명령 제14호(문서명령은 7월 13일부로 하달)에 의거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 6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p. 43-44.
- 7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p. 45-46.
- 7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83.
- 72) 기존 전사에서는 국군 제8사단 정면의 적(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이하 '라주바예프보고서'), pp. 172-173).
- 7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丹陽-義城戰鬪』, 1987, pp. 30-31. 남한강에서 단절되어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로 이용이 불편한 상태였다.
- 74) 제8사단의 대관령 철수와 강릉 역습에 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pp. 612-621 참조.
- 75) 개전 초기 제8사단의 총병력은 6,866명이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p. 565). 6월 29일 06:20에 제8사단장이 총참모장에게 보낸 제8사단의 전사·부상·실종·포로·탈영자는 총 661명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보고 내용에는 제21연대의 상황이 누락되어 있다. ('제8사단장이 육군총참모장에게(1950년 6월 29일, 06:20)', 『물전보고서』).
- 76) '제8사단단장이 육군총참모장에게(1950년 6월 29일)', 『물전보고서』.
- 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 21.; 육군본부, 『이성가 장군 참전기: 영천대회전』, pp. 127-128.
- 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이하 '한국전쟁사 2권'), p. 158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①, 2003, p. 120.
- 79) 신림고개로 불리기도 하지만 당시의 지명은 가리파고개였으며, 현재는 치악재라 부르고 있다.
- 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58. 국군 제8사단이 이동간 열차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앙선을 최대한 활용할 대책으로 군수참모 전부일(全富一) 소령이 체천역에 도착한 열차를 역 부근에 대기시켜 놓았기 때문이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 21).
- 81) 개전 초기 제12사단장은 전우(全宇)였으나 초기 작전실패의 책임을 물어 6월 29일부로 소장에서 대좌로 강등되고 최충국 소장이 새롭게 사단장이 되었다.
- 8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보고서』 ①, 2001, pp. 172-173.

- 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보고서』 Ⅰ, pp. 326-327. 제31연대는 제1포병연대 예하 1개 포병대대와 사단포병 예하 75mm 2개 포대가 배속되었으며, 7월 3일 05:00에 원주를 출발하였다.
- 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보고서』 Ⅰ, p. 327. 라주바에프보고서에 의하면, 북한군 제12사단 주력이 신림리 지역에 진출할 무렵 용암리(신림리 동남방 4km)로부터 투입된 국군 2개 대대 병력으로부터 반격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보고서』 Ⅰ, p. 327.
- 86) 육군본부, 『이성가 장군 참전기: 영천대회전』, pp. 128-130.
-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보고서』 Ⅰ, p. 327.
- 88) 육군본부, 『이성가 장군 참전기: 영천대회전』, pp. 128-130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보고서』 Ⅰ, p. 327.
- 89) '제6사단장이 ...에게'(1950년 7월 4일 17:15), 『물전보고서』. 전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군총참모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린다. ① 제8사단에 의해 충주에서 벗어난 제6사단은 청주로 급파될 것이다. ② 제8사단장은 제6사단장과 협력하여 주력을 제천에서 충주로 급파하라.
- 90) '제8사단장이 육군총참모장에게'(1950년 7월 4일, 18:35), 『물전보고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이성가 사단장은 1965년 3월 17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나는 우리가 충주로 이동할 경우 중앙산 축선이 붕괴된다고 하면서 제8사단장 김종오 장군과 전화상으로 옥신각신 싸웠다. 김종오 장군은 명령을 전달할 뿐이라고 하였다." 이성가 증언(1965년 3월 17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HA01501.
- 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59.
- 9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p. 22-23.
- 93) 제8사단장이 대전의 육군본부에 도착한 시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성가 장군 참전기: 영천대회전』에서는 07:00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단양-의성전투』에서는 오전 11:00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965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채록한 이성가 장군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새벽에 도착해 주막에서 식사를 하고 육군본부로 향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제8사단장 이성가 대령이 육본에 도착한 시각은 07:00경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이성가 증언(1965년 3월 17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HA01501).
- 94) 이성가 증언(1965년 3월 17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HA01501.
- 9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0호』(1950. 7. 5 10:00)
- 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p. 22-23.
- 97) 제8사단이 안동에서 출발이 늦어진 이유는 7월 4일 오후 죽령터널에서의 열차사고로 열차운행이 일시 중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제8사단은 한시라도 빨리 제천이나 단양으로 진출하려고 서둘렀으나 7월 4일 오후 마지막 피난민을 만재하고 단양을 떠난 열차가 과도한 하중으로 인하여 죽령터널에서 고장을 일으켜 선로가 막혔다. 이를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려 안동 집결 후 본대가 11시간만에 열차편으로 북상하게 되었다. 이에 제8사단은 본대의 이동에 앞서 제21연대 전술지휘소의 일부 요원과 2개 중대 병력을 차량으로 이동시켰다. 이들 병력은 7월 5일 09:00에 단양에 도착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p. 26-27).
- 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59.
- 99) 이성가 증언(1965년 3월 17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HA01502. 이때 복귀한 고문관은 총 4명이었다(Duty Assignments, Officers of KMAG, 18 July 1950, RG 338, KMAG Adjutant Decimal File 1948-53, Box 7).
- 100) 여기서 사용하는 '단양'은 수몰되기 이전의 '단양'을 지칭한다. 현 단양을 중심으로 표기한다면,

- 하리는 단양 서남방 7km이다.
- 101) 현 단양 북서방 4km 새터 부근.
 - 102) 현 단양읍 지역으로 남한강과 접경지역이다.
 - 10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보고서』 ①, p. 206, 346.
 - 104)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3호(1950년 7월 6일 17:00).
 - 1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 35.
 - 1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p. 161-1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p. 36-37.
 - 107) 국군 제8사단은 피난민 속에 잠입한 북한군의 편의대를 가려내기 위해 단양 북쪽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중, 7월 6일 20:00경 매포의 지방유지와 제천경찰서의 경찰관(사복으로 변장) 한 명으로부터 “북한군이 매포초등학교에 지휘소를 설치 중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 38).
 - 1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62.
 - 109) 단양-제천간의 남한강에 있던 다리로, 교각이 없어 홍수시 물에 잠겨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7월 5일 제8사단이 철수할 때에는 흙을 쌓아 차량을 통과시켰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p. 162-163).
 - 1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 38. 부교나 가교 장비를 갖추지 못한 공병대대는 뗏목을 엮어 만든 나룻배를 대안에 굵은 쇠줄을 묶어 양안에서 견인하는 방식으로 도하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 대안으로 향하던 병력이 아군으로 위장한 1개 소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뗏목과 몇 척의 배를 유실한 채 남안으로 철수하였기 때문에 도하준비는 답보 상태에 있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63).
 - 1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63.
 - 1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p. 163-164.
 - 1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p. 163-166.
 - 114) 동락리 전투에 대해서는 제2절 참조.
 - 1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보고서』 ①, p. 346.
 - 116) 당시 단양부근의 기상조건은 7월 5일부터 9일까지 장마의 영향인 듯 흐리고 비가 계속되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 1년지』, 1951).
 - 1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67.
 - 1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보고서』 ①, p. 346.
 - 1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pp. 591-592.
 - 120) SU-76 자주포의 주무장은 76mm ZIS-3이다.
 - 121) 『라주바에프보고서』에 의하면, 북한군은 “7월 9일 05:00에 광범위한 전선에 걸쳐 남한강을 도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보고서』 ①, p. 346). 이때의 적 도하는 제12사단 주력으로 판단된다.
 - 1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74.
 - 1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77.
 - 1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78.
 - 1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75.
 - 1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79.
 - 1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73.
 - 128) 제3대대에 대한 수정명령은 제10연대 S-3 순형원 소령 편으로 시달되었다.

- 1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78.
- 130) 강릉전투에서 40~50명의 병력 손실을 본 제9중대는 제천에서 학생과 청년 방위대원 20명을 충원 받았으나 그 병력이 100명에 불과하고 장교도 중대장과 경윤호 중위뿐이어서 화기소대를 해편하고 3개 소총소대로 재편하였는데 제2, 제3소대는 선임부사관들이 소대장 대리 근무중에 있었다.
- 1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 57.
- 1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 57.
- 133) 제4중대 제3소대의 실종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p. 168 참조.
- 13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보고서』 ①, p. 347.
- 135) 예천으로 철수한 제7중대와 제9중대는 이곳으로 철수한 경기도 경찰 병력 500명을 통합하여 혼성대대를 편성하고 외곽선에 병력을 배치하여 적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 136) 미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작전에 대해서 제9장 참조.
- 1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p. 188-189.
- 1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92.
- 139) 이 곳에서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적의 공격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명령하면서 진지이탈자는 가차 없이 총살에 처할 것을 선언하였다.
- 140) 제1대대는 속칭 매바위 골짜기로 들어서서 남쪽 능선으로 진출하였는데 칠혹 같은 어둠이 깔리고 지형이 험준한데다가 떡갈나무 숲이 우거져 행군속도가 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가 정상에 진출하였을 때는 이미 먼동이 틀 무렵이었다.
- 141) 장경석(당시 제18포병대대장) 증언.
- 142) 삼척과 정선의 경찰은 단양으로 집결한 이후 국군 제8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소백산 일대를 확보하고 있다가 7월 11일 제8사단 공병대대가 1363고지-죽령 선을 확보함에 따라 제8사단장의 지시로 연화봉-1363고지 선으로 진지를 전환하여 공병대대와의 연계를 유지하면서 적의 우회예에 대비하였다.

제 8 장 동해안지역 지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북한군과 국군 상황
제 3 절	울진 전투
제 4 절	영해 부근 전투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동해안지역 지연작전은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가 주축이 되어 1950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내륙으로 침공한 북한군 제5사단과 동해안으로 상륙한 제766부대, 제945육전대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공방전을 일컫는다.

동해안 지역은 강릉(江陵)－옥계(玉溪)－삼척(三陟)－울진(蔚珍)－영해(寧海)－영덕(盈德) 등 해안 도시로 이어지는 해안선 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선 서쪽 20~30km에서 동해안과 평행선을 이루며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은 오대산(五臺山, △1,563), 석병산(石屏山, △1,055), 두타산(頭陀山, △1,353), 태백산(太白山, △1,546), 일월산(日月山, △1,219), 백암산(白岩山, △1,004) 등의 준령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동서간의 교통을 크게 제한한다. 험준한 산악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게릴라와 같은 소규모 병력의 은밀한 침투는 유리하나 대부대 기동은 불리하며, 피·아간에 관측 및 사계(射界)가 크게 제한되었다.

지역내의 주요 작전로(作戰路)는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있는 7번 도로가 종적으로 주축을 이루고, 횡적으로 삼척－영월간 도로, 울진－영주간 도로, 영덕－안동간 도로가 동서를 연결한다. 이 도로들은 노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데다가 지세마저 험준하여 기갑부대의 기동을 크게 제한하였다. 작전기간 중의 기상은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았으며, 22~25℃를 오르내리는 고온다습한 가운데 아침·저녁으로는 해안선 특유의 짙은 안개가 시계를 크게 제한하였다.)

동해안 지역은 태백산맥으로 인하여 내륙과 단절된 별개의 전선을 형성하였으며, 지역 내에는 해안선과 연한 동해안 도로가 유일한 기동로였다. 그러나 이 도로는 태백산맥에서 동해로 향한 크고 작은 하천에 의해 잘리고 교량이 많아 군사적으로 큰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6월 27일 강릉을 점령한 북한군은 주력인 제5사단을 동해가도로 남하시키기에 앞서 상륙부대인 제766부대와 제945육전대를 올진 방면으로 선행하게 하였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국군의 증원부대 차단과 비정규전 활동을 전개하여 제5사단이 포항으로 신속히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한편, 육군본부는 6월 28일에 국군 제8사단을 강릉에서 제천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그 대신 부산에 주둔하던 제3사단을 투입해 지연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개전 초기 2개 연대로 편성된 제3사단은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하자 육군본부의 긴급명령으로 제22연대를 서울 수도권방어선에 급파하는 한편, 잔여 병력인 제23연대로 하여금 동해안 전선을 전담하게 하였다.

이 기간 중 북한군의 공격 목적은 한국군을 완전히 격멸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군은 남동 해안의 부산과 울산, 포항 항구를 신속히 장악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주력을 수원-대전-부산과 원주-안동-포항 방면으로 집중시켰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제5사단과 상륙부대를 투입해 중서부·중동부지역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면서 영덕-포항을 조기에 공략하고 부산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²⁾

동해안지역을 담당한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는 6월 28일 사단장 유승렬(劉升烈) 대령으로부터 '울진에서 적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 제23연대는 기차로 대구를 경유하여 포항에 도착한 다음, 29일 차량 행군중대로 영덕-영해-평해를 거쳐 올진 남쪽의 왕피천(王避川)까지 진출하였다.

7월 1일 국군 제23연대는 큰 병력 손실을 감수하면서 올진을 점령하였지만, 점령 3시간 만에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올진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제23연대는 상급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정규전과 대비정규전을 병행하면서 올진에서부터 영해까지 60km의 공간에서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제5사단 예하 1개 연대를 산악으로 기동시키며 병력을 분산 운용함으로써 충격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우회한 1개 연대는 8일간 280km의 산간협로로 기동하였으나 성과 없이 전력의 약화만을 초래하였다. 또한 북한군

제5사단의 남진을 촉진하는 임무가 부여된 제766부대와 제945육전대도 제5사단의 남진이 늦어지면서 주공의 작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동해안지역에서 북한군 제5사단의 남진이 늦어진 것은 유엔 해군의 함포지원사격과 공중공격 지원이 주효했기 때문이었다.

작전 기간 중 유엔 해군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에 대해 저지 및 차단작전을 전개하였다. 해군은 함대를 해안에 접근시켜 북한군의 보급로와 집결지를 포격하였으며, 함재기를 출격시켜 북한군 부대와 주요시설 및 교량 등에 대해 폭격을 가하였다. 특히 북한군 제5사단의 남하로 포항에 대한 위기가 점점 고조되자 7월 7일 미 극동군사령관이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영덕방어와 영일비행장 경계를 강조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유엔 해군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남진속도는 크게 둔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안지역에서는 내륙지역의 금강-소백산맥 방어선에서 피·아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때를 같이 하여 7월 13일 경부터 영덕을 중심으로 쌍방간에 치열한 격돌이 전개되었다.

제 2 절 북한군과 국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1) 북한군 전투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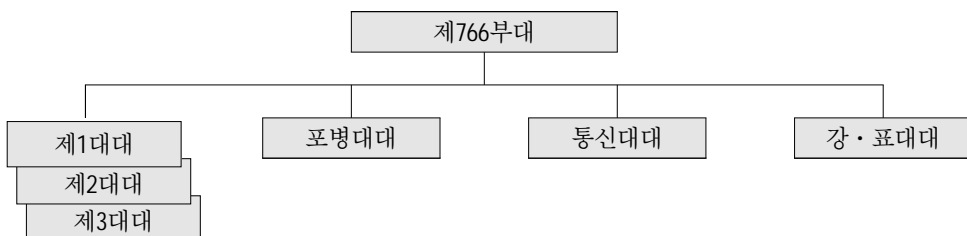
동해안지역에는 제5보병사단과 유격부대인 제766부대, 해군의 제945육전대가 투입되었다.³⁾

북한군 제5사단은 3각 편제 개념에 의거 3개 보병연대(제10·제11·제12보병연대), 포병연대 이하의 3개 포병대대,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소대로 편성되었다. 통상 각 대대는 3개 중대로, 중대는 3개 소대로 편성되었다.⁴⁾

제766부대는 유격부대로서 3개의 보병대대, 포병대대, 통신대대, 강·표대대로 편성되었다(<표 8-1> 참조).⁵⁾ 해군의 제945육전대는 3개의 상륙 경보병대대와 1개 통신중대, 1개 후방근무대로 편성되었다(<표 8-2> 참조).⁶⁾

따라서 동해안지역의 북한군은 완전편성의 1개 보병사단과 2개 연대의 비정규전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해안지역에서 최초 38선 돌파 임무를 수행한 제1정비여단이 강릉에서 증편 중에 있었다.⁷⁾

<표 8-1> 제766부대 편성



제5사단의 지원화력은 122mm 곡사포 12문, 76mm 사단포 및 연대포 36문, 76mm 자주포 16문, 45mm 대전차포 48문, 120mm 박격포 18문 등 총 130문이었다.⁸⁾

동해안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의 주요 지휘관은 <표 8-4>와 같다. 제5사단장에 김창덕(金昌德)⁹⁾ 소장, 제10연대장 박정덕(朴正德)¹⁰⁾ 대좌, 제11연대장 김봉문 대좌, 제12연대장 왕휘(王輝) 대좌, 포병연대장 차균섭(車均燮) 대좌, 제766부대장 오진우(吳振宇) 총좌 등이었다.

<표 8-2> 동해안지역 북한군의 전투편성

구 분	주요 부대	비 고
제5사단	제10·11·12연대, 포병연대, 자주포포대	• 보병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
제766부대	제1·2·3대대, 포병대대, 통신대대, 강·표대대	
제945육전대	제1·2·3대대, 통신중대, 후방근무중대	

<표 8-3> 동해안지역 북한군 포병화력

부 대	계	화포				박격포
		122mm곡사포	76mm 사단포 및 연대포	76mm 자주포	45mm 대전차포	120mm
제5사단	130	12	36	16	48	18

<표 8-4> 동해안지역 북한군 주요 지휘관 현황

구 분	계급	이름	비고	
제5사단	사 단 장	소장	김창덕	조선의용군 출신
	제10연대장	대좌	박정덕	조선의용군 출신
	제11연대장	대좌	김봉문	조선의용군 출신
	제12연대장	대좌	왕 휘	조선의용군 출신
	포병연대장	대좌	차균섭	
제766부대	부 대 장	총좌	오진우	제88여단 출신
제945육전대	부 대 장	?	?	

2) 공격준비태세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제1단계 작전을 완료한 북한군은 주력의 재편성과 함께 6월 30일을 기해 제2단계 작전에 착수하였다.¹¹⁾ 이에 따라 북한군은 신속히 한강을 도하하여 국군의 잔여병력을 포위 섬멸하고 북위 37도선인 평택—충주—울진계선으로 진출하여 미군의 전투전개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¹²⁾

북한군의 공격 목적은 새로운 부대 및 물자들이 한국으로 집결되는 것을 봉쇄하는 것으로써, 그 목표를 부산과 울산, 포항 등 한반도 남동쪽의 항구를 신속히 장악하는 것에 두었다. 북한군 지도부는 주력을 수원—대전—부산과 원주—안동—포항 방향으로 집중시켰다. 그리고 태백산맥으로 인하여 내륙과 단절된 동해안지역에서는 제5사단을 주축으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면서 영덕—포항을 공략하고 부산으로 진출하게 하였다.¹³⁾

(1) 5

북한군 제5사단은 개전 초기 제1경비여단에 배속되었던 제10연대가 1950년 6월 29일에 관할 지역을 제1경비여단 제1, 제2대대에 이양하고, 여단 배속에서 벗어나 사단으로 복귀함으로써 완전한 편성을 갖추게 되었다. 6월 29일과 30일 제5사단의 3개 연대(제10, 제11, 제12연대)는 강릉에 집결하여 제2단계 작전 임무를 부여받았다. 즉 제11연대가 국군 제8사단을 추격하고,¹⁴⁾ 제10연대와 제12연대가 동해가도를 따라 영덕—포항을 조기에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서부·중동부 지역을 담당한 제2군단 주력의 진출에 앞서 포항까지의 주요 항구를 장악하여 부산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격 계획 하에 제5사단은 강릉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7월 1일부터 제2단계 작전에 돌입하였다.¹⁵⁾

(2) 766 945

제766부대와 제945육전대는 총참모부의 직접 통제 하에 운용되는 부대였다.¹⁶⁾ 개전 당일 임원진에 상륙한 제766부대는 주로 남로당원 및 강동정치학원 출신으로

편성되었다. 제766부대는 상륙 직후 일부 병력이 일월산-영양-청송을 향하여 태백산맥으로 들어갔으며, 일부가 울진 북방의 죽변에 위치하였다. 제766부대의 임무는 전선 후방에서 무장폭동을 유발하고 철도와 수송시설물을 파괴하며 국군의 퇴로 및 증원부대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766부대는 제5사단이 포항으로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다.¹⁷⁾

제945육전대는 개전 초기 정동진에 상륙하여 내륙으로 침공한 북한군 제1경비여단 예하부대들과 합동으로 강릉 북방에서 국군을 포위, 섬멸하는 임무를 수행한 후, 동해가도를 따라 포항으로 진격하는 것이 임무였다.¹⁸⁾

3) 전투력 수준

동해안지역의 북한군은 제5사단 예하병력이 약 1만 1,000명,¹⁹⁾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가 약 3,000명²⁰⁾ 등 총 1만 4,000여 명 정도였으며, 122mm 곡사포 12문, 76mm 사단포 및 연대포 36문, 76mm 자주포 16문, 45mm 대전차포 48문, 120mm 박격포 18문 등 총 130여 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4) 인접부대 상황

동해안지역 작전부대의 우인접 부대는 개전 초기 인제-홍천 축선을 통해 횡성과 원주로 진출한 제12사단이었다. 제1단계 작전이 종결된 이후 제12사단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즉 원주-제천 방향과 원주-충주 방향의 2개 방향으로 국군을 추격하는 것이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원주-제천-단양-영주-안동 접근로를 따라 한반도의 동남부로 진출하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북한군 제12사단은 제30, 제32연대가 포병연대(-)의 화력지원 아래 제천-단양 방향으로 진출하였으며, 1개 포병대대와 사단포병 예하의 2개 포대로 증강된 제31연대가 원주-충주 방향의 공격을 담당하였다.²¹⁾

2. 국군 상황

1) 제3사단 현황

사단은 1947년 12월 1일 통위부 일반명령 제69호에 의거하여 부산 주둔 제5연대, 대구 주둔 제6연대, 제주도 주둔 제9연대를 기간으로 경남 부산에서 제3여단으로 창설되었다.²²⁾ 제3여단은 1948년 제주4·3사건, 여순10·19사건, 대구 제6연대 반란사건 등이 발생하자 진압부대로 차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주둔 제9연대를 제5여단에 편입시키고, 새로이 3개 연대(제15, 제16, 제18연대)를 창설하였다. 이 중 제15연대는 1948년 11월 25일부로 제5여단에, 제18연대는 1949년 2월 1일부로 제2여단에 각각 편입되었다. 그리고 육군본부 작명 제13호에 의거하여 1949년 3월 15일 반란사건에 연루된 제6연대가 해체되고 4월 15일에 제22연대로 개편되었으며, 6월 20일에는 국본 일반명령 제17호에 의거하여 제23연대가 창설되고, 제16연대가 제2사단에 편입되었다. 1949년 5월 12일 여단에서 사단으로 승격된 제3사단은 1949년 7월 10일 제5연대를 제2사단에 편입시킴으로써 예하에 제22연대와 제23연대만을 보유하게 되었다.²³⁾

후방사단이었던 제3사단은 사령부와 제22연대가 대구에, 제23연대가 부산에 위치하면서 주로 영남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3사단은 전쟁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에도 태백산 서쪽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개시할 계획이었다. 당시 육군본부는 태백산-보현산-지리산 등지에 약 500명의 공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경상도와 전라도에 주둔하던 제3사단과 제5사단을 동원해 대규모 토벌작전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4일 진주에서는 관계 기관 작전회의가 개최되었다.

작전국장인 강문봉(姜文奉) 대령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작전회의에는 제3사단장 유승렬(劉升烈) 대령, 제3사단 작전참모 장송주(張松胄) 소령, 제5사단 참모장

<상황도 8-1> 동해안지역 지연작전



박병권(朴炳權) 대령, 독립 제1대대장 김종순(金淙舜) 중령, 영등포학원 부대장 홍성준(洪聖俊) 소령, 경찰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 결과 제3사단은 태백산-보현산지구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6월 25일 05:00에 출동할 예정이었다.²⁴⁾

그러나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이 작전은 중지되고, 제3사단은 정규전에 대비하게 되었다. 제3사단은 6월 25일 12:00에 육군본부로부터 하달된 “사단공병대, 통신대 및 제22연대를 집결하여 사단참모장 인솔하에 즉시 서울로 이동하라”²⁵⁾는 긴급명령에 따라 제22연대를 급히 서울로 출동시켰다.²⁶⁾

이에 따라 제23연대만을 보유하게 된 제3사단장 유승렬 대령은 독립 제1대대 및 영등포학원의 배속을 육군본부에 요청하는 한편, 제23연대장 김종원(金宗元) 중령에게 마산을 비롯해 각지에 분산 배치중인 병력을 부산으로 집결시켜 출동명령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6월 27일에 북한군이 강릉을 점령하고 제8사단이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제천 방면으로 진출하게 되자, 동해안지역은 제3사단(-)의 전투정면이 되었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6월 28일부로 독립 제1대대와 영등포학원 병력을 사단에 배속시켰다. 독립 제1대대는 일명 ‘서울유격대’로 1948년 12월 서북청년단을 주축으로 하여 북한의 남파 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창설된 부대였다. 그리고 영등포학원 부대는 1949년 2월 29일 서북청년단원 367명을 기간으로 하여 유격전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였다. 창설 당시의 단대호는 호림부대였으나 1949년 8월 13일 영등포학원으로 개칭되었다.²⁷⁾

이와 함께 육군본부에서는 6월 28일 “제3사단장은 주력으로써 울진에서 적을 포착 섬멸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 주둔 제23연대가 울진으로 향했다.

동해안지역 방어를 담당한 제3사단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 편성은 사단장 유승렬 대령을 비롯하여 참모장 우병옥(禹炳玉) 중령, 인사참모 차문호 소령, 정보참모 정인규 중령, 작전참모 장송주 대위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단 예하 제23연대의

<표 8-5> 국군 제3사단 지휘관 및 참모 편성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사 단 장		대령	유승렬	
		준장	이준식	1950년 7월 10일부
참 모 장		중령	우병옥	
		대령	최 석	1950년 7월 7일부
인사참모		소령	차문호	
정보참모		중령	정인규	
작전참모		대위	장송주	
군수참모		중령	이동화	
제23연대	연대장	중령	김종원	
	제1대대장	소령	박재열	
	제2대대장	소령	백기천	
	제3대대장	소령	허형순	
독립 제1대대장		중령	김종순	
영등포학원 부대장		소령	홍성준	

주요 지휘관은 연대장 김종원 중령을 비롯하여 제1대대장 박재열(朴載烈) 소령, 제2대대장 백기천(白基千) 소령, 제3대대장 허형순(許亨淳) 소령이었다. 그리고 독립 제1대대장은 김종순 중령, 영등포학원 부대장은 홍성준 소령이었다.

2) 전투준비태세

제3사단은 개전 초기에 사단사령부와 제22연대가 대구에, 제23연대가 부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38선상에 배치되어 있던 전방사단에 비하여 전선 상황에 대한 정보 입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후방사단으로 2개 연대만을 보유한 제3사단은 6월 25일 육군본부의 긴급명령에 따라 제22연대와 제23연대의 대전차포 중대 및 2개의 중화기 중대가 한강선 방어를 위해 차출됨으로써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었다.²⁸⁾

이에 제3사단장은 독립 제1대대 및 영등포학원의 배속을 육군본부에 요청하는

한편, 공비토벌 및 주요 산업시설 경비를 위해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제23연대 병력을 부산으로 집결시켰다.

이와 더불어 위수지구에 대한 자체경계태세를 갖추기 위해 사단장은 6월 25일 12:00부로 경상남·북도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산·대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의 가두검문 강화와 민간 소유 트럭 300대를 징발하였다. 그리고 북한군이 동해상으로 침투하는 것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죽변(울진 북동쪽 7km) 이남의 해안마을 청년방위대를 중심으로 해안 감시망을 급히 편성하였다.²⁹⁾

제23연대는 6월 28일 출발해 29일 울진의 왕피천 남안에 저지진지를 편성하였다. 제23연대 출동 이후의 전황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독립 제1대대와 영등포학원 병력이 포항에 집결되었다.

3) 전투력 수준

제23연대, 독립 제1대대, 영등포학원 등으로 구성된 제3사단의 병력은 약 3,400명이었으며, 장비는 1개 중화기 중대가 보유한 박격포와 2.36" 로켓포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화기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4) 인접부대 상황

국군 제3사단의 좌인접 부대는 제8사단이었다. 제8사단은 1950년 6월 27일 강릉에서 대관령으로 철수한 후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7월 2일 제천으로 철수한 후 7월 3일 신림전투에 참가하였다. 이후 제8사단은 충주로 이동하라는 육군본부의 명령을 받고 7월 5일 제천에서 열차를 이용해 대구를 경유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동 명령이 철회됨에 따라 단양으로 복귀하였다.

단양으로 복귀한 제8사단은 제21연대를 단양읍(丹陽邑)-고수리(古藪里)에 이르는 남한강 연변의 약 10km 정면에 방어진지를 점령하게 하고, 제10연대를 사단예비로 하여 단양주변의 경계와 북한군의 기습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울진 전투

1. 전투 개요

울진 전투는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가 북한군 제766부대와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울진을 중심으로 치른 공방전이다.³⁰⁾

이 지역은 서쪽으로 오미산(△1,071), 통고산(△1,067), 일월산(△1,219) 등 1,000m 이상의 준령이 이어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200m 전후의 구릉지대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바다에 이른다. 하천은 대체로 태백산맥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는데,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 북에서부터 부구천·남대천·왕피천과 그 지류인 광천·매화천·평해천 등이 있다. 이 중 울진 남쪽의 남대천과 왕피천이 하천선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다.

지역 내의 교통망은 7번 도로(동해가도)가 해안선을 따라 양양에서 포항까지 연결되어 있고, 울진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36번 도로가 동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였다. 그러나 36번 도로의 경우 산악도로로 노퍽이 좁고 굴곡이 심해 내륙과의 연결이 크게 제한되었다. 기간 중 작전지역에는 비가 자주 내렸으며, 25℃를 오르내리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 아침·저녁으로 끼는 해안 특유의 안개가 시계에 제한을 주었다.

동해안의 요충지인 강릉이 북한군에게 피탈되고, 국군 제8사단이 대관령을 넘어 제천으로 후퇴하게 되자, 강릉에서 울진에 이르는 약 92km의 지역은 무방비 상태로 북한군에게 개방되었다. 이 지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남하해 올 북한군을 저지할 임무를 띤 국군 제3사단은 제1차 저지선을 편성하기 위해 제23연대를 이 곳에 투입하였다.

6월 28일 부산을 출발한 제23연대는 열차편으로 대구를 경유하여, 29일 10:00

에 포항에 집결한 후 제1대대를 선발로 하여 울진으로 향했다. 7월 1일 제23연대장은 울진시가지 공격을 시도하여 울진 북쪽 해안도로와 울진 시가지 확보에 주력하면서 남대천과 왕피천을 이용하여 제2, 제1, 제3대대(-)³¹⁾ 순으로 중심방어 진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측면으로부터 남하한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전투손실이 커지자 제23연대는 방어진지 편성 3시간 만에 울진을 포기하고 제2차 저지선인 평해(平海)를 향해 철수하게 되었다.

2. 전투 경과

1)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의 울진점령

(1) 23

동해안의 요충지인 강릉이 6월 27일 북한군에게 피탈되고, 국군 제8사단이 대관령을 넘어 제천으로 후퇴하게 되자, 동해가도는 무방비 상태로 북한군에게 개방되고 말았다.³²⁾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6월 28일에 독립 제1대대 및 영등포학원을 제3사단에 배속시킴과 동시에 “제3사단장은 주력을 북상시켜 적을 포착 섬멸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³³⁾ 이보다 앞서 육군본부는 6월 25일에 ‘작전명령 제84호’로 제3사단 제22연대 및 사단공병대, 통신대를 사단참모장의 인솔 하에 서울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하였으며, 26일에는 ‘작전명령 제93호’로 제23연대의 대전차포중대를 서울로 이동시킬 것과, 제23연대의 1개 대대를 포항에, 2개 대대를 부산에 집결시켜 유사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³⁴⁾ 육군본부에서 북상 명령이 하달된 6월 28일 현재 제3사단이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은 제23연대와 독립 제1대대, 그리고 영등포학원 병력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사단장 유승렬 대령은 상황전반을 종합 분석한 결과, 울진 부근에서 북한군을 최초로 포착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제23연대로서 제1차 저지선을 급편하기로 결심하였다. 최초 사단장은 삼척을 제1차 저지선으로 상정하였으나 임원진으로 상륙한 북한군이 국군의 진지 편성을 방해할 것으로 판단하여 임원진 남쪽 도시인 울진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단장의 결심에는 강릉을 점령한 북한군이 도보로 남하하는 속도와 국군이 차량으로 기동하는 속도를 고려할 때, 울진 부근에서 피·아가 조우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었다.³⁵⁾

6월 28일 제3사단장은 제23연대장 김종원 중령에게 울진으로의 북상 명령을 하달하였다. 명령을 받은 제23연대장은 적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단지 울진을 선점한다는 계획 하에 각 대대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대작명을 하달하였다.

- ① 연대는 울진에서 적을 포착 섬멸하려 한다.
- ② 제1대대는 6월 29일 17:00까지 울진을 점거하라.
- ③ 제2대대는 동일(同日) 20:00까지 읍남리(邑南里) 부근으로 진출하라.
- ④ 제3대대는 동일 20:00까지 수산리(守山里) 부근으로 진출하라.
- ⑤ 연대지휘소는 동일 20:00부터 노음리(老音里)에 위치할 것이다.

6월 28일 제23연대는 열차편으로 부산을 출발해 대구를 경유하여, 29일 10:00에 포항에 집결하였다. 포항 집결 즉시 제23연대장은 제1대대(대대장 박재열 소령)를 차량편으로 먼저 출발시키고, 제2대대(대대장 백기천 소령)와 제3대대(대대장 허형순 소령)를 15:00에 후속하게 하였다.³⁶⁾

제23연대가 부산을 출발한 후 제3사단 미고문관인 에머리치(Rollinse S. Emmerich) 중령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독립 제1대대와 영등포학원 병력이 제23연대를 엄호하기 위해 17:00까지 포항으로 집결 완료하였다. 본래 사단장은 이들 병력이 사단에 배속되자 제23연대가 수행하던 대구와 부산지역에 대한 경비 임무를 부여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북상하는 제23연대를 엄호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에머리치 중령의 주장에 따라 2개 대대는 전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긴급 출동부대로 임무가 전환되었던 것이다.

울진으로 북상하는 제23연대의 화력은 극히 미약하였다. 전쟁 발발 전에 제23연대는 주로 대비정규전과 후방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부대였기 때문에 야포는 말할 것도 없고 중화기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6월 25일 서울로 긴급 출동한 제22연대에 1개 대전차포 중대와 2개 중화기 중대를 차출당함으로써 지원화력이 극히 열악하였다.

연대 주력에 앞서 울진으로 향한 제1대대는 적정 탐색을 위해 제1중대(중대장 지용태 중위)를 1km 전방에 앞세우고 울진으로 향했다. 제1중대는 수산리(守山里, 울진 남쪽 2km) 부근에서 피난민과 일부 주민들로부터 북한군이 이미 울진시가지에 침입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제1대대장은 수산리에 대대본부를 설치하고 연대장에게 적정을 보고한 다음, 각 중대를 수산리 서북쪽 122고지³⁷⁾에 배치하여 동해가도를 경계하면서 연대 주력의 진출을 기다렸다.

제1대대가 점령한 122고지는 남대천과 왕피천 사이에 위치한 고지로, 고지의 동쪽 산비탈 아래로 동해가도가 남하하며, 북쪽 산비탈 아래로 남대천의 지류(支流)가 동쪽으로 흐른다. 이 고지에서는 울진교를 비롯해 울진시가지의 한 눈에 감제할 수 있었다.

제1대대장으로부터 북한군이 이미 울진을 점령했다는 내용의 적정보고를 받은 제23연대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북한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제23연대장은 긴급 출동과 동시에 울진을 확보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 우선 적정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서 각 대대로 하여금 남대천 남쪽의 동해가도에 4km의 중심으로 진지를 편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가 수산리에, 제2대대가 읍남리(邑南里)에, 제3대대(-)가 노음리(老音里)에 각각 배치되었다.

6월 30일 07:00 수산리의 122고지에 배치된 제1대대 제2중대(중대장 권오봉 중위)가 해안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 유격대원을 생포함으로써 울진의 북한군



국군 제23연대 제1대대가 점령한 수산리의 122고지. 고지 좌·우측으로 왕피천과 남대천이 보인다.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제2중대는 해안도로를 따라 접근하는 북한군 유격대원 12명을 포착하고 10분간의 총격전을 벌여 2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 생포한 포로를 신문한 결과 울진을 점거한 북한군의 병력이 250명 안팎이며, 이들은 6월 25일 해안으로 침입한 유격대의 일부라는 것이었다. 이들의 임무는 북한군 제5사단이 도달할 때까지 울진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군의 반격에 대비해 울진교를 비롯한 남대천 연안에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³⁸⁾

포로 신문을 통해 얻은 정보는 대체로 정확한 것이었다. 당시 동해안지역으로는 유격부대인 제766부대와 육전대인 제945부대가 각각 임원진과 정동진을 비롯해 해안 곳곳에 상륙하였다. 미극동군사령부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상륙에 참여한 북한군 함정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동해안 4개 지점에 3,200~3,800명의 북한군이 상륙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문진에 400~600명, 호산(삼척

시 원덕읍)에 2,000명, 울진에 400~600명, 구룡포에 400~600명 등이었다. 여기서 주문진에 상륙했다고 보고된 병력이 정동진에 상륙한 제945육전대였으며, 호산·울진·구룡포에 상륙한 병력이 제766부대였다.³⁹⁾

제766부대는 6월 25일 03:00경 주문진 앞바다를 통과하여 07:00경 강릉 남쪽 임원진 부근에서 상륙을 감행하였다. 제766부대의 주요 임무는 국군 증원 부대의 차단, 후방 교란, 주력 부대의 공격 촉진 등이었다.⁴⁰⁾

임원진리 왕바위 해변에 상륙한 제766부대는 무방비상태이던 마을을 휩쓴 후 태백산맥, 삼척, 울진 등 3개 방면으로 침투하였다.⁴¹⁾ 임원진 방면에서 남하한 제766부대가 울진을 점령한 것은 26일 자정 무렵이었다. 6월 27일 09:45에 제3사단 정보참모는 육군본부 정보국장에게 “26일 자정 무렵 울진경찰서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북한군이 계속해서 남진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⁴²⁾

울진을 점령한 상륙부대는 제766부대의 선발대였다. 이들은 울진을 점령한 후 일부 병력을 본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울진의 남대천 연안에 배치하고, 그 나머지 병력을 36번 도로를 따라 광회리 방면으로 진출시켰다.⁴³⁾ 이는 전쟁 발발 전부터 통고산, 일월산 방면에서 활동하던 게릴라들과 결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재산 게릴라들과 결합된 제766부대 병력은 6월 30일 15:30에 평해면 온정리 부근에서 북상하는 국군 제23연대 병력과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⁴⁴⁾

제766부대의 선발대가 울진에서 광회리 방면으로 진출할 무렵 그 주력은 죽변-울진을 향해 이동 중이었으며,⁴⁵⁾ 6월 30일경 울진 북쪽 7km 지점의 죽변에 집결하였다.

한편, 육전대인 제945부대는 6월 25일 정동진에 상륙한 후 1개 대대규모가 강릉을 목표로 산두곡(山頭谷)쪽으로 북상하고 1개 대대규모는 일부 병력이 밤재를 차단하고, 일부가 부근의 흑연광산을 점령, 트럭과 주민을 강제 동원하여 보급품을 하역하고 옥계를 목표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개전 초기 제945육전대의 임무는 동해가도를 차단하여 국군의 증원 부대를 차단하고 전선 부대들과 합동으로 강릉 북방에서 국군을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다.⁴⁶⁾ 그러나 제945육전대는 상륙 후 강릉으로 북상 중 군선강 유역에서 국군 제8사단 제21연대와 교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중 잔여병력이 제1단계 작전이 끝난 후 동해가도를 따라 남하하였다.

이들 유격부대와 육전대의 임무는 국군 증원 부대의 차단과 더불어 산간 내륙으로 침투하여 게릴라들과 제휴해 후방을 교란하고, 동해가도를 담당할 북한군 제5사단의 남진을 촉진하는 것이었다.⁴⁷⁾

당시 북한군 제5사단은 6월 29일과 30일에 예하 3개 연대가 강릉에 집결하여 제2단계 작전 임무를 부여받았다. 즉 제11연대가 국군 제8사단을 추격하고,⁴⁸⁾ 제10·제12연대가 동해가도를 따라 영덕-포항을 조기에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서부·중동부지역을 담당할 제2군단 주력의 진출에 앞서 포항까지의 주요 항구를 장악하여 부산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격 계획 하에 제5사단은 강릉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7월 1일부터 제2단계 작전에 돌입하였다.⁴⁹⁾

국군 제23연대장은 울진의 북한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읍남리(邑南里) 부근의 제2대대에게 울진 서북쪽으로 수색대를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수산리 부근의 제1대대에게 울진교를 비롯해 남대천 연안의 수비상황을 탐색하게 하였다.⁵⁰⁾

수색 결과, 일부 유격대만이 울진시가지를 방어하고 있으며, 주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제23연대장은 북한군 주력이 울진으로 돌입하기 전에 울진시가지를 점령하기로 결심하고, 각 대대에 다음과 같은 연대작명을 하달하였다.

- ① 연대는 7월 1일 04:00부터 울진을 탈환하려 한다.
- ② 제1대대는 울진교(蔚珍橋)를 확보하는 즉시로 시가지에 돌입하여 그 중심부를 탈환 확보하라.
- ③ 제2대대는 고성리(古城里)로 진출하여 울진 북쪽의 해안본도(海岸本道)를 차단함으로써 적 주력의 남하를 저지하라.
- ④ 제3대대는 수산리(守山里)로 이동하여, 별도 명령을 대기하라.
- ⑤ 연대본부는 제3대대와 함께 수산리에 위치할 것이다.⁵¹⁾

제23연대장이 결심한 공격 계획은 울진 서쪽의 읍남리에 집결한 제2대대가 측면공격을 가하는 가운데, 수산리의 제1대대가 주공부대로 울진교를 통해 울진시가지로 공격하고, 제3대대(-)가 연대예비로 수산리에 대기하면서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북한군 주력의 진출을 대비하고 울진시가지의 북한군을 배후에서 포위하려는 목적하에 제2대대를 고성리(울진 북쪽 2km)까지 진출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첫째는 며칠 동안 계속된 강우로 인해 남대천이 불어나 울진교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도섭이 어렵다는 점이었으며, 둘째는 유격대의 전력을 단순히 전쟁 발발 전 공비특별작전에서 상대했던 입산 유격대 병력 정도로 생각했다는 점이었다.⁵²⁾

(2) 23

연대장으로부터 작전명령을 하달 받은 제1대대장 박재열(朴載烈) 소령은 토일리(吐日里, 울진교 남쪽 1km)로 대대지휘소를 추진하였다. 이는 남대천이 불어난 상황에서 울진교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가지로 돌입할 때에 병력손실이 적지 않으리라는 예측 하에서 공격 제1선과 예비대와의 거리를 좁혀 병력을 적시(適時)에 투입하기 위한 조치였다. 6월 30일 울진교를 비롯해 남대천 남안을 직접 정찰한 제1대대장은 남대천이 불어나 도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하장비가 전혀 없었던 제1대대는 울진교를 유일한 접근로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제1대대장은 우선 제2중대(중대장 권오봉 중위)를 공격에 투입하고 제1중대와 제3중대를 추차 투입하기로 하였다. 제2중대는 울진교 남쪽 좌우측 제방에 각각 제3소대와 제1소대를 배치하고 공격 시간을 기다렸다.

전날, 제2중대장은 교량 주변의 지형과 접근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 수산리의 중대 집결지에서 울진교까지 약 600m 정도 펼쳐진 개답지를 은밀하게 통과하는 것이 작전 성패의 관건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2중대장은 공격 개시전

야음을 이용해 중대 제1선인 2개 소대를 미리 제방까지 추진시켜 놓았던 것이다.

교량을 중심으로 구축된 800m의 제방은 안성맞춤의 공격개시선이 되었다. 제방에 배치된 제1소대와 제3소대는 각각 분대 단위의 돌격조를 편성하고 대기하였다.

울진 탈환전의 첫 공격은 03:50에 공격준비사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남대천의 남쪽 해안인 오시골 고지 정면에 배치된 제1중대(중대장 지용태 중위)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대의 60mm 박격포 2문과 연대에 남아 있는 유일한 중화기중대인 제8중대(중대장 이일수 중위)의 81mm 박격포 8문이 교량 북쪽의 적진을 향해 포격을 집중하였다.⁵³⁾

공격준비사격이 10분간 작렬하는 동안, 교량 남쪽의 제방에 위치한 2개 소대는 04:00를 기하여 제1소대를 선발로 울진교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교량 북쪽까지의 거리는 150m로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돌격의 성공여부는 오로지 엄호사격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돌격조가 교량 남쪽에 진입할 무렵, 북쪽의 적진에서 자동화기를 동원한 사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완전히 노출된 단 하나뿐인 접근로를 돌파하려면 많은 병력의 손실을 각오해야만 했다. 북한군의 화력이 완전히 봉쇄되지 않는 이상 진출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돌격부대는 엄호사격에 호응하여 포복으로 교량위를 전진하였다.⁵⁴⁾

최초의 돌격부대인 제2중대 제1소대가 교량 북쪽 입구 50m 전방까지 진출했을 때, 제1소대원 절반 이상이 전사 또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제3소대가 즉시 투입되어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육박하였다. 이때 완강히 저항하던 교량 북쪽의 북한군이 물러나기 시작했다.⁵⁵⁾ 이는 읍남리 방면에서 측면으로 공격을 개시한 제2대대가 남대천 도하에 성공해 적의 측면을 공격했기 때문이었다.

제2대대는 6월 29일 저녁에 읍남리 고지로 이동하여 대대지휘소를 설치하고 각 중대를 남대천 서쪽 대안에 배치 완료하고 30일 하루 동안 지형 및 적정을 탐색하면서 공격을 준비하였다.

제2대대(대대장 백기천 소령)가 점령한 진출선은 울진시가지의 서북쪽으로 남대천 너머에는 고성리(울진의 북쪽 500m)의 평지가 펼쳐져 있었다. 제2대대는



울진시가지로의 유일한 접근로인 울진교

공격에 앞서 도하가 가능한 지점을 면밀히 탐색하였다. 제2대대장은 제7중대(중대장 박영원 중위)로 하여금 강폭 및 수심을 탐사하도록 하고 제6중대(중대장 김상현 중위)로 하여금 강 건너편 기슭의 북한군 동태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제7중대는 제1소대와 제2소대에서 각각 1개 분대씩을 차출하여 남대천 서쪽의 2km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수심을 정찰하였는데, 고성리 북서쪽 1km 지점에서 강폭이 넓어지는 만곡부의 수위가 가슴에 닿을 정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6중대의 적정 수색 결과, 동쪽 강변의 북한군 방어가 약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색결과를 보고받은 제2대대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대대 작명을 하달하였다.

- ① 대대는 7월 1일 04:00 남대천을 도하하여 울진의 서북쪽 측방으로 돌입하려 한다.
- ② 제7중대는 대대의 제1선이 되어, 04:00 이전에 도하지점의 동쪽 강안을 점령 확보하라

<상황도 8-2> 7월 1일 국군 제23연대의 울진탈환전 상황



- ③ 제6중대는 도하와 동시에 울진 북쪽의 해안본도로 진출하여 이를 장악하라.
- ④ 제5중대는 제6중대에 후속 도하함과 동시에 울진시가지로 돌입하여 이를 점령하라.
- ⑤ 대대지휘소는 제5중대와 함께 도하하여, 차후로는 제7중대와 함께 행동할 것이다.

제2대대 공격의 제1선인 제7중대는 02:30에 서쪽 대기선(待機線)에서 행동을 개시하였다. 제7중대장은 대대의 공격개시 시간인 04:00까지 도섭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전을 개시하였다. 도섭은 화기소대의 엄호하에 소대별로 축차로 진행되었다.⁵⁶⁾ 화기소대가 도하를 완료하자 제7중대는 동쪽 강안에 중대본부를 추진하고, 울진시가지 서쪽 외곽의 강둑과 야산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중대 규모의 도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대응은 전혀 없었다. 제7중대가 도하한 후 03:00경까지 제6중대와 제5중대도 도하를 완료하였다.

북쪽의 7번 도로를 장악하기로 되어 있던 제6중대는 도하 즉시 성저동(울진 북쪽 1km)을 거쳐 고산성(성저동 북쪽 600m)으로 향했다. 제6중대가 고산성으로 진출하는 동안 북한군의 저항은 전혀 없었다. 접적(接敵)없이 고산성에 도착한 제6중대는 주력을 고산성 동쪽 138고지에 배치하고, 양정리(성저동 동북쪽 1.6km)까지의 도로를 감제하기 위해 1개 소대를 양정리의 89고지에 배치하였다.⁵⁷⁾

제5중대는 남대천 동쪽 해안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해안의 구릉지에 일단 집결한 후 제7중대 제1소대를 초월하여 일제히 전개하였다. 제5중대는 북한군의 전력의 약하다는 것과 울진교쪽 제1대대의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울진 동쪽 측방으로 공격해 들어가기로 하였다. 04:00 공격개시 시간이 되자 제5중대는 울진시가지를 감제할 수 있는 고성리의 야산을 목표로 돌진하였다. 제5중대가 공격개시선으로부터 70m 정도 전진하였을 무렵 뒤늦게 국군의 공격을 감지한 북한군이 사격을 집중하였다. 이에 제5중대는 북한군의 자동화기를 제압하기 위해 미리 편성한 특공조를 투입해 2개의 북한군 진지를 파괴

하고 05:30경 고성리 야산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후 제5중대는 울진시가지와 야산 사이의 접근로를 확보한 후 목표 지점 확보 사실을 제2대대장에게 보고하였다.

(3) 23 가

제2대대의 남대천 도하 성공은 울진교를 통한 시가지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제1대대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였다. 남대천을 도하하여 05:30경 울진시가지 서쪽의 고성리 야산을 점령한 제2대대 제5중대는 울진초등학교 일대의 북한군 산병호(散兵壕)를 가볍게 탈취한 후 잔적을 격파하면서 강변을 따라 울진교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제5중대가 강변을 따라 울진교로 진출하자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한동안 전진을 하지 못했던 제1대대 제2중대가 집중 공세를 펼쳐 울진교를 장악하였다. 07:00경 제1대대 제2중대와 제2대대 제5중대는 시내에 있는 북한군을 완전히 소탕하고 울진을 탈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15명의 포로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아군의 희생도 컸는데, 울진교 점령을 담당한 제2중대에서만 약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생포한 포로들은 즉시 노음리(울진 남쪽 4km)의 연대지휘소로 후송되었다. 이들을 신문한 결과 울진의 북한군은 동해안에 상륙한 부대의 일부 병력으로서 이날 중으로 주력이 동해가도를 따라 남하할 것이라는 첩보를 얻었다.

이에 제23연대장은 즉시 연대참모회의를 소집하여 포로들의 진술을 검토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 ① 제2대대는 양정리-138고지선에서 적의 주력을 포착한다.
- ② 제1대대는 울진을 확보함과 동시에 긴급시에 제2대대를 지원한다.
- ③ 제3대대는 왕피천 남쪽 산비탈에 주저항선을 급편한다.

이러한 작전 계획이 수립되자 제23연대 정보주임 정범진(丁範鎭) 대위는 해안도

로상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대수색대를 죽변까지 진출시켰다. 그리고 작전 주임 하수덕(河守德) 대위는 교량 폭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울진에서부터 주저항선으로 설정된 왕피천까지는 4개의 크고 작은 교량이 있었는데, 그 중 남대천의 울진교와 왕피천의 수산교가 북한군의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어에 유리한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울진교와 수산교는 교각과 경간의 크기에 비추어 공병의 지원 없이는 파괴가 불가능하였다. 사단 공병대대는 6월 25일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이미 서울로 출동한 이후였기 때문에 공병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제23연대는 교량폭파의 필요성을 절감하면 서도 장비 부족으로 인해 속수무책이었다.

한편, 울진 북쪽에서 해안가도에 대한 경계 임무를 맡게 된 제2대대는 제6중대를 양정리-138고지간의 고갯길에 위치시키고, 제7중대를 대나리(울진 동북쪽 1.2km)의 앞산에 집결시켜 제6중대를 지원하게 하였으며, 제5중대를 138고지에 배치하여 북쪽 구릉지대의 접근로를 경계하게 하였다.

울진 시가지의 확보와 제2대대에 대한 지원을 맡게 된 제1대대는 제2대대의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 시가지를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울진교를 중심으로 남대천의 남쪽 강변을 확보하는 것이 방어상에 유리하다는 점을 연대 장에게 건의하여 이를 수락 받았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토일리(울진 남쪽 1km)에서 대대 예비로 대기 중인 제3중대를 오시골(울진시가지의 바로 남쪽 대안)로 추진시켜 제1중대의 동측방에서 울진교 방어를 전담하게 하였다. 그리고 울진시가지에는 제2중대만을 남겨 놓았다.

배치를 완료한 제1대대장은 울진교 폭파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서 연대에 건의하였지만, 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사단의 공병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량 폭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량 폭파는 귀 대대에 일임한다”라는 애매모호한 명령만을 내렸다.

당시 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방어의 축을 남대천의 울진교보다는 왕피천의 수산교와 그 이남의 개활지에 두고 있었다. 이에 연대장은 연대지휘소를 제3대대 지휘소와 함께 145고지(수산교 남쪽 2.2km)에 설치하고 진지를 급편하였다. 제3대

대는 치음동의 좌우측 고지에 제9중대(중대장 정면환 중위)와 제11중대(중대장 송정엽 중위)를 각각 배치하였다. 제11중대는 동해가도의 동측방을 담당하고, 제9중대는 왕피천의 예상 접근로를 경계하였다.⁵⁸⁾

이에 따라 제23연대는 미약하나마 왕피천을 중심으로 저지진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화력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23연대는 오로지 병사들의 분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2) 북한군의 반격과 제23연대의 울진 철수

연대의 경계부대인 제2대대가 양정리-138고지간의 고갯길을 중심으로 방어 배치를 완료한 것은 7월 1일 08:00경이었다. 이보다 앞서 죽변으로 향한 연대수색대는 해안도로에서 벗어나 산악의 지름길을 따라 방축리(죽변 서남쪽 1km)까지 나갔다. 이때 수색대대는 죽변 북방에 위치하고 있던 북한군 상륙부대의 주력이 울진으로 남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⁵⁹⁾

이때 북한군은 울진에서 패주한 병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력을 동해가도로 기동시키고, 일부 병력을 산간 지역으로 우회시켜 국군 제23연대를 협공하고자 하였다. 08:30에 동해가도에는 북한군 침병중대와 더불어, 6대의 장갑차가 출현하였다.⁶⁰⁾ 89고지에 산병호 정도를 구축하고, 고갯길의 제2굴곡부에 화력을 배치하고 있던 제6중대는 북한군의 출현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교전 15분 만에 진지를 탈취 당했다.⁶¹⁾

한편, 제6중대에 대한 지원임무를 띄고 대나리에 대기 중이던 제7중대는 북한군의 출현 급보와 더불어 고갯길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하자, 급히 제6중대 좌측방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화력에 밀려 교전도 제대로 못한 채 물러섰다. 제6중대와 제7중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방어진지에서 물러나 09:00에 대대지휘부와 제5중대가 위치한 138고지로 퇴각하였다.

138고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남진하는 북한군을 울진에서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고지 동쪽으로는 울진에 이르는 유일한 고갯길이 있어서 이 곳에서 북한군을 제압하지 못하면 울진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북한군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듯 09:00경 1개 중대를 도청리(138고지의 북쪽 1km)의 낮은 구릉지대로 투입하였다. 북한군은 각종 포탄을 제5중대 진지에 집중하면서 138고지 정면으로 접근하였다. 제5중대는 조준사격도 제대로 못한 채 우왕좌왕하였다.

이렇듯 초전에 북한군에게 밀리는 형세가 되자 제2대대장은 연대에 전황을 보고하고, 병력보전을 위해 남대천 이남으로의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제2대대에 “모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버틸 때까지 버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작전주임 하수덕 대위와 정보주임 정범진 대위가 연대장에게 “방어선을 고집하여 제2대대를 상실하는 것보다 연대주력의 재수습이 시급하기 때문에 대대의 철수가 차후 작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건의하여 제2대대의 철수가 승인되었다.

북한군은 2개 중대로 89고지를 돌파하고 외봉동(울진 동북쪽 1km)으로 직진하였으며, 138고지로 향한 2개 중대가 남대천변을 따라 울진교로 향하였다. 이로써 울진시까지는 국군 제23연대가 탈환한 지 3시간만인 10:00경에 다시 북한군에게 점령되었다.

제2대대의 방어진지가 초전에 붕괴되자 제23연대장은 울진부근의 방어계획을 시급히 수정하였다. 연대장은 전력이 우세한 북한군에 아군이 일방적으로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대천과 왕피천이 오히려 신속한 전선 수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회하는 북한군에게 퇴로를 차단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제1대대에 제2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면서 이날 12:00까지 전 병력을 왕피천 이남으로 수습하라는 작전지시를 하달하였다. 이로써 왕피천 북쪽 지역을 전투한번 없이 비어주는 결과가 되었다.⁶²⁾

이후 제23연대는 울진을 점령한 북한군이 포지원을 받으며 왕피천 남안으로 진출하자, 7월 2~3일 평해를 거쳐 영해로 철수하였다.

<상황도 8-3> 국군 제23연대의 울진 철수



3. 전투 결과

울진 전투에서 국군 제23연대는 울진만이라도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희망을 달성하지 못하고 점령한지 3시간 만에 울진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23연대는 종래 공비토벌작전만 수행해 오던 부대로서 정규전에 대한 경험 및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지역에 투입될 때에도 북한군에 대한 정보나 상급 부대로부터 뚜렷한 작전지시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연대장은 북한군을 종전의 공비격멸전에서 상대해 왔던 유격병력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울진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은 비록 정규사단은 아니었지만 종전에 국군 제23연대가 상대해 온 유격대와는 규모나 훈련, 그리고 장비 면에서 월등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정규사단인 북한군 제5사단이 동해가도를 따라 남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 유격대의 전력은 정규부대와 비견할 만한 것이었다.

적정이 불명확하고, 대전차포 중대와 중화기 중대를 제22연대에 차출해 줌으로써 장비 면에서 극히 열악했던 제23연대는 장갑차로 무장한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 전초진지가 접적 15분 만에 붕괴되었으며, 병사들은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고 울진에서 철수를 강요당했다.

결국 제23연대는 큰 병력 손실을 감수하면서 울진을 점령하였지만, 처음으로 북한군과의 정규전에서 패배함으로써 확보한 지 3시간 밖에 되지 않은 울진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후 제23연대는 전열을 재정비한 후 해군의 지원하에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병행하면서 울진에서 영해까지 60km의 공간에서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제 4 절 영해 부근 전투

1. 전투 개요

영해 부근 전투는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와 해군포항경비부 육전대가 북한군 유격부대와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평해-영해를 중심으로 치른 공방전이다.

이 지역은 서쪽으로 백암산(△1,004), 통고산(△1,067), 통길산(△1,007), 오미산(△1,071) 등 1,000m 이상의 높은 산이 많아 동서간의 교통이 불편하다. 반면에 동쪽으로는 200m 전후의 구릉지대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바다까지 이른다. 하천은 광천·매화천·평해천 등이 있으나 하천의 폭이 좁고, 수심도 얇아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다.

지역 내의 교통망은 7번 도로(동해가도)가 해안선을 따라 양양에서 포항까지 연결되어 있고, 평해에서 영양으로 이어지는 88번 도로와 영덕에서 안동으로 이어지는 34번 도로가 동서를 연결하고 있다. 기간 중 작전지역에는 비가 자주 내렸으며, 25℃를 오르내리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 아침저녁으로 끼는 해안 특유의 안개가 시계에 제한을 주었다.

7월 1일 제23연대가 울진시가지 공격을 시도하여 울진 북쪽 해안도로와 울진시가지 확보에 성공했지만 점령 3시간 만에 죽변으로부터 남하한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평해(平海)를 향해 철수하게 되었다. 이후 제23연대는 평해에 전방지휘소를 설치하고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한편, 일월산·백암산·주왕산 등지에서 활동하는 유격대를 토벌하는 비정규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해군포항경비부 소속의 육전대가 투입되어 구암산 지역의 게릴라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7월 1일 울진 전투에서 처음으로 정규전을 경험한 국군 제23연대는 상급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정규전과 대비정규전을 병행하면서 울진에서부

터 영해까지 60km의 공간에서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국군 제23연대는 사단의 주력이 한강방어선에 투입되고 7월 5일에 국군의 재편성 계획에 따라 제3사단이 해체되어 단독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울진에서부터 북한군을 저지함으로써 포항의 조기실함을 막는 데 기여하였다.

작전기간 중 유엔 해·공군이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에 대한 저지 및 차단작전에 나서, 함대가 해안에 접근하여 측방에서 북한군의 보급로와 집결지를 포격하는가 하면, 항공기들이 북한군 부대, 주요시설, 교량 등에 폭격을 가함으로써 북한군의 전진속도를 점차 둔화시켰다. 특히 북한군 제5사단의 남하로 포항에 대한 위기가 점점 고조되자 7월 7일 미 극동군사령관이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영덕방어와 영일비행장 경계를 강조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유엔 해·공군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 제23연대와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13일경부터 쌍방이 내륙지역의 금강-소백산맥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임과 때를 같이하여 또다시 영해에서 격돌하게 되었다.

2. 전투 경과

1) 제23연대와 해군 육전대의 평해-영해지역 대비정규전

울진을 점령한 북한군이 계속해서 왕피천 남안으로 진출하자, 제23연대는 평해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제23연대는 7월 2일 05:00에 제1대대와 제2대대를 기성리(울진 남쪽 22km)에, 제3대대(-)를 평해에 각각 집결시켰다.⁶³⁾

제23연대장은 왕피천을 철수하기에 앞서 사단에 병력지원을 요청하였다. 사단장 유승렬 대령은 독립 제1대대와 영등포학원 병력을 제23연대에 배속시켰다. 이에 제23연대는 영등포학원을 제3대대에 편입시키는 한편, 독립 제1대대를 기성리 북쪽 3km 지점의 하사리(망양리 남쪽 2.6km)-21고지(하사리 남쪽 1.3km)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기성리의 제1대대를 평해로 이동시켜 부대 재편작업을 실시한 후 선미리(평해 서북쪽 11.5km) 부근으로 추진시켜 평해의 서측면을 엄호하게 하였다.

이 무렵 울진을 점령한 북한군 제766부대 병력이 남진을 계속하여 7월 3일 04:00에 매화리(울진 남쪽 10km)에서 병력을 양분해 오산리(매화리 서남쪽 3km) - 망양리(오산리 남쪽 5km) 방면과 기양리(매화리 서남쪽 3km) - 길금리(기양리 서쪽 3km) - 길곡리(갈금리 남쪽 7km)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칠보산·등운산 등지에서는 상륙 직후 태백산 지역으로 진출한 제766부대의 일부 병력이 재산 유격대들을 규합해 활동하면서 아군의 배후를 위협하였다.

7월 3일 하사리(망양리 남쪽 2.6km) - 21고지(하사리 남쪽 1.3km)에 진지를 급편하고 있던 독립 제1대대가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기성리로 철수하자 제23연대장은 제3대대(-)를 어현리(기성리 남쪽 3.2km)에 추진시켜 독립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3대대(-)마저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자 제23연대장은 독립대대와 제3대대(-2)를 영해로 철수시켰다. 이후 제23연대는 제2대대가 다투고개(평해 남쪽 3.2km)에서 최대한 자연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연대지휘소와 제1대대를 영해로 이동시켰다.⁶⁴⁾

영해로 이동한 제23연대는 영해에 연대지휘소를 설치하는 즉시 영해 북방 10km 지점의 등운산(騰雲山, △767) 일대에 준동하는 북한군 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당시 제23연대가 추정된 북한군 유격대의 규모는 등운산 - 운서산(△520) - 독경산(△518) 일대에 약 1,200명이었다.⁶⁵⁾

7월 3일 07:00에 제1대대가 제2대대의 제6중대를 배속받아 미곡동 - 삼계동을 거쳐 수동의 415고지와 469고지를 향해 출동하였다. 제1대대는 등운산 동쪽에서 서쪽으로 수색작전을 전개한 후 삼계리 - 415고지 - 518고지 - 458고지 등으로 향했다.⁶⁶⁾ 제1대대는 7월 3일 11:30에 등운산 지역에서 북한군 유격대와 교전을 벌여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다.⁶⁷⁾ 그리고 제3대대의 제11중대와 영등포학원 병력은 7월 3일 11:00에 오천동 - 234고지 - 등운산고지에 대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⁶⁸⁾

등운산 지역 북한군 유격대 토벌작전에는 유엔군의 항공 지원이 병행되었는데, 7월 3일 11:00에는 유엔군 항공기 1대가 영덕군 창수면 등운산 지역의 북한군으로부터 기관총 공격을 받고 영일비행장에 불시착하기도 했다.⁶⁹⁾

제23연대의 등운산지역 수색작전은 7월 4일에도 계속되었다. 제1대대가 평해 북방 518고지 및 458고지를 수색하였으며, 제2대대가 병곡리를 출발하여 등운산에서부터 786고지까지 수색작전을 펼친 후 각각 영해로 복귀하였다.⁷⁰⁾

다음날 제1대대와 제2대대는 형제봉(△704)에 대한 수색작전을 전개하고 대둔산(大遯山, △905)과 주왕산 방면으로 각각 진출하여 7월 6일까지 수색 작전을 전개하였다. 제23연대는 7월 7일 전방지휘소를 평해에 개설하고 대규모의 유격대 토벌작전을 준비하였다. 이에 제1대대가 영해에서 제11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적정에 따라 출동할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독립대대가 영해를 출발해 평해로 진출하였다. 7월 8일 제1대대는 평해로 진출해 망향리-신흥리간 산악지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며, 제2대대의 제6중대가 영해에, 제7중대가 평곡리에 각각 배치되었다.

망향리-신흥리간 산악지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제1대대는 대대OP와 지휘소를 항공동에 위치시키고 제1중대를 덕신동 좌측 고지에, 제2중대를 매화동 남방 115고지로부터 대전동-지수동 능선 일대에, 제3중대를 도로 좌측 기성리 능선에, 제4중대를 이포동-신흥리 일대에, 제11중대를 기양리 암산 능선에 각각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⁷¹⁾

7월 9일 09:00~10:00경 제1중대는 정면에 출현한 약 80명의 북한군 유격대와 약 6시간 동안 교전을 벌여 북한군을 매화리 방면으로 격퇴시켰으며, 제2대대장이 지휘하는 제6중대와 제7중대는 삼계동에 출현한 북한군 약 500여 명과 교전을 벌였다. 이에 제23연대는 평해에 대기 중이던 독립 제1대대를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온정리 부근으로 출동시키는 한편, 영등포학원 병력을 삼계동 지역으로 출동시켜 제2대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7월 10일까지 계속된 이 전투에는 미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이 병행되어 북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⁷²⁾

한편, 제3사단 제23연대가 영해면·병곡면·창수면·진품면 등지에서 대비정규전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영해 이남 지역인 포항의 죽장면 구암산 지역에서는 해군 육전대가 청송방면에서 포항으로 침투하는 북한군 유격대와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해군 육전대는 7월 1일부로 포항경비부(사령관 남상휘 중령)에 배속된 목호경비부 대원들과 포항경비부 기지 근무 장병들을 기간으로 하여 7월 5일에 창설되었다. 이 부대는 중대 규모로 일명 '용호대(龍虎隊)'라 불리기도 했으며, 7월 9일 진해에서 증원 병력이 도착함에 따라 대대 규모의 '강호대(姜虎隊)'로 증편되었다.⁷³⁾

해군 육전대는 포항에 본부를 두고 보현산과 구암산 일대에 대한 북한군 유격대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일대에는 청송으로 우회한 북한군 유격대 일부가 경주와 포항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죽장, 기계, 안강 등지에서 활동 중에 있었다. 7월 11일 죽장면 감곡리에 북한군 유격대가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포항경비부 사령관은 용호대를 안강 지구로 출동시켰다. 용호대는 1개 중대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영천군 구룡산 일대에 잠입한 것을 포착하고 7월 13일 04:00 구룡산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은 2시간에 걸친 교전과 추격 끝에 북한군 유격대 8명을 사살하고 30명을 생포하였다.⁷⁴⁾

동해안 지역의 북한군 유격대 활동과 관련해 미 중앙정보국(CIA)에서는 7월 9일자 보고서에서 "미 극동사령부는 동해안을 따라 형성된 북한군의 밀집상태로 미루어보아 북한군의 승전에 이어 게릴라의 결집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⁷⁵⁾ 그리고 7월 11일자 보고서에서는 "15명에서 800명 규모의 친북한 게릴라 집단이 포항 북서쪽에서 행동을 개시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지금 당장 국내 치안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북한군의 군사적 승리가 계속된다면 이들 세력은 점차 커져 보다 더 위협적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⁷⁶⁾

이를 통해 볼 때, 이 시기 북한군 유격대의 활동은 국군 작전이나 국내 치안에 결정적으로 위협적인 것이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된 것은 분명했다.

2) 해군의 해상지원

1950년 6월 27일 미 해·공군의 참전이 결정되자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작전명령 5-50을 예하부대에 시달하는 한편, 경순양함 주노함과 구축함 4척으로 편성된 한국지원전대(제96.5기동전대 : TG 96.5)를 동해안으로 출동시켰다.

일본 사세보에 기지를 둔 한국지원전대의 임무는 한국 해역 초계, 북한군 상륙 저지, 북한군 함정 격멸, 한국 지상군에 대한 함포지원, 철수작전 지원, 그리고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함선 호송 등이었다.

6월 28일 한국해역에 도착한 주노함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 지상군과 북한군 진지, 북한 해군 함선 등에 대한 함포사격과 해상 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6월 29일 23:11에 주노함은 한국 해군장교의 조언을 받으며 목호 북방의 북한군 병력에 대해 30분 가량 5~포탄 400여 발을 발사하였다.⁷⁷⁾

이러한 해군의 함포사격은 7월 2일부터 주문진-삼척-울진 등 동해안 연안지역의 북한군 병력과 보급·수송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7월 5일 북한군 정찰 정보원은 "함정 3척이 7월 2일 15:00에 주문진을 포격했으며, 7월 3일 10:00에도 포격을 재개해 전쟁물자와 보급품을 실은 6척의 스쿠너와 보급저장소가 파괴되었다"고 상급부대에 보고하기도 하였다.⁷⁸⁾

7월 4일 미 주노함은 영국 호위함 블랙 스완함과 함께 삼척, 주문진 연안을 왕복하면서 교량과 해안도로에 대해 함포사격을 집중하였으며, 7월 6일에는 영국의 자마이커함과 블랙 스완함이 주문진 근방의 북한군 해안포대와 선박, 도로, 교량, 그리고 6개의 유류 탱크에 포격을 가하였다.

7월 7일 이후에도 유엔 해군의 함정들은 울진, 양양, 삼척 등지의 북한군 집결지, 해안 철도, 유류 탱크, 교량 등에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특히 울진 부근에 대한 함포사격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동해가도로 진출하던 북한군 제5사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2일 삼척을 점령한 후 7월 8일 울진까지 국군으로부터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남진을 계속하던 중이었다.⁷⁹⁾

7월 7일 14:30에 미 순양함과 영국 어뢰정들은 임원진 남쪽 1km 지점의 도로

에 포격을 가해 파괴시켰으며, 20:00에는 30분간 양양의 북한군 진지에 대해 포격을 가하였다. 7월 8일 13:00에 이들 함정들은 임원진 북쪽 1km 지점의 도로상에 있던 북한군 제대에 포격을 가해 분쇄하였다.⁸⁰⁾

미·영 해군의 함포사격에 대해 북한군도 해안포 공격으로 대응하였다. 7월 8일 자마이커함·하트함·스웬슨함 등이 울진 근해의 해안 도로에 대하여 포격을 하던 중 북한군 75mm 육상포로부터 반격을 받아 4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북한군은 울진과 임원진 사이에 120mm포 10문을 배치해 유엔 해군의 해안 포격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북한군의 대응에 유엔 해군의 함정들은 원거리 해상으로 이탈한 후 전자탐지장치에 의한 사격으로 해안포 진지를 완전히 파괴하였다.⁸¹⁾

맥아더는 북한군 제5사단의 동향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7월 7일 주한미군사령관인 딘 소장에게 동해안에서 남하하고 있는 북한군을 저지하고 영일비행장의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지시에 따라 딘 소장은 당시 대구에 집결 중이던 미 제19연대 제2대대에 비행장과 포항에 대한



유엔 해군의 함포지원

경계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미 극동해군에서는 동해안에 대한 함포사격과 상륙작전, 근접항공지원을 위한 기동함대 함재기의 출격, 북한 내의 주요 군사 도시 공습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⁸²⁾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은 북한군 병참선 차단과 지상군 지원을 병행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북한군 후방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 미·영 해군은 7월 10일 02:00~03:00에 삼척항에 대한 대규모 함포사격을 시작으로, 포격 범위를 북한지역으로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지상군 지원의 일환으로 미·영 해군은 국군 제3사단의 함포지원 요청에 따라 울진-영덕간 도로 차단과 북한군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였다.

북한군 제5사단이 7월 8일 울진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남진하자 7월 12일 국군 제3사단은 함포 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 7월 13일 미 포병장교 1명이 지상전 상황을 전하고, 함포사격의 표적을 지정하기 위해 주노함에 파견되었다. 이날 주노함과 미 구축함 드 해븐함이 지상군의 요청에 따라 울진의 북한군 병력, 목호의 철도 시설, 삼척항의 유류 탱크 등에 함포사격을 집중하였다. 이 함포사격은 지상군의 무선 통보에 의해 유도되었고, 그 효과가 매우 컸다. 더욱이 함재기들의 폭격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당시 북한군 제5사단 소속 병사들이 “울진에서부터 공습이 매우 심하여 비행기 소리만 들리면 쥐구멍을 찾았다”⁸³⁾고 후술했듯이 해군의 해상지원은 북한군의 기세를 꺾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에서 발간한 공간사에는 “체계적으로 북한군 공격부대의 측면에 함포사격을 가함으로써 공격부대의 공격을 매우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력과 장비에 대해 큰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 바다로부터 관측이 되는 좁은 산길을 통해 동해안을 따라 공격하던 북한군 제5사단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기술하고 있다.⁸⁴⁾

실제로 북한군 제5사단은 주간 행군을 포기한 채 야간에만 이동해 진출 속도가 매우 느렸다.⁸⁵⁾ 이에 따라 북한군 제5사단이 울진을 점령한 것은 7월 8일이었으며, 이후 5일 이상이 걸려 7월 13일에 평해에 이르렀다.

3) 국군 제3사단의 영덕방어선 형성

전선이 영덕으로 근접됨에 따라 동해상에 출동 중인 미 해군 제7함대 일부 함정의 함포지원과 함재기들의 출격이 점증됨에 따라 국군 제3사단은 강력한 지원 화력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사단은 제23연대의 병력 손실을 신병으로 보충하는 한편, 한강선 방어를 위해 차출된 제22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육군본부에 요청하였다.⁸⁶⁾ 7월 10일에 사단장이 경질됨에 따라 동해안 지역의 국군은 방어개념을 일신하고 영해-영덕간에서 중심 깊은 지연전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즉 육군본부는 7월 9일 수원-음성 방면으로 철수 중인 제22연대의 조속한 원대 복귀 명령을 하달함과 동시에 사단장 유승렬 대령을 경남편성관구사령관으로 전보하고, 육군사관학교장이던 이준식 준장을 신임사단장으로 보임하였다. 이는 포항을 고수하기 위해 영덕-강구선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였다.⁸⁷⁾

이에 따라 이준식 준장은 영해 방어를 위한 병력 손실을 피하면서 영해-영덕간의 해안가도를 연하여 3중의 축차진지를 편성해 북한군에게 타격을 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제23연대장 김종원 중령과 독립 제1대대장 김종순 중령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사단은 영해에서 영덕에 이르는 해안본도를 연하여 최대한의 지연전을 수행하며, 적에게 치명적인 출혈을 강요하려 한다.
- ② 제23연대는 2개 대대로써 저지선 (가), (나), (다)를, 1개 대대로써 저지선 (라), (마)를 축차 확보하면서 적을 격퇴하고 7월 20일 06:00 이후에 주저항선 (바)로 집결하라.
- ③ 독립 제1대대는 저지선 (ㄱ), (ㄴ), (ㄷ)를 축차 확보하면서 적의 측면공격을 배제하고, 7월 20일 06:00 이후에 주저항선 (ㄹ)로 집결하라.
- ④ 기간 중 함포 및 공군의 지원을 사단 전방지휘소에 요청하라.
- ⑤ 사단 전방지휘소는 7월 19일 06:00부터 강구에 위치할 것이다.”

이 명령에서 주저항선 집결의 시한을 7월 20일 06:00으로 정한 것은 원대북귀 중인 제22연대의 도착이 18일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한편 미 제8군사령부는 동해안 전선의 상황을 깊은 우려로 지켜보고 있었다. 포항의 항만과 영일비행장의 귀추가 전 전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포항은 부산과 함께 전 전선에 대한 병참물자의 주입구이며, 영일비행장은 미 제40전투비행대대의 기지로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작전참모 맥린 중령에게 동해안 전선에 지원 가능한 화력을 모두 동원하라는 긴급지시를 하달하였다. 이로써 사단 수석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은 화력지원에 관한 요청과 연락을 제8군사령부와 수시로 취하게 되었으며, 육군본부는 한국측 연락관으로 최덕신 대령을 사단에 파견하였다.⁸⁸⁾

국군 제23연대는 7월 12일 12:00에 목골재(영해 남쪽 1.2km)의 동쪽 2km 지점에 위치한 망월봉(△220) 서쪽 산비탈에 제1대대와 제2대대로써 진지(가)를, 목골재 서쪽 500m 지점의 낮은 산지에 제3대대로써 진지(라)를 각각 점령하게 하였으며, 독립 제1대대는 가미실재(목골재 서쪽 2.5km)를 중심으로 진지(ㄱ)를 점령하게 하였다. 이날 14:00에 2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각 정면에 출현하자 영해 앞바다에 대기 중이던 주노함을 비롯한 미 함정들에서 함포지원사격이 이루어졌으며, 영일비행장에서 출격한 미 제40전투비행대대의 근접항공지원이 병행되었다.

한편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8일 울진에 무혈입성한 후 9일 05:00에 금매리(울진 남방 6km) 지역에서 산포리(울진 남방 6km) 지역으로 상륙한 국군 2개 대대와 교전을 벌였다. 이 전투는 7월 9~11일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11일 23:00에 고리동(울진 남방 12km, 덕신리 해수욕장 부근)을 점령하였다.

국군이 새로운 방어계획에 따라 영덕-강구선으로 철수한 상황에서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12일 08:00경 평해에 들어왔다. 제5사단은 평해와 울진의 방어를 위해 1개 보병연대를 주둔시킨 후 영해로 남진하였다.⁸⁹⁾

3. 전투 결과

1950년 7월 1일에 울진을 탈취한 북한군은 7월 12일에 영덕 북쪽 14km 지점인 평해까지 남하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유엔 해군의 함포사격과 함재기공격을 피해 주로 야간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병참선이 신장됨에 따라 보급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남진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는 유엔군의 함포 지원하에 7월 13일 영해에서 철수하여 영덕 북쪽에 새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이 선에서 제22연대가 증원될 때까지 영덕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피아간에 전투력의 격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제3사단은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영덕 공방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 제23연대가 상급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단독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울진에서부터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했기 때문이며, 둘째, 7월 12일 영해부근 전투에서부터 시작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이 긴밀한 협조하에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결과

동해안지역 지연작전은 1950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울진-평해-영해-영덕에 이르는 지역에서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가 주축이 되어 북한군 제5사단과 제766부대, 제945육전대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작전이었다.

제2단계 작전에 착수한 북한군의 공격목적은 국군을 완전히 격멸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군은 남동 해안의 부산과 울산, 포항 항구를 신속히 장악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군 지도부는 주력을 수원-대전-부산과 원주-안동-포항 방면으로 집중시켰다. 그리고 동해안지역으로는 제5사단과 상륙부대를 투입해 영덕-포항을 조기에 공략하고 부산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동해안지역의 북한군은 주력인 제5사단을 동해가도로 남하시키기에 앞서 유격부대인 제766부대와 육전대인 제945부대를 울진-영해 지역으로 침투시켜 국군의 증원부대 차단과 비정규전 활동을 전개하게 하였다. 이는 북한군 제5사단이 포항으로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국군은 개전 초기 동해안 지역을 담당한 제8사단이 제천 방면으로 전환되자, 부산 주둔 제3사단을 투입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개전 초기 2개 연대로 편성된 제3사단은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하자 육군본부 긴급명령으로 제22연대를 한강방어선에 급파하는 한편, 잔여 병력인 제23연대로 하여금 동해안 전선을 전담하게 하였다. 제23연대는 7월 1일 울진에서 처음으로 정규전을 경험한 후 상급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정규전과 비정규전

을 병행하면서 울진에서부터 영해까지 60km의 공간에서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국군 제23연대는 사단의 주력이 한강방어선에 투입되고 7월 5일에 국군의 재편성 계획에 따라 제3사단이 해체되어 단독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울진에서부터 북한군을 저지함으로써 포항의 조기 실패를 막는데 기여하였다.

피·아간에 전투력의 격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23연대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엔 해군의 함포와 함재기들의 지원이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북한군 제5사단의 남하로 포항에 대한 위기가 점점 고조되자 7월 7일 미 극동군사령관이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영덕방어와 영일비행장 경계를 강조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유엔 해군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제23연대와 해군 육전대의 대비정규전 수행, 유엔 해군의 강력한 해상지원 등이 결합되면서 동해안지역에서는 북한군의 진출이 크게 제한되었다. 그 결과 국군 제3사단이 영덕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포항의 조기실패를 막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전투준비태세

개전 당시 후방사단으로서 2개 연대만을 보유한 국군 제3사단은 사단사령부와 제22연대가 대구에, 제23연대가 부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3사단의 주요 임무는 일월산, 보현산, 지리산 등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남북도 일원에서 활동하던 북한의 남파유격대와 재산계털라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철도와 주요 산업시설물을 경비하는 것이었다. 전쟁 발발 당일에도 국군 제3사단은 태백산에서 보현산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전쟁 발발 당시 제3사단 예하부대들은 게릴라 토벌작전과 주요산업시설 경비를 위해 경상남북도 일원에 분산 배치되어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의 전투력 집중

을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38선 상에 배치되어 있던 다른 국군 사단들에 비해 전선 상황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의 적절한 대응 태세를 갖추 수가 없었다.

더욱이 전쟁 발발과 동시에 육군본부에서는 제22연대의 전병력과 제23연대의 2개 중화기 중대를 서울 방면으로 차출함으로써 제3사단의 전투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서울 방면으로 차출된 제22연대를 대신해 독립 제1대대와 영등포학원 병력이 제3사단에 배속되었지만 병력과 장비면에서 제22연대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포병은 말할 것도 없고 중화기 중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1개 연대가 개전 초기 국군 제8사단이 담당하던 동해안지역을 방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3연대가 동해안지역에서 강력한 화력과 대규모 병력을 보유한 북한군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유엔 해군이라는 강력한 지원화력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제3사단장은 6월 25일 12:00를 기하여 경상남북도의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가두검문을 강화시키는 한편, 긴급 출동시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트럭 300여 대를 징발·확보하였다. 또한 동해안에 대한 북한 병력의 해상 침투를 감시하기 위해 죽변 이남의 해안선에 연한 부락의 청년방위대로 하여금 해안 감시망을 급편하게 하였다. 이렇듯 후방지역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진 경계 조치 강화와 비상연락 체계 정비는 계릴라들의 후방지역 교란 활동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였다.

3. 전장기능별 분석 및 평가

1) 지휘통제

개전 초기 동해안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8사단이 내륙으로 후퇴함

에 따라 새롭게 동해안 지역의 방어임무를 맡게 된 제23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울진 점령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제23연대는 울진만이라도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희망을 달성하지 못하고 점령한지 3시간 만에 이곳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23연대는 종래 공비토벌 작전만 수행해 오던 부대로서 정규전에 대한 경험 및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지역에 투입될 때에도 적에 대한 정보나 상급부대로부터 뚜렷한 작전지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대장은 정규 부대인 북한군을 종전의 공비토벌작전에서 상대해 왔던 유격병력 정도로 생각한 면이 없지 않았다.

한 부대가 상황이 급박하여 급거 전투에 투입될 시 상급부대에서 전파되는 적정은 통상 개괄적이고 이미 적시성이 상실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부대는 자체능력으로 온갖 노력과 방법을 다하여 적정 탐색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 알맞은 대비책을 스스로 세워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3연대장은 적정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울진 점령만을 염두에 두었다. 이에 따라 방어상 유리한 하천선 진지점령을 도외시함으로써 조기에 울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는 분명 연대장의 지휘상 과오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정 보

국군 제8사단을 대신해 동해안지역의 해안도로를 따라 남하해 올 적을 저지할 임무를 띤 국군 제3사단은 38도선상에 배치되어 있던 다른 국군 사단에 비해 전선 상황에 대한 정보 입수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제23연대가 사단으로부터 출동명령을 받고 울진으로 향할 때 연대는 적의 규모나 장비에 대한 정보는 물론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제23연대가 출동에 앞서 상급부대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강릉을 점령한 북한군이 도보로 남하하는 속도와 아군이 차량으로 기동하는 속도를 고려할 때, 울진 부근에서 피·아가 조우할 공간이 크다는 정도였다.

3) 기 동

지연작전에서 지형조건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열세라도 방어자의 이점인 지형의 적절한 이용을 통해 적이 불리한 지형에서 전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울진-영해 부근의 동해안지역에는 하천선 방어에 유리한 남대천과 왕피천이 있었다. 그러나 제23연대는 하천선 방어보다는 울진시가지 점령이라는 목표를 우선시함으로써 방어편성의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더욱이 동해가도상에서 남대천과 왕피천을 건너는 유일한 교량인 울진교와 수산교를 폭파하지 않은 것은 제23연대가 울진을 점령한 후 3시간 만에 북한군의 반격에 밀려 대응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영해까지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전투력이 절대적으로 열세한 제23연대의 입장에서는 울진시가를 점령하는 것보다 남대천 또는 왕피천을 중심으로 하천선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울진교와 수산교를 조기에 폭파하는 것이 방어상에 더 유리하였을 것이다.

4) 화 력

동해안지역을 담당한 국군 제23연대는 포병의 지원은 차지하더라도 예하 3개 중화기 중대 중 2개 중화기 중대가 서울방면으로 출동한 제22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차출당함으로써 화력면에서 극히 열악하였다.

그러나 6월 27일 미 해·공군의 참전이 결정되어 동해안지역으로 경순향함 주노함과 4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미 극동해군의 한국지원전대가 투입됨으로써 제23연대는 막강한 해상함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군의 함포사격은 연일 양양-울진간 도로·교량·철도 및 북한 지상군의 집결지와 보급시설들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동해가도를 따라 남하하던 북한군의 전진 속도를 늦추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함재기들의 폭격은 당시 북한군 제5사단 소속 병사들이 “비행기 소리만 들리면 쥐구멍을 찾았다”고 회고하듯이 북한군의 기세를 꺾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 전투근무지원

기동성의 확보는 작전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사단은 개전 당일 12:00를 기해 경상남북도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긴급출동시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트럭 300여 대를 징발·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제23연대가 부산에서 울진으로 출동할 때나 울진에서 영해로 철수할 때에 신속성과 기동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과 청년방위대는 해안 감시망을 구축하여 북한군의 해상 침투를 감시하는가 하면, 지역 내의 사정과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영해 부근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주 (註)

- 1) 江原道, 『江原道史』(역사편), 1995, pp. 104-16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중·동부전선편』, 1982, pp. 191-193.
- 2) 러시아 國防部 編, 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 오비기획, 2002, p. 39.
- 3) 북한군 제5사단은 제2군단 소속이었으며(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①, 2001, pp. 204-208), 제766부대와 제945육전대는 총참모부의 직접 통제 하에 운용되는 부대였다(육군본부, 『북괴군 특수부대』, 1989, pp. 229-231).
- 4) 개전 초기 북한군 제5사단의 편제 및 임무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 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pp. 554-558 참조.
- 5) 강·표대대는 제766부대 예하의 제424부대(부대장 표무원)와 제200부대(부대장 강태무)로, 1949년 5월에 남한에서 월북한 표무원(表武遠)과 강태무(姜太武)가 인솔하던 병력이었다. 제766부대는 1950년 8월 17~19일 포항지역에서 큰 손실을 입고 제12사단에 흡수된다(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p. 266; 육군본부, 『북괴군 특수부대』, 1989, p. 38).
- 6) 동해안 지역에 상륙한 육전대의 부대 통상 명칭은 '945부대'이다(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전쟁 전투일지: 1950. 6. 25-1951. 12. 31』), 제945육전대는 1950년 8월에 해체되어 제24여단(제249부대)에 통합된다(육군본부, 『북괴군 특수부대』, 1989, p. 213).
- 7) 제1경비여단은 강릉을 점령한 후 강릉 해안지역과 남측을 방어하는 임무를 부여 받고 강릉에 주둔하면서 부대 증편작업에 들어가 7월 중순 제8사단으로 증편되었다(러시아 국방부 편,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p. 38; FEC,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1952(Unpublished).
-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①, 2001, p. 290.
- 9) 일명 이덕산(李德山)으로 1902년 함북 명천에서 출생하였다. 만주사변 후 흑룡강성 밀산에서 반일유격대에 참가하였고, 1936년 공산당 추천으로 모스크바 동방대학에 유학하였다. 1939년 중국 연안 중공중앙 경호연대 분대장을 역임했으며, 1945년 팔로군에 입대하였다. 동북의용군 제3지대 부지대장, 독립 제11사 부사장, 제164사 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1949년 7월 입북 후 북한군 제5사단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1952년 제13사단장, 1954년 제2군단 부군단장(소장) 등을 지냈으며, 1956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선임되었다. 1957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 겸 상임위원, 1961년 9월 노동당중앙위원 겸 검열위 부위원장,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대의원 겸 상임위원, 1965년 5월 노농적위대 중앙부대장 등을 지내다 이후 잠적하였다(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0, p. 185; 북한연구소, 『북한인명사전』, 1996, p. 258).
- 10) 1921년 생으로 1940년 초 조선의용군에 가입하여 태행산 군사간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이수하였다. 조선의용군 반석중대 길남군구 제72단 대대장, 독립 제11사 491단 부참모장 등을 지냈다. 6·25전쟁시 제5사단 제10연대장으로 영덕전투와 포항전투에 참가해 김일성으로부터 '영웅칭호'를 받았다. 이후 북한군 제5사단 참모장과 사단장을 역임하였으며, 1953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2, p. 186).
- 11)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1950. 6. 25-1951. 12. 31』, 1950년 6월 30일자.
- 12)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2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40.
- 13)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오비기획, 2002, p. 39.
- 14) 제11연대는 국군 제8사단을 추격해 대관령-평창-영월로 진출했으나 8일간 280km의 산간협로

- 기동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전력의 약화만을 초래하였다(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4, p. 234)
-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①, 2001, p. 312. 개전 초기 제5사단 제10연대의 배속 관계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제6장 참조.
 - 16) 육군본부, 『북괴군 특수부대』, p. 213.
 - 17) 육군본부, 『남도부 사건기록』;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61.
 - 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61.
 - 19) 제5사단은 그 전신이 중공군 제164사단이었다. 중공군 제164사단은 1948년 10월 장춘 함락 후 장춘에 주둔하고 있던 중 1949년 7월 하순 북한으로 입북하라는 중공군 총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당시 중공군 제164사단 부사단장이었던 전 조선의용군 제3지대장 김창덕(金昌德)의 지휘하에 한적(韓籍) 병사 7,500명이 1949년 8월 23일 장춘(長春)에서 회령을 거쳐 남포에 도착하였다. 중공군 제164사단은 포병연대가 없이 3개 보병연대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북 후 재편과정에서 화포 및 각종 장비와 병력 3,500명을 추가로 보충 받아 북한군 제5사단으로 재편되었다. 사단 예하에는 제10, 제11, 제12연대가 있었다. 따라서 제5사단은 국공내전을 통해 적게는 2~3년, 많게는 5~6년에 걸친 전투경험을 가진 비교적 우수한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이 사단은 소련의 전술 교범에 의거해 사단공격까지의 재훈련을 마치고 평가회에서 북한 수뇌부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는 최강을 자랑하는 정예사단이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한국전쟁사』 ②, 2005, p. 630).
 - 20) 미 극동군사령부에서는 당시 동해안지역에 상륙한 병력 규모를 3,200명에서 3,800명 선으로 보았다(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50, vol. 7, pp. 134-135).
 - 21) 북한군 제12사단 현황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 22) 『통위부 일반명령 제69호』, 1947. 12. 1.
 - 23) 보병제3사단, 『백골사단역사』, 1980, pp. 101-117.
 -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61.
 - 25) 『육본작명 제93호』, 1950. 6. 25. 이 작명은 이미 6월 25일 08:00에 구두명령으로 하달된 것으로 26일 05:00까지 서울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다.
 - 26) 육군본부로부터 명령이 하달되자 제3사단장은 사단 참모장인 우병옥(禹炳玉) 중령의 지휘하에 2개 대대를 먼저 출동시키고, 26일에 잔여 1개 대대를 제22연대장 강태민(姜泰敏) 중령의 지휘하에 후속시켰다.
 -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안강·포항전투』, 1986, p. 71.
 - 28) 『육본작명 제84호』, 1950. 6. 25. ; 『육본작명 제93호』, 1950. 6. 26.
 - 29) 보병 제3사단, 『백골사단역사』, 1980, p. 131. 민간 소유 트럭 및 승용차에 대한 징발 해제는 6월 29일 05:00부로 해제되었다. 이와 관련해 『부산일보』 1950년 7월 1일자 기사에서는 부산위수지구사령관 및 경상남도 경찰국장 명의로 다음과 같은 포고문이 공포되었다. “단기 4283년 6월 25일 이후로부터 군대경찰 이외 특수기관에서 민간용 트럭 승용차를 징발한 바 있었으나 6월 29일 하오 5시 현재로 해제한다. 이후 육·해군, 경찰이라 하여 개별적으로 민간용 차를 징발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부산헌병대에서 처단한다. 단 군경합동전투지휘소에서 징발받은 예외이며 이외는 어떠한 기관을 막론하고 부산 위수지구사령관 및 경상남도 경찰국장의 연명(連名)으로 발행하는 징발증을 소지한 자 이외에는 응하지 않아도 좋다. 이에 있어 징발증 없이 강요하는 자가 있을 시는 역시 헌병대에 연락하여 주기를 바란다”(『부산일보』, 1950. 7. 1).

- 30) 기존 전사에서는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 정면의 북한군이 '제5사단'으로 기록하고 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559-580). 그러나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1일 강릉에서 제2단계 작전에 돌입해 7월 1일 08:00에 옥계, 7월 2일 07:00에 삼척, 7월 8일에 울진을 점령한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p. 177, 328). 울진전투에 참가한 북한군은 임원진에 상륙한 제766유격부대의 일부 병력이었다(육군본부, 『남도부 사건기록』).
- 31) 제3대대는 연대작명 제76호에 의거해 6월 26일 대구로 이동하였다(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0), 1986, p. 126). 이후 제3대대는 당시 철도 경비 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제10중대(중대장 박종병)를 제외하고 제9중대와 제11중대가 영해방면으로 출동하였다. 기존 전사에는 제10중대가 울진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중대장이었던 박종병의 증언에 의하면, 제10중대는 철도 경비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박종병 증언, 2005년 3월 22일).
- 32) 개전 초기 동해안지역을 담당한 국군 제8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강릉을 확보, 공세이전을 달성한다는 방어계획을 가지고 강릉 사수를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국군 제8사단은 북한군의 강력한 공세와 육군본부의 전선 조정 조치에 따라 제천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제6장 참조.
- 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62.
- 34) 『육본작명 제84호』, 1950. 6. 25. 12:00.; 『육본작명 제93호』, 1950. 6. 26. 08:00.
-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63.
- 36) 연대는 사단에서 차출한 징발 트럭으로 영덕-영해-평해를 거쳐 울진을 향하여 북상 기동하였다.
- 37) 기존 전사에는 140고지로 기술되어 있으나 전쟁 당시에 사용되던 1949년판 군사지도에는 122고지로 표기되어 있다.
- 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65.
- 39)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50, vol. 7, pp. 134-135.
- 40) 육철식, 앞의 책, pp. 173-174.
- 41) 삼척 방면으로 이동한 병력은 정동진에 상륙한 제945육전대가 1단계 임무를 수행하고 남하한 것으로 보아 이들도 울진을 향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중동부전선편』, p. 216).
- 42) 「제3사단 정보참모가 정보국장에게(1950. 6. 27. 09:45)」, 『물편보고서』.
- 43) 「제3사단 정보참모가 정보국장에게(1950. 6. 28, 01:45)」, 『물편보고서』.
- 44) 「...가 육군총참모장에게(1950. 6. 30, 22:30)」, 「제3사단장이 총참모장에게(1950. 7. 1, 02:00)」, 『물편보고서』. 제3사단장은 육군총참모장에게 4명의 적을 사살하고, 3명을 생포했으며, 자동화기 1정과 탄약 200발을 노획했다고 보고했다.
- 45) 「제3사단 정보참모가 정보국장에게(1950. 6. 28, 01:45)」, 『물편보고서』.
- 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①, p. 174.
-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pp. 598-599.
- 4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4.
- 4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보고서』 ①, p. 312. 제5사단은 7월 2일 삼척을 점령하고, 7월 8일에 울진으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전사에서 울진 전투시 제23연대 정면의 북한군이 제5사단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기존 전사의 오류는 공산군측 문서가 공개되기 전에 참전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이었다.
- 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65.
- 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65.

- 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65.
- 53) 제23연대의 3개 중화기중대는 6월 25일, 육군본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서울로 출동해야 했다. 그러나 제3사단 작전참모 장송주 소령의 건의로 1개 중화기 중대가 제23연대 작전을 위해 남겨 되었으며(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68.), 2개 중화기 중대는 7월 1일 13:00에 서울을 목표로 진주에서 대구로 향했다(『제3사단장이 육군총참모장에게(1950. 7. 1. 22:50)』, 『물전보고서』).
- 54) 교량위에는 엄폐물이 없었기 때문에 돌격부대는 개인별로 15kg의 모래주머니(사대)를 휴대하였다. 북한군의 집중사격이 시작되자 병사들은 각자가 휴대한 모래주머니를 던지고 그 자리에 엎드렸다. 모래주머니는 혈로(血路)를 돌진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 돌격조는 사대를 두 겹으로 쌓아올려 응급 차폐물로 삼았다. 박격포의 엄호화력이 집중되는 순간마다 돌격대원들은 각개 약진으로 사대를 밀고 나갔다(당시 제2중대장 지용태 중위 증언).
- 55) 교량 북쪽의 북한군이 물러서기 시작한 것은 06:15경이었다.
- 56) 수심에 의한 낙오병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대별로 병사상호간에 밧줄로 연결하여 도하를 강행하였다.
- 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571-572.
- 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573-574.
- 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75.
- 60) 기존 전사에는 이들 장갑차를 SU-76 자주포로 기록하고 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576-577). 그러나 제5사단이 보유한 자주포는 7월 1일경 강릉을 출발해 남진하였기 때문에(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①, p. 312), 7월 1일 08:00에 울진에 SU-76 자주포가 출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61) 당시 제6중대 제2소대장 명대식(明大植) 소위 증언, 1978. 3. 3.
- 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577-578.
- 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79.
- 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578-579.
- 65) 『제3사단장이 총참모장에게(1950. 7. 2. 00:15)』, 『제3사단장이 총참모장에게(1950. 7. 4. 16:35)』, 『물전보고서』.
- 66) 『제3사단장이 총참모장에게(1950. 7. 4. 16:35)』, 『물전보고서』.
- 67) 『제3사단 정보참모가 육본 정보국장에게(1950. 7. 4. 18:57)』, 『물전보고서』. 이 전투에서 제1대대는 북한군 유격대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으며, 자동화기 1정과 탄약 80발, 99식 소총과 탄약 3,100발, 경기관총 9정과 탄약 2,000발, 60mm 박격포탄 95발 등을 노획하였다.
- 68) 육군본부, 『제3사단 제23연대 전투상보』, 『한국전쟁사료』 (50), 1986.(이하 ‘제23연대 전투상보’), p. 128; 『제3사단장이 총참모장에게(1950. 7. 4. 16:35)』, 『물전보고서』.
- 69) 『제3사단장이 총참모장에게(1950. 7. 4. 16:35)』, 『물전보고서』.
- 70) 『제23연대 전투상보』, p. 128.
- 71) 『제23연대 전투상보』, pp. 129-131.
- 72) 『제23연대 전투상보』, pp. 125-133.
- 73) 용호대(龍虎隊)는 정창룡(鄭昌龍) 중위의 끝 이름자인 ‘용’자와 ‘호’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고, 강호대(姜虎隊)는 강기천(姜起千) 소령의 성인 ‘강’자와 ‘호’자를 붙인 이름이다(강기천, 『강기천 회고록, 나의 인생 여로』, 계몽사, 1995, p. 46)
- 74) 해군 육전대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제9장 ‘구압산 전투’ 참조.
- 75) 국방군사연구소, ‘The Memorandum of R. H. Hillenkoetter(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 The Korean

-
- Situation', "Intelligence Report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미국중앙정보국 정보보고서)", 1997, pp. 25-26.
- 76) 국방군사연구소, 'The Memorandum of R. H. Hillenkoetter(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 The Korean Situation', "Intelligence Report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미국중앙정보국 정보보고서)", 1997, pp. 29-30.
- 77) 이에 대해서는 제9장 '해상작전' 참조.
- 78) 「정찰 보고원 보고(1950. 7. 5. 10 : 15)」, 『물전보고서』.
- 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보고서』 Ⅰ, p. 207.
- 80) 「5082가 0052에게(1950. 7. 9. 02 : 25)」, 『물전보고서』.
- 81) 위의 문서 : 「5082가 …에게(1950. 7. 9. 02 : 05)」, 『물전보고서』.
- 82)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한국전쟁』 1권, 1987, pp. 159-161.
- 83) 김석중, 『작풍』, 극동문제연구소, p. 53.
- 84)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오비기획, 2002, p. 301.
- 85) 북한군의 남진속도는 서부지역이 1일 평균 7km인데 비해 동해안 지역은 1일 2.3km에 불과하였다 (일본육전사보급회 편, 『한국전쟁』 1권, 1987, pp. 159-161).
- 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82.
- 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582-583.
- 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83.
- 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 p. 207.



제 9 장 해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한국해군 작전

제 3 절 유엔해군 작전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해군작전은 1950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이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해역에서 수행한 해상봉쇄, 함포지원, 상륙작전, 해상수송작전, 항공강습작전 등을 말한다.

해군작전은 유엔해군이 6월 29일부터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을 개시함에 따라 한국해군 작전과 유엔해군 작전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해군 작전에는 기간 중에 실시한 해역별 해상봉쇄작전과 주요 작전이 포함되었고, 유엔해군 작전에는 성분 작전별로 구분된 주요 작전이 기술되었다.

전쟁 초기 한국해군은 게릴라 부대원을 신고 동해안에 기습적으로 침투한 북한 함선 일부를 막아내지 못했으나, 유엔해군이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을 개시한 6월 29일까지 단독으로 고군분투하면서 38도 이남으로 침투하는 적 함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북한해군은 전쟁 초기 남한의 후방지역에 대한 상륙작전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유엔해군이 한반도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함에 따라 작전개념을 점차 해안 방어작전으로 바꾸었다. 이는 전쟁 초기 북한 함선의 일부 세력이 한국해군의 포격에 의해 손실되었고, 특히 6월 29일부터 전투력이 우세한 유엔해군이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을 개시하였기 때문이다.¹⁾

6월 29일 북한 지상군은 서울, 춘천 등을 점령하여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고, 일부 부대는 계속 남하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6사단은 김포 지역을, 제1, 3, 4사단은 서울 지역을, 제5사단과 경비 제1여단이 강릉을 점령하였고, 제2, 12사단은 춘천과 홍천을 점령한 후 양평 및 횡성 방면으로 남하하고 있었다.

6월 27일 유엔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에 관한 결의가 통과된 후 미 극동해군 함정이 6월 28일 한국해역에 도착하였고, 이어 6월 29일 영국 함정, 6월 30일

오스트레일리아 함정이 한국 해역에 도착하였다. 또한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도 함정을 조속히 파견할 것을 약속하였다.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제독이 지휘하는 미 7함대도 6월 27일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C. Turner. Joy) 제독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²⁾

긴급히 한국 해역에 출동한 유엔함정들은 한국의 지상군이 계속 밀리고, 전선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입수되는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았고, 혼돈스러운 것이 많아 작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전쟁초기 한국해군과 유엔해군 간 연합작전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고, 상호 정보교환 부재로 인하여 불상사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미국의 경순양함 주노함의 오인 포격에 의한 한국의 JMS-305정 침몰이었다.³⁾

이 사건으로 인하여 6월 30일 해군총참모장 대리 김영철 대령과 미국대사관 해군무관 싸이콧트와의 협의에 따라 유엔해군이 북위 37도 이북 해역에서, 한국해군이 37도 이남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해군은 유엔해군과의 정보교환 및 작전 협조를 위해 한국의 연락장교를 유엔 함정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전쟁 발발 당시 미 극동해군은 미국의 군비 감축에 따라 충분한 세력을 보유하지 못했으나, 전쟁 발발 이후 제7함대와 영연방 함정들이 합류됨으로써 전투력이 점차 증강되었다.

미 극동해군은 미 7함대를 통제하게 됨으로써 예하에 제90기동부대, 제96기동부대 및 제7함대로 구성되었다.

조이 제독은 부산으로 향하는 수송 함선의 호송과 북한 해역에 대한 봉쇄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7월 3일 미 극동해군 작전명령 8-50을 시달하여 제96기동부대 조직을 재편성하였다. 작전명령에 따라 7월 5일부로 미국 함정으로 구성된 동해안지원전대와 영연방 함정으로 구성된 서해안지원전대가 편성되었는데, 각각 제96.5기동전대와 제96.8기동전대로 기동명칭이 부여되었다.⁴⁾ 또한 이 작전명령에 따라 7월 10일 제96기동부대 예하에 한국해군으로 구성된 제96.7기동전대(TG 96.7)가 편성되었는데, 기동전대장은 미 해군의 루시(Michael J. Lousey) 중령이

맡았다. 제96.7기동전대 예하에 한국의 해군총참모장이 지휘하는 제96.70기동전대(TG 96.70)를 두었다. 제96.70기동전대장은 제96.7기동전대장과 협의하여 한국 해군총참모장의 작전명령으로 한국 해군을 작전 지휘하였다.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은 해상봉쇄작전, 함포지원, 해상수송작전, 상륙작전, 항공강습작전 등 연합작전을 통해 한반도 해역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아축의 해상교통로는 물론 부산 교두보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해군은 유엔해군과의 협의에 따라 주로 북위 37도 이남 해역에서 작전을 하였지만, 필요에 따라 37도 이북 해역에서도 작전을 수행하였다. 한국해군이 수행한 작전은 해역 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 | |
|---------------|---------------|
| ○ 동해안 작전 | ○ 남해안 작전 |
| 동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 | 남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 |
| 구암산 지구 전투 | 이승만 대통령 호송작전 |
| ○ 서해안 작전 | ○ 해병대 작전 |
| 인천지구 방어작전 | |
| 서해안 봉쇄작전 | |

유엔해군은 한국해군과의 협의에 따라 북위 37도 이북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지만, 필요에 따라 함포지원, 상륙작전 등을 위해서 37도 이남 해역에서도 작전을 하였다. 유엔해군이 수행한 작전은 성분작전 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 | |
|-----------------|--------------|
| ○ 해상봉쇄작전 및 함포지원 | ○ 해상 수송작전 |
| ○ 포항상륙작전 | ○ 평양 및 해주 공습 |

제 2 절 한국해군 작전

1. 부대 편성 및 운용

6월 25일 09:00 해군본부에 설치된 해군지휘부는 해본작명 갑 제51호에 따라 6월 27일 04:00에 명칭이 전투사령부로 변경되었다.⁵⁾

해군총참모장의 부재로 김영철 대령이 '해군총참모장 대리'라는 직책으로서 한국해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제2권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해군 소장은 PC(구잠함) 3척을 미국에서 추가로 구매하여 귀국하던 중 하와이에서 전쟁 발발 소식을 접하고, 구매한 PC함 편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6·25전쟁 발발 이전 총 4척의 PC함이 구매되었는데, 10월 17일 구매한 PC-701(백두산)은 1950년 4월 10일 한국에 도착하였고, 1950년 5월 27일 추가로 구매한 3척(금강산, 삼각산, 지리산)은 태평양 상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었다.

갑작스런 북한의 전면 공격으로 아군의 전세가 계속 불리해지자, 국방부를 비롯해 육·해·공군 본부 등 군 지휘부가 후방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에 김영철 대령은 작전지휘 공백을 우려하여 6월 27일 07:00 한국해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진해통제부사령관 김성삼 대령에게 위임하였다. 작전지휘권을 위임받은 진해통제부사령관은 이날 이상열 대령을 작전부장으로, 이용운 중령을 작전참모로, 이영우 대위를 작전보좌로 임명하였다.⁶⁾

해군본부와 전투사령부는 6월 27일 13:30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동하여 15:20 수원의 매향여자중학교에 설치되었다. 다음날 07:20 해군본부와 전투사령부는 대전으로 철수, 이날 17:00 대전의 원동국민학교로 이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해군은 6월 27일 12:00 1차로 해군본부와 전투사령부의 일부 장병과 장병 가족들을 특별열차 편으로 진해로 이동시키고, 다음날 20:30 제2차

로 일부 장병을 진해로 보냈다. 대전에 위치한 해군본부와 전투사령부에는 필요한 장병 103명만이 잔류하였다.

한국해군은 7월 1일부로 해군본부와 전투사령부를 통합해 해군작전본부(이하 해군본부로 통칭)를 설치하였다.⁷⁾

한편 진해통제부는 6월 29일 국방부로부터 한국은행의 금·은괴를 수령하여 보관하라는 업무를 수명하였다. 국방부 제2국장 김일환 대령, 제3국의 실무장교 정규섭 해군 소령은 헌병 1개 소대의 엄호를 받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령한 금·은괴(금 1.5톤, 은 2.5톤 등 89상자)를 트럭 2대에 싣고 6월 27일 서울을 떠나 6월 28일 대전에 도착하였다. 해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6월 29일 진해통제부 경리부장 김익수 해군 중령은 금·은괴를 수령하여 트럭으로 진해로 가져왔는데, 금·은괴는 곧바로 진해에 있던 LST함에 보관되었다.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6월 29일 미 주노함의 오인 포격에 의한 305정 침몰로 인하여 해군총참모장 대리 김영철 대령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6월 30일 06:00 대전을 출발하여 수원으로 향하였다. 그는 08:00 미국 대사관 해군무관 사이콧트와 해상작전구역에 대해 협의 한 결과, 유엔해군이 북위 37도 이북 해상을 경비하고, 한국 해군은 37도 이남 해상을 경비하기로 하였다. 미 해군무관과의 회의를 끝낸 김영철 대령은 7월 1일 13:10 대전의 해군본부로 복귀하였다.⁹⁾

이와 관련하여 진해통제부 작전참모 이용운 중령은 유엔해군과 작전구역 분담, 연락장교 파견, 피아 식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7월 1일 08:00 진해를 출발하여 부산에서 개최하는 연합참모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 결과 진해통제부는 7월 1일부터 작전 시 피아 식별을 위해 한국 함정들에게 마스트에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도록 하였고, 미군 함정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YMS 운남정은 515, 충무공정은 313, 구룡정은 106정으로 함정번호를 부여 또는 개칭하였다.

전쟁 발발 당시 한국 해군의 총병력은 6,956명이었으나, 7월 중순 경에는 1만으로 증가되었다.

한국 해군은 해양통제권 장악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작전 목표를 두고 유엔 해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¹⁰⁾

1. 급속한 시일 내에 적 해상 병력의 격멸
2. 적 상륙작전의 분쇄
3. 제해권의 완전 장악과 육군과의 합동작전
4. 해안 연도(海岸沿道)의 적 진지, 보급로 및 시설의 파괴
5. 해상 경비 및 해안 봉쇄작전
6. 도서 작전 및 해상수송로 확보
7. 유엔 해군과의 공동작전

한국해군은 전쟁 발발 이전에 LST 1척(천안), AKL 1척(부산) 등 수송함 2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해군은 해상수송작전의 중요성을 고려 7월 1일 한국 정부의 교통부에서 운용중인 LST 7척과 FS(이후 AKL로 개칭) 7척을 징발하여 수송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¹¹⁾

7월 2일 각군 간의 작전 협조를 위해 충남 도청(대전 소재) 내에 있는 국방부에 해군연락관실이 설치되었다.

전투함이 한 척이라도 아쉬운 한국해군은 7월 3일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제독 으로부터 추가로 구매한 PC 3척이 7월 16일 진해에 도착한다는 전보를 받았다.

해군본부는 수송함, 전투함 등 함정 세력이 증가함에 따라 함정을 운용할 수 있는 추가 병력이 필요로 하여 7월 6일 22:00에 2,500명의 병력 증강 건의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날 한국해군이 교통부로부터 징발된 선박 운용과 관련하여 교통부 간부들과 협의하였다.

해군본부는 7월 8일 해본 특판명 제1호에 따라 부산의 제2부두에 항만방위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김일병 대령을 임명하였다. 항만방위사령부에 부산경비부의 제2정대와 조선창을 예속시키고, 항만방위는 물론 한·미 해군의 연합작전을 위한 연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해군총참모장 대리 김영철 대령은 대전의 해군본부가 해군 함정 및 부대를 작전지휘할 수 있는 통신 등 제반 시설을 갖추게 됨에 따라 7월 8일 14:00 진해 통제부사령관으로부터 한국해군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여 손원일 제독이 한국에 도착한 7월 16일까지 해군작전을 지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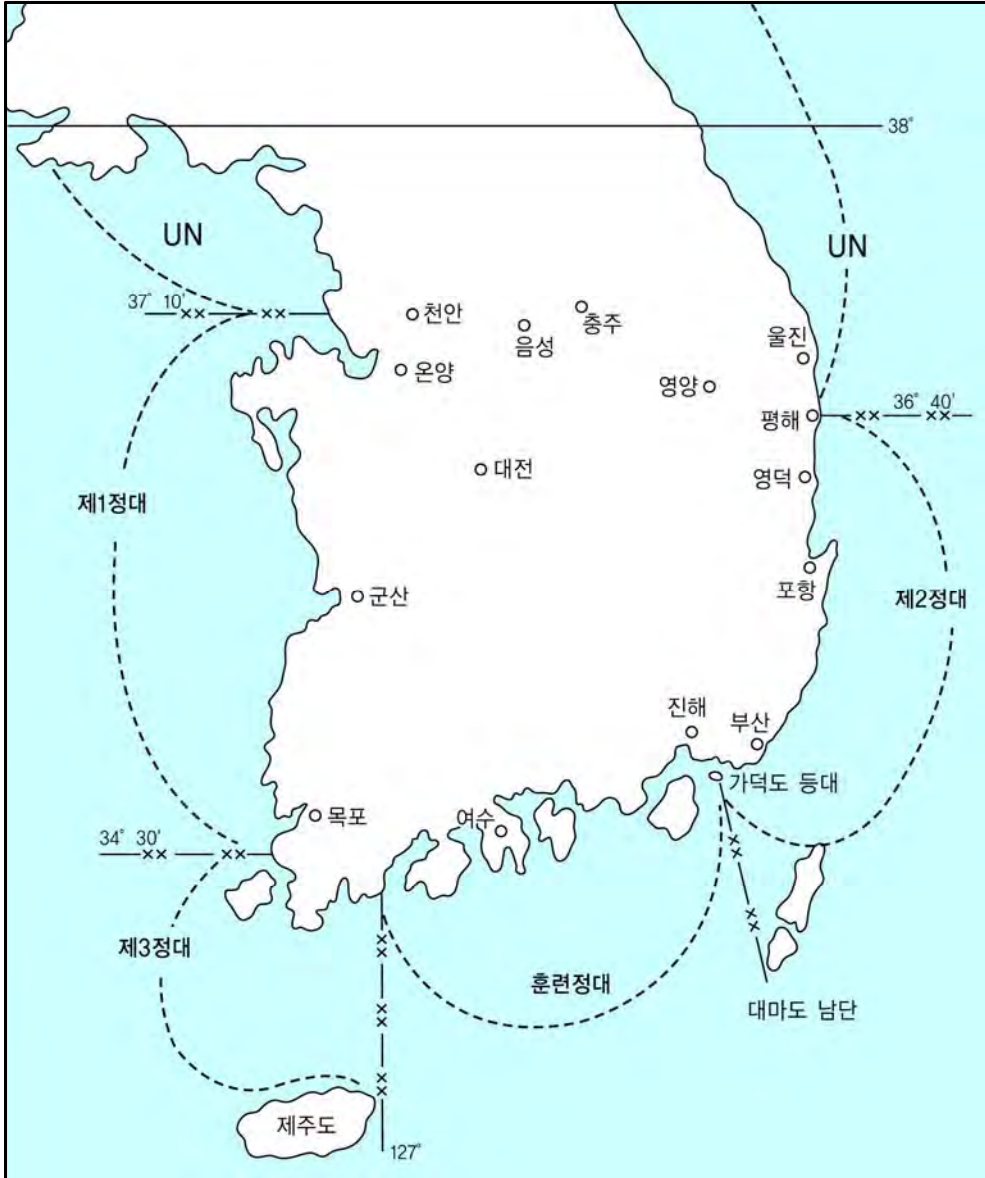
7월 9일 해군본부는 해본 특편명 제2호에 의거 해병대의 증강을 위하여 진해에서 함정 근무자를 제외한 육상 근무자 500명을 선발하여 해병대 병력으로 편입시켰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작전 등 해병대에 대한 지휘는 신현준 사령관에게 일임하였다. 또한 이날 해본 작명갑 제65호로서 포항지구 방위를 위해 부산항만방위사령부의 병력 300명을 포항에 배치시켰다.

7월 10일 한국 해군은 유엔해군과의 원활한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본 작명갑 제57호에 따라 해군연락관실을 대전에 위치한 국방부에 그대로 두고, 해군본부를 부산 제1부두에 위치한 옛 항만청 건물로 이전하였다. 이날 해군총참모장 대리 김영철 대령 등 해군본부 요원 11명은 대전에서 항공편으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아울러 한국해군은 7월 10일부로 유엔해군의 예하에 제96.70기동부대로 편성되어 유엔해군의 구성원으로서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해군본부는 7월 12일 해본 작명갑 제60호로 정대 별 해상 경비 구역을 아래와 같이 획정하여 정대사령들에게 경비토록 하였다.

- 제1정대
북위 34도 30분부터 북위 37도 10분 구간
- 제2정대
평해(북위 36도 40분) 이남~가덕 등대와 대마도 남·서단을 연결하는 이북해역
- 제3정대
북위 34도 30분 이남~동경 127도 선 이서(以西)의 구간
- 훈련정대(진해)
가덕도 등대와 대마도 남·서단을 연결하는 선부터 동경 127도 선의 구간¹²⁾

<상황도 9-1> 각 정대별 해상 경비 구역



2. 동해안 작전

1) 동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

(1) 가

목호경비부(사령관 : 중령 김두찬)

포항경비부(사령관 : 중령 남상휘)

부산경비부(사령관 : 중령 민영구)

제2정대(사령 : 중령 김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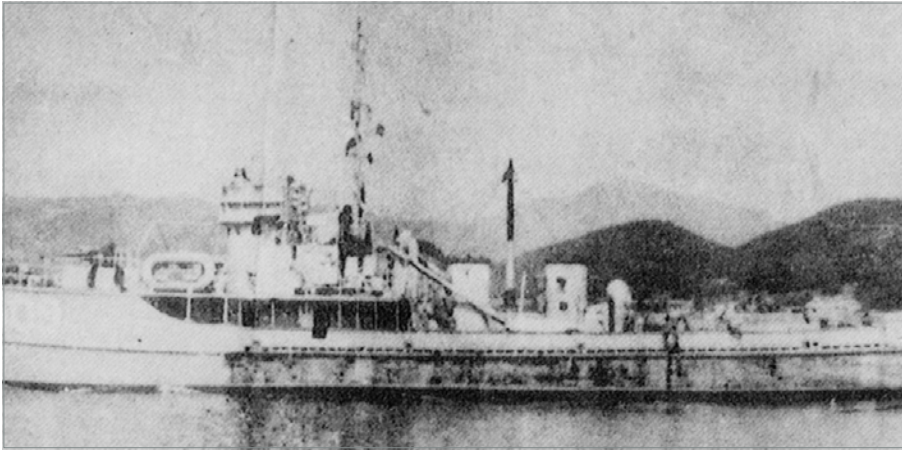
함정 : PC-701, YMS-503, 506, 509, 510, 512, 514, 515, 516, 518, JMS-304, 305, 306, 308, 309, LCI-105, LST 문산호

(2)

동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은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부산에 기지를 둔 제2정대 함정 중심으로 한국 해군이 동해안에 대하여 실시한 방어 및 봉쇄작전을 말한다. 제2정대의 작전구역은 남해의 가덕도 등대와 대마도 남·서단을 연결하는 선의 이북 동해상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시점의 세력 배치 상황은 제2정대의 509정이 목호 근해에서 경비하고 있었고, 304정은 구룡포 근해에서 부산 기지로 복귀 중에 있었다. 그리고 305정은 포항을 출항하여 38도선 근해로 항진하면서 항해 경비를 하고 있었고, 부산에 대기 중인 506정과 516정이 동해 경비를 위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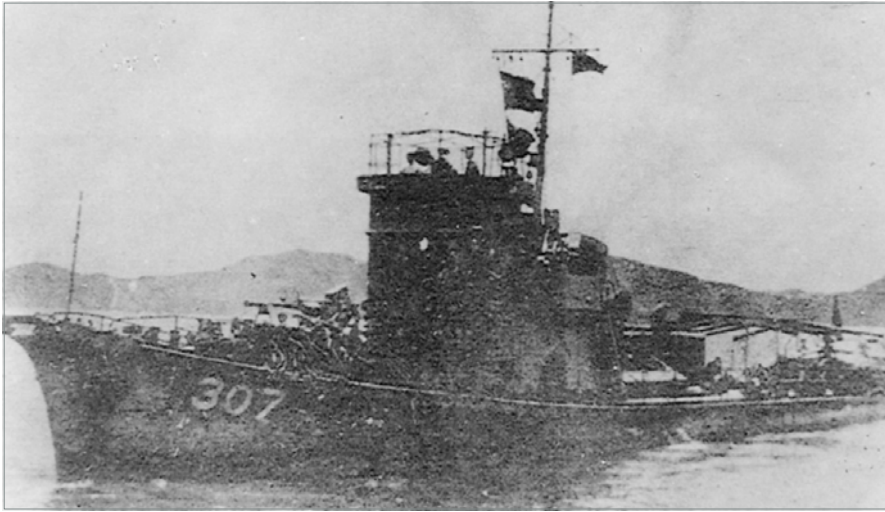
제2권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2정대는 YMS-506, 510, 516, JMS-304, 305 그리고 LST 문산호를 지휘하여 포항을 떠나 동해로 출동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동해안에 출현한 적 함선과 해안으로 상륙하는 적 게릴라 부대를 격멸하고, 6월 26일 포항으로 철수했다가 목호기지로 복귀하는 목호경비부 대원들을 호송하는 것이었다.



동해상에서 활약한 YMS-509(가평) 정 모습

6월 29일 제2정대 소속 함정들은 묵호경비부 대원들에 대한 호송 임무를 하면서 해상 경비를 병행하고 있었다. 이때 함정들의 경비 현황은 516, 304, 305정이 묵호 근해에서, 506, 509, 510정이 임원 근해에서, 701함, 512, 518정은 포항 근해에서, 105, 308정은 부산 근해에서 각각 경비하고 있었다. 동해 출동 명령을 받은 701함은 6월 25일 진해를 출항하여 6월 26일 대한해협에서 1,000톤급 북한 무장 수송선을 격침시킨 후 동해로 이동하여 512, 518정과 포항 근해에서 경비하고 있었다.

동해상에서 한국해군과 유엔 해군 간의 정보 부재로 인하여 미국 군함의 오인 포격에 의해 한국 함정이 포격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LST 문산호가 묵호 경비부 대원들을 편승하고 묵호기지로 향해하는 도중 6월 29일 02:00 삼척 전방 해상에서 미국 경순양함 주노함으로부터 오인 포격을 당하여 전사 1명, 부상 1명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제2권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JMS-305정이 03:45 주노함으로부터 포격을 받아 전사자 8명, 부상 4명이 발생하였다. YMS-510은 문산호와 305정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문산호는 함 운용에 지장이 없었고, 305정은 37mm 포가 파괴되고 기관실과 함수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305정은 510정에 의해 포항으로 예인 도중 침수가 심하여



침몰한 JMS-305와 같은 유형인 JMS-307 모습

결국 6월 29일 16:30 평해 전방 5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이 사건으로 해군총참모장 대리 김영철 대령은 사건 발생 다음날 6월 30일 08:00수원에서 미국 대사관 해군무관 싸이콧트와 긴급회동을 가졌다. 이 협의에 따라 이날부터 북위 37도 이북 해상은 유엔해군이, 37도 이남은 한국 해군이 경비 임무를 맡기로 하였다.¹³⁾

한국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유엔군 함정은 미국의 경순양함(CL) 주노함이었는데, 도착한 날자는 6월 28일이다. 이날 주노함은 거제도과 울산 지역에 적군이 침입했다는 정보 내용을 함 상륙반을 통해 확인한 후 삼척-강릉간 해역을 봉쇄하기 위해 북상하던 중 6월 29일 02:30에 북위 37도 25분 해상에서 2개의 미식별 표적 군을 레이더로 포착하자, 미식별 선박을 적 함정으로 판단하여 포격을 개시한 것이다. 이날 날이 밝으면서 주노함은 한국 함정을 적 함정으로 오인하여 포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포격 당한 한국 함정들의 손상 장비를 복구해주고 인명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주었다.

이후 주노함은 본격적으로 해안 포격 등 해상 봉쇄작전에 들어갔는데, 6월 29일 23:11부터 한국해군 연락장교(해군 대위)의 조언을 받으며 묵호 지역에 대해

30분 간 함포포격을 가하였다. 이것은 6·25전쟁에서 미 전투함에 의해 최초로 개시된 함포사격이다.¹⁴⁾

동해상에서 북한 함선 격멸과 해상봉쇄 임무를 수행해 왔던 701함은 유엔 함정이 동해에 도착함에 따라 6월 30일 서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을 위해 동해 해역에서 이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해상에 대한 한국 함정의 경비구역이 조정되었는데, 506, 516은 동해의 38도선 근해에서, 509, 510, 304정은 측면 및 임원 근해에서, 518정은 구룡포 및 방어진 근해에서 경비를 하였다.

전황에 따라 한국 함정들의 경비 구역이 수시로 변경되었다. 제2정대사령은 해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7월 4일 15:00시를 기하여 516, 506정이 동해상의 북위 37도~36도 간, 510, 509정은 북위 36도~35도 간을 경비토록 하였고, 308정은 보급선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게 하였다.

7월 12일부터는 해본 작명 갑 제60호에 따라 제2정대는 평해(36도 40분)이남~가덕도 등대와 대마도 남·서단을 연결하는 이북 해상에 대해 경비를 맡았다.

한국 함정은 전쟁 발발 이후부터 7월 13일까지 동해상에서 일일 평균 7척의 함정이 해상경비를 하였는데, 이중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일일 평균 11척이 경비에 임하였고,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일일 평균 5척이 해상 경비를 하였다. 한국해군은 전쟁 발발이후부터 유엔함정이 작전을 개시한 6월 29일까지는 동해에 함정을 증강 배치하였다가, 6월 29일 이후에는 일부 함정을 남해안과 서해안으로 이동, 배치시켰다.¹⁵⁾

6월 29일 5" 함포와 레이더 장비를 갖춘 유엔해군의 전투함이 동해상에서 작전을 개시함에 따라 유엔해군이 동해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적 함선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상에서 작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서해보다 동해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유는 단조로운 해안선을 가진 동해상에서 적의 해상 활동은 유엔 함정의 레이더로부터 탐지될 확률이 높았고, 사정거리가 긴 5"포에 의해 포격당하기 쉬웠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상황 하에서 한국 함정은 북위 37도 이남의 동해상에서 침투하는 적 함선을 방어하고 봉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3) 가

한국해군은 개전 초기 북한 함선에 의한 동해안으로 상륙하는 적 게릴라 부대 일부를 저지하지 못했으나, 6월 29일 전투력이 우수한 유엔해군의 작전 개시로 북위 37도 이남 동해안에 대한 해상방어 및 봉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한반도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장악한 유엔 해군의 덕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해는 파도가 거칠고 해안에 접한 산들이 높아 한국의 소형 함정이 작전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았다. 다시 말해 37mm 대전차포가 장착된 180~320톤급 한국의 소해정이 높은 파도에서 육지에 대해 함포사격을 한다는 것은 함정의 내파 능력과 포 사정거리 제한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 한국해군은 유엔함정이 동해에 도착하자, PC-701함을 비롯하여 일부 한국 함정들을 남해와 서해로 이동시켜 경비토록 하였는데, 이는 함정 작전 능력을 고려 세력을 적절히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해군은 전쟁 초기 동해안에서 미 주노함의 오인 포격에 의해 JMS-305정이 침몰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 유엔함정에 한국의 연락장교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전쟁 기간 중 원활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고, 아울러 한국의 연락장교들이 연락장교 임무를 수행하면서 유엔함정으로부터 선진 해군 작전과 기술을 습득함에 따라 한국해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구암산지구 전투

(1) 가

목호경비부(사령관 : 중령 김두찬)

포항경비부(사령관 : 중령 남상휘)

포항경비부 육전대

강호대(대장 : 소령 강기천)

용호대(대장 : 중위 정창룡)

(2)

구암산지구 전투는 포항경비부 육전대가 경찰과 미 공군의 지원 하에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구룡산(△675)과 구암산(△807, 포항 서북방 30km) 부근에서 적 게릴라를 소탕하기 위해 치른 전투이다.

6월 29일 북한군 5사단과 경비 제1여단은 강릉을 점령하였고, 제2사단과 제12사단이 춘천, 홍천을 점령한 후 양평 및 횡성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호기지에 복귀한 목호경비부는 LST 편으로 다시 남쪽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철수 중 죽변에 적이 침투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목호경비부사령관은 사령부 대원들로 구성된 육전대를 편성하여, 7월 1일 11:00 죽변에 상륙시켜 적을 격멸토록 지시하였다. 육전대는 적과 교전하여 아군 1명이 전사하였으나 적군 10명을 사살하였다. 또한 7월 2일에는 포항경비부 육전대가 울진에서 적 탐색대와 교전하여 3명의 아군이 부상당했으나, 적 27명을 사살하고 2명의 포로를 획득하는 전과를 얻었다.

동해안 임원진 부근에 상륙한 적 766게릴라 부대(3개 대대 규모) 중 1개 대대가 울진을 거쳐 7월 10일 포항 북쪽 영해-영덕 일대에 이르고 있었고, 7월 11일에는 춘양 방면으로 이동한 2개 대대에서 300명의 게릴라가 구암산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포항경비부사령관 남상휘 중령은 7월 1일부로 포항경비부에 배속된 목호경비부 대원들과 기지 근무 장병으로 육전대를 편성하여 침투하는 적을 대항하기로 하였다.

포항경비부는 7월 5일 기지 근무 인원으로 중대 규모의 육전대인 용호대(龍虎隊)를 편성하고, 7월 9일에는 진해로부터 증원 병력이 도착함에 따라 대대 규모의 강호대(姜虎隊)를 편성하였다.¹⁶⁾

구암산을 거점으로 출현하던 게릴라부대의 일부는 7월 11일 03:00 구암산 남쪽 죽장면 감곡리로 이동하여 집결하였는데, 이들은 경주와 포항 방면으로 진출을 기도하면서 죽장면과 기계면의 각지에 출현하여 부녀자와 양곡, 농우 등을 약탈하였다. 게릴라 부대는 보현산을 주된 거점으로 하여 아군과 대치하다가 북한군 주력이 대거 남침해오자, 이에 가세하여 후방교란에 열을 올렸다.

육전대가 편성된 후 처음으로 실시한 전투는 7월 13일 경주군과 영천, 경산군의 경계지대에 있는 구룡산 중턱에 출현한 적 게릴라를 소탕하기 위해 치른 전투이다.

포항경비부는 적들을 격멸하기 위하여 7월 11일 17:00 용호대를 안강 지구로 출동시켰다. 용호대는 1개 중대로 추산되는 적이 영천군 구룡산으로 남하하여 잠입한 것을 탐지하고, 7월 12일 16:30 경주를 지나 도유동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용호대는 1개 분대를 척후대로 파견하여 적정을 관찰하였는데, 적에 의해 인근 마을로부터 노획한 송아지 소리를 듣고 적이 숨어있는 위치를 확인 후 도유동에 위치한 지휘소로 돌아왔다.

용호대는 돌아온 즉시 공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날 7월 13일 04:00 구룡산 중턱에 있는 적진에 일제 사격을 가하였다. 아직 잠에 취해 있던 적들은 갑작스런 공격을 받고 분산 도주하였는데, 아군은 2시간에 걸친 추격으로 적 사살 8명, 중경상 60여 명의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부상당한 듯한 적 30명과 나머지 병력은 청도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용호대는 이 전투에서 1명의 부상자도 없이 모두 이날 13:00 포항으로 귀대하였다.

7월 14일 포항경비대 육전대는 죽장 방면으로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죽장면 입암동으로 출동하여 적을 추격하던 중 7월 15일 새벽에는 비학산(△762, 포항 서북방 25km) 중턱에 도착하였다. 육전대는 여기서 진지를 구축하고, 정찰대원 3명을 파견하여 적정을 살폈는데, 비학산에 100여 명의 적이 잠복하고 있다는 것을 탐지하였다. 이때 포항경비부에서는 강호대 제3중대를 파견하여 용호대장 지휘 하에 편입시켰다. 용호대는 이날 날이 저물어 교전을 하지 않고 기북면의 용기국민학교로 이동하였다.¹⁷⁾

이날 육전대의 지휘소에는 영일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던 미 공군 제35비행단 소속 제40전투비행대대에서 파견한 2명의 항공지원연락반(장교 1명, 하사관 1명)이 도착하여 육전대의 작전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일제 때 가미가제 특공대의 훈련기지로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영일비행장(영일군 오천면)은 6·25전쟁 초기에는 전투기의 출격이 가능한 활주로를 갖추지 못하였다. 7월 12일부터 착수하여 미 공군 제802공병대대 A중대의 활주로 보수공사가 완료된 7월 14일에 미 공군 제613항공기지사령부가 도착함으로써 이곳에 투입된 미 해병대의 제40전투비행대대에 대한 지원 임무를 갖추게 되었다.¹⁸⁾

약 100명의 적이 비학산 방면에 출현하고 있다는 육전대의 정찰대와 기북지서의 정보에 따라 7월 16일 06:00 1개 소대의 육전대가 출동하였는데, 적이 죽장 북쪽 산악지대로 도피함에 따라 가사리 방면으로 적을 추격하였다. 도피한 적과 증강된 병력이 합세함에 따라 적의 병력이 약 500명으로 증강되었는데, 적들은 이날 산악 지대에서 잠복하고 다음날 7월 17일 04:30 합덕리 방향으로 하산하고 있었다.

또한 7월 17일 새벽에 이르러 기북지서로부터 죽장면 합덕리 고지에 약 500명의 적이 잠복하고 있고, 그 남쪽의 정자리 방면에도 약 400명의 적이 출현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적은 산맥을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후방교란을 시도하려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포항경비부 육전대는 경찰 병력 40명과 함께 영일비행장에서 출격한 F-51 전폭기 편대의 지원 아래 합덕리 고지 일대와 정자리에 집결한 적을 격멸하기 위해 합덕리 고지의 전면과 좌우측 3방향으로 적을 포위하고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7월 17일 14:30부터 공격이 개시되었는데, 제1소대가 이미 구축해 놓은 중화기로 적의 정면에 사격을 가하자, 적은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적은 정예부대가 아닌 게릴라 집단으로서 무기도 빈약하였으며, 일부 게릴라들은 칼이나 도끼 등을 무기로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1개 소대를 좌우측에 배치한 후 육전대의 제1중대 3개 소대가 계곡을 따라 공격하였다. 이 공격에서 제1중대의 1소대는 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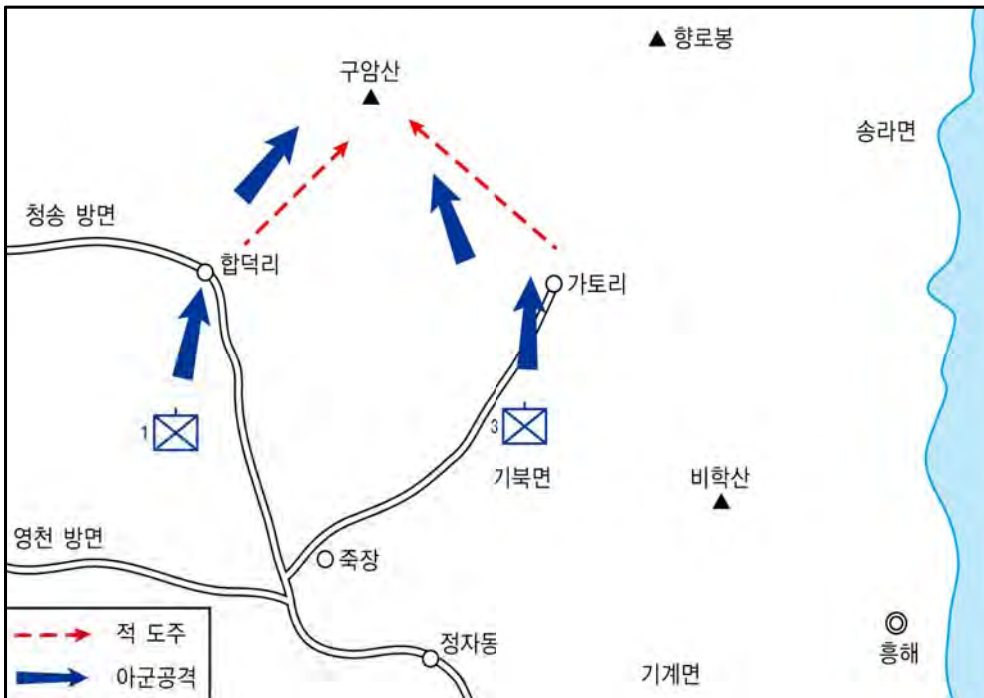
기로 적의 우측 정면에 공격을 가하고, 제2소대는 적의 좌측 최고봉을 급습하여 점령하는 한편, 적 전방 가장 가까이에 있는 500m의 작은 고지를 확보하였다.

한편 제3중대 1소대는 좌우측에서 엄호를 받으며 적진지의 정면을 공격하여,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였다. 7시간에 걸친 격전으로 포항경비부 육전대는 7월 17일 21:30 합덕리고지 동북방 약 8km 지점에 있는 적의 최고 진지인 구암산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중상 3명, 경상 2명의 경미한 피해가 있었으나, 적 생포 4명, 사살 161명의 전과를 얻었다.

이러한 무훈으로 대위 정창룡(용호대장), 중위 박승도(강호대 제3중대장), 삼조 임기환, 삼조 송세준, 일수 유명식(계급은 특진 계급임) 등 5명은 1계급 특진하였다.¹⁹⁾

<상황도 9-2> 구암산지구 전투 요도



(3) 가

포항경비부의 육전대가 적 게릴라 부대와 싸워 승리한 구암산지구 전투는 정보가 전투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입증한 전투였다. 또한 이 전투는 6·25전쟁 중 민·관·군 협동작전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된 작전 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해군 육전대는 적 정보 수집을 위하여 자체 정찰대와 인근 경찰 및 주민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육전대는 비록 보유한 무장이 미약하고 지상전투의 경험이 적은 해군 장병들이었지만 경찰,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입수한 적의 위치, 동태 등을 분석하여 치밀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미 공군과 경찰 병력의 지원으로 게릴라 부대를 소탕하였다.

강호대, 용호대라는 부대 명칭 하에 육전대원들은 강기천 소령(강호대장), 정창룡 중위(용호대장), 박승도 소위 등은 적정 분석에 의한 용의주도한 작전 계획 수립과 공격으로 아군의 피해는 경미하였으나, 적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은 아주 특기할 만한 전투라 할 수 있다.

3. 서해안 작전

1) 인천지구 방어작전

(1) 가

인천경비부(사령관 : 중령 유해거)

제1정대(사령 : 중령 유해거 겸무)

해군인천병원(병원장 : 중령 한동환)

함정 : LST-801, PC-701, YMS-501, 502, 507, 513, JMS-302, 307, PG-313

(2)

인천지구 방어작전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7월 13일까지 인천경비부 및 제 1정대 함정들이 인천지구(인천시내, 인천 근해)로 침입하는 북한 해군과 인민군을 방어한 작전을 말한다.

북한해군은 전쟁 초기부터 발동선과 범선 등을 이용하여 김포와 강화도 남단에 집결한 2,000명의 병력을 인천과 아산만 방면으로 상륙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 집행이 어렵게 되자 서울을 점령한 북한의 지상군이 인천을 점령하기 위해 진격해 왔다. 인천지구의 점령은 북한 측으로서는 서해상에서 해군작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서울을 비롯한 서부 지역에서 작전하는 북한 지상군의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데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6월 27일 김포를 점령한 북한군 제6사단은 6월 30일 영등포-인천간 도로를 차단하면서 오류동과 영등포를 점령하고, 제13연대와 탱크대대를 앞세워 인천 방면으로 진격하였다. 제13연대와 전차 6대는 7월 3일 저녁 무렵 부평을 거쳐 23:00 인천시내로 진입하여 7월 4일 07:40 인천을 점령하였다.

전황이 계속 불리하자 인천경비부는 해군본부가 대전으로 이전한 6월 28일 21:15 군인 가족들을 대동하고 인천 외항에 대기 중인 LST-801함으로 철수하였다. 801함에 위치한 인천경비부사령관 유해거 중령은 적이 인천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6월 30일 09:00 PG-313, YMS-513정 편으로 헌병대장 등 12명을 선견대로 인천에 상륙시켰다. 이날 12:30 801함을 인천 외항에 대기시키고 사령관 등 54명은 13:30 월미도에 상륙하여 15:00 임시사령부를 설치해서 인천 지구의 경비에 임하였다.

7월 1일 인천경비부는 다시 801함으로 철수하고, 참모장 정경모 소령을 비롯한 경비부 대원, 해군인천병원 외과 과장인 오원선 중위가 지휘하는 병원의 근무자 그리고 경비부 헌병 등 모두 200여 명이 인천지구를 방어하기 위해 육상에 남았다. 특히 군의관 오원선 중위는 송도에 있는 해군인천병원에 있는 의료 장

비를 활용하여 전시이동병원을 설치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면서 대원들을 지휘하였다.

오 중위는 자신이 이끌던 대원 60명 중 11명을 차출하여 7월 3일 23:00 인천 시가로 침입한 북한군 탱크 3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적 전차를 파괴하지 못하고, 2명의 전상자를 낸 채 결국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 중위는 대원들에게 수원을 경유하여 대전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고, 자신은 인천 부두에 있는 나머지 대원들과 함께 선박 편으로 군산으로 철수하였다.

당시 인천경비부의 무기는 중기관총 2정, 경기관총 2정 그리고 CAR과 99식 소총이 있었다. 북한인민군에 의해 점령되기 전 인천지구는 경찰관들도 파출소별로 치안대를 조직하여 지역 방위를 담당하고 있었다.²⁰⁾

해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7월 4일 06:00 인천경비부의 육전대원 일부는 육상으로, 나머지는 선박 편으로 군산으로 철수하였다, 이와 아울러 제1정대사령은 이날 08:00 인천항내와 항외에 있는 모든 발동선과 범선을 군산 방면으로 철수시켰다. 기관 고장으로 운항을 못한 LST 단양호가 7월 4일 09:00에 수리가 완료되어 인천 항내를 이탈함으로써 인천경비부 철수가 완료되었다

6월 25일 개전 당시 LST-801함과 YMS-501, 502, 513, PG-313정이 인천 항내에 정박하고 있었고, JMS-303, 307정이 백령도를 중심으로 38도선 근해에서 경비하고 있었다. 6월 29일에는 인천항내에 801함, 501정이 대기하고 있었고, 인천 외해에는 302, 307, 313, 502, 513정이 경비하고 있었다.

제1정대사령 유해거 중령은 강화도 일대에 북한군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는 강화도로부터 침투하는 적을 봉쇄하는 것이 인천지구를 방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502정에게 강화수로를 경비토록 하였다. 502정이 7월 3일 08:00 강화 수로를 경비하던 중 적 군수 물자와 무장 병력을 수송 중인 40톤급의 적선 4척을 격침시키고, 10:40부터 30분간 강화도 남단에 집결한 적에게 포격을 가하여 이들을 분산시켰다. 적들은 발동선과 어선을 이용하여 인천에 상륙을 기도하려던 북한해군의 육전대 대원들이었다. 7월 3일 제1정대의 513정은 서해 38도선 근해에서 정보 수집 및 경비 중인 인천경비부

소속의 '셋별'호가 북위 37도 35분, 동경 136도 34분 위치에서 적의 집중사격을 받고 있는 것을 구출하였다.

6월 30일 북위 37도 이북 해상은 유엔해군이, 북위 37도 이남 해상은 한국해군이 경비한다는 한국해군과 유엔해군 간 협의에 따라 북위 37~38도 해상에서 작전하고 있던 제1정대는 해군본부로부터 7월 1일 10:00부터 3차에 걸쳐 "37도 이남의 해역으로 내려와서 경비에 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군 함정의 함포사격을 받을 우려가 많다"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제1정대장은 7월 2~3일에 걸쳐 "우리 정대는 적을 엄중 감시하고 있으며 즉시 포격을 요망함. 현재의 현황으로 보아 제1정대 함정의 37도 이남 이동은 곤란하며 당분간 아산만 입구를 근거지로 해서 경비를 강화하겠음"이라고 해군본부에 보고하였다. 해군본부에서는 7월 3일 16:50 제1정대로부터 받은 전문 내용을 유엔 해군에 통보하였다.

제1정대사령은 추가하여 7월 3일 19:30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군본부에 타전하였다.

강화도 남단에 집결한 적은 인천 침입을 기도하려고 하나, 아군 함정의 포격으로 인하여 분산 상태에 있음. 따라서 적이 강화도 남단 맞은편에 있는 영종도를 점령하면 우리 해군의 인천항 경비는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니, 즉시 공군기의 폭격을 바라며 동시에 해병대의 파견을 요망함.

이에 해군본부는 7월 4일 10:50 PC-701함을 인천 근해로 급파하였으며, 제1정대에게 LST 단양호와 인천 항내·외에 있는 각종 선박을 군산 방면으로 철수시키고 적의 해상교통로를 차단하여 인천항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명령을 받은 제1정대사령은 해군본부에 다음과 같은 행동보고를 하였다.

인천항에 있는 LST 단양호는 7월 4일 09:00에 무사히 출항하여 현재 아군 선단에 있으며 항내의 선박을 항외로 이동시켰고, 우리 해군과 경찰이 인천시내에

침입한 적과 교전하였으나 7월 4일 03:00 후퇴하고, 우리 해군은 06:00까지 항전하다가 해상으로 철수하였으며, 본 정대는 계속하여 강화도-인천항 입구의 해상교통로 차단을 실시 중에 있음.

이에 해군본부에서는 7월 4일 18:00에 "수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미 함대와의 연락을 보지(保持)하라. 그리고 LST-801함은 해군인천병원의 직원과 환자를 승조시켜 군산까지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다.²¹⁾

인천 및 강화도 근해를 경비 중인 함정들은 해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되는 서해안 봉쇄작전에 참가하였다. 봉쇄작전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7월 4일 인천 및 강화도 해역에는 501, 502, 513, 307, 313정이 경비하고 있었고, 인천 항내에 302정이 대기하고 있었다. 801함은 인천경비부 대원을 싣고 군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해상봉쇄작전의 마지막 날인 7월 14일에는 701함, 513, 313정이 인천 및 강화도 해상에서 봉쇄작전을 하고 있었다.²²⁾

비록 인천은 적에 의해 점령당했지만, 한국 해군은 강화도와 인천간 이르는 해역을 방어 및 봉쇄하여 인천 및 서울 지역으로 향하는 적 무장 병력 상륙과 군수 물자 이송을 차단하였다.

(3) 가

인천은 수도 서울과 가깝게 위치해 있고, 서해의 해양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점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인천경비부는 전쟁 초기 조기 철수로 지휘 공백이 있었던 동해의 목호경비부와는 달리 전세에 따라 육상 전투, 해상봉쇄작전, 철수작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인천경비부 지휘부, 육전대원, 함정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 작전을 유연성 있게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해상에서 한국해군과 유엔해군 간 정보교환 부재로 인한 305정의 침몰 사건 이후 인천지구 방어작전에 참가한 한국 함정들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해군

본부 및 유엔해군과 정보교환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도 없이 인천지구 방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적의 군수물자를 실고 인천과 서울 지역으로 이송하는 적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화도와 인천 간의 해역에 대한 봉쇄가 절대적이었다. 북위 37도 이북에 위치한 강화도와 인천은 유엔해군의 작전 구역으로서 해상 특성상 수심이 얕고 조류가 빨라 유엔의 대형 전투함이 작전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았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한 한국 해군의 제2정대는 6월 30일부터 북위 37도 이남 해역에서 작전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해군과 한국 해군본부에 건의하여 북위 37도 이북에 위치한 강화도와 인천 해역에 대한 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 한국 함정은 적 군수물자와 무장 병력을 실은 적선 4척을 격침하였고, 또한 강화도 남단에 집결한 적에게 포격을 가하여 분산시켜 인천, 아산만 등 서해안 지역에 대한 적의 상륙을 저지시키고, 군수 물자 수송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서해안 봉쇄작전

(1) 가

인천경비부(사령관: 중령 유해거)

군산경비부(사령관: 소령 김종기)

제1정대(사령: 중령 유해거 겸무)

함정: LST-801, PC-701, YMS-501, 502, 503, 513, JMS-302, 307, PG-313

(2)

서해안 봉쇄작전은 해군본부의 명령에 의해 제1정대사령의 지휘 하에 701(기함), 302, 307, 313, 501, 502, 503, 513, 801 등 9척이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 간 적 함선의 침투에 대비 서해 연평도에서 군산 위도 간에 이르는 해역에서 실시한 봉쇄작전을 말한다.

전쟁 발발 이후 한국해군은 강화도, 인천, 아산만 등 서해안에 대한 해상 경비를 한층 강화하고 있었으나, 북한군 제6사단 13연대가 김포와 서울을 거쳐 7월 4일 인천을 점령하였다.

북한 해군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보다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서해안에서의 작전 활동시 피탐 될 확률이 적어 침투하기가 다소 쉬웠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북한 해군은 함정 및 선박에 무장 군인을 탑승시켜 서해안에 침투시키려 하였다. 아울러 남진하는 북한 지상군을 위한 무기, 탄약, 식량 등 군수물자를 해상으로 수송하려 하였다.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한국 함정은 주로 군산 이북의 강화도, 인천, 아산만 등에서 해상경비에 임하였으나, 북한 지상군이 인천을 점령하고 남하함에 따라 군산 지역의 위도까지 해상 봉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²³⁾

해군본부의 명령에 의해 제1정대사령은 701함을 기함으로 하여 302, 307, 313, 501, 502, 503, 513, 801 등 9척을 지휘하여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 서해안에 대해 봉쇄작전을 실시하여 해상으로부터 적의 무장 병력 상륙과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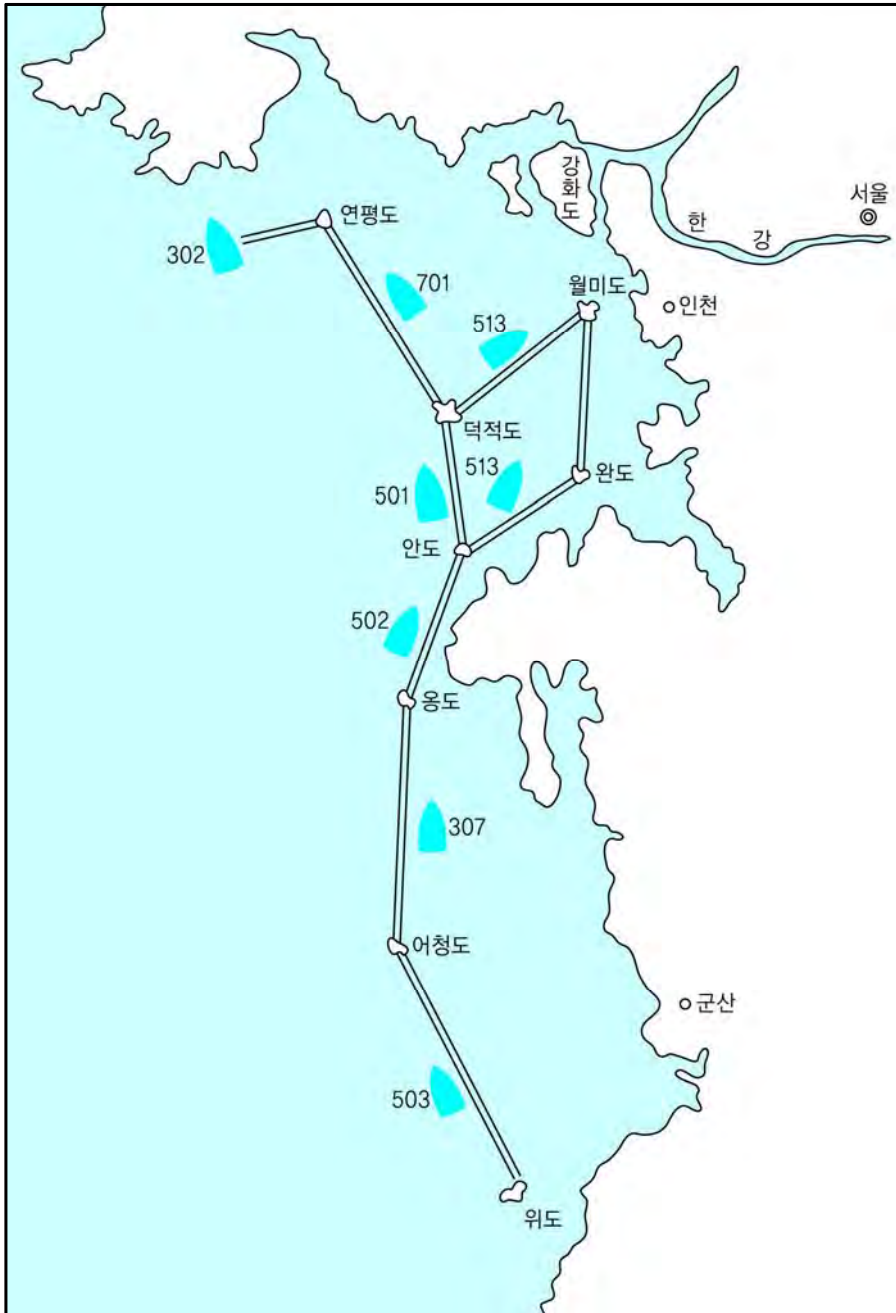
이 작전을 위해 봉쇄작전 참가 함정의 지휘관들은 7월 5일 09:15 인천 소월미도로부터 서남방 3마일 해상에 위치한 LST-801함에 모여 해상봉쇄 책임구역, 임무 그리고 적아식별 등에 관하여 사전 작전회의를 가졌다.

작전 기간 중 잦은 강우와 해상에 발생한 안개로 인한 시정 불량으로 봉쇄작전에 참가한 함정들은 적 선박을 탐색하고 식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기간 중 YMS-513정과 JMS-302정은 주로 팔미도 근해를 경비하면서 서해안을 따라 남진하는 적을 저지하고, YMS-501정과 502정은 강화도 남단에서 적의 상륙기도를 저지하고, PC-701함과 PG-313정은 팔미도-강화도 간을 경비하였다.

함정들의 주요 임무는 어선과 범선 편으로 남하하는 피난민들을 검색하여 위장 침투하는 적성 요원들을 색출하는 것이었다. 특히 PC-701함은 작전 기간 중 무려 62척의 선박을 검색, 단속하였다.

<상황도 9-3> 서해안 봉쇄작전 요도



7월 5일 12:40 PC-701함은 월미도로부터 2마일 해상에서 인천시내를 향해 탐색 및 교란을 목적으로 6발의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그런데 적의 대응이 없어 인천 시내에 침투한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701함은 인천 시내에 침입한 적의 전차부대와 강화도 남단에 집결하고 있는 적에 대한 항공 공격을 해군본부에 요청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7월 5일 14:00에 YMS-501정과 502정은 강화도의 해안경비를 마치고 월미도 북쪽을 통과하던 중 502정과 0.5마일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 향진하던 501정이 적의 전차로부터 57mm 포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502정이 월미도 북방을 통과할 때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으나, 뒤따르던 501정이 통과하던 중 주위에 포성과 함께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월미도 중턱에 있는 적 전차가 먼저 사격을 가했는데, 전투배치 상태로 향해 중이던 501정은 37mm 대전차포를 비롯하여 좌우현에 장착된 20mm 포와 50중기관총으로 반격하였다. 5분간 계속된 상호 포격전에서 적 전차로부터 발사된 포탄이 501정의 마스트와 기관실 입구 해치도어에 각각 1발씩 명중되었다.

다행히 전투수행이 가능한 501정은 외해에서 502정, 701함과 합세하여 해군본부 명령에 따라 7월 5일부터 목덕도-선이도-풍도를 연결하는 해역에 대한 서해안 해상봉쇄작전에 들어갔다.

작전 기간 중 기상이 불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정대는 해상봉쇄작전을 계획대로 수행하여 해군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격려 전문을 받았다.

불철주야 적과 파도와 싸우는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한다. 각 함정은 비상 운항으로 인한 손상 개소가 있을 시는 교대로 입항, 수리하는 동시에 원활한 경비를 계속 실시하라.

봉쇄작전 기간 중 7월 12일 10:00 PC-701함은 해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육군 공병대와 협조하여 대천 철교 및 인도교를 완전히 파괴하여 군산 방면으로 침공하는 적 제6사단의 일부를 저지하였다.

서해안 봉쇄작전에 참가한 함정들의 보급은 주로 LST-801함이 담당하였으며, 수리는 자체 수리를 위주로 하였으나 장기간의 수리가 요구될 때는 목포 또는 진해에서 교대로 실시되었다.²⁴⁾

제1정대는 작전 기간 중 영연방 함정들의 해양통제권 장악 아래 서해안 봉쇄작전을 실시하여 적의 상륙과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였다.

(3) 가

701함을 비롯한 한국 함정 9척에 의해 수행된 서해안 봉쇄작전은 인천과 군산 간에 이르는 해상을 완벽하게 봉쇄하여 적의 무장병력 상륙과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해는 수심이 얕고, 도서가 많으며 굴곡이 심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툰수가 작은 한국 함정들이 작전하기에 적합한 전장 환경이었다.

이러한 전장 환경을 이용하여 전쟁기간 중 한국 함정에 의해 실시된 서해안 봉쇄작전은 봉쇄작전의 표본으로서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1정대사령은 한국함정에 장착된 포의 사정거리가 짧고, 탐지 장비인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상에서 이동하는 선박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시각으로 확인하고 검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 제1정대사령은 각 함정에게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책임 경비구역을 지정하여 선형경비(線形警備)로 적 선박을 봉쇄토록 하였다. 봉쇄작전 기간 중 3" 포를 장착한 450톤급 PC-701함은 무려 62척의 선박을 검색하였다는 것은 괄목한 기록이다.

그러나 봉쇄작전에 참가한 함정들은 대부분 37mm 대전차포를 장착한 180-320톤급 소해정이었다. 포 사정거리도 짧고 툰수가 작은 소해정들이 높은 파도가 있을 때에는 작전 수행에 많은 제한점이 있었다. 기상 불량시 함정들이 해안으로 접근하여 육지와 가까운 해역에서 봉쇄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 육상포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4. 남해안 작전

1) 남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

(1) 가

진해통제부(사령관 : 대령 김성삼)

목포경비부(사령관 : 대령 정궁모)

제3정대(사령 : 대령 정궁모 겸무)

훈련정대(사령 : 소령 양해경)

함정 : AKL-901, PC-701, YMS-504, 505, 507, 510, 512, 514, 515, 518, JMS-301, 303, 305, 306, 309, 310, LCI-105, 106

(2)

남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은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제3정대(목포), 훈련정대(진해), 진해통제부(진해)의 함정들이 적 침투에 대비 남해상에서 실시한 방어 및 봉쇄작전을 말한다.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남해상에는 훈련정대 소속의 504정이 여수 근해에서 경비하고 있었고, 제3정대의 303정이 수리를 하기 위해 진도 근해에서 진해로 향하고 있었다. 나머지 함정들은 진해, 여수, 목포에 대기하고 있었다.

진해통제부사령관은 6월 25일 동해로 침투하는 적 함선을 격퇴하기 위해 PC-701함, YMS-512, 518정을 동해로 출동시키고, 아울러 3정대 소속의 505, 303, 309정 등 3척을 6월 26일 진해로 이동시켰다. 701함이 대한해협해전에서 전과를 올리자, 505, 303, 309정은 다시 목포로 복귀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선박을 중점 검색하였다.²⁵⁾

6월 25일 701함이 남해안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무장 수송선을 발견, 격침함에 따라 해군본부는 적 선박이 남해상까지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남해상에 대한 경비를 한층 강화하였다.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진주 방면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1949년 12월 28일 제주도에 도착한 한국 해병대는 한라산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6·25전쟁을 맞았다. 전쟁이 발발하자 폭도들은 더욱 기세를 올리고 민간인을 납치하는 등 손실된 병력을 보충해가면서 남서해안에 침투하게 될 북한군과의 연계작전을 위하여 선박을 이용 남해안 침투를 기도하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군본부는 제주도의 북쪽 해상에 함정 2~3척을 배치시켜 제주도를 출항하거나, 제주도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검색하여 해상을 봉쇄토록 하였다.²⁶⁾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남해상에는 일일 평균 8척의 함정이 해상경비에 임하였으며, 주로 진해, 여수, 목포, 제주도 등 주요 항구가 있는 해상에 배치하여 출입항 하는 선박을 검색하여 적 선박의 해상침투를 저지하였다.²⁷⁾

(3) 가

전시에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는 목적 중 하나는 아군측이 해상교통로를 유지하여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해상교통로 확보와 유지는 유엔군의 병력과 군수 물자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북한군은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한국의 제2도시인 부산을 최종 점령목표로 두고 전력을 투구하였고, 이와 반대로 아군측은 가장 중요한 교두보인 부산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남해 간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쟁 초기 백두산함(PC-701)이 한국의 남쪽 해안에 침투한 북한의 무장 수송선을 침투시킨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다.

한국해군은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남해안에 대한 해상 방어 및 봉쇄작전을 위해 일일 평균 8척의 함정을 배치하여 적의 해상 침투를 저지하였다.

이 작전은 아측의 해상교통로와 부산 교두보를 지키고 유엔해군이 우군의 병력,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이승만 대통령 호송작전

(1) 가

목포경비부(사령관 : 대령 정궁모)

부산경비부(사령관 : 중령 민영구)

함정 : YMS-514(정장 : 소령 주철규), JMS-309(정장 : 소령 김남교)

(2)

이승만 대통령 호송작전은 YMS-514, JMS-309정이 7월 1일 16:00부터 7월 2일 11:00까지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승만 대통령 일행을 호송한 작전을 말한다.

북한군이 서울을 향해 진격하자 국군을 비롯해 정부기관의 주요 인사들도 서울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부인 및 수행원들과 6월 27일 03:00 서울을 떠나, 이날 대전에 도착하였다. 이 대통령은 대전에 도착한지 이틀 후 6월 29일 수원에서 전선 시찰을 나온 맥아더 원수와 요담을 가지고, 다음날 대전으로 복귀하였다.

북한군이 계속 남하하자 대통령은 더 이상 대전에도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다.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황규면 비서, 김장홍 경무대경찰서장, 그리고 미 대사관의 헤랄드 노블 1등서기관 등의 간곡한 요청으로 결국 부산으로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부산까지 내려가는 길이 문제였다. 대구를 거쳐 가는 경부국도가 일반적인 길이지만 추풍령이 마음에 걸렸다. 지방의 공산 분자나 게릴라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리를 거쳐 목포로 내려가 안정성이 있는 해군 함정을 이용해 부산까지 가기로 결정하였다.

해로를 통한 이동은 6월 29일부터 유엔해군이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장악함에 따라 안정성을 더 보장해 주었다.

7월 1일 03:00 대전에 있는 충남도지사 관저를 빠져나온 대통령 일행은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을 뚫고 온종일 흠탕길을 달려 이날 오후 목포에 도착하였다. 목포경비부사령관 정궁모 해군 대령이 대통령 일행을 영접하고 곧장 출항 준비

태세를 갖춘 함정으로 안내하였다.

목포경비부 제3정대 소속의 320톤급 YMS-514정(길주)이 대통령 일행을 태우고 부산을 향해 7월 1일 16:00 목포를 출항하였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180톤급의 JMS-309정(대동강)이 그 뒤를 따랐다. 514정장은 해사 1기생인 주철규 소령이었고, 309정장은 군사영어학교 출신인 김남교 소령이었다.

출항할 때에는 목포 지역에 간간히 가랑비만 뿌릴 뿐 파도와 바람은 그다지 세지 않았다.

목포를 출항한 지 2시간이 지나자 초속 25m의 서남풍이 불었고, 2~3m의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다. 심한 롤링(배가 좌우로 흔들림)과 피칭(앞뒤로 흔들림)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황규면 비서, 김장홍 경무대경찰사장 등 수행원들은 배 멀미에 시달렸다. 대통령 일행을 태운 514정과 309정은 우여곡절 끝에 다음날 7월 2일 11:00 해군 부산보급창 부두에 도착하였다. 마중 나온 인사는 경남도지사 양성봉과 지사 부인, 그리고 부산경비부사령관 민영구 중령 등 소수의 인원이었다.

대기 중인 승용차 편으로 대통령 일행이 부두를 출발하여 부산시 서구 부민동에 있는 경남도지사 관저에 도착한 것은 11:15이었다.²⁸⁾

(3) 가

이 작전은 전시에 피난민, 군부대 등 대규모 인원이나 주요 인사들을 철수하는 데는 해상 수송수단이 어느 수단보다 유용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한 작전이었다.

계속적인 북한군의 남진으로 아군의 전세가 불리하여 국군을 비롯해 정부 기관의 주요 인사들도 철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고 호송하는 것은 막중한 과제였다.

지상 전선이 불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육로로 이동하는 것은 적 게릴라로부터 피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안전성이 있는 함정을 이용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다.

이외에도 해상을 통한 성공적인 인원 이송은 전쟁 초기 해군의 LST(수송함)에 의한 국군 제17연대의 철수작전,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대규모의 흥남철수작전 등 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5. 해병대 작전

1) 참가 부대

해병대사령부(사령관: 대령 신현준, 참모장: 중령 김성은)

제주읍부대: 본부, 하사관교육대, 대전차포소대, 근무중대, 제3중대

모슬포부대(부대장: 소령 김동하): 본부, 제1대대(제1중대, 제2중대), 제2대대(제5중대, 제6중대, 제7중대)

2) 작전 경과

해병대 작전은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부터 제주도에 실시한 작전과 해병대 1개 대대가 군산지구 방어를 위해 군산에 도착한 7월 16일까지 실시한 작전을 말한다.

1949년 12월 말 제주 4·3사건의 상황은 군·경 합동작전으로 사건이 진압되기는 하였으나, 잔여 공비 100여 명이 한라산을 근거지로 세력 확장에 급급하고 있었다. 진주에서 1949년 12월 28일 제주도에 도착한 해병대의 기본 임무는 잔여 공비들을 토벌하는 것이고, 부가 임무는 도민들의 민심 수습과 대원들의 교육훈련이었다. 이들은 약 6개월 동안 제주도에 주둔하면서 혹독한 교육훈련을 병행하여 민심 수습, 치안 확보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해병대는 공비토벌작전 수행 중 작전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 장비 등을 획득해 줄 것을 해군본부에 건의하였다. 당시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제독은 전투함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해군총참모장 대리 김영철 대령이 손원일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의 병력은 1,200명이 한계임. 그 이상의 증원은 불가능함”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해병대사령부에 보냈다. 신현준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대원들은 해군본부의 ‘병력 증원 제한’이라는 답신에 크게 실망하여 1950년 6월 23일 해군본부에 집단으로 전역신청서를 내었다. 그런데 이틀 뒤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이 일은 흐지부지된 반면 해병대가 원하는 병력과 무기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²⁹⁾

제주지구 공비특별작전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전쟁을 맞은 해병대는 전쟁 발발 당일 10:00을 기하여 비상계엄령 하에서 전투 준비에 들어가고,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은 제주도지구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동시에 제주도내의 치안 유지와 해안 경비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사령관은 작전 중인 각 부대를 철수시키고, 도내 각 기관을 관장하여 지방민의 폭동 예방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였다. 아울러 해상을 통한 적의 상륙과 해상으로 탈출할지도 모르는 공비들의 활동에 대비 제주도의 주요 지역에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출입항하는 선박을 통제하고 해안 감시를 하는데 집중하였다.

해군본부는 7월 9일부 해본 특편명 제2호에 따라 해병대 증강을 위하여 진해에서 함정 근무자 이외의 장병 500명을 선발하여 해병대 대원으로 편입시켰다. 7월 9일 13:00 진해에서 선발된 해병대 대원들의 교육훈련을 위해 해병대 제3대대 간부진이 LST 제천호 편으로 제주도를 출발하여 7월 10일 07:00 진해에 도착하였다.

해군본부는 7월 12일 해본작명 갑제58호에 의해 온양 방면으로부터 남하하여 예산, 청양, 홍성을 거쳐 남하하는 적을 군산의 금강 지역에서 저지하기 위해 해병대 1개 대대를 군산 방면으로 출동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정보·작전참모 고길훈 소령은 1개 대대를 지휘하여 7월 15일 제천호 편으로 제주도를 출발하여 7월 16일 군산에 도착하였다.

한편 제주도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해병대 입대를 지망함에 따라 해병대사령부는 7월 중순부터 신병 3,000명을 도내에

서 모병하여 1개 연대를 편성하고 훈련시켰다.³⁰⁾

어느 지역보다 근면 성실하고 충성심이 강한 제주도 청년들은 부대의 교육 훈련과 전투에서 인내심과 적응력이 뛰어나 차후 실시한 인천상륙작전 등 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불패의 신화는 해병대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분석 및 평가

제주도에서 실시한 해병대의 교육훈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평상시 전투준비태세의 정도가 전투에서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해병대는 산악 전투에 능숙한 공비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선 혹독한 교육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 함양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해병대는 제주도에 도착하여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전투준비태세를 위해 피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였다.

해병대가 6·25전쟁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철저한 교육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지역보다 근면 성실하고, 인내심과 충성심이 강한 제주도 청년들이 대거 해병대에 지원한 것도 해병대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제 3 절 유엔해군 작전

1. 부대 편성 및 운용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할 당시 극동 지역에 있던 미군은 일본 도쿄에 위치한 미 극동군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휘하에 통합, 편성되어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연합군최고사령관의 직책을 겸직하고 있어 일본을 점령하는 책임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 마리아나 제도와 필리핀을 방위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극동에 있는 미국의 육·해·공군 전력이 맥아더의 미 극동사령부에 배속되어 있었다.

6월 27일 워싱턴에서 한국전장에 해군력과 공군력 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미국 동해군사령관 조이(C. Turner. Joy) 해군 중장은 미 극동해군이 수행할 임무에 관한 작전명령 5-50을 시달하였다.

이 작전명령에 따라 히긴스(John M. Higgins) 해군 소장이 지휘하는 경순양함 1척과 구축함 4척, 함대소해함(AM) 6척으로 구성된 한국지원전대가 편성되었다. 이 전대는 제96기동부대(TF 96) 이하로서 기동조직 명칭이 제96.5기동전대(TG 96.5)로 부여되었다.

전쟁 발발 당시 미 극동해군의 작전 해역은 광범위하였으나, 미 극동해군사령부 이하의 해군 전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미 극동해군에는 수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된 제96기동부대(TF 96)와 상륙부대인 제90기동부대(TF 90)가 있었다.

제96기동부대의 전투함은 속력이 빠르고 성능이 우수했지만, 5" 이상의 함포를 가진 전투함은 한 척도 없었다. 한국지원전대의 기함인 주노함(Juneau)은 경순양함으로서 배수량 6,000톤, 속력 33노트, 5인치 주포 12문을 탑재하고 있었다. 맨스필드함(Mansfield), 드 해븐함(De Haven), 콜레트함(Collett), 스웬슨함(Swenson) 등

구축함 4척은 2,200톤, 속력 35노트, 5인치 포 6문을 탑재한 섬너(Sumner)급이었다.

제96기동부대 예하에 제3기뢰전대에는 함대소해함(AM) 4척(이중 3척은 예비함대에 편입)과 연안소해함(AMS) 6척이 있었다.

도일(James H. Doyle) 해군 소장이 지휘하는 제90기동부대의 함정은 지휘함(AGC) 1척, 공격인원수송함(APA) 1척, 공격화물수송함(AKA) 1척, LST 1척 그리고 함대예인함(ATF) 1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90기동부대는 맥아더 원수의 요청에 따라 주일 미 육군의 상륙전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때마침 일본에 도착해 있었다.

이외에 미 극동해군사령관이 작전통제할 수 있는 일본선박통제국(SCAJAP: Shipping Control Administration, Japan) 소속의 선박들이 있었다. 이 선박들은 일본인 승조원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군 점령지의 군수지원과 일본군 전쟁 포로들을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일본으로 송환하는데 사용되었다.

6월 27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명령에 따라 해군참모총장 셔먼(F. P. Sherman) 해군 대장은 스트러블 해군 중장이 지휘하는 미 7함대를 미 극동해군에 배속시켰다.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대만의 중립화를 위해 미 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이동시켜 중공군의 대만 침공이나 대만의 중국 본토에 대한 군사 행동을 억제하라는 작전명령 제5-50을 시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6월 29일 오전 대만해협에 도착한 항모전대장 호스킨스 제독은 29대의 F4U 코르세이어(Corsair)기 및 AD 스카이라이더(Skyraider)기를 발진시켜 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미 7함대는 한국으로부터 남쪽 1,700마일 떨어진 필리핀의 슈빅만(Subic Bay)에 기지를 두고 있었다. 미 7함대의 세력은 아래와 같이 제77기동부대(TF 77)를 비롯해 전비태세가 잘 유지된 몇 개의 기동전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TF 77 기동부대(스트러블 미 해군 중장 지휘)

영국 순양함 1척

미국 순양함 1척

TG 77.2 경계전대(파커 미 해군 대령 지휘)
10척의 구축함 및 호위 구축함

TG 77.4 항모전대(호스킨스 미 해군 소장 지휘)
미 항모 1척(밸리 포즈함)
영 항모 1척(트라이엄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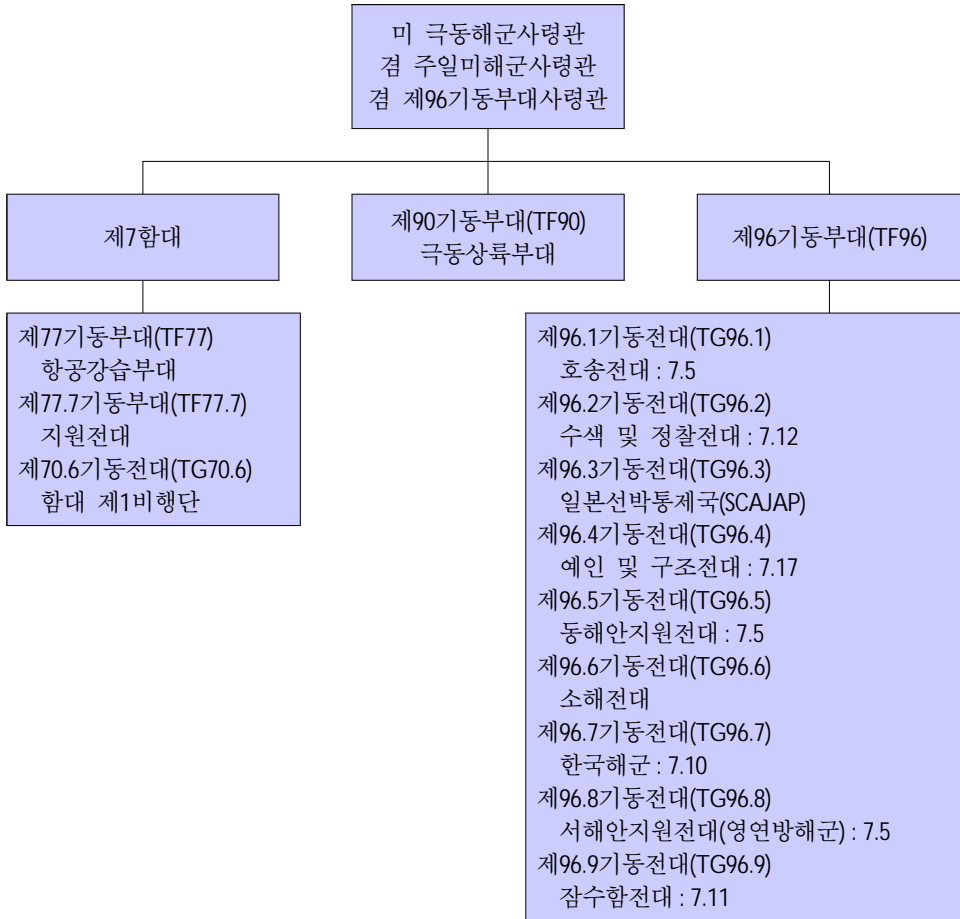
미 극동해군사령관은 제7함대를 포함하여 서태평양 해역에 있는 미국 해군 세력을 모두 통제하게 되었으나, 그의 막중한 임무를 고려할 때 충분한 세력이 되지 못하였다. 마침 극동 해역에 있는 영국을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함정들이 한국해역에 투입되어 미 극동해군에 배속됨으로써 조이 제독은 막강한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다.

영 연방의 해군세력은 경항공모함 트라이엄프(Triumph)을 비롯해 경순양함 벨패스트(Belfast), 자메이커(Jamaica)와 구축함 코삭크(Cossak), 콘소트(Consort), 바탄(Bataan), 호위함 블랙 스완(Black Swan), 알라크리티(Alacrity), 하트(Hart), 쇼올해븐(Shoalhaven) 등 모두 10척이었다.

조이 제독은 부산으로 향하는 수송 함선의 호송과 북한 해역에 대한 봉쇄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7월 3일 미 극동해군 작전명령 제8-50을 시달하였다. 이 작전명령에 따라 7월 5일 제96기동부대 예하에 미국의 함정들로 구성된 제96.5기동전대와 영 연방 함정들로 구성된 제96.8기동전대가 편성되었다. 제96.5기동전대는 미국의 히긴스 해군 소장 지휘 하에 동해안에서, 제96.8기동전대는 영국의 극동해군 부사령관 앤드루스(William G. Andrews) 해군 소장의 지휘 하에 서해안에서 작전하게 되었다.

7월 8일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예비함대 함정의 재 취역과 증원 세력을 급파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병력, 함정들이 한국전장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³¹⁾

<표 9-1> 미 극동해군의 기동편성



2. 참가 부대 및 주요 지휘관

미 해군본부(해군참모총장 : 대장 Forrest P. Sherman)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 대장 Arthur W. Radford)

미 극동해군(사령관 : 중장 C. Turner. Joy)

미 제7함대(사령관 : 중장 Arthur D. Struble)
 영 극동해군(사령관 : 대장 Sir Patrick Brind)
 영 극동해군(부사령관 : 소장 W. G. Andrewes)

3. 작전 경과

1) 봉쇄작전 및 함포지원

워싱턴에서 한국전장에 해군력과 공군력 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6월 27일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유엔해군이 수행할 작전명령 5-50을 시달하였다.

이 작전명령에 따라서 경순양함 주노함과 구축함 4척으로 편성된 한국지원전대(제96.5기동전대 : TG 96.5)는 제96기동부대 예하로서 히긴스(J. M. Higgins) 해군 소장이 지휘하였다.

일본 사세보에 기지를 둔 한국지원전대의 임무는 한국 해역을 초계하면서 적 상륙 저지, 적 함정 격멸, 한국 지상군에 대한 함포지원, 미국시민 철수 지원 및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함선 호송 등이었다.

미 극동해군사령관 작전명령이 시달된 6월 27일 한국지원전대의 세력은 널리 분산되어 있었다. 6월 27일 전대의 기함인 주노함은 부산 서남방의 거제도에 북한군이 상륙했다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세보를 출항하였다. 한편 서해에서는 드 해븐함이 철수하는 미국 시민 제1진을 싣고 인천을 출항한 노르웨이 화물선을 호송하고 있었으며, 맨스필드함은 파나마 선박이 제2진을 싣고 출항하면 호송하기 위해 인천에 대기하고 있었다.³²⁾ 또한 구축함 콜레트함과 스웬스함은 요코쓰카에서 사세보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국 시민들을 철수시킨 후 그 다음 조치는 상호방위원조계획에 의해 한국으로 탄약을 조속히 공급하는 일이었다. 6월 27일 미 극동해군은 일본에 비축 중인 탄약을 서전트 케슬리(Sergeant keathley)호와 카디날 오코넬(Cardinal o'connell)호에



6·25전쟁 발발후 최초로 동해에 출동한 미 주노함 모습

적재하여 6월 29일 한국으로 이송하였다.

소우웰(J. C Sowell) 해군 대령이 지휘하는 주노함은 6월 28일 한국해역에 도착하였다. 이 배는 경순양함으로서 12문의 5"포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주로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 지상군과 적 진지 그리고 적 함선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하고 동시에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한국해역에 도착한 이날 아침 주노함은 거제도 남동해안에 투묘한 후 자체로 조직된 상륙반을 단정(함정에 탑재된 소형 주정) 편으로 거제도 해안에 상륙시켰다. 상륙반은 거제도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떠한 침략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거제도 지역의 상황을 확인한 주노함은 히긴스 제독의 지휘 하에 북쪽으로 향하던 중 이날 오후에는 울산 지역에 상륙반을 투입하여 확인한 결과 이곳에도 적군의 침략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날 저녁 주노함은 적군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삼척과 강릉 간의 해역을 초계하기 위해 동해안을 따라 계속 북상하였다.

전선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가운데 입수되는 정보는 대부분 단편적이고 애매하여 정확한 정보 판단이 어려웠다.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오인 포격들이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6월 29일 한국 함정 305정이 미 주노함의 오인 포격으로 침몰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유엔해군은 한국해군과 협의로 북위 37도 이북 해역에 대하여 해상봉쇄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북위 37도 이남 해역에서도 작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유엔 해군이 6·25전쟁에서 함포사격을 개시한 것은 6월 29일부터였다. 6월 29일 23:11 주노함이 함에 탑재된 탐조등의 조명 아래 한국 해군연락장교의 조언을 받으며 묵호 북방의 적 병력에 대해 30분가량 정밀사격을 실시하였는데, 5" 포탄 400여 발을 발사하여 상당한 전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주노함은 주로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 지상군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하면서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6·25전쟁에서 유엔 해군과 북한 해군 간의 최초 해전은 7월 2일에 발생하였다. 이날 경순양함 주노함이 영국의 경순양함 자메이커함, 호위함 블랙 스완함과 같이 동해에서 초계작전을 수행하던 중 주문진 근해에서 북한 어뢰정 4척을 발견하였다. 어뢰정들은 포함(PGM) 2척과 탄약을 운반하고 있는 트롤 어선 10척을 호송하고 주문진에 입항하려는 중이었다.

이날 일출 직후인 06:1533에 주노함이 해안 가까이에서 북한 어뢰정의 선수가 파가 퍼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차단하기 위해 속력을 증가하여 접근하자 북한 어뢰정들은 유엔 함정들을 발견하고 어뢰와 소구경포를 발사하면서 공격해 왔으나 실패하였다. 주노함이 거리 1만 1,000야드에서 근접신관(VT) 포탄으로 일제사격을 개시하였으며,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거리인 4,000야드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첫 번째 어뢰정이 폭발하여 침몰하였고, 두 번째 어뢰정은 화염에 쌓여 그 자리에 정지하였으며, 나머지 2척은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2척 가운데 1척은 외해를 향해 지그재그(zigzag) 항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때 적의 육상포가 유엔 함정을 향해 발포하여 이 중 1발이 주노함 가까이에 떨어졌으나 명중탄은 없었다.³⁴⁾

이 교전에서 주노함은 적 PT 3척과 포함 2척 그리고 탄약 운반선 10척 가운데 7척을 격침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자메이커함은 2명의 북한군을 생포하였다.

유엔해군 함정과 북한해군 함정 간 치르진 이 전투는 6·25전쟁 기간 중 처음이자 마지막 해전이였다.

이 해전 이후 유엔해군이 북한 해역에 대한 봉쇄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북한의 함정, 잠수함 또는 항공기 공격 등 해상에서의 어떠한 도전도 없었다. 다시 말해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유엔해군은 이 해전 이후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해 완전한 해양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해상봉쇄작전의 북방 한계선은 서해에서는 북위 39도 30분, 동해에서는 북위 41도 51분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러한 한계선은 유엔해군의 모든 작전 부대가 소련이나 중공 해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소련과 중공은 유엔 해군의 해상봉쇄를 비난하였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도전하지는 않았다.

전쟁 초기에는 해상봉쇄작전을 위한 유엔 해군의 전투함 세력은 충분하지 못했다. 유엔해군의 전투함 세력은 미국의 항공모함 1척, 경순양함 1척, 구축함 4척을 비롯하여 영국의 경항공모함 1척, 경순양함 2척, 구축함 2척, 호위함 3척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구축함 1척 및 호위함 1척 등 모두 16척에 불과하였다.

충분하지 못한 전투함 세력과 지상에서의 불리한 전황으로 전쟁 초기 3개월 동안 유엔해군의 해상 봉쇄부대는 부차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전념하게 되었다. 즉 북한 해역에 대한 공격적인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함포사격으로 우리 지상군을 지원하는 임무와 전선으로 이동하는 적의 병력과 장비를 가능한 한 많이 파괴하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제96기동부대는 주로 함포사격으로 북한 지상군을 살상하거나 차량이나 열차를 파괴하고 적의 군수물자 이동을 차단하는 등 모든 작전을 위기에 처한 부산 교두보를 지키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7월 4일 주노함은 영국 호위함 블랙 스완함과 함께 삼척, 주문진 연안을 왕복하면서 교량과 해안도로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7월 5일에는 주노함이 영국 경순양함 자메이커함과 동해안에 대한 포격 임무를 교대하고 유류 보급을 위해 일본의 사세보항으로 향하였다. 7월 5일과 7월 6일에는 영국의 자메이커함과 블랙 스완함이 주문진 근방의 적 해안포대와 선박, 도로, 교량 그리고 6개의 유류 탱크에 포격을 가하였다. 7월 7일 이후에도 유엔 해군의 함정들은 울진, 양양, 삼척 등지의 적 집결지, 해안 철도, 유류 탱크, 교량 등 표적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7월 8일 자메이커함이 하트함 및 스웬슨함과 울진 근해의 해안

도로에 대하여 포격을 하던 중 적 75mm 육상포로부터 반격을 받았는데, 4명의 전사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함의 전투 기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오히려 적의 위치를 확인한 자메이커함은 원거리 해상으로 이탈한 후 전자탐지장치에 의한 사격으로 해안포 진지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한편 사세보항에 도착한 히긴스 제독은 앤드루스 제독과 함께 해군작전계획과 부대편성 및 장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비행기 편으로 일본 도쿄로 갔다. 이들은 미 극동해군사령관 터너 조이 제독과 일본 도쿄에서 가진 회의에서 차후 실시될 해군작전의 중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동해안에 대한 함포사격과 상륙작전
- ② 근접항공지원을 위한 기동함대 함재기의 출격
- ③ 미 해병대의 적기 수송
- ④ 북한 내의 주요 군사 도시 공습

주노함이 사세보항에서 유류를 보급 받고 있을 때 영국의 앤드루스 제독은 순양함 벨패스트(Belfast)와 2척의 구축함(Cossack, Consort)을 한국의 서해에 출동시켜 해상봉쇄와 함포사격을 실시토록 하였는데, 이는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작전명령 8-50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 작전명령으로 7월 5일 동해안지원전대(제96.5기동전대)와 서해안지원전대(제96.8기동전대)가 편성되었는데, 미국 함정으로 구성된 동해안지원전대는 미국의 히긴스 해군 소장이, 영연방 해군 함정으로 구성된 서해안지원전대는 영국 극동해군 부사령관 앤드루스(W. G. Andrews) 해군 소장이 지휘를 맡았다.

한편 사세보항에서 유류보급을 마친 주노함은 다시 동해로 복귀하여 7월 9일 오전에 포항 근해에서 자메이커함, 하트함, 스웬슨함 및 맨스필드함과 합세하였다. 여기에서 주노함은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작전지시 및 정보 사항을 각 함장에게 전달하고 부산으로 향했으며, 자메이커함은 유류 수급을 위해 사세보항으로 향했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적 제5사단의 주력이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고 있었으며,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는 영해 부근에서 적 저지를 위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날 히긴스 해군 소장은 부산에서 개최한 한국 국군 및 미 8군 지휘관들과의 작전회의에서 동해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전투함들이 신속하게 함포사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유엔해군이 함포사격 지원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함포지원함들이 전자탐지기의 정보에 의해 실시간으로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군이 제공하는 적 정보를 판단하여 공격함으로써 사격의 정확도가 낮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무전으로 각 함정에 통보하기 위한 항공함포연락반(ANGLICO : Air Naval Gunfire Liaison Company)을 운용하였다.

동해안지원전대는 7월 10일 밤 02:00~03:00 삼척항에 대규모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적 후방의 보급병참선을 차단하는 것이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한 미 극동해군사령부는 동해안지원전대장 히긴스 제독에게 북한 해역으로 북상하여 청진~원산간의 해상봉쇄를 비롯해 철로선 상의 터널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7월 11일 주노함은 미 구축함 맨스필드함을 지휘하여 목표 지점을 성진 남방 10마일로 정하고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 주노함의 부장 윌리엄 포터(William B. Porter) 중령은 해군장교 1명과 해병 4명 그리고 해군 UDT 4명을 차출하여 자신을 포함하여 폭파팀을 조직한 후, 이날 20:00 폭파팀을 인솔하여 맨스필드함으로 이동하였다. 맨스필드함에서 폭파 계획을 자세히 하달 받은 폭파팀은 23:20 2척의 단정에 옮겨 타고 목표 지점으로 상륙하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들 10명의 폭파팀은 철저한 개인 무장을 갖추고 있었으며, 맨스필드함도 목표 지점으로부터 해안 1,000야드까지 접근하였다.

무사히 목표 지점에 도달한 폭파팀은 터널을 향해 낮은 포복으로 접근하였다. 이윽고 터널 입구에 도착한 그들은 열차와 터널 파괴의 2중 효과를 노리고 60파운드의 순발신관 폭탄을 장치하고 03:30 모함으로 복귀하였다.

이들의 상륙침투는 미군이 육상을 통해 38선을 월북 공격한 최초의 작전이었

다. 폭파 결과는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다음날 북한은 북한방송을 통해 폭파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폭파를 줄곧 남한 선공설의 선전 자료로 이용하였다. 7월 11일 임무를 마친 남향한 맨스필드함과 주노함은 7월 12일 12:00에 스웬슨함과 함세하여 37도~38도선 간의 해역을 경비하였다.

한편 북한군 제5사단이 영해-영덕까지 진출하자 7월 12일 한국군 제3사단이 함포사격을 요청하였다. 7월 13일 미국 포병장교 1명이 지상 전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포사격의 표적을 지정하기 위해 주노함에 파견되었다. 이날 주노함과 미 구축함 드 해븐함이 한국 지상군의 요청에 응하여 울진의 적 병력, 목호의 철도 시설, 삼척항의 유류 탱크 등에 함포사격을 집중하였다. 이 함포사격은 지상군의 무선 통보에 의해 유도되었고, 그 효과가 매우 컸다. 그러나 함포사격 자체는 훌륭하게 수행되었지만 도로와 견고한 교량에 대한 포격에는 5"포가 비효과적이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중순양함과 전함 등 8"포 이상이 설치된 전투함을 한국전장에 투입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7월 14일 23:20 주노함은 울진 남방 근해를 항진 중 트럭의 헤드라이트를 발견하고 포격을 가했는데, 이 트럭 행렬은 북한 제5사단의 보충 병력과 군수 물자의 수송 차량들이었으므로 판단되었다.

7월 15일에는 주노함과 드 해븐함이 북위 36도 34분에서 36도 52분까지 20마일에 이르는 해안도로에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이날 포격에는 탄착수정을 위해 육군 정찰기가 처음으로 이용되어 정확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적 집결지와 포 진지에 대하여 총 645발의 5"포탄을 발사하였다. 또한 이날 야간에는 조명탄의 조명 아래 도로에 대한 포격이 실시되었다. 7월 16일 맨스필드함과 합류한 드 해븐함은 북위 36도 30분에서 37도 15분까지의 해역을 차단하고 주노함과 함께 해안도로에 총 173발의 포격을 가하였다.

7월 17일 주노함은 연료 보급을 위해 부산으로 향했는데, 기함에 승함한 히긴스 제독은 한국의 해군 지휘부와 해상작전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7월 16일과 7월 17일에도 유엔 전투함들은 해안 도로와 적 진지에 대하여 산발적으로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7월 18일 제1기병사단이 포항에 상륙한 이후 맨스필드함과 드 해븐함이 삼척 근방의 해안 도로에 대한 포격을 재개하였다. 이날 구축함들은 주노함과 합류한 후 이틀 동안 영덕 외해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함포지원함들은 2일간의 포격에서 약 1,300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는데, 해안사격통제반(SFCP)의 관측에 의하면 400명 이상의 적군을 살상하고 통신소를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7월 21일에 한국군 제3사단이 영덕을 재탈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날 함포지원함들이 15분간 영덕의 적 진지에 포격을 가한 후 주노함의 조명탄 공격 신호에 따라 제3사단이 공격을 개시하여 09:17에 영덕을 탈환하였다. 이날 순양함과 구축함은 한국군의 진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8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하였다. 7월 22일에도 한국군이 전진할 수 있도록 포격을 계속하였으나, 적군이 총력으로 공격을 가해 왔기 때문에 한국군은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덕 탈환 작전은 비록 일시적이었으나, 육.해군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된 합동작전이었다.

이와 같은 임기표적(Target of opportunity)³⁵⁾에 대한 산발적인 함포사격과 지상군과의 정보 교환으로 이루어진 집중적인 함포사격은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적의 남진 속도를 지체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함포사격에 의하여 북쪽으로부터 연결된 적의 병참선이 차단되고 적의 전열이 분산됨으로써 7월 18일 미 제1기병사단의 포항상륙작전이 안전하게 집행될 수 있었으며, 영덕-강구의 지연작전도 10여 일 동안이나 가능하였던 것이다.³⁶⁾

2) 해상수송작전

유엔군이 북한군의 침공을 저지하고,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패퇴시키는 참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수송 능력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운명은 바로 증원 병력과 군수 물자가 원하는 장소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증원 병력과 군수 물자를 적기에 한국으로 수송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 서울 북방의 38도선으로부터 부산까지의 직선거리는 225마일이었으나, 미국 서해안의 샌프란시스코

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4,914마일이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의 진주만을 경유하면 1,000마일 이상이 더 멀었다.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급히 필요로 하는 병력과 군수 물자는 우선 미 극동부대의 현지에서 확보될 수밖에 없었다.

미 국방부는 미국 시민들을 철수시킨 후 시급히 시행할 과제는 상호방위원조 계획에 의해 한국전장으로 탄약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일이었다. 다행히 일본의 요코스카에는 약 2~3,000톤 정도의 각종 탄약이 비축되어 있었다. 필리핀에는 탄약 재고량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괌에는 약 6,000톤 정도가 있었다. 우선 미 극동사령부는 극동부대에서 사용하거나 일본에 보관중인 탄약을 모아 서전트 케슬리호와 카디날 오코넬호 편으로 6월 29일 한국으로 수송하였다.

1950년 6월 말 기준 태평양함대 예하의 지원함정 세력은 모두 91척이었다. 이 세력 중 47척이 오스틴(Bernard L. Austin) 해군 대령이 지휘하는 제1지원전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전대는 알래스카를 포함한 동부 태평양지역에 대한 함대 군수지원의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소속 함정의 대부분이 미국 본토 서해안의 각 항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태평양함대 지원부대사령관이 직접 관할하는 군수 지원전대 소속에는 함정 26척이 진주만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세력은 남부·서부 및 중부 태평양에 전개된 함대와 기지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었다. 18척의 함정은 군수지원전대의 예하 제대로서 괌도에 있는 제51지원분대에 배속되어 마리아나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³⁷⁾

진주만에 배치된 26척의 세력으로는 한국전장에 투입될 병력과 군수 물자를 수송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마침 일본 선박통제국이 LST 39척과 화물선 12척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함선들은 병력과 군수물자를 수송하는데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일본 선박통제국 소속의 선박들은 일본인 승조원이 운용하고 있었으나, 미 극동해군 예하로서 제96.3기동전대(TG 96.3)로 편성, 운용되고 있었다.

7월 1일 미 육군 제24보병사단의 스미스 부대(Task Force Smith)가 부산으로 공수된 후 제24사단의 후속 병력은 사세보와 세토나이카이 항구에서 일본 선박통제국 선박으로 수송되기 시작하였다. 7월 6일에 제24사단이 한국으로 이동을 완

료하였고, 이어서 제25보병사단도 이동을 개시하였다.

대규모 병력과 군수 물자를 한국으로 신속히 수송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함선이 필요하였다. 서태평양 해역에서 해상수송의 책임을 맡은 미 해군의 정커(Alexander F. Junker) 대령은 자신이 직접 통제하는 해상수송지원부대(MSTS: Military Sea Transportation Service) 소속의 함선과 일본 선박통제국의 함선을 우선적으로 병력과 군수 물자의 수송을 위해 투입하고 부족한 수송선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본의 상선을 용선으로 임대하였다. 이리하여 전쟁이 발발한 후 10일이 지난 7월 초에는 1만 5,000명의 병력과 1,700대의 차량을 포함한 많은 화물을 탑재한 55척의 함선이 일본에서 대한해협을 건너 부산에 입항하였다.³⁸⁾

3) 포항상륙작전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극동상륙부대인 제90기동부대(TF 90) 예하의 제1상륙전대 함정들이 미국 제25사단 제35연대를 요코스카에서 탑승시켜 도쿄 만에서 상륙전 훈련을 하고 있었다. 미 제8군에 대한 상륙훈련은 이미 1950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었던 관계로 어느 정도 상륙작전 능력이 갖추어져 있었다.

전쟁 발발 이후부터 7월 초까지 1만 5,000명의 병력과 1,700대의 차량을 포함한 군수물자가 일본에서 부산으로 긴급히 투입되었으나, 대규모 북한군의 총공세로 아군측의 지상 전황은 계속적으로 불리해졌다.

맥아더 원수는 당시의 불리한 상황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면한 긴급문제는 한반도 모든 지역에서 남진중인 북한 지상군의 진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T-34전차의 지원을 받는 적 지상군은 모두 9개 사단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가해도 승리에 도취한 적의 기세를 꺾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전쟁발발 이전부터 실시해 왔던 주일 미군에 대한 상륙전 훈련은 상륙군을 한국 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되어 불리한 전세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일본에는 독일 제독 예하의 상륙전대에는 상륙함정 이외에도 태평양함대의 상륙전훈련사령부로부터 항공함포연락중대(ANGLICO)를 포함한 여러 부대들이 파견되어 있었다. 다행이 이러한 상륙전 부대와 전문 요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이 포항, 인천, 원산, 이원 등의 상륙작전과 흥남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7월 6일 독일 제독과 그의 참모들을 도쿄로 소집하여 한국 서해의 인천이나 군산에 제1기병사단을 상륙시킬 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상륙계획 수립은 7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전 지구의 전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제1기병사단을 적의 측면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교두보 확보를 위하여 병력을 조속히 대전 이남에 상륙시킬 필요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교두보인 부산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안전하였지만, 부산 이외의 지역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7월 6일 당시 부산항에는 55척의 함선이 정박하고 있었으며, 더 많은 함선이 부산항에 입항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부산항의 정박시설 상 제1기병사단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은 부산의 서쪽이나 북쪽, 즉 남해안이나 남동해안을 상륙 목표 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독일 제독은 가능한 한 전선에 더 가까운 지역으로서 부산에서 65마일 정도 북쪽에 위치한 포항을 상륙목표 지역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제의는 7월 10일 맥아더 장군의 승낙을 받았다. 7월 12일 미 극동해군사령관 작전명령 9-50호가 시달됨에 따라 포항상륙작전이 공식화되었고, 이 작전은 “블루 하트 작전(Operation Bluehearts)”이라는 작전명으로 부여되었다.

다행히 7월 10일 포항은 유엔해군의 동해안 함포사격에 힘입어 아직 전선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포항에는 사용이 가능한 비행장과 양호한 정박묘지 및 상륙이 가능한 1,000야드 이상의 해안이 있었다. 더욱이 이곳으로부터 대구를 거쳐 대전으로 이어진 철도도 이용할 수 있어 상륙군을 중부 전선으로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포항상륙작전의 계획수립과 준비는 놀랄 만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7월 10일 포항이 상륙장소로 선정되자 이날 LST로 포항에 도착한 제5공군의 항공기술자들

이 비행장 시설을 보수하기 시작하였다. 7월 11일에는 상륙작전에 필요한 해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상륙전대와 제1기병사단의 참모들이 항공편으로 포항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포항 항만과 상륙해안에 대한 시설, 수심, 장애물 등 정보를 수집하고 7월 13일에 돌아갔다.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포항항 접근로와 항내에 대하여 소해작전을 실시한 결과 기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7월 15일에는 적정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획득하고 완전한 행정상륙³⁹⁾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마지막 선발대가 포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중부전선에서 열세에 놓여 있던 한·미 지상군이 대전 근교에 진지를 구축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적 4개 사단이 금강을 도하하였고, 미 제24사단이 공격을 받아 대전이 위기에 빠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동력을 갖춘 아군 지상군의 상륙이 긴급히 요구되었다.

그런데 제1기병사단을 단시간 내에 한국전선으로 투입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문제는 적합한 상륙돌격 함정의 부족이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해상수송지원부대(MSTS) 소속인 AKA 2척이 요코스카에 급히 도착하여 상륙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서둘러 보완하였다. 그리고 LSU 6척이 요코스카에서 재취역되었고, 이외에 부족한 LST와 선박은 일본 선박통제국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용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전문 인력 부족이었다. 특히 LSU 등 주정을 운용할 수 있는 정장, 기관장, 갑판 및 통신 병력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인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코로나도(Coronado)에 있는 상륙전 기지에서 항공편으로 급파해 옴으로써 해결되었다.

포항상륙기동부대는 7월 15일 요코스카를 출항하였다. 상륙기동부대가 포항을 향하여 항진하는 동안에 기함 마운트 맥킨리(Mount Mckinley)함에 입수되는 전선의 상황은 포항 북방 불과 24마일 되는 영덕 지구에서 적군과 아군의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었으며, 미 제1기병사단이 상륙할 때까지 한국군 제3사단이 그 지역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되었다. 이때 필리핀 북쪽 해상에서 태풍 그레이스(Grace)호가 북상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태풍의 영향권은 한국에까지 미치

지 못하고 있었다.

7월 18일 05:00에 상륙기동부대가 포항 해역에 도착하였다. 다행히 전선은 아직도 포항 북쪽에 머물고 있었다. 이날 05:58 도일 제독의 “상륙군 상륙”이라는 명령의 하달과 동시에 상륙함정들은 상륙군과 장비를 신속하게 양륙시켰다.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상륙이 실시되는 동안 동해안지원전대의 전투함들이 포항 근해를 엄호하였으며, 제7기동부대의 함재기들은 북한의 원산, 흥남, 평강 등지를 강습하였다.

제1기병사단은 포항에 상륙하자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의 환영을 받았으며, 대기 중인 수송열차와 차량에 탑승하고 중부 전선으로 이동하였다. 7월 19일 정오를 기하여 제1기병사단장 게이(Hobart, Gay) 육군 소장이 상륙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인수하였다. 제1기병사단은 7월 22일 대전 남동쪽에서 적의 공격을 받고 고전하고 있던 제24사단과 교대하였다. 7월 22일에 영일만에는 시속 50노트의 태풍 그레이스호가 내습함에 따라 7월 21일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었던 MSTC 소속의 상륙수송선단이 7월 23일에야 포항에 도착하였다.

포항상륙작전은 적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집행된 상륙작전이었지만, 계획, 준비 및 실시 단계에 있어서 완전한 상륙작전의 표본이었으며, 기록적인 속도로 단시일 내에 완수한 작전이었다. 조이 제독이 “적시적인 제1기병사단의 증원이 없었다면 부산 방어선을 지탱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술회한 바와 같이 포항상륙작전은 부산 교두보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⁴⁰⁾

4) 평양 및 해주 공습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 제7함대의 주력부대인 제77항모기동부대는 6월 27일 필리핀의 수빅만을 출항하여 북상하였다. 이날 오후에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제7함대에게 작전명령 제5-50호를 시달하여 대만해협에서 해상 및 항공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작전 명령에 따라 6월 29일 오전 대만해협에 도착한 제77기동부대는 29대의 F4U 코르세이어(Corsair)기와 AD 스카이라이더(Skyraider)기를 발진시켜 대만해협과 타이베이 상공에서 시위 비행을



6·25전쟁 기간 중 활약한 미 항공모함과 함재기 모습

한 후, 6월 30일 오전에 오키나와에 입항하였다.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명령에 따라 제7함대의 임무는 대만해협을 중립화하였지만, 한국전선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제7함대를 한국해역에 투입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맥아더 원수는 6월 30일 도쿄에서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 해군 중장, 미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George E. Stratemayer) 공군 중장 및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해군 중장과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제77기동부대의 함재기들을 대만해협 또는 한국전장 중 어느 나라로 출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공격 목표 선정 등 함재기들의 운용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회의 결과 항공모함의 공격 목표가 북한의 평양과 해주로 선정되었는데, 평양과 해수에 있는 비행장 시설, 유류저장소, 탄약고 및 인근의 철도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미국 항공모함(CV) 벨리 포지함, 영국 경항공모함(CVL) 트라이엄프함 등으로 편성된 제77기동부대는 7월 1일 작전 해역인 서해를 향해 북상하였다. 트라이엄프함은 제77기동부대에 배속되어 있었다.

1950년 3월 실시한 미·영 해군 간 연합훈련의 경험을 통해 통신, 전술 교리 등의 문제점이 해결됨으로써 제77기동부대의 함재기들이 항공 강습 등 연합작전

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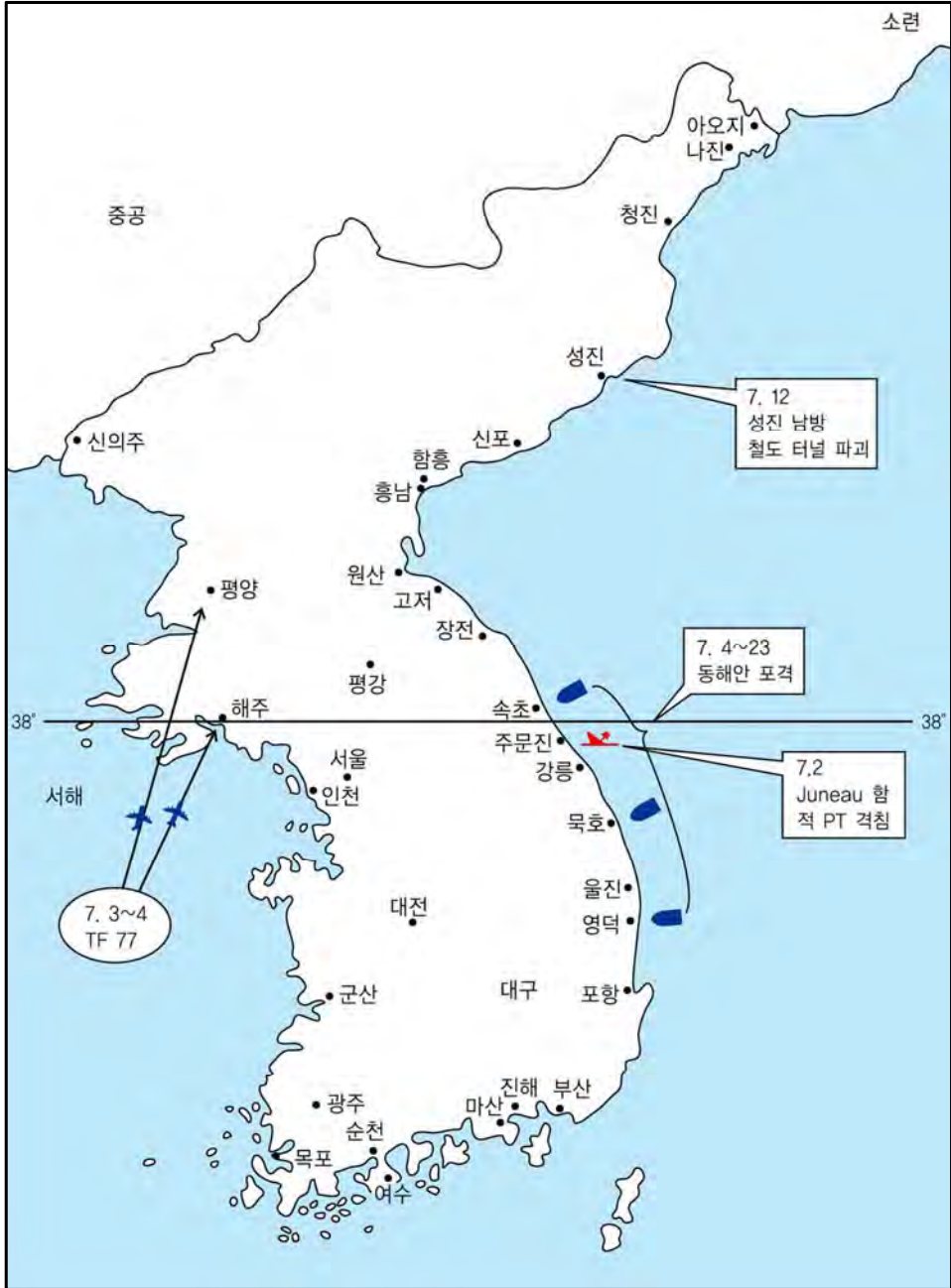
7월 3일 해주 남서방 70마일 해상에 도착한 제77기동부대는 제반 공격 준비를 마치고 벨리 포지함의 함재기로 평양을 그리고 트라이엄프함의 함재기로 해주를 공격 목표로 하여 공습하기로 하였다. 05:45에 트라이엄프함에서 12대의 파이어플라이(Firefly)기와 9대의 시파이어(Seafire)기가 발진하였다. 해주 상공에 도착한 트라이엄프함의 함재기들은 비행장 활주로와 격납고 등을 파괴하고 인근의 철도와 교량을 폭격하였다. 공격기 편대는 적의 대공 포화로 인하여 경미한 피해가 있었으나, 08:15에 모든 항공기가 무사히 귀함하였다.

한편 평양의 군사 표적에 대한 공습 임무를 띤 벨리 포지함에서 프로펠러 항공기인 코르세이어기 16대와 스카이레이더기 12대가 같은 날 06:00에 출격하였다. 프로펠러 항공기들이 출격하고 난 20분 후에 8대의 F9F2 팬서(Panther) 제트 항공기들이 출격하였다. 미국 해군의 제트기는 이때 처음으로 전선에 출격하였던 것이다. 제트기들은 앞서 출발한 프로펠러기들을 추월하여 북한 항공기들을 격멸하기 위하여 먼저 평양 상공에 도착하였다.

이날 평양 상공의 기상은 양호하였다. 제트기들은 평양 비행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폭격을 가하여 수송기 1대와 전투기 2대를 격파하였고, 적의 야크(YAK)기 2대가 출현하자 이를 모두 격추하였으며, 제2차 공격에서 지상에 있는 항공기 2대를 더 격파하였다. 제트기들의 공격으로 평양 비행장의 격납고와 탄약고에서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을 때, 스카이레이더기 12대가 고속으로 접근하여 5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고, 뒤이어 코르세이어기들이 로켓탄을 발사하였다. 폭탄과 로켓탄의 명중률이 우수했기 때문에 평양 비행장 시설 중에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거의 없었다. 비행장 유류 저장소와 격납고 3개가 폭파되었고, 활주로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적의 대공 포화는 미약하고 부정확하였다.

오후에 제2차 출격이 있었는데, 표적은 평양역의 철도 시설과 대동강의 철교 및 교량이었다. 제2차 출격에서 폭탄과 로켓탄 공격으로 평양역의 시설과 철도 선상에 있던 기관차 20대가 파괴되었으며, 수개의 화물차가 화염에 싸였다. 아울러 대동강 교량에 대한 폭탄 공격이 가해졌으나, 교량은 파괴되지 않았다.

<상황도 9-4> 미 해군의 함포사격 · 항공강습작전 요도



7월 4일 벨리 포지함의 함재기들이 다시 평양 상공으로 출격하여 전날 폭격에서 파괴되지 않은 교량에 폭탄을 투하하여 교량 하나를 파괴하였다. 이날 강습도중에 대동강에 있는 적 소형 주정들이 응사해 오자, 함재기들이 로켓탄으로 공격하여 4척의 함정을 격침시켰다. 이날 출격에서 스카이레이더기 4대가 적의 대공포 사격으로 인하여 약간의 피해를 입었으나, 모두 모함에 귀환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손상을 입은 스카이레이더기 1대가 착함할 때 감속 장치의 고장으로 인하여 항공모함 함수 쪽에 있던 다른 항공기에 충돌하여 항공기 3대가 완전히 파손되고 3대가 손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평양과 해주에 대한 2일 동안의 공격에서 제77기동부대의 함재기들은 지상에 있는 적 항공기 12대를 격파하고 2대를 격추하였으며, 평양의 비행장 시설과 철도 시설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강습 작전의 효과는 북한의 공군력을 마비시키는데 충분했으며, 유엔군이 제공권을 확보하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또한 7월 3일 강습에서 제트기들을 출격시킨 것은 북한에게 다수의 프로펠러 전투기를 공급하려던 소련과 중공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얻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⁴¹⁾

4. 분석 및 평가

1) 봉쇄작전 및 함포지원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해군은 한반도 해역에 대한 봉쇄작전 등을 수행하여 완전한 해양통제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엔해군은 전쟁 초기부터 해상교통로를 계속 보호하면서 일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병력과 군수 물자를 적기에 수송할 수 있었다.

제96기동부대의 전투함들은 북한 제5사단의 침공 통로인 동해안의 속초, 주문진, 묵호, 삼척, 울진 등 적의 집결지와 성진 등 북한 동해안 지역의 군사 시설

과 병참선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함포사격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적의 공격 속도를 지연시키고, 북쪽으로부터 연결된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아군측 지상군의 적정 판단에 의해 실시된 유엔해군의 함포사격은 수집된 정보의 부정확으로 오인사격 등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함포지원함들은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각 함정에 적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무전으로 통보해 줄 수 있는 항공함포연락반을 운용하였다. 함포사격은 지상군의 무선 통보에 의해 유도되었고, 그 효과가 매우 컸다. 그런데 함포사격 자체는 훌륭하게 수행되었지만 도로와 견고한 교량에 대한 포격에는 5"포가 비효과적이라는 것으로 판단되어 8"이상의 포가 장착된 중순양함, 전함 등 전투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해상수송작전

전쟁수행능력을 지속시키는 군수품 확보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전쟁 초기 빠르게 남진하는 대규모의 북한군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유엔군의 병력 및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였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 미 극동군사령부가 위치함으로써 유엔해군은 일본에 있는 전투 병력과 탄약 등을 신속히 한국전장으로 수송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선박통제국 소속의 LST 39척과 화물선 12척, 미국에 대여된 일본 선박들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관계로 우선 해상수송작전에 긴요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쟁 초기 긴급히 요구된 병력 및 군수품 수송은 미국에서 한국에 이르는 거리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해상수송작전은 위기에 처한 부산 교두보 확보는 물론 한국 지상군의 전열을 재편하고 유엔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포항상륙작전

포항상륙작전은 계획, 준비, 실시 단계의 전 과정을 망라하여 완전한 상륙작전의 표본이었으며, 최단 시일 내에 완수한 작전이었다. 또한 이 작전은 계속적인 적의 남진으로 포항을 비롯한 부산 교두보까지 위협을 받게 될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수행되어 부산 교두보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포항을 상륙목표지역으로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륙작전과 관련된 전문 인력과 지상군들이 평소 실시해온 교육훈련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 주둔한 미 8군은 전쟁 발발 이전 1950년 5월부터 상륙전 교육훈련을 해왔으며, 제90기동부대의 상륙전대 함정들은 전쟁 발발 당시 제25사단 제35연대를 요코스카에서 탑승시켜 도쿄만에서 상륙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던 관계로 상륙작전 능력이 크게 배양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 극동해군의 상륙부대 함정 이외에도 태평양함대로부터 항공함포연락중대 등 상륙작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일본에 파견되어 있었던 관계로 유엔해군은 즉각적으로 상륙전력을 한국전장에 투입할 수 있었다.

4) 평양 및 해주 공습

항공모함은 이동 항공기지로서 6·25전쟁 기간에도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유엔해군의 항공모함은 전쟁 초기에 부산 교두보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하였는데, 특히 육상에 공군기지가 확보될 때까지 보여준 항모기동부대의 유용성은 매우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일본에 기지를 둔 미 제5공군의 제트 전투기들이 제한된 작전 반경으로 인하여 북한 지역에서 작전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기동력을 갖춘 항공모함이 평양 및 해주 등에 대한 강습작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불시에 적의 항공기지를 강습하여 한반도의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결과

해군작전은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이 한반도 주변의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작전이었다.

전쟁 초기의 해군작전은 한국해군에 의한 방어 위주의 작전이었으나,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해양통제권 확보를 위해 유엔해군에 의한 공격 위주의 작전이었다.

6월 29일부터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은 연합작전을 수행하였지만, 상호간 전투 수행능력의 차이로 한국해군은 북위 37도 이남 해역, 유엔해군은 북위 37도 이북에 대해 해상방어 및 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다시 말해 톤수가 작고 화력이 약한 한국 함정은 주로 37도 이남 해역에 대해 방어적 봉쇄작전을 수행하였고, 톤수가 크고 화력이 우수한 유엔함정은 북위 37도 이북 해역에 대하여 공격적 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계속적인 남진으로 부산 교두보가 위기에 처하자 유엔해군은 아군 지상군의 요청에 의거 북위 37도 이남 해역에서 함포사격과 포항상륙작전 등을 통하여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적의 전열을 분산시키는데 작전을 치중하였다.

5"포와 레이더 장비가 장착된 유엔 함정들이 북한해군과 교전한 7월 2일 이후 한반도 해역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북한 함선의 활동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아군측에 의한 해양통제권 확보로 유엔해군은 적절한 시기에 봉쇄 작전을 비롯한 함포지원사격, 해상수송작전, 포항상륙작전, 항공강습작전 등을

수행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지속적인 해상교통로 확보 및 유지로 아군의 전투수행능력을 유지시키고, 부산 교두보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전투준비태세

유엔군이 북한군의 지속적인 남진을 저지하고, 남한에 침투한 북한군을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패퇴시키는 참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수송능력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만 하였다. 한국의 운명은 바로 증원군과 군수 물자를 얼마나 빨리 도착시키느냐에 달려 있었다.

마침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 미 극동군사령부가 있어 유엔해군은 일본에 있는 전투 병력과 탄약 등을 한국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 선박통제국 소속의 LST 39척과 화물선 12척은 해상수송작전에 즉각 투입될 수 있어 매우 소중한 자산이었다.

해상수송작전은 부산 교두보 확보는 물론 한국 지상군의 전열을 재편하고 유엔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유지하는 관건이 되었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전쟁 발발시 한국의 함정세력은 33척이었으나 JMS-305정이 침몰함에 따라 6월 29일 기준 함정 세력은 32척이었다. 그런데 PC-701함을 제외하고는 37mm 포가 장착된 소해정이 한국해군 세력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해상 전투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해군은 전쟁 발발 이전에 LST 1척(천안), AKL 1척(부산) 등 수송함 2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해군은 해상수송작전의 중요성을 고려 7월 1일 한국 정부의 교통부에서 운용중인 LST 7척과 FS(이후 AKL로 개칭) 7척을 징발하여 해상수송임무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었다.⁴²⁾

유엔해군은 전쟁 초기 해상봉쇄작전을 하기에는 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며

칠 후 미 7함대 세력과 영국 함정을 비롯해 영연방 함정들이 미 극동해군에 배속되고 해상수송작전을 위한 일본선박국 소속의 LST 39척, 화물선 12척이 참가함에 따라 해군작전 세력은 대폭 증강되었다. 그리고 미 극동해군사령부 소속 제90기동부대의 제1상륙전대 함정들이 1950년 5월부터 제25사단 제35연대 병력과 일본 도쿄만에서 상륙전 훈련을 실시한 관계로 상륙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리하여 유엔해군은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해양통제권 확보는 물론 언제 어디서든지 지상, 해상, 공중 작전을 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었다.

3. 전장기능별 분석

1) 해양통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전쟁에서 입증되어 왔다. 해양통제는 원하는 공간에서 아군의 작전활동을 보장하고 적군의 해양사용을 저지하는 것이다. 특히 해양통제는 아군측의 해상 교통로 확보와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전쟁수행능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전쟁 초기 미 극동지역의 해군 세력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유엔해군은 항공모함을 비롯한 함정, 수송함 등을 한반도 해역에 신속하게 투입하여 해양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유엔해군은 전투함의 함포지원, 제1기병사단의 적시적인 포항상륙작전 그리고 제77기동부대의 항공작전 등 아군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인 전투 지원을 할 수 있었고, 미국 또는 일본에서 한국전장으로 병력과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군작전이 아군측의 교두보 확보에 전적으로 이바지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타군의 작전과 연계하여 교두보를 지키는데 다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해상수송작전은 다른 작전과 같이 화려하게 각광을 받는 역할이 아니었지만, 부산 교두보 유지는 물론 이후에 유엔군이 전쟁수행능력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지휘통제

과거전은 육전과 해전으로 분리되어 수행되었으나, 현대전은 과학과 병기의 발달로 지·해·공 합동작전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이러한 합동작전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시부터 거론되었던 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그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어 상호 전술교리를 복합운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6·25전쟁 초기에도 유엔의 지·해·공군 간에 완전한 합동작전체제 또는 연합작전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우군 간의 오인 폭격 또는 오인 포격 등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6월 29일 발생한 미국 주노함의 오인 포격에 의한 한국해군의 305정의 침몰이다.

이 사건으로 유엔해군과 한국함정 간 책임경비구역이 북위 37도를 기준하여 각각 분담되었으며, 또한 한국의 연락장교들이 유엔함정에 파견되어 상호 정보를 교환하였다.

한국해군 내에서는 전쟁 발발이후 해군지휘부와 부대 및 함정 간의 지휘통신을 비롯한 지휘통제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었다. 해군지휘부가 수원, 대전, 부산으로 이전할 때 해군본부는 통신 시설 등의 미비로 인한 지휘 공백을 우려해 한국해군의 작전지휘권을 진해통제부사령관에게 위임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한국해군은 통신 두절 상황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해상작전을 지휘할 수 있었다.

유엔해군은 한반도 해역에서 원활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7월 5일 동해안지원전대(제96.5기동전대)와 서해안지원전대(제96.8기동전대)를 편성하여 각각 미 해군과 영연방 해군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한국해군으로 구성된 제96.7기동전대가 조직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해군을 비롯하여 우방국 함정들이 유엔해군의 지휘 하에 기동부대가 편성되는 등 지휘통제 체계가 구축

됨으로써 원활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3) 정 보

전투함(PC-701)을 비롯한 한국 함정에는 적 함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음탐기 등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오직 육안에 의존하여 적 선박을 접촉하고 대응해야만 하였다. 이와는 달리 유엔함정에는 레이더, 음탐기 등이 장착되어 있어 해상, 해중, 공중 등 광범위한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을 탐색할 수 있어 완벽한 해상 방어 및 봉쇄작전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전쟁 초기 전선이 매우 불안정하고 입수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단편적이고 혼돈되는 것들이 많았다. 유엔해군의 그릇된 정보 때문에 한국함정 305정이 침몰되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유엔해군은 초기에는 한국 지상군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거 함포사격을 하였기 때문에 사격 절차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탄착 오차도 컸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국해군과 유엔해군 간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연락장교와 적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상황을 함포사격지원함에 통보하는 임무를 가진 항공함포연락반을 파견하여 운용하였다.

4) 기동 및 대기동

한반도의 동·서·남해는 각기 다른 해양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 해군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전쟁 초기에는 동해안으로 기습상륙을 시도하였으나, 유엔함정이 도착한 이후는 상륙지역을 인천, 아산만 등 서해안 지역으로 바꾸었다.

6·25 개전 당시 북한해군은 어뢰정 14척, 경비정 16척, 보조선 80여 척 등 총 11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톤수가 작은 소형함정으로서 해상 상태가 불량할 때는 작전 해역으로 기동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이 기동성이 제한된 북한 해군은 전쟁기간 중 그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기에 작전을 제대

로 수행할 수 없었다.

한국의 함정도 북한 함정과 비슷한 형편이었다. PC-701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인수한 소형 소해정으로서 해상 상태가 불량할 때는 기동성 제한으로 작전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실정으로 기동성이 우수하고 화력이 강한 유엔함정이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은 동해상에 주로 배치되었고, 반대로 기동성이 제한되고 화력이 약한 한국함정은 수심이 낮고, 도서가 많은 남서 해상에 배치되었다.

한국해군은 전쟁 초기에는 동·서·남 해상에 각각 함정을 균등하게 배치하였으나, 유엔함정이 도착한 이후는 남해와 서해상에 중점적으로 배치하여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한국해군의 제1정대는 함정의 정보 수집, 화력, 기동 능력과 서해의 해양 특성 등을 고려하여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함정별 책임경비 구역을 지정하여 서해안에 대한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북한해군이 서해안에 대한 침투를 집중함에 따른 적절한 대응작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화력 운용

당시 한국해군과 북한 해군의 함정은 화력이 미약하여 함포지원사격 능력이 없었다. 한국 함정의 경우는 PC(구잠함)의 3"포를 제외하면 소해정의 37mm 포는 대전차용으로서, 사정거리가 짧아 지상군에 대한 함포사격 지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화력을 운용하기 위한 레이더 등 정보 수집 장비도 함정에 장착되어 있지 않아 오직 시각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이와 반대로 유엔해군의 전투함들은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보유하고, 5"포를 장착하고 있어 화력이 막강하였다. 유엔해군은 경순양함, 구축함 등 전투함의 5"포로 속초와 영덕 간의 동해안에 대하여 한국 지상군의 함포 사격 요청에 따라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함포사격을 가하여 적의 남진을 지연시켜 부산 교두보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철도 터널, 교량 및 도로에 대한 5"포의 포격은 비효과적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 해군은 8"이상의 구경을 장착한 중순양함과 전함들을 한국 전장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6) 전투근무지원

해상수송작전은 부산 교두보 확보는 물론 한국 지상군의 전열을 재편하고 유엔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지속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행스런 것은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 미 극동군사령부가 있어 아군 지상군에 대한 전투근무지원은 해상수송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유엔해군은 미 해상수송지원전대의 함선과 일본 선박통제국의 함선을 이용하여 병력과 군수 물자를 수송하였는데, 전쟁 발발 이후 7월 초까지 무려 1만 5,000명의 병력과 1,700대의 차량, 탄약 등 군수 물자를 수송하였다.

이를 위해 55척의 함선이 투입되었으며, 부족한 수송함선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선박들이 용선으로 임대되었다.

주 (註)

- 1)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 전쟁』, 2002, p. 298
- 2) 해군본부,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 72
- 3)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 42
- 4)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 164
- 5)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1992, p. 28
- 6)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 41
- 7) 해군작전본부는 1950년 9월 5일 해군본부로 환원되었다.
- 8) 함명수, 「남기고 싶은 그때 그이야기」, 국방일보, 2006. 1. 16.
- 9)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35-36
- 10)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권』, 1954, p. 31
- 11)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1992 참조.
- 12)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52-60.
- 13)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26-29.
- 14) 해군본부,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 69.
- 15)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6-61.
- 16) 용호대(龍虎隊)는 정창룡(鄭昌龍) 중위의 끝 이름자인 ‘용’자와 ‘호’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고, 강호대(姜虎隊)는 강기천(姜起千) 소령의 성인 ‘강’자와 ‘호’자를 붙인 이름이다(강기천, 『강기천 회고록, 나의 인생 여로』, 계몽사, 1995, p. 46).
- 17)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50-52.
- 18) 강기천, 『강기천 회고록, 나의 인생 여로』, 계몽사, 1995, pp. 48-49.
- 19)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50-52.
- 20)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1997, pp. 797-798.
- 21)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63-68.
- 22)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43-62.
- 23)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6-44.
- 24)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66-70.
- 25)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3.
- 26) 해군본부, 『해병약사』, 1985, pp. 42-46.
- 27)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6-61.
- 28) 박실, 『한국외교비사』, 기린원, 1980, pp. 178-181.
- 29) 신현준, 『노해병의 회고록』, 가톨릭출판사, 1989, pp. 112-113.
- 30) 해군본부, 『해병약사』, 1985, pp. 42-46.
- 31) 해군본부,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p. 55-66.
- 32) 1950년 6월 25일 주한 미대사 무쵸는 한국에 주재한 미국 시민들에게 한국을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미 중동해군사령관은 히긴스 제독에게 드 해븐함과 맨스필드함을 인천으로 급파하여 인천에서 철수하는 미국 시민들을 엄호하도록 지시하였다(『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 p. 67 참조).
- 33)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에 의하면 북한 어뢰정이 04 : 20에 주문진 동쪽에서 거대한 함정을 발견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 34)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에 의하면 북한 어뢰정에서 발사한 어뢰 중 2~3발이 적 중순양함에 명중하였고, 어뢰 1발은 경순양함의 함미에서 폭발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 35) 지상 또는 공중 탐지기에 의해서나 관측자가 볼 수 있는 표적으로서 가용한 무기의 사거리 내에 있지만 그에 대한 사격이 계획되거나 요청되지 않은 표적을 말한다(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04, p. 322.
- 36) 해군본부,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p. 76-87.
- 37) 해군본부,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p. 103-104.
- 38) 해군본부,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p. 93-96.
- 39) ‘행정상륙’은 아군이 점령한 지역에 적의 저항 없이 상륙하는 것을 말한다, 적군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상륙하는 것을 ‘돌격상륙’이라고 한다.
- 40) 해군본부,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p. 133-141.
- 41) 해군본부,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p. 76-87.
- 42)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1992 참조.



제10장 공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북한공군 작전
제 3 절	한국공군 작전
제 4 절	유엔공군 작전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전쟁발발 당시 육군은 물론이고 특히 공군은 북한공군에 비하여 전력의 열세가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북한군의 우세한 전력에 압도되어 철수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6월 27일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놓이자 공군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이남의 기지로 이동을 개시하였으며, 비행단은 수원기지로 이동하였다. 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수원기지의 T-6기는 6월 28일 대전기지로 이동하였고, 수원기지에 남아 작전을 수행하던 L-형 항공기는 7월 1일 대전기지로 이동하여 T-6기와 함께 전황정찰 및 연락임무 등을 계속 수행하였다. 공군은 7월 2일 대구기지에 10대의 F-51전투기가 도착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기지의 T-6기 6대를 대구기지로 이동시켰다. 그 후 공군은 7월 6일 대전기지에서 항공기 7대로 정찰비행대를 창설하였고, 정찰비행대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금강방어선이 위협받게 되자 7월 14일 김천으로 철수하였다.

공군본부는 수원을 거쳐 6월 28일 대전으로 이동하여 주둔하다가 북한 지상군이 남진을 계속함으로써 대전지역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자 7월 13일 대구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김포지구에 주둔하던 부대들은 수원과 대전을 거쳐 대구, 군산 등 각 기지부대로 분산 전개하여 기지보수 및 경비임무를 수행하면서 차기작전을 준비하였다.

이와 같이 공군은 병력수송상의 어려움으로 각 부대가 개별 이동함으로써 부대지휘의 일원화를 기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간 중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지휘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7월 6일 김포지구경비사령부를 해편하고 7월 8일에는 대구기지에 근무부대를 창설하는 등 부대를 재정비하고 비행단작전을 위한 후방지원업무에 주력하였다.

한편 대구기지에서는 7월 3일부터 한국공군 사상 최초로 태극표식을 한 F-51

전투기가 역사적인 첫 출격을 개시하여 지상군 지원을 위한 대지공격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 F-51전투기들은 7월 초순 문산-서울-시흥-안양-수원간의 국도를 따라 남침하는 북한군을 공격하였으며, 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오산-평택-천안-조치원 방향으로 출격하였고, 7월 중순에는 미 극동공군으로부터 로켓탄이 보급되어 F-51전투기들은 대지공격작전에 더욱 활기를 띠었다.

전쟁 초기부터 북한공군은 남한의 주요 비행장과 철도역 등 교통시설을 파괴하며 공세를 계속하였다. 이에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6월 29일 38도선 이북까지 항공작전지역 확대를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미 제5공군과 해군 제7함대 소속 제77특별기동대가 평양과 온정리 비행장 등에 수차례에 걸쳐 폭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폭격 등의 영향으로 7월 초 며칠 동안은 북한공군의 활동이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활동을 재개한 이후에는 김포기지에 한국공군 표식으로 위장한 YAK전투기를 김포기지에 전개시켜 전방기지로 활용하는 등의 전술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전쟁발발 당시 미 극동공군은 극동 제 지역의 영공방위임무 수행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전술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전력보유 수준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래서 미 극동공군은 한국전선에 출격할 수 있는 기지 확보와 예하 전술부대의 재편성 및 추가 전력증강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리하여 미 극동공군은 지리적으로 한국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이다즈케」(Itazuke)와 「아시아」(Ashiya)기지를 중심으로 전술부대를 이동시켜 항공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한국 내의 작전기지 활용을 위하여 대구, 포항, 수영기지 활주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였다. 그 후 7월 10일 대구에 제51전투비행대대를 창설하여 「달라스」(Dallas) 대대와 「바우트-원」(Bout-One) 혼성부대를 통합, 재편성하고 7월 15일부터 출격을 개시하였으며, 7월 16일에는 F-51무스탕기로 기종을 전환한 제40전투요격대대를 포항기지로 이동시켜 항공작전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 극동공군은 빈약한 극동공군의 전력증강 차원에서 미 본토에 병력과 예하 대대의 항공기 보유대수를 전시인가 수준으로의 증강과 필요한 전술부대의 추가지원 등을 요구함으로써 7월 8일 「요코다」(Yokota)기지에 폭격사령부를 창설

하고 미 전략공군의 2개 폭격전대와 미 극동공군의 1개 폭격전대 및 1개 대대를 이에 배속하였으며, F-51무스탕기 145대 등의 항공전력과 한국에서의 작전이 요구되는 기타 전술부대 등이 전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 극동공군은 협소한 한국전역에서 극동공군 소속 항공기들과 해군 제7함대 함재기 등이 함께 항공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휘체제 등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으나, 미 극동공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항공작전의 중앙통제는 물론이고 목표선정에 이르기까지 그 권한을 분명하게 확립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술항공작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전술항공작전을 주로 담당했던 미 제5공군은 지상군과의 공지합동작전을 위하여 전술항공통제체제를 구축하였고, 지상군 전황의 위급함에 따라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전력을 집중 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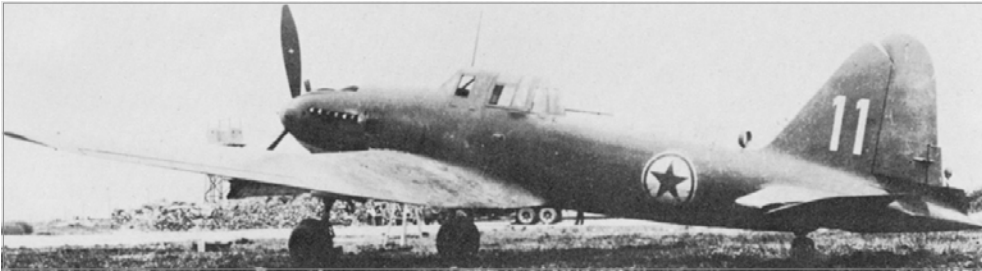
제 2 절 북한공군 작전

1. 북한공군의 활동

전쟁발발 당시 북한공군은 병력 2,800명, 전투기 조종사 약 80명,¹⁾ YAK-9과 IL-10 등 항공기 226대(전투기 84대, 저공습격기 113대, 기타 29대)를 보유하였다.²⁾ 이에 비하여 한국공군은 병력 1,897명, 조종사 64명³⁾과 경항공기 22대(L-4 8대, L-5 4대, T-6 10대)의 전력을 보유함으로써 북한공군에 비해 전력의 열세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남·북한 공군의 전력과 항공작전체계를 비교해 볼 때, 북한공군은 보유항공기에 비해 훈련된 조종사가 부족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한국공군은 조종사 수에 비해 항공기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북한공군은 개전 초부터 남한의 주요 비행장과 교통시설을 파괴하고 지상군과의 합동작전이 가능한 수준의 공세적 항공전력을 보유하였던 반면에, 한국공군은 북한군 전차를 무력화시킬만한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보유하지 못하였고, 보유한 경항공기는 전투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정찰과 수송 및 연락작전 임무수행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었다.

북한 지상군과 해군이 38도선을 넘어 전면적인 남침공격을 개시한 지 6시간이 지난 6월 25일 10:00경 YAK전투기 2대가 여의도와 김포기지 상공을 정찰 비행하였고, 정오가 되자 북한공군은 본격적인 항공작전을 개시하였다.⁴⁾ 이날 북한공군 YAK전투기 편대는 세 차례에 걸쳐 서울의 주요 비행장인 여의도와 김포기지, 용산역 등 주요 교통시설을 공습하였다. 이 공습으로 서울 철도공작창, 기관사 운전사무소, 통신소, 육상운영국 청사, 김포기지의 관제탑과 석유저장탱크, 미 항공수송단(MATS: Military Air Transport Service) 소속 C-54수송기 1대, 여의도기지의 T-6기 1대(109호기) 등이 파손되었다.



소련제 IL-10전투기

6월 26일에는 YAK전투기 4대가 세 차례에 걸쳐 여의도와 김포기지, 영등포역을 공습하였다.⁵⁾ 6월 27일에는 YAK전투기 4대가 10:00와 15:00 두 차례에 걸쳐 여의도기지에 폭탄을 투하하였고, 정오경에는 YAK전투기 5대가 김포기지를 공격하였으며, 오후에는 IL-10전투기 8대가 두 차례에 걸쳐 공수작전 중인 미 공군 수송기를 공습하였다.

6월 28일은 YAK전투기 14대가 김포와 수원기지를 공습하여 미 공군기 9대를 파괴하였으며, 29일에도 북한공군은 수원기지, 문산, 시흥역, 국군 제1사단 전투대열 등을 수차례 공격하였다.⁶⁾ 특히 6월 29일 10:00경 한국전황을 살피기 위해 참모진 및 기자들과 함께 전용기인 「바탄」호로 수원기지에 도착한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 무초(John J. Muccio) 주한 미 대사와 처치(John H. Church) 준장의 영접을 받은 후 수원농대에 위치한 전방지휘소에서 상황보고를 받고 있을 때 YAK전투기 4대가 수원기지를 공습하였으며, 이날 수원기지에 대한 수차례의 YAK전투기 공습으로 미 제22공수대대 소속 C-54수송기가 파괴되었고 이어 같은 대대의 다른 C-54수송기 1대가 격추되었다. 또한 북한공군은 임무를 마치고 수원기지에 착륙하려던 F-82전투기 및 B-26경폭격기 등을 기습하여 피해를 주는 등 이날 하루 동안 수원기지에만 여섯 차례나 위협적인 공격을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공군은 전쟁시작 첫 5일간 주 공격목표인 남한의 비행장과 교통시설 등을 공격하여 약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군 지상군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그 예로써 한국군이 6월 25일 기관차 30량·궤차 300량·

화차 850량을, 26일에는 약 1,000량의 화차와 60량의 임시화차를 동원하여 병력과 보급물자를 전선으로 수송하였는데 북한공군으로부터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고 수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⁷⁾

2. 북한공군의 김포전개 및 전술변화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이 6월 29일 북한내 비행장 등 군사목표 공격을 승인함에 따라 미 제5공군 B-26경폭격기 18대가 이날 16:15에 처음으로 북한지역으로 출격하여 평양기지를 폭격하였고,⁸⁾ 제20공군 B-29중폭격기 10대가 7월 2일 연포기지를, 그리고 해군 제77특별기동부대가 7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평양과 온정리 비행기지를 공습하였다. 미 극동공군과 해군의 항공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북한공군은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며칠 동안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⁹⁾

7월 초 북한공군은 공습을 재개하면서 전술의 변화를 나타냈다. 북한공군은 서울을 점령한 후 북한지상군의 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항공지원을 하기 위해 파괴된 김포기지¹⁰⁾를 복구하고, YAK전투기 일부를 위장하여 김포기지로 전진 배치하였다. 평양에 있던 북한공군 항공사단본부는 7월 7일 기차편으로 개성을 경유하여 서울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제25경비부(헌병대)는 김포기지로 이동하였다.¹¹⁾ 7월 9일에는 항공사단 추격기연대 제3대대 제1중대 소속 YAK전투기 7대(6월 20일 평양출발)가 평강비행장을 경유하여 김포기지에 도착함으로써 김포기지를 아 지상군과 미 공군 전술기를 단거리에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전방기지로 활용하였다.¹²⁾ 따라서 김포기지에 전개한 북한공군 조종사들은 미 공군 제트전투기들의 임무지역 체공가능시간을 파악하여 귀환이 임박해질 때에 나타나 이들을 기습하거나 임무지역에서 미 공군 전술기들이 떠나고 없을 때 지상군을 공습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다.¹³⁾

북한공군은 이와 같은 전술을 사용하여 7월 6일 한국공군 표식으로 위장한 YAK전투기 4대가 오산 통신중계소를 파괴하였으며,¹⁴⁾ 7월 10일은 YAK전투기 4대가 진천지역에서 전투 중인 국군 제19연대를 공습하였다.¹⁵⁾ 다음 날인 7월 11일에도 청주 북방에서 YAK전투기 4대가 지상군을 공격하였고, 또 다른 YAK전투기 3대가 지상목표를 공격 중이던 F-80전투기 편대를 기습 공격하였다.

7월 12일에는 북한공군의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날 YAK전투기 7대가 서울근교의 군사목표를 공격 중인 미 제19폭격전대 소속 B-29중폭격기 1대를 격추시켰으며, 15:00경에는 YAK전투기 3대가 조치원 부근 전선에서 기총공격 중인 F-80전투기 편대를 기습하였으나, F-80전투기 조종사들은 연료부족으로 적기를 추격하지 못하고 회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오후에는 다른 YAK전투기 2대가 L-4연락기 1대를 격추하였고, 7월 15일에도 YAK전투기 2대가 목표를 공격 중인 B-26경폭격기 4대를 공격하여 그 중 1대가 피해를 입고 대전기지에 불시착하였다.¹⁶⁾

이에 따라 미 극동공군은 이러한 북한공군의 단거리 기습공격을 제거하기 위해 7월 15일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 항공전력을 투입하여 김포기지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괴하였다.

제 3 절 한국공군 작전

1. 부대 철수 및 재편성

북한군이 6월 26일 의정부를 점령하자 신성모 국방장관은 이날 24:00부터 27일 02:00까지 국방수뇌회의를 주관하고 각 군의 기본행동방침을 결정하였다.¹⁷⁾

국방수뇌회의에 다녀 온 김정렬 총참모장은 6월 27일 정오경 여의도기지에서 공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하여 공군의 전시편성 및 부대철수에 따른 행동방침을 결정하였다.¹⁸⁾ 공군은 기밀서류 등을 정리하고 소각한 후 철수명령(공본작명 제17호)에 따라 6월 27일 저녁부터 차기작전을 위하여 서울 이남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군의 행동방침은 긴박한 상황하에서 비행단이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후퇴시키려는 조치였다.¹⁹⁾

공군본부는 6월 27일 17:30에 인사국장 한용현 중령과 작전국장 장지량 소령의 지휘하에 서울시청에서 징발한 트럭 10대와 지프차 1대를 이용하여 공군본부를 출발, 20:00에 수원중학교에 도착하였다. 6월 28일 북한군에 의해 서울이 점령되는 등 전세가 더욱 악화되자 공군본부 병력은 이날 12:00에 열차 편으로 수원역을 출발하여 17:00에 대전 도착 후, 대전여자중학교에 본부를 설치하였다.²⁰⁾

공군본부는 대전여자중학교에 주둔하면서 참모부장 박범집 대령의 지휘아래 각 부서를 정비함으로써 점차 안정을 찾아갔으며, 7월 7일 그 주둔위치를 미군 측에 이양하고 대전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로 이동하였다. 그 후 북한 지상군이 남진을 계속하여 대전지역이 위험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군본부는 7월 13일 대구로 철수할 것을 결정하고, 이날 14:00 작전국장 박원석 소령 지휘하에 본부

선발대 병력 85명(장교 20, 사병 65명)이 열차 편을 이용하여 대구중학교로 이동하였으며, 잔여병력 78명은 7월 15일 16:00에 인사국장 한용현 중령의 지휘하에 트럭 편으로 대전을 출발하여 18:00에 대구공업고등학교로 이동하였다.

공군비행단은 비행단장 이근석 대령이 6월 26일 F-51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다른 9명의 조종사들과 함께 일본으로 출발하자 총참모장 김정렬 준장이 비행단을 직접 지휘하게 되었으며, 참모부장 박범집 대령과 비행대장 신유협 소령이 총참모장을 보좌하여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여의도기지에 위치한 비행단은 북한군이 미아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까지 출격을 계속하다가 전 항공기 21대(북한공군기에 의해 피격된 T-6건국기 제109호기 제외)를 6월 27일 19:30에 수원기지로 이동하였으며, 나머지 후방요원들은 김영재 소령 지휘하에 16대의 트럭에 분승하여 19:30 여의도기지를 출발, 22:00 수원중학교에 도착하였다.²¹⁾

수원기지로 이동한 후 여의도기지에 미 고문단 소속 L-5연락기 2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참모부장 박범집 대령은 6월 28일 19:00 4명의 조종사(구선진 소위, 라창준 일등상사, 이기협·권중화 이등상사)에게 L-5연락기 2대를 수원기지로 전개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당시 서울은 이미 점령되었고 김포반도는 북한군 제6사단의 일부병력이 상륙한 후였으므로 L-5연락기를 전개시키기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4명의 조종사들은 2대의 L-4연락기에 분승하여 여의도기지에 착륙한 후 후방석에 동승했던 2명의 조종사가 미 고문단 소속 L-5연락기를 무사히 수원기지로 전개시켰다.

한편, 김정렬 총참모장이 6월 28일 T-6건국기와 L-형 항공기를 분리하여 작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L-형 항공기는 참모부장 박범집 대령의 지휘하에 수원기지에서 정찰임무를 계속하고, T-6건국기는 김정렬 총참모장 지휘하에 대구기지로 이동하여 작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정렬 총참모장은 이날 11:00 T-6건국기 9대를 지휘하여 대구기지로 출발하였다.²²⁾ 이들 건국기 편대가 대전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로 시야를 분간할 수 없게 되자 김정렬 총참모장은 저공으로 철도를 따라 비행하여 대구비행장에 도착하였으나 나머지 항공기들은 김정렬 총참모장을 따르지 못하고 대전비행장에 비상 착륙하였다.

총참모장은 대구기지에 도착한 직후 무초 주한 미 대사의 급한 전보를 받고 곧장 수원기지로 돌아와 무초 대사로부터 “미군이 참전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김정렬 총참모장은 곧 바로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 과 연락을 취한 뒤 수원에 작전지휘소를 설치하는 한편, 비행단의 T-6기는 대전 기지에 주둔하도록 하고, 수원기지에는 L-형 항공기를 배치하여 전진기지로 활용하였다.²³⁾ 이와 같이 비행단 전력은 대전과 수원 2개 기지에 분산 배치하여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였으나, 북한군 선두부대가 수원지역까지 진입하게 되자²⁴⁾ 7월 1일 수원의 작전지휘소와 L-형 항공기를 다시 대전기지로 이동하여 T-6기와 합류한 다음 전황정찰, 전단살포 및 전후방간의 연락임무 등을 계속 수행하였다.

한편 7월 1일 수원기지에서 L-형 항공기가 철수할 때 미 고문단 소속 L-5연락기가 방치된 채 수원기지에 있는 것을 본 백정현 이등상사는 조종교육 중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L-5연락기에 탑승하여 수원비행장을 이륙, 저공으로 대전비행장을 향하여 비행하였으나 목표지점을 찾지 못하고 연료마저 떨어져 이리(현재 익산) 부근에 불시착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군산 기지부대 정비사들이 출동하여 L-5연락기를 대전기지로 안전하게 수송함으로써 한국공군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후 공군은 7월 2일 대구기지에 도착한 10대의 F-51전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기지의 T-6기 6대를 대구기지로 이동시키는 한편, 대전기지에서는 7월 6일 조종사를 포함한 장병 100명과 7대의 항공기(T-6기 2대, L-4기 3대, L-5기 2대)로 정찰비행대(비행대장: 오점석 대위)를 창설하였다.²⁵⁾ 정찰비행대는 대전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금강방어선이 위협받게 되자 7월 14일 김천으로 철수하였으며, 이날 T-6기 2대는 김천에서 이·착륙이 곤란하여 대구기지로 이동하였다.

김포기지에는 공군사관학교, 항공기지사령부, 공군보급창, 헌병대, 여자항공대, 공군병원이 주둔하고 있었다. 김포기지 방어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관학교장 최용덕 준장은 6월 27일 김포지구경비사령부를 편성하여 김포기지 사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제6사단이 6월 28일 08:00부터 김포지역에 맹렬한 포격과 함께 공격을 개시하는 등 전황이 위급해지자 김포읍에 배치된 병력은 14:00에

수원기지로 철수하였고, 사관학교 생도(제1기 사관)를 비롯한 기타 장병들은 서한호 중령의 인솔로, 그리고 김포지구경비사령부 요원을 제외한 항공기지사령부 장병들은 장덕창 대령의 지휘아래 6월 28일 17:00에 김포를 출발하여 시흥을 경유, 수원의 매산국민학교로 철수하였으며, 이들은 다시 대전으로 이동한 뒤 대구, 군산 등 각 기지부대에 분산 배치되어 기지보수 및 경비를 하면서 차기 비행단작전을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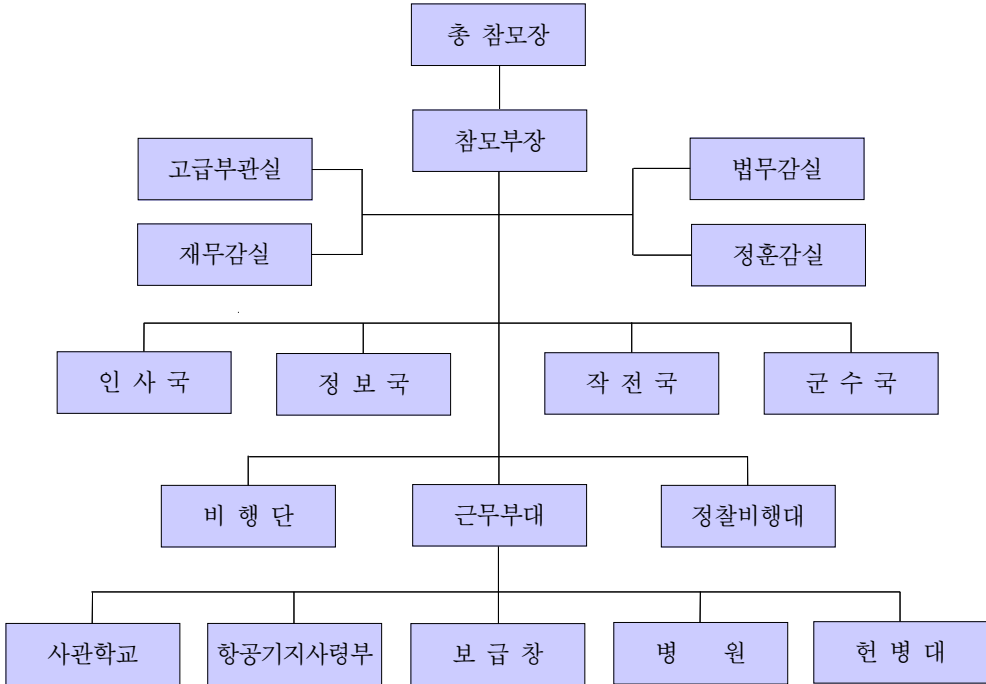
또한 여자항공대는 6월 27일 공군본부로 일단 예속했다가 귀가 조치하였고, 공군병원은 대구와 군산 및 평택기지에 야전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6월 27일 18:30 박천규 소령 이하 7명을 대구로, 최종원 소위 이하 4명을 군산으로, 고영철 중위 이하 4명을 평택으로 각각 파견하였다.

헌병대는 6월 28일 오전에 김득룡 중령 지휘하에 김포에서 수원으로 이동하여 농림시험장에 주둔하면서 수원기지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김득룡 중령이 7월 1일 정영환 중위를 비롯한 20명의 대원으로 하여금 이른바 결사대를 조직케 하여 "여의도기지에 침입한 적을 격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정영환 중위는 7월 2일 01:30을 기해 여의도기지를 점거한 북한군을 공격하여 격퇴하고, 국기계양대에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그러나 06:00에 수 미상의 북한군 공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정영환 중위는 대원들을 이끌고 수원으로 철수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대원 1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하였다. 헌병대는 7월 3일 평택으로 이동하여 기지경비임무를 수행하였고, 7월 5일에는 평택에서 대전으로 이동한 뒤 낙오병을 수습하여 기지를 경비하다가 본부의 이동과 함께 7월 15일 대구로 이동하여 역 부근에 본대를 설치하였다.

한편 공군은 7월 6일 김포지구경비사령부를 해편하고 7월 8일에는 대구기지에 근무부대(부대장: 최용덕 준장)를 창설하여 지휘의 원활을 기하고 항공기지사령부, 사관학교, 보급창, 헌병대 및 병원을 예속시킴과 동시에 항공기지사령부 예하의 기지파견대를 확장하여 대전, 군산, 대구, 광주, 사천, 김해, 제주 등 7개 기지를 관할하도록 하였다.²⁶⁾

공군 부대편성 현황은 <표 10-1>과 같다.

<표 10-1> 공군 부대편성 현황(1950.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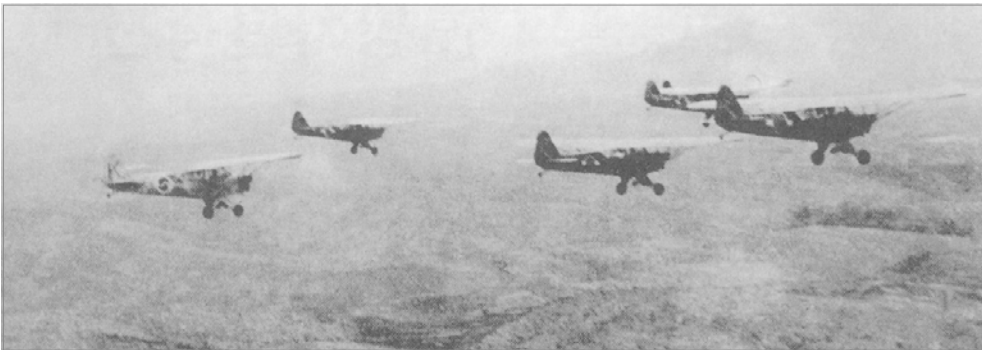


이와 같이 공군은 시시각각 변하는 전선 상황에 따라 잦은 부대이동을 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정찰비행대 및 근무부대를 창설하는 등 부대를 재정비함으로써 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2. 항공작전

1) T-6 및 L-형 항공기의 작전

전쟁이 발발하자 공군은 6월 25일 10:00 여의도기지 내에 공군작전지휘소를 설치하고 비상소집에 응소하는 장병들을 신속하게 대공사격반, 대공감시반, 비행반,



전선으로 출격하는 L-4 연락기 편대

정비반, 연락반, 수송반, 구호반 등으로 편성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으며, 공군은 이날 오후부터 전투기 한 대 없이 T-6 및 L-형 경비행기 22대로 출격을 개시하였다.²⁷⁾ 비행단장 이근석 대령은 T-6기를 3개 편대로 편성하여 전선일대를 정찰한 후, 19:00부터는 연습용으로 확보하였던 30파운드(15kg) 폭탄을 신고 해주, 포천, 동두천 및 개성 방향의 북한군 전차, 차량 및 병력 등에 목측으로 폭탄을 투하하였다. 그러나 공군의 이와 같은 폭격작전은 6월 27일 보유하고 있던 폭탄 274발을 모두 사용함에 따라²⁸⁾ 6월 28일부터는 부득이 정찰작전으로 전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적정과 국군 지상군의 전황을 정찰하면서 전후방간의 연락, 지휘관 수송 및 전단 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6월 28일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한 후 한강 도하를 위한 교두보 확보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비하여 국군은 한강연안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공군비행단은 6월 27일 여의도기지에서 수원기지로 이동하였고, 6월 28일에는 T-6기를 대전기지로 이동함으로써 T-6기는 대전기지에서, L-형 항공기는 수원기지에서 작전을 계속하였다.²⁹⁾

비행단은 6월 28일과 29일 한강도하를 기도하는 북한군의 한강일대 기동상황과 동·서부전선 전황을 정찰하여 육·해·공군 합동지휘소에 보고하였다. 당시 지상군의 통신사정이 양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행단의 정찰결과는 지상군 작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특히 비행단은 6월 29일 육군으로부터 한강철교 폭파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강화 중위에게 임무를 부여하였다. 6월 30일 이강화 중위는 육군정보국 이종국 대령을 T-6기 후방석에 탑승시켜 우선, 여주 방면의 전투상황을 정찰한 다음 용산 상공으로 진입하였다. 이강화 중위는 용산 상공에서 한강교를 내려다보며 한강인도교는 파괴되었으나 한강철교 중앙에 있는 경부선복선철교는 아직 파괴되지 않았음을 이종국 대령에게 확인시키고 나서 기수를 영등포쪽으로 돌렸다. 항공기가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무렵, YAK전투기 3대로부터 기총공격을 받게 되어 기체가 크게 파손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런 위험한 순간에 미공군 F-80전투기가 YAK전투기를 공격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였고, 이강화 중위는 수원기지에 불시착하는데 성공하였다.³⁰⁾

6월 30일 오전에는 이경복 상사와 백성흠 상사가 L-5기 1대에 동승하여 노량진 일대의 적정을 정찰하던 중 좀더 정확한 상황을 살피고자 저고도로 비행하다가 적의 대공포탄에 피격되어 애기와 함께 산화하였다. 이는 공군조종사 중 최초의 희생이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나창준 상사와 정비사인 조명석 중위가 L-5기 1대에 동승하여 용산 일대의 적정을 정찰하다가 적의 대공사격에 피탄되어 기체와 나창준 상사는 안전하였으나 조명석 중위는 전사하였다.

북한군 일부가 한강을 도하하는 등 전세가 악화되자 비행단은 7월 1일 수원기지의 작전지휘소와 L-형 항공기를 대전기지로 이동시켜 T-6기와 함께 대전기지에서 서울일대를 비롯한 김포-수원-평택 등지의 북한군 병력집결지와 전차부대의 이동상황 등에 중점을 두고 정찰임무를 수행하였다.³¹⁾ 그러나 대전기지가 협소하고, 또한 대구기지에 도착한 10대의 F-51전투기가 7월 3일부터 작전을 개시함에 따라 F-51전투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7월 6일 대전기지의 T-6기 6대를 대구기지로 이동시키는 한편, 대전기지에서는 정찰비행대를 창설하여 정찰작전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정찰작전은 6월 28일 수원기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정찰비행대로 창설됨으로써 그 임무가 강화되었다. 정찰비행대는 전선의 이동상황에 따라 시흥-안양-평택-천안-온양과 충주-음성-진천 일대의 적정을 정찰하는 한편,

피난 중이거나 북한군 지배하에 있는 국민들을 고무시키기 위한 전단 살포와 지휘관의 항공수송, 전후방간의 긴급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³²⁾

7월 13일 10:00 박재호 이등상사는 온양에서 공주방면으로 남하하는 북한군 제4사단의 이동상황에 대한 정찰임무를 띠고 L-5기에 박문기 일등중사와 동승하여 대전기지를 이륙하였다. 박재호 이등상사는 조치원을 지나 온양으로 비행하다가 소정리 남쪽 10km에 이르렀을 때 북한군의 대공포탄에 피격되어 기체가 관통되었고 후방석의 박문기 일등중사가 부상당하였다. 이에 급선회하여 북한군 대공포의 사정권 밖으로 벗어난 박재호 이등상사는 정상비행이 곤란한 기체를 이끌고 대전기지에 무사히 착륙하였으나 기체는 크게 파손되었다.³³⁾

7월 14일에는 북한군이 천안을 지나 대전 부근까지 남진함에 따라 정찰비행대는 김천으로 이동하여 국도를 활주도로 대용하면서 종전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나, 이날 T-6기 2대는 김천 국도에서의 이·착륙이 곤란하여 대구기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정찰비행대는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696소티(정찰 622, 연락 74소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³⁴⁾ T-6기 1대와 L-5기 2대 파손, L-5기 1대 완파,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이 전사하였으며, 나머지 4대³⁵⁾(L-4기 3대, L-5기 1대)의 항공기로 2006년 12월 5일 단양-음성-청주-진천-공주-대전-영동 일대에 대한 정찰작전을 계속하여 지상군작전에 기여하였다.

2) F-51전투기의 인수 및 작전

6월 25일 전쟁발발 당시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2.36" 로켓포와 57mm 대전차포, 공군의 T-6건국기와 L-형 항공기로는 남하하는 북한군의 T-34전차를 파괴할 수 없었다. 북한군의 T-34전차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5" 로켓포나 250kg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김정렬 총참모장은 6월 25일 오전 북한군의 전차를 격파하고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



일본 「이다즈케」기지에서 조종교육을 받고 있는 10명의 한국공군 조종사
 앞쪽 좌측부터: 김영환 중령, 김성룡 중위, 강호륜 대위, 박희동 대위, 장성환 중령
 뒤쪽 좌측부터: 정영진 중위, 이상수 중위, 김신 중령, 장동출 중위, 이근석 대령

하였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무초 주한 미 대사를 통해 미 극동군사령부와 국무성에 전투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미 극동공군사령관과 담당참모들이 맥아더 사령관의 지시로 6월 26일 오전 수원기지에 도착하여 전투기지원에 대해 협의한 결과, 10대의 F-51전투기를 지원하기로 하였다.³⁶⁾

그리하여 김정렬 총참모장은 이날 비행단장 이근석 대령을 비롯하여 김영환 중령, 장성환 중령, 김신 중령, 박희동 대위, 강호륜 대위, 장동출 중위, 정영진 중위, 김성룡 중위, 이상수 중위 등 10명의 조종사를 선발하였고,³⁷⁾ 이들은 미 공군 C-47수송기 편으로 19:00에 수원기지를 이륙, 21:00 일본 규슈(九州)에 위치한 「이다즈케」기지에 도착하여 미 제8전폭비행단의 제36전폭전대 훈련대에 배속되었다.³⁸⁾ 그러나 당시 일본 규슈지방은 우기로 기상이 고르지 못하였고, 또한 한국공군에 인도할 F-51전투기의 정비가 아직 끝나지 않아 F-51전투기의 제원 및 기능에 대한 지상교육과 T-6기로 평가비행을 하였다. 한편 제5공군은 6월 27

일 한국공군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바우트-윈』이라는 한·미 혼성부대를 편성하여 대구기지로 파견할 계획을 수립하였다.³⁹⁾

이어 6월 30일에도 일기가 고르지 않은 가운데 지상교육을 계속하다가 이날 오전에 정비가 끝난 F-51전투기가 도착하여 일행은 오후에야 비로소 F-51전투기를 직접 조종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상이 불순하여 이날은 일행 중 5명만 비행하였는데, 그것도 30~60분 정도의 이·착륙 및 공중조작을 하였을 뿐이었고, 나머지 5명도 7월 1일에 역시 30~60분을 비행하였다. 이와 같이 전투기 인수조종사들은 F-51전투기를 개인별로 30~60분밖에 비행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조종술은 교관들을 만족케 하였다.

7월 1일 오후에 이근석 대령과 김영환 중령은 전황이 불리한 이때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만 받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36전폭전대장에게 귀국을 요청하였으며, 이 요청이 미 극동공군사령부로부터 받아들여지자 인수조종사들은 7월 2일 오전 10대의 F-51전투기를 조종하여 대구기지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이에 앞서 미 제5공군사령부는 6월 30일 한국공군에 대한 지원과 조종사 훈련을 위하여 편성된 『바우트-윈』부대의 헤스(Dean E. Hess) 소령을 비롯한 미 공군 조종교관 9명을 대구로 이동시켰다.⁴⁰⁾

대구기지에 도착한 이근석 대령 등 10명의 조종사들은 당시 북한군이 안양-시흥 부근에 이르는 등 전황이 긴박함에 따라 조종사의 전투훈련도 실시하지 못한 채 7월 3일 한국공군 사상 최초로 태극표식을 한 F-51전투기로 역사적인 첫 출격을 단행하였다.

우리 공군이 F-51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육군은 7월 3일 공군비행단에 항공작전 지원을 본격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1차로 이날 10:30에 박희동 대위를 편대장으로 한 F-51전투기 4대가 시흥상공으로 출격하여 도로를 따라 남진하는 북한군 대열에 기총공격을 가한 끝에 이를 분산케 하였으며, 다시 부근에 있는 연료집적소를 공격하여 삼시간에 일대를 불태웠다. 이어 14:15에는 이근석 대령이 지휘하는 F-51전투기 4대가 대구기지를 이륙하여 노량진에 있는 탄약집적소를 공격하여 이를 불태우고 다시 영등포에서



현해탄을 건너오고 있는 한국공군 F-51전투기(1950. 7. 2)

전차를 앞세운 기동부대를 포착하자 즉시 기총공격을 가하여 전차 2대와 트럭 1대를 반파시키고 적병 30명을 살상하였다. 또한 이날 16:30에는 박희동 대위가 지휘하는 F-51전투기 3대가 영등포 일대를 공격하여 트럭 1대를 불태우고 적병 5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7월 4일에는 육군의 요청으로 서울 서빙고, 시흥지구의 북한군을 공격하여 전차 1대를 불태우고 적병 다수를 살상하였으며, 한강을 도하하여 남하 중인 적병 30명을 살상하였다. 또한 이날 11:00 육군으로부터 안양일대에 북한군 전차가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은 이근석 대령은 F-51전투기 4대를 직접 지휘하여 목표상공으로 출격하였다. 이근석 대령은 북한군 전차를 포착 즉시 공격대형을 갖추고 제일 먼저 기총사격을 가하면서 급강하하였으나, 북한군의 대공포화가 이근석 대령을 명중하였다. 이근석 대령은 화염에 휘감긴 애기와 함께 적진에 돌입하여 전사하였다.⁴¹⁾ 이 출격에서 전차 2대를 파손시켰으나 이근석 대령과 전투기를 잃은 손실은 지대하였다.

7월 5일 F-51전투기 조종사들은 로켓탄 등 다른 항공무장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 기총으로만 북한군을 공격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날도 출격을 계속



대구기지에서 출격준비 중인 한국공군 F-51전투기

하였다. 08:30에 김영환 중령을 편대장으로 한 F-51전투기 4대는 대구기지를 이륙하여 노량진-영등포 일대에서 트럭 2대와 연료집적소 1개소를 불태웠다. 이어 13:30에 김영환 중령은 다시 F-51전투기 4대를 지휘하여 서빙고 상공으로 출격하여 북한군의 행렬에 대한 기총공격을 가한 끝에 북한군 병력 30명을 살상하고 트럭 1대를 파괴하였다.

7월 6일에는 전날 오후부터 기상이 좋지 못하여 전투기의 출격이 제한되자, 북한군은 수원을 지나 남진을 계속하였고, 전선으로 보급품 및 병력을 계속 이동시켰다. 이에 김신 중령을 편대장으로 한 F-51전투기 4대가 10:00에 수원으로 출격하여 북한군 병력집결지를 공격함으로써 20명을 살상하였다. 또한 13:50 김영환 중령의 지휘로 F-51전투기 3대가 다시 수원으로 출격하여 탄약집적소 3개소를 불태웠다. 이어 16:40 강호륜 대위는 정영진 중위와 함께 수원으로 출격하여 북한군 병력집결지에 기총공격을 하여 병력 30명을 살상하였다.

7월 7일 기상의 악화로 비행단은 출격을 중지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황

을 지켜보면서 다음 출격에 대비하였다. 7월 8일 이날도 악천후로 비행활동을 중지한 가운데 김영환 중령은 10:00에 장성환 중령과 함께 적정을 정찰하기 위하여 서울-김포 일대를 비행하다가 북한군 트럭행렬을 발견하고 기총공격을 가하여 그 중 1대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오후에는 비가 내리는 등 기상이 다시 악화되어 출격을 중지하였다.

7월 9일 오전에는 전일과 같이 기상이 고르지 못하여 출격을 중지하다가 오후에 기상이 회복되자 이날부터는 급변하는 전황에 따라 종래의 서울-수원부터 문산-이천 일대까지 작전지역을 확대하였다. 이날 13:30 김영환 중령을 편대장으로 한 F-51전투기 4대가 문산으로 출격하여 적 행군대열에 기총공격을 가하여 북한군 병력 10명을 살상하였다. 또한 16:30 김영환 중령은 F-51전투기 3대를 이끌고 다시 문산-이천 일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북한군 트럭 1대를 불태우고 병력 5명을 살상하였다.

7월 10일 북한군은 남진을 계속하여 이른 아침에 이미 천안을 지났기 때문에 비행단은 평택-천안 일대의 북한군 병력집결지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날 09:00에 평택으로 출격한 F-51전투기 3대는 김영환 중령의 지휘로 북한군 병력집결지를 공격하여 병력 25명을 살상하였다. 그 뒤 14:00에 다시 김영환 중령은 김신 중령과 함께 평택-천안 방면으로 출격하여 트럭 2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7월 11일 08:45에 김영환 중령의 선두지휘로 기지를 이륙한 F-51전투기 3대는 오산-조치원간의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의 대열을 발견하고 즉시 기총공격을 가하여 병력 20명을 살상하였으며, 다시 그 부근에 있는 북한군의 탄약집적소에 화력을 집중하여 1개소를 불태웠다. 또한 13:30 김신 중령이 지휘하는 F-51전투기 3대가 출격하여 오산 부근에서 트럭 2대를 불태웠다.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계속되는 기상의 악화로 비행활동을 중지하였으며, 이때까지는 미 극동공군으로부터 아직 로켓탄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총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목표를 보고도 이를 완전히 파괴시키지 못하여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상악화로 비행활동을 중지하는 동안 한국공군에 로켓탄이 보급되어 이를 F-51

전투기에 장착하는 등 다음 출격을 준비하였다.⁴²⁾

한편 7월 4일 이근석 대령이 전사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7월 5일 대통령 집무실(경상북도 도지사 관사)로 9명의 한국공군 조종사를 초청하여 위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공군 조종사들은 아직 전투기에 익숙하지 못하니 당분간 미 공군 조종사들을 출격시키고 우리 조종사들은 훈련을 더 하라"고 김정렬 총참모장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김정렬 총참모장은 더 이상의 희생을 방지하고 이들의 전투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우트-원」 부대장인 헤스 소령과 합동출격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정렬 총참모장은 한국공군은 아직 유능한 편대장이 없으니 미 공군 조종사가 편대장으로, 한국공군 조종사는 요기로 합동 출격하는 것을 제의하였다. 헤스 소령은 태극마크가 표시된 비행기를 미 공군 조종사가 조종하는 것은 국제법상 곤란하지만, 상부에서 허락한다면 합동 출격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 문제는 7월 13일 패트리지(Earle E. Partridge) 제5공군사령관이 한국전황을 살피기 위해 대구기지에 도착하였을 때, 김정렬 총참모장이 한국공군의 현황과 당면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바우트-원」부대와와의 합동출격 문제를 협의하여 동의를 얻었고, 7월 16일 이후부터 한국공군 비행단 F-51전투기의 항공작전은 한·미 합동으로 이루어졌다.⁴³⁾

따라서 한국공군은 이근석 대령과 1대의 F-51전투기 손실이 있었으나,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 60소트를 출격하여 탱크 4대, 차량 9대, 탄약집적소 5개소, 연료집적소 4개소 등을 파괴하고, 적병 205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⁴⁴⁾

제 4 절 유엔공군 작전

1. 미 극동공군의 작전준비

1) 미 극동공군의 전력

미 극동공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에 달하던 1944년 6월 15일 호주에서 창설된 후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9월 일본 「도쿄」(Tokyo)에 사령부를 두게 되었다.⁴⁵⁾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당시 스트레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준장이 지휘하는 미 극동공군사령부 예하에는 제5공군, 제13공군, 제20공군, 그리고 군수사령부가 있었으며, 이들 전력은 일본 본토, 필리핀, 오키나와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다. 미 극동공군의 주력인 제5공군은 패트리치 소장 지휘하에 일본 본토방위를 주 임무로 사령부를 일본의 「나고야」(Nagoya)시에 두고 있었고, 터너(Howard H. Turner) 소장이 지휘하는 제13공군은 필리핀 지역의 방위를 주 임무로 필리핀 「루손」(Luzon)섬 중앙의 「클라크」(Clark)기지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으며, 킨케이드(Alvan L. Kincaid) 소장이 지휘하는 제20공군은 「오키나와」(Okinawa)와 「마리아나」(Mariana)지역 방위를 주 임무로 일본의 「가데나」(Kadena)기지에 사령부를 두었고, 도일(John P. Doyle) 준장이 지휘하는 군수사령부는 미 극동공군의 후방지원을 주 임무로 일본 「다찌가와」(Tachikawa)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⁴⁶⁾

미 극동공군의 작전 책임구역은 <상황도 10-1>과 같다.

미 극동공군의 주력부대인 제5공군은 5개 비행단으로 편성되어 6개 전폭대대, 5개 요격대대, 2개 폭격대대, 2개 공수대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제13공군은 3개

<상황도 10-1> 미 극동공군의 작전 책임구역(1950. 6. 25)⁴⁷⁾

전폭대대와 1개 공수대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제20공군은 4개 요격대대와 3개 폭격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현재 미 극동공군의 전술부대 편성 현황은 <표 10-2>와 같다.⁴⁸⁾

이 밖에도 전술부대에는 배속부대들이 있었는데 미 공군 구조대 소속 제2, 제3구조대대의 SB-29, SB-17항공기가 각 기지에 배치되어 있었고, 제2143기상단의 제512, 제514기상정찰대대가 「요꼬다」기지와 「앤텔슨」기지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F-51전투기로 무장한 호주공군 제77비행대대가 「이와꾸니」(Iwakuni)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표 10-2> 미 극동공군의 전술부대 편성 현황(1950. 6. 25)

사령부	예하 부대	주둔 기지	기종	
제5공군	- 제3폭격비행단: 제8, 제13폭격대대	Jonson	B-26	
	- 제8전폭비행단: 제35, 제36, 제80전폭대대 - 제68전천후대대	Itazuke	F-80C F-82	
	- 제35전투비행단: 제39, 제40, 제41전투요격대대 - 제339전천후대대, 제8정찰대대	Yokota	F-80C, F-82, RF-80	
	- 제49전폭비행단: 제7, 제8, 제9전폭대대	Misawa	F-80	
	- 제374공수비행단: 제6, 제22공수대대	Tachikawa	C-54	
	제13공군	- 제18전폭비행단: 제12, 제44, 제67전폭대대 - 제21공수대대(제374공수비행단 소속) - 제6204사진지도제작비행편대	Clark	F-80G C-47, C-54 RB-17
제20공군		- 제51전투요격비행단: 제16, 제25, 제26요격대대 - 제4전천후대대	Naha	F-80C, F-82
		- 제31정찰대대(전술항공사령부 소속)	Kadena	RB-29
	- 제19폭격비행단: 제28, 제30, 제93폭격대대	Andelson	B-29	

1950년 5월 31일 현재, 미 극동공군의 총 보유항공기 수는 보관용과 정비를 요하는 항공기를 포함하여 1,172대였다. 이 중에서 즉시 작전가능 항공기는 총 보유기의 절반도 안 되는 553대인데, 기종별 대수는 다음과 같다. F-80C 365대, F-82 32대, RF-80 25대, C-54 26대, SB-17 23대, B-26 26대, B-29 22대, RB-29 6대, WB-29 24대, SB-29 4대이며, 미 극동공군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항공기는 록히드(Lockheed)제의 슈팅스타(Shooting Star) F-80C 제트전투기였다.⁴⁹⁾ 그러나 F-80C 제트전투기는 노후한 기종으로 점차 퇴역할 전투기였다.⁵⁰⁾

극동공군의 인가병력은 총 3만 9,975명이었으나 실제병력은 3만 3,625명이었다. 병력은 평시 인가병력의 90%만을 배속한다는 원칙에는 부합되었으나, 전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숙련된 병력이 부족하였다. 폭격전대에는 항법사, 폭격수와 사격수가 부족하였고, 미 제5공군은 전반적으로 무장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미 극동공군은 이와 같은 전력으로는 한국전쟁에서 전술항공작전 소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트메이어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한국전

쟁 발발 당시, 미 극동공군이 보유한 전력수준은 일본 본토, 오키나와 및 필리핀 군도의 한정된 영공방어 이외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불충분하였다"라고 말하였다.⁵¹⁾

2) 항공작전 지휘체제의 확립

미 극동공군은 한반도에서 항공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극동군사령부와의 항공작전 운영에 관한 지휘관계상 갈등과 미 극동해군 함재기의 한국전 참전에 따른 항공작전 지휘체제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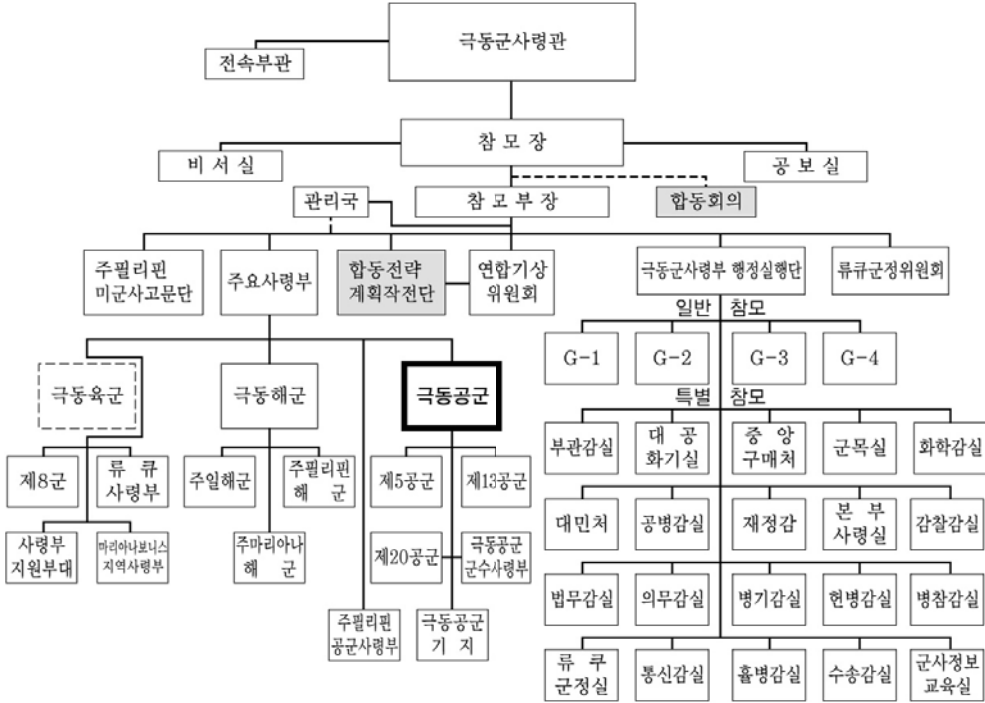
한국전쟁 발발 당시의 미 극동군사령부 지휘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비슷하였으며 조금도 향상된 점이 없었다. 즉 1946년 12월 14일 미 합동참모본부는 극동군사령부에 통합참모부를 신설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맥아더 사령관은 예하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기 위해 1949년 8월 20일 육군 3명, 해군 3명 및 공군 2명의 장교로 구성된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단(JSPOG: 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을 창설하였다.⁵²⁾ 그러나 이것은 본래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시한 기구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통합원칙에도 위배되었다.

또한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육군 장교들만을 극동군사령부의 참모로 편성하여 자신의 지시를 직접 수행토록 하였으며, 극동군사령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들 육군 참모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상 육·해·공군을 대표하는 통합참모 역할을 하였다.⁵³⁾

미 극동군사령부 편성 현황은 <표 10-3>과 같다.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작전에 관한 문제를 미 극동공군사령관에게 모두 일임하였으나, 한국전쟁 개전 당시에는 극동군사령부 참모들이 "항공작전은 최고위 참모부에서 지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함으로써 극동공군에서의 항공작전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극동군사령부의 참모들 가운데 항공작전의 절차 등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극동군사령부 참모 중에 공군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항공작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공작전을 지휘하려 함으로써 극동공군에 무리한

<표 10-3> 미 극동군사령부 편성 현황(1949. 10. 15)



항공작전임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한국의 전방지휘소(ADCOM: 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 in Korea)에 와 있던 맥긴(John McGinn) 중령은 극동군사령부로부터 항공지원 문제에 대해 『이다즈께』기지의 제5공군 전방사령부와 접촉할 것이 아니라 극동군사령부에 항공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극동공군을 경유하여 제5공군 전방사령부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항공지원요청 경로를 통해 미 육군 제24보병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은 동경의 극동공군에 여러 번 항공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항공지원요청 메시지가 제5공군에 전달되기까지 약 4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적시에 적절한 항공지원을 받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었다.⁵⁴⁾

미 지상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자 스트레트메이어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지상

군과의 관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7월 7일 패트리치 장군을 극동공군부사령관 직에서 해임하고 제5공군을 지휘하도록 「이다즈게」기지로 복귀시키고, 이날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으로부터 주한 미 육군이 항공지원을 제5공군 전방사령부에 직접 요청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8일 「요꼬다」기지에 극동공군 폭격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공군에서 차출된 중폭격기 2개 전대, 극동공군의 제31정찰대와 제19폭격전대를 그 예하에 배속시켰다.

그 후 미 제24보병사단이 북한군으로부터 위협에 직면하자 7월 9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극동공군의 모든 B-29중폭격기를 출동시켜 악전고투하는 지상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극동공군사령관은 제19폭격전대에 부여한 평양, 서울, 원산의 철도조차장 폭격계획을 11시간 만에 취소시키고, 지상군지원 임무로 전환시켰다.⁵⁵⁾ 그리하여 극동공군은 7월 10일 폭격사령부 제19폭격전대 B-29중폭격기 10대를 천안-평택 부근에 있는 북한군의 병력, 전차, 수송차량 등 이동목표물을 공격하도록 근접항공지원 임무에 투입하였으나 큰 전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북한군의 병력, 전차, 차량 등의 이동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임무에 부적합한 B-29전략폭격기를 투입했기 때문이었다.⁵⁶⁾

당시 극동공군사령관은 극동군사령부에서 항공작전의 수행방법 등을 지시하는 대로 항공작전을 운용하면 실통치 않은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7월 10일 오전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사령관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것이나, 임무수행 세부 방법까지 자신에게 지시하는 것은 사령관의 의도가 아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자 맥아더는 극동공군사령관에게 자신의 계획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극동군사령부 참모들의 지시에 개의치 말고 소신껏 실행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폭격사령부와 제5공군에 임무를 명시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는 7월 11일 폭격사령부에 대해 북한지역의 수송차단목표와 전략목표를 공격하도록 하고, 7월 12일 제5공군에게는 한국에서의 전술항공작전에 책임을 지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7월 14일 한국에서의 지상전황이 다시 위급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던 장군의 육군부대는 승산이 없는 상황하에서 교통요지인 대전을 고수하고자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다시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에 아군 전초부대의 위협이 제거되기까지 교전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도록 명령하게 되었다. 결국 극동공군의 효율적인 항공력 운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작전의 이해가 부족한 총사령부의 지나친 개입은 이때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한편, 극동공군사령관은 항공작전 운용상의 또 다른 문제로 해군과 협조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이 서남태평양 전구에서의 항공력에 대한 지휘통제 문제는 간단하였다. 왜냐하면 미 극동공군 예하에는 전 해군항공대와 제7함대 수색대만이 포함되었을 뿐 함재기는 단 한대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이 여러 번 태평양함대로부터 쾌속항모특별기동대를 배속 받아 공군 폭격기의 행동반경을 벗어난 목표를 공격하는데 이용하였으나, 이것은 미 극동공군의 작전지역 밖이었으므로 극동공군과 함대간의 간단한 협조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지형이 협소한 지역에서 공군 항공기와 해군 함재기들을 주요 목표에 동시에 집중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양상이 달랐던 것이다. 미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은 모두 미 극동군사령부 소속이지만, 항공작전은 각 군 사령부에서 직접 지휘 및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전상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⁵⁷⁾

제77특별기동대의 첫 항공공격을 준비하면서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Turner C. Joy) 제독은 7월 2일 평양을 에워싼 넓은 북한 서북상공에서의 작전권을 요청하여 독점적인 작전권을 받아냈다. 미 극동해군은 7월 3일 22:35 이 지역 목표가 다음 날에도 계속 해군 제77특별기동대에 부여될 것이라고 극동공군에 통보하였으나, 극동공군 작전부는 해군함재기 공격이 그 다음날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다. 결국 극동공군은 7월 4일 평양비행장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한 B-29중폭격기의 출격을 취소하였고, B-29중폭격기들은 새로운 목표

물을 할당받지 못해 종일 임무가 없었다.⁵⁸⁾ 이와 같은 원인은 미 극동공군과 해군의 지휘관들이 독자적으로 공격목표를 선정하고, 공격명령을 하달하는 등 무질서한 항공작전에 대한 중앙통제가 없는데서 야기된 것이다.⁵⁹⁾

해군 측 항공작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제77특별기동대는 해상을 비행하는 동안 무선교신 없이 침묵을 유지했기 때문에 극동공군사령관은 함재기의 평양공격을 여러 날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공군과 해군항공대에 대한 단일화된 통제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공격은 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군과 해군에서 목표물을 독자적으로 선정하고 공격한다면 한국에서의 전투비행은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한국전선에서의 단일화된 항공작전 지휘체제 확립을 위해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8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한국전선의 항공작전에 참가하는 해군함재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자신에게 위임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 제안이 극동해군에서 수락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은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10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재차 건의하였다. 그는 이 건의에서 해군의 정당한 해군항공작전 수행을 통제하거나 항공모함의 활동을 지휘 또는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며, 항공부대의 큰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의 소관이지만 이의 적절한 조정 없이는 항공력의 충분한 효과가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통제되지 않은 한국에서의 항공작전은 참전한 각급 항공부대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동경의 극동해군사령부가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의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자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과 조이 극동해군사령관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몇몇 참모를 대동하고 7월 11일 극동군사령부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 집무실에서 회동하였다. 조이 제독과 해군 참모들은 「작전통제」라는 문구는 너무 범위가 넓은 것이어서 해군 측에서 볼 때의 「작전통제」는 결국 해군항공대를 체제상 극동공군에 영속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대만해역의 제7함대 임무에 매우 불리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알몬드 참모장이 「조정통제」(Coordination Control)라

는 한층 간접적인 권한을 극동공군에 부여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조이 제독이 이를 받아들였고,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단」은 명령서를 기안하여 7월 15일 아무런 추가조정 없이 원안대로 알몬드 참모장의 서명을 받아 발표하였다.

이 명령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이 지시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 항공기를 지휘 및 작전통제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군과 그 밖에 지상기지의 모든 항공기가 포함되나 해군정찰, 대잠전 등 해군임무에 대한 지원작전은 제외한다. 이에 대한 협조사항으로 첫째, 공격목표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은 극동군사령부 목표분석단에서 수행한다. 둘째, 한국전선에서 미 극동공군과 해군작전은 미 극동공군사령관이 이를 지휘한다. 셋째, 극동군사령관이 지시한 임무 중 상륙작전과 같은 임무는 합동작전으로 한다.⁶⁰⁾

한국전쟁에서 해군과 공군 항공전력을 지휘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극동군사령부 참모들은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발간한 군사용어사전에도 없는 「조정통제」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 후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조정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조정통제」란 동일한 지역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항공부대가 작전할 경우 효과적인 협조를 이루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보편적 의미인 것이었으며, 그 후 극동공군과 해군은 「조정통제」에 대한 의미를 서로 다른 뜻으로 해석하였고, 주요 작전명령서상의 어구에 대한 해석차이, 통신채널에 대한 오해 등 견해의 차이는 여전하였다.

한편 극동군사령부는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이 항공작전 지휘권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기 4일 전인 7월 4일에 목표분석단을 신설하였으며, 7월 14일 목표분석단 단장에 극동군정보참모부 선임장교를 임명하고, 단장 예하에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단(JSPOG) 해·공군장교 각 1명과 극동군작전참모부 장교 1명 등 총 3명을 편성하였다.

목표분석단의 기능은 첫째, 매일 매일의 전투상황에 적합한 해·공군의 항공력 사용에 관한 건의. 둘째, 공격목표의 선정과 우선순위의 결정. 셋째, 공군력

사용의 상호 협조방안 제시. 넷째, 공격결과의 분석이었으며, 회의는 단장과 작전참모부의 요청에 의하여 매일 갖도록 하였다.⁶¹⁾ 그리하여 목표분석단은 7월 16일 최초 회의에서 근접항공지원의 공격목표 선정은 미 제5공군사령관과 미 제8군사령관의 협조하에 수행하며, 북한군 후방에 있는 목표선정은 미 극동공군 목표선정위원회와 극동군사령부 목표분석단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광범위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7월 17일부터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이로써 미 극동공군은 항공작전 운영에 대한 미 극동군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국전선에서의 효과적인 항공작전 수행을 위하여 극동군사령부 및 미 극동해군사령부와 협의 끝에 항공기의 지휘 및 통제체제는 물론이고 목표선정에 이르기까지 그 권한을 분명하게 확립하였다.

3) 미 극동공군의 부대 재편성 및 전력증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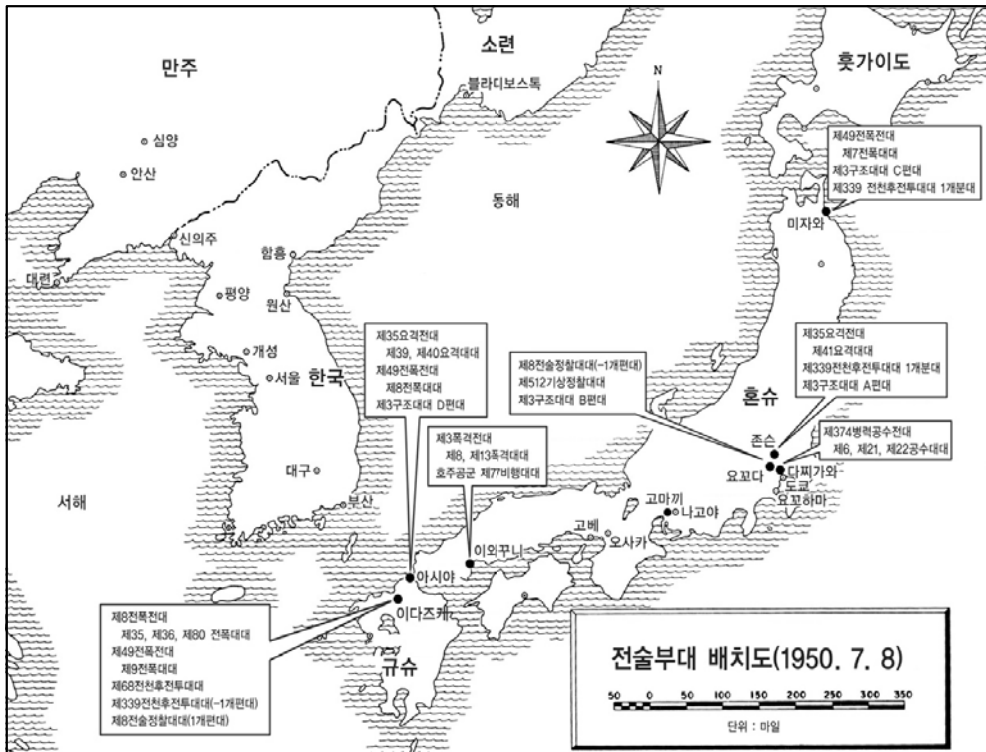
미 극동공군은 전쟁발발 초기에 다른 공산국가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일본방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산상의 문제로 빈약해진 극동공군 전력으로 한국에서의 항공작전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한국전선에 출격할 수 있는 기지를 확보하고 확장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였다. 그래서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예하 전술부대를 재편성하여 한국전선에 대한 출격작전과 일본 등 극동군 예하 제 지역에 대한 영공방위임무를 병행하고자 하였고, 추가 소요전력에 대해서 미 본토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다즈게」기지의 제68전천후전투대대가 6월 26일 한국에서 작전을 개시한 뒤, 미 극동공군은 한국에서의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위하여 예하의 전술부대들을 수일 동안 한국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다즈게」와 「아시아」기지로 이동시켰다.⁶²⁾ 제5공군은 6월 29일 「이다즈게」기지에 전방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제7전폭대대를 제외한 제49전폭전대는 6월 27일과 29일 「미자와」에서 「이다즈게」와 「아시아」기지로 이동하였다. 또한 제35전투요격전대가 「아시아」기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곳에 와 있는 제3폭격전대의 B-26경폭격기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으나, 6월 29일 워싱턴 주재 호주대사가 F-51무스탕기

26대로 편성된 호주공군 제77비행대대를 극동공군에 배속조치를 통보해옴으로써 제3폭격전대는 「이와꾸니」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의 영공방위를 위해 「존슨」기지로 복귀한 제41전투요격대대(일본 영공방위를 위해 존슨기지로 이동)를 제외한 제35전투요격전대는 「요꼬다」기지에서 「아시아」기지로, 제339전천후전투대대 1개 편대를 「요꼬다」에서 「미자와」및 「존슨」기지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제20공군 소속 제4전천후전투대대는 7월 8일 「이다즈께」에서 「나하」기지로 복귀하고, 제19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20대는 「팜」에서 오키나와의 「가테나」기지로 이동하였다.⁶³⁾

미 극동공군의 일본 본토지역 전술부대 재배치 현황은 <상황도 10-2>와 같다. 재배치하였고, 예하 전술부대의 전투기들은 이들 기지에서 출격하여 항공작전을

<상황도 10-2> 미 극동공군의 전술부대 재배치 현황



이와 같이 미 극동공군은 「이다즈께」와 「아시아」기지를 중심으로 전술부대를 수행한 결과, 한번 출격하면 한국전선에서 불과 15~20분밖에 근접지원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악기상일 경우에는 귀환하기조차 어려웠다.⁶⁴⁾ 이에 극동공군사령관은 미 제5공군으로 하여금 한국에서 보다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트전투기의 항속거리를 연장하던지 아니면 한국내의 기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제5공군은 우선 항속거리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항상 고공비행을 함으로써 연료를 절약하려고 하였으나, 경우에는 구름 밑에 있는 목표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격시에는 교대로 고공비행을 해야 하므로 편대장과 요기가 분리되는 사례가 많았다. 제5공군은 다른 방법으로 전투기에 표준연료탱크 외에 2개의 보조연료탱크를 추가 장착하여 출격하였으나, 미 공군 군수사령부에서는 익단과 폭탄의 거리가 제한되어 날개의 구조상 많은 무리를 가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미 극동공군은 한국전선에서 효과적인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제트 전투기의 항속거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내에 있는 비행기지로 이동하는 문제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개전 직후 김포와 수원기지를 상실하게 되어 미 제5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지란 대구, 수영, 포항뿐이었고 그나마 상태가 좋지 못하여 확장공사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⁶⁵⁾

미 극동공군은 확장공사를 하면 사용이 가능한 대구, 수영, 포항 등 3개 비행장을 작전용 표준기지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스트레트메이어 사령관은 항공공병 병력이 부족⁶⁶⁾하다고 판단하여 7월 5일 반덴버그 미 공군참모총장에게 극히 부족한 항공공병 병력증원을 요청하였으나, 공군본부에서도 육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보충대책이 없었다.⁶⁷⁾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 극동공군은 7월 11일 제1건설사령부를 창설하여 한국군 공병부대를 이에 배속하고, 제5공군 시설감으로 하여금 이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병기술 참모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실제로는 공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즉 기술참모가 부족한 미 제5공군에서는 비행장 확장에 관한 지질 및 배수검사

와 건설자재 획득여부를 상세히 조사하지 못하고 현지답사와 그 밖의 정보만을 가지고 공사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대구기지는 굳은 흙바닥으로 된 4,800피트의 활주로가 있었고, 7월 2일 한국공군의 F-51전투기 10대가 일본으로부터 도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미 극동공군은 「오끼나와」에 있던 제822항공공병대대와 제919항공공병중대에게 7월 8일 주둔지를 출발하여 7월 16일까지 부산항에 도착하도록 명령하였으며, 그 선발대가 7월 16일 대구기지에 도착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다.⁶⁸⁾

수영기지는 4,500피트의 활주로가 있어 당초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 3일 현지를 답사한 슈메이커(Williams Shoemaker) 중령이 “활주로가 약 10Cm의 자갈 위에 콘크리트로 살짝 포장한 것에



대구기지 포장공사

많은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지반이 약화되었다"라고 보고하자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수송기 이·착륙 및 비상착륙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포항기지는 4,500피트 활주로가 있었고 시설은 수영기지에 비해 다소 양호하였고, 미 제802항공공병대대에서 이 기지의 확장공사를 담당하였다. 미 제802항공공병대대 A중대가 「오끼나와」의 「나하」항에서 LST 편으로 출항하여 7월 10일 밤 포항비행장 앞 영일만에 도착하였으며, 영일만에 선적장비를 부린 다음 7월 12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7월 13일 4,500피트의 기존 활주로를 임시 활주로는 철판(PSP : Pierced Steel Plank)으로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이어 노반공사로 들어가 7월 15일에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였다.⁶⁹⁾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만약 극동공군의 항공공병대를 전쟁 초에 완전히 충원하였다면 전술작전부대가 7월 초에 부산과 대구비행장에서 작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결국 항공공병의 부족으로 7월 15일 포항기지만 공사를 완료하였다.⁷⁰⁾

미 제5공군은 한국 내의 비행장 활주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미 제24사단이 천안에서 철수한 7월 8일 F-51전투기로 무장한 전투대대를 한국의 기지에 두려는 계획을 굳혔으며, 이는 대구에서 출격하여 지상군에 적절한 항공지원 및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F-51전투기 1대가 일본 「규슈」(九州)에서 출격하는 F-80전투기 4대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것은 F-51전투기가 네이팜탄으로 무장하여 북한군의 병력과 전차 등을 공격한다면 F-80전투기의 공격효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⁷¹⁾

그리하여 미 제5공군은 이에 앞서 6월 27일 「이다즈께」기지에서 제8전폭비행단 제36전폭대대의 일부병력과 한국공군의 F-51전투기 10대로 「바우트-원」이라고 명명한 혼성부대를 편성한 후 6월 30일 저녁에 대구기지로 이동시켰다.⁷²⁾ 그리고 이 작전부대를 지원할 제6002기지대대를 7월 6일 「사세보」(Sasebo)에서 편성하여 부산으로 이동시켰으며, 부산에 도착한 다음 대구로 진출하여 작전준비를 하도록 하였고, 7월 12일 제6002기지대대를 기지전대로 증편하였다.⁷³⁾

한편 미 극동공군사령관의 지시로 제13공군에서도 예하의 제12전폭대대를 모체로 F-51전투기대대를 편성하고 「달라스」대대라고 명명하였다. 「달라스」대대는 필리핀 「클라크」기지에서 일본 「존슨」기지로 이동하여 F-51전투기로 기종을 전환한 후 7월 10일 대구로 이동하였다.⁷⁴⁾ 제5공군은 이날 대구에서 제51전투비행대대를 창설하였고, 제51전투비행대대는 「달라스」대대와 「바우트-윈」혼성부대를 통합, 재편성하여 7월 15일부터 출격을 개시하였다.⁷⁵⁾

또한 미 제5공군은 7월 10일 「아시아」기지에서 제35전투요격전대의 제40전투요격대대가 제5공군에서는 처음으로 F-51전투기로 기종을 전환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포항에서는 병참지원을 하기 위해 7월 14일 제6131기지대를 편성하였으며, F-51전투기로 기종을 전환한 제40전투요격대대를 7월 16일 포항으로 이동시켜 작전을 하도록 하였다.⁷⁶⁾

한편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빈약한 극동공군의 전력증강 차원에서 6월 30일 처음으로 미 공군본부에 극동공군 예하의 특수분야 병력을 전시인가수준(평시의 1.5배)으로 증강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두 번째 요청에서는 F-80C기 164대, F-82기 21대, B-26기 22대, B-29기 23대, C-54기 21대, F-51기 64대 및 C-47기 15대 등 총 330대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 숫자는 예하 대대의 보유대수를 전시인가 수준으로 보강함과 동시에 전투소모 대비 10%의 예비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⁷⁷⁾

이와는 별도로 7월 1일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미 합동참모본부와 공군본부에 일본영공방위 임무와 한국에 투입할 전력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한국에 투입할 전력으로써 1개 B-29중폭격기비행단, 2개 F-51무스탕기비행단, 2개 F-82전천후기대대, 1개 병력수송비행단이 필요하며, 일본방위를 위한 전투비행단들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F-80C전투기 3개 대대, B-26경폭격기 1개비행단, 제3폭격비행단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B-26경폭격기 2개 대대, RF-51정찰기 1개 대대, RB-26야간사진정찰기 1개 대대 및 항공통제 1개 대대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⁷⁸⁾

미 극동공군사령관의 전력증강 요청을 검토한 미 공군참모총장은 자신의 판단

에 따라 7월 3일 전략공군 예하 제15공군에서 2개 B-29중폭격기 전대를 차출하여 극동공군에서 잠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승인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전략공군의 전략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나 미 공군참모총장은 38도선 이북지역의 군사목표를 파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중폭격기 전대들을 보낸 것이다.⁷⁹⁾ 이동명령을 받은 제22 및 제92폭격전대는 7월 5일부터 이동을 개시하여 7월 7일까지 매일 B-29중폭격기 10대씩 순차적으로 출발하였으며, 제22폭격전대는 오키나와의 「가데나」기지로, 제92폭격전대는 「요꼬다」기지로 이동하였는데, 양 전대는 7월 10일 모든 이동을 완료하였다.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이들 전략폭격기 전대를 통제할 새로운 지휘부가 필요하게 되자 7월 8일 「요꼬다」기지에 극동공군 폭격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공군에서 차출된 제22 및 제92폭격전대, 극동공군의 제31정찰대대(파입부대)와 제19폭격전대를 그 예하에 두었으며, 반덴버그 미 공군참모총장은 오도넬(Emmett O' Donnell) 소장을 극동공군 폭격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⁸⁰⁾

또 다른 전력증강 요청내용에 대해서는 동월 현재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형의 제트전투기 보유량이 2,500대인데 반하여 미 극동공군의 요구량이 너무 많다고 판단한 반덴버그 참모총장은 7월 4일 미 공군 군수참모부장 울프(K. B. Wolfe)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장교단을 극동에 급파하였다. 울프 장교단은 7월 7일 극동공군 측과 최종회합에서 F-82전투기는 알래스카 공군의 기종을 전환한 이후에 보충이 가능하며, 극동공군 예하의 F-80전투기 6개 대대를 F-51전투기로 기종을 전환하고, C-54수송기 2개 대대와 C-47수송기 1개 대대로 제374병력수송전대를 재편하며 F-82전천후전투기를 철수시킬 것 등에 합의하였다.⁸¹⁾ 그리고 극동공군이 요구한 야간사진정찰대와 전술항공통제단 소요에 대해서는 RB-26정찰기를 보충한 제162전술정찰대대를 버지니아주의 「랭글리」(Langley) 공군기지에서 7월 12일 출발하여 7월 18일 일본에 도착하도록 하였으며, 제502전술항공통제단과 제934통신대대를 극동공군에 배속하고, 제2무선중계대대를 「포퍼」(Popa) 공군기지에서 일본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미 본토에서는 F-51전투기의 예비보유량이 주 방위 공군부대

의 764대와 재고 794대로 여유가 있어 F-51전투기 145대를 주(州) 방위공군에서 징발하였고, 조종사와 정비사도 함께 징집하여 출항대기 중인 항공모함 「복서」(Boxer)호에 선적하였다.⁸²⁾

미 극동공군은 한국에서의 전황전개에 따라 또 다른 부대들도 필요하게 되었으며, 제5공군의 항공사진정찰 능력강화를 위해 1개 정찰기술대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미 공군은 「랭레이」기지의 제363정찰기술대대를 일본 「이다즈께」기지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다.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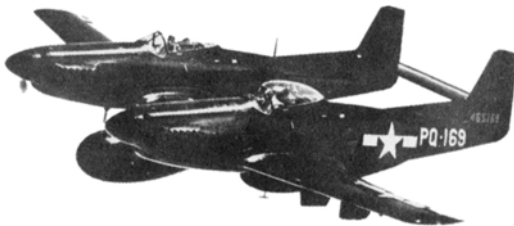
이와 같이 미 극동공군은 한국전선에 대한 효율적인 항공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예하 전술부대 재편과 한국 내의 기지를 확장하여 전술부대를 전개하였고, 나아가서는 항공전력 및 전술부대 증강 등의 노력을 계속하였다.

2. 항공작전

미 공군교리에 명시된 전술공군의 임무는 제공작전, 후방차단작전, 지상군 근접항공지원작전 등이다.⁸⁴⁾

1) 제공작전

미 극동공군이 6월 27일 공수작전을 수행 중 북한공군은 미 공군 수송기를 격추하기 위해 몇 차례 공격을 가해왔다. 이날 정오 YAK전투기 5대가 김포기지



미 공군 F-82전투기

상공에 출현하였으나 수송기를 엄호 중이던 F-82전투기 5대가 이들을 격추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하루가 지난 6월 26일 저녁 트루먼 미 대통령은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38선 이남의 공중 및

지상 군사목표를 공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맥아더로부터 이러한 권한을 위임 받은 스트레트메이어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다시 제5공군사령관에게 6월 27일 03:41 주한 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목표 공격과 남한 전역에서의 제공권을 장악하라고 지시하였다.⁸⁵⁾

6월 26일 의정부가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고 서울까지 위협이 예상되자 무초 주한 미 대사는 상선을 이용한 후송계획을 취소하고 긴급공수를 요청함으로써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6월 27일 새벽 미 극동공군에 공수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하였다. 패트리치 제5공군사령관은 공수작전에 실질적인 전투행위가 필요함을 예상하고 예하 전술부대에 “동 임무수행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허용치 말라”는 전투명령을 하달하였다.

공수준비가 완료되자 6월 27일 06:40에 첫 번째의 수송기가 제49전폭전대 제9전폭대대 소속 F-82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한국으로 향하였다.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미 극동공군에 375명의 공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공수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주한 미국인들은 김포와 수원비행장으로 몰려들어 미 제5공군은 이날 김포에서 250명, 수원에서 313명, 부산에서 375명을 공수하였다.⁸⁶⁾



미 공군 F-80 제트전투기

미 극동공군이 6월 27일 공수작전을 수행 중 북한공군은 미 공군 수송기를 격추하기 위해 몇 차례 공격을 가해왔다. 이날 정오 YAK전투기 5대가 김포기지 상공에 출현하였으나 수송기를 엄호 중이던 F-82전투기 5대가 이들을 격추하여 한국전쟁 중 최초의 공중전에서 승리를 기록하였다. 또한 이날 오후 두 차례에 걸쳐 IL-10전투기 8대가 김포기지에서 공수작전 중인 수송기에 공격을 가하여 왔으나 F-80제트전투기들은 빠른 기동력으로 대응하여 이중 4대를 격추하였다. 이 전투는 미 공군 제트전투기가 한국전쟁에서 올린 또 하나의 승리이며 제트전투기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한 재래식 전투기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⁸⁷⁾

한편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6월 27일 18:00 한국과 대만에 관한 새로운 임무를 구체화한 작전지시를 극동공군에 하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38도선 이남의 북한군 병력집결지, 전차, 야포, 보급소와 기타 군사목표를 공격 파괴할 임무와, 북한군 병력의 남한으로의 증원 저지, 한국으로부터의 후송과 보급추진 등의 임무가 그것이었다.⁸⁸⁾

또한 미 극동공군은 상부에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38도선 북쪽으로의 진입을 금지⁸⁹⁾하였기 때문에 자위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38도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⁹⁰⁾

6월 27일 저녁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탄약을 한국으로 급송하기 위하여 2척의 선박을 준비하였으나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임무를 극동공군에 지시하였다. 따라서 극동공군은 맥아더 사령관으로부터 6월 28일 「다찌가와」기지에서 수원기지로 탄약 150톤을 공수하고 해상수송선박이 한국에 도착하는 7월 1일까지 매일 200톤씩을 공수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미 제5공군은 이 임무를 제374공수비행단에 부여하고 엄호전투기도 배치하였다.⁹¹⁾

6월 28일 오전 「규슈」지역의 기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포(Bryce Poe) 중위는 적의 선도부대를 정찰하기 위하여 RF-80A정찰기로 짙은 안개가 자욱한 「이다즈께」기지를 이륙하여 목표지역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기지로 귀환하였다. 이 정찰비행은 한국전쟁 중 최초의 정찰인 동시에 최초의 제트정찰기의 출격이었다. 포 중위는 정찰비행을 마치고 돌아와 “한국의 기상상태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기지를

이륙만 할 수 있다면 임무를 마친 뒤 낮은 구름 밑으로 비행하여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출격이 가능하다"고 하여 F-82전투기들은 이날 11회에 걸쳐 출격하여 수원에서 이·착륙하는 수송기를 엄호하기 위한 전투초계를 실시하였다.

6월 28일 13:30 YAK전투기 4대가 수원기지 상공에 출현하였고, 이때 수원기지에 착륙중인 미 공군 B-26경폭격기와 제68전천후전투대대 소속 F-82전투기에 기총소사를 가하여 피해를 주었으며, 이후 18:30경에는 YAK전투기 6대가 2기 편대로 수원상공에 재차 출현하여 제6공수대대 C-54기를 공격하고 지상에 있던 제22공수대대의 C-54수송기를 파괴하는 등 북한공군은 이날 14대의 전투기가 출격하여 김포와 수원기지를 공습함으로써 제5공군 전술기 9대에 피해를 주었다.⁹²⁾

6월 29일 08:00 제19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8대가 김포기지와 서울역을 폭격하였는데 이때 YAK전투기 2대와 종류를 알 수 없는 전투기 1대가 공격해 왔으나 B-29의 사격수가 YAK전투기 2대를 격추하고 나머지 전투기를 연막으로 쫓아버렸다. 또한 이날 북한공군기가 수원비행장에 6회의 공습을 가하여 왔으며, 그 중 한 번은 YAK기 6대가 출현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적기의 공격은 미 제5공군 제트전투기의 전투초계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제트전투기들은 오전 중에 북한공군 LA-7 및 IL-10기를 격추하였다.⁹³⁾

이러한 북한공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8전폭비행단은 F-80전투기를 특이하게 운용하였다. F-80전투기들은 한강으로 비행하여 1만 피트 상공에서 전투초계를 하며 15~20분간을 머물다가 적기가 나타나면 교전을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서울지역에 있는 북한군의 교통로를 공격한 후 「이다즈계」기지로 귀환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다.

미 극동공군은 공군력에 의한 공중우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습하는 적을 완전히 제거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극동공군사령관 자신의 권한으로서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작전명령을 하달할 수가 없었다.

한편 6월 29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이 한국의 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수원에 도착하여 학교건물에서 상황보고를 받고 있을 때, YAK전투기 4대가 수원

비행장을 공격해오자 수원상공에서 전투초계 중인 F-51전투기들이 YAK전투기 4대를 격추하였다.⁹⁴⁾

6월 30일 YAK전투기 3대가 영등포역과 수원기지 등을 공격하였으며, F-80전투기와 교전하였다.⁹⁵⁾ 그 후 북한공군은 며칠 동안 전투기 출격이 없다가 7월 3일 공격을 재개하면서 YAK전투기가 한국군 선박을 공격하였고, 다른 YAK전투기 4대는 김포 남쪽에서 한국군에 폭탄을 투하하여 68명의 사상자를 냈다.⁹⁶⁾

7월 5일부터는 파괴된 김포기지 활주로를 복구하고 YAK전투기 7대를 위장하여 전개함으로써 지상군을 단거리에서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⁹⁷⁾

7월 6일 한국공군의 표지로 위장한 YAK전투기 4대가 오산의 통신중계소를 파괴하고⁹⁸⁾ 7월 10일과 11일에는 미 제5공군 전술기들이 가까이 에 없는 틈을 타서 YAK전투기 4대가 진천과 청주지역에서 전투 중인 우리 지상군에 공습을 가하였다. 한편 7월 11일 또 다른 YAK전투기 3대는 청주지역에서 우리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하려던 F-80전투기 편대를 기습하였다. 그러나 F-80전투기 편대 조종사들은 YAK전투기의 기습을 피하면서도 연료부족으로 반격할 수가 없었다.⁹⁹⁾



격추된 북한공군 YAK전투기

7월 12일 북한공군 조종사들은 매우 적극적인 공세를 감행하였다. YAK전투기 2대가 서울근교의 목표를 단기로 공격하고 있던 B-29중폭격기 1대를 격추하였으며, 이날 15:00에는 YAK전투기 3대가 조치원 부근 전선에서 기총공격 중인 F-80전투기 편대를 기습하였다. 이 날도 제5공군 조종사들은 YAK전투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으나 연료부족으로 YAK전투기를 추격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이 미 극동공군은 북한공군기의 적극적인 공세가 계속되자 미 제5공군에게 공중초계를 더욱 강화하고 제공권 장악을 위하여 공격을 계속하도록 명령하였다.

2) 후방차단작전

북한군이 전장에서 병력과 물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수송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아군의 저지 없이 어떤 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전선으로 수송되는 북한군의 증원 병력과 장비, 보급물자 등의 차단이 요구되었다. 후방차단작전은 전술공군의 두 번째 임무로써 적군을 전장에서 고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장에서 북한군을 고립시키려면 전장으로 통하는 모든 교통로를 차단해야 하며, 효과적인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후방차단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공격을 해야 하는 것이다.¹⁰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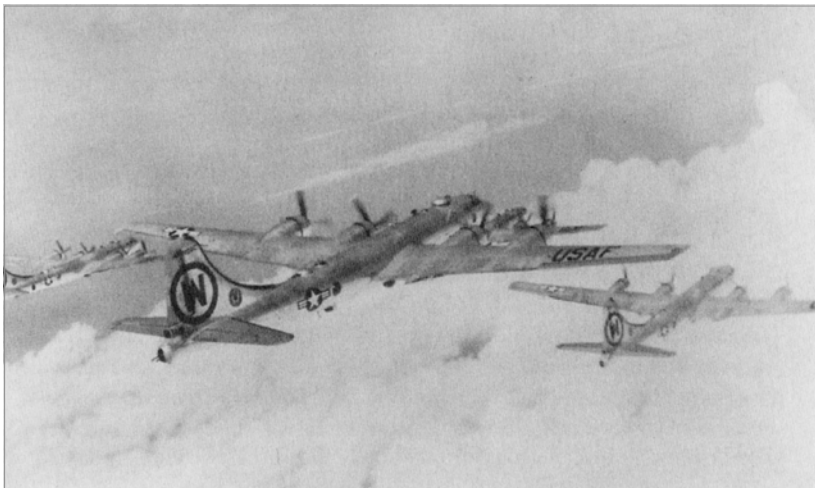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6월 29일 미 극동공군에게 한국군이 파괴하지 못한 한강복선철교를 폭격하라고 지시하였고,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공중우세 확보를 위해 38도선 이북의 북한 비행장을 파괴하도록 미 극동공군 전력의 북한진입을 승인하였다. 이 지시는 곧 바로 실행에 옮겨졌으나 다음 날부터는 모든 극동공군의 역량을 한강선의 이동목표에 집중하게 되었다.¹⁰¹⁾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1일 B-29중폭격기 승무원들에게 지정된 교량목표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계속하여 폭격할 것과 한강 이남의 주요교량을 모두 파괴할 것을 예하 전술부대에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극동공군 예하 전술부대들은 각종 전투기와 폭격기로 한강 이남지역에서 북한군의 주요교통로

를 차단하는데 전력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제5공군은 임무 조종사들에게 부여할 구체적인 후방차단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이동중인 군사목표를 찾아서 공격하도록 하였다.¹⁰²⁾

한편 6월 28일 「괘」의 「앤델슨」기지에서 「가데나」기지로 이동한 미 제20공군의 제19폭격전대는 오후 늦게 B-29중폭격기 4대를 한국으로 출격시켰다. B-29중폭격기 2대는 서울-개성간의 철도와 도로를 폭격하였고, 나머지 2대는 서울-의정부간의 도로를 폭격하였으며,¹⁰³⁾ 각 폭격기는 폭격할 가치가 인정되는 목표물에 무조건 폭탄을 투하하였다. 미 극동공군이 전술작전에 전략폭격기인 B-29중폭격기를 투입한 것은 항공작전 개념상 부합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전술작전이 수행된 데에는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이 최대한의 공군력 과시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¹⁰⁴⁾

6월 29일 03:00 처치 준장이 B-29중폭격기로 하여금 한강북쪽 제방에 집결하고 있는 북한군병력과 한강철교를 가능한 한 동이 트기 전에 공격하도록 조치할 것을 맥긴 중령에게 지시하였다. 맥긴 중령은 시간여유도 없이 불충분한 통신수단으로 B-29중폭격기를 곧 바로 출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뒤



출격 중인 미 공군 B-29중폭격기

국무성암호로 동경의 극동군사령부에 타전하였다. 거의 같은 시간에 B-29중폭격기들이 서울역과 철도조차장, 김포기지 시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고 「오끼나와」의 「가테나」기지를 이륙하였다. 동경에서 처치장군의 요청을 알고 있었다면 이들 B-29중폭격기가 탑재한 파괴용 폭탄으로 한강철교를 폭파할 수 있었을 것이나 맥킨 중령이 보낸 메시지는 6월 29일 12:55에야 미 극동공군에 전해졌다. 그 이유는 수원과 동경 간에 비밀이 보장된 통신망이 없어 주한 미 대사관과 미 국무성간에 사용하던 통신망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이 통신은 일단 워싱턴에서 암호를 해독한 다음 동경으로 전달된 것이었다.¹⁰⁵⁾ 이날 08:00 제19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8대는 3,000피트 저고도에서 500파운드 폭탄으로 김포기지와 서울역을 폭격하였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미 CIA의 보고에 의하면 이 폭격으로 상당수의 북한군이 살상되었다고 하였다.¹⁰⁶⁾ 그리고 한강철교 파괴요청을 뒤늦게 알게 된 제5공군은 B-26경폭격기를 출격시켜 한강에 나란히 있는 3개 교량 중 북판교량 위를 북개공사 중인 북한군을 공격하여 복개된 북판교량을 별 집처럼 만들었다.¹⁰⁷⁾

한편 맥아더 극동군사령관과 함께 6월 29일 한국 전선시찰에 동행하였던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끊임없는 항공엄호는 전투 목적에 기여하게 될 공군력을 소모할 뿐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한반도 영공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내 비행장을 단호하게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38도선 이북의 적 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도 좋다고 극동공군사령관에게 구두로 승인하였다. 미 공군기의 북한진입이 승인되자 제8전술정찰대대는 북한 내 모든 비행장에 대한 사진정찰을 시작하였으나, 6월 29일 오후 늦게까지도 북한지역 내 비행장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⁰⁸⁾ 이렇게 목표에 대한 정보부족, 폭격에 필요한 제원부족에도 불구하고 제3폭격전대는 전쟁발발 이후 처음으로 38도선 이북의 평양비행장을 공격하고자 6월 29일 16:15에 B-26기 18대를 출격시켜 평양비행장의 격납고와 활주로 등에 500kg 이상의 폭탄 300발을 투하함으로써 7대의 적 항공기를 불태우고 병력과 무기고 등을 파괴하였다.¹⁰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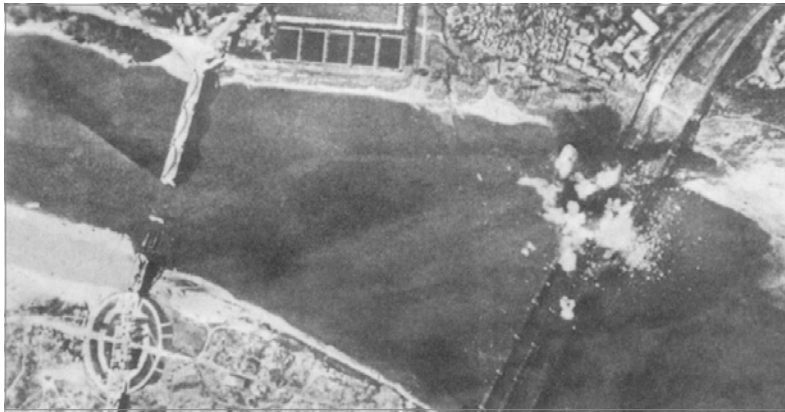
6월 29일 저녁 극동공군 작전참모들이 다음 날의 항공작전계획을 수립하는 한

편, 지상전황의 심각성에 따라 제5공군에게는 국지적인 공중우세를 유지하며 한국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고, 제20공군에게는 북한공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제19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를 이용하여 북한 내 원산기지의 적기를 파괴하도록 하였으나, 6월 30일 이른 아침 작전명령이 변경되었다. 밤 동안 전방지휘소의 처치장군이 동경과 교신하면서 한강 북쪽제방에 집결된 북한군 병력과 한강철교를 B-29중폭격기들이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 극동공군은 원산공격을 취소하고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는 한강의 북쪽제방에 집결한 북한군 병력과 도하장비를 공격하도록 제20공군에 명령하였다.¹¹⁰⁾

이에 따라 6월 30일 오전에는 모든 공군역량을 한강북쪽의 이동목표에 집중하였으며, 제19폭격전대 B-29중폭격기 15대가 출격하여 한강에 포진한 북한군 부대에 파열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공격의 성과에 대해 극동공군은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전방지휘소의 한 장교는 “한강에서 너무 떨어진 곳을 폭격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처치준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제5공군사령관은 다시 제3폭격비행단 B-26경폭격기 18대를 출격시켜 서울주변의 북한군 병력과 수송행렬을 기총, 로켓 및 폭탄으로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날 오전 서울 한강철교를 정찰하던 제31정찰대대의 정찰기는 한강북선철교를 건너려고 줄을 잇고 서 있는 북한군의 전차, 트럭, 차량들을 발견하였는데 교량위의 복개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앞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뺄뺄이 몰려 뒤로 빠지기도 힘든 상태였다. B-26경폭격기들은 나란히 비행하면서 모든 화력을 총 동원하여 이들을 폭격하였다.¹¹¹⁾

7월 1일 제19폭격전대 B-29중폭격기 12대가 한강철교를 폭격함으로써 북한군의 남진속도를 지연시켰다.

7월 2일 북한의 연포비행장에 적기 65대가 집결해 있다는 보고를 접한 미 극동공군은 제19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10대를 출격시켰다. 그런데 B-29중폭격기 승무원들은 연포에 도착했을 때 단지 16대의 항공기만이 지상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중 9대를 파열폭탄으로 파괴하였다. 또한 7월 3일 최초로 전투에 참가한 미 극동해군 제7함대 항공모함 「벨리포지」(Valley Forge)호에서 해군 제77



파괴된 한강인도교와 미 공군에 의해 폭격 중인 한강철교

특별기동부대가 7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북한의 평양과 온정리비행장, 대동강 교량 등을 폭격하였다. 함재기 조종사들은 이틀간의 공격에서 지상의 적기 10대를 파손시키고 비행 중인 YAK전투기 2대를 격추시켰다.¹¹²⁾ 이어 7월 5일은 제19 폭격전대 B-29중폭격기 15대가 평양과 신안주의 철도 및 교량을, 7월 6일은 B-29중폭격기 16대가 원산 정유소와 진남포 선착장 및 교량을, 7월 7일은 B-29중폭격기 11대가 원산의 항구시설·질소비료공장·정유소 등을, 7월 8일은 B-29중폭격기 8대가 진남포 선착장을 폭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북한군은 이때부터 방공부대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대공포부대의 수를 증가시키려는 여러 방안을 시행하였다.¹¹³⁾

그러나 전쟁개시 이후 1개월여가 경과할 때까지도 미 극동공군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후방차단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폭격을 가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미 극동군사령부 참모들이 전 공군력을 타 임무에 앞서 근접항공지원 작전에 집중되어야 하며 후방차단작전도 근접지원 작전지역과 차별이 없는 전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목표선정은 극동군사령부 목표분석단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¹¹⁴⁾

한편 미 극동공군은 7월 8일 「요꼬다」기지에 폭격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강 이북의 전쟁목적에 사용되는 공업목표 등 주요시설을 파괴하도록 하였다.¹¹⁵⁾

그러나 미 제24사단이 위협에 직면하자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이 사령부 참모들의 주장대로 7월 9일 극동공군의 전 B-29중폭격기를 동원하여 악전고투하는 지상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미 극동공군은 제19폭격전대에 부여한 평양과 원산 및 서울조차장에 대한 폭격계획을 취소하고 지상군작전을 지원하였다.¹¹⁶⁾ 이에 따라 이날 B-29중폭격기 10대가 전선 25~30마일 후방에 위치한 북한군 보급로상의 교량을, 7월 10일에는 B-29중폭격기 10대가 평택-천안간 철도·전차·병력집결지 등을, 7월 11일은 B-29중폭격기 10대가 전선지역의 보급저장소와 교량 등을, 7월 12일에는 제92폭격전대의 첫 임무로 B-29중폭격기 11대가 전선 후방 30~50마일 떨어진 적진에 출격하여 교량과 통신시설, 그 밖의 교통목표를 공격하였다.¹¹⁷⁾

또한 7월 13일에는 제22 및 제92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55대가 출격하여 원산의 병력집결지, 철도조차장 및 정유공장을 폭격하였다.¹¹⁸⁾ 그런데 이 임무가 끝나자 극동군사령부가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B-29중폭격기 전대를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작전에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폭격사령부는 7월 하순까지 주로 지상군작전을 지원하였다. 특히 한강철교 차단임무를 부여받은 제19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는 4주일간에 걸쳐 매일 한강철교를 폭격하였으나 파괴하지 못하였다.¹¹⁹⁾

이와 같이 미 극동공군의 폭격기들이 지상군지원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북한군은 38선 이북의 안전한 교통망을 이용하여 많은 보급물자를 서울지구로 수송하였으며, 서울지구에서는 다시 각 전선으로 수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 극동공군 부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소장은 "이것은 마치 폭포 밑에서 한 줄기의 물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¹²⁰⁾

3) 근접항공지원작전

(1)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전장에서의 미 육군항공대는 각 군단과 사단에만 항공

통제반을 배치하였으나, 기갑사단은 기갑연대까지도 따로 전투지휘소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기갑연대에도 항공통제반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한국전 당시 공지합동작전 교리에는 항공통제반의 할당배치에 관한 정원표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특정 전선에서 그때그때의 근접항공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사단, 연대, 대대에 전술항공통제반을 할당,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패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한국전 초기부터 적과 조우하여 전투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군 보병연대와 연대급 이상의 상급부대, 그리고 한국군의 각 사단과 군단에 전술항공통제반을 할당 배치하였으며,¹²¹⁾ 그 후 공지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술항공통제기구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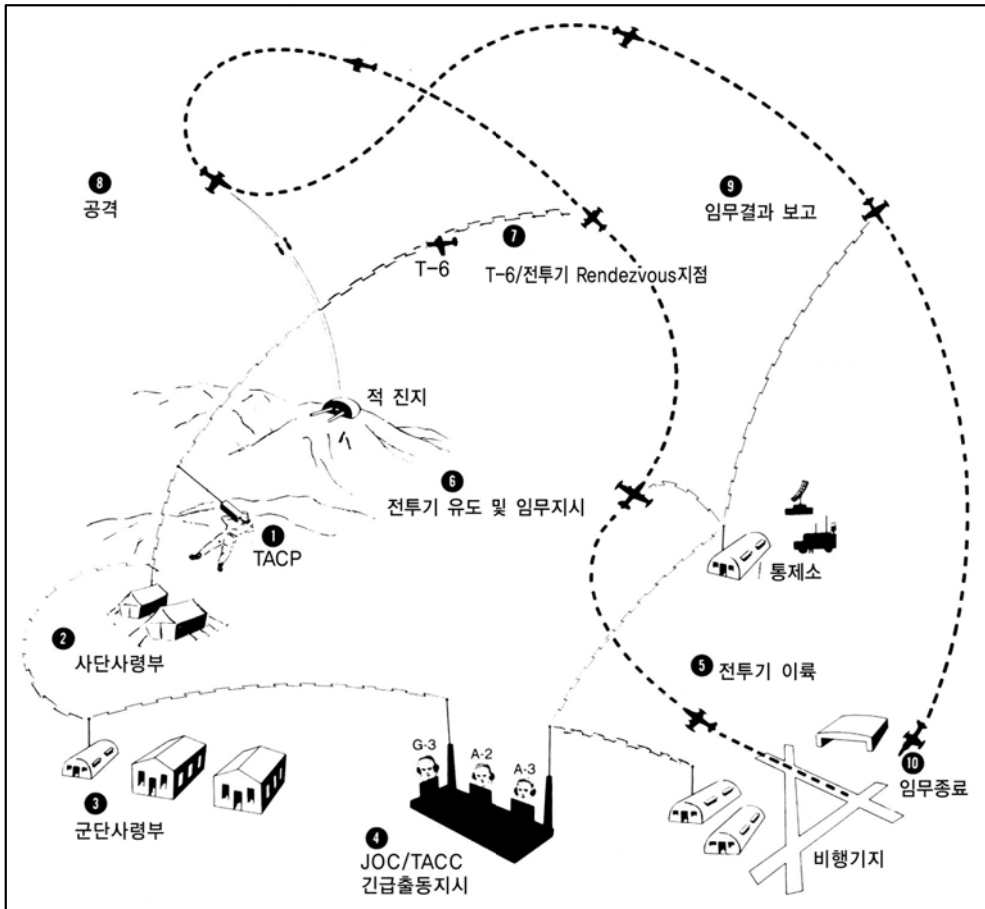
전술항공통제기구에는 합동작전본부, 전술항공통제본부, 전술항공통제반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육군과 공군의 작전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공지합동작전 교리상의 합동기구인 합동작전본부(JOC: Joint Operation Center)는 공지합동작전을 위한 야전군과 전술공군의 중계기구로 전투정보의 교환을 도와주며, 육군지휘관에게는 항공지원을 제공해 주고 공군지휘관에게는 항공지원계획 및 통제를 동시에 제공해 준다. 이 합동작전본부는 육군장교로 편성하여 육군의 항공지원요청을 종합 검토하는 공지작전과와 공군장교로 편성하여 각 전술공군부대에 전술기 출격을 지시하는 전투작전과로 구성되어 있다.¹²²⁾

또한 이 합동작전본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용되는 전술항공통제본부(TACC: Tactical Air Control Center)가 있는데 이것은 공군의 활동을 지시하는 기구이다. 이 전술항공통제본부는 전술공군부대의 항공기를 유도하고 경보기능을 수행하는 중추적인 기구이며, 전술공군사령관은 이 전술항공통제본부를 통하여 모든 공중 활동을 지휘 및 통제한다. 즉 전술항공통제본부의 임무에는 공중공격 뿐만 아니라 공중방어까지도 포함되며, 합동작전본부 전투작전과의 지시에 따라 근접항공 지원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기 등을 지휘 및 통제한다.¹²³⁾

이와 함께 공지합동작전을 현지에서 직접 수행하는 전술항공통제반(TACP: Tactical Air Control Parties)이 있는데 이것은 전방 지상군부대에 배치되어 할당된 목표에 대한 전술기의 공중공격을 유도하는 기구이다.¹²⁴⁾

따라서 공지합동작전은 <상황도 10-3>과 같이 전방부대에 배치된 전술항공 통제반에서 지상군 사단 및 군단 사령부를 거쳐 합동작전본부에 항공지원을 요청하면, 전술항공통제본부는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켜 목표 지시는 물론 공중 전방항공통제기(Airborne-FAC, T-6 모스키토)와 만날 지점(Rendezvous Point)까지 유도한다. 그리고 공중 전방항공통제기는 전투기를 목표지역에 유도하여 표적을 타격하도록 하고, 타격을 실시한 전투기는 통제소에 임무결과 보고 후 기지에 착륙함으로써 임무가 종료된다.¹²⁵⁾

<상황도 10-3> 공지합동작전(근접항공지원작전) 절차 요도



제5공군사령관은 미 육군 제24보병사단이 참전하게 됨으로써 대전에 합동작전 본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7월 3일 「이다즈께」기지에서 사령부의 장교 10명과 제8통신대대의 사병 35명을 전투작전과 요원으로 차출하여 미 제5공군 작전과장 머피(John R. Murphy) 중령을 그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머피 중령은 7월 5일 병력 및 장비를 대전으로 이동하여 미 제24사단 G-3사무실 옆에 합동작전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육군의 항공지원요청을 검토하는 공지작전과에 육군장교들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머피 중령은 전투작전과 요원 중 우수한 공군정보장교들을 선발, 그들로 하여금 육군부대를 방문하게 하여 항공공격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목표들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투작전과에서 가치 있는 목표를 확인했을지라도 일본과의 통신회선 중 약 75%가 고장이었기 때문에 「이다즈께」기지에 있는 제5공군 전방사령부와의 연락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¹²⁶⁾ 이와 같은 통신상태를 파악한 제5공군 부사령관 팀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 준장은 주간에 「이다즈께」와 「아시아」기지에서 F-80 전투기를 25분마다 한대씩 대전으로 출격시켜 이 F-80전투기들이 호출부호 「엔젤로」로 통하는 머피 중령의 통제소와 접촉을 갖도록 하였다.

머피 중령은 대전으로 전개한 4개의 전술항공통제반과 극동군 전방지휘소에 파견된 제620항공관제 및 경비대대의 2개 전술항공통제반이 있어 총 6개의 전술항공통제반을 운영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전술항공통제반은 AN/ARC-1무전기를 적재한 지프차로 항공기를 관제하였으나 그것이 너무 무겁고 파손되기 쉬워 한국의 거친 도로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제트전투기들도 항속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목표를 포착하기 위해 목표지역 상공에서 오랫동안 체공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근접항공지원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의 해결책으로 머피 중령은 항공기를 이용한 기상관제를 하기 위해 정찰과 관제비행을 할 수 있는 조종사 5명과 작전장교 1명을 제5공군에 지원요청을 하였다. 이에 제5공군은 7월 9일 조종사 2명과 4채널 고주파무전기를 장착한 L-5G 연락기를 보냈지만 무전장비를 조작할 수 없어 이날 미 제24사단으로부터 L-17기 2대를 빌려서



미 공군 T-6 「모스키토」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주 훌륭하였다. 한편 L-5기가 기상관제용으로 적합하지 않자 7월 10일 미 제5공군으로부터 T-6기 1대가 대전에 도착함으로써 이후부터는 모든 기상관제용 L-형 항공기를 T-6기로 대체하여 기상관제를 실시하였다. 그 뒤 북한군 제3사단과 제4사단이 대전을 위협하자, 기상관제반은 대구로 이동하여 「모스키토」(Mosquito)라는 호출부호를 가지고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7월 16일에는 합동작전본부의 주력이, 그리고 7월 19일에는 그 잔류 병력이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하였다.¹²⁷⁾

한편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은 7월 13일 한국에 투입된 미 지상군, 주한 미군사(USAFIK), 주한 전방지휘소(ADCOM) 및 주한 미 군사고문단(KMAG) 등의 지휘권을 대구에서 인수한 다음 지휘소를 「주한 미 제8군사령부」로 명명하고, 합동작전본부의 공지작전과에서 근무할 육군장교를 파견함으로써 7월 14일부터 제5공군과 제8군의 협조기구인 합동작전본부가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¹²⁸⁾

또한 제5공군사령관은 7월 14일 「이다즈계」기지에서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통제 및 경보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잠정기구로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를 편성한 후 대구로 이동시켰다. 대구에 도착한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는 합동작전본부

옆에 전술항공통제본부를 설치하고 「멜로우」(Mellow) 통제소를 포함한 한국에 있는 모든 전술항공통제반을 흡수하고 미 제8군의 부대확장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전술항공통제반을 제공 및 운용하는 등 본격적인 전술항공통제본부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합동작전본부, 전술항공통제본부 및 전술항공통제반 등의 모든 전술항공통제기구가 대구기지에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5공군에서는 근접항공지원작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토록 하였다. 즉, 한국 내에 들어가는 모든 전투기는 전술항공통제본부의 「멜로우」라는 호출부호를 부르며 동본부에서는 합동작전본부에서 요청하는 공격목표를 전투기에 부여하였다. 또한 「모스키토」 및 전선지역에 있는 전술항공통제반과 접촉하는데 필요한 지시도 하였다. 그리하여 임무를 완수한 전투기들은 귀환하면서 「멜로우」를 호출하고 전과를 보고하면, 전술항공통제본부에서는 목표지역을 다시 확인하여 그 전과를 검토하였다.¹²⁹⁾

(2)

북한 지상군은 6월 27일 전 전선에 걸쳐 공격을 계속하였다. 북한군 제4사단은 북쪽에서, 제3사단과 전차연대는 북동쪽에서 서울로 접근해 왔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¹³⁰⁾ 이에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이날 18:00 수원에 「전방지휘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미 극동공군에게는 38도선 이남의 북한군과 전차, 포 등 모든 군사목표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에 스트레트메이어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이날 제5공군에 사진 및 육안 정찰을 계속하고 B-26경폭격기 출격을 명령하였으며, B-26경폭격기 2개 대대, F-80전투기 4개 대대, F-82전투기 2개 대대로 최대한의 전투를 수행하라고 하였다.¹³¹⁾

북한군 제3사단, 제4사단 및 전차여단이 6월 28일 서울과 여의도기지를 점령하였으며, 이날 제5공군 전술기들은 북한군부대에 대한 공습을 전개하였다.¹³²⁾ 한편 팀버레이크 제5공군 부사령관은 이날 아침 한국군 지원을 위한 항공공격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수원에 있는 전방지휘소의 맥긴 중령에게

제620항공관제 및 경보대대 소속 2개 전술항공통제반과 고성능무전기가 장착된 지프차 2대를 보냈다.¹³³⁾ 이에 맥긴 중령은 이중 1대를 항로통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수원상공에 도착한 전투기의 목표유도용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맥긴 중령은 목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의 상황도를 보면서 선정하기도 하고, 미 극동공군 전략정보 제8지역대장인 니콜스(Donald Nichols) 준위가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¹³⁴⁾ 미 제8전폭비행단은 맥긴 중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지상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란(Charles B. Moran) 중위를 새벽에 수원으로 보냈다. F-82전투기로 수원기지에 도착한 모란 중위는 미 전방지휘소에서 상황도를 복사한 후 「이다즈께」기지로 돌아가 피아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날 제8전폭비행단은 오전과 오후에 F-80전투기 6개 편대를 출격시켜 서울 북방에 위치한 북한군 전차와 트럭, 포 등을 공격하였는데 이는 50마일 밖에서도 그 화염을 볼 수 있었을 정도였다.¹³⁵⁾

북한군 제6사단이 6월 29일 김포기지를 점령하였고, 북한공군 전투기들은 서울남쪽의 철도역, 비행기지, 문산지역, 국군 제1사단 전투대열 등을 공습¹³⁶⁾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에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6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B-26경폭격기들이 한국지상군에 대해 근접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¹³⁷⁾ 이날 미 극동공군은 한국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B-26경폭격기 22대, B-29중폭격기 12대, F-80전투기 70대, F-82전투기 15대가 출격하였으며,¹³⁸⁾ 특히 제68전천후전투대대 F-82전투기는 처음으로 북한군 진지에 화염폭탄 대응으로 연료탱크를 떨어트려 네이팜공격을 시작하였다.¹³⁹⁾

북한 지상군은 주력부대를 재정비하고 6월 30일 아침부터 제2단계 작전계획 수행을 위해 수원 방면으로 진격을 계속하였으며, 제5공군은 북한군 제3사단의 한강도하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한강철교, 서울북방의 철도교량, 기차역 등을 폭격하였다.¹⁴⁰⁾ 이날 오후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는 한국군의 한강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계속되는 미 제5공군 전술기의 폭격 때문에 한강철교로 도하하지 못한 대신 서울 동남부에서 탱크와 병력을 한강 이남으로 도하하였다.¹⁴¹⁾ 이날 17:00 맥긴 중령은 수원의 전방지휘소로 호출

되었고, 차상급자로부터 전방지휘소를 후방으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참석자 전원에게 말하였다. 모든 암호자료를 파괴하고 모두가 수원비행장에 모였는데 21:40쯤 처치 준장과 무초 대사도 합류하였다. 처치 준장은 처음에는 수원을 떠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으나 의논한 끝에 전방지휘소는 차량을 이용하여 대전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다.

7월 1일 북한군 일부가 한강을 도하하여 남쪽 강안에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북한군은 아 지상군의 강력한 저항과 항공공격으로 많은 전투손실이 있었다.¹⁴²⁾ 북한군은 이처럼 제19폭격전대 소속 B-29중폭격기의 한강철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남진속도도 지연되었다. 이러한 북한군의 취약점을 간파한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B-29중폭격기 승무원들에게 지정된 교량목표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남김없이 계속 폭격할 것과 한강 이남의 주요 교량을 모두 파괴하도록 제5공군에 명령하였다. 북한군이 항공공격에 취약한 또 다른 이유는 북한 지상군은 항공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¹⁴³⁾

제5공군 작전장교들은 B-26경폭격기, F-80 및 F-82전투기를 투입하여 저고도에서 북한군을 공격하도록 계획하여 처음에는 제3폭격전대의 경폭격기들이 대단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와꾸니」기지에서 출격한 B-26경폭격기들은 북한군의 교통호를 정찰하여 기관포, 로켓 및 폭탄 공격에 적합한 목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연료를 유지하였고, 전천후 F-82전투기도 야간에 한강연변의 목표들을 탐색하며 북한지역까지 중폭격기를 호위할 수 있는 체공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F-80전투기 편대는 육군연락기 또는 전방항공통제관들로부터 특정 목표를 지시받았으며, 특정 공격목표가 없을 때에는 조종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북한군의 교통로를 정찰, 공격목표를 탐색하여 공격하도록 명령을 받았다.¹⁴⁴⁾

피아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상전투 상황 때문에 미 극동군사령부는 7월 1일 공식 폭격선을 한강남안을 따라 설정하고 이 폭격선 북쪽의 목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공격하도록 하였으나, 이남의 목표에 대해서는

승무원들이 공격에 앞서 피아를 확인한 후에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패트리시 제5공군사령관은 예하 전술부대 조종사들이 한국군을 식별하는 문제를 극동군사령부에 제기하였고, 극동군사령부로부터 한국군은 백색 표식판에 태극기를 휴대하게 할 것이라는 회답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군도 같은 방법으로 위장할 가능성이 농후하였으며, 조종사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공중에서 한국군을 식별하기란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조종사의 혼동으로 일어나는 재난을 피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호주공군 제77전투비행대대 소속의 F-51 전투기 5대가 출격 2일째인 7월 3일 오산과 수원 사이에서 한국군을 북한군으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¹⁴⁵⁾ 이에 앞서 제5공군 전방사령부는 북한군의 수송대열이 남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보고는 동경을 거쳤으나 수 시간 후까지도 작전실무자에게는 통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5공군 작전실무자들은 보고의 지연시간을 감안, 북한군 수송대열이 무스탕기의 공격을 받은 시간부터 대략 어느 정도 전진하여 어디쯤에서 발견될 수 있겠는지를 역으로 추적하였다. 그 결과, 당시 한국군은 불행하게도 북한군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위치에 있었다.

이 사고가 있는 직후 7월 7일 처음으로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주한 미 육군에 현실적인 폭격선을 설정할 것과 날마다 정기적으로 아군폭격선의 변경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또 맥아더는 한국군도 미 지상군의 식별표식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위와 옆에 백색페인트로 별을 그려 넣도록 제24사단장 딘 소장에게 지시하였다.¹⁴⁶⁾

한편 미 제5공군은 7월 1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의 출동명령을 받은 미 육군 제24보병사단 병력을 한국으로 공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24사단측에서는 우선 사단본부와 보병 2개 대대를 한국에 공수하고, 나머지 병력은 「후쿠오까」항에서 선박 편으로 부산항으로 수송할 계획이었다. 공수임무를 담당할 제374수송비행단은 대당 50명을 태울 수 있는 C-54수송기를 이용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3일 동안에 제 24사단 본부와 2개 대대 병력을 한국에 공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병력수송 중인 미 공군 C-54 수송기

생각하였으나 기상과 수영비행장의 빈약한 활주로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늦게 미 제24사단 병력을 실은 C-54수송기 6대가 수영비행장에 착륙하였으나, 그 후 다시 기상악화로 나머지 수송기들은 착륙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C-54수송기의 본격적인 병력공수는 7월 2일 아침부터 시작되었는데 수영비행장 활주로의 얇은 콘크리트 표면은 수송기의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제374수송비행단은 이날 수영비행장의 활주로가 더 이상 C-54수송기의 하중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5:00경 좀더 가벼운 C-47수송기로 공수작전을 재개하여 7월 4일 해질 무렵 제24사단 병력의 공수임무를 종료하였으며, 이로써 미 육군 제24보병사단장 딘 소장은 이날 대전에서 주한미군사령부를 설치할 수 있었다.¹⁴⁷⁾

7월 1일 오후 부산에 공수된 미 육군 제24보병사단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트럭과 철도편으로 대전을 경유하여 북상하자 7월 3일 전술항공통제반이 이 부대와 합류하였다. 북한군은 7월 4일 수원을 점령하였고, 다음날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이 수원지역에서 평택, 천안방면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¹⁴⁸⁾ 이에 스미스특수임무부대는 7월 5일 03:00 수원남방 14km 지점인 오산근처 죽미령에

포진한 가운데 이날 10:00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사단 선두부대들과 첫 전투를 하였다.¹⁴⁹⁾

죽미령을 돌파한 북한군이 7월 6일 평택부근까지 남진을 계속하자 제3폭격비행단의 B-26경폭격기 6대가 평택북방에 집결한 북한군 전차 및 차량들을 폭탄, 로켓 및 기관포로 공격하였으며, 그 후 다른 B-26경폭격기 3대가 평택북방의 북한군 차량집결지를 재차 공격하였다. 저고도에서 공격하던 경폭격기의 승무원 1명이 적의 대공포화로 사망하였으나, 이 공격으로 6-10대의 북한군 전차가 불타고, 많은 차량과 마차, 대공기관포 등이 파괴되었다. 또한 제5공군 전술부대들은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서울-평택간의 도로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하며 목표를 색출하는 방법으로 차량 197대와 전차 44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¹⁵⁰⁾

또한 제5공군은 7월 9일 이천-음성 사이의 도로 상공에서 YAK전투기 2대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으나, 전술항공통제반에서 L-17기를 이용한 적극적인 유도로 F-80전투기 10개 편대를 동원하여 북한군을 공격하였다.¹⁵¹⁾

이러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미 제24사단은 7월 8일 천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전세는 절망적이었다. 7월 9일 미 제24사단이 천안을 포기했다는 보고를 접한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우선적으로 미 제24사단을 위협하는 북한군에 대한 공격에 모든 전투력을 집중시키도록 미 극동공군에 긴급 명령하였다.¹⁵²⁾

7월 10일 10:00 북한군 제4보병사단은 공주-논산으로의 진격명령을 받고 임무수행 중이었다. 이때 F-80전투기 1개 편대가 오후 늦게 평택상공을 비행하던 중 구름사이로 파괴된 교량의 북단에 길게 늘어선 전차 및 차량행렬을 발견하자 즉시 「이다즈케」기지에 연락하였다. 제5공군은 가동할 수 있는 F-80 및 F-82전투기, B-26경폭격기를 모두 출격시켜 20:00경 북한군이 이동 중인 운궁리(공주 북방 14km) 지역을 강타한 끝에 북한군 전차 38대와 차량 117대, 반 궤도차량 7대 등을 파괴하고 다수의 병력을 살상하였다.¹⁵³⁾ 또한 이날 제19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10대가 천안-수원간의 도로에서 이동중인 북한군 기계화 부대를 목표로 출격하였다. 그러나 전선에 있는 전술항공통제반과의 무선접촉이 이루어지지 않

아 조종사들이 목표를 탐색하며 수차례 폭격을 하였지만 화차 20량을 연결한 기관차 1대를 파괴한 외에 다른 목표가 파괴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전력운용의 잘못으로 기대만큼의 큰 전투효과를 얻지 못한 적도 있었으나 7월 7일부터 4일 동안 미 극동공군의 집중적인 공중공격이 있는 뒤부터 북한 지상군은 기만 및 위장전술을 사용하였다. 차량과 전차는 나무 밑이나 골짜기 혹은 가옥 속에 숨겨 놓았다가 가동할 때에는 풀을 쫓아 위장하거나 이미 파괴된 장비를 실제인 것처럼 위조하여 전술기로 하여금 공격케 함으로써 가치 없는 목표물에 폭탄을 소모하도록 하는 위장전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항공공격을 피해 주간에는 숨어 있다가 야음을 이용하여 행동하였으며, 간혹 평지에서 전투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도 산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투기를 향하여 손을 흔들어 피아를 식별할 수 없도록 혼란에 빠트리는 술책을 쓰기도 하였다.¹⁵⁴⁾

한편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7월 10일 북한군 제2사단이 중부의 안성-제천 축선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던 제24사단장에게 미 지상군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제5공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한국군과 미 제24사단은 지연전을 계속하면서 후퇴를 거듭하여 7월 11일 조치원과 공주의 금강 북안에 도달하였으며,¹⁵⁵⁾ 패트리치 제5공군사령관은 이날에도 제24사단에 대한 항공지원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날 B-29중폭격기 8대는 제5공군의 전술항공통제본부와 무선접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원주, 진천, 평택 등지의 북한군을 공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¹⁵⁶⁾ 7월 12일에는 B-26경폭격기 10대가 미 제24사단에 대한 지원을 위해 원주, 진천 및 평택에 있는 북한군을 목표로 공격하였다.¹⁵⁷⁾

맥아더 사령관은 7월 13일 금강방어선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미 극동공군사령관에게 음성, 장호원, 제천 및 장회리 일대의 철도분기점, 교량 및 기타 목표에 최대한의 B-26 및 B-29폭격기 공격을 집중하도록 지시하였고,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전선의 아군부대에 대한 북한군의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공격을 집중하도록 하였다.¹⁵⁸⁾

그리하여 7월 14일 아침 제92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10대가 「요꼬다」기지

를 9분 간격으로 이륙하여 제5공군 「엔젤로」통제소의 유도하에 청주 부근의 목표를 할당받고 성공적인 폭격임무를 수행하였으며, 7월 15일에도 제92폭격전대는 지상군 지원을 계속하였다. 이날 제92폭격전대는 김포비행장에 북한공군 YAK전투기가 전개해 있다는 정보에 따라 통제소의 유도로 B-29중폭격기 3대가 김포기지를 폭격하였으며, 다른 B-29중폭격기 8대는 청주 부근의 목표를 공격하여 철도터널 입구 1개소와 철교 2개소를 파괴한데 이어 원주 조차장을 폭격하였다.¹⁵⁹⁾

미 극동공군은 각종 전투기와 폭격기로 한강 이남지역에서의 모든 이동목표에 대한 폭격임무를 용이하게 수행함으로써 미 지상군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종사들은 주로 로켓과 네이팜을 사용하면서 북한군 전차 등을 격파하였다.¹⁶⁰⁾ 특히 F-80전투기들은 이 기간 동안 전투출격 횟수의 70%를 차지하였으며, 북한군이 항공기 공격으로 입은 피해의 85%가 F-80전투기에 의한 것이었다.¹⁶¹⁾ F-80



네이팜탄으로 파괴된 북한군 전차

전투기는 북한군의 병력과 수송망을 공격하고 B-26경폭격기는 전선 배후의 보급물자집적소와 교량 등을 파괴함으로써 제5공군이 지상군 작전에 대한 화력지원의 큰 몫을 담당하였음은 물론, 대구 제51전투비행대대의 F-51전투기들도 전선이 위협했던 이 시기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은 "전쟁 초에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제5공군의 힘이며, 만약 제5공군의 지속적인 공중공격이 없었다면 병사들이 아무리 용감하였다 하더라도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⁶²⁾

이와 같이 극동공군은 이 기간 동안 지상군 지원을 위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전력을 집중 운영하였다.¹⁶³⁾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임무별 분석

1) 제공작전

북한군은 전쟁을 계획하면서 이미 한국공군의 전력열세를 잘 알고 있었고, 초전에 남한의 주요 비행장 및 교통시설 등을 공격함으로써 한국공군에 대해 쉽게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확신은 6월 29일 안양에서 격추되어 포로가 된 북한공군 조종사가 “소련고문관들은 우리에게 남한폭격을 명령하였는데 그것은 남한이 소형 항공기 몇 대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공군에는 조종사가 80명뿐이며, 그 중 10명은 아주 우수한 조종사이고, 40명은 숙달된 조종사이다”라고 한 말을 통해서 북한공군이 단기간에 남한에서 제공권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⁶⁴⁾

이와 같이 북한공군이 조종사가 부족한 가운데 한국에서 공중우세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던 것은 한국공군의 전력이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정확한 정보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로 한국공군은 개전 초기에 북한군 전차와 전투기를 격파할 전투기를 단 한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미 극동군사령부의 개입과 아울러 미 극동공군 전력의 활동으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미 극동공군도 6월 28일까지는 38도선 이북에 대한 공격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북한공군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공군은 그들의 군사목표를 계속 공격하게 되었고, 북한

군은 38도선 북쪽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가운데 보급물자를 집적하며 병력을 징집, 남쪽 전선으로 보내고 있었다. 북한군은 병력과 보급물자를 수송하는 사흘 동안이나 항공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미 극동공군은 북한지역의 적을 공격할 권한이 없었다. 그 후 6월 29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이 항공작전을 북한지역까지 확대하도록 미 극동공군에 인가하면서 비로소 항공작전에 활기를 띠었으나 보다 신속한 판단으로 북한 내 목표에 대한 항공공격이 좀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북한군의 진격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었음은 물론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¹⁶⁵⁾

2) 후방차단작전

미 극동공군은 후방차단작전을 통해 북한군을 전장에서 고립시키려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첫째, 미 극동군사령부 참모조직의 불균형과 참모들의 공군작전 이해부족으로 효과적인 전술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1946년 12월 미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에게 통합참모부를 신설, 운영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맥아더는 1949년 8월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단을 창설하였고, 육군 장교들만을 극동군사령부의 참모로 편성하여 사실상 통합참모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예하의 극동지역 육·해·공군사령부를 합리적으로 지휘하고 효과적인 통합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령부의 참모조직에 육·해·공군장교를 균형 있게 조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 극동군사령부 내에 공군참모가 없는 상태에서 항공작전의 절차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육군참모들이 무리하게 극동공군의 항공작전을 지휘하게 됨으로써 항공작전 운용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 중의 하나는 6월 29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이 38도선 이북까지 항공작전 지역을 확대 승인한 이후 극동공군은 몇 차례 북한지역의 주요 비행장 및 교통요충지들을 폭격하였다. 그러나 지상군의 전선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극동군사령부가 지상군에 대한 항공지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극동공군에서는 폭

격계획을 수시로 취소하고 지상군 지원임무로 전환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 혼란이 가중되었고,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지 못하여 북한군을 전장에서 고립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군의 작전개념에 따른 효과적인 항공작전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때까지도 미 극동공군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후방차단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맥아더의 참모들이 전 공군력을 타 임무에 앞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집중되어야 하며 후방차단작전도 근접항공지원작전 지역과 차별이 없는 전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목표선정은 극동군사령부 목표분석단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었다.¹⁶⁶⁾

또 다른 하나는 임무에 적합한 항공기를 극동군사령부는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전략폭격기 투입을 무리하게 요구하였고, 미 극동공군은 B-29중폭격기를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투입하였으나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북한군 병력집단, 전차, 차량 등 이동목표물에 대한 저고도 임무에는 B-26경폭격기가 적합하고, B-29중폭격기는 도시나 교량, 산업시설 같은 고정목표 공격이 용이한데도 B-29중폭격기를 투입하여 공군력을 낭비하였던 것이다.

둘째, 해·공군의 항공작전 수행 시 단일화된 지휘체제 부재로 비행안전 저해 및 전력 낭비를 초래하였다. 미 극동공군 예하 작전부대들의 전술기들이 한국전선에서 항공작전을 수행 중에 해군 제7함대 함재기들도 한국전에 참전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형이 협소한 한국에서 하나의 목표에 해·공군 항공전력이 동시에 투입되면서 항공작전 수행상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미 제77특별기동대가 7월 3일과 4일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서북지역을 공격하는 동안 미 극동해군이 7월 3일 밤에 이 사실을 극동공군에 통보하였으나 극동공군 작전부는 제7함대의 함재기 공격이 그 다음날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여 7월 4일 B-29중폭격기의 평양비행장 폭격임무를 취소하게 되었고, 이 전략폭격기들은 이날 새로운 목표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또한 해군 제77특별기동대는 임무수행 중 무선교신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극동공군은 함재

기가 평양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인은 한국에서처럼 지형이 협소한 전장에서 미 극동공군과 해군의 지휘관들이 독자적으로 공격목표를 선정하고 공격명령을 하달하는 등 무질서한 항공작전을 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며, 이들을 중앙 통제할 단일화된 지휘 및 통제체제가 없었던 것이다.

셋째, 38도선 이북지역의 지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임무수행에 애로가 있었다. 당시의 한반도 지도는 일본제국토지측량조사단의 조사에 근거를 둔 지도이었고, 특히 남한 지역의 조종사용 항공지도와 도표는 항공사진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정확하였다.

그러나 38도선 이북지역의 지도는 1950년 6월 29일 이전에는 항공사진촬영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조종사용 항공지도와 지상군용 지도에서는 실측된 위치에서 무려 1마일 반 정도까지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또한 지명도 지도마다 다르게 표기되거나 유사한 지명으로 표기되어 혼동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 극동공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북지역에 대한 항공사진정찰을 통해 지형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7월 초에는 정확한 식별을 위해 한반도내의 모든 비행기지에 고유번호를 지정하였다.¹⁶⁷⁾

넷째, 미 극동공군의 한강복선철교 차단 지연으로 북한군에게 도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강철교 중 양측 단선철교는 한국 육군공병대에 의해 차단되었으나, 경부선복선철교는 차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 처치 준장은 6월 29일 새벽 맥긴 중령을 통해 한강철교를 폭격하도록 미 극동공군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통신은 워싱턴에서 암호를 해독한 다음 동경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무려 10시간 만에 미 극동공군에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날 한강철교 폭파요청을 받은 미 제5공군은 B-26경폭격기를 출격시켜 3개의 한강철교 중 중앙에 위치한 경부선복선철교를 폭격하였으나 파괴되지 않았다.¹⁶⁸⁾ 당시 한강복선철교는 기차운행은 불가능하였지만 철교에 판자 등을 간다면 차량통행은 가능하였다. 그후 한강복선철교 차단임무를 부여받은 제19폭격전대의 B-

29중폭격기는 4주일간에 걸쳐 매일 폭탄을 한강철교에 투하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었다. 이 철교는 결국 제19폭격전대의 매일 계속되는 폭격으로 이미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50여일 만에 해군함재기의 공격으로 차단되었다.¹⁶⁹⁾

3) 근접항공지원작전

미 제5공군은 한국전에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주로 담당하며 북한군의 남침을 지연시키는 등 지상군에게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미 극동군사령부가 제시한 항공기 지원요청 단계의 과다로 미 지상군이 적시에 적절한 항공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한국전쟁 초기에 미 극동군사령부는 항공기 지원요청 절차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지상군으로부터 항공기 지원요청을 받은 극동군 전방지휘소(ADCOM)는 극동군사령부에 항공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극동공군을 경유, 제5공군 전방사령부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신속한 항공지원이 필요한 미 지상군의 항공기 지원요청 메시지가 제5공군에 전달되기까지는 약 4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적시에 적절한 항공지원을 받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었다.¹⁷⁰⁾

둘째, 미 제5공군은 7월 5일 대전에 합동작전본부를 설치하였지만 공지작전과에 육군장교들이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투작전과만으로는 합동작전본부라고 말할 수 없었다. 위커 미 제8군사령관이 7월 13일 합동작전본부의 공지작전과에서 근무할 육군 장교들을 파견함으로써 합동작전본부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육군 장교들이 없는 기간동안의 항공공격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목표들을 선정하였으나, 한국 지상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목표선정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셋째, 통신기재의 잦은 고장 등 통신상의 애로를 극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전술항공통제반이 사용하는 AN/ARC-1 무전장비는 4개의 초단파 회선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투기전대는 작전전에 주파수 채널을 바꾸어야만 지상 관제사들과 교신할 수 있었다.¹⁷¹⁾

그러나 전 전투기전대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작전하는 것은 통화량의 과다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곤란한 일이었다. 그리고 AN/ARC-1 초단파무전기는 가볍고 약했기 때문에 거친 한국의 도로에서 사용하자마자 곧 파손되었으며, 부품과 시험장비의 부족으로 야전에서 정비할 수 없었다.

이러한 통신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전술항공통제반은 합동작전본부에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고, 사단에서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전술기가 목표지역에 도착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전술항공통제반은 항공기가 목표지역에 출현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작전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임무 후에는 합동작전본부에 임무결과 및 공격의 필요성 여부를 보고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합동작전본부의 전투작전과에는 항공기유도용 고주파무전기와 유선전화, 그리고 일본 「이다즈께」기지와 연결된 텔레타이프를 가지고 있었으나, 합동작전본부와 일본과의 통신회선 중 약 75%가 고장이었다. 따라서 전투작전에서 가치 있는 목표를 확인하였다더라도 「이다즈께」기지에 있는 제5공군 전방사령부와의 연락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2. 항공작전이 북한군에 미친 영향

극동공군은 전쟁 초기부터 공중우세 속에서 북한군 병력, 전차, 야포, 차량 등의 이동목표와 철도, 도로, 교량 등 교통망에 대해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였다.¹⁷²⁾ 특히 7월 1일 제19폭격전대 소속 B-29중폭격기의 한강철교 폭격으로 북한군의 남진속도가 지체되었으며, 7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은 제5공군 전술기들이 서울-평택간의 도로상에서 북한군 전차와 차량 행렬에 대한 폭격으로 전차 82대, 차량 314대, 자주포 7대,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병력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¹⁷³⁾

이러한 극동공군의 지속적인 주간공격은 북한군의 전술을 교란시키고 분쇄하

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북한군은 극동공군의 지속적인 항공공격으로 보병 부대가 기갑부대와 포병부대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공격하는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량 등의 차단으로 차량운행이 곤란하여 결정적으로 병력충원과 전선에서의 기동성을 상실하였다.¹⁷⁴⁾ 또한 북한 지상군은 항공공격에 대한 대응훈련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이에 대해 제49전폭전대장 스미스(Stanton T. Smith) 대령은 “북한군은 공군력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교육받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대단한 용기를 가졌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교량을 폭격하여도 파괴된 교량 앞에 줄지어 서있는 북한군의 차량대열을 재차 기총공격을 하여도 트럭 위의 북한군 병사들은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총으로 응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북한군의 무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그렇게 큰 전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¹⁷⁵⁾

미 극동공군은 한국전에서 작전을 개시한 날부터 7월 14일까지 총 3,473소티의 임무 중 제공작전 691소티, 근접항공지원작전 2,084소티, 후방차단작전 135소티, 정찰 및 수송등 기타임무 563소티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과는 <표 10-4>와 같다.¹⁷⁶⁾

<표 10-4> 미 극동공군의 전과

구분	병력	항공기	전차	기관차	열차	차량	교량	건물	저장소	야포	기타
파괴(살상)	837	33	185	24	89	1,000	10	24	13	29	7
파 손	-	4	115	8	159	633	22	16	3	15	3
계	837	37	300	32	248	1,633	32	40	16	44	10

따라서 유엔공군의 전술항공작전이 북한군 작전에 결정적으로 미친 영향은 북한 지상군의 전술을 교란하고 전선에서의 기동성을 상실시켰으며, 병력 및 보급물자 이동과 전투작전을 항공공격이 거의 없는 야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진격속도를 지연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 (註)

- 1) 구 소련총참모부, 『조선전쟁 전투일보』(1950. 6. 25-1951. 12. 3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8.
미 정보평가에 따르면 북한공군은 대부분의 항공기를 1950년 봄에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조종사들도 단기간의 훈련을 받았다.
또한, 1950년 6월 29일 안양에서 포로가 된 북한 조종사는 북한공군에는 조종사가 80명뿐이며, 그 중 10명은 아주 우수한 조종사이고 40명은 숙달된 조종사라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공군은 보유항공기에 비해 훈련된 조종사가 부족한 상태였다.
- 2) 소련군 극동방면사령부, 『조선에서의 전투일지(1950. 6. 25-1951. 7. 31)』(러시아 국방성 문서보관소, 문서군 139, 목록 133, 문서철 28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2005), p. 19, p. 747 재인용.
- 3) 한국공군 조종사 수는 자료에 따라 편차가 있다. 1977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전쟁사』 제1권에는 한국공군 조종사의 수가 90명으로 기록되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북괴의 남침과 결전기』(1977), p. 803). 그리고 2005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편찬한 『6·25전쟁사 2』에는 전력의 핵심인 조종사는 102명으로서, 이 중 42명이 작전분야에 나머지는 60명이 행정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2005), p. 753). 그러나 1991년 공군본부에서 편찬한 『공군사』 제1집(증보판)과 2002년 공군본부에서 발간한 『6·25전쟁 증언록』에는 “1950년 5월 4일 현재 조종장을 받은 공군 조종사 숫자는 총 64명(공본 일반명령 제35호, 1950. 5. 4)이었으며, 그 중에서 F-51전투기 인수조종사 10명(일본 소년비행학교 15기 ‘갑’ 출신 이상)을 선발하였다”라고 기록되었다(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 p. 120.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2002), p. 218). 당시 김정렬 총참모장이 6월 27일 공군부대 철수를 결심하고 기밀서류 소각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만한 1차 자료(공본 일반명령 제35호)는 존재하지 않으나 김정렬 공군총참모장 등 참전자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한 공군본부 자료에 신뢰측면의 무게를 두고 이를 활용하였다.
- 4)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 p. 107.
- 5) 구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1950. 6. 25-1951. 12. 31).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현대편, 조국해방전사 I』(1981), p. 119.
- 6) 구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1950. 6. 25-1951. 12. 31).
- 7)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 p. 108.
- 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32.
미 극동공군은 이날부터 항공작전을 북한지역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제한된 지역 내에서 방어만 하는 것은 전력운영상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작전지역을 북한지역까지 확대하여 보다 근원적인 목표를 타격함으로써 완전하고도 확실한 제공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날 미 제5공군 제3폭격전대는 한국전쟁에서 처음으로 북한지역을 공격한 부대가 되었다.
- 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9.
- 1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29.
미 제20공군 제19폭격전대 소속 B-29중폭격기 9대가 6월 29일 08:00 김포기지를 폭격하였다.
- 11)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서울, 1989), pp. 108-109.
- 1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9.

-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서울, 1989), p. 109.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 p. 108.
- 1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9.
- 14)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 15) 1983년 미 공군대학에서 편찬한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9)과 1991년 공군본부에서 편찬한 『공군사』 제1집 증보판(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 p. 108)에는 북한공군 YAK전투기가 미 육군 제19연대를 공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당시 7월 10일 상황에서의 미 제19연대는 대구(연대본부, 1개 대대)와 포항(1개 대대)에 있었고, 미 제21연대에는 정안과 조치원 사이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이었으며(『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는 진천북방에서 수도사단과 임무교대 후 수안보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다. 따라서 당시 북한공군 YAK전투기는 미 제19연대가 아니라 국군 제19연대를 공격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 1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98-99.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현대편, 조국해방전사 I』(1981), p. 185-186.
- 17)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2002), p. 147.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 p. 114.
- 18)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 p. 114. 행동방침: 공군비행단은 전투요원인 조종사와 정비사를 기간으로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수원기지로 이동한다. 공군사관학교장은 항공기지사령부, 공군사관학교, 헌병대의 일부병력으로 김포기지경비사령부를 편성하여 김포반도를 방어한다. 비행단의 전투요원, 공군병원의 야전요원, 김포지구경비사령부 병력을 제외한 부대병력은 서울 이남의 기지로 이동한다. 재무감은 공군의 가용예산을 한국은행에서 인출하여 각 부대에 할당한다. 트럭 16대는 김포기지에 있는 휘발유(1,000드럼)를 수원, 대전, 대구기지로 이동한다. 총참모장은 비행단을 직접 지휘한다.
- 19)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 p. 115.
- 20)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 p. 115.
- 21)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2002), p. 148.
- 22)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 p. 117. 당시 T-6건국기 9대의 조종사는 김정렬 중장, 신유협 소령, 윤응렬 중위, 김양욱 중위, 김두만 중위, 이강화 중위, 전봉희 중위, 권성근 소위 외 1명이다.
- 23)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2002), p. 154. 당시 김정렬 공군총참모장의 증언(1977. 3. 2).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p. 117.
- 24)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 25) 공본 작전명령 제31호(1950. 7. 6).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2002), pp. 246-247, 오점석 당시 경찰비행대장의 증언(1978. 9. 14).
-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제2권(1979), pp. 900-901
- 27)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 p. 109.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2002), p. 112.
- 28)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 p. 111. T-6 및 L-형 항공기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초전 3일간 T-6기는 28회(폭탄 179발), L-4기는 35회(폭탄 70발), L-5기는 10회(폭탄 25발) 등 총 123회 출격에 폭탄 274발을 사용하여 적 병력 130명 사살, 차량 6대 및 전차 4대 파손, 교량 4개 파괴, 보급품집적소 1곳 및 포 2문 파괴, 선박 2척 파손 등의 전과를 올렸다.

-
- 29)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 pp. 111-112.
- 30)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2002), p. 246, p. 251-252. 이강화 예비역 공군준장의 증언(1966. 1. 7).
- 31)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2002), pp. 247-248. 오점석 당시 정찰비행대장의 증언(1978. 9. 14).
- 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제2권(1979), p. 892.
- 33)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2002), p. 256. 박재호 예비역 공군준장의 증언(1978. 9. 5).
- 34)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p. 113, p. 125 참조.
- 35) 7월 1일 수원기지에서 대전기지로 이동할 때 미 군사고문단 소속 L-5항공기 1대도 함께 전개시킨 후 공군에서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 항공기가 L-5항공기 대수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 36)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pp. 119-120,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2002), p. 218. 김정렬 당시 공군총참모장 증언에 의하면 F-51전투기 지원문제 협의차 방문한 미 극동공군 참모가 『한국공군 조종사 중 F-51전투기를 훈련 없이도 탈 수 있는 조종사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김정렬 총참모장이 『10명이 가능하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우선 F-51전투기 10대를 지원하겠다』라고 하여 10대의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었다.
- 37)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2002), pp. 223-224. 김정렬 당시 공군총참모장 증언(1965. 5. 24). 극동공군에서는 훈련 없이도 전투기를 탈 수 있는 조종사로 10명을 보내도록 요청하였고, 당시 김정렬 총참모장은 조종사들 중 과거 비행경력 등을 고려하여 일본 소년비행학교 15기 '갑' 출신 이상에서 10명을 선발하였다.
- 38)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p. 121.
- 39)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46. 미 제5공군에서 제8전폭비행단 제36전폭전대의 일부 병력과 한국공군 10대의 F-51전투기로 한·미 혼성부대를 편성하였다.
- 4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89.
- 41) 공군본부, 『전투요보(1950-1951)』(공군교재창, 2002).
- 42)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p. 124.
- 43)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2002), pp. 220-221.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pp. 123-124.
- 44) 공군본부, 『전투요보(1950-1951)』(공군교재창, 2002).
- 45)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쟁사』(1984), p. 785.
- 46)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23.
- 4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57.
- 48) 공군본부, 『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공군교재창, 2005), pp. 28-29.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p. 23-24.
- 4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58-59.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25. 미 극동공군의 기종별 총 보유항공기 1,172대 : B-26 경폭격기 73대, B-29중폭격기 27대, F-51전폭기 47대, F-80전투기 504대, F-82전투기 42대, 각종 수송기 179대, 정찰기 48대, 기타 252대.
- 50) 공군본부, 『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공군교재창, 2005), p. 29.
- 5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58. 한국에서의 전쟁발발 이전에 이미 극동군사령부의 방어임무를 감안하여 취해진 예산삭감으로 제314, 제315항공사단과 경폭격기 1개 대대를 해편하는 등 극동공군의 전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 5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44. 맥아더는 극동군사령부 작전참모(G-3) 예하에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단을 창설하고 극동군 관할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관하여 조언하고 보좌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 53)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3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44-45. 맥아더는 극동군 예하에 극동 육·해·공군 사령부를 구성하고, 극동군사령부에는 합동참모기구를 운용해야 하나 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간과하여 극동육군을 따로 두지 않았고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단을 합동참모기구로 대신하려 하였다. 그 결과 극동군사령부 육군참모들은 각 군을 대표하는 합동참모와 극동육군 참모의 역할을 이중으로 수행하였으며, 육군의 사고방식과 육군의 개념이 존중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그런 가운데 한국 전쟁을 맞이한 극동군사령부는 참모들이 타군 작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각 군을 지휘하는 등 극동전구에서의 최고위사령부 수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 5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45.
- 55)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65.
- 5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47-48. 병력, 전차, 차량 등 이동목표물에 대한 저고도 공격임무에는 B-26경폭격기가 적합하며, 도시나 교량 같은 윤곽이 뚜렷한 고정목표 공격임무에는 B-29중폭격기가 적합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기종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전력운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5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49.
- 5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49.
- 59)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37.
- 60)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p. 37-38.
- 61)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38.
- 6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6. 한반도 유사시 미 극동군사령부의 주한미국인 안전제공 지침에 따라 제5공군은 1950년 3월 1일 제8전폭비행단장을 주한미국인 철수를 위한 항공후송임무 책임자로 지명해 놓고 있었으며, 6월 26일 공수임무 항공기의 엄호전력으로 장거리 임무에 적합한 제68전천후전투대대의 F-82전투기를 운용하려 하였으나 전력이 부족하여 제339전천후전투대대를 한국에 가까운 기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 63)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4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67-68.
- 64)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4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27. 한국과 제일 가까운 일본 『이다즈게』기지에서 한강까지의 거리는 310마일로 제트전투기 임무 후 모기지로 귀환 시 연료의 여유가 별로 없었다.
- 65)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42.
- 6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62. 6월 30일 현재 미 극동공군의 전술항공공병 인가수준은 4,315명이었으나 확보된 병력은 2,322명이었다.
- 67)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4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73. 이 문제로 육군 측에서는 만일 극동공군의 전시 및 비상시 인가병력을 완전히 충원하자면 육군 각 부대의 기간요원을 차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각 부대의 기능은 마비되므로 결코 완전충원은 기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공군본부는 극동공군의 충원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항공공병 병력의 부족은 한국전쟁기간 중 내내 해결되지 못하였다.
- 68)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p. 45-4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10. 대구기지의 새 활주로(4,300피트의 'A' 활주로)를 8월 7일 완성한 후 기존 활주로를 확장 및 포장하였다.

-
- 6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5.
- 70)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44.
- 7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4.
- 7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89.
- 73)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p. 46-47. 제6002기지대대는 대구에 도착한 후 무엇보다 착수해야 할지 그리고 자신들의 임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불안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 며칠 동안을 보냈으며, 그 후 7월 12일 전대로 증편되었으나 『이다즈께』기지와 통신이 잘 되지 않아 7월 24일까지 새로운 부대 명을 알지 못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넛 빠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표현하였다.
- 74)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46.
- 75)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94-95.
- 7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5.
- 7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68.
- 7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68-69.
- 7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46-47.
- 8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47.
- 8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69-70.
- 82)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46. F-51전투기 145대를 선적한 항공모함 『복서』호는 7월 27일 일본에 도착하였다.
- 8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71.
- 84) 미 공군,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1952), p. 33.
- 85)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29.
- 86)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30.
- 87)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30. 미 제5공군은 1953년에 이 전투의 상반된 증언을 재검토하여 제68전천후전투대대의 허드슨 중위가 한국전쟁에서 첫 번째로 적기를 격추했다고 공식발표하였다.
- 8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24. 맥아더 사령관은 극동공군뿐 아니라 극동해군과 미 제8군에게도 작전지시를 하달하였는데, 극동해군에게는 38도선 이남의 한국연안에서 발견되는 적 선박에 대한 공격과 파괴, 한국연해로 침공하는 북한군 격퇴, 중국본토로부터 대만(Formosa)을 차단하도록 하였고, 미 제8군에게는 극동공군 및 극동해군에 대한 지원과 한국에 대한 병참지원 제공 등을 지시하였다.
- 89) 공군본부, 『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공군교재창, 2005), p. 45.
- 9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24.
- 9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25-26.
- 92) 구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1950. 6. 25-1951. 12. 31).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3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28.
- 9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31.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 October 31. 참조.
- 9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31.
- 95) 구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1950. 6. 25-1951. 12. 31).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 p. 112.
- 96)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6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9.
- 9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9.
- 98)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Msg. MF-5395, CG FEAFF to CG FAF, July 6, 1950, USAF Daily Staff Digest, July 14, 1950. GHQ FEC G-3 Operations Report No. 11, July 5, 1950,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3권 :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 방어』(1992), p. 437, 재인용.
- 99)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 100)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p. 64-65.
- 10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32.
- 102)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65, p. 7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24. 극동군사령부는 한국에 대한 작전임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작전계획이 있을 수 없었다. 또한 미 극동공군은 한국전쟁 개시 후 약 1개월여가 지날 때까지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후방차단작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 10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27-28.
- 104)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32.
- 105)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33.
- 10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29.
- 10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30.
- 10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31-32.
- 109) 구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1950.6.25-1951.12.31).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64.
- 11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32.
- 11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32-33.
- 112)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2001), p. 404, GHQ FEC G-3 Operations Report No. 11, July 5, 195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8.
- 113)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2001), p. 405, 북한군은 1950년 11월까지 1개 대공포연대, 10개 독립 대공포대대, 2개 대공기관총중대를 창설 운영하였다.
- 114)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65.
- 115)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폭격사령부는 제19, 제22, 제92폭격전대를 배속 받게 되었고, 7월 10일에는 제31정찰대대를 배속 받았다.
- 116)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65.
- 117)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
- 118)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1. 이 폭격임무는 제22폭격전대의 첫 임무였으며, 목표에 대한 레이더 폭격을 하였다.
- 119)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73.
- 120)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67.
- 12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06.
- 122)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51.
- 12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78.
- 12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79.
- 125)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5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82.
- 12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79.
- 127)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5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81-83.
- 12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03-104.
- 1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제2권(1979), p. 924.
- 130) 구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1950. 6. 25-1951. 12. 31).
- 13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25.
- 132) 구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1950. 6. 25-1951. 12. 31).
- 133)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p. 32-3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79.
- 134)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3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79. 당시의 전쟁양상은 아군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거듭되었다. 목표를 선정하였더라도 육군 연락기 조종사들이 그 지역에 아군이 있기 때문에 항공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 13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27.
- 136) 구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1950. 6. 25-1951. 12. 31).
- 13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30.
- 138)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33.
- 13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30.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이날 이후 극동공군은 7월 7일 북한군 전차에 대한 네이팜탄 공격을 지시하였다.
- 140) 구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1950. 6. 25-1951. 12. 31).
- 14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33.
- 142)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2001), pp. 168-169, 구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1950. 6. 25-1951. 12. 31).
- 14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85.
- 14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85.
- 14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86.

-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p. 82-83.
- 146)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86.
- 14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77-78.
- 148)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2001), p. 171, p. 183.
- 149)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2001), p. 183, p. 318.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61.
- 15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85-86.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2001), p. 320, 제5공군은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의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평택-천안간 도로에 대한 공습을 감행함으로써 도로가 대량으로 파괴되어 전차와 포병의 진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때 북한군은 천안 서북방 10km의 시골길을 우회하여 기동하였다.
- 15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81.
- 15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0.
- 153)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2001), P. 33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1. 북한군은 제5공군의 강력한 공습을 받고 포병이 보병으로부터 10-12Km 뒤처지게 되었으며, 미 제24사단의 예비대대는 북한군 사단 전위에 포병부대가 없는 틈을 타 전차 6대를 투입하여 역습하였다.
- 154)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제2권(1979), pp. 920-921.
- 155)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61.
- 15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48.
- 15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1.
- 15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2.
- 15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92-93.
- 160)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9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5. 미 제49전폭전대는 미 극동공군 작전분석실과 공동으로 네이팜탄 성능을 수차례 시험한 결과 110갈론 네이팜탄 2발은 약 50야드×50야드의 면적을, 4발이면 50야드×80야드 지역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미 극동공군 작전분석실에서는 한국전에서 북한군 T-34전차를 파괴하는데 공군의 어떠한 무기보다 네이팜탄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제로 당시 조종사들은 네이팜탄이 적 전차에 명중되면 전차 내부의 연료와 탄약이 폭발한다는 것과 소련제 전차는 무한궤도에 양질의 고무가 있어 네이팜탄이 명중되지 않고 가까이 떨어져도 그 화염으로 쉽게 불붙어 파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16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87.
- 162)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70.
- 163)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미 극동공군은 이 기간 동안 총 3,473소티의 임무 중 전선지역 저지폭격 등을 포함한 지상군지원 작전임무로 2,084소티(전체의 약60%)를 수행하였다.
- 164) Msg. A-017, ADCOM to CINCFE, June 30, 195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8에서 재인용.
- 16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36.
- 166)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65.

-
- 16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65.
공군본부, 『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공군교재창, 2005), p. 72.
- 168)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33.
- 169)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p. 72-73.
- 17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45.
- 171)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p. 54-55.
- 172)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2001), p. 195, 북한군은 극동공군의 항공활동 강화로 항공기 공포증이 만연하였고 아군 항공기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었다.
- 17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86, p. 91.
- 174) 공군본부, 『UN공군사』 상(1975), p. 83.
- 17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85.
- 176) Final Recapitulation-Summary of Air Operations Period: 0001/K-2400/K, 26 June-14 July 1950 (Headquarters Fifth Air Force APO 970),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공군본부, 『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공군교재창, 2005). 해당 기간 내 작전결과(임무별 소티, 전과 등)에 대해서는 제5공군과 극동공군의 자료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5공군에 해당하는 임무는 제5공군 자료를, 그 외 임무는 극동공군 자료와 당시 극동공군사령관인 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를 활용하였다. 근접항공지원작전 2,084소티에는 지상군 지원을 위한 저지폭격 1,510소티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표 10-4>에서 항공기는 극동공군에서 격추하거나 지상 폭격으로 파괴된 수치이며, 전차는 무한궤도형을 모두 포함하였고, 기타는 마을, 모터사이클, 선박 등이다.



제11장 총 평

제 1 절	준비태세 측면
제 2 절	전쟁지도 측면
제 3 절	작전 및 전술적 측면

제 1 절 준비태세 측면

1. 국군의 준비태세

국군은 서울이 실함된 다급한 상황에서 시흥지구전투사령부(김홍일 소장)를 편성하여 강북에서 철수한 병력들을 강남에 집결시켜 한강선에서 적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당시 국군으로서는 미 지상군이 참전하기까지 최소한 3일간은 버텨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을 맞고 있었다.

시흥사는 즉시 시흥에서 병력을 수습하기 시작하였고 그 병력이 500명 선으로 채워지면 곧바로 혼성제0대대로 명명하여 한강선으로 투입하였다. 아울러 사령관은 새로이 한강 방어편성지역을 분담한 각 혼성사단으로 하여금 지역 내에서 도하한 병력을 수습하여 강안에 재배치토록 진지편성을 독려하였다.

당초 시흥사는 한강선 방어부대에 대한 모든 지휘책임을 맡게 되었으나 통신망의 미비로 혼성제7사단과 혼성수도사단만을 주로 지휘하여 노량진-영등포의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었고, 혼성제2사단은 가로막힌 관악산으로 인하여 사실상 육본에 의해 직접 지휘통제를 받고 있었다. 시흥사는 한강방어선 편성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당면한 노량진-영등포에 방어의 중점을 둔 나머지 김포방면과 신사동 방면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포사는 이 무렵 6개 대대 병력으로써 김포방면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한강선 방어부대의 지휘체제는 일사불란하게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한강선에서 병사들은 거둬된 전투와 철수로 말미암아 수면과 식사가 부족하고 누적된 전장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수습된 인원도 각 연대의 실병력이 대대규모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나마 중장비는 대부분 강북에 유기한 까닭으로 공용화기도 연대 당 박격포 2~3문과 기관총 5~6정이 고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흥사 예하 각 지휘관들은 이와 같이 지휘체제의 미비와 견제와 병과가 무시된 혼성병력으로는 역습이나 기습에 의한 조직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만 강에 연하여 병력을 배치하여 정면에서 도하 접근하는 적을 결사적으로 격퇴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서울 점령 후 제1군단 예하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 그리고 제3사단 주력으로써 한강도하를 서두르는 한편, 미군의 지원을 의식하고 적 제6사단으로써 경인가도를 차단, 영등포에서 방어선을 펴고 있는 아군의 좌측면을 위협하면서 인천항을 확보함으로써 미군의 지원수단을 봉쇄하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남침을 계속하는 데는 도하 준비와 아울러 서울 점령에 따른 정세 판단, 우발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의 모색 등 선택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므로 북한군의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는 자연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 미군의 준비태세

미 제24사단의 신속한 투입은 북한군의 공격을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축선에서 15일간 지연시킴으로서 북한군에게는 충격과 피해를 주었고, 국군에게는 사기 양양과 재편성 기회를 주었다.

미 지상군이 북한군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리 투입됨으로서 북한군의 작전에 많은 차질을 낳게 하였다. 미 지상군은 지금까지의 국군과는 달리 강력한 화력운용을 바탕으로 전투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군은 수원 이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전차 단독에 의한 과감한 전진을 할 수 없었고, 정면 공격보다는 야간 위주의 측후방 침투에 의한 후방 교란 및 차단작전을 주로 수행했다.

미 제24사단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북한군에게도 많은 피해를 강요했을 뿐

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북한군의 남진을 15일 간 지연시켰다. 이는 후속 부대인 미 제25보병사단, 제1기병사단의 전개시간을 보장하고, 북한군의 작전지속 능력을 감소시켜 낙동강방어 선에서 조기에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는데 기여했다.

국군의 사기 양양과 재편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군이 한강방어선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7일간이나 지연시킬 수 있었던 것도 미 지상군의 증원이 곧 있을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초로 투입된 미 제24사단이 경부 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을 담당함으로써 국군은 제1군단을 창설하여 중부지역으로 이동하여 북한군 제2, 제15사단의 기동을 저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동부지역의 제6, 8사단과 연결하여 전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최초 전투에서의 연속적인 패배는 미군 장병들에게 패배의식을 갖게 했다. 전투 경험이 부족한 미군 초급간부 및 병사들은 북한군의 측 후방 공격만 있으면 단결력을 상실하고 탈출만을 생각하게 했다. 이는 전장에서의 주도권 상실로 차후 작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제 2 절 전쟁지도 측면

한국정부는 정부수립 2년차의 신생독립국가로서 행정조직이나 각종 법률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여 국가 위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조직이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쟁지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유사시 국가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정부 등 모든 기관에게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들이 전쟁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군사력 열세를 내부의 결속과 더불어 미군과 유엔 등 외부의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리하여 한국정부는 지연작전 초기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 부처별로 조직력을 회복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정부는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입법, 사법부 등은 각 부서별로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각 부처 간의 관계와 역할 분담, 군의 행정기관(검찰, 경찰)에 대한 통제 등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정부의 전시 전환조치는 최초 국방부가 전국에 비상을 발령하고, 내무부가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하달하는 등 행정부의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외교적인 조치를 전개하였고,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들은 수원,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한편 미군의 한국전 참전결정은 개전 6일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미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우선적으로 주일미군을 전개시킨 다음 7월 말부터는 미 해외 및 본토로부터 증원 병력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미군은 한국

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미 극동군예하의 주일미군을 선두로 미 본토 및 해외기지의 육해공군을 공수 및 해상을 통해 한국을 지원하거나 전개했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초 설정한 '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전쟁 목표는 달성했는지 몰라도 전쟁계획이 부재하였고, 세계전략을 수행할 수 없는 국방력의 삭감, 통합전투력 발휘할 수 없는 감편된 부대 구조 등 문제점을 노정시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신속한 참전은 국제평화의 유지와 안전이라는 유엔 목적과 목표에 기여하였고,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부응하는 조치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1·2차 결의에 근거하여 유엔이 지향하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국에 미 해·공군을 파견한데 이어 지상군을 파견함으로써 6·25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미국의 참전에 이어 지유 우방 국가인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이 군대를 파견하여 한국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듯 6·25전쟁은 유엔의 신속한 조치와 미군의 신속한 정책결정,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신속한 개입과 지상군 파견에 힘입어 개전 초기 어려운 전쟁 상황에서 북한군의 진격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 미국의 지상군 파견은 한국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지연작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였고, 최초 맥아더 원수가 구상했던 상륙작전의 기반을 이루게 하였다.

특히 유엔 안보리 조치에 의거 유엔군의 창설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6·25전쟁은 북한 공산군의 불법 침략에 대한 유엔군의 집단안전보장에 의한 평화수호 전쟁으로 변했다. 이처럼 6·25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에 국제평화기구인 유엔이 집단안전보장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침략군 북한 공산군에 맞서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파견된 유엔과의 전쟁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제 3 절 작전 및 전술적 측면

1. 지상 작전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혼성 수도사단, 제7사단, 제2사단 병력들은 한강방어선에서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효과적으로 적의 도하를 저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적은 도하작전에서 많은 출혈을 강요당하여 영등포로 진입한 이후에도 전투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약 하루 동안 부대를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흥사 예하 각 사단은 열세한 전력으로 적을 6일간 한강선에서 지연시킴으로써 적의 작전기도를 무력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은 결국 미 지상군이 참전할 때까지 남하속도를 격감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국군이 초기에 분산되었던 부대를 수습하고 재편성하도록 해 주었다.

한편 미 제24사단은 일본 점령군으로 활동하다가 전투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규모 부대씩 축차적으로 6·25전쟁에 투입함으로써 각각의 전투에서 상대적인 전투력 열세로 북한군에게 패배하였다. 이와 같이 미 지상군을 축차적으로 투입한 조치에 대해 맥아더 장군의 실책으로 보기도 한다. 즉, 맥아더 장군이 북한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전투준비가 안 된 소규모 부대씩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국군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위급한 시기에 미 제24사단이 최소한의 전투준비가 이루어진 부대부터 축차적으로 신속히 투입하였기 때문에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즉, 평시 전투준비태세가 미흡했던 미 제24사단을 전투태세를 완전히 갖춘 다음에 전선에 투입하였다면 맥아더 장군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 공산화된 이후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전쟁 상황에서 볼 때 당시의 축차적 조기 투입은 맥아더 장군의 성공적인 조치라 볼 수

있겠다.

중서부지역에서 국군은 적을 효과적으로 지연하면서 저지하였다. 제6사단의 동략리 및 이화령전투, 제8사단의 단양전투, 수도사단과 제2사단의 진천전투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지역에서 국군은 미군의 증원과 국군의 재편성 및 지휘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제공하였다. 국군은 한강방어선에서 6일간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함으로써 미군의 전개를 가능케 하였다. 또한 진천과 청주, 음성, 단양 및 충주 등 중동부 및 중서부전선에서 철수 간에도 공세행동을 통해 북한군을 격멸하고 그들의 기도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적은 이 기간 중 하루 평균 7km의 느린 속도로 남하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7월 말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군과 대등한 수준의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중동부지구 지연작전에 있어 충주전투는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국군 제6사단 제2연대가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와 제1사단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제6사단 제2연대는 방어계획에 따라 남한강 차안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예상접근로에 병력을 중점 배치하는 한편 축차적인 철수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선점, 효과적으로 적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군은 영남진출을 위한 신속한 거점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다음 단계로의 작전 전개에 적지 않은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국군은 소백산맥선에서 방어선을 형성함으로써 전열정비와 함께 미군의 한반도 전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해안 지역에서 국군은 개전 초기 제8사단이 제천 방면으로 전환되자, 부산주둔 제3사단을 투입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개전 초기 2개 연대로 편성된 제3사단은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하자 육본의 긴급명령으로 제22연대를 한강방어선에 급파하는 한편, 잔여 병력인 제23연대로 하여금 동해안 전선을 전담하게 하였다. 제23연대는 7월 1일 울진에서 처음으로 정규전을 경험한 후 상급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병행하면서 울진에서부터 영해까지 60km의 공간에서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2. 해·공군 작전

전쟁 초기의 해군작전은 한국해군에 의한 방어 위주의 작전이었으나, 1950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해양통제권 확보를 위해 유엔해군에 의한 공격 위주의 작전이었다.

6월 29일부터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은 연합작전을 수행하였지만, 상호 간 전투수행능력의 차이로 한국해군은 북위 37도 이남 해역, 유엔해군은 북위 37도 이북에 대해 해상방어 및 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아측에 의한 해양통제권 확보로 유엔해군은 적절한 시기에 봉쇄작전을 비롯한 함포지원사격, 해상수송작전, 포항상륙작전, 항공강습작전 등을 수행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지속적인 해상교통로 확보 및 유지로 아군의 전투수행능력을 유지시키고, 부산 교두보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극동공군은 전쟁 초기부터 공중우세 속에서 북한군 병력, 전차, 야포, 차량 등의 이동목표와 철도, 도로, 교량 등 교통망에 대해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특히 7월 1일 제19폭격전대 소속 B-29중폭격기의 한강철교 폭격으로 북한군의 남진속도가 지체되었으며, 7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은 제5공군 전술기들이 서울-평택간의 도로상에서 북한군 전차와 차량 행렬에 대한 폭격으로 전차 82대, 차량 314대, 자주포 7대,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병력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극동공군의 지속적인 주간공격은 북한군의 전술을 교란시키고 분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미 극동공군은 한국전에서 작전을 개시한 날부터 7월 14일까지 총 3,473소트의 임무 중 제공작전 691소트, 근접항공지원작전 2,084소트, 후방차단작전 135소트, 정찰 및 수송등 기타임무 563소트를 수행하였다.

부 록

표 인

연 표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6. 29 (목)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아더 원수, 전선 시찰을 위해 내한 • B-29폭격기 평양을 처음 폭격 • 미 항공모함이 한국해협에서 적 상륙을 경계 • 미 해군부대가 북한을 동서 양쪽에서 함포사격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안보리, 적의 남침에 대항하는 국군을 지원하도록 세계 각국에 요청할 것을 결정 • 미 상원, 한국에 대하여 경제원조로 1억 달러 지출 가결
1950. 6. 30 (금)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보병부대 공수 • 트루먼 대통령, 한국해안 봉쇄를 명령 • 맥아더 원수, 미 공군에게 38선을 넘어 북한기지를 공격할 것을 명령 • 적, 서울 남서쪽의 방어선을 돌파해 한강 도하, 전차부대 남하 • 미 극동군 전방지휘연락단(ADCOM), 수원에서 대전으로 이동 • 미 공군, 평양 폭격 • 이 대통령, 맥아더 원수와 회담하고 전면적 원조를 확약 •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 경질, 후임에 정일권 준장 임명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택동,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담화 • UN결의에 따라 호주 해·공군, 한국전선에 참가하기로 결정 • 트루먼 대통령, 육·해·공군에게 UN안보리의 요청에 따라 미 공군이 작전에 필요하면 북한의 군사목표를 공격할 것과 해군은 한국의 모든 해안을 봉쇄할 것, 맥아더 원수에게 몇 개의 지상부대 사용을 허가함 • 미상원 본회의, 3억 2천 4백만달러 한국원조비 할당
1950. 7. 1 (토)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상륙한 최초의 미군, 전선에서 급속전진 중 • 제24보병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 한국에 파견된 전 미군 총사령관에 임명 • 적, 김포에 상륙, 점령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7. 1 (토)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육·해·공군 3군대변인 발표요지 1. 한국 동해안에 대한 봉쇄, 영국해군 협력하에 속행 2. 지상부대, 일본에서 비행기, 선박 등에 의하여 부산에 수송 3. 미국 본국으로부터 근간 기동부대 회항 • 대만정부, 한국군 지원 위해 파병(지상부대 3개 사단, 비행기 20대)을 UN안보리에 제의했으나 사절됨
1950. 7. 2 (일)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보병부대, 전선에 급속전개, 4일경 전투개시 예정 • 적, 용인 점령 • 적, 양평·원주를 점령 • 대전에 도착한 미군, 거점확보를 목적으로 대전 북방에 전진 • 한국 동해안에서 미·영 해군함대, 적의 기뢰함정 5척 격파 •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적 전투기 18대 격추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의 한국 원조지지결의안 지지국가 현재 36개국 • ECA 대한 원조물자 급수송(식량·석유)
1950. 7. 3 (월)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 수원 점령 • 주한 미군사령부는 극동 미 총사령부 하의 중요 사령부로서 공식으로 설치되고 윌리엄 딘 소장이 사령관에 임명됨 • B-29폭격기 연포비행장 계속 폭격 • 평양 야간폭격 • 육군본부, 평택으로 이전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현재, 한국원조를 지지하는 나라는 41개국 • 미 해병대, 본토에서 일본에 수송
1950. 7. 4 (화)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 인천 점령 • 미 제7함대, 3일과 4일에 걸쳐 한국 동해안에서(삼척-주문진 사이) 적 함정 7척을 격침 • 육군본부, 대전으로 이전 • 김일성, 북한군 총사령관에 임명됨(평양방송)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정부, 한국군에 공군과 구축함 2척 파견 예정 • 미 해군의 한국해안 봉쇄를 공식으로 소련에 통고 • 네덜란드, 한국해역에 작전참가 위해 구축함 출동을 명령
1950. 7. 5 (수)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포병, 적 오후 11시 전차부대와 최초 접촉(서부전선) • 미 한국과건사령관 딘 소장 전선진지에 출동 • 미 폭격기부대, 한국으로 출발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중공에 석유수출 금지 결정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7. 6 (목)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남쪽 전선의 적 전차부대, 미군작전에 의하여 진격이 저지 • 미군, 평택 남쪽 37도선 부근에 새로운 방어선 설치 • 적, 평택 점령 • B-29편대, 북한의 중요 철교 폭파, 적 비행기 출현 없음 • 적 일부 제천에 침입 • 한·미 연합으로 해군 방위사령부 부산에 설치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UN군 조직결의 초안을 안보리 각 대표에게 송부 • 미 B-29폭격부대 한국을 향해 출발
1950. 7. 7 (금)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커 장군, 최초로 한국전선 시찰 • 적 충주 점령 • B-26편대, 38선 이남지역에 출격하여 평택 부근에서 적의 밀집부대 및 전차부대를 폭격 • B-29편대, 원산·진남포 등의 군사시설 폭격 • 이 대통령, 적의 포로에 대하여 인도적 대우를 하라고 성명발표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아더 원수를 UN군 총사령관에 임명 • 리 UN 사무총장, UN 미 대표에게 UN기를 수여 • 미, 한국에 병력증가. 예비역 재소집을 결정
1950. 7. 8 (토)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트루먼 대통령, 맥아더 원수를 주한 UN군 총사령관에 임명 • 적 새벽에 천안 돌입 • 미 해군 해안포격 계속 • B-29편대, 고성·홍남 사이의 군사시설, 원산 해군기지 홍남 질소공장 맹폭 • 음성지구에서 1개 대대를 섬멸 • 북한정권, 한국남침지역에 토지개혁 공포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기 사용은 한국에 국한 • 미군 고사포부대 2개 대대 극동에 파견예정
1950. 7. 9 (일)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군 전투 배치완료 • 미군 기갑부대, 천안 주변의 전선에 진격 중 • 적, 천안을 점령 후 대전으로 주력이동 • 극동 공군, 8일부터 적의 전선 후방의 주요 시설 폭파 • 적, 진천 점령 • 한국 전역에 계엄령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일 현재, UN의 한국원조를 지지하는 국가는 50개국 • 인도, UN결정 지지를 표명 • 소련, 한국전쟁은 영·프·미 등의 계획적 침략이라고 비난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7. 10 (월)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 9일 전의 통과, 천안-전의 사이에 적 탱크 다수와 밀집부대 남하 중 • 진천 재탈환 • 충주지구의 적, 국군과 대치. 적 음성을 점령 • B-29·B-26, 천안·평택·수원지구의 적 군사목표 폭격 • 현재까지 적의 손해, 전차 65대·트럭 190대 • 개전 이래 미군의 손실, 전사 27·사상자 94·행방불명 245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대전차 신병기인 바주카포를 한국에 급송 • 프, 극동 해군에게 한국수역의 UN군과 협력, 작전에 임할 것을 명령
1950. 7. 11 (화)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군, 조치원·공주지역 확보 • 호주공군, 대전 북방 90km 장호원 폭격 • B-29, 충주 북방 원주·진천 등을 폭격 • B-26, 조치원·진천을 폭격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아더 원수, UN에 UN기 요청 • 영국 항공모함 1척 한국수역으로 가기 위해 싱가포르 출항
1950. 7. 12 (수)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원 전방 금강교 파괴 • 대전지구의 UN군, 금강 남안에서 전략적 후퇴 • 전 전선에 걸쳐 적과의 접촉 소강상태에 들어감 • 호주 공군 무스탕전투기, 후방의 모든 작전지역의 군사목표를 폭격-탱크 6, 트럭 6, 야포 견인트럭 1대 폭파 • 미 B-29, 2대 상실됨을 발표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함대, 한국수역에서 작전 위해 출발 • 애치슨 미 국무장관 UN의 한국원조결의안 지지국 53개국으로 증가함을 발표
1950. 7. 13 (목)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 UN 지상군사령관에 위커 중장 임명 • UN군 금강 남안에서 철수하지 않음, 그 배후에서 적의 게릴라부대 활동, UN군 증원부대 전선으로 급행중 • 소수의 적군이 금강을 도하 • 미·호 공군은 220회 출격 감행 • B-29 50대, 한국의 모든 군사시설에 폭탄 500톤 투하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포로학살에 대비하여 적십자 감시단 설치 • UN기, 맥아더사령부에 처음으로 계약

참 고 문 헌

1. 公刊資料 및 1차 史料

1) 國文 1次 資料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關聯 證言資料.

國防部特命綴, 1949~1950.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제16권, 1989.
『부산일보』.

陸軍本部 作戰命令, 1949~1950.

陸本一般命令, 1948~1950.

陸本特別命令, 1948~1950.

將校 任官序列名簿.

將校 自歷表.

2) 國文 公刊資料

강원도, 『江原道史: 역사편』, 강원일보사, 1995.

공군본부 정보국, 『북괴 공군』, 1951.

空軍本部, 『空軍25年史 1948~1972』.

空軍本部, 『空軍發展略史』 第1卷, 1954.

空軍本部, 『空軍史 1945~1953』 第1輯, 1991.

공군본부, 『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공군본부, 『전투요보(1950-1951)』, 2002.

공군본부, 『항공전사(한국전쟁)』, 1989.

공군본부, 『UN공군사』, 1975.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1989.

- 국토통일원, 『북괴 인물』, 1971.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전투사: 오산-대전 전투』, 1993.
- 國防軍史研究所, 『한국전쟁』 (상), 1995.
-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建軍史』, 2002.
-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 2003.
-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①, 2001.
-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②, 200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①, 200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작전』 ②, 2005.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38도선 初期戰鬪: 西部戰線篇』, 1985.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38도선 初期戰鬪: 中東部戰線篇』, 1982.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국방사』 제1집, 1984.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丹陽-義城戰鬪』, 1987.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北傀의 南侵과 緒戰期』 제1권, 197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안강·포항전투』, 198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충주-점촌전투』, 1992.
-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1년지』, 1951.
- 國防部, 『國防關係法令 및 例規集』, 1950.
- 國防部, 『國防部史』 第1輯, 1954.
- 경찰청, 『경찰50년사』(서울: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 內務部 治安局, 『한국경찰사』, 1973.
-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II, 1977.
- 陸軍本部, 『陸軍發展史』 (上), 1969.
- 陸軍本部, 『북괴군 특수부대』, 1989.
- 陸軍士官學校, 『陸軍士官學校 30年史』, 1978.
- 보병제3사단, 『백골사단역사』, 1980.
- 보병 제6사단, 『청성역사(1948. 6. 14~1977. 12. 31)』, 1978.
- 보병 제7사단사령부, 『칠성역사(1949. 6. 10~1969. 12. 31)』, 1970.
- 북한연구소, 『최신 북한인명사전』, 1996.

- 육군교육사령부, 『전장기능별 운용개념(개념530)』, 2005(미발행).
-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군단 전투상보』(41), 1986.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1연대 전투상보』(42), 1986.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포병, 제1사단, 제11연대 전투상보』(43), 1986.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 법무부, 『한국교정사』, 1987.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 육군대학, 『북괴군 공격전술』, 1979.
- 육군본부, 교육참고 7-7-1 『전장사례연구(1)』, 1983.
- 육군본부, 교육참고 7-7-2 『전장사례연구(2)』, 1985.
- 육군본부, 교육참고 7-7-6 『전장사례연구(3)』, 1987.
- 육군본부, 교육참고 7-7-8 『전장사례연구(4)』, 1988.
- 陸軍本部, 『北傀의 6·25 南侵分析』, 1970.
- 육군본부, 『戰史』 제7집, 1952.
- 육군본부, 『한국전쟁 재조명』, 1993.
- 육군포병학교, 『포병학교 발자취』, 1963.
- 전병규, 『6·25와 천안』, 인문당, 1988.
-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교학사, 1984.
-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04.
-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존안자료 함적부』.
-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대한민국해군사』(행정편), 1954.
-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대한민국해군사』(작전편), 1954.
- 해군본부,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 海軍本部, 『海軍30年史 1945~1975』, 1978.
- 해군본부, 『해군작전사 개설, 1950. 6~1951. 6』 제1집, 2002.
-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제1권, 1970.
- 海兵隊司令部作戰教育局, 『海兵史』 제3집, 1958.

해군본부, 『해병약사』, 1985.

3) 國文 證言 回顧錄

- 6·25 참전 증언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미발간).
 강기천, 『강기천 회고록, 나의 인생 여로』, 계몽사, 1995.
 具範模 譯, 『맥아더 회고록』, 한림출판사, 19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①, 2003.
 김상덕·김완식, 『7일간의 한강방어』, 국방군사연구소, 1998.
 김성철, 『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사, 1993.
 박경석, 『오성장군 김홍일』, 서문당, 1984.
 박경석, 『육사생도 2기』, 홍익출판사, 2000.
 류형석 편저, 『6·25참전소년병 참전수기』, 6·25참전소년병전우회, 2005.
 신현준, 『노해병의 회고록』, 가톨릭출판사, 1989.
 유성철, 『나의 증언』, 『한국일보』, 1990.
 유재홍, 『격동의 세월: 전 국방부장관 유재홍 회고록』, 을유문화사, 1994.
 유현중, 『백마고지: 김종오 장군 일대기』, 을지출판공사, 1985.
 육군본부, 『의장 안병범』, 1989.
 육군본부, 『이성가 장군 참전기 영천대회전』, 1995.
 李應俊, 『自叙傳 回顧 90年 1890-1981』, 汕耘紀念事業會, 1982.
 李亨根, 『軍番 1번의 외길 인생』, 중앙일보사, 1993.
 임부택, 『낙동강에서 초산까지』, 그루터기, 1996.
 임부택, 『압록강아 말해다오』, 인물연구소, 1974.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6.
 조갑제, 『이용문 장군 평전: 젊은 거인의 초상』, 샘터, 1988.
 한 신, 『신념의 삶 속에서』, 명성출판사, 1994.

4) 北韓 1次 史料 公刊資料

- 『인민군 전투일지』(1950. 6. 26~7. 27).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1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제24권~제27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북한해군 원산작전기지, 『작전직일관 아침보고서』(1950. 5. 1~9. 28).
 조선인민군 제599부대 제4정대, 『전투보고서』(1950. 7. 2~7. 5),
 조선중앙통신사편, 『해방후 10년일지』, 1955(미간행).
 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1-52년편, 1953.
 허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5) 國外 資料

-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KOREA I (1948-1950), 國防軍史研究所 韓國戰爭資料叢書 1, 1996.
 FEC ATIS Research Supplement Interrogation Reports, North Korean Forces Issue No.3, *North Korean Guerrilla Operation to 30 September 1950*(1950. 11. 15), SN.1582.
 FEC,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1952(Unpublished)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50*, vol.7, *Korea*, 1976.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2권, 200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역, 『미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상), 199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16집, 1997.
 大韓民國 外務部, 『韓國戰爭 關聯 蘇聯 極秘外交文書』 (1-4권), 1994.
 徐東九 譯, 『美國務省 外交文書가 벗긴 6·25秘錄 : 韓半島의 긴장과 美國』, 대한공론사, 1977.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 1950. 6. 25~1951. 12. 31』.
 8086th AU(FEC), Military History Detachment,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1956 (Unpublished).
 Staff Section Report. G-1, GHQ, FEC, 1 January-31 October 1950.
The New York Times.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Test of War: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USGPO : 1988), p. 31.
 U.S. House,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Background Information on Korea*(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0).

2. 2次 資料 및 單行本

1) 國內資料

-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 연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개, 1984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1.
 김창순, 『북한15년사』, 지문각, 1961.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2.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 바람과 물결, 1990.
 박홍규, 『UN』(서울: 형성사, 1991).
 볼코고노프 저, 韓國戰略問題研究所 역, 『스탈린』 세경사, 1993.
 서경석, 『전장감각』, 샘터, 1999.
 안천, 『남침유도설 해부』, 교육과학사, 1993.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팔리아 바자노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7.
 육철식, 『강동정치학원』, 행림출판사, 1998.
 이호재, 『한국의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법문사, 1988.
 임 은, 『북한 김일성 왕조비사: 김일성 정전』, 한국양서, 1982.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戰爭記念事業會, 『韓國戰爭史』 1-6, 1991~1993.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고려원, 1990.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1973.
 韓國弘報協會, 『韓國動亂』, 1973.
 韓豹頊, 『韓美外交 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戰火 속의 대사관』, 한섬사, 1980.
 허남성·이종관, 『韓國戰爭의 眞實』, 國防大學院, 2002.

2) 國外 資料

Appleman, Roy E., *U. S. Army in the Korean Army: South to the Naktong to the Yalu*, Washington,

- D. C. : GPO, 1961.
-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61.
- George M. McCune, *Korea Toda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N. Y. : The Free Press, 1968.
-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 June 24-30, 1950*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1.
-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USGPO.
- Kathryn Weatersby,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New Documentary Evidenc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2, No.4 (Spring 1995)
-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 Roy K. Flint, *T. F. Smith and 24th Division*, (Ed.) Charles E. Heller and William A. Stoff, *America's First Battle(1776-1965)*(Univ. Press of Kansas: 1988).
- Susan Matura Translation, *Khrushchev Remembers*, 1970.
- Truman, Harry S., *Memoirs: Year of Decisions*, Garden City, N. Y. : Doubleday & Co., 1955.
-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朱榮福, 『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 ユリア評論社, 1979.

찾아보기



- 가데나지 758, 773, 781
- 가엽산 474, 483, 495
- 가장동 474, 499, 502
- 갈곶리 358
- 감봉룡 293
- 강구 652
- 강릉 529, 613, 614, 626
- 강문봉 168, 620
- 강신명 6
- 강왕채 142, 196
- 강태무 661
- 강태민 143, 662
- 강호대(姜虎隊) 682, 686
- 강호륜 752, 755
- 개성 749
- 검문소 32
- 케이(Hobart, Gay) 328, 719
- 경남편성관구사령부 246, 262
- 경부선 127, 188, 312, 750
- 경북편성관구사령부 246, 262
- 경안리 219, 431, 447, 455
- 계명산 539, 540, 542
- 계인주 144, 149, 153
- 계족산 520, 533
- 고근홍 529, 560, 583
- 고동서 143 200
- 고백규 142
- 고수리 565, 578, 625
- 고영철 747
- 곤지암 219, 220, 427, 443
- 공군본부 737, 744, 747
- 공군사관학교 746
- 공주 388, 390, 751, 794, 795
- 공지합동작전본부 265
- 광주지구편성관구사령부 262
- 괴산 428, 474, 496, 555
- 구선진 745
- 구안리 495, 496, 498
- 구암산지구 전투 681, 686
- 구용서 41
- 국방부 15, 31, 134, 286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41
- 국제통화기금(IMF) 41
- 국회 3, 6, 15
- 군산 737, 747
- 군포 184, 190, 212, 221
- 권오봉 629, 633
- 권중화 745
- 그로미코(Gromyko) 13
- 그로스(Ernest A. Gross) 67, 83
- 그린우드 95
- 금강 312, 519, 795
- 금곡리 173, 200, 224, 578
- 금릉동 540, 545
- 기름고개 481, 482, 492
- 기촌리 565, 573, 580, 585
- 김광해 187, 430, 525
- 김남식 17
- 김덕보 18
- 김동중 585
- 김두용 583, 594
- 김득룡 103, 176, 747
- 김량장리 220, 317, 443, 447
- 김만익 165
- 김무정 430, 525
- 김득 563, 568
- 김백영 196
- 김백일 168, 254, 472
- 김병중 165
- 김병휘 143, 200
- 김봉문 617
- 김봉상 174
- 김봉우 142
- 김봉재 19
- 김상봉 296
- 김상현 635
- 김석원 256, 453, 468, 472
- 김성룡 752
- 김성빈 565, 574, 588
- 김성삼 672
- 김성철 28
- 김순기 585
- 김신 752, 756
- 김억순 147

김영재 745
 김영철 670, 675, 701
 김영택 581
 김영환 752, 755
 김용배 529, 560
 김용주 144
 김웅 165
 김웅수 255, 256
 김익렬 201
 김익수 586, 673
 김인걸 201
 김인식 178
 김일록 151
 김일성 28, 37, 115, 319
 김일환 673
 김장홍 17
 김재규 143
 김재욱 165
 김점곤 143, 478, 498
 김정렬 264, 744, 751
 김종갑 103, 168, 176, 255
 김중수 478, 484, 486
 김중순 623, 652
 김중오 257, 438, 479, 529
 김중원 257, 520, 623, 652
 김중호 574, 580
 김좌호 25
 김주명 158
 김진권 201
 김창덕 617
 김창봉 165
 김천 737, 746, 751
 김태련 32, 165, 294
 김포 741, 750, 756, 775
 김포비행장 126, 131, 144, 155, 165
 김포지구전투사령부 143, 152
 김포지구경비사령부 737, 746

김한용 574, 581
 김한주 142, 183
 김홍일 18, 138, 153, 161, 190, 205, 213, 221, 255, 435, 489
 김희준 257, 259, 363

L

나병서 201
 나창준 750
 나하기지 768
 나희필 143, 200
 남대천 626, 634, 641
 남도당 36, 37, 38
 남산 127, 135
 남상휘 648
 남태령 175, 190
 남한강 428, 520, 537, 540
 내무부 3, 15, 31, 287
 네루(Nehru) 13
 노고산 127, 135
 노량진 166, 750, 753, 755
 노음리 628, 638
 농림부 31
 뉴질랜드 12
 니콜스(Donald Nichols) 790

E

단양 519, 536, 557, 625, 751
 달천강 520, 533, 542, 550
 대구 265, 276, 296, 564, 620, 737, 769, 788
 대구방위사령부 246, 263
 대구비행장 745, 771
 대전 248, 296, 372, 431, 473, 737, 787, 802
 대전비행장 344, 746



대한청년단 19, 21
 동경 758, 781, 792, 801
 동락리 474, 480, 486, 572
 두악산 557, 587, 590
 드 헤이븐(De Haven)호 100
 딘 260, 271, 368, 381, 413, 762, 792, 793, 795, 797

R

라우(Sir Benegal N. Rau) 82
 라이트 97, 102, 193, 268
 라인홀트(Reinholt)호 94
 라창준 745
 랭글리(Langley) 773
 러브리스 380, 381
 러스크 106, 79, 84, 89
 루시(Michael J. Louisey) 670

M

마웅호 560
 마틴(Robert R. Martin) 369, 414
 말리크 8, 9, 71
 매튜스 86, 89, 106
 매폰리 567, 578
 맥긴 762, 780, 801
 맥아더 4, 12, 57, 87, 102, 111, 175, 245, 271, 282, 310, 650, 698, 742, 774, 795
 머피(John R. Murphy) 787
 멘노허 384
 멜로우(Mellow) 789
 목포경비부 17
 무극리 474, 480, 481, 482
 무쵸(John J. Muccio) 15, 63, 84, 93, 102, 741, 775

- 문경 526, 532
 문산 738, 741, 756, 790
 문안산 450, 460, 465
 문용채 142, 462
 미 극동공군사령관 752, 763, 766, 767, 771, 772, 779
 미 극동공군사령부 274, 753, 758
 미 극동군사령부 4, 93, 192, 299, 752, 761, 761, 764, 799
 미 합동참모본부 761, 766, 772
 미·소공동위원회 60, 61
 미원 428, 473, 496, 501
 미 극동해군 사령부 765
 미호천 428, 450, 468, 471
 민기식 262
 민병권 529
- 
- 바스(George B. Barth) 340, 346, 376, 380
 바우트-원(Bout-One) 738, 753, 771
 바탄호 741
 박기병 142, 259, 462
 박기성 142
 박길용 214
 박달봉 553
 박무열 142
 박문기 751
 박범집 744, 745
 박병권 161, 256, 621
 박성철 430
 박승희 165
 박영섭 565, 579
 박영원 635
- 박영휘 198
 박용학 571, 586
 박원석 744
 박재열 624, 628, 633
 박재호 751
 박정덕 617
 박정서 198
 박중병 663
 박천규 747
 박철용 142
 박치옥 570, 571, 583
 박태운 142, 186
 박현영 38
 박후준 223
 박희동 752, 753, 754
 반덴버그 86, 89, 106, 769, 773
 배운용 142, 196
 백기천 624, 628, 634
 백선엽 219, 256, 435, 478, 489, 496, 501, 531
 백성옥 7, 22
 백성흙 750
 백인엽 363
 백정현 746
 법무부 3, 15, 27
 벨리포지(Valley Forge)호 705, 720, 782
 브래들리(Omar N. Bradley) 59, 80, 86, 89, 91, 106, 108, 266
 블레이하우스 57, 71, 85, 88, 98, 109
 비비안 홀트(Vyvyan Holt) 94
 페르쉴(Georges Perche) 94, 95
- 
- 사세보(Sasebo) 771
 사회부 16, 31
- 서울 737, 740, 749, 763, 794, 803
 서전트 키스레이(Sergeant Keathley)호 96
 서정우 564
 서종철 142, 170, 186, 207
 서한호 747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262
 세성동 547, 549, 551
 소련 군사고문단 209, 434
 소우웰(J. C Sowell) 708
 손관도 143, 186
 손영을 143
 손원일 263, 672, 701
 송요찬 103, 176
 송정엽 640
 수도경비사령부 175, 178
 수안보 494, 533, 548, 551
 수영비행장 175, 746, 793
 수원 84, 98, 224, 269, 737, 755, 789
 슈메이커 770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39, 194, 311, 331, 342, 715, 793
 스탈린(Josep V. Stalin) 13, 38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670, 704, 720
 스트레이트메이어(George E. Stratemayer) 102, 720, 758, 769, 789
 스티코프 38
 슬음산 557, 565, 573, 582
 시흥지구전투사령부 148, 210, 317, 338
 신기리 500, 502, 577, 592
 신림 437, 519, 560
 신면호 153
 신사리 166, 173, 189, 202

- 신상륙 295, 296
 신성모 19, 32, 252, 563, 744
 신월리 463
 신유협 745
 신익희 5
 신현준 264, 675, 701
-
- 아시아(Ashiya) 738, 767, 787
 안동 564, 613, 619
 안동훈 568, 571
 안민일 160
 안백성 165
 안병범 132
 안성 220, 331, 437, 795
 안양 214, 738, 750, 798
 안영작 150
 알먼드 73, 102, 192, 272, 300, 765
 애치슨(Dean G. Acheson) 9, 13, 56, 66, 80, 90, 106
 앤드루스(W. G. Andrews) 711, 705
 양보 574, 581
 업체완 172, 173, 196
 에머리치(Rollins S. Emmerich) 63, 97, 628
 여의도 178, 195, 201, 209, 740, 741
 여자항공대 746, 747
 여주 428, 447, 750
 연수동 539, 540, 543
 연포비행장 782
 영남지구편성관구사령부 262
 영덕 613, 652
 영등포 166, 195, 209, 750, 753, 755
- 영월 560, 613
 영일비행장 615, 645, 650, 653
 영주 613, 619
 예천 526, 535, 588
 오키나와(Okinawa) 11, 758, 770, 781
 오도넬(Emmett O'Donnell) 773
 오류동 144, 155, 160
 오명환 568, 579, 595
 오산 224, 258, 312, 351, 738, 778, 792
 오스틴(Bernard L. Austin) 9, 71, 92, 111, 715
 오점석 746
 오제도 29
 오진우 617
 온정리 비행장 738, 783
 왕피천 614, 625, 639
 왕휘 617
 요코다(Yokota) 738, 763, 783, 795
 용산리 474, 482, 490, 493
 용호대(龍虎隊) 682, 683, 686
 우교봉 573
 우면산 190, 197, 204, 212
 우병옥 143, 623, 662
 울진 613, 626, 649
 울프(K. B. Wolfe) 773
 워커(Walton H. Walker) 96, 283, 328, 719, 788, 802
 원미산 144, 153, 154
 원산 763, 784
 원용덕 262
 원주 520, 535, 619, 795
 원치남 160
 웨일랜드(Otto P. Weyland) 784
 웹(James E. Webb) 84, 86, 89
 윌로비(Charles A. Willoughby) 102
- 유경수 165
 유고슬로비아 12
 유상재 196
 유승렬 614, 628, 645, 652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5, 64, 72, 81, 85, 92, 280
 유엔한국위원단 69, 112, 247
 유의준 142, 184
 유재홍 139, 167, 171, 188, 255, 435
 유학성 571
 유해준 142
 유환박 182
 유흥수 171, 257
 육군참모학교 138
 육근수 568
 윤상철 37
 윤석렬 295
 윤춘근 142
 윤태호 142, 184
 음성 427, 432, 475, 481, 794
- 이강화 750
 이경도 142
 이경복 750
 이권무 165
 이규대 155
 이근석 745, 752, 757
 이기석 37
 이기협 745
 이다즈께 738, 762, 787, 803
 이동화 624
 이만흠 296
 이상근 174, 175, 184
 이상수 752
 이상열 672
 이성가 257, 529, 563, 572,

- 583, 590
 이성오 573
 이세호 172
 이승만 5, 15, 66, 88, 95, 102, 248, 283, 337, 741, 757, 798
 이승엽 132
 이영규 585
 이영우 672
 이영호 165
 이와꾸니(Iwakuni) 759, 791
 이용구 568
 이용운 672, 673
 이우팽 579
 이운산 541, 545
 이응준 167, 191, 262
 이일수 634
 이존일 142
 이종국 255, 256, 750
 이종찬 139, 142, 167, 168, 213, 223, 435, 453
 이준식 143, 191, 256, 453, 652
 이지형 35
 이진위 143
 이집트 12
 이창률 565, 582
 이창일 255, 256
 이천 212, 427, 443, 447, 532, 756, 794
 이철원 18
 이한림 142, 191, 198, 202, 256
 이현진 207, 213, 259, 465
 이형근 262, 445
 이형석 262
 이홍진 585
 이화령 520, 553, 555
 이회권 142, 456, 471
 인천 94, 268
 임백진 142
 임병하 142
 임부택 478, 487, 529, 560
 임선하 139, 167, 173, 198
 임원진 618, 628, 650
 임충식 143, 153, 155
- ㄸ
- 장경석 578, 594
 장교덕 165
 장동출 752
 장두권 186, 191
 장면 15, 63, 68
 장성환 752
 장송주 620, 623
 장지량 744
 장철부 142
 장춘권 152
 장호원 220, 432, 445, 474, 519, 795
 전규홍 18, 34
 전남편성관구사령부 246, 261
 전방지휘소(ADCOM) 175, 192, 741, 762, 782, 802
 전북편성관구사령부 246, 261
 전술항공통제본부 273, 279, 785, 795
 전승철 198
 전옥보 25
 전호인 296
 정경모 687
 정규섭 673
 정공모 17, 698
 정범진 638, 641
 정상근 25
 정순기 583
 정영진 752, 755
 정영환 747
 정인규 623
 정일권 17, 195, 211, 215, 223, 245, 250, 252, 260, 297, 337, 341, 445
 정커(Alexander F. Junker) 716
 정희택 29
 제섭 84, 89, 519, 557, 614, 625, 795
 조덕수 199
 조든진 542, 544
 조령 520, 553, 555, 557
 조명석 750
 조병옥 66
 조병옥 7
 조선인민보 133
 조순철 184
 조우전 480
 조이(C. Turner Joy) 271, 670, 703, 719, 765
 조치원 312, 738, 751, 756, 779, 795
 존슨(Louis A. Johnson) 14, 56, 80, 90, 105, 109
 주노함 673, 679, 708, 710, 714, 729
 주은래 76
 주한 미 군사고문단(KMAG) 192, 194, 745, 788
 주한 미 제8군사령부 788
 주한 전방지휘소(ADCOM) 309, 331, 412, 788
 죽령 520, 557, 594
 죽미령 345, 794
 죽변 625, 631
 증평 270, 436, 448, 478, 481, 539, 553
 진천 261, 427, 449, 454, 481, 537, 743, 750, 795

진해해군통제부 41, 263

ㄸ

차갑준 202
 차균섭 617
 차문호 623
 참모학교 167
 채병덕 97, 103, 138, 195, 248, 262, 746
 처치(John H. Church) 57, 96, 102, 138, 180, 192, 245, 268, 337, 412, 780, 801
 천안 312, 386, 393, 416, 455, 750, 756, 771, 784, 794
 청주 261, 427, 443, 455, 563, 743, 751, 796
 최경록 478, 492, 499
 최광 525
 최대명 201
 최덕신 653
 최만호 590
 최병순 142
 최복수 146, 149, 151
 최성악 18
 최성장 18
 최수창 142, 174, 223
 최연 294
 최영구 577
 최영귀 583, 587
 최영희 143, 155, 158, 189, 478, 499
 최용덕 746
 최우식 165
 최윤석 165
 최인덕 165
 최종원 747
 최창식 223

최창언 142, 202
 최충국 525, 560
 최취성 565, 592
 최현 430, 451, 458
 최형식 583
 충주 270, 481, 486, 519, 526, 536, 562, 619, 750
 치안국 16, 23, 286

ㅋ

카디널 오코넬(Cardinal O'Connell)호 96
 코넬리 110
 콜린스 58, 84, 86, 88, 89, 90, 106, 108, 109, 281, 282
 클라크기지 758, 772
 킨케이드(Alvan L. Kincaid) 758

ㄷ

단금대 520, 538, 543, 544
 터너(Howard H. Turner) 758
 통고산 626, 631, 644
 트라이엄프함 705, 720, 721
 트루먼 4, 9, 56, 63, 66, 82, 85, 88, 91, 105, 108, 110, 281, 316, 327, 774
 트리그브 리 66, 67, 83
 탐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 787, 789

ㅌ

패트리지 757, 763, 775, 785, 792, 795
 페리 330, 346, 354, 376
 페이스 58, 79, 80, 89, 98, 106

평양 100, 738, 763, 783, 783, 784
 평양비행장 764, 781
 평택 247, 255, 312, 345, 361, 414, 453, 488, 738, 750, 763, 784, 794
 포항 614, 628, 645, 653, 738, 772
 풍덕천 210, 211, 219, 224
 핀레터 106, 84, 86, 87, 89
 필리핀 758, 761

ㅎ

하병래 565, 583
 하수덕 639, 641
 한경직 6
 한용현 744, 745
 함병선 529, 537, 541, 545
 합동참모본부 11, 58, 66, 93, 96, 266, 280, 281, 282, 283
 해군포항경비부 644
 해군목포경비부 648
 해리만 106
 허성택 37
 허필은 소령 172
 허형순 624, 628
 헤스(Dean E. Hess) 753, 757
 헤즈렛(Robert T. Hazlett) 138, 168
 호주 12, 758
 홍승범 201
 황규면 17
 황기상 577
 휘트니(Courtney Whitney) 102
 히긴스 708, 711, 712, 713
 히커슨 80, 81, 82, 83, 84

6 · 25전쟁사 편찬 자문위원

성	명	직	책
백	선	엽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
김	계	원	(전) 육군 참모총장
황	헌	친	(전) 육군 부관감
김	영	관	(전) 해군참모총장
정	용	근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
장	지	량	(전) 공군참모총장
김	동	호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
김	상	태	성우회 회장
소	진	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김	기	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한	용	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온	창	일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유	재	갑	경기대학교 교수
정	석	균	군사편찬연구소 전문위원

- | | | |
|----------------|-----------------|----------------|
| □ 집필자 | 양영조 선임연구원 | 남정욱 선임연구원 |
| | 손규석 선임연구원 | 박동찬 연구원 |
| | 서규화 육군 중령 | 임성채 해군 중령 |
| | 이준혁 공군 사무관 | |
| □ 전문위원 | 육군 중령 김주흠 | 육군 중령 김양구 |
| | 육군 중령 이석희 | 육군 중령 김창규 |
| □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 | | |
| | 백선엽 자문위원장 | |
| | 김동호 자문위원 | 정용근 자문위원 |
| □ 감수 | 한용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 | 윤창일 교수(육군사관학교) |
| | 유재갑 교수(경기대학교) | 송요태 교수(3사관학교) |
| | 강정현 교수(전 해군대학) | 김광수 교수(육군사관학교) |
| | 이명환 교수(공군사관학교) | 석영준 교수(육군대학) |
| | 정석균 (군편연 전문위원) | 이원복 (군사평론가) |
| | | |

6·25전쟁사 ③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2006년 12월 5일 인쇄

2006년 12월 13일 발행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09-3188 FAX : 709-3111

발행인 안 병 한
 인쇄처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